

東北亞歷史論叢

동북아역사논총

20호 2008. 6

차례

특집 근현대 한중의 국조 인식과 민족문제

- 서영대 | 근대 한국의 단군 인식과 민족주의 7
이용범 | 현대 한국의 단군 인식과 민족문제 53
이준갑 | 근대 중국의 國祖 認識과 민족문제 85
이재광 | 民族主義 이데올로기 영향하에서의 중국 외교정책에 대한 고찰
- ‘炎帝·黃帝 숭배’ 연구를 중심으로 113

논문

- 박선미 | 古朝鮮의 交易와 貨幣使用에 관한 試論的 검토 141
박진석 | 高句麗 柵城 遺址 三考 173
조경철 | 광개토왕대 永樂 연호와 佛敎 217
이병호 | ‘東北工程’ 前史 - 傅斯年의 『東北史綱』 비판 243
전덕재 | 고대 일본의 高麗樂에 대한 기초 연구 285
김호동 | 조선 초기 울릉도·독도 관리정책 333

연구윤리위원회 구성·운영 규칙 364

Contents

Special Issue The Understanding of National Founding Ancestors and the Problem of Nation in Modern Korea and China

- Suh, Youngdae | Ideas on Dangun and Nationalism in Modern Korea 7
- Yi, Yongbhum | The Ideas of Dangun and Nationalism in Modern Korea 53
- Lee, Jungab | Chinese Recognition of Fire Emperor, Yellow Emperor and
Nation in Modern Times 85
- Lee, Jaekwang | Study of Chinese Diplomatic Policy Reflected by the Ideology of
Nationalism–Focused on Emperor Yan and Emperor Huang Worship 113

Articles

- Park, Sunmi | A Study of Old-chosun's Buffer Zone Trade and Coinage 141
- Piao, Zhenshi | The Reconsideration on Koguryo Zhancheng Relics 173
- Jo, Kyungcheoul | Yeongrak era and Buddhism of King Gwanggaeto 217
- Lee, Byungho | When Patriotism Meets Positivist Historiography : The
Critique of Fu Sinian(1896-1950)'s Dong-bei shi-gang 243
- Jeon, Deogjae | A Basic Research on the Komagaku Music of Ancient Japan 285
- Kim, Hodong | Ulleungdo and Dokdo's management policies in the early
Joseon period 333

특집

근현대 한중의 국조 인식과 민족문제



근대 한국의 단군 인식과 민족주의

서영대 | 인하대학교 사학과 교수

I. 머리말

19세기 말, 조선왕조는 대내외적으로 커다란 위기를 경험한다. 안으로는 봉건적 질서가 해체되고 있었으며, 밖으로는 제국주의 열강의 침입에 봉착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민족이 발견되며, 민족주의가 태동하기 시작한다.

동아시아의 전통적 세계관은 天下觀이라 할 수 있으며, 천하관에서는 천하의 중심인 中華와 夷狄의 구분이 있을 따름이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華夷論은 천하관의 주요 구성부분이었다. 물론 천하의 범위, 중화와 이적의 구분 기준이 종족이나 문화냐에 따른 異見은 있었지만, 이분법적 천하관은 동아시아의 전통적 세계관으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¹⁾

천하관은 조선왕조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중국이 만주족의 淸에게 정복당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천하의 중심인 小中華로 자처하기까지 했으

1) 安部健夫, 1972, 「中國人の天下觀念」, 『元代史の研究』, 創文社, 425~526쪽; 山田統, 1981, 「天下という觀念と國家の形成」, 『山田統著作集』 1, 明治書院, 1~81쪽.

며, 제국주의 침략에 대응하는 초기 단계의 논리도 화이론이었다.

그러나 제국주의 침략이 가속화되면서 천하관이나 화이론은 힘을 잃어가고, 대신 서구적인 국민국가 개념이 도입되면서, 민족이 주목되기 시작한다. 그러나 민족이란 실체가 불분명한 주관적으로 설정된 범위이고, 관념 속에서만 존재하는 '상상의 공동체'이다.²⁾ 따라서 민족이란 사회공동체는 스스로의 본질을 규정하고, 자신의 경계(boundary)를 설정해서 공동체 내부의 결속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장치나 방안들을 모색한다. 이때 집단적 과거의 기억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그중에서도 특히 민족공동체의 기원에 대한 기억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즉, 기원이나 뿌리가 같다는 인식이 민족공동체 구성원들의 일체성을 강조하고, 스스로의 경계를 설정하여, 경계 밖의 존재들에 대해 스스로를 他者化한다는 것이다.

민족의 기원을 설명하고 이를 통해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신화나 신화적 존재가 동원된다는 것은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밝혀진 사실이다. 동아시아의 경우, 19세기 말~20세기 초 중국에서는 黃帝의 자손이란 인식을 통해 중국인의 단결을 도모했으며, 明治維新 이후 일본에서는 天照大神으로부터 통치권을 위임받았다는 記紀神話를 통해 천황권의 정당성과 천황의 臣民으로서 일본인의 정체성을 확인했다.

이 점에서는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으니, 단군과 단군신화가 바로 그러한 역할을 했다. 근대 한국에서 단군이란 신화적 존재가 민족정체성 확인과 애국심 고취를 위해 중요한 의미를 지녔던 것이다. 우리 학계에서는 단군을 구심점으로 한 한말의 민족 의식과 민족운동을 '단군 민족주의(nationalism)'라고 하면서,³⁾ 많은 연구를 진행해 왔다. 그 결과 상당한 연구들이 축적되고 있

2) Benedict Anderson, 1991, *Imagined Communities* (revised edition), Verso.

3) '단군 nationalism' 또는 '단군 민족주의'라는 표현은 慎鏞廈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으며, 이후 이를 따르는 연구들이 이어지고 있다. 慎鏞廈, 1980, 「申采浩의 愛國啓蒙思想」, 『韓國學報』 20, 일지사, 111쪽; 慎鏞廈, 1984, 『申采浩의 社會思想研究』, 한길사, 150쪽; 鄭榮薰, 1995, 「檀君과 近代 韓國民族運動」, 『한국의 정치와 경제』 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160쪽; 佐佐充昭, 2000a, 「檀君ナショナリズムの形成」, 『朝鮮學報』 174, 朝鮮學會, 61~107쪽.

는 바,⁴⁾ 여기서는 이러한 연구들을 토대로 한말 단군의 각종 단군운동을 통해, 신화와 민족주의의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국가의 시조에서 민족의 시조로

한말에는 단군의 위상이 강화되고, 단군을 정신적 지주로 한 다양한 민족운동이 전개되었으니, 그것은 조선왕조가 처한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다시 말해서 19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조선왕조는 내우에다 외환까지 겹치면서, 왕조는 물론 민족의 존립마저 위협받는다. 더구나 1905년 이른바 을사보호조약이, 1907년에는 고종의 강제 퇴위와 함께 정미7조약이란 것이 체결되면서, 왕

4) 金龍國, 1973, 「大宗教와 獨立運動」, 『李殷相紀念 民族文化論叢』, 187~200쪽; 朴永錫, 1982, 「大宗教의 民族意識과 獨立運動」, 『韓民族獨立運動史研究』, 일조각, 155~184쪽; 朴永錫, 1984, 「大宗教의 民族意識과 民族獨立運動」, 『日帝下獨立運動史研究』, 일조각, 234~282쪽; 朴永錫, 1987, 「대종교」, 『한민족독립운동사』 2, 국사편찬위원회, 397~430쪽; 朴永錫, 2000, 「대종교」, 『한국사』 46-신문화운동Ⅱ, 국사편찬위원회, 209~224쪽; 千敬花, 1983, 「大宗教의 民族教育運動에 관한 研究」, 『白山學報』 27, 백산학회, 90~116쪽; 李炫熙, 1990, 「大宗教의 光復鬪爭과 臨政主席 李東寧」, 『柳炳德華甲紀念 韓國哲學宗教思想史』, 원광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889~907쪽; 조원섭, 1997, 「항일투쟁과 민족교육 가운데서의 대종교의 역할」, 『연변문사자료』 8, 연변조선족자치주위원회 문사자료위원회, 100~111쪽; 황민호, 2001, 「대종교의 항일민족운동」, 『일제하 경기도 지역 종교계의 민족문화운동』, 경기문화재단, 289~322쪽; 佐佐充昭, 2000b, 「韓末における檀君敎の「重光」と檀君ナショナリズム」, 『朝鮮學報』 180, 朝鮮學會, 29~63쪽; 佐佐充昭, 2003, 『한말·일제시대 檀君信仰運動의 전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서영대, 2001, 「韓末의 檀君運動과 大宗教」, 『한국사연구』 114, 한국사연구회, 217~264쪽; 오영섭, 2004, 「대종교 창시 이전의 나인영의 민족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39, 한국민족운동사학회, 191~236쪽; 서영희, 2006, 「대한제국기 단군 인식과 근대적 민족 의식의 형성과정」, 『한국사의 단군 인식과 단군운동』, 국제평화대학원출판부, 253~291쪽; 이지원, 2007, 「한말 일제초기의 국수적 민족문화 인식」, 『한국 근대문화사상사연구』, 혜안, 64~70쪽.

조와 민족의 운명은 풍전등화에 이른다. 이에 국가와 민족의 수호를 위해 민족의 단결이 강조되었으며, 결속을 위한 구심점으로 단군의 존재가 주목되었다.

이 시기 단군의 부각은 여러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를 대별하면 사회적 차원에서의 단군운동과 종교적 차원에서의 단군운동이 있었다. 그리고 사회적 차원에서의 단군운동으로는 언론에서의 단군 강조, 역사에서의 단군 교육, 단군 유적 주목 등이 있는 바, 이것부터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신문·잡지의 단군 의식 고취

근대 민족주의 형성에 기술적 수단을 제공한 것은 신문이었다. 신문은 많은 사람들이 거의 동시에 접하는 1일의 베스트셀러로서 엄청난 대중 의식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⁵⁾ 마찬가지로 한말 민족 의식 고취의 일환으로 단군의 존재를 부각시키는 데 앞장섰고, 그 결과 단군 인식의 확산에 크게 기여했던 것은 신문이었으며, 여기에 잡지도 가세하여 일익을 담당했다.

1) 단군의 위상 강화와 단군 자손 의식 보급

신문이나 잡지에서 단군의 존재가 새롭게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1905년 을사보호조약 이후부터이다. 그것은 단군의 위상을 크게 높이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1) 고려·조선시대의 단군 인식

단군의 존재는 한국사의 시작이라는 의미에서 이전부터 중시되고 있었다. 특히 13세기 몽골의 침입이란 사상 미증유의 국난을 경험하면서 그 존재는 더욱 뚜렷해졌다.⁶⁾ 그것은 역사공동체라는 의식을 강조함으로써 몽골의 침입에 저

5) Benedict Anderson, 1991, p. 25 · 35.

6) 단군에 관한 最古의 기록인 『三國遺事』와 『帝王韻紀』는 근거 자료의 차이·저자들의 사상적 경향의 차이 등으로 말미암아, 단군 인식에 있어 상이점이 없는 것은 아니

향할 수 있는 정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이 점은 13세기 이전의 역사계승 의식을 살펴보면 분명해진다. 즉, 12세기까지만 하더라도 고려의 역사적 위치를 부여함에 있어, 고구려 계승 의식과 신라 계승 의식이 갈라져 있었다. 그리고 이것이 정치세력의 이해관계와 겹쳐질 때, 金富軾과 妙淸의 대립처럼 고려사회의 분열을 조장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⁷⁾ 따라서 몽골의 침입에 대해 국가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서는 역사공동체 의식의 강조가 시급히 요청되었을 것이다. 13세기에 단군의 존재가 국가의 시조로서 부각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였다. 다시 말해서 단군은 한국사의 근원이며, 삼국이든 고려든 모두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인식을 강조함으로써 역사공동체 의식을 뒷받침하고, 나아가 고려사회 내부의 결속을 호소했다는 것이다.

단군에서부터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인식은 조선시대로 오면서 더욱 확고해진다. 우선 국가 차원에서 ‘朝鮮始祖’임을 인정하고⁸⁾ 단군을 국가제사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조선시대부터이다. 그리고 관찬·사찬을 막론하고, 조선시대의 모든 史書들은 단군에서부터 한국사를 서술하고 있다.

그런데 조선시대 대부분의 문헌에 수록된 단군전승은 고려시대의 그것과 다르다. 즉, 단군의 부계·모계가 빠지고 단군이 직접 하늘에서 太白山 檀木 아래로 내려왔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천년이 넘는 단군의 통치 기간도 단군의 자손이 대를 이어가면서 재위한 헛수의 합산으로 간주했다. 이것은 유교적 합리주의를 지향하는 조선시대 지배층이 기존의 단군신화를 非神話化(demythization)한 결과이다.⁹⁾ 그렇다고 할 때 단군의 존재를 무시하지 않고 신화를 개작까지 해가면서 단군의 존재를 인정하려 했다는 것은 그만큼 단군

다. 그러나 단군을 한국사상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 개국의 시조로 자리매김한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이것은 이 시기에 단군의 국조로서의 위치가 확고해졌음을 의미한다.

7) 이규보의 「동명왕편」은 경주 지역의 신라부흥운동에 대항하여 고구려 계승 의식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8) 『世祖實錄』 권4, 세조 2년 7월 庚辰.

9) 徐永大, 1994, 「檀君關係 文獻資料 研究」, 『檀君-그 理解와 資料』, 서울대학교출판부, 71~72쪽.

의 역사적 위치가 확고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렇듯 단군을 ‘조선시조’로서 받들었다고 할 때, 시조의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해진다. 그런데 조선시대에는 단군을 가리켜 ‘동방 최초의 군주(東方首出之君)’ 또는 ‘동방에서 처음으로 천명을 받은 군주(東方始受命之主)’¹⁰⁾라고 했다. 다시 말해서 최초의 군주라는 의미에서의 시조이다. 전통시대에는 군주가 곧 국가였다. 이 논리를 적용한다면 단군은 국가의 시조로서 받아들여졌다는 것이다.

또 조선왕조에서는 단군이 국가제사의 대상이 되었다고 했는데, 무엇을 기대한 것이었을까? 혈연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전왕조의 조상은 현재의 국왕에게는 ‘정치적 의미에서의 조상(political ancestor)’이다. 이러한 정치적 조상들을 국가에서 제사하는 목적은 국가가 한 가문의 사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이전 왕조의 카리스마를 계승했다는 정통성을 과시하기 위해 서라고 한다.¹¹⁾ 그렇다고 할 때 국가에서 단군을 제사한 것도 국왕이란 존재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위한 것이었다고 하겠다.

그리고 대한제국 초기에 ‘檀箕(단군과 기자)以來’란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¹²⁾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보통 단군·기자 이래 큰 업적을 이루었다는 것으로, 군주의 공덕을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檀箕로 병칭되더라도 단군의 위상은 箕子보다 낮게 평가되었다. 그것은 조선시대 역사서에서 기자는 본기에서 언급된 데 비해 단군은 外紀에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던 점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또 단군의 시대는 미개한 시대였고, 기자에 와서 비로소 문명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역사적 공적에

10) 『太祖實錄』 권1, 太祖 원년 8월 庚申.

11) 정치적 조상이란 개념 및 의미에 대해서는 Howard J. Wechsler, 1985, *Offerings of Jade and Silk-Ritual and Symbol in the Legitimation of the Tang dynasty*, Yale University Press, pp. 137~141 참조.

12) 예컨대 『高宗實錄』 권36, 光武 원년 10월 13일 詔書; 光武 원년 11월 9일 閔泳駿 疏.

있어서는 기자가 더 훌륭하다고 했다. 그래서 단군과는 달리 기사를 언급할 때는 극존칭을 사용하기까지 했다. 1898년 9월 5일자 『황성신문』의 사설은 이러한 사실을 집약해서 보여주고 있다.

昔我東方에 檀君이 初降ᄃᆞ매 人文이 未創ᄃᆞ야 其傳來ᄃᆞ난 文獻이 足히 徵할배 無我ᄃᆞ더니 箕子ᄃᆞ께서 八條를 設하샤 人民을 教育ᄃᆞ시니 可히 我東의 初出頭한 第一個聖人이라 謂할지라.

이러한 상황이니만큼, 조선시대에는 단군에게서 국가의 정신적 구심점이 되기를 기대한 것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왕조 질서하에서 구심점은 現王朝의 국왕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2) 단군의 위상 강화

을사보호조약 이후 일제의 국권 침탈이 가속화되면서, 신문이나 잡지에서 단군에 대한 언급이 부쩍 늘어난다. 그 내용은 주로 ‘단군이래’ 또는 ‘단기이래’라는 짧은 표현이 많지만, 이러한 표현을 자주 사용함으로써 대중에게 단군의 존재를 깊이 각인시키는 역할을 했다. 그리고 나아가 민족사의 유구성을 부각 시킴으로써 민족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게 하는데도 일익을 담당했을 것이다.

그리고 1906년을 전후하여서는 신문·잡지의 기사인데도 단군에 대해 존칭을 사용하기 시작한다. 우선 단군을 언급할 때 높임말을 썼으며, 단군을 지칭할 때도 격상된 칭호를 사용했다. 檀聖이니 大皇祖니 하는 것이 그것이다.¹³⁾ 나아가 단군시대는 자료가 없어 애매하다느니 미개하다느니 하는 표현이 사라지고, 문명한 시대로 그려진다.

이러한 과정에서 단군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단군과 기자가 대등하게 묘사되며, 1910년으로 가면서 서서히 위치의 역전마저 이루어진다.

13) 『皇城新聞』, 1907. 8. 26, 開國紀元節慶祝, “檀聖이 奠之於前하시고 箕王이 修之於後하시니”; 『西友』, 1906. 12. 1, “檀君의 名은 王儉이니 太白山 檀木下에 降ᄃᆞ사 支那 唐 堯戊辰에 立而爲君ᄃᆞ시니 神而有智ᄃᆞ시고 國號를 朝鮮이라 ᄃᆞ다.”

(3) 단군 자손 의식의 대두

한말에도 단군의 출생과 건국, 재위 연수에 대한 전승은 조선시대의 것이 그대로 통용되었다. 즉, 神人 단군이 직접 태백산으로 하강하여 고조선을 건국하고 평양에 도읍했다는 것이다.¹⁴⁾ 그러니까 『삼국유사』나 『제왕운기』가 전하는 신화적 성격이 강한 단군 전승을 주목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려는 시도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한말로 오면서, 단군은 민족의 공통시조이고, 우리 민족은 단군의 후손이며, 따라서 단일민족이란 인식이 나타난다. 이것은 당시 신문 등에 ‘檀君子孫’·‘檀君血孫’·‘檀君後裔’·‘檀君苗裔’란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

한민족은 단군 자손이란 인식이 기록상 처음 확인되는 것은 1908년부터이다. 즉, 『大韓每日申報』의 경우 1908년 1월 1일자 논설 「新年頌祝」 중의 “檀君始祖子孫으로 이 國家를 이질손가”라는 표현에서 처음 등장한다. 또 『皇城新聞』에서는 이보다 약간 늦은 1908년 3월 13일자 논설 「凡今之人은 莫如兄弟」, 중의 “二千萬民族은 同一檀君子孫이니”라는 표현에서 처음 확인된다.

그러나 『황성신문』의 경우는 단군과 기자의 후손이란 표현이 먼저 등장한다. 즉, 3월 4일자 논설 「祝賀海朝新聞」에서 “我韓民族이 俱是檀君箕子の 神聖後裔로”라 했다든지, 3월 12일자 논설 「根本的 改良」에서 “我韓民族이 原俱是檀君箕子後裔라”는 것이 그것이다. 그리고 한동안 단군의 후손이란 표현과 단군·기자의 후손이란 표현이 함께 사용되다가, 1910년 전후부터는 기자에 대한 언급이 자취를 감추는 것 같다. 이것은 『황성신문』이 개신유학자들에 의해 제작되었고, 또 유학자가 주된 독자층이었음을 생각할 때,¹⁵⁾ 기자의 존재를 간과하기는 어려웠던 탓이 아닌가 한다.

그렇지만 단군은 민족의 조상이란 인식이 처음 등장한 것을 1908년부터라

14) 한말의 교과서나 신문 등에 보이는 단군에 대한 기록은 대부분이 이런 유형이다.

15) 崔起榮, 1997, 「『皇城新聞』의 역사관련기사에 대한 검토」, 『韓國近代啓蒙運動研究』, 일조각, 2~4쪽.

고 못박기는 어렵다. 『大韓每日申報』의 경우, 단군 자손이란 말이 처음 등장한 지 일주일도 안된 1월 7일자 독자의 寄書 「生호 我大韓帝國」에도 “四千二百餘年 獨立歷史를 有호 檀君의 血孫 二千萬同胞여”라고 보인다. 이렇듯 신문사측 뿐만 아니라 독자층에서도 단군 혈손이란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은 이러한 인식이 상당히 널리 퍼져 있었음을 반영한다. 따라서 이러한 인식은 1908년 신년 벽두에 갑자기 등장했다기 보다 그 이전부터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겠다.

그렇다면 그 시기를 어디까지 소급할 수 있을까? 그런데 조선시대까지만 하더라도 민족 전체가 단군의 후손이란 관념이 있을 수 없었다. 첫째, 단군의 후손에 대한 기록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1672년에 나온 洪如河의 『東國通鑑提綱』 같은 사서에서는 “나라가 끊어지고 후손이 없다(國絕無嗣)”라고 까지 했다.¹⁶⁾ 이러한 논리라면 단군이 민족의 시조가 될 수 없다. 둘째, 민족이란 관념이 성립되어 있었는지는 두고라도, 엄격한 신분제 사회에서 왕·양반·평민, 심지어 천인까지 신분을 초월하여 공통의 조상을 가진 혈족 내지 대가족이란 논리는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나아가 불경스럽기까지 한 것이기 때문이다.¹⁷⁾ 따라서 한말 이전에 민족은 단군 자손이란 의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단군 자손 인식의 시기를 마냥 소급할 수는 없으며, 1908년보다 조금 앞서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한다. 기록이 처음 등장하는 시기를 무조건 무시할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단군의 자손이란 의미는 무엇일까?

단군 자손 의식이 등장하는 시기는 일제가 한국의 국권 침탈에 박차를 가하던 시기이다. 1905년 소위 을사보호조약을 통해 외교권을 박탈했고, 1907년 한일신협약(정미7조약)을 통해 한국의 내정을 일일이 간섭할 수 있는 권한을 장악했으며, 얼마 남지 않은 한국의 군대마저 해산했다.

일제의 국권 침탈은 한국인으로 하여금 타자와 구별되는 자아에 대한 인식

16) 1679년에 완성된 洪萬宗의 『句五志』(상)에 “檀君乃東方生民之鼻祖”(『洪萬宗全集』上, 태학사, 1980, 4쪽)라는 표현이 있다. 그러나 이것을 민족의 시조란 표현과 등치시킬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17) 佐佐充昭, 2000a, 앞의 글, 71쪽.

을 뚜렷하게 했다. 한편 봉건체제의 붕괴는 자아 내부의 계층적 질서를 동요시켰다. 즉, 타자와의 사이에 세로선이 뚜렷해진 반면, 내부의 가로선은 점차 희미해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민족의 존재가 발견되고, 그 결과 군주 대신에 민족이 국가의 중심 개념으로 부상한다.

당시 국가는 일종의 대가족으로 이해되고 있었다.¹⁸⁾ 그런데 국가의 중심은 민족이란 입장에서 볼 때, 민족이 곧 대가족이다. 즉, 민족은 핏줄이 같은 혈연 공동체라는 것이다. 민족을 상상의 공동체(imagined community)라고 한다면, 그것이 성립되고 유지되는 데에는 상상의 근거가 필요하다. 이 경우 흔히 동원되는 것이 고대 왕조의 위대한 사건이나 위대한 지도자이다.¹⁹⁾ 또 압도적인 외세의 충격 앞에서 자기를 지키려는 '토착주의 운동'(nativistic movement)의 경우, 현실에서 저항과 결속의 논리를 찾을 수 없다면, 과거의 문화 전통을 되살리려는 경향(revivalistic nativism)이 있음도 지적된 바 있다.²⁰⁾ 그렇다고 할 때 일종의 대가족인 민족의 존재를 상상하는데, 조상, 그중에서도 먼 고대의 시조만큼 구체적인 자료는 없다. 혈연공동체는 조상의 뿌리가 되는 시조의 존재로 말미암아 성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단군만큼 확실한 상상의 근거를 제공하는 시조는 찾기 어렵다.

그것은 첫째, 단군은 한국사상 최초의 국가인 古朝鮮의 건국 시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檀君은 한국사의 출발점이라 하겠으며, 나아가 한국사에 등장하는 어떤 왕조의 건국 시조보다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둘째, 단군은 悠久性의 表象이기 때문이다. 단군이 고조선을 건국한 것은 기원전 2300년경이며, 중국에서는 堯 임금에 있을 때라고 전해진다. 堯는 한 때 중국의 시조로 여겨졌던 것 같다. 왜냐하면 『書經』에서는 堯에서부터 중국사를 서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堯와 동시대 인물인 단군에 의해 한국

18) 『大韓每日申報』, 1908. 7. 31, 論說「國家는 卽一家族」; 『大韓每日申報』, 1908. 9. 4, 論說「打破 家族的 觀念」; 『大韓每日申報』, 1909. 5. 13, 論說「國은 卽一家」.

19) Benedict Anderson, 1991, p. 109.

20) Ralph Linton, 1972, "Nativistic Movements," Lessa & Vogt eds., *Reader in Comparative Religion*, Harper & Row, pp. 497~503.

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한국사가 중국사에 못지않게 유구함을 의미한다.

셋째, 한국 역사와 문화의 독자성의 표상이기 때문이다. 단군의 出自는 기록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단군이 하늘과 직결되는 존재라는 점에서는 이설이 없다. 다시 말해서 단군이란 천손에 의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가 시작되었다는 점에서는 기록이 일치한다. 이것은 한국의 역사나 문화가 다른 국가, 예컨대 중국으로부터 파생 내지 分封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독자성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넷째, 하늘과 연결되는 존재라는 점에서 국가와 민족의 신성성을 뒷받침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한국 사회의 同質性의 표상이기 때문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국사에서는 많은 국가나 왕조들이 흥망을 되풀이했다. 그러나 이들 국가나 왕조는 단군에서 비롯된 역사 전통을 계승했다는 역사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의 근원을 소급하면 단군으로 歸結된다는 역사 인식이 일찍부터 성립되어 있었다. 이것은 한국인의 경우, 혈통이 비교적 단일하고, 역사적·문화적 경험을 공유한 부분이 많았던 데서 기인하는 것이겠지만, 이러한 사실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 단군이란 것이다. 한국인에게 있어 동질성을 확인시켜 주는 토대의 하나가 단군이란 것은 이러한 의미에서이다.

이렇듯 단군은 민족에 대한 확실한 상상의 근거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민족으로 하여금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한 토대였다. 그래서 당시 언론 등에서는 단군을 ‘檀君聖祖’, 우리 민족을 ‘神聖民族’, 우리 역사를 ‘神聖歷史’라 표현하면서 민족의 자부심을 고취하고자 했다. 『皇城新聞』 1908년 9월 12일자 논설 「夢拜白頭山靈」의 일절은 이러한 사실을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다.

我大韓民族은 神聖하신 檀君의 子孫으로 皇天의 寵賜하심을 蒙아야 世居此土에 休養生息이 今四千餘載인즉 可謂 文明古國에 優等民族이라 自爾祖先으로 皆其天職을 克修하며 世業을 勿失하야 太平의 福樂을 享有하더니.

여기서 나아가 1910년경부터는 단군을 한민족뿐만 아니라, 동북아 여러 종족의 공통 시조라고 보는 입장까지 나왔다. 예컨대 단군의 “子孫이 白頭山 南北에 分處하야 一은 朝鮮族이 되고 一은 滿洲族이 된지라”라든지,²¹⁾ 단군의 三千團部에서 女真族·清族·肅慎·挹婁·勿吉·靺鞨·鮮卑·契丹이 갈라져 나왔다는지²²⁾ 하는 것이 그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단군 자손 의식의 확대라 할 수 있겠다.

그런데 한 가지 언급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단군 자손 의식의 등장을 일본 근대 민족주의의 영향으로 보는 견해이다.²³⁾ 즉, 明治維新 당시 일본의 국민 통합 이데올로기인 家族國家論(일본은 천황을 親, 국민을 子로 한 국가)이나 日本主義運動(天照大神을 國祖로 숭봉하는 新神道를 일본의 國敎로 삼으려는 운동)의 영향으로 단군 자손 의식이 출현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撰園史話』를 비롯한 仙家の 연장선상에서 단군 자손 의식을 이해하는 견해도 있다.²⁴⁾ 전자를 영향설이라 한다면, 후자를 자생설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영향설의 경우, 신화적 시조의 자손임을 내세워 당면한 민족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중국에도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근대 중국의 ‘黃帝子孫說’이 그것인데, 황제자손설이란 중국민족은 신성한 황제의 자손이며, 따라서 중국민족은 신성민족이란 설이다. 이 설은 19세기 말부터 등장하며, 그것을 처음 주창한 것은 康有爲나 梁啓超 같은 개량파들이었다. 그 목적은 중국민족 단결의 근거를 만드는 데 있었으며, 이때 중국민족 속에는 한족뿐만 아니라 만주족도 포함되는 것이었다. 황제자손설은 1903년 무렵부터는 청조 타도를 부르짖는 혁명파들에 의해 수용되면서 중국 전역으로 확산되어갔다. 그러나 혁명파가 지칭하는 중국민족이란 한족에 국한된다는 점에서 개량파의 그것과 달랐고, 이런 의미에서 배타적 성격이 강했다. 따라서 신해혁명 이후, 개량파나 무정부주의자들의 비판에 의해 황제자손설은 생명력을 상실하

21) 『皇城新聞』, 1910. 4. 21, 論說「我民族의 神聖歷史」.

22) 『皇城新聞』, 1910. 8. 9, 論說「我檀君子孫의 氏族과 疆土와 敎化의 歷史」.

23) 佐佐充昭, 2000a, 앞의 글, 86~87쪽; 佐佐充昭, 2000b, 앞의 글, 41~45쪽.

24) 鄭榮薰, 1995, 앞의 글, 13~19쪽.

고 말았다.²⁵⁾

그런데 황제자손설의 논리는 단군자손설과 흡사한 면이 많다. 또, 황제자손설을 처음 거론했던 양계초의 사상은 한말 애국적 지식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단군자손설이 황제자손설의 영향일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편 자생설의 경우, 단군 자손 의식은 전근대 사회에서 통용되기 어려운 근대적 담론이므로, 어떤 계기 없이 선가의 연장선상에서만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어느 쪽을 따를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조선 후기에 단군의 존재가 위로는 지배층에서부터 아래로는 피지배층에 이르기까지 확고하게 인식되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고종 8년(1871) 영해·문경 등지에서 민란을 주도한 李弼濟가 스스로를 단군의 화신이라 하며 사람들을 끌어들이고자 한 사실,²⁶⁾ 등은 단군의 권위에 대한 인식이 보편화되었음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정유재란 때 일본으로 끌려간 陶工들이 鹿兒島縣 苗代川과 笠野園에 단군을 제사하는 玉山神宮을 건립한 사실이 있는데,²⁷⁾ 이것은 도공과 같은 천민들까지도 단군을 통해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고자 했음을 짐작케 한다. 그리고 1876년에 간행된 『關帝聖蹟圖誌全集』의 표지에 간행처를 檀國顯聖殿이라 했는데(그림 1), 여기서 단국은 단군의 나라, 즉 우리나라를 가리킨다. 그렇다고 할 때 19세기 후반에는 한국을 단국이라 할 정도로 단군은 국가

25) 孫隆基, 2000, 「清季民族主義與黃帝崇拜之發明」, 『歷史研究』 2000-3; 高強·田延峰, 2003, 「試論清末“黃帝子孫”稱謂的勃興」, 『寶鷄文理學院學報』 2000-3; 高強, 2001, 「清末革命派尊黃現象述論」, 『安徽史學』 2001-4; 高強, 2002, 「革命派與改良派關於“黃帝子孫”稱謂的歧爭」, 『煙台大學學報』 2002-3; 高強, 2007, 「近百年炎黃文化研究的回顧與思考」, 『炎黃文化研究』 5, 大象出版社; 梁景和·賴生亮, 2007, 「清末“尊黃”思潮與民族主義」, 『河北師範大學學報』 2007-1.

26) 『道源記書』(『東學思想資料集』 1, 아세아문화사, 1979, 215쪽).

27) 金義煥, 1992, 「日本 鹿兒島縣 苗代川·笠野原의 玉山宮(檀君祠堂)과 그곳에 전해오는 우리말의 歌舞·祝詞에 대하여」, 『朴永錫教授華甲紀念 韓國史學論叢』 상, 논총간행위원회, 1177~1200쪽. 최근 苗代川 玉山神社의 祭神이 처음부터 단군이 아니라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 原田一良, 2005, 「薩摩 苗代川 玉山宮에서의 檀君祭祀 검토」, 『한국 신을 모시는 일본의 신사』, 한국학중앙연구원, 209~239쪽.



〈그림 1〉 光緒 丙子(1876, 고종 13년)에 간행된 『關帝聖蹟圖誌全集』의 표지

가 많다. 우선 단군의 후손만이 이어져 민족 전체가 되었다는 사실부터 분명하지 않다.²⁸⁾ 그래서 金澤榮(1850~1927)은 『韓國歷代小史』(1922)에서 “지금 조선의 종족에 檀氏는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여, 단군이 민족의 시조라는 점을 부정했다.³⁰⁾ 또 箕子東來說이 움직일 수 없는 사실로 믿어지고 그 후손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민족을 단군의 자손으로만 한정하는 것도 문제였다.

의 시조로서 널리 인식되고 있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한말에 단군 자손 의식이 출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단군 인식의 보편화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 한말 이전에 단군의 역사적 위치가 확고하지 않았더라면, 한말 단군 자손 의식이 출현할 수 없었음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²⁸⁾

단군 자손 의식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한 바는 무엇이었을까?

동북아 여러 종족의 공통 시조라는 것은 두고라도, 단군이 민족의 공통 시조라는 논리에는 문제

28) 한국무속사 자료로 『巫黨來歷』과 「巫黨城主祈禱圖」가 있는데, 이들 자료는 무속祭次를 글과 그림으로 설명하면서 무속의 기원을 단군에서 구한 것이다. 이들 자료는 제작 연대 미상이지만, 과거 19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측되어 왔으며, 이러한 통설에 따라 필자도 이들 자료를 19세기에 단군 인식이 기층사회에까지 널리 보급된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현재는 이들 자료가 19세기의 것이 아니라, 단군자손이란 의식이 보급된 이후의 것, 즉 20세기의 산물로 생각하고 있다.

29) 단군의 자손에 대한 기록이 전무한 것은 아니다. 예컨대 李宜白의 『梧溪日誌集』에서는 李氏를, 李德懋의 『靑莊館全書』 58 叢葉記 5 一人祖加倍數에서는 徐氏를 단군의 자손이라 했다.

30) 崔惠珠, 1996, 『滄江 金澤榮의 韓國史論』, 한울아카데미, 80~81쪽.

이러한 문제점들은 당시에 인식되고 있었으며, 나름대로 답변도 준비되어 있었다. 예컨대 “自漢土移住호 同胞도 我檀君血族과 婚媾相遞호야 以生以育호얏스 卽 또호 檀君子孫이 아니라 謂키 不可호도다”라는 것이 그것이다.³¹⁾ 그러나 이 정도의 답변으로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단군의 후손이란 의식은 학문적 논증에 입각한 결론이라기보다, 선언적 의미가 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군은 민족의 공통 시조이며, 민족은 단군의 자손이란 의식은 급속히 확산되었다. 그것은 이러한 인식이 당시 상황에서 실천적 의미를 지녔기 때문이다. 한말의 당면과제는 일제의 침탈에 대하여 국권을 수호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요청되는 것은 저항을 뒷받침하고 조직화할 수 있는 이념이었다.

왕조체제에서 이런 경우 동원될 수 있는 명분은 忠君愛國 내지 勤王의 논리이다. 후기의병의 酬恩報怨의 논리, 즉 군주의 은혜에 보답하고 군주의 원수를 갚는다는 논리가 바로 그것이다.³²⁾ 그러나 일제의 침략 앞에 군주는 너무나 무력했다. 자결을 해야 한다는 요청에³³⁾ 부응하지 못했고, 헤이그 밀사사건으로 말미암아 일제에 의해 강제 퇴위되기까지 했다. 여기에 사회계약론과 같은 새로운 사상들이 유입되면서 군주=국가관이 부정되었으며, 심지어 군주제의 폐단을 지적하면서 공화정을 지향하는 움직임까지 있었다.³⁴⁾ 그러므로 충군애국이나 근왕은 저항과 결속의 논리로서 설득력을 상실했다고 하겠으며, 이에 따라 충군애국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논리가 모색되어야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군 자손 의식은 우선 타자와 구별되는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준다. 나아가 민족이 곧 운명공동체라는 사실을 일깨워 준다.

31) 『皇城新聞』, 1910, 8. 10, 論說「我民族의 思想 統一의 機關」.

32) 木村幹, 2000, 「臣民からネーションへ」, 『朝鮮/韓國ナショナリズムと小國意識』, ミネルヴァ書房, 103~104쪽.

33) 趙東杰, 1989, 「義兵運動의 韓國民族主義上의 位置(下)」, 『韓國民族主義의 成立과 獨立運動史研究』, 지식산업사, 67쪽.

34) 유영렬, 1999, 「애국계몽사상」, 『한국사』 43, 국사편찬위원회, 263~277쪽.

『황성신문』 1908년 3월 13일자 논설 「凡今之人은 莫如兄弟」의 일절은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준다.

嗚呼라 我韓三千里 江山은 俱는 白頭枝脈이오 二千萬 民族은 同一檀君
子孫이니 其血脈의 聯絡과 聲氣의 密接과 痛癢의 相關이 於死生榮辱과
利害禍福에 義無獨殊오 勢必同歸라.

여기서 운명공동체가기 때문에 민족이 저항의 단위가 되어야 하고, 때문에 단결해야 할 당위성을 제시한다.

我全體民族의 始祖 檀君을 紀念하고 敬慕하고 血統의 密接과 天倫의
篤愛를 致하면 上中下流의 家族觀念도 融釋되고 東西南北의 地方觀念
도 融釋되고 東教西教의 信仰은 不同하나 均是一祖의 子孫된 觀念을
存홀지니 此 엇지 我民族의 思想統一의 機關이 아니리오. 此를 推而極
之하고 漸次發展하는 境遇에는 二千萬民族의 思想을 統一할뿐아니라
徵古諸史하건대 北齊主 高歡氏가 高句麗와 宗誼를 敍함이 有하고³⁵⁾ 金
太祖가 高麗를 對하야 父母之邦으로 待遇한 國書가 有하고 今淸國의
滿洲族은 卽 金人의 後裔이니 我始祖의 歷史를 發展케 하면 滿族數千
萬이 또한 同一檀君의 子孫이라 謂홀지니 此個 倫理思想이 發達한卽
足히 東洋世界에 大宗의 誼를 講修홀지르다.

이것은 『皇城新聞』 1910년 8월 10일 論說 「我民族의 思想 統一의 機關」의 일부인데,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단군 숭배가 민족 내부의 모든 차별을 극복하고 사상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진족·만주족까지 포용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³⁶⁾

35) 광개토왕 때 北燕의 高雲이 사신을 파견하여 고구려와 같은 종족임을 밝힌 사실(『資治通鑑』 권114, 晉紀 36, 安帝 義熙 4년 3월)의 잘못이다..

36) 朴殷植의 「大東古代史論」(1992, 『韓國學報』 67, 일지사, 240~241쪽)의 일절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天地之進化日新 而人智之進步日增 家族主義進而爲民族主義者 以其爲民族競爭之時代故也 既有對他之競爭 不可不求吾同族之相助矣 不可不遡吾所自出之本原 以明其血統之關係 以發其親愛之情 根此現世各族以發達

이상에서 언급한 바를 요약한다면, 1908년경부터 단군은 민족의 공통 시조이며 우리 민족은 모두 단군의 혈연적 자손이란 의식이 등장했으며, 이것은 민족정체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로 작용했다. 그리고 이것은 일제의 침략에 대한 저항 민족주의의 근거로서 실천적 의미를 가진 담론이었다는 것이다.

2) 檀紀의 사용

한편 한말부터 단군의 건국을 기점으로 해서 연대를 파악하는 檀君開國紀年, 즉 단기가 연호의 하나로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그것을 시작한 것은 신문에서였다.

전통사회에서 연대는 간지나 군주의 연호에 따라 파악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조선시대의 경우, 간지와 함께 중국 明清의 연호로 연대를 표기했다. 그러다가 1894년 갑오경장을 계기로 새로운 기년법을 사용하기 시작하는데, 태조 이성계가 조선왕조를 건국한 1392년을 기점으로 연대를 파악하는 開國紀元이 그것이다.³⁷⁾

그런데 1905년부터 단군개국 기년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즉, 이해부터 신문의 연도 표시란에 단군개국 기년이 등장한다.³⁸⁾

물론 단군의 건국이 지금부터 몇 년 전이란 인식은 이전에도 있었다. 예컨대 李承休는 『제왕운기』에서 단군의 개국 연대를 기원전 2354년으로 보았으며,³⁹⁾ 고려 말의 白文寶는 단군에서 공민왕 때까지를 3600년이라 했다.⁴⁰⁾ 또

其祖先歷史 爲自強自主之精神 對他競爭之助力者也……嗚呼 我大東民族 有四千年之歷史者也 四千年歷史之祖誰也 太白山檀木下天降神人 吾始祖也.”

37) 『高宗實錄』 권32, 高宗 31년 7월 1일.

38) 『皇城新聞』에서는 4월 1일부터, 『大韓每日申報』에서는 8월 11일부터 '단군개국' 연호를 사용했다. 또 미주 신문인 『新韓民報』도 9월 15일부터 建國紀元이란 이름으로 단기를 사용했다. 조동걸, 1987, 「국사연구와 한말사서」, 『한민족독립운동사』 2, 국사편찬위원회, 114쪽 주 30.

39) 신라 경순왕이 고려에 항복한 935년에 대해 “我太祖十八年也 自檀君戊辰 至此凡三

한말 국사 교과서들도 현재 또는 조선왕조 건국을 기점으로 단군 건국의 연대를 환산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을 단군개국 기년의 사용이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단군 건국에서 현재까지의 연대가 누적된 체계로서 파악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단기를 처음 사용할 때, 신문들은 1905년을 단군개국 4238년이라 했다. 즉, 기원전 2333년이 단군 건국 연대라는 것이다. 그런데 단군의 개국 연대는 이를 전하는 最古의 사서인 『삼국유사』와 『제왕운기』부터가 서로 다르다. 또 조선시대에는 『동국통감』 이래로 이들과도 달리, 중국의 唐堯 25년 무진설을 통설로 삼았다.⁴¹⁾ 이것을 서기로 환산하면 바로 기원전 2333년이다. 따라서 한말에 처음 사용되기 시작한 단군개국 기년은 조선시대의 통설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개화기 교과서에서는 단군의 건국 연대를, 1905년 이전에는 기원전 2343년이라 했다가, 1905년 이후에는 모두 기원전 2333년이라 했다.⁴²⁾ 따라서 단군개국 기년의 사용과 더불어 단군 건국=기원전 2333년이란 연대관이 확립되었고, 이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진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개국 기년의 사용은 당시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추진되고 있었다. 이 점에 있어 앞선 것은 일본이다. 일본에서는 1872년 太政官布告 제342호에 의해, 초대천황 神武가 일본을 건국한 기원전 660년을 기점으로 연대를 표시하는 神武天皇紀元(=皇紀)이 정식 기년법으로 채택된다. 이렇듯 황기가 법제화됨에 따라, 이후 공·사문서에는 황기 사용이 공식화된다.⁴³⁾

千二百八十八年”이라 했는데, 이를 환산하면 단군 건국 연대는 기원전 2354년이 된다.

40) 『高麗史』 권114, 列傳 27, 白文寶.

41) 이것은 西晉 皇甫謐의 『帝王世紀』나 北宋 邵雍(1011~1077)의 『皇極經世書』에 따라 요 원년을 갑진년으로 보고, 고조선의 건국을 요 25년인 무진년으로 간주한 것이다.

42) 朴晶東의 『初等大東歷史』에서 ‘我韓開國紀元前 3727年’, 즉 기원전 2336년이라 한 것은 오자가 아닌가 한다.

43) 吉田隆久, 1998, 『皇紀・万博・オリンピック』, 中公新書, 2~6쪽.

한편 중국에서는 20세기 초 清末 청조 타도를 부르짖는 혁명파들이 등장하는 시점에서, 황제자손설과 황제의 출생년을 基點으로 하는 黃帝紀元의 사용이 주장된다. 이 과정에서 황제기년의 기점에 대해서는 기원전 2711년이란 설과 기원전 2698년이란 설이 병존하고 있어 약간의 혼란이 있기도 했지만, 중국인들 사이에서 상당한 공감을 불러일으켰다.⁴⁴⁾

일본과 중국의 경우를 비교해 보면, 일본은 관 주도하에 이루어진 것이고, 중국은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사용이 주장된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 일본은 신무천황에서 비롯된 천황의 권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으며, 중국은 漢族의 同質性을 강조하여 反淸運動에 보다 많은 漢族 人士들을 끌어들이는 데 목적이 있었다. 그렇지만 일본의 皇紀든 중국의 黃紀든 간에 개국의 기점에서부터 역사를 누적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자국사의 悠長함을 부각시켜 자국의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하려 한 점에서는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할 때 단기의 경우는 중국형에 가깝다. 당시 국가의 공식 기년은 開國紀元이며, 단기의 누적적 기년이란 아이디어 자체도 직접적으로는 개국기년에서 따왔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단기는 공식화된 기년이 아니며, 자발적 사용이 권장될 뿐이었다. 1905년 이후에도 단기는 민간신문에서 개국기년 등과 함께 병기되는데 그쳤을 뿐, 『官報』에서는 병기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러한 사실을 반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의 사용이란 당시로서는 의미가 컸다. 우선 편리하다는 점도 있겠고, 이를 통해 단군에서 비롯된 민족사의 유구성을 확인하고 나아가 애국심을 고취한다는 의미가 있었다. 특히 일본보다 한국사가 앞선다는 점을 부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었다. 1909년 6월 6일자 『대한매일신보』 寄書 「歷史에 對한 管見 二則」에서 史癖生이란 독자의 주장은 이를 뒷받침한다.

我韓國聖祖 檀君으로 記히야 某年은 檀君後第幾十年이라 書히며 某年

44) 「黃帝紀年說」, 『黃帝魂』, 中國國民黨中央委員會 黨史史料編纂委員會, 1970, 1쪽.

은 檀君後第幾百年이라 書히면 一般讀者의 腳際에 煩惱도 除히며 且歷史를 對히미 同祖同族의 觀念이 油然自生히야 愛國心을 喚起함에 大裨益이 有히리라 云노라.

3) 愛國歌詞 계재

한편 단군을 기리고, 이를 통해 민족 의식을 고취하는 애국가사들이 창작되었으며, 이러한 애국가사는 1909년 이후부터 신문이나 잡지를 통해 발표되기 시작한다. 이 중에서 단군 의식을 고취한 것으로는 「檀檀歌」(『대한매일신보』, 1909년 7월 27일)·檀君歌(『대한매일신보』, 1909년 8월 6일)·崔南善(1890~1957)의 「太白山歌」(『少年』 3-2, 1910)와 「太白에」(『少年』 3-5, 1910)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전래의 민요로 민족 의식을 고취하려는 것도 있으니, 예컨대 “저 건너 초당 압해 백년언약 화초를 심어드니 백년초는 아니 나고 금년 리별화초가 만발이라”라 구절을 “저 건너 혼반도에 단군혈족을 심어드니 단군혈족은 어디로 가잔 말리냐 왜놈의 종자가 드러를 온다”로 고친 「歌調 육자배기」 같은 것이 그것이다.⁴⁵⁾

이들 애국가사는 물론 나름대로 특징이 있지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 많은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다. 즉, 단군의 위대함과 신성함을 부각하면서, 바로 이러한 단군의 자손이 우리 민족이라는 선민 의식을 강조한다. 따라서 우리 민족은 낳고 기르고 보호해 주는 단군을 잊어서는 안 되며, 이를 통한 민족의 단결을 호소한다.

2_ 역사 분야에서의 단군 강조

한말 단군 인식을 확산하는데 역사교육이 일익을 담당했다. 각급 학교에서 한

45) 峩洋子, 1908, 「歌調 육자배기」, 『太極學報』 24, 태극학회, 54쪽.

국사 교육이 정식으로 실시된 것은 甲午更張 이후 새로운 교육제도가 시행되면서부터였다. 즉, 개화파의 개혁 추진의 일환으로 신교육을 실시하는 소학교·중학교 등 각급 관립학교가 설치되고, 이들 각급 학교의 교과과정에 본국사가 포함된 결과였다.⁴⁶⁾

그러나 본국사 교육이 평탄하게 실시된 것은 아니었다. 을사보호조약과 통감정치로 말미암아 교육행정의 실권이 일본인에게 넘어가면서, 정부는 국사 교육을 축소 내지 폐지하는 정책을 취했다. 그래서 1905년에는 공립학교에서의 본국사 교육을 폐지했고, 1908년에는 私立學校令과 教科用圖書檢認定規程을 통해 교과서 검열을 강화했다. 또 1909년에는 치안에 방해되는 모든 출판물의 발매금지를 규정한 出版法을 시행하여, 국사 교과서 등을 압수했다. 그렇지만 사립학교에서는 애국심 고취의 수단으로 국사 교육이 계속되었다.⁴⁷⁾

이러한 과정에서 단군이 교육 현장에서 강조되고 있었음은 당시 사용된 교과서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한국사 교과서는 본국사 교육의 실시와 더불어 개발되기 시작했다. 그 결과 1895년부터 교과서가 간행되기 시작했는데, 초기에는 學部가 편찬을 주도했다. 그러나 본국사 교육의 폐지와 더불어 학부의 교과서 편찬은 중단되고, 그 대신 1905년부터는 개인이나 민간단체 명의의 교과서들이 나왔다. 그래서 교과서 검정이나 출판법 등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1910년 일제의 한국 강점 때까지 10여 종 이상의 한국사 교과서가 간행되었던 것이다.

학부 편찬이나 개인 저술을 막론하고, 한말의 교과서는 예외없이 한국사를 단군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단군 인식에서도 많은 공통점을 보인다.

첫째, 단군의 신성성이 강조되고 있다. 물론 교과서에 따라 단군에 대한 표현은 神人·신성한 사람·聖德을 갖춘 사람 등으로 조금씩 다르다. 그러나 단

46) 金成俊, 1971, 「舊韓末의 國史教育에 대하여」, 『大東文化研究』 8, 성균관대학교, 166~172쪽.

47) 金成俊, 1971, 위의 글, 172~189쪽.

군을 신성한 존재로 묘사한 점에서는 일치하고 있다.

둘째, 단군 이전은 草衣木食·夏巢冬穴의 미개상태를 벗어나지 못했으나, 단군이 編髮盖首·君臣과 男女, 음식과 거처의 제도를 정함으로써 문명화의 단계로 진입했다고 했다.

셋째, 현재 또는 조선왕조의 개국에서 단군까지 수천 년의 연대를 구체적 숫자로 제시하고 있다.

넷째, 단군이 태어난 태백산은 영변의 묘향산, 처음 도읍한 곳은 지금의 평양이라 했다.

물론 이상과 같은 단군 이해는 조선시대의 그것과 크게 다른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시 상황과 결부시켜 볼 때, 이것이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다. 그것은 한국이 유구한 역사를 가진 신성한 국가이며, 문명국가라는 것이다.

그러나 1905년에 간행된 崔景煥 편집·鄭喬 評閱의 『大東歷史』를 경계로 그 이전과 이후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후에 나타난 새로운 측면이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첫째, 단군에 대한 존경심이 더욱 강하게 표출된다. 최경환의 『大東歷史』에서는 '檀聖'이란 표현을 사용했으며, 1908년 이후의 교과서에서는 단군을 언급하면서 경어체를 사용한다.

檀君이 나라를 세우시니 檀君은 우리나라의 처음 나신 님금이시라 神靈하신 德이 하늘처럼 크샤 그 빛나심이 아츨날의 고희이 만물을 비치 임과 같으심으로 國號를 朝鮮이라 하니라.⁴⁸⁾

둘째, 단군 재위시대의 사실들에 연대가 부여된다. 예컨대 강화 摩尼山에 서의 設壇祭天은 재위 59년 丙寅, 白岳 천도는 127년 甲戌 등이 그것이다. 이것은 기존 사서에는 보이지 않으며, 최경환의 『大東歷史』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러나 근거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문제가 있지만, 구체적 연대를 제

48) 興土團 編輯部, 1909, 『初等本國史略』, 同文館, 1쪽; 韓國學文獻研究所 편, 1977, 『한국개화기교과서총서』 20, 아세아문화사, 363쪽.

시켰다는 점에서 단군의 역사적 실재성을 부각하는 효과는 컸을 것이다.

셋째, 태자 扶婁의 塗山會 참가에 대한 표현이 달라진다. 부루가 夏禹의 도산회에 갔다는 전승은 이미 고려시대부터 확인되며,⁴⁹⁾ 이것을 전통 사서들은 조공으로 표현했다. 그리고 초기의 교과서들도 이를 따르고 있다. 그러나 최경환의 『대동역사』에서는 인접국가 간의 交聘 通好·만국박람회 참가 정도로 이해했으며,⁵⁰⁾ 이후 다른 교과서들도 조공 대신 參預·往赴 등으로 서술했다. 이것은 한국이 일찍부터 자주 독립국가였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넷째, 단군 강역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언급된다. 단군과 관련해서는 그간 하강처가 태백산(=묘향산)·도읍지가 평양·마지막을 장식한 곳이 藏唐京(문화현 구월산)으로 알려져 왔다. 그래서 단군조선은 막연히 한반도 서북지역에 있던 국가로 이해되었다. 그러다가 조선 후기부터 만주도 단군의 영역이란 주장이 제기되었다.⁵¹⁾ 그러나 강역의 四至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없었다. 그런데 최경환의 『대동역사』에서 처음으로 단군의 강역을 東으로 太平洋, 西로 遼河, 南으로 鳥嶺, 北으로 黑龍江에 접한다고 했고,⁵²⁾ 이후 많은 교과서가 이를 따르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단군조선은 만주까지 포함하는 넓은 영토를 가진 셈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서술은 단군조선이 반도국가가 아니라, 대륙에 걸쳐 넓은 영토를 가진 강대국이었음을 암시하는 것이라 하겠다.

다섯째, 단군의 계통이 부여 또는 북부여로 이어졌고, 그것이 다시 고구려·백제로 이어진다고 했다. 초기 교과서들에서는 단군이 아사달 산신이 된 것만 언급하고, 그 후손에 대한 서술이 없다. 즉, 단군의 계통이 단절되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들 교과서에서는 단군의 계통이 단절되지 않고, 우리 민족의 혈관 속에 단군의 피가 흐르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서술은 당시 유행하던 단군 자손 의식을 역사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라 하겠다.

49) 金成煥, 1999, 「檀君傳承의 類型 I」, 『中央史論』 11·12, 중앙대학교, 19쪽.

50) 崔景煥, 1905, 『大東歷史』 권1, 檀君朝鮮記; 韓國學文獻研究所 편, 앞의 책, 17, 45쪽.

51) 예컨대 『星湖僊說』 권1, 天地門, 檀箕疆域.

52) 崔景煥, 1905, 앞의 책, 41쪽.

단군과 단군조선에 대한 이러한 서술은 한국사 교과서뿐만 아니라, 다른 교과서도 마찬가지였다. 예컨대 周時經(1876~1914)의 『국문초학』(1909)이 그것인데, 여기서는 단군에 대한 서술을 “그런고로 단군처럼 장흥신 임군은 예로 지금까지 텃하에 다시 업느니라”로 끝맺고 있다.⁵³⁾

이처럼 1905년 이후 교과서의 서술이 달라지는 것은 무엇보다도 당시의 시대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일제의 침략이 가속화됨에 따라 애국심이나 민족 의식 고취가 더욱 필요해진 상황의 반영이란 것이다. 그래서 이들 교과서는 단군의 존재를 부각하고, 이를 통해 자주독립의 당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서술이 이루어졌다고 하겠다.

한말의 한국사 교과서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군주 중심의 역사관을 탈피하지 못했고, 朱子의 綱目體와 삼한정통론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었다. 전통적 유교사관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더구나 임나일본부설·神功皇后 신라정복설 같은 일본사학의 주장을 수용한 점 등은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⁵⁴⁾ 그래서 당시에 이미 신채호는 이들 교과서를 역사라고 한다면, 역사가 없는 것만 못하다라고까지 혹평했던 것이다.⁵⁵⁾

그렇지만 이들 교과서의 내용은 교육 현장을 통해 학생들에게 널리 퍼져나갔을 것이며, 대중의 한국사 지식 향상에 기여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帝國新聞』 1905년 3월 22일자의 다음과 같은 논설은 이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전에난 선비들이……정작 우리 나라의 역덕와 소적에는 감감하야 당초에 알 생각도 아니하고 혹 얼론흔 좌석을 당하미 입을 병긋도 못하더니 근력에 학부에서 본국소기를 여러 가지로 기간하미 각학도들이 당연히 공부할 걸로 아는고로 비록 삼척동자라도 단군 이후 몇천년 리력을 능히 니야기하는 오히가 만히 잇스니.⁵⁶⁾

53) 李基文 편, 1976, 『周時經全集』 상, 아세아문화사, 513~517쪽.

54) 韓永愚, 1994, 「韓末 申采浩의 民族主義史論」, 『韓國民族主義歷史學』, 일조각, 42~52쪽.

55) 申采浩, 1979, 「讀史新論」, 『改訂版丹齋申采浩合集』 상, 형설출판사, 472쪽.

56) 金成俊, 1971, 앞의 글, 171~172쪽 재인용.

〈표 1〉 한말 교과서의 단군 서술

간행	서명	저자	건국연대	영역	조상	후예	塗山會	경어체	비고
1895	朝鮮歷史	學部	기원전 2343				朝		
	朝鮮歷史略	學部	기원전 2343				朝		
1899	東國歷史略	學部	기원전 2343				會諸侯會… 往會		한문
	朝鮮略史十課	學部	기원전 2343				朝		1895 ⁵⁷⁾
	普通教科 東國歷史	玄采	기원전 2343						
1905	歷史輯略	金澤榮					會諸侯會… 往會		한문
	大東歷史	崔景煥	기원전 2333	언급		扶餘	塗山會 如		한문
1906	中等教科 東國史略	玄采	기원전 2333	언급	언급	扶餘	相見		
	普通教科 大東歷史略	國民 教育會	기원전 2336			扶餘	萬國會…參		
	新訂東國歷史	元泳義 ·柳瑾	기원전 2333		언급	北扶餘	塗山會往赴		
1908	初等本國歷史	柳瑾	기원전 2333			北扶餘	塗山會參		사용
	초등디한역소	조종만	기원전 2333			北扶餘	만국회 참여		사용
	디한역소	Hulbert ·吳聖根	기원전 2333	언급	언급	扶餘	도산회 보내다		
	初等大韓歷史	鄭寅琥	기원전 2333	언급	언급	北扶餘	萬國會參		사용
	初等大東歷史	朴晶東	기원전 2336				塗塗山萬國會 參預		사용
1909	初等本國略史	興士團	기원전 2333						사용
	初等本國歷史	安鍾和				扶餘	塗山會參		사용
1910	新撰初等歷史	柳瑾	기원전 2333		언급	北扶餘	塗山會 참여		사용

57) 조동걸, 1987, 앞의 글, 141~142쪽에서는 『朝鮮略史(十課)』가 1895년에 간행되었고 했다.

그렇다고 할 때 이들 교과서에 기초한 교육은 단군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 일익을 담당했을 것이다. 나아가 이것이 단군 자손 의식과 결합될 때 애국심과 민족 의식 고취에도 상당히 기여했을 것임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이다.

3. 단군 유적에 대한 관심

단군의 존재와 의미가 새롭게 부각됨에 따라, 한말에는 단군 유적에 대한 배려가 정부 차원에서 배워어지기도 했다.

단군 유적의 하나로는 평안도 江東郡의 단군릉이 있다. 단군릉에 1899년과 1901년에 지역 출신들이 국가 차원의 수리를 건의했지만, 고종은 모두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하면서, 실천에 옮기지 않았다.⁵⁸⁾ 당시 평양 주변에 있던 기차로나 동명왕릉이 수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군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단군의 위상이 확립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1909년 순종의 평안도 지방 순행을 계기로 해서였다. 즉 순종은 1월 31일 평양에 도착하여, 평안남도 관찰사로 하여금 평양의 단군 사당인 崇靈殿을 致祭토록 하는 한편, 단군릉이 황폐하다는 것을 듣고 이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구하라는 조서를 내린다.⁵⁹⁾ 또 단군묘에서 단군릉으로 改封한데 대한 文蹟을 찾아내라고 하여 前議官 李明煥의 집에서 그의 아버지 檀君殿令 李膺柱가 本郡·本道에 올린 관련 자료를 찾아내기도 했다.⁶⁰⁾

이에 따라 이해 5월 內部에서 소요 경비와 役軍 동원 계획을 마련하여 지방관에 지시를 내렸다.⁶¹⁾ 그러나 재원 조성이 문제가 되었다. 즉, 황제 순행 예산 중 남은 부분을 투입한다는 방안과 度支部에서 경비를 조달한다는 방안의

58) 『高宗實錄』 권40, 光武 4년 1월 29일; 『高宗實錄』 권41, 光武 5년 8월 31일.

59) 『純宗實錄』 권3, 隆熙 3년 1월 31일.

60) 『皇城新聞』, 1909. 2. 11, 雜報 「檀墓事蹟」.

61) 『皇城新聞』, 1909. 5. 5, 雜報 「檀君墓封築提議」; 『大韓每日申報』, 1909. 5. 5, 雜報 「檀陵改築」.

대립 때문이었다.⁶²⁾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단군릉 丁字閣 및 각종 石物의 수리비로 3,500원이 책정되었고, 지방관에게 모든 것을 위임한다는 결정이 내려진 것이 확인된다.⁶³⁾

한편 강화도의 塹城壇에 대한 실측 조사가 실시된다. 참성단은 단군이 하늘에 제사하던 제단으로 전하는 곳이다. 이에 대해 1909년 3월 農商工部에서는 일본인들에 의뢰하여 실측을 하도록 했다.⁶⁴⁾

1909년 순종의 지방 순행은 통감 伊藤博文의 정치적 계산에 의해 실행된 것이었다. 즉 황제와 동행함으로써 한일간의 우호를 대내외적으로 과시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국민의 반발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⁶⁵⁾ 또 참성단 실측은 일본인의 힘을 빌린 것이다. 이런 점에서 단군릉 개축이나 참성단 실측의 의미가 반감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들은 민간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단군을 주목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62) 『大韓每日申報』, 1909. 5. 16, 雜報 「道傍築室」. 이에 앞서 평안남도 관찰사가 改封築과 守護 儀節에 대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경비의 출처 문제 때문이 아닌가 한다(『皇城新聞』, 1909. 5. 12, 雜報 「箕察質稟」).

63) 『大韓每日申報』, 1909. 5. 25, 雜報 「檀陵開役」. 이에 앞서 단군릉 등 역대 陵寢의 改葺費는 퇴락 정도에 따라 책정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皇城新聞』, 1909. 5. 19, 雜報 「歷代陵改葺費」).

64) 『皇城新聞』, 1909. 3. 27, 雜報 「天壇觀測」. 한편 和田雄治, 1911, 「江華島塹城壇」, 『考古學雜誌』 1-6, 12~22쪽에는 참성단의 실측도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때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한다.

65) 國史編纂委員會, 1983, 『韓國獨立運動史』 1, 정음문화사, 380~389쪽.

Ⅲ. 민족의 시조에서 종교적 신앙대상으로

1. 大宗教의 성립

한말 단군 의식의 팽배는 마침내 단군을 신앙하는 종교단체의 출현을 가져왔으니, 1909년에 창시된 대종교가 그것이다.

대종교 개창을 주도한 인물은 弘巖大宗師 羅喆(1863~1906)이다.⁶⁶⁾ 나철의 원래 이름은 羅寅永으로, 대종교를 창시한 뒤인 1910년에 개명한 것이다.⁶⁷⁾ 나철은 전남 樂安郡 南山面 錦谷리의 한미한 가문에서 태어났다. 그러나 그는 호남지역의 한학자로 널리 알려진 王錫輔(1816~1868)의 문하에서 수학했고, 20대 초반에 상경해서 온건개화파의 거두 金允植(1835~1922)의 문인으로 들어가 사회적 진출의 기반을 마련한다.

이후 1891~1893년은 과거를 거쳐 관직 생활을 했고, 1893~1901년에는 제주도에서 유배된 김윤식을 돌보는 일을 하다가 다시 상경했다. 이때부터 그는 吳基鎬(1863~?) · 李沂(1848~1909) 등과 함께 구국활동을 전개한다.

그의 구국활동의 첫 단계는 동양평화론에 입각한 외교적 노력이었다. 이를 위해 1905~1908년에 전후 세 차례나 渡日하여 일본으로부터 한국의 독립 보장을 받아내려 했다. 이러한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을사보호조약으로 한국이 일본의 보호국으로 전락하자, 自新會를 조직하여 을사보호조약을 인정한 5賊 암살을 기도했다. 그러나 이것마저 실패로 끝나 1907년 7~12월 智島에서

66) 나철의 생애에 대해서는 다음 연구에 의거하였다. 申哲鎬, 1979, 『韓國重興宗教 教祖論-弘巖 羅喆 大宗師』, 대종교총본사; 朴渙, 1991, 「羅喆의 人物과 活動」, 『滿洲韓民族運動史研究』, 일조각, 256~271쪽; 朴渙, 1992, 「나철 · 김교헌 · 윤세복」, 동아일보사, 7~37쪽; 鄭榮薰, 2001, 「弘巖 羅喆의 思想과 現代의 意義」, 『國學研究』 6, 국학연구소, 22~26쪽; 오영섭, 2004, 「대종교 창시 이전 나인영의 민족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39, 한국민족운동사학회, 191~236쪽.

67) 『皇城新聞』, 1910년 1월 23일자에 羅寅永을 羅喆로, 吳基鎬를 吳赫으로 개명한다는 廣告가 있다.

유배생활을 했다.

이 무렵 단군 운동이 점차 종교적 색채를 띠고, 나아가 조직화의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즉 1890년경 평안도 寧邊人 金廉白이 묘향산에서 천일 기도 끝에 檀君 聖靈에 감응하여 神敎를 창설했으며, 그 문도가 수천 명에 달했다고 한다. 또 김염백이 동학농민운동 때 참사당한 후인 1893년경에는 그에게 수학한 永興人 韓明允이 스스로 敎長이 되어 포교 활동을 벌였다고 한다.⁶⁸⁾ 뿐만 아니라 白峰이란 인물은 백두산에 들어가 10년 기도 끝에 단군의 默契를 받고, 1904년 伯桢 등 32명의 제자와 함께 단군교 佈明을 선언했다고 한다.⁶⁹⁾

대종교 측 자료에 따르면, 바로 이 백봉이 나철에게 사람을 보내어 대종교 창교를 권유했다고 한다. 즉, 1906년에는 제자 伯桢으로 하여금 보내어 『三一神誥』와 『神事記』를 전하게 했고, 1908년 杜一白을 보내어 「檀君敎佈明書」·『古本神歌集』을 전하는 한편, 檀君大皇祖의 교회를 펴도록 권유했다. 이에 나철은 구국운동이 몇 사람의 노력으로 달성될 수 없음을 깨닫고 대종교 창시를 결심했다고 한다.⁷⁰⁾ 그렇다면 대종교는 이러한 단군 신앙 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이를 더욱 조직화·체계화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나철에게 있어 대종교는 그가 취할 수 있는 최후의 결단이었다. 그래서 그는 1909년 2월 5일(음력 1월 15일) 오기호·이기·김윤식 등과 함께 한성 북부 齋洞 翠雲亭下 8통 10호 6간 초옥에서 '檀君大皇祖 神位'를 모시고 제천의례를 거행하면서 단군종교 운동을 시작했다고 한다.⁷¹⁾

이때 교명은 대종교가 아니라 檀君敎였다. 그리고 이것은 새로운 종교를 만든 것이 아니라 단군 이래의 神敎 전통의 부활을 표명했다. 즉, 단군에서 비롯된 고유종교가 있었지만, 이것이 불교·유교의 침투로 명맥만 유지하다가,

68) 村山智順, 1935, 『朝鮮의類似宗教』, 朝鮮總督府, 446쪽; 李康五, 1992, 『韓國新興宗教總鑑』, 대흥기회, 315쪽; 서영대, 2003, 「金先生廉白記에 대하여」, 『단군학연구』 9, 단군학회, 221~237쪽. 단 전자에서는 김염백을 평안남도 孟山郡 邑內面 新金里 출신이라 했다.

69) 大宗教總本司, 1971, 「檀君敎佈明書」, 『大宗教重光六十年史』, 80~92쪽.

70) 大宗教總本司, 1971, 위의 책, 9~10쪽과 77~79쪽.

71) 大宗教總本司, 1971, 앞의 책, 80쪽.

이때 다시 부흥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개창이 아닌 重光이란 표현을 사용했다.

대종교의 존재가 세상에 널리 알려진 것은 1909년 7월부터이다. 즉, 이때부터 대종교가 신문지상에 오르내리기 시작한다. 예컨대 1909년 7월 22일자 『대한매일신보』 잡보 「兩氏熱心」에서는 나철·오기호가 단군교에 獻身 從事함이 보도되고 있다.

그런데 1909년 3월 24일 苑洞 소재 나철의 집을 방문한 김윤식은 나철이 벽에 神人으로부터 꿈에서 받은 말을 써붙여둔 것을 보고 이상한 일(異事)이라고 했다.⁷²⁾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김윤식은 나철의 스승으로 제주도 유배생활을 함께 했다. 뿐만 아니라 대종교 성립 이후에도 나철 아들의 학비를 보조해 주는가 하면,⁷³⁾ 대종교 행사인 개천절 행사 때마다 음식을 보내는 등⁷⁴⁾ 대종교 활동을 이해하는 입장이었다. 그런데도 김윤식이 나철의 행위를 이상하다고 한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 여기서 가능한 추측의 하나는 나철이 김윤식에게도 비밀에 붙일 정도로 대종교 활동을 비공개적으로 했으며(이 점에서 대종교 창시일에 김윤식이 참가했다는 기록은 문제가 있다), 7월경부터 공개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활동이 표면화되면서, 대종교는 비교적 빠른 속도로 교세가 확장되었다. 교인 수가 성립된 지 14개월 만에 3,500명이 되었고,⁷⁵⁾ 불과 4개월 뒤에는 6,000명⁷⁶⁾ 또는 21,539명에 달했다고 한다.⁷⁷⁾ 그리고 1915년에는 십여만 명이던 자료도 있다.⁷⁸⁾

72) 金允植, 『續陰晴史』 권13, 隆熙 3년 3월 22일(국사편찬위원회 본 하, 285쪽).

73) 金允植, 『續陰晴史』 권14, 壬子 1월 12일(국사편찬위원회 본 하, 359쪽).

74) 『大韓每日申報』, 1909. 11. 20, 雜報「開國日慶祝」; 『皇城新聞』, 1909. 11. 21, 雜報「開極節紀念」; 金允植, 『續陰晴史』 권14, 庚戌 11월 4일(국사편찬위원회 본 하, 285쪽).

75) 『皇城新聞』, 1910. 3. 13, 雜報「檀君教況」.

76) 『大韓每日申報』, 1910. 7. 12, 雜報「檀君教擴張」; 『皇城新聞』, 1910. 7. 12, 雜報「檀君教徒」.

77) 大宗教總本司, 1971, 앞의 책, 156쪽.

78) 金允植, 『續陰晴史』 권15, 乙卯 3월 24일(국사편찬위원회 본 하, 415쪽).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을 생각할 수 있겠다. 우선 입교 절차가 간단했다. 그것은 입교자가 분향 재배하고 誓辭를 낭독하면, 백두산의 백봉대종사가 나철에게 전했다는 「檀君教佈明書」와 백봉의 도장이 찍힌 入道證書를 나누어주는 정도였다.⁷⁹⁾

그러나 이것이 당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한 것이었음을 간과해서 안 된다. 개화기 이후, 일상생활 속에 미분화되던 종교가 하나의 독립된 사회문화 영역으로 자리잡게 된다.⁸⁰⁾ 이에 따라 종교의 역할과 기능이 주목되는데, 한말의 상황에서는 국가를 일으키고 국가주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종교의 필요성이 제기된다.⁸¹⁾ 그렇다고 할 때 단군을 신앙 대상으로까지 승화시킨 대종교가 각광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당시 언론의 지원도 큰 힘이 되었을 것이다. 예컨대 『대한매일신보』에서는 1910년 3월 11일자 논설 「東國古代仙教考」를 통해 한국의 고유종교로 단군의 선교가 있다고 했고, 『황성신문』에서는 1910년 8월 9일자 논설 「我檀君子孫의 氏族과 疆土와 敎化의 歷史」를 통해 단군의 神教를 神人의 후예인 우리가 신앙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했다.

이렇듯 교세가 확대되어 감에 따라, 교리와 교단의 체계화 작업이 진행된다. 대종교가 처음 성립될 당시에는 교리 체계나 교단 조직이 아직 완비되지 못했던 것 같다. 『황성신문』 1910년 5월 25일 雜報 「檀君教說筆記」는 대종교 측에서 제공한 기사 같은데, 여기에 “本敎의 眞正한 原理는 我敎의 經典과 其他書籍의 發佈되기를 姑待하야 次第 研究하 시러니와 今日는 爲先 我敎의 由來沿革과 今日 再興하는 趣旨만 暫聽하 시기를 望하 나이다”라는 구절이 있다. 이로 미루어 1910년까지도 경전이 완비되지 못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래서 먼저 1909년 12월 1일에는 실천 강령으로 五大宗旨(① 敬奉祖神 · ② 感通靈誠 · ③ 愛合族友 · ④ 安固其土 · ⑤ 勤務產業)를 제시하고, 12월 11

79) 『大韓每日申報』, 1909. 10. 19, 雜報 「檀君教傳佈」.

80) 김종서, 2001, 「개화기 사회문화 변동과 종교 인식」, 『한국 개화기 근대국가와 문화의 모색』,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학술토론회 요지, 2~5쪽.

81) 『大韓每日申報』, 1919. 11. 28, 論說 「今日宗敎家에 要하 는바」.

일에는 5단계의 敎任制를 선포한다(司敎·參敎·贊敎·施教師·巡敎員).⁸²⁾ 뿐만 아니라 1910년에는 의례를 규정한 儀式規例을 발포했고(9월 27일), 南部支司·北部支司를 설치했으며(8월 5일), 만주 북간도 三道溝에 支司를 설치한다. 또 1911년 1월에는 『神理大典』, 1912년 3월에는 『三一神誥』를 발행하여 경전을 정비해 나간다.⁸³⁾

단군신앙을 정면으로 표방하는 대종교가 기초를 다져 나간다는 것은 일제의 입장에서 볼 때 달갑지 않은 일임에 틀림없다. 그래서 대종교가 신문지상에 언급되기 시작하던 1909년 7월에 벌써 警視廳은 조사에 착수했다.⁸⁵⁾ 이에 따라 대종교는 단군교라는 이름을 버리고 대종교로 개명한다. 그것은 단군종교를 표방함으로 돌아올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⁸⁶⁾

그러나 이것이 교단 분열의 원인이 되었다. 즉, 鄭薰模 등 교명 고수파의 반대가 있었고, 그래서 정훈모 계열은 단군교총본부라는 이름으로 독립해 나간다. 여기에 관련한 자들 중에는 친일파가 많았으며, 정훈모 자신이 친일단체에 가담한 적도 있었다.⁸⁶⁾ 따라서 대종교의 분열은 한국 강점을 목전에 둔 일제의 사주에 의한 것일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한국 강점 이후, 일제는 대종교에 대해 더욱 촉각을 곤두세웠다. 1911년 『朝鮮總督府施政年報』의 다음과 같은 기사는 이러한 사실을 반영한다.

특히 조선인의 조직과 관련되는 것에는 天道敎·侍天敎·大敎敎·大同敎·太極敎·圓宗宗務院·孔子敎·大宗教·敬天敎·大成宗教 등의 諸宗이 있어 그 종류가 대단히 잡다할 뿐만 아니라, 그 움직임은 정치와 종교를 혼동하며 순수한 종교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도 있으므로

82) 大宗教總本司, 1971, 앞의 책, 152쪽; 『大韓每日申報』, 1910. 4. 27, 雜報 「宗旨와 任員」에도 5宗旨와 5任員의 내용이 소개되어 있다.

83) 大宗教總本司, 1971, 앞의 책, 155~165쪽.

84) 『皇城新聞』, 1909. 7. 25, 雜報 「檀君敎調査」.

85) 大宗教總本司, 1971, 앞의 책 155~158쪽. 대종교로 개명하기 이전에도 倂敎라는 명칭을 사용했던 것 같다. 단 仁祖의 이름을 避諱하기 위해 표기는 宗教라 했다(金允植, 『續陰晴史』 권14, 隆熙 4년 6월 29일[국사편찬위원회하 327쪽]).

86) 황민호, 2001, 앞의 글, 313~314쪽.

적절한 取締를 가하여야 한다. (제30절 宗教取締)

이를 통해 일제는 한국의 신흥종교들이 정치단체화하는 것을 극히 꺼려하고 있으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감시 감독을 늦추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일제는 1915년 朝鮮總督府令 제83호로 「布教規則」을 발표하여⁸⁷⁾ 종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다. 여기서 조선총독부는 종교의 범위를 神道·불교·기독교로 한정한다(제1조). 따라서 이 범위에 들지 못하는 종교는 그나마 종교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박탈당한다.

이러한 일제에 대해 대종교측은 만약의 사태에 대해 대비는 하고 있었다. 1911년에는 교단의 중심인 總本司를 백두산 북록 靑湖로 옮기는 한편, 東道本司(북간도 汪淸縣)·西道本司(上海)·北道本司(露嶺 巢鶴嶺)·南道本司(京城)를 둔 것이 그것이다.⁸⁸⁾ 이것은 대종교에 대한 박해가 강화되어 국내에서의 존립이 위태로울 경우를 대비한 조치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대종교가 취한 행동은 일제와의 정면 대결은 아니었다. 1910년 12월 30일 나철은 「歲暮所感」에서 “종교와 정치는 서로 간섭하지 않고 엄정 분리하는 것이 正論”이라 했다.⁸⁹⁾ 政敎의 분리를 주장함으로써 일제의 박해를 피하고 대종교를 지키려 한 것이다. 또 「포교규칙」이 공표된 직후, 나철은 靑湖의 총본사에서 급거 귀경하여 「포교규칙」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였다.⁹⁰⁾ 이것은 대종교를 종교로 공인받기 위한 조치였다. 이상과 같은 일련의 사실들은 대종교의 일제를 대하는 태도가 처음부터 투쟁적이지만은 않았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일제는 대종교의 요청을 기각했다. 일제가 대종교의 요구를 들어줄 리가 만무했던 것이다. 나철로서는 한·중·일 삼국이 연합하여 서양 세력을 막아야 한다는 東洋平和論에 입각한 외교적 노력이 실패한 이후, 또 한번의 좌절이었다. 이런 의미에서 나철의 對日觀은 일제의 정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

87) 『朝鮮總督府官報』 911號, 1915년 8월 16일자.

88) 大宗教總本司, 1971, 앞의 책, 183~184쪽.

89) 大宗教總本司, 1971, 앞의 책, 154쪽.

90) 大宗教總本司, 1971, 앞의 책, 185~186쪽.

한, 너무나 소박한 것이었다는 점도 있었던 것 같다.

일제가 대종교의 요청을 거부한 것이 나철에게는 커다란 좌절감을 안겨 주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의 길을 택했다. 1916년 8월 15일, 환인·환웅·단군을 모시는 사당인 구월산 三聖祠에서였다. 이후 대종교는 적극적인 항일 독립 투쟁을 전개하여 커다란 족적을 남긴다.

2. 대종교의 단군 인식

대종교의 신앙대상은 三神一體의 신격이다. 삼신이란 桓因·桓雄·檀君이며, 환인은 造化主, 환웅은 教化主, 단군은 治化主이다. 그리고 이 가운데 태백산에 내려와 인간 세상을 다스린 이는 단군이다. 그런데 이 3신은 각각 독립된 3신이 아니라 하나의 신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의 신이라 함은 본체(體)를 말하는 것이요, 삼신이라 하면 그 작용 내지 기능(用)을 가리킨다는 것이다.

여기서 桓因·桓雄·檀君의 존재를 인정한 것은 『삼국유사』나 『제왕운기』의 설명에 가깝다. 물론 桓因·桓雄·檀君을 祖·父·子의 관계로 설정하고 있지 않는 것은 다르다. 한편 단군이 직접 天降했다는 이해는 1396년 權近의 「始古開闢東夷主」⁹¹⁾ 이래로 조선시대 각종 문헌에 등장하는 단군 인식과 통한다. 그런데 이러한 이해는 단군의 존재를 강조할 필요는 있으나, 단군에 부수되는 신화를 받아들일 수 없는(비합리적이기 때문에) 조선시대 지배층들이 단군신화를 개작한 결과이다.⁹²⁾ 따라서 대종교의 삼신일체관은 고려시대의 단군 인식과 조선시대의 그것을 동시에 수용하면서, 양자간의 모순을 조화한 것으로서 의미를 지닐 수 있겠다.

또 이 삼신일체의 창조주로서 인간을 양육하는 존재이다. 이것은 단군을 국가 또는 민족의 시조로 보는 인식과 다르다. 그러므로 이에 의하면 단군은 우리 민족과 관련되는 특수한 존재가 아니라 전 인류와 관계하는 보편적인 존

91) 『陽村集』 권1, 應製詩.

92) 徐永大, 1994, 앞의 글, 71~72쪽.

재라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단군과 우리 민족의 특수한 관계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민족은 단군의 적자로서 상고시대에 만주를 중심으로 큰 세력을 형성했고, 높은 수준의 문화를 향유했다고 한다.

이러한 인식은 민족의 정체성 확립과 자부심 고취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의 행간에서 전통질서에 대한 비판이나 개혁의 의지는 찾아보기 어렵다.⁹³⁾ 조선왕조 자체의 모순이 국가의 붕괴를 촉진한 면이 없지 않음을 생각할 때, 이러한 인식에는 나름대로 한계가 있는 것 같다. 신채호·박은식 등 민족운동가들이 대종교와 밀접한 관련을 가졌지만, 대종교의 단군관은 수용하지 않은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 아닌가한다.

3_ 開天節과 御天節 기념

대종교는 성립 당시에 두 가지 중요한 단군 기념일을 제정했으니, 開天節과 御天節이 그것이다.

개천절은 음력 10월 3일로, 단군이 하늘에서 내려온 날인 동시에 고조선을 건국한 날이다. 대종교에서 개천절을 처음 기념한 것은 1909년 11월 15일(음력 10월 3일)이며, 당시에는 開極節이라⁹⁴⁾ 했다. 이때 기념식은 苑洞 소재의 나철의 집에서 거행되었는데, 中樞院 議長 金允植이 음식을 제공했으며, 참가자는 200명에 달했다고 한다.⁹⁵⁾

개천절 행사는 대종교도만의 행사는 아니었다. 大韓醫學校에서는 휴교를 하고 학생들을 참여시켰으며,⁹⁶⁾ 잡지 『少年』(2-10)에는 전 4절로 이루어진

93) 姜敦求, 1992, 『한국 近代宗教와 民族主義』, 집문당, 144쪽.

94) 『皇城新聞』, 1909. 11. 21, 雜報 「開極節기념」; 鄭喬, 『大韓季年史』 권9, 隆熙 3년 11월(국사편찬위원회 본 하, 324쪽); 金允植, 『縹陰晴史』 권14, 庚戌 11월 4일(국사편찬위원회 본 하, 339쪽)에는 建極日이란 표현도 보인다.

95) 『大韓每日申報』, 1909. 11. 20, 雜報 「開國日慶祝」.

96) 『皇城新聞』, 1909. 11. 21, 雜報 「開極節紀念」.

「檀君節」이란 노래가 게재되었다(그림 2).⁹⁷⁾ 뿐만 아니라 『황성신문』에서는 1910년 11월 21일자 논설 「檀君聖祖祭日」,이란 사설을 통해 행사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此로 由하야 我民族의 祖國性도 存在하며 團合心도 凝結홀지니 此엇지 億萬無疆의 基礎가 아니리오 …… 惟我一般民族은 同一 誠意로 歲歲 設行하코 歲歲遵守하야 우리 始祖의 功德를 紀念不忘하며 우리 民族의 構成을 永久維持하며 團合心을 一致凝結하야 文明한 國民의 資格을 發 表홀지어다.



〈그림 2〉 『소년』지에 수록된 단군절 노래

즉 이것이 민족 의식 고취와 단결에 절대 필요한 것이므로, 앞으로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천절은 처음부터 대중교만의 행사가 아니라 국민적 행사로 여겨지고, 또 치러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개천절이 이처럼 주목된 것은 그것이 시대적 요청에 부응한 점이 많았기 때문이다. 당시 신문에서는 애국심을 배양하고 민족적 결속을 유도할 수 있는 국민적 기념일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다.⁹⁸⁾ 나아가 蠻種이 아닌 이상, 功德 있는 시조를 기념하지 않는 것은 민족적 수치라고 하면서,

97) 『少年』 2-10(1909), 2-4.

98) 『大韓每日申報』, 1909. 8. 5, 論說 「名節書感」.

구체적으로 단군 기념일이 제시되기도 했다.⁹⁹⁾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게 된 데에는 당시 국가에서 각종 기념일이 제정되고 시행된 것이 일조를 했다고 생각된다. 예컨대 조선왕조의 건국을 기념하는 開國紀元節이 1984년부터,¹⁰⁰⁾ 고종의 황제 취임을 기념하는 繼天紀元節이 1897년부터 거행되고 있었다.¹⁰¹⁾ 이와 같은 기념일은 서구나 일본의 국가 기념일의 영향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왕조와 군주의 권위를 높이며, 국민을 국가와 동일시하게 만드는 데 일정한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 여기서 단군 기념일이란 착상이 나오는 것도 어렵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된다. 즉, 민족의 정체성 확인과 민족의 결속을 위해, 민족이 시작되는 열광의 순간을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기억할 필요성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1873년부터 神武天皇의 즉위를 축하하는 국가기념일로 紀元節祭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기원절은 처음에는 왕실만의 행사였으나, 1889년부터 서서히 국민적 행사로 확대되어갔으며, 記紀神話에 기초한 천황권 정당화에 일익을 담당했다고 한다.¹⁰²⁾ 그렇다고 할 때 개천절이란 아이디어와 일본의 기원절제의 관련성도 생각해 볼 여지는 있겠다.

개천절은 일제가 한국을 강점한 1910년에도 거행되었으며,¹⁰³⁾ 일제시대를 통하여 대중교의 기념일로 계속되었음이 확인된다. 뿐만 아니라 개천절의 민족적 의미 때문에 상해임시정부에서도 공식 기념일이었으며, 이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단 광복 이후 대한민국의 개천절은 음력 10월 3일을 양력 10월 3일로 바꾼 것이다.

한편 어천절은 단군이 황해도 구월산에서 신으로 화한 음력 3월 15일을 기념하는 행사이며, 昇天紀念祭라고도 했다. 이것이 처음 기념된 것은 1910년 4

99) 『皇城新聞』, 1909. 4. 21, 論說「檀君聖祖由來紀念」.

100) 黃玿, 『梅泉野錄』 권3下, 高宗 32년 7월(국사편찬위원회 본, 182쪽)에서 이 행사를 언급하면서, 歐美的 풍속을 따른 것으로 上年(1894)부터 시작되었다고 했다.

101) 鄭喬, 『大韓季年史』 光武 원년 12월 9일(국사편찬위원회 본 상, 171쪽).

102) 家永三郎, 1959, 『日本近代史と紀元節』, 『日本のあげぼ』, 光文社, 173~174쪽.

103) 金允植, 『續陰晴史』 권14, 庚戌 11월 4일(국사편찬위원회 본 하, 339쪽).

월 24일(음력 3월 15일)이다.¹⁰⁴⁾ 이날 우중임에도 다수의 교인들이 都司敎 나 철의 집에 모여 기념식을 거행했다고 한다. 어천절 역시 대종교에 의해 일제시대에도 계속되었다. 그러나 개천절처럼 국민적 기념일로 승화되지는 못했다.

이와 같은 단군 기념일은 단군의 의미를 정기적으로 확인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4_ 백두산 증시

한말에는 백두산이 민족의 발상지로 새롭게 부각되었으며, 이렇게 인식되기까지는 대종교의 영향이 컸다.

백두산이 민족의 발상지라는 것은 단군이 태어난 곳이며, 도읍한 곳이란 의미에서이다. 그런데 『삼국유사』 이래 조선시대의 통설을 살펴본다면, 단군의 하강처 또는 탄생지로 알려진 太伯山은 영변의 묘향산으로 비정되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듯 조선시대의 각종 기록에는 檀君窟(그림 3)을 비롯하여 다양한 묘향산의 단군유적들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¹⁰⁵⁾ 이러한 인식은 한말에도 이어졌고, 1907년 일본의 승려가 묘향산 普賢寺를 매입하려는 사실이 알려지자, 반대 여론이 비등했는데, 이유는 묘향산이 단군의 발상지이기 때문이란 것이다.¹⁰⁶⁾

이에 비해 백두산은 한국 풍수지리설의 祖宗山이란 인식은 일찍부터 있었고, 또 백두산을 신성시하던 관념도 일찍부터 있었다. 예컨대 백두산 입산에 앞서 제사를 지내는 관습 같은 것이 그것이다.¹⁰⁷⁾ 여기에도 한말에는 한국의

104) 『皇城新聞』, 1910. 4. 22, 雜報「昇天紀念祭」; 『皇城新聞』, 1910. 4. 27, 雜報「行祭說教」; 『大韓每日申報』, 1910. 4. 16, 雜報「紀念準備」.

105) 許興植, 1997, 「雪巖 秋鵬의 妙香山誌와 檀君記事」, 『清溪史學』 13, 청계사학회; 金成煥, 2000, 「高麗時代 妙香山の 檀君傳承」, 『明知史論』 11·12, 명지사학회; 金成煥, 2002, 「高麗時代의 檀君傳承과 認識」, 경인문화사, 109~115쪽.

106) 『皇城新聞』, 1908. 7. 3, 論說「妙香山の 晚翠景況」; 『大韓每日申報』, 1908. 3. 4, 雜報「寺亦讓日」.

107) 김지남 외, 1998, 『조선시대 선비들의 백두산 답사기』, 혜안. 이 책에는 7종의 백



〈그림 3〉 묘향산 단군굴의 현상



〈그림 4〉 백두산 천지의 항공사진

최고봉이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러한 의미에서도 백두산의 존재는 더욱 부각되었다. 그러나 필자가 접한 자료에 따르는 한, 조선시대까지 백두산과 단군을 연결시킨 흔적은 없으며, 더구나 민족의 발상지로서 성산이란 관념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렇지만 조선 후기부터 단군이 탄생한 태백산은 묘향산이 아니라 백두산이란 주장이 대두되기 시작한다. 安鼎福(1712~1791)이 바로 그러한 주장을 했는데,¹⁰⁸⁾ 널리 수용된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한말에는 백두산에 대한 새로운 인식들이 서서히 자리잡기 시작한다. 우선 역사학쪽에서 申采浩(1880~1936)는 단군의 발상지가 백두산 일대라는 설을 본격적으로 주장한다. 즉, 1908년 발표한 「讀史新論」에서 단군 初起

두산 답사기가 번역 수록되어 있는데, 238·253·258·281쪽에서 이러한 사실이 확인된다.

108) 『東史綱目』附錄 下卷, 地理考 太白山考. 1901년에 일본인이 작성한 「白頭山未來記」(『寺內正毅文書』 32 수록)라는 문서에는 素盞雄尊이 그 아들 五十猛命과 신하를 거느리고 백두산을 근거로 만주를 경영했으므로, 백두산은 天照大神의 손자 天津彦彦火瓊瓊杵尊이 내려온 高千穗峯과 형제라는 기록이 있다. 일본에서는 18세기 이래로 素 鳴尊이란 신이 한국으로 건너가 단군이 되었다는 설이 있었다. 따라서 이것도 단군이 백두산에 하강하여 만주를 경영했다는 의미이다. 이렇듯 단군이 출현지가 백두산이란 설이 일본인에게까지 알려졌다면, 조선에서도 이것이 생소한 설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의 地가 長白山 일대라 했다.¹⁰⁹⁾ 그리고 이러한 주장을 언론을 통해 계속 발표함으로써,¹¹⁰⁾ 백두산설이 빠르게 확산되었다.

또 신문이나 잡지에서는 백두산에 민족적 의미를 부여한 글들이 발표되고,¹¹¹⁾ 나아가 한민족을 ‘白頭山下民族’으로 지칭하는 일들이 있다.¹¹²⁾

그렇다고 할 때 백두산 의식 고취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 것은 대중교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대중교에서는 대중교가 白峯을 비롯한 백두산 道人들에 의해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며 백두산을 신성시하고 있다. 그러한 대중교가 한말·일제초 민족운동기들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백두산이 단군의 탄생지이며, 따라서 민족의 발상지란 인식이 점차 퍼져 나갔을 것이라 생각한다.

109) 申采浩, 1979, 앞의 글, 479쪽.

110) 예컨대 『大韓每日申報』, 1910. 2. 20, 論說「韓國民族地理上發展」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있다. “韓國民族이 北方에서 始하야 南方으로 發展된 故로 檀君王朝는 太白山에서 起하야 第一次 妙香山으로 移하며 第二次 平壤으로 移하며 第三次 九月山으로 移하고.” 여기서는 백두산과 묘향산이 아예 별개로 취급되는데, 이 논설 역시 신채호의 글로 추정되어 그의 『改訂版 丹齋申采浩全集』 別集 198~199쪽에 수록되어 있다.

111) 『太極學報』 13(태극학회, 1907, 51쪽)에 수록된 「悲秋詞」(無何狂·宋旭鉉 작)에는 백두산신이 민족의 수호신으로 여겨지고 있다. “終夜轉展生覺타가 心亂魂迷就睡하니/以夢非夢恍惚間에 何許白髮一老翁이/短筇弊履불군발로 獨立冠을버서들고/半泣半歎하논말이 我本東土鎭界肺로/劃野分州黃帝時에 白頭山靈되야이셔/三千里의닐은疆域 保全토록힘섯더니/桑田海波翻覆됨이 白頭山이祛汰로세/攄接호處所이 업서 定處업시가든길에/너도亦是祖韓子라 니턴사정하갓더니”

112) 一閑人, 1907, 「閑人閑誌」, 『대한유학생회보』 1, 77쪽; 金寬會, 1909, 「天職論」, 『대한홍학보』 9, 42쪽.

IV. 맺음말

한말은 국가와 민족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은 시기였다. 이에 따라 다양한 국권 수호를 위한 운동들이 전개되었으니, 의병운동이나 애국계몽운동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운동이 소기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민족적 역량의 결집이 필요했고, 민족적 역량의 결집을 위해서는 민족 의식 확립과 애국심 고취가 필요했다. 나아가 민족 의식의 확립을 위해서는 민족정체성의 확인이 필요했으니, 이 시기에 단군의 존재가 강조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였다.

한말 단군의 존재를 부각시키는 움직임은 크게 사회운동 차원과 종교운동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 가운데 사회운동으로는 우선 신문이나 잡지에서의 단군 강조를 들 수 있는데, 이들 언론 매체에서는 단군을 민족의 시조로 받들며, 따라서 우리 민족은 단군의 血孫임을 강조하였다. 국가나 민족의 위기에 단군의 존재가 주목된 것은 이전에도 확인되는 바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가의 시조로서이며 군주제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논리였다. 그러나 이 시기의 단군혈손 의식은 단군을 민족의 시조로 내세워 민족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단군을 구심점으로 민족의 대동단결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이전의 단군 인식과 차이를 보이는 것이라 하겠다.

이와 함께 역사교육의 현장에서 단군의 존재가 민족의 시조로 부각되면서 단군 인식의 대중화에 일익을 담당했고, 단군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국가 차원에서도 단군에 대해 관심을 표명했으니, 단군릉 보수나 참성단 실측이 그런 것이다.

한편 종교운동으로는 대종교의 창립과 활동을 들 수 있다. 1909년에 시작된 대종교는 단군 인식에서 사회운동 차원의 그것과 차이를 보인다. 사회운동에서의 단군은 민족의 시조로서 역사적 존재인 데 비해, 대종교의 단군은 신앙 대상으로서 환인·환웅과 삼위일체의 신격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그러나 대종교에서도 단군이 민족정체성 확인의 근거이며, 민족 의식 고취에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대종교에서는 단군의 기념일인

어천절과 개천절을 제정하여 단군을 선양했을 뿐만 아니라, 백두산을 민족의 발상지 내지 민족의 聖山으로 부각시킴으로써 국토를 민족정체성의 확인의 새로운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이후의 단군 인식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연구를 위해 나름대로의 전망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렇듯 한말 애국계몽운동기에 민족 의식 고취의 근거로 단군혈손 의식이 강조되자, 한편에서는 단군과 일본의 天照大神은 형제이기 때문에, 이들을 숭배해야 한다는 운동이 전개되었다. 神宮奉敬會와 神宮敬義會의 활동이 그것인데, 그들은 서울에 단군과 천조대신 그리고 태조 이성계를 합사하는 사당을 짓기 위해 부지를 마련하고, 공사에 착수까지 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이 의도하는 바는 日鮮同祖論에 입각하여 한국과 일본의 친밀함을 강조하여 국권 침탈에 대한 거부반응을 최소화하려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1910년 일제의 한국 강점이 강행된 이후에는 이용 가치가 없어졌기 때문에, 총독부 당국에 의해 중단되고 만다.¹¹³⁾

이런 일도 있었지만, 단군의 강조는 한말이란 민족적 위기 상황에서 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립하고 민족의 결속에 일익을 담당했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밖으로부터의 위기 극복에 치중하다보니, 민족 내부의 문제에 소홀한 점이 있었다. 다시 말해서 민족구성원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상호 관계 등에 대해서는 방향 제시가 없었다. 따라서 한말의 단군 강조는 스스로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그 결과 단군은 1920년대부터 민족 내부의 분열을 조장하는 촉매제가 되기 시작한다. 다시 말해서 삼일운동 이후 민족진영이 부르주아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로 양분되면서, 부르주아 계열에서는 단군의 중요성이 계속 강조된다. 상해임시정부에서는 개천절과 어천절이 중요한 국경일로 기념되었고,¹¹⁴⁾ 1920

113) 徐永大, 2001, 「한말의 단군운동과 대종교」, 『韓國史研究』 114, 한국사연구회, 249~262쪽.

114) 오영섭, 2006, 「대한민국임시정부 요인들의 단군 인식」, 『한국사의 단군 인식과 단군운동』, 세계평화대학원대학교출판부, 295~350쪽.

년 『동아일보』는 창간과 더불어 ‘檀君景愍懸賞募集’을 실시한다.¹¹⁵⁾ 그러나 사회주의 계열에서는 단군신화를 한국사의 출발점으로 보는 것은 극복되어야 할 ‘특수사관’이라 하면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세계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역사 발전의 한 단계(농업공산체 붕괴 단계)를 반영하는데 불과한 것으로 보았다.¹¹⁶⁾ 이렇게 되면 단군을 민족정체성이나 민족 의식과 관련하여 논의하기는 어렵게 된다.

단군 인식의 分岐는 광복 이후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 역사학계와 재야 학자들의 단군 이해의 차이에서 비롯된 이른바 교과서 파동,¹¹⁷⁾ 서울시의 단군 성전 건립이나 특정 단체의 단군상 건립에 대한 기독교계의 반발, 그리고 북한의 소위 단군릉 발굴 이후 남북한의 단군 인식의 거리가 더욱 넓어진 것 등이 그것이다.

과거 단군이 민족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고 민족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정신적 원동력이 되었음을 생각할 때, 작금의 이러한 현상들은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115) 이지원, 2007, 「1920년대 사상계의 동향과 민족주의 민족문화론」, 『한국 근대 문화사상사 연구』, 혜안, 221~231쪽.

116) 白南雲, 1935, 『朝鮮社會經濟史』, 改造社, 13~33쪽.

117) 윤종영, 1999, 『국사교과서 파동』, 혜안. 이 책에 그 전말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ABSTRACT]

Ideas on Dangun and Nationalism in Modern Korea

Suh, Youngdae

This paper aimed at to explain changing ideas on Dangun, founder of Ancient Joseon dynasty, in Late Daehan Imperial, and these ideas influenced to establishment and diffusion of Korean nationalism.

Dangun was regarded as of great importance through Goryeo and Joseon dynasty, because he is founder of Ancient Joseon dynasty which is a first state in Korean history. But in Late Daehan Imperial period, the importance of Dangun is more increased. The reason of emphasis on Dangun is that he is regarded as centripetal point of national cohesion and basis of nation identity.

Movements of Dangun nationalism were developed various dimensions. The head of these movements were newspapers and periodical journals. These mass media stressed that Korean nations are descendant of Dangun through articles and lyric lines and through use of a Dangun era, so that inspired patriotism into the heart of peoples. Not only mass media, but also education of korean history acted part role of inspiration of recognition of Dang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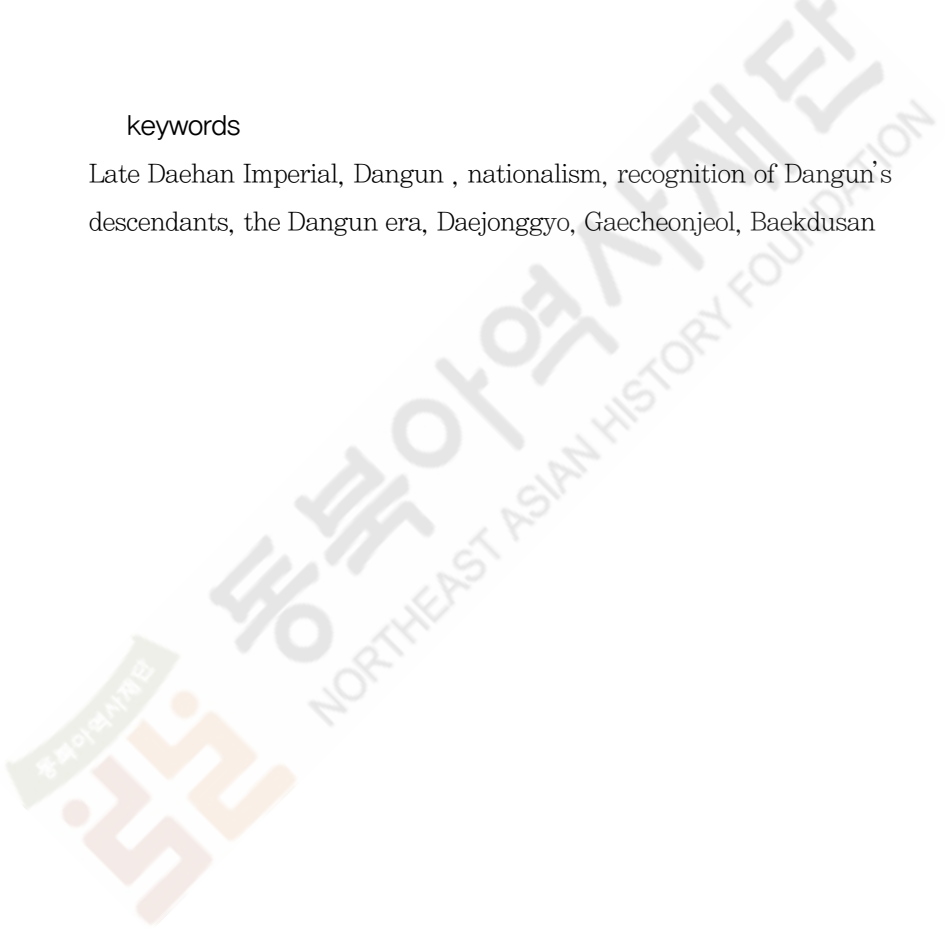
As to approach of Daehan Imperial's collapse, ideas on Dangun progressed from the ancestor of Korean nation to universal god. This religious movement was take charge of a religious sect called Daejonggyo(大倥敎). Daejonggyo worshipped Dangun as a god of their religion and celebrated Dangun's birthday and ascension to heaven

day. And this religious sect stressed Baekdusan(白頭山) as nation symbol.

In spite of Imperial Japan's oppression to these Dangun movements, ideas on Dangun is continued to contemporary Korea's.

keywords

Late Daehan Imperial, Dangun , nationalism, recognition of Dangun's descendants, the Dangun era, Daejonggyo, Gaecheonjeol, Baekdusan



현대 한국의 단군 인식과 민족문제

이용범 |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연구원

I. 머리말

근현대 한국에서 민족문제는 항상 현재 진행형의 과제였다. 근대에는 외세를 배격하면서 민족의 정체성 유지와 통합을 통해 근대국가를 이루는 것이 과제였다면, 근대국가를 이룬 현대에 와서는 남북의 평화적 통일을 통해 남북한 주민을 통합하고 여기에 식민지 시절 해외로 이주한 해외동포를 포용하여 새로운 민족공동체를 건설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광복 이전, 특히 일제강점기에 단군은 우리 민족의 시조, 우리나라의 국조로서 이러한 민족통합과 단결의 상징이자 원천이었다. 이와 같은 단군 인식은 일제강점기에 일제의 국권침탈에 항거하는 민족의 대동단결에 큰 힘을 발휘했고, 현재까지도 이러한 인식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단군에 대한 논의와 행위가 자유로워진 광복 이후 한국사회의 단군 인식은 이전처럼 단일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 광복 이후 더 이상 계층과 종교를 떠나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단군 인식을 공유하지 않게 된 것이다.¹⁾ 아울러 민족 시조로서의 단군의 사회적 위상 역시 계층과 종교에 따라 다

르게 받아들여진다.

물론 이러한 변화가 광복 직후부터 나타난 것은 아니다. 광복 직후 한국사회는 그 이전 한말과 일제강점기의 단군 인식을 그대로 이어받는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수립되면서 헌법에 홍익인간의 이념이 포함되었으며, 개천절이 4대 국경일²⁾의 하나가 되었고, 국가 연호로 檀紀가 결정되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사회적 큰 논란은 없었다. 이는 광복 직후까지도 우리 사회가 계층과 종교의 차이를 떠나 상대적으로 공유된 단군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 사회적으로 공유된 단군 인식은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하고, 이후 서로 상충하는 단군 인식이 나타난다. 1960년대에 들어서도 홍익인간 이념과 개천절은 국가제도 속에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나 국가 연호는 단기에서 西紀로 변경된다. 5·16군사정변 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는 1961년 12월 1일 단기를 폐지하고 서기 사용을 결정한 것이다.

그런데 1960년대에는 단기가 서기로 바뀐 것 외에도 우리 사회의 단군 인식 변화의 조짐을 예고하는 다른 사건들이 발생하기 시작한다. 그 첫 번째 사건이 단군성전 건립에 대한 기독교계의 공공연한 반대였다. 이에 대해서는 당시 강단의 학자들도 반대했다. 이후 국사교과서의 단군과 고조선 관련 서술에 대한 논란, 최근의 檀君像 훼손 사건 등은 한국사회의 단군 인식이 이전과는 달리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단군에 대한 다양한 인식의 층위가 우리 사회 표층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1960년대를 한국사회의 단군 인식 변화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보아도 큰 무리는 없을 듯하다. 1960년대를 전후로 상대적으로 통합된 단군 인식에서 분화된 단군 인식으로의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는 당연히 민족문제에서 단군의 위상 변화를 수반한다. 단군은 더 이상 우리 민

1) 이는 물론 남한사회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광복 이전에 이미 사회주의자들은 민족주의 진영과는 다른 단군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2) 3·1절, 제헌절, 개천절, 광복절을 말한다.

족, 우리 사회의 정체성과 통합의 상징, 원천으로서의 중심적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³⁾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당시 정부는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는데, 이와 함께 한국사회는 급격한 변화를 겪는다. 경제개발을 통한 근대화가 우리 사회의 일차적 목표로 설정되면서 전통적인 삶의 방식과 가치는 무시된다. 또한 6·25전쟁 이후 더욱 격화된 남북대립의 상황 역시 민족문제에 대한 관심을 당시 우선시되었던 이념의 문제 뒤편으로 물러나게 하였다. 1960년대를 전후한 우리 사회의 단군 인식의 변화 역시 이러한 사회 전반의 변화와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된 산업화, 도시화, 그리고 최근의 세계화 물결 속에서 우리 사회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도 다양해지면서, 현재 한국사회에는 민족과 국가의 시조로서 단군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나 집단도 존재하고 있다. 근래에는 한국 남성과 동남아 여성의 결혼으로 이뤄진 이른바 다문화 가정이 현저하게 늘어나면서, 민족의 시조, 국조로서의 단군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필요성이 폭넓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단군은 여전히 한민족 통합의 중심적인 상징이지만, 유일한 상징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 글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나타난 이러한 단군 인식의 변화를 크게 1960년대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살펴본다. 특히 1960년대 이후에 대해서는, 당시에 나타난 우리 사회의 서로 다른 단군 인식의 유형을 네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서 살펴본다. 이러한 작업을 토대로 현대 한국사회 단군 인식의 주요 쟁점과 이후 민족문제와 관련해서 예상되는 단군의 위상 변화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한다.

3) 1998년 10월 초등학교 교내에 세워졌던 단군상의 목이 잘리는 사건을 다루면서, 한 주간지는 “단군이 민족구심점의 대상에서 갈등과 분열의 씨앗이 되었다”는 부제를 달기도 하였다. 김태훈, 1999, 「‘목잘린’ 단군상, 역사는쟁 비화 : 초등학교에서 잇따른 수난 …… 민족 구심점의 대상이 갈등·분열의 씨앗으로」, 『주간조선』 1575, 조선일보사.

II. 1960년대 이전의 단군 인식

한말은 한국사회의 단군 인식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다. 한국의 역사가 단군에서 비롯되었다는 인식은 고려시대에 이미 뚜렷하게 나타난다.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 이러한 단군의 역사적 위치는 더욱 분명해진다. 조선시대 사서들은 官撰, 私撰을 막론하고 모두 한국사가 단군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서술하고, 국가는 ‘조선의 시조’, ‘동방의 시조’라는 이름으로 단군에 대한 제사를 지낸다. 한말에 들어와서도 단군의 출생과 건국에 대한 조선시대의 전승은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나 한말에 와서 단군은 민족의 시조이고, 우리 민족은 단군의 후손이며 단일민족이란 인식이 나타난다. 그런데 이러한 인식은 전통적 신분사회에서는 성립할 수 없는 것이다. 국왕에서 노비까지 모두 동일한 조상의 후손이란 인식은 신분제 사회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군이 민족의 시조라는 인식은 봉건적 신분질서가 무너지면서, 근대적 의미의 민족이란 개념이 등장하는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⁴⁾

우리 민족은 단군의 자손이라는 이러한 인식은 일제가 한국의 국권침탈에 박차를 가하던 시기에 등장한다. 국권상실과 함께 국가와 국가의 중심이었던 황제가 몰락하면서 이를 대체할 대상으로서 민족과 민족혼이 그 중심에 서게 되는 것이다. 국권상실의 민족적 위기상황에서 황실의 위상은 급격하게 약화되었고, 충성과 애국의 대상은 무기력한 황제에서 민족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

4) 이런 점에서 전통적 단군 인식은 단군을 민족의 시조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시조로 받드는 것이다. 여기서 시조란 군주의 생물학적 조상이 아닌, 이전 왕조의 군주로서의 정치적 조상(political ancestor)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치적 조상을 받드는 것은 현재 군주를 역대 위대한 군주들의 계보의 마지막에 둬으로써, 그들의 카리스마와 권위를 현재의 군주에게까지 연장시켜 왕권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단군은 정치적 조상 중에서도 최초의 정치적 조상이라는 특별한 존재, 즉 한국이란 국가가 있게 한 존재로서 여겨졌다고 하겠다. 서영대, 2001, 『한말의 단군운동과 대중교』, 『한국사연구』 114, 219~221쪽.

이다. 1905년 이후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계몽운동과 공화정 등 정치체제에 대한 논의는 바로 황제권이 약화되면서 나타난 현상이었다. 지식인들과 일반인은 황제의 臣民에서 벗어나 국가의 주인인 국민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권회복을 위한 주체적인 행동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드디어 민족이 탄생하기 시작한 것이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한민족 공동체 담론으로서 민족주의가 생산, 유포되었다.⁵⁾

당시 민족과 국가는 대가족이라는 가족 개념의 맥락에서 이해되고 있었다. 민족은 대가족, 즉 핏줄이 같은 혈연공동체라는 것이다. 그리고 단군은 이러한 혈연공동체의 뿌리이자 근원인 민족의 시조로 여겨졌다.⁶⁾ 예컨대 당시 신채호 같은 민족주의자들은 한민족은 모두 '단군의 후예'로서, 단군을 황제의 통치권의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開國者'로서가 아니라 전 민족의 혈연적인 시조로 상정하였다. 즉, 한민족은 단군의 자손이라는, 동일한 혈연공동체·민족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이 확립되는 것이다.

이처럼 한말에 들어와서 단군은 민족의 시조이자 민족 정체성과 통합의 상징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리고 단군을 우리 민족 공동의 조상으로 이해하는 이러한 인식은 단군자손이라는 동질성을 기초로 민족 정체성을 확인하고 민족의 통합과 발전을 도모하려던 일련의 사상, 의식, 운동으로서의 단군민족주의⁷⁾를 가능하게 하였다.

한말에 성립된 단군민족주의는 일제강점기에도 지속된다. 일제의 물리적인 탄압이나 일본인 학자들의 단군 부정론 등에도 불구하고 민족독립을 위한 다양한 정치적 운동이나 사회문화적·종교적 활동과의 연관 속에서 한민족의 시조이며 상징으로서의 단군 인식은 지속되고 널리 확산된다. 『동아일보』가 창간 첫 사업으로 단군 影繪를 공모한 것처럼 여러 신문이나 잡지들은 단군 관

5) 김현숙, 2006, 「한말 민족의 탄생과 민족주의 담론의 창출 : 민족주의 역사서술을 중심으로」, 『동양정치사상사』 5권 1호,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128쪽.

6) 서영대, 2001, 앞의 글, II장 참조.

7) 단군민족주의에 대한 정의는 정영훈, 2003, 「한국종교사속에서의 단군민족주의」, 『신종교연구』 8, 한국신종교학회, 61쪽.

런 기사를 연재하거나 단군 관련 행사를 개최하였다. 최남선으로 대표되는 당시 한국 연구자들에게 단군은 가장 중요한 연구주제 가운데 하나였다. 또한 한국인이 만든 다양한 교과서나 역사서 역시 한민족의 출발점과 시조로서의 고조선과 단군의 위치를 강조하였다. 그리고 대중교나 단군교와 같이 단군을 신앙대상으로 하는 종교적 활동도 폭넓게 행해지고 있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많은 단군사당이 세워졌으며, 많은 지식인이 단군신앙을 받아들이거나 지지하였고, 단군사상을 선양하는 데 참여한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오히려 민족 시조로서의 단군 인식이나 단군의 위치는 보다 폭넓게 한국인의 삶과 의식에 자리잡게 되는 것이다.

광복 직후 이러한 단군 인식은 우리 사회에서 그대로 유지된다.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건국 이후 개천절이 4대 명절의 하나로 정해지고, 헌법에 홍익인간의 이념이 교육이념으로 규정되며, 단기가 정부의 공식연호로 자리잡는다. 이처럼 단군 관련 이념과 기념일, 단기를 국가의례와 제도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러한 이념, 기념일, 연호가 전제하고 있는 단군 인식을 국가적으로 공인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즉, 단군은 새로 수립된 대한민국의 국가적 상징으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전 시기와 마찬가지로 단군민족주의는 여전히 우리 민족 통합의 기제로서 작용하고 있었다. 이를 ‘단군민족주의의 제도화’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⁸⁾ 그리고 이러한 제도화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순조롭게 이루어졌다.

홍익인간이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으로 결정되는 과정은 이를 잘 보여준다. 대한민국 교육이념이 홍익인간으로 규정된 것은 미군정 때였다. 1945년 8월 15일 광복과 동시에 미군정이 실시되자, 같은 해 11월 23일에 미군정청은 교육계와 학계의 권위자 100여 명을 초청하여 조선교육심의회를 구성하고, 민주주의에 토대를 둔 교육이념과 제도 및 방향을 협의, 결정하고자 하였다. 교육이념으로 홍익인간이 채택된 것은 교육심의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였다. 즉, “홍익인간의 건국이념에 의하여 인격이 완전하고 애국정신이 투철한 민주국

8) 정영훈, 2005, 「남과 북의 단군 인식과 단군숭앙」, 『단군학연구』 12, 단군학회, 188쪽.

가의 공민을 양성함을 교육의 근본이념으로 한다”고 규정되었다.

이후 군정시대에 교육이념으로 정해진 홍익인간은 정부 수립 후 ‘교육법’을 제정할 때 교육이념으로 채택된다. 1949년 12월 31일 법률 제86호로 제정, 공포된 ‘교육법’ 제1조는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이념을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구유하게 하여, 민주국가 발전에 봉사하며 인류공영의 이상 실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마침내 홍익인간이 대한민국 교육이념으로 결정된다.⁹⁾

그런데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으로 단군의 건국이념인 홍익인간을 채택할 것을 발의한 사람은 바로 기독교인으로 연세대학교 총장을 역임했던 백낙준이었다. 1960년대부터 두드러지게 표출되었던 기독교계의 반(反)단군 움직임과는 달리, 당시에 홍익인간 사상은 종교적·사회적 갈등의 요인이 되지 않았던 것이다. 당시 조선교육위원회와 조선교육심의위원회의 구성원의 절대 다수가 기독교인이며 친일적 이력이 있는 한민당의 당원이었는데도 홍익인간을 기본 교육이념으로 채택한 것은 이를 잘 보여준다. 미군정에서 학무부 국장으로서 조선교육위원회의 구성원을 대부분 추천했던 오천석 역시 처음에는 개인적인 기독교 신앙 때문에 홍익인간을 교육이념으로 채택하는 데 소극적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후일 그는 교육이념으로서의 홍익인간의 정당성을 옹호하기까지 하였다.¹⁰⁾

이런 점에서 당시에 단군의 홍익인간 사상은 종교적·사회적 대립의 요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적어도 광복 직후에는 우리 사회에 계층과 종교의 차이를 떠나 단군에 대한 일정한 합의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

9) 손인수, 2001, 「홍익인간」, 『디지털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동방미디어.

10) 이형래, 2006, 「해방 후 단군 인식과 현대 단군운동의 전개」, 『한국사의 단군 인식과 단군운동』, 국제평화대학원대학교 출판부, 351·355쪽. 이 글에 따르면 일제시대 서양선교사들과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단군을 민족의 시조로 여기는 것 역시 일반적 태도라고 한다. 이형래, 2006, 위의 글, 352쪽 참조.

겠다. 다음의 이야기 역시 그런 사실을 확인해 준다. “해방 직후에는 단기를 사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교실마다 단군 영정이 걸려 있어서 매일 단군 할아버지를 접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일제시대를 경험하고 해방 직후에 학교를 다닌 세대에게는 단군이 매우 친근하다.”¹¹⁾

개천절과 단기 연호 채택 역시 별다른 사회적 논란없이 이뤄졌다. 개천절은 단군의 탄강일이자 건국일로 전해져오는 음력 10월 3일을 양력으로 바뀐 것이다. 개천절은 원래 음력 10월 3일로 대한민국 수립 후까지도 음력으로 지켜왔는데, 1949년에 문교부가 위촉한 ‘개천절 음·양력 換用심의회’의 심의결과 음·양력 환산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와 ‘10월 3일’이라는 기록이 소중하다는 의견에 따라, 1949년 10월 1일에 공포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음력 10월 3일을 양력 10월 3일로 바꾸어 지행하게 되었다.¹²⁾

개천절이 언제부터 10월 3일로 정해졌는지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전통적으로 행해지던 10월 상달의 제천행사로부터 연유했다고 보는 것이 보통이다.¹³⁾ 근대적 의미의 개천절은 대중교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대중교에서 개천절을 처음 기념한 것은 1909년 11월 15일(음력 10월 3일)이며,¹⁴⁾ 상해에서 임시정부가 수립된 뒤 建國紀元節¹⁵⁾이라는 이름으로 기념식을 거행한

11) 이진구, 2003, 「단군상 논쟁을 통해 본 신화와 역사담론」, 『신화와 역사』, 서울대학교출판부, 291쪽 각주 20번 참조.

12) 민병하, 2001, 「개천절」, 『디지털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동방미디어; 송호정, 2004, 「국경일과 개천절」, 『단군 만들어진 신화』, 44~45쪽.

13) 예컨대 「開天節：全民的名節」, 『동아일보』, 1926. 11. 07.

14) 당시에는 개극절(開極節)이라 했다고 한다. 「開極節기념」, 『황성신문』, 1909. 11. 21.

15) 「上海에 建國紀元節」, 『동아일보』, 1924. 11. 09.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군탄강일을 성대히 기념. 음력으로 십월 초삼일은 우리의 歷史에 의지하여 사천 삼백팔십이년 전 이날에 우리의 처음 임금인 檀君이 이 세상에 내려왔고 그뒤 일백이십오년 곧 지금으로부터 사천이백오십칠년 전 이날에 처음으로 단군이 임금이 되어 「배달」(조선)이라는 나라를 건설한 날이라 한다. 그래서 그 뒤에 단군의 교화인 大敎敎를 받드는 조선에서는 이날을 開天節이라고 명하여 기념하여 왔으며 그뒤에 임시정부에서는 이날이 대중교인 종교에서만 기념할 뿐이 아니라 실상인즉 우리 민족 전체가 이날을 기념하여 우리의 나라 역사가 처음으로 비롯한 것을 기념하지 아니하면 아니되겠다 하여 이날로써 建國紀元節이라고 특별한 이름을 정하여 우리 민족 전체가 이날이 우리 경축할 만한 경사로운 날이라는 것을 정하였다. ……”

이래 국내는 물론이고, 동포들이 거주하는 곳마다 음력 10월 3일에 맞추어 기념식이 거행되어 왔었다.

이런 점에서 개천절이라는 명칭은 한말부터 대종교측이 먼저 사용하던 것이 일제강점기를 통해 일반화된 용어라고 할 수 있다.¹⁶⁾ 개천절이 일제강점기에 일반화된 한 예로서 다음 사례를 들 수 있다. 예컨대 1919년 개천절인 11월 25일에 서울에서는 누군가에 의해 구한국 기와 ‘단군 기념’이라고 대서특필한 기가 올라갔고 삼청공원, 한양공원에도 태극기가 나무에 게양되기도 하였으며, 학생들은 수업을 거부하고 시위를 시도하기도 하였다.¹⁷⁾ 만약 일제강점기에 개천절이 일반화되지 않았다면 개천절에 이런 사건은 일어나기 힘들었을 것이다. 이러한 개천절을 국경일로 정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기원이 단군에서 기원함을 국가적으로 공인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광복 직후에 행해진 개천절을 살펴보면, 지금과는 달리 많은 시민이 참여하는 축제적인 분위기에서 행해졌던 것으로 보인다. 1945년 11월 8일에 행해진 개천절 행사를 보면, 행사 장소가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지금의 동대문운동장인 서울운동장이었다. 행사도 “수만 시민과 시내 각 남녀학교 생도가 참석 가운데 …… 애국가의 제창과 함께 태극기는 가을 하늘 높이 휘날리고李克魯의 뜻 깊은 개회사에 이어 단군께서 강림하신 백두산을 향하여 경례를 바치었다. 이어 개천가의 연주가 있는 후 朴格欽의 축사가 있었고 구이왕직 아악부의 아악연주가 있는 후 만세 삼창으로 폐식하였다. 이어서 시내 남자 중등 16개교, 여자 중등 17개교가 참가한 마스게임과 각교 대항 릴레이가 있었고 야구장에서는 弓道, 정구장에서는 力道와 18기 등 우리나라 고유의 연무가 거행되는” 등 축제적인 분위기에서 행해졌다.¹⁸⁾

또한 1946년 개천절에는 서울운동장에서의 행사 외에 대종교에 의해 “대종교총본사 天真殿 성화를 민족의 자랑 孫基禎을 비롯하여 조선육상경기연맹

16) 정영훈, 2005, 앞의 글, 189쪽.

17)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편, 1977, 『독립운동사 제9권 : 학생독립운동사』, 독립유공자사업기금운용위원회, 214~215쪽.

18) 「개천절 경축식 거행」, 『매일신보』, 1945. 11. 08.

과 강화군내의 청년들의 손으로써 서울 강화읍간을 전달하여 27일 정오 참성단위에서 金九총리(가) 접화”하는 행사가 있기도 하였다.¹⁹⁾ 그리고 1949년도에는 강화도 마니산 참성단에서 개천절 행사가 거행되었다. 이때는 성화를 제천단에 봉안하는 행사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한편 개천절 노래와 개천절 표어도 만들어진다. 각각 1950년 4월 29일, 1951년 10월 2일에 제정된다. 개천절 표어는 “한겨레 한마음 한뜻으로 오랑캐를 무찌르자”이다.²⁰⁾

단기 연호는 단군의 건국으로부터 기산하는 기년법으로, 단기를 공식 연호로 삼았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단군 이래 유구한 반만년 민족사의 맥락에서 이를 계승하였음을 천명한 것이다. 단군의 건국시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기록이 전해지지만, 한말 이후에 『동국통감』의 기록에 준하여 기원전 2333년으로 일반화되었는데, 공식 연호 제정시에는 이 같은 전통이 반영되었다.²¹⁾

이러한 단기 연호는 단군이 민족의 시조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한말에서부터 이미 일반화되어 있었다. 가령 『황성신문』²²⁾이나 『대한매일신보』²³⁾ 등은 1905년부터 단기를 병용하고 있었고, 한말의 다른 신문들, 예컨대 천도교의 『만세보』나 최초의 지방신문으로 꼽히는 『경남일보』 등은 물론이고, 기독교계 통에서 발행하는 『예수교회보』도 단기를 사용하였다. 또한 미주에서 간행된 교포신문인 『공립신보』와 『신한신보』²⁴⁾도 단기 연호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3·1운동 후에 더 분명해진다.

19) 「개천절봉축대회거행」, 『조선일보』, 1946. 10. 29 ; 「개천절 봉축식전 27일 거행 예정」, 『동아일보』, 1946. 10. 24.

20) 「開天節노래 制定」, 『동아일보』, 1950. 4. 29 ; 「開天節標語制定」, 『동아일보』, 1951. 10. 2.

21) 정영훈, 2005, 앞의 글, 189쪽.

22) 『황성신문』은 1905년 4월 1일부터 光武 연호와 檀紀를 병기하였다. 『한민족독립운동사』 2, 국사편찬위원회, 1987, 182쪽.

23) 『대한매일신보』는 8월 11일부터 단군개국연호를 사용하였다. 서영대, 2001, 앞의 글, 114쪽.

24) 『신한신보』는 9월 15일부터 建國紀元이란 이름으로 단기를 사용하였다. 서영대, 2001, 앞의 글, 114쪽.

일반적으로 연호란 사용자가 자신이 어떤 집단에 속해 있는지를 밝히는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한말에는 청국의 연호인 崇禎紀元後, 조선조 개국기원을 뜻하는 建國이나 開國, 대한제국의 공식 연호인 광무, 건양, 융희 등이 있었는데, 단기가 일반화되어간다는 것은 한민족의 연원이 단군에서 비롯되었다고 바로 단군은 한민족의 시조라는 인식이 널리 일반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광복 이후 단기 연호는 이러한 단군 중심의 민족주의 전통을 수용하였음을 말해 준다.²⁵⁾

그러나 1948년에 채택되었던 단기 연호는 5·16군사정변으로 들어선 국가재건위원회에 의해 1961년에 폐지되고 만다. 단기 연호의 폐지에 대해서는 단기 고증이 어렵고,²⁶⁾ 외국이 서기 연호를 사용하고 있어서 대외문서와 국내 문서의 통일을 기할 수 없으며, 양 연호 연산에 불필요한 환산을 해야 하고, 역사 등의 교육에서 연대 개념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등의 이유가 제시되었다.²⁷⁾

한편 1955년 제36회 전국체육대회부터 강화도 마니산에서 전국체전 성화가 재화되어 봉송되기 시작하였다. 이 역시 단군을 우리 민족의 상징적 존재라는 것을 국가제도의 차원에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961년에 단기가 폐지된 이후에도 홍익인간의 이념과 개천절, 마니산 전국체전 성화 재화는 그대로 유지되고, 이 외에 국가의 법과 제도의 차원에서 단군의 위치나 단군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특별하게 찾아보기는 어렵다.

25) 정영훈, 1995, 「단군과 근대 한국민족운동」, 『한국의 정치와 경제』 8, 24~26쪽 ; 단기 제정 관련 1차 자료는 윤이흠, 1994, 「단군 : 그 이해와 자료」, 서울대학교출판부, 602~629쪽.

26) 최정수, 「檀紀使用에 異見」, 『동아일보』, 1958. 3. 11.

27) 「檀紀年號 廢止를 推進 : 새해부터 西紀만 쓰도록」, 『동아일보』, 1961. 11. 12. 한편 이 단기 폐지 법률안은 박정희 최고회의의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며, 그 제안서에는 “단군 기원은 신화적 비합리성에 입각한 것이고 서기를 사용하는 것에 적극 찬동한다”는 당시 서울대학교 총장서리 유흥렬 교수와 사학계의 의견이 덧붙여진 ‘참모연구서’가 첨부되어 있었다고 한다. 양승태, 2001, 「연호와 국가정체성 : 단기연호 해명을 위한 정치철학적 논구」, 『한국정치학회보』 35집 4호, 한국정치학회, 30쪽 각주 1번 참조.

이렇게 살펴본 것처럼, 광복 이후 1960년대 전까지는 광복 이전 시기의 단군민족주의 흐름이 지속되면서,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계층, 종교의 차이를 떠나 상대적으로 동일한 단군 인식을 공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단군 인식에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은 1960년대부터이다.

Ⅲ. 1960년대 이후의 단군 인식

1_ 국가적 차원에서의 단군 인식

한말과 일제강점기의 근대 단군 인식과 다른 단군에 대한 태도가 처음으로 나타나는 것은 국가 제도적 차원에서이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5·16 군사정권은 연대 계산의 어려움, 국내적으로 단기, 대외적으로는 서기가 사용되는 이중 연호 사용의 문제, 국제관계에서의 불편함 등의 대단히 편의적인 이유를 내세워 국가 연호를 단기에서 서기로 바꾼다.

이처럼 단기를 폐지하고 서기를 채택한 데는 다음과 같은 생각이 깔려 있는 듯하다. 한 국가의 연호는 단순히 객관적이고 가치중립적인 연대 측정의 수단으로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며, 단군신화에 입각한 단기 연호를 쓰는 것은 합리적 시대 분위기에 맞지 않으며, 효율적 국가 운영에 방해가 된다는 생각이다.²⁸⁾

그러나 연호는 단순한 연대 측정 수단 이상으로 한 국가의 역사식과 정체성을 나타내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런 점에서 단기의 폐지는 단군을 중심으로 한 우리 민족사의 유구성과 자주성, 문화적 정체성을 부정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 단군의 의미가 그만큼 퇴색

28) 단기 연호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는 양승태, 2001, 위의 글 참조.

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전주곡이었다.

한편 이후에도 홍익인간의 이념과 개천절은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나 개천절의 경우, 비록 현재까지 유지되고는 있으나, 이전과는 달리 그 중요성과 규모가 약해진다. 특히 현재 개천절은 3·1절, 제헌절, 광복절과는 달리 국경일 이기보다는 오히려 특정 종교와 관련된 날로 여겨지기조차도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이다.²⁹⁾ 이는 그만큼 단군에 대한 인식이 우리 사회에서 중요성과 보편성을 잃어가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시작된 냉전체제하에서 우리 사회에서는 민족적 동질성보다는 이념의 차이가 강조되었으며, 경제개발과 산업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점점 서구적이고 합리적 사고방식이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적 차원에서의 단군 인식과 단군의 위치는 대단히 애매모호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대한민국 정부는 국가 연호로서 단기를 폐지하고 서기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개천절과 홍익인간 이념은 부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1966년 남산의 조선신궁 자리에 무려 1억 원의 돈을 들여 3년간에 걸쳐 15m의 단군상을 세울 계획을 세운다.³⁰⁾ 그러나 당시 기독교계와 학계의 반대에 부딪히자, 그 계획을 취소한다.³¹⁾ 만약 광복 직후처럼 이전 시기의 단군 인식을 확실하게 계승한다는 인식이 있었더라면, 그런 반대의견을 설득하여 계획을 실행에 옮길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부가

-
- 29) 강돈구, 2001, 「동아시아의 종교와 민족주의」, 『종교연구』 22, 한국종교학회, 29쪽.
 30) 그리고 이 단군상 좌우에는 을지문덕 장군 상과 충무공 상도 같이 세울 계획이었다. 이 계획은 단군승녕회가 주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국가에서 실질적인 주도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예산도 처음에는 3천만 원을 계획했으나 박정희 대통령의 재가를 받으면서 그 예산이 1억 원으로 늘어난다. 『공중에 떠버린 단군상』, 『조선일보』, 1966. 2. 23.
 31) 당시 『조선일보』, 1966. 2. 10자 기사에는 이병도, 정병조, 김원룡, 고영복 등의 반대의견을 실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이들 학자의 반대이유가 단군이 설화적 인물이고 이런 인물의 상을 세우는 것은 당시 한국사회의 목표인 조국 근대화에 역행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반대이유는 단군이 신화적 인물이기 때문에 단군상을 세우는 것에 반대하는 기독교의 입장과 거의 다르지 않다.

단군에 대한 나름의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지 않거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단군을 이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해석을 가능케 한다. 이는 1985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1985년 서울시는 사직공원 내의 단군성전을 확충하려하였으나 기독교계가 반대하자 역시 실천에 옮기지 못한다.

이런 과정에서도 정부는 1977년 8월 28일에 정부 표준 단군 영정을 지정한다. 전국체전 때 강화도 마니산에서 성화를 채화 봉송하는 것도 여전히 시행하고 있다. 이런 사례들은 모두 대한민국 정부의 단군 인식이 일관성이 없으며 애매모호하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단군에 대한 정부의 이러한 태도를 시대에 따른 창조적 수용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 사회는 국가 제도적 차원에서 대한민국과 단군의 관계, 단군의 국가적 의미를 아직 분명하게 정리하지 못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지 60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 대한민국은 여전히 남북통일과 아울러 남북통일을 넘어서 지구촌 곳곳에 퍼져 있는 한민족의 통합이라는 민족적 과제를 안고 있다. 현재 국가적 차원에서의 단군 인식이 이처럼 애매한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그러한 민족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과연 단군이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남북통일과 한민족 통합이라는 민족적 과제에서 단군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후 국가적 차원에서 단군에 대한 인식과 제도를 어떻게 정비해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2. 단군신앙 종교단체의 단군 인식

이미 한말, 일제시기부터 단군신앙 종교로 알려진 대종교와 단군교 외에도, 광복 직후 역사가 짧고 규모가 작은 많은 소규모 종단에서 단군에 대한 신앙을 내세웠다. 심지어 일제시기에 친일의 모습을 보여준 종교단체에서도 ‘차구책’ 차원에서 단군숭배를 내세우기도 하였다. 단군을 신앙대상으로 하는 교단은 구한말에서 현대에 걸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데, 이처럼 수많은 단군신앙 종교단체가 이 시기에 나타난 것은 단군신앙의 역사에서 근현대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처럼 다양한 단군신앙 종교단체가 나타나는 것은 그만큼 단군에 대한 신앙이 우리 사회 저변에 널리 자리잡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단순히 대중교나 단군교와 같은 대표적인 단군신앙 종교단체의 영향으로 근현대기에 이렇게 다양한 단군신앙 교단이나 관련 단체가 생긴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한국사회에서의 단군 인식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사회 저변에 널리 알려져 있다는 전제하에서 근현대의 다양한 단군신앙 종교단체의 명멸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이다.

아래에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단군이 주 신앙대상이 아닌데도 자신들의 주 신앙대상과 함께 단군을 신앙하고 있는 다양한 종교단체가 있다는 것은 단군에 대한 신앙이 특히 신종교와 민간신앙에서 매우 폭넓게 자리잡고 있음을 말해 준다. 이 글은 단군 관련 사묘는 다루고 있지 않은데, 그것까지 포함한다면, 광복 직후 우리 사회에 단군에 대한 신앙이 얼마나 일반화되었는가를 알 수 있다

이러한 단군신앙 종교단체는 단군만을 신앙대상으로 하는 종교, 단군과 다른 신앙대상을 같이 모시는 종교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한다.³²⁾ 단군을 신앙 대상으로 하는 종교에는 잘 알려진 대중교를 비롯하여 단군교, 神市教, 開天教, 한얼교 등이 있다. 단군과 다른 신앙대상을 같이 모시는 종교는 단군을 중심으로 다른 신앙대상을 같이 모시는 종교와 본래의 신앙대상 외에 단군을 같이 모시는 종교가 있다. 이러한 종교들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소규모의 종교교단들이 있다. 이 외에도 무당이 자신의 개인신당에 단군을 모시는 경우도 있다.

이들 단군신앙 종교단체의 단군에 대한 신앙 내용은 다양한 양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들이 단군을 어떻게 신앙하고 있는가를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³³⁾ 예컨대 대중교와 한얼교를 보면, 단군을 중심 신앙대상으로 한다는 공

32) 오병무, 2003, 「단군신앙계열의 흐름과 전망」, 『신종교연구』 8, 한국신종교학회, 38~51쪽.

33) 이는 전국의 단군사묘에 모셔지는 단군 영정이 각각 다르다는 것과는 연결된다. 이러한 다양성은 단군신앙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이다.

통점을 갖고 있으면서도, 양자 사이에는 단군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보인다. 대종교는 삼신일체, 즉 하늘에 있을 때는 조화주로서의 환인, 인간세상에 내려와서는 교화주로서의 환웅,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치화주로서의 임금인 단군이 하나로서, 국조인 단군을 삼신일체로서의 한배검으로 본다. 반면에 한얼교는 신앙대상이 한얼님인데, 한얼님은 하늘의 오직 하나뿐인 근본얼로서 홍익인간 이화세계의 정신이고 단군 자신이기도 하다.³⁴⁾

단군과 다른 신앙대상을 같이 모시는 종교의 경우, 단군에 대한 구체적 인식의 내용을 더욱 파악하기 어렵다. 한 연구는 이들의 단군에 대한 신앙의 내용을 단군을 천신으로 신앙하는 경우, 단군을 제천의 대상으로 신앙하는 경우, 단군을 신선으로 신앙하는 경우, 단군을 민족의 시조이자 국조로 신앙하는 경우, 그리고 사람에게 接神하는 무속적 신앙 유형으로 나누어 보고 있다.³⁵⁾

1960년대에 이러한 종교단체의 수는, 단군을 신앙대상으로 하는 종교는 2개, 단군을 중심으로 다른 신앙대상을 같이 모시는 종교는 6개, 본래의 신앙대상 외에 단군을 같이 모시는 종교는 22개로 모두 30개였다. 1980년대에는 각각 9개, 9개, 50개로 모두 68개였다.³⁶⁾ 다른 조사에 따르면, 1997년 현재, 단군을 주 신앙대상으로 삼는 교단은 전국적으로 20여 개이며, 다른 주 신앙대상 외에 단군을 보조적으로 신앙하는 교단도 51개에 달한다고 한다.³⁷⁾

1960년대와 1980년대, 1990년 후반을 비교해 보았을 때 종교단체의 수는 줄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단군신앙 종교단체의 수는 줄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이들 종교단체의 신앙활동이 매우 침체되어 있음은 이미 보고된 바 있고,³⁸⁾ 따라서 명맥만 유지하는 종교단체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단군을 대상으로 하는 신앙활동은, 대종교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계

34) 김홍철, 1999, 「단군신앙의 실태와 그 특성」, 『단군학연구』 1, 단군학회, 230쪽.

35) 이강오, 1987, 「단군신앙의 실태분석」, 『정신문화연구』 3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53쪽.

36) 이강오, 1987, 위의 글, 81쪽.

37) 김홍철, 1999, 앞의 글, 259~260쪽.

38) 조홍윤, 1994, 「한국 단군신앙의 실태」, 『단군 : 그 이해와 자료』, 서울대학교출판부, 342~345쪽.

속 위축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종교단체가 체계적인 이념이나 교단조직을 발전시키지 못한 채 소규모의 종단을 유지하여, 제도종교로의 길을 걷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단군을 중심 신앙대상으로 모시든, 다른 신앙대상과 같이 단군을 모시든 간에 한국의 단군신앙 관련 종교단체에서는 단군을 주로 우리 민족의 시조이자 국조로 신앙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국조로서의 단군과 종교적 신앙대상으로서의 단군이 결합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단군신앙 종교단체의 단군에 대한 인식도 우리 사회에 가장 일반화되어 있는 민족주의적인 단군 인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은 예컨대 『巫黨來歷』에서 무당의 기원을 단군에서 찾고 있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3_ 개신교의 반(反)단군운동에 나타난 단군 인식

광복 이후 기독교, 특히 개신교는 지금까지 단군에 대해서 그 실존을 부정하고 단군에 대한 행위를 우상숭배로 규정하는 단군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그러나 앞에서 홍익인간이 대한민국 교육이념으로 결정되는 과정에서 보았듯이, 광복 이전이나 직후까지 기독교의 단군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이지 않았다. 이는 한국에 처음으로 온 초기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였다.

한국에 온 개신교 선교사들은 단군신화를 통해서 ‘하느님’을 만났고, 성경의 창조주와 동일시하여 성경의 창조주를 표현하는 성경용어로 ‘하느님’을 채택한다. 그들은 단군을 한국민족의 시조요, 첫 임금, 문화적 영웅, 사머니즘의 제사장 무당, 한국 삼일신문의 제삼위로 이해하였다. 이런 점에서 현재 일부 보수주의 개신교인들이 스스로 자신들을 미신적이고 우상적인 단군신화를 거부한 초기 한국교회의 소위 ‘보수 전통신앙’의 계승자라고 말하는 것은 역사적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³⁹⁾

39) 옥성득, 2001, 「초기 한국교회의 단군신화 이해」, 『한국기독교와 민족통일운동』,

또한 한말에 기독교계 신문인 『예수교회보』는 『황성신문』이나 『대한매일신보』 등의 당시 다른 신문들과 같이 단기 연호를 병용하였다. 그리고 당시의 유력한 기독교 지도자들은 단군민족주의를 수용하고 있었다. 가령 초기 기독교 지도자인 최경환·정교 등이 지은 역사교과서 『대동역사』나 남궁억이 쓴 『조선니약이』 등의 책은 단군의 건국으로부터 한국사를 서술함으로써 민족사의 유구성과 자주성을 강조한다.⁴⁰⁾

그러나 한국기독교는 1960년대와 1980년대의 단군성전 건립 반대⁴¹⁾와 ‘단군 실존화 규정 교과서 편입 반대’, 초등학교에 세워진 단군상 훼손 등 일관되게 단군신앙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여 왔으며 최근에는 일부 교단을 중심으로 상당히 조직적인 운동을 펼치고 있다. 여기서는 최근의 단군상 훼손 사건을 중심으로 이러한 개신교의 반(反)단군운동의 논리를 파악하고자 한다.⁴²⁾

단군상과 관련된 개신교의 논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정교분리와 종교자유 원칙을 내세워 단군상 건립의 위법성을 비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보편주의와 세계주의를 내세워 단군상 건립을 배타적 민족주의라고 공격하는 것이며, 세 번째는 우상타파와 미신타파 담론으로 이른바 단군샤머니즘을 공격하는 것이다.

공공장소에 단군상을 설치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주장은 헌법의 규정에 거대한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20조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지니며,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고 국교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두 조항으로 되어 있다. 이는 특정 종교를 우대(또는 차별)하거나 그 종교에 특혜(또는 불이익)를 부여해서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315~317쪽.

40) 정영훈, 2003, 앞의 글, 77쪽.

41) 1966년 박정희 대통령은 서울 남산의 조선신궁 자리에 1억 원의 정부 보조금과 국민성금으로 단군전을 건립하려고 하였으나, 기독교계와 학계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정부 주도의 단군전 건립은 실패하였으나 1968년 현정회가 사직공원 내에 작은 규모의 단군성전을 건립하였다. 이후 1985년 서울시는 사직공원 내의 단군성전을 확충하려하였으나 기독교의 반대로 실행하지 못한다. 이형래, 2006, 앞의 글, 368~369쪽; 1985년의 단군성전 건립 관계자료는 윤이흠, 1994, 앞의 책, 643~662쪽 참조.

42) 이하 논의를 이진구, 2003, 앞의 글을 주로 참조했음.

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그런데 개신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단군은 현재 종교의 신앙대상이고 단군상은 그 조형물이기 때문에, 학교와 같은 공공장소에 단군상을 건립하는 것은 그러한 종교를 사실상 지원하는 것이 된다.⁴³⁾

이에 대해서 물론 단군상을 건립한 측에서는 자신들이 종교인도 아니며 단군상은 종교와 무관하다고 말한다. 아마도 초등학교의 교장들이 교내에 단군상 건립을 허용한 것도 단군상을 종교적 상징물로 보지 않고 민족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교육용 조형물로 보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개신교는 단군상을 세운 주체가 위장한 종교단체이며 단군상은 종교적 상징물이라고 단언한다.⁴⁴⁾

개신교의 두 번째 비판은, 이른바 단군민족주의에 대한 비판이다. 개신교는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히틀러의 민족 우월주의와 일본의 군국주의를 예로 들어 민족 우월주의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지적하면서, 단군상 건립운동이 그런 민족 우월주의에 근거해 있다고 비판한다. 반면에 기독교의 보편주의와 세계주의를 내세우면서, 기독교는 그러한 민족 우월주의의 폐해를 넘어설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아울러 단군운동 진영에서 내세우는 홍익인간 사상은 경전과 역사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보편주의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반면에 기독교는 명실상부한 보편주의라고 주장한다.⁴⁵⁾

세 번째로 개신교는 단군이 무속종교의 배경에서 나타났다는 단군사며니즘 담론을 활용한다. 개신교는 단군과 무당을 연결시키는 기존 학계의 설명(예컨대 단군은 무당이라는 최남선의 설명 등)을 근거로 단군신앙이 우상숭배이며 미신이라고 규정하면서, 우상타파와 미신타파를 주장한다. 앞의 두 주장이 주로 개신교 밖을 겨냥한 것이라면, 이 세 번째 주장은 개신교 내를 대상으로

43) 이처럼 공공성을 이유로 단군상이나 단군성전 건립을 반대하는 것은 개신교의 주 논리 가운데 하나이다. 예컨대 1985년 사직공원에 단군성전을 넓히려는 서울시의 계획에 대해서도 민간단체가 아닌 '정부(서울시)'가 '국고'나 '세금'을 지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대하였다. 윤이훈, 1994, 앞의 책, 647~649쪽.

44) 이진구, 2003, 앞의 글, 290~292쪽.

45) 이진구, 2003, 앞의 글, 295~298쪽.

하는 차이가 있다. 이처럼 개신교는 정교분리와 종교자유, 기독교 세계주의와 보편주의, 우상타파와 미신타파 등의 담론을 활용하여 단군상 건립운동에 반대하고 있다.⁴⁶⁾

그런데 이러한 세 가지 비판을 가로지르면서 단군상 건립 반대 주장의 핵심에 놓여 있는 논리가 있다. 그것은 바로 단군의 신격화와 역사성을 둘러싼 논쟁이다. 이는 단군은 신화적 존재인가 역사적 인물인가라는 논쟁과 직결된다. 여기서 개신교는 단군을 신화적 인물로 인식하는 입장을 취한다. 단군은 그 역사적 실존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허구적 이야기의 범주에 속하는 신화 속의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허구적 존재의 형상을 만들고 그에 대해 참배하는 것은 우상숭배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즉 허구적·신화적 존재를 신격화하지 말라는 것이 개신교의 주장인 것이다. 반면에 단군상을 건립하는 측에서는 단군을 허구적 존재가 아니다, 단군은 한민족의 역사를 가능케 한 민족의 시조이고 개국조이다, 따라서 그의 상을 세워 참배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⁴⁷⁾

한편 이러한 양자의 주장은 단군을 각각 신화적 존재와 역사적 존재로 규정하면서 서로 대립하는 자리에서 있지만, 보다 심층적인 차원에서는 양자는 동일한 인식론적 기반을 공유하고 있다. 즉, 그것은 신화와 역사의 이분법이다. 이때 신화는 허구와 동일시되고, 역사는 사실과 동일시된다. 이러한 분류법에서는 신화는 허구적 상상력의 이야기로 간주되기에 부정적 가치가 부여되고, 역사는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가 되어 긍정적 가치가 부여된다. 결국 이러한 분류체계는 역사 우위의 사고방식에서 나온 산물이다.⁴⁸⁾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역사와 신화에 대한 개신교의 이중적 전략이다. 즉, 이러한 개신교의 단군 인식의 저변에는 신화와 역사의 이분법이 전제되어 있는데, 개신교는 타자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신화의 범주를 적용하나 자

46) 이진구, 2003, 앞의 글, 298~300쪽.

47) 이진구, 2003, 앞의 글, 303~304쪽.

48) 이진구, 2003, 앞의 글, 304쪽.

신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신화의 범주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기독교 전통은 초기부터 고대 그리스와 로마, 이교도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신화, 즉 허구의 범주를 적용하였지만, 구약과 신약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역사적 사실로 간주하였다. 이러한 선택과 배제의 전략이 단군이야기에 적용된 것이다.⁴⁹⁾

이러한 개신교의 단군 인식은 몇 가지 허점이 있다. 먼저 신화를 허구와 동일시하여 단군신화를 허구로, 단군을 허구적 존재로서 부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태도이다. 기독교 역시 나름의 일정한 신화적 전승에 기초해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논리는 부메랑이 되어 똑같은 방식으로 기독교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현대 학문에서 신화를 그저 허구로서만 파악하는 단순논리는 통용되지 않는다.

또한 기독교의 단군에 대한 인식은 종교적 신앙대상으로만 단군을 파악하여 한국사회의 단군에 대한 인식과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단군에 대한 인식은 복합적이다. 단군은 한민족의 시조로 인식되면서 또한 종교적 신앙대상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즉, 단군은 몇몇 종교단체의 신앙대상이면서 아울러 한민족, 대한민국의 상징으로서 우리 사회 전체의 관심대상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단군에 종교적 존재의 측면이 있다고 해서 또 다른 측면을 부정하는 것은 한국사회의 단군에 대한 복합적 인식을 충분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아울러 단군이 신화에 등장하는 이른바 신화적 존재라서 단순히 허구적 존재라고 폄하하는 것은 오랜 시기에 걸쳐 한국인의 삶과 의식에서 단군이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떤 역할을 해 온 존재였는가를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다. 고려시대 이후 역사적 위기상황에서 단군은 항상 민족의 상징으로 우리 민족의 통합과 정체성의 근원으로 자리잡아 왔다. 이런 점에서 한국인에게 단군은 사실성 여부를 뛰어넘어 참으로 살아 있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단군을 샤머니즘과 연결시켜 우상타파와 미신타파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자칫 자기신앙의 절대성의 입장에서 단군전승 자체를 부정하는 태도로

49) 이진구, 2003, 앞의 글, 304쪽.

이해될 수도 있을 것이다. 단군전승이 우리 역사에 등장한 이래 그것을 보다 합리적인 입장에서 해석하는 입장은 있었지만, 단군전승 자체를 부정과 타과의 대상으로 보는 입장은 일본 제국주의 외에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기독교의 단군 인식에서 흥미로운 것은 그것이 시대에 따른 변화를 보여준다는 점이다. 일제강점기나 광복 직후에는, 앞에서 단기 연호와 홍익인간 이념의 설정에서 살펴보았듯이, 많은 개신교인이 단군 관련 이념과 관행을 긍정하였는데도, 1960년대 이후부터 정반대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원인을 쉽게 설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적어도 기독교의 단군 인식에 있어서 이후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4_ 강단학계와 재야학계, 북한의 단군 인식

우리 사회의 단군 인식과 관련해서 첨예한 갈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 중의 하나가 이른바 강단학계와 재야학계의 단군에 대한 인식의 차이이다. 이처럼 서로 다른 인식이 분명하게 부딪친 사례가 1970년대 말, 1980년대 초의 국사교과서 파동이다.⁵⁰⁾

양자 사이의 중심적인 쟁점은 단군신화의 역사성과 단군의 실재성 여부, 단군의 활동시기와 활동영역, 사료의 활용범위와 분석방법 등의 문제였다. 강단학계는 단군신화는 신화로서 일정한 역사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으나 역사 그 자체는 아니라고 한다. 반면에 재야학계는 단군신화가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나타낸다고 본다. 재야학계는 단군을 실존적 인물로 보나, 강단학계는 반드시 실존적 인물로 보지는 않는다. 그리고 단군의 활동시기와 활동역역에 대해서 강단학계는 실증적이고도 엄밀한 자료분석을 통해서 사실로 확인되는 것만을 인정하려하나, 재야학계는 강단학계에서 이른바 위서로 평가하는 자료들을 근거로 단군의 활동시기와 범위를 더 확대하고자 한다. 한마디로 단

50) 윤종영, 1999, 『국사교과서 파동』, 혜안 참조.

군 인식에서 강단학계는 실증성과 객관성을 강조하는 데 반해, 재야학계는 단군의 민족사적 의미를 지나치게 강조한다.

흥미로운 것은 강단학계의 변화이다. 대체로 재야학계의 주장은 광복 직후나 그 이후에도 단군에 대한 인식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런데 강단학계의 견해는 변화가 있으며, 국사 교과서 서술의 변화는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즉, 강단학계는 여전히 단군 인식과 고조선에 대한 설명에서 합리적이고 실증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으나 좁은 의미의 실증적 틀에 얽매이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단군신화의 신화적 성격과 역사적 의미를 아울러 인정하는 보다 포괄적이고 유연한 접근태도를 보이고 있다.

분단 후 남쪽은 단군민족주의를 국가적 통합기제의 하나로 적극 수용하여 국가의 제도적 의례 속에 편입시키게 된다. 북한의 경우 한편으로는 고조선의 역사적 실체를 적극 해명하려 하는 등 일제하 민족주의 사학의 전통을 승계하는 듯한 인상을 주기도 하였지만, 정작 단군민족주의적 명제에 대해서는 부르주아계급의 지배논리라 규정하며 비판했다. 물론 고조선의 역사성에 대해서는 그 유구성과 자주적이고 진취적인 측면을 부각시켜 자긍심을 고취하고 있지만, 북한은 단군과 고조선을 민족사의 기점으로 생각하는 단군민족주의적 관점에 대해서는 비판적 관점을 전개해 왔다. 단군 국조론이나 단군의 자손론 같은 단군민족주의적 명제들은 '반동'들이 계급적 지배를 합리화하기 위해 조작해 낸 사상적 도구로 간주되기도 하였다.⁵¹⁾

그러나 1993년 단군릉 발굴보고를 내놓으면서부터 북한의 입장은 급변한다. 단군이 5천 년 전에 고대국가인 고조선을 건설한 실존 인물이고, 평양은 민족의 발상지이자 첫 국가의 발생지이며, 조선민족은 단군을 원시조로 하는 단일민족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평양 부근에 단군릉이 존재한다는 이런 사실은 북한의 기존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이다. 왜냐하면 기존에 북한에서는 1960년대부터 고조선의 중심지를 요동으로 보는 견해가 정설로 정해

51) 정영훈, 2005, 앞의 글, 41쪽.

졌고, 이후에도 이를 보강하는 연구가 꾸준히 이뤄졌기 때문이다.⁵²⁾ 북한은 단군에 대해서도 1960년대까지는 북방계나 동이족 계통의 초기 계급사회 지배자, 1970년대 주체사관 표방 이후에는 강하고 넓은 영역국가인 고조선의 시조로 보았다. 그런데 1990년대 단군릉 발견 이후에는 한반도에서 기원한 우리 민족의 원시조라는 것이다.⁵³⁾

단군릉 발견과 관련된 북한 측의 입장 변화에 대해서는 1990년을 전후해 북한이 직면한 국내외적 상황의 어려움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즉, 대내외적인 어려움에 처한 시기에 신화적 존재를 부각시키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⁵⁴⁾ 하여튼 북한 측이 단군의 의미를 새롭게 제시함으로써, 단군을 매개로 한 남북한 대화와 교류의 길이 열렸다고는 할 수 있을 것이다.

IV. 현대 한국의 단군 인식과 민족문제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현대 한국사회의 여러 측면에서 단군을 둘러싸고 서로 상충되는 인식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것은 인식의 차이에 그치지 않고, 단군상의 훼손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행동 차원에서의 대립으로까지 치달고 있기도 하다.

또한 우리 사회 일반의 단군·단군신화에 대한 관심은 그렇게 활기를 띠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하루하루 달라지는 사람들의 생각과 삶은 이러한 경향을 더욱 가중시킨다. 그래서 현재 한국사회에는 민족과 국가의 시조로서

52) 서영대, 2000, 「신화이해의 역사적 변천 : 북한의 경우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7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43~44쪽.

53) 박광용, 2000, 「북한학계의 단군 인식과 단군릉 발굴」, 『역사비평』 52, 역사문제연구소.

54) 서영대, 2000, 앞의 글, 52~56쪽.

단군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나 집단이 존재하고 있기도 하다.

이 외에도 최근의 한국사회의 변화 역시 전통적인 단군의 인식과 위치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예컨대 한국 남성과 동남아 여성, 그 사이에 태어난 2세로 구성된 이른바 다문화 가정이 현저하게 늘어나면서 민족의 시조, 국조로서의 단군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필요성이 폭넓게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단군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복잡한 양상을 고려할 때, 민족문제에서 단군의 위상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광복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의 민족문제는 여전히 현안으로 남아 있다. 남북으로 갈라진 분단상황은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다. 또한 일제강점기부터 다른 나라로 이주해 간 해외동포의 문제도 여전히 미해결의 상태로 남아 있다. 최근에는 해외동포의 국내 이주가 많아지면서 국내에 들어온 해외동포에 대한 차별의 문제가 발생하기까지 한다. 최근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다문화 가정과 아울러 세계화, 지구촌화의 시대에 일상이 되어버린 외국과의 관계 역시 민족문제를 고민하게 만드는 요인 가운데 하나이다. 이처럼 달라진 최근의 상황을 근거로 단일민족 순혈주의나 '핏줄의 민족' 개념을 비판하거나, 나아가 아예 민족 범주를 부정하는 입장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이처럼 민족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 역시 민족문제가 여전히 우리 사회의 현실적 문제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의 민족문제는 크게 두 측면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어떻게 우리 민족을 통합하느냐는 것이고, 또 하나의 측면은 급격한 변화의 상황에서 우리 민족의 개념과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는 것이다. 첫 번째 측면은 민족문제의 전형적인 주제이다. 두 번째 측면은 외국, 외국인과의 교류가 삶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는 최근의 상황에서 특히 문제시되고 있는 측면이다. 이는 한국의 민족주의가 편협하고 폐쇄적인 민족주의로 흘러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과 연결되어 있다.

여기서 이 글의 관심은 이러한 두 측면의 민족문제에서 단군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이다. 아마도 근대가 아닌 현대 한국 상황에서 단군은 두 측면에서 유의미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입장이 일반적일 것

으로 보인다.

먼저 민족통합의 측면에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현재 한국사회에는 서로 상충되고 대립될 수 있는 단군 인식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개신교로 대표되는 기독교의 단군 인식과 단군신앙 종교단체, 재야학계, 그리고 나아가 일반 사회의 단군 인식은 크게 다르다. 또한 국사학계의 단군에 대한 입장이 폭넓게 수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 역시 단군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인의 삶과 의식은 보다 복잡·다양해지고, 사회적인 분위기 역시 이전 시기에 비해 개인적인 측면과 가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한국 사람들의 의식에는 민족시조로서의 단군에 대한 인식이 폭넓게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우리 역사의 처음이나 오랜 역사를 설명할 때 단군에서 출발한다. 예컨대 우리 역사에서 최초로 일어난 어떤 새로운 사건을 설명할 때 무심코 ‘단군 이래 처음’이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이다. 이는 단군이 우리의 처음, 시조로서 한국인의 무의식 속에 자리잡고 있음을 말해 준다.

이러한 모습은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1985년 서울시가 단군전 건립과 관련해서 한국갤럽에 의뢰하여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단군의 실존인물 여부에 대해 실존인물이라는 대답이 54.4%, 신화 속의 꾸며낸 인물이라는 대답이 26.1%, 모르겠다는 답이 19.5%로, 조사대상의 반 이상이 단군을 실존인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답변하였다. 또한 “단군을 우리 조상으로 숭배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숭배해야 한다는 답변이 75.4%, 우상 숭배라는 답변이 13.7%, 모르겠다는 답변이 10.9%로, 우리 국민 대다수가 단군을 숭배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 다른 조사에서도 “단군의 자손이며 단일 민족이다”라는 답변이 87%(1995, 2001년 조사)로 나타나고 있다.⁵⁵⁾

이른바 국사학계에서 재야 僞書로 여기는 『단기고사』, 『환단고기』, 『규원

55) 박정학, 2001, 「단군에 대한 인식혼란에 관한 연구」, 『강원사학』 17·18, 강원사학회, 60~64쪽.

사회』 같은 책이나, 『단』 같은 소설이 우리 사회에서 널리 읽히고, 이를 근거로 단군과 고조선에 대한 다양한 주장들이 제기되는 것 역시 민족문제와 관련해서 단군이 여전히 살아 있는 상징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비록 단군에 대한 서로 다른 다양한 인식이 존재하더라도 여전히 한국인의 의식 속에 우리 민족의 처음과 시조로서 단군이 자리잡고 있다는 점에서, 비록 한말이나 일제시기처럼 우리 민족 통합의 중심적 상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여전히 단군이 우리 민족 통합의 힘을 가진 민족상징으로서의 힘을 잃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단군 인식의 오랜 역사성과 보편성을 고려할 때 일상적인 삶에서는 무의식의 심층에 가라앉아 있다가 역사적 위기와 시련의 상황에서 다시 의식의 표층으로 떠올라 민족통합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단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현재 한국사회에서 단군이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민족문제의 두 번째 측면, 즉 민족의 개념, 민족의 범위와 관련되어서이다. 즉, 단군을 민족의 시조, 민족의 상징으로 받아들일 경우 대내적·대외적으로 다문화·다원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폐쇄적인 우리 민족 중심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혈연관계의 맥락에서 우리 민족의 시조, 조상으로 여겨지는 단군은 흔히 단일민족으로 표현되는 민족의 순수성을 강조하는 국수적인 민족주의의 상징으로 비판되는 것이다.

그런데 어느 민족이나 생물학적 의미에서의 순수한 단일민족의 성립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우리 민족이 단군을 시조로 하는 단일민족이라는 주장은 그런 차원을 넘어서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민족은 문화적이고 정치적인 개념인 것이지 생물학적 개념은 아닌 것이다. 비록 ‘한 핏줄, 같은 단군의 자손’이라는 말처럼 혈연관계의 맥락에서 우리 민족을 나타내기는 하나, 그러한 표현은 그야말로 우리 민족의 동질성과 통합을 강조하는 은유적 표현이다. 이런 점에서 단군이 우리 민족의 시조라고 할 때, 인종과 혈통을 강조하는 생물학적 의미의 시조로서 그 의미를 제한할 필요는 없다. 단군을 생물학적 의미의 시조가 아니라 문화적·정치적 의미의 시조로 본다면 단군 자손의 개념 역시 이전과는 달리 규정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단군은 현재처럼 다문화, 다양성, 다민족의 현실상황에서도 우리 사회의 통합에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단군신화 속의 홍익인간 이념이 그러하듯 단군의 자손인 한민족의 외연이 보다 넓게 확대될 수도 있는 것이다. 물론 아직 그러한 포괄적인 단군 해석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단군 인식의 특징은 그것이 시대에 따라 끊임없이 재해석된다는 것이다.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를 거쳐 한말, 일제강점기에 이르기 까지 단군신화와 단군은 시대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창조적으로 재해석되어 왔다. 이런 점에서 현대 한국사회의 다양한 삶의 모습과 사고방식을 포용하는 새로운 단군해석의 출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고, 따라서 단군이 여전히 민족문제 해결에서 나름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V. 맺음말

지금까지 광복 이후 한국사회에 나타난 단군 인식의 유형을 네 가지 측면에서 정리하고, 이처럼 서로 다른 단군 인식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단군이 한국사회의 민족문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이 글은 다양한 단군 인식에도 불구하고 단군을 민족의 시조로 보는 인식이 한국사회에 널리 일반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단군이 현대 한국사회에서도 여전히 민족통합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한국사회의 단군에 대한 해석이 항상 시대에 따라 새롭게 이루어져 왔다는 점에서, 현대적 한국 상황에 적합한 새로운 단군해석의 가능성이 열려 있고, 따라서 역시 단군이 민족의 시조라는 위치를 유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물론 현대 한국사회의 변화를 고려할 때 한말, 일제강점기처럼 단군이 유일하고 지배적인 우리 민족의 구심점, 정체성의 상징으로 기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대 한국사회에서 단군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지속되고, 이후 단군신화와 고대사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학문적 연구 성과가 축적되면서, 서로 다른 단군 인식의 차이와 갈등이 해소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민족문제에서도 단군은 새로운 존재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사회가 남북통일과 아울러 남북통일을 넘어선 지구촌 한민족의 통합이라는 민족적 과제를 안고 있고, 바로 이런 현실적인 민족문제의 차원에서 단군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가능성이 주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전혀 닫혀 있는 것만은 아니다. 더욱이 중국의 동북공정이나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같은 외부적 요인 역시 민족문제에서 단군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불러일으키는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단군에 대한 인식이 유구한 역사성과 폭넓은 보편성으로 한국인의 삶과 의식 속에 근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사회에서 새로운 모습의 단군의 등장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고 할 것이다.

[ABSTRACT]

The Ideas of Dangun and Nationalism in Modern Korea

Yi, Yongbhum

Before the restoration of independence from Japanese imperialism, Dangun was the symbol and source of national unity and solidarity as national founding ancestor. Such understanding of Dangun exercised a great power in strong resistance to Japanese imperialism, and this understanding is maintained in Korea now.

But after the restoration of independence from Japanese imperialism, even when the saying and behavior toward Dangun become unrestricted, the understandings of Dangun in Korea do not become uniform any longer as before. According to their social position and religion, Korean people come to have different views on Dangun.

Such changes did not occurred right after the restoration of independence from Japanese imperialism. They began to show themselves from 1960s. The Korean society got to be experienced radical changes according as the five-year plan program for economic development was in full operation, and the changes in understanding of Dangun went in gear that situation.

This paper describes the four major changes in understanding of Dangun in modern Korea, and examines the relation of Dangun with nationalism in connection with these changes. The differences in understanding of Dangun and the changes of thoughts and lifestyles

in Korean society make Dangun not to be one and only symbol of the Korean as before. None the less Dangun continues to be one of the symbols of the Korean. Being lost the power of one and only symbol of the Korean, Dangun has the potentiality of revitalization in national wises because it has been always rooted in underlying strata of consciousness of Koreans.

keywords

Dangun, understanding of Dangun, nationalism, 1960s



근대 중국의 國祖 認識과 민족문제

이준갑 | 인하대학교 사학전공 부교수

I. 머리말

2007년 4월 18일 中國 河南省 鄭州에서 炎帝와 黃帝의 얼굴을 함께 새긴 炎黃彫刻像이 완공되어 그 모습을 드러내었다. 20년에 걸친 공사기간의 장구함도 두드러지지만 무려 106m에 달하는 엄청난 높이는 보는 사람의 눈을 압도한다. 중국 최대의 석불인 四川省 樂山市의 石佛보다 무려 35m나 높으며 우뚝 선 채로 팔을 치켜든 미국의 자유의 여신상보다도 8m가 높다. 중국인들이 자신을 炎黃子孫이라고 여기는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어마어마한 규모로 조상의 얼굴을 바위산에 새긴 행위는 쉽사리 납득이 되지 않는다. 더구나 조각상 건립에 먼저 팔을 걷고 나선 자들은 대륙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海外的 華僑들이었다. 이들이 내놓은 기부금과 정주시의 예산으로 마련된 공사비는 인민폐 1억 8천만 위안(2008년 5월 현재 한화 약 270억 원)에 달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도처에 산재하는 염제와 황제의 무덤과 사당, 기념관에 대해서도 보수·확장·신축 공사가 지속되고 있다.

‘炎黃熱’이라 부를 만한 이런 현상은 일반인이 마음속으로 炎黃을 추모하

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정치적 상징조작의 일환으로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역사적 실체와는 전혀 거리가 먼, 정치적 조작의 산물인 ‘中華民族’이라는 용어가 중국사회에서 별다른 저항이나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현실이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어느 경우이든, 요즘의 중국인들이 염제와 황제를 신화와 전설, 역사 속의 흘러간 인물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교감하며 살아 있는 존재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열기가 일어난다는 점이다.¹⁾ 그렇다면 염제와 황제가 중국인의 가슴속에서 교감하며 생명체로 자리를 잡고 있는 현상은 최근에 시작된 것인가, 아니면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항상적으로 있어 왔던 것인가? 만일 후자의 경우라면 우리는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생명체의 속성 중 하나가 환경에 적응하며 변화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염제와 황제의 이미지는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하여 왔는가? 그렇게 형성된 이미지와 새롭게 변화된 이미지가 가지는 역사적·사회적 의미는 무엇인가? 본고는 이러한 의문에 답하기 위해 씌어진 것이다.

‘근현대 한국과 중국의 국조 인식과 민족문제’라는 공동연구 주제 가운데 필자에게 주어진 과제는 ‘근대 중국의 國祖 認識과 민족문제’를 밝히는 것이다. 이 작업을 원만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통시대에 대한 고찰이 선행되어야 한다. 연구의 시기를 근대로만 한정할 경우, 근대에 나타난 염제와 황제 이미지는 추출해 낼 수 있다. 그러나 생명체로서의 염제와 황제가 가지는 이미지, 즉 근대에 형성된 炎黃의 이미지가 역사적 맥락 속에서는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를 파악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전통시대에 형성된 염제와 황제의 이미지를 추적해 보고 그것이 만주족과 한족의 종족적 갈등이 첨예화하고, 민족과 민족주의 개념이 형성되는 근대 격동기에는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겠다.

1) 중국에서 시대적 필요에 따라 신화를 역사화하고 특정 목적에 끊임없이 활용해온 사실을 비판적 시각에서 지적한 국내의 대표적 연구로는 김선자, 2007, 『만들어진 민족주의 황제신화』, 책세상; 李有鎭, 2002, 「中國神話의 歷史化에 관한 試論」, 『中國語文學論集』 20 참조.

이런 작업을 통해 수천 년 전의 염제와 황제가 왜 오늘날에도 중국인들의 가슴속에서 살아 있는지 그 생명력의 근원은 무엇인지를 역사적 시각에서 밝혀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II. 傳統時代의 炎帝·黃帝 認識

1. ‘文明初祖’로서의 炎帝

전통적으로 炎帝란 한 사람의 인물을 지칭한다고 이해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炎帝가 寶鷄 渭河 유역에서 최초로 활동을 개시한 姜姓 부락의 수령에 대한 칭호로서 복수의 인물을 포함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炎帝傳八歲’라는 기록이 이런 견해를 뒷받침한다고 하는데, 姜姓 부락이 동방과 남방, 즉 오늘날의 산서성, 하남성, 하북성, 호북성, 호남성으로 그 영역을 확대하면서 後繼 수령들이 炎帝라는 호칭을 답습했다는 것이다.²⁾ 환언하면 염제는 신석기시대의 姜姓 부락집단의 우두머리로서 그 지위를 전수, 계승한 복수의 인물을 지칭한다는 것이다.³⁾

염제가 한 사람이든 복수의 인물이든 전통적으로 중국인들에게는 문명의 개척자 즉 ‘文明初祖’로서 받아들여졌다. 炎帝는 원래 神農氏와는 별개의 존재로 등장하였는데, 秦末·漢初에 炎帝神農氏라는 하나의 존재로 聯稱되기에 이르렀다. 『史記』의 「오제본기」에 양자는 분명히 구분되어 기록되어 있지만 진한 시대에 성립되었다고 추정되는 『世本』에서 최초로 염제신농씨로 연칭하였다.⁴⁾

2) 葛文華, 2001, 「再論炎帝稱號的原始含意」, 『姜炎文化論』, 三秦出版社, 79쪽.

3) 何星亮, 2006, 「炎帝的創新精神與中華民族的復興」, 『中南民族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 26-4, 24쪽.

4) 張玉勤, 2002, 「神農, 炎帝, 黃帝關係辨」, 『炎黃匯典·文論卷』, 吉林文史出版社,

炎帝神農씨의 활동을 살펴보면 우선 농업과 관련한 것이 많은데, 이런 경향은 염제신농씨의 활동시기로 추정되는 신석기시대의 시대상과 부합한다. 신석기 시대에 이루어진 농업혁명과 염제의 업적으로 거론되는 농업 관련 기술의 발명은 그 내용에서 상당히 유사하다.

고대의 많은 典籍들에서 염제가 쟁기와 보습[耒耜]을 발명했다고 전하고 있다. 『周易』, 「系辭 下」에서는 神農氏[염제]가 나무를 찍어서 보습을 만들고, 나무를 휘어서 쟁기를 만들고, 쟁기와 보습의 이로움으로 천하를 가르쳤다고 하였다. 『風俗通義』, 「皇霸第一·三皇」에서는 신농씨가 처음으로 쟁기와 보습을 만들고, 백성에게 논밭을 갈고 씨 뿌리는 일[耕種]을 가르쳤다고 하였다. 그 밖에 『論衡』 「卷五 感虛篇」, 『管子』 「卷二〇 形勢解第六十四」, 『新語』 「卷上 道基第一」, 『帝王世紀』 「自皇古至五帝第一」 등에서도 비슷한 기록을 담고 있다.⁵⁾ 寶鷄 일대에서는 염제가 쟁기와 보습을 발명하고 牛耕을 가르쳤다는 전설이 퍼져 있다.⁶⁾

한편으로 염제는 醫藥을 발명한 것으로도 알려져 왔다. 사실 농업과 의학은 별개의 것이 아니다. 염제시대는 농업의 여명기이므로 파종하여 수확하고 식량이 될 만한 식물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했다. 염제가 百草를 맛보았다고 하는 전설은 의학을 만들어내는 목적 외에 식량으로 삼을 만한 식물을 찾아내는 과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 채집과 수렵, 농업이 병존하면서 질병도 적지 않았는데, 염제의 醫藥 발명 전설은 이런 시대적 배경에서 탄생하였다. 『太平御覽』 「卷七十八 皇王部三」에서는 염제신농씨가 草木을 맛보고 약을 베풀어 질병을 치료하여 요절할 목숨을 구하였다고 하였고 『淮南子』 「卷十九 修務訓」에서도 신농씨가 百草의 맛과 물과 썹의 달고 쓴을 시험하여 하루에 일흔 번이나 중독되었다고 하였다. 그 밖에 『搜神記』 「卷一」, 『資治通鑑外紀』 「卷一 神農氏」, 『史記索隱』 「三皇本紀」,

417~418쪽(原載：『山西師範大學報』, 社會科學版, 1990-3).

5) 周新發 編著, 2003a, 『炎帝春秋』, 岳麓書社, 36~38쪽.

6) 何星亮, 2006, 앞의 글, 28쪽.

『抱朴子』, 『卷十一 仙藥』 등도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⁷⁾

전통시대의 중국인들은 陶器의 제작도 염제의 업적이라고 인식하였다. 『齊民要術』, 『耕田』, 『資治通鑑外紀』, 『卷一 神農氏』에는 신농씨의 시대에 질그릇과 질도끼를 만들었다고 하였다.⁸⁾ 질그릇의 가장 중요한 용도는 곡물을 저장하거나 곡식을 끓이거나 삶거나 볶고, 조리한 음식을 보관하는 등 농업 생산물의 저장과 조리, 보관에 있었다. 질그릇은 농경단계에 접어든 사회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도구였던 것이다.

이처럼 염제는 농기구인 쟁기와 보습의 제작, 파종하고 수확할 곡물과 약초의 선별, 수확한 곡물을 보관할 그릇을 처음 제작한 인물로 전통시대 중국인들에게 비취짐으로써 중국의 농경문명을 개척한 시조로서의 이미지가 형성되었다. 중국문명은 농경문명이고, 중국사회는 농경사회이므로, 농경문명의 창시자로 각인된 염제가 중국문명의 창시자로 숭배되는 현상은 자연스럽다.

한편으로 염제는 농경사회를 떠받치는 사회제도와 문화의 창시자로도 받아들여졌다. 중국의 전통적인 남녀 간 분업체계인 男耕女織도 염제의 가르침으로 생각했다. 『呂氏春秋』, 『卷二十一 愛類』에 따르면 신농씨는 남자가 나이가 차서도 농사짓지 않으면 이 때문에 천하에 굶주리는 자가 생길 수 있고 여자가 나이가 차서도 실을 찾지 않으면 이 때문에 천하에 추위에 떠는 자가 있을 수 있다고 가르쳤다. 그래서 신농씨는 몸소 경작하고, 아내는 베를 짜서 백성을 이롭게 했다고 한다. 『莊子』, 『卷九下 盜 第二十九』, 『商子』, 『劃策』에도 유사한 내용이 담겨 있다.⁹⁾ 농업과 수공업의 원초적인 결합형태인 男耕女織은 이후 역대 왕조에서도 존속하여 끈질긴 생명력을 유지하였다.

男耕女織이 생산방면의 분업이라면 『周易』, 『繫辭 下』에 염제시대의 일로 묘사된 “해가 중천에 오면 시장을 열어 천하의 백성들이 천하의 재화를 모아 교역한 후에 물러나는데, 각각 그 마땅한 바를 얻었다”고 하는 내용은 생산물

7) 周新發 編著, 2003a, 앞의 책, 40~44쪽.

8) 周新發 編著, 2003a, 앞의 책, 56~57쪽.

9) 何星亮, 2006, 앞의 글, 30~31쪽.

이 시장을 통해 교환되는 현상을 언급한 것이다. 섬서성 일대에서 시장의 창설과 관련하여 유포된 전설의 한가운데 염제가 있다. 염제가 농업을 창조하고 백초로 질병을 치료하자 인구가 늘어나고 衣食이 풍족해지고 생산물이 늘어나면서 식량의 잉여가 있는 자는 陶器를, 활과 화살을 만드는 자는 소를, 도기를 굽는 자는 짐승 가죽을, 물고기를 잡는 자는 양식을 필요로 하였다. 그러나 교환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물품을 바꾸는 일이 매우 어려웠다. 이를 본 신농씨가 섬서성 嘉陵谷에 시장을 열고 해가 중천에 뜬 이후에 물품을 가져와 교환하게 하였다. 이리하여 시장이 열렸는데, 염제는 음력 7월 7일을 日中爲市의 날로 정하고, 사흘에 하루는 小集, 初一日과 十五日은 大集으로 정하였다. 사람들은 염제를 太陽神으로 숭배하였고 그가 개설한 시장을 太陽市라 하였다.¹⁰⁾ 고대 중국에서는 일상용품이 아니라 사치품, 귀중품을 교환의 주요한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耕과 織을 통해 생산된 곡물이나 베는 일상적인 교환의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¹¹⁾ 따라서 太陽市 전설에는 후대의 상황이 투영된 부분도 많은 듯하다.

염제는 또 宮, 商, 角, 徵, 羽라는 五弦으로 구성된 琴을 만들어 음란함과 사악한 욕심을 제거하여 풍속을 바로잡은 일,¹²⁾ 집터를 골라 定住生活 방식을 고안해낸 일,¹³⁾ 明堂을 만들어 하늘에 제사하는 의식¹⁴⁾ 등 문명의 초창기에 이루어진 대부분의 중요한 발명을 스스로 했다고 기려지고 있다.

文明初祖라 떠받들어진 염제는 전통시대 중국인들의 詩歌 속에서도 찬미

10) 夏國祥(講述人)·李晨·勇樺(搜集整理者), 2002, 「太陽市」, 『炎黃匯典·民間傳說卷』, 吉林文史出版社, 83~84쪽(原載: 『炎帝的傳說』, 三秦出版社, 1987).

11) 藤井宏, 1953, 「新安商人の研究」(一), 『東洋學報』 16-1, 4~5쪽에서는 西嶋定生の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漢代의 매매 대상 물품은 소금과 철 등의 특수한 상품이나 사치품이 대부분이며 거래 주체도 도시에 거주하는 관료나 상인, 농촌의 호족에 국한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시기적으로 앞선 炎帝시대의 교역도 사치품, 고가품이 주된 교역대상이며 거래 주체 역시 정치적·경제적 유력자에 국한되었을 것이다.

12) 周新發 編著, 2003a, 앞의 책, 51~55쪽.

13) 何星亮, 2006, 앞의 글, 31쪽.

14) 周新發 編著, 2003a, 앞의 책, 64~65쪽.

와 숭배의 대상으로 등장하였으며, 그의 치세는 황금시대로 미화되었다. 商周 交替期에 伯夷·叔齊가 采薇歌 속에서 “神農·虞·夏 시대는 홀연히 없어져 버렸으니 우리는 장차 어디로 돌아갈고”¹⁵⁾ 라고 神農시대를 虞夏와 더불어 폭력으로 폭력을 대신하지 않고 도덕과 정이가 충만했던 시대로 회고한 이래 堯제시대를 풍속이 바로잡히고 농경문명이 발생한 시대로 예찬하는 무수한 詩歌가 출현하였다. 그 가운데 曹植(魏)이 「神農贊」에서 “쟁기와 보습을 만들고 백성들에게 씨를 뿌리도록 하였다. 거문고를 만들어 풍속이 和樂하게 하였다” (『藝文類聚』 卷11), 摯虞(晉)가 「神農贊」에서 “농사를 가르치고 …… 財貨를 모아 교역하였다” (『藝文類聚』 卷11), 王安石(宋)이 「耒耜」에서 “『周易』에 (신농이) 쟁기와 보습을 만든 일이 나타나 있다” (『王臨川集』 卷11), 王芮(元)가 『歷代蒙求』에서 “百穀을 파종하고, 백성에게 쟁기와 보습을 가르쳤다”, 李延機(明, 大學士)가 「五帝紀」에서 “처음으로 농사짓기를 가르치고 나무를 베어 쟁기와 보습을 만들고 …… 몸소 百草를 맛보았으며 …… 사람에게 장사를 가르쳤다” (『五言鑿』), 蔣紹宗(清, 衡州知府)이 「陪祀炎陵恭紀」에서 “농사와 장사를 가르쳤으니 萬古에 쓸모 있는 바”¹⁶⁾라 한 것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처럼 은주 시대 이래 청대까지 관료와 지식인들은 詩歌를 통해서도 한결같이 堯제를 쟁기와 보습으로 대표되는 농기구의 발명과 전파자, 거문고의 발명과 풍속 교정자, 시장과 교역의 창시자로서 찬미하고 있다.

典籍과 詩歌가 주로 民間에서의 堯제 인식을 대변한다면 국가 주도의 제례 의식 가운데 드러진 祭文은 堯제에 대한 官方의 공식적인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史記』 「封禪書」에서 드러나듯이 정치지배자의 炎帝에 대한 제사행위는 고대부터 확인된다. 송대 乾德 5년(967) 이후부터는 堯제릉 옆에 廟를 세우고 3년에 1차례씩 정기적으로 제사를 지냈다. 역대 왕조의 빈번한 제례에도 불구하고 자료집에 수록된 炎帝 祭文은 唐 玄宗의 제문 2편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명대, 청대의 것이다.¹⁷⁾

15) 司馬遷, 『史記』, 卷六十一, 「伯夷列傳」, 中華書局, 1997, 2123쪽.

16) 廖德文 編, 1998, 『炎陵歷代詩選注』, 天馬圖書, 146쪽.

17) 周新發 編著, 2003b, 『炎帝祭文集』, 岳麓書社. 이 책에 따르면 당대의 제문 2편을

명대의 제문 15편 가운데 황제 즉위를 고하는 제문이 10건으로 가장 많다. 그 밖에 홍무 4년에 명이 원을 대신했음을 고하는 제문, 영락 원년에 영락제가 靖難의變 이후 大統을 이었음을 고하는 제문, 천순 원년에 영종이 復辟했음을 고하는 제문, 가정연간에 백성을 질병에서 구해 줄 것을 간청하는 제문(이때의 제사대상은 염제뿐 아니라 伏羲와 黃帝도 포함), 천계 7년에 湖廣 衡州에 王府를 연 桂端王이 藩王 즉위를 고하는 제문이 있다. 이 다섯 편의 제문 가운데 영락연간, 천순연간의 것은 황제 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천계연간의 제문 역시 藩王의 즉위를 고하는 것이다. 명대의 제문 15편 가운데 13편은 황제, 번왕의 즉위를 고한 것이다. 염제가 명대 國家 祀典에 제례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당연한 일이었다.¹⁸⁾ 13편의 祭文에는 “하늘의 뜻과 법도를 따르고 수많은 백성에게 恩澤을 끼치며 신령스럽고 성스러운 공덕을 대대로 끼치신다”(제문에 따라 문자의 이동은 있으나 의미는 비슷하다)는 염제의 공덕을 찬양하는 어구와 “영원히 나의 나라(我邦家, 我國家)에 복을 내리소서”라는 어구가 상투적으로 들어가 있다. 祭文의 속성상 내용의 추상화·관념화 경향을 피할 수는 없지만 明朝는 炎帝가 하늘의 뜻에 따르며, 백성들에게 대대로 은택과 공덕을 끼쳤고, 나라에 영원한 복을 내리는 존재로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조의 이러한 염제관은 민간의 그것과 미묘한 차이가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전통시대 민간의 炎帝觀은 文明初祖였음을 살펴보았는데, 이는 농업문명 창시와 관련한 염제의 구체적 업적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 그런데 祭文에서 나타나는 明朝의 炎帝觀에는 文明初祖의 내용은 포함하되—이는 염제에게 백성의 질병 치료를 간구하는 가정연간의 제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朱氏 왕실이 다스리는 명나라에 대한 보호신의 기능을 덧붙이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제외하면 명대의 제문이 15편, 청대의 제문이 38편이다. 이하 특별한 주가 없으면 祭文에 대한 분석은 이 책에 수록된 제문의 내용에 기초한 것이다.

18) 명대 홍무연간의 國家祀典 특히 地方祀典의 整備문제에 대해서는 李允碩, 2003, 「明清時代 江南都市 寺廟의 社會史의 研究」, 서울大學校 大學院 東洋史學科 博士學位論文 참조.

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배경은 天命思想이다. 祭文은 炎帝도 天命을 따랐고 朱氏 王室도 天命을 따라 天下를 차지하고 다스리므로 前古의 聖神인 炎帝는 명나라에 영원한 복을 내려 달라고 간구하고 있다.

國家保護神으로서 炎帝의 이미지는 청 왕실에서는 쇠퇴, 변화한다. 청대 황제의 즉위 제문은 順治帝부터 光緒帝까지 모두 9편이다. 이 제문들에는 구체적인 표현은 다르지만 堯제가 하늘의 뜻을 따르고 후대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끼쳤다는 점을 추상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점은 명대와 같다. 그러나 청조의 제문에서 堯제에게 나라에 영원한 복을 내려달라는 표현은 아예 없거나 祈福을 하더라도 복 받는 대상을 달리 언급하고 있다. “풍성한 복을 장구하게 率土에 내리소서”(雍正)라거나, “나의 環區에 복을 내리소서”(道光)라거나 “億兆에게 복을 내리소서”(咸豐·同治·光緒)라는 표현이 나타나며 나머지 順治·康熙·乾隆·嘉慶 皇帝의 즉위 제문에는 이런 표현이 없다. 率土와 環區는 명대의 國家·邦家 개념과 등치시킬 수 있다. 그러나 億兆는 피지배자인 수많은 백성을 지칭하는 것으로 나라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존재이다. 따라서 國家·邦家 속에 포함되는 존재로서 이들과 등치할 수 있는 개념은 아니다. 청 왕실은 이처럼 炎帝를 국가의 안위를 祈求하는 神格으로 여기지 않거나, 보호신으로 취급해도 보호대상을 국가가 아닌 피지배자인 백성으로 한정함으로써, 炎帝의 國家保護神으로서의 위상을 약화시키고 있다. 물론 이는 祭文이라는 극히 한정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므로 좀 더 많은 사례를 검토한 후에 신중하게 결론을 내려야 한다. 청조가 이민족 왕조라는 점, 그 지배영역이 명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되었다는 점은 炎帝에 대한 청 왕실의 인식이 명 왕조의 그것과는 달라질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2. ‘開國始祖’로서의 黃帝

중국 고대의 典籍 가운데 黃帝에 대한 서술내용이 비교적 풍부한 것으로는 『사기』 「五帝本紀」를 들 수 있다. 황제에 대한 연구들은 「五帝本紀」를 출발점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 「五帝本紀」 가운데 첫머리인 黃帝 부분의 서술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등장 시기는 신농씨의 세력이 쇠퇴하던 때였다. 黃帝는 少典의 아들로 姓은 公孫이고 이름은 軒轅이다. 신농씨의 세력이 쇠퇴하여 제후들이 서로 침범하고 백성을 해쳤다.
- ② 제후를 정벌하고 염제와 전쟁하여 제압하였다. 炎帝가 제후들을 침범하려하자 제후들은 모두 軒轅에게로 모여들었다. 軒轅은 덕을 쌓고 병사를 정돈하며 오행의 氣를 다스리고 오곡을 재배하고 만민을 어루만지고 사방을 慰撫하고 곰, 큰곰, 비, 휴, 추, 호랑이를 훈련하여 阪泉의 들판에서 炎帝와 싸웠다. 세 번 싸워서 물리쳤다.
- ③ 蚩尤를 사로잡아 죽였다. 蚩尤가 난을 일으키자 황제가 제후의 군사를 징발하여 鹿의 들에서 蚩尤와 싸워 사로잡아 죽였다. 이에 제후들이 모두 軒轅을 추대하여 천자로 삼아 신농씨를 대신하였는데 그가 황제이다.
- ④ 천하를 巡幸하였다. 동으로 바다에 이르러 丸山에 올랐으며 태산에 미쳤다. 서쪽으로는 空桐에 이르러 鷄頭山에 올랐다. 남으로는 長江에 다다라 熊山과 湘山에 올랐다. 북으로는 粥을 쫓아내고 釜山에서 제후들을 모아 符節을 맞추고 탁록의 넓은 들판에 도읍을 두었다.
- ⑤ 관직을 설치하고 封禪을 거행하였다. 관직의 명칭에는 모두 雲字를 사용하였고 雲師를 두었다. 左右大監을 두어 萬國을 살피게 하였다. 만국이 화목하여 귀신이나 산천에 제사지내는 봉선의식이 많았다. 寶鼎을 얻었고 점치는 나뭇가지로 절기와 日辰을 알았다. 風后, 力牧, 常先, 大鴻을 임용하여 백성을 다스렸다.
- ⑥ 天地의 운행원리에 응하여 草木과 禽獸을 순화하였다. 천지의 이치에 순응하여 음양오행을 점쳤으며 死生의 說을 펼치고 국가 存亡의 어려운 이치도 알았다. 때에 알맞게 백곡과 초목을 기르고 새와 짐승, 벌레와 기는 것들을 순화하였다. 일월성신, 물의 흐름, 土石과 金玉을 모두 백성에게 이익이 되게 하였다. 土德의 상서로움이 있어 黃帝라 하였다.
- ⑦ 황제의 손자 高陽씨는 帝位에 올랐으니 그가 頊이다.¹⁹⁾

19) 司馬遷, 『史記』, 卷一, 「五帝本紀」, 中華書局, 1997, 1~10쪽.

『五帝本紀』는 중국 古代의 神話와 신화적 존재에 역사성을 부여함으로써 신화의 歷史化를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황제를 정점으로 하는 중국 고대 지배자들의 계보를 확정하였다.²⁰⁾ 따라서 역사 자료로서의 신빙성은 낮은 것이 사실이다. 본고의 주된 목적은 黃帝·炎帝에 대한 중국인의 인식을 살펴보는 데 있으므로 자료의 眞僞 문제는 따지지 않기로 한다.

『五帝本紀』에 나타난 黃帝는 전형적인 開國始祖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적 대항세력인 涇제와 치우의 제거, 제후의 통솔, 천하의 순행과 봉선, 관직의 설치, 천하 만물의 德化, 백성의 다스림, 제위 세습 등의 요소는 국가 기틀을 마련하는 데 불가결한 요소들이다. 황제의 이런 행적은 戰國時代의 혼란과 분열을 극복하고 중국을 통일한 秦 始皇帝의 행적에서 재현되었다.

開國始祖로서 황제는 첫째, 涇제와 치우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많은 씨족 부락과 부락연맹집단을 정복하고 華夏族 형성의 토대를 닦은 인물로 인식된다.²¹⁾ 이런 인식은 근대에 들어와 민족에 대한 자각과 인식이 형성되면서 황제가 민족시조로 대두하는 근거를 제공하였다. 『國語·晉語』에는 황제와 涇제는 少典氏가 蟠氏에게서 낳은 형제로 서술되어 있고 『新書·益壤』에는 涇제와 황제가 同母異父의 형제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黃帝는 곰을, 人身牛首인 炎帝는 소를 토tem으로 삼고 있어 동일 씨족이면 토tem이 같은 고대사회의 관행으로 보아 형제이기는 어려운 듯하다.²²⁾ 涇제와 황제의 전쟁은 姬水에 근거를 둔 전자와 姜水를 근거지로 한 후자의 전투인데, 쇠퇴기에 접어든 涇제 씨족을 대신하여 곰, 큰곰, 비, 휴, 추, 호랑이를 토tem으로 삼는 부락을 연합하여 신흥세력으로 떠오른 황제씨족이 승리한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다.²³⁾ 蚩尤는 오늘날 산서, 하북, 하남, 산둥 교계지역과 강소성 북부의 황하 하류 일대에 거주한 九黎

20) 李有鎮, 2002, 앞의 글, 372~373쪽; 李有鎮, 2003, 「끝없는 담론-신화의 역사화, 역사의 신화화」, 『中國語文學論集』 24, 533~534쪽.

21) 楊福華, 1996, 「論軒轅黃帝的歷史功績」, 『唐都學刊』 12, 45쪽.

22) 張玉勤, 2002, 앞의 글, 418~419쪽(原載: 『山西師範大學報』[社會科學版], 1990-3).

23) 柏明·李穎科, 1990, 『黃帝與黃帝陵』(陝西省地方志資料叢書), 西北大學出版社, 36쪽.

族의 우두머리였다.²⁴⁾ 황제는 치우와의 치열한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으므로 황하 하류 일대까지 세력권 안에 포함시킬 수 있었다. 염제·치우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황제는 동으로는 오늘날의 山東 해안지역, 서로는 崑崙山, 북으로는 내몽골 河套지방, 남으로는 湖北省 북부에 까지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즉, 황제의 활동 영역은 華山과 秦嶺을 중심으로 하여 황하와 장강 兩岸지역에 걸쳐 있었는데, 이곳이 바로 華夏族의 원거주지였다.²⁵⁾

황제의 이러한 이미지는 전·후한 시대에도 계속된다. 예컨대 전한 宣帝시대의 『鹽鐵論』에서는 황제가 염제와 치우를 싸워 이긴 것을 두고 湯王과 武王이 桀王과 紂王을 죽이고 천하를 다스린 것에 비교하며 황제는 전쟁으로 功을 이루고 탕왕과 무왕은 정벌하여 효를 이루었다고 평가하였다.²⁶⁾ 『後漢書』에서도 황제가 탁록에서 염제와 싸운 것을 강자와 약자의 전쟁이 아니며 분노가 폭발하여 싸운 것도 아니고, 해로움을 제거하고 王業을 정한 행동이라고 정당화하였다.²⁷⁾ 漢初에 黃老術이 정치세계에서 풍미하면서 황로술의 근원으로 인식된 황제의 정치적 정당성이 강화되었던 것이다.

송대로 내려오면 『資治通鑑』의 편찬자 司馬光이 쓴 『稽古錄』(卷一, 有熊氏)이나 그와 함께 『資治通鑑』 편찬에 참여하였던 劉恕의 『資治通鑑外紀』(卷一, 黃帝)에는 한대와 같은 정치적 의미부여는 생략한 채 황제와 염제, 황제와 치우의 전쟁 사실을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다. 청대의 저명한 考證學者 朱彝尊은 자신의 문집 『日下舊聞考』에서 황제와 염제의 싸움은 극히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으나 황제와 치우의 싸움은 역대 典籍들에서 관련 구절을 인용하면서 아주 자세히 고증하였다. 송대 무렵이 되면 開國始祖로서 황제의 입지가 탄탄해져 군이 한대에서처럼 정치적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평가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되는 분위기가 마련된 것이 아닌가 한다. 황제와 염제의 전쟁은 극히 짧게 다

24) 宋霖, 2002, 「蚩尤的神話與歷史」, 『炎黃匯典·文論卷』, 吉林文史出版社, 528쪽(原載: 『歷史月刊』 82, 1994).

25) 黃石林, 1998, 「中國古史中的黃帝時代」, 『炎黃春秋』 5.

26) 桓寬 지음, 김한규·이철호 옮김, 2002, 『鹽鐵論』 43, 結和, 소명출판사, 306쪽.

27) 『後漢書』, 卷74下, 「袁紹劉表列傳」, 中華書局, 1997.

른 반면 치우와의 전쟁은 아주 자세히 고증한 朱彝尊의 『日下舊聞考』 역시 청대의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民族始祖·開國始祖 黃帝와 文明初祖 炎帝와의 전쟁보다는 惡人의 이미지로 덧씌워진 蚩尤와의 전쟁을 강조하는 것이 고대 역사에 대한 거리낌을 없애는 데 훨씬 편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흐름은 청말에도 계승되는데, 夏曾佑가 1904년에 출판한 『最新中學中國歷史教科書』를 살펴보면 황제와 치우의 전쟁 서술 분량이 황제와 염제의 전쟁 서술 분량에 비해 2배가 넘는다.²⁸⁾

전통시대 중국인들에게 비친 開國始祖로서의 황제의 또 다른 모습은 賢能者를 임용하여 백성을 다스린 자라는 측면에서 구체화하였다. 『管子』에 따르면 황제는 또 각자의 능력에 따라 직임을 맡긴 것으로 나타난다. 沮誦, 蒼 은 고금에 통달하고 천문지리에 정통하여 史臣으로 임명하였다. 또 음률에 밝은 伶倫은 作樂에, 陶器를 제작하던 擅長을 陶正에, 牲畜의 신체구조를 숙지하고 있던 馬師皇은 牧正에 임명하였다. 晉 皇甫謐의 『帝王世紀』에도 황제의 이런 측면이 확인된다. 황제는 風后를 上台, 天老를 中台, 五聖을 下台에 임용하고 三公이라 하였다. 또 力牧, 常先, 大鴻, 神農, 皇直, 封鉅, 大山稽, 鬼臾區, 封胡, 孔甲 등을 師나 將으로 삼아 사방을 나누어 장악하게 하니 마치 황제 스스로가 사방을 직접 눈으로 보는 것처럼 자세히 알았다고 한다. 황제의 눈이 네 개라는 말은 여기서 생겼다.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하는 황제의 이미지는 남송시대 羅泌의 『路史』에서 훨씬 정돈되고 체계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 『路史』는 龐雜함을 면치 못하였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상고의 역사를 다양한 자료에서 채취하여 재구성하였는데, 이전의 典籍들보다 훨씬 자세하게 황제의 紀를 작성하였다. 이에 따르면 황제는 즉위할 때 四輔, 三公, 六卿, 三少, 二十四官 등 百二十官과 함께 다스리니 ‘天地治, 神明至’하였다고 한다.²⁹⁾ 이러한 인상은 청대까지도 그대로 계승되었다.³⁰⁾ 현능자를 등용하고 이를 관료로 임

28) 夏曾佑, 1904, 『最新中學中國歷史教科書』, 商務印書館(본고에서는 『炎黃匯典·文論卷』, 吉林文史出版社, 2002, 2~4쪽 참조).

29) 羅泌, 『路史』(四庫全書本) 卷14, 后紀5, 疏 紀·黃帝紀上.

30) 吳乘權, 『綱鑿易知錄』(『炎黃匯典·史籍卷』, 吉林文史出版社, 2002, 374쪽) 卷1, 五

명하고 관료집단을 동원하여 초기 국가를 성공적으로 다스리는 모습에서 開國始祖로서의 황제의 모습을 찾아낼 수 있다. 개국시조로서의 인상은 황제의 후손들이 제위에 올랐다고 전승됨으로써 더욱 강화되었다.

이상의 두 가지 모습은 염제신농씨에게는 나타나지 않는 황제만의 독특한 이미지로서 開國始祖로서 黃帝像를 구축한 핵심적 요소였다. 반면 황제에게는 염제와 겹치는 이미지가 있으니 이는 바로 중국문명의 창조자라는 점이다. 황제 역시 농업문명과 관련한 다양한 요소를 발명한 인물로 받아들여졌다. 衣裳, 술과 시루, 집, 배와 수레, 병기, 우물, 曆數, 棺槨 등을 만들었다고 기려지고 있다.³¹⁾ 황제의 발명으로 언급된 이런 요소들은 염제의 그것들에 비해 진일보한 것이다. 염제시대에서 황제시대로 전환하면서 신석기 문명이 한 단계 진보한 것을 나타낸다. 그러나 문명창조자로서의 모습은 염제에게는 주된 이미지였으나 황제에게는 부차적인 이미지이다. 이 때문에 전통시대 중국인들이 염제에 대해서는 文明初祖, 황제에 대해서는 開國始祖라는 인상을 강하게 갖게 되었다.

帝紀, 黃帝有熊氏에 따르면 황제가 六相을 얻으니 천지가 다스러지고 神明이 이르렀다고 한다. 六相 가운데 風后는 天道에 밝고, 太常은 地利를 살피고, 蒼龍은 동방을 다스리고, 祝融은 남방을, 大封은 서방을, 后土는 북방을 다스렸다. 황제는 창힐을 左史에, 저송을 右史에 임명하였다. 창힐은 새와 짐승의 발자국을 보고 그 형상을 본따 글자를 만들었다.

31) 楊福華, 1996, 앞의 글, 47쪽.

Ⅲ. 近代 民族意識과 炎帝·黃帝

1_ 民族과 民族主義 概念의 興起

근대 중국의 지식인들은 서구열강의 침입 앞에 무력하게 허덕이며, 전통적인 조공국가들이 청조의 영향권에서 이탈해 나가는 냉혹한 현실을 목도하면서 더 이상 전통적인 중화의식에 안주하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점차 깨닫게 되었다. 이들은 중국의 부강함을 회복하기 위해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사상 등의 다양한 방면에서 새로운 시도에 착수하였다. 그 가운데서 본고의 주제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움직임은 국민=민족, 민족주의에 대한 관심과 긍정적 평가이다.³²⁾

중국 민족관념의 기원을 전국시대 이래 진행되어 온 황제와의 혈연 맺기 움직임에서 찾는 견해도 있지만,³³⁾ 민족이라는 용어는 1873년 메이지시대의 사상가였던 가토 히로유키[加藤弘之]가 블룬칠리(J. K. Bluntschli)의 『國家論』을 일본어로 옮길 때 최초로 사용하였다. 독일어 'nation'을 '民族'으로 번역하였던 것이다. 블룬칠리의 또 다른 저서 『교양인을 위한 독일 정치학』은 1899년 아즈마 효지[吾妻兵治]가 일본어로 『國家學』이란 제목의 고전 한문체로 번역하였다. 梁啓超는 1899년 『清議報』에 블룬칠리의 『국가론』을 연재하였는데, 이는 가토 히로유키의 번역본을 토대로 한 것이 아니라 아즈마 효지의 일본어 번역본 『國家學』을 토대로 한 것이다. 그런데 1899년경에 양계초는 민족이라는 개념에 대해 크게 주의하지 않았다. 그는 블룬칠리의 『국가론』을 소

32) 清末 지식인들이 國族(국가와 민족과 종족을 일체화하여 파악하는 개념어)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黃帝神話를 어떻게 활용하였는가에 대한 자세한 연구성과로는 沈松僑, 1997, 「我以我血薦軒轅 - 黃帝神話與晚清的國族建構」, 『社會研究季刊』 28가 있다.

33) 王明珂, 2002, 「論攀附：近代炎黃子孫國族建構的古代基礎」,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集刊』 37-3.

개하면서 제2권의 나치온과 폴크의 구분에 관한 내용을 완전히 삭제해 버린 것이다. 아마도 양계초 자신이 두 용어에 대해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한 탓도 있을 것이다.³⁴⁾ 그 밖에 무술변법을 통해 드러났듯이 입헌군주제를 지향한 정치성향에서는 근대의 산물인 民族 개념이 자리를 잡는 데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다.

양계초가 민족과 국민에 대해 인식하고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기 시작한 때는 1901년 무렵이었다. 그는 「國家思想變遷異同論」(『清議報』 96·97冊, 1901), 「政治學大家伯倫知理之學說」(『新民叢報』 32號, 1903) 등의 논설을 통해 민족과 민족주의라는 용어를 유행시켰다. 그런데 양계초에게 민족이란 곧 국민을 의미했으며 독립된 근대국가를 구성하는 정치적 국민이었다. 이런 입장 때문에 그는 민족을 혈통적으로 이해하지 않았고 당연히 중국민족의 범주 속에는 지배자인 만주족도 포함하였다. 이 때문에 양계초는 동화를 통해 중국은 한족·만주족·몽고족·회족·요족·장족을 합하여 하나의 대민족을 이루고 있다고 보았다. 만주족에 대해서도 종족에는 만·한의 구분이 있지만 사실은 수백만의 만주인이 중국본토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세력이 많이 미약해졌고 한족과 하나의 민족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민족에 대한 양계초의 이런 입장은 여러 소수민족을 포함하는 ‘大民族主義’로 표현할 수 있다.³⁵⁾ 민족에 대한 이러한 입장은 혈통을 중심으로 민족을 구분한 혁명파의 그것과는 상반된 것이다.³⁶⁾

그는 또 민족주의는 “종족, 언어, 종교, 습속을 같이하는 각 지역의 사람들이 서로를 동포라고 이해하고 독립자치에 힘써 완비된 정부를 조직하여 공익을 도모하며 他族을 견제하는 것”이며 “世界에서 가장 光明, 正大, 公平한 主

34) 박상수, 2005, 「중국 근대 ‘네이션’ 개념의 수용과 변용」, 『동아시아 근대 ‘네이션’ 개념의 수용과 변용-한·중·일 3국의 비교연구』, 고구려연구재단, 98쪽.

35) 박상수, 2005, 위의 글, 101쪽.

36) 혁명파들은 漢族을 중심으로 滿洲族의 淸朝를 타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민족이란 혈통의 계승과 공동의 조상을 가진 종족 개념으로 인식되었다. 이런 입장에서 반만 혁명파들은 화북지방을 점령한 鈔과의 무력투쟁에 투신한 宋의 岳飛를 민족영웅으로 현창하였다. 김선자, 2007, 앞의 책, 101쪽.

義”라고 지적하고 이는 시대의 필연으로서 따르면 변창하지만 거스르면 망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민족주의를 실행하고 민족국가를 건립하여 열강의 제국주의를 막아내자고 역설하였다.³⁷⁾

양계초는 자신이 주창한 민족과 민족주의를 新史學이라는 수단을 통해 현실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그는 새로운 역사학의 중심에는 국민(=민족)이 위치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그의 눈에는 이전까지의 중국역사는 권력을 지닌 한 두 사람의 흥망성쇠를 기록한, 일개 집안의 족보에 불과한 것으로 비쳐졌다. 이에 반해 근대적 의미의 역사란 국민 전체의 모습과 그 상호관계를 찾아내는 것이었다. 중국 전통역사학에는 결락된 국가와 사회 관념이야말로 근대 역사학의 핵심내용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이런 입장에서 양계초는 국민이 주체가 되는 역사서술을 강력히 주창하면서 역사의 효용성을 민족=국민의 흥망성쇠를 기술하여 국민들의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데서 찾았다.

역사의 중심에 국민이 위치해야 한다는 양계초의 주장은 당시의 지식인 세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양계초의 新史學 이론은 역설적이게도 그와는 민족에 대한 관념이 다른 革命派와 國粹學派에게서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청말의 혁명사상을 고취시키는 데 일조한 『浙江潮』에서는 역사란 국가의 혼을 한 데 모으는 구심점이며 애국심의 원천이라는 주장을 담았고, 혁명사상을 전파한 다른 잡지들도 이와 비슷한 주장을 퍼뜨렸다. 국수학파인 鄧實과 馬敘倫도 전통시대 중국에서 서술되던 군주 중심의 역사를 비판하고 국민 위주의 역사서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역설하였다.³⁸⁾

이처럼 청말의 지식인 세계에서는 혁명과 개혁이라는 정치적 노선의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 역사학의 비판을 통해 새로운 역사의 주체인 국민을 창출해 내려는 움직임이 공통적으로 발생하였다. 국민이 존재해야 근대 중국을 부강하게 만들 근원적 요소라 기대되었던 국민국가가 만들어질 토대가

37) 千聖林, 2002, 『近代中國 思想世界の 한 흐름: 思潮·論爭·人物』, 신서원, 26~27쪽.

38) 천성립, 2005, 「기억의 정치-청말의 영웅만들기」, 『동아시아 역사 속의 중국과 한국』, 서해문집, 427~428쪽.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런 정치적 민족주의 이외에 문화적 민족주의도 창도되었다. 이민족인 만주족의 지배를 300년 가까이 받아온 당시의 시점에서는 漢族의 문화를 보존하고 계승하는 주체로서의 민족 내지는 민족주의에 대한 호소도 사회적인 파급효과가 상당히 컸기 때문이었다. 민족의 시조에 黃帝에 대한 관심은 이런 시대적인 배경에서 탄생하였다.

2. '民族始祖'로서의 黃帝

중국에서도 서구나 일본에서와 마찬가지로 근대국가를 형성해 가는 과정에서 민족에게 자긍심을 부여하고 단결을 강화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였다. 이런 시대적 필요에 부응하여 대두된 존재가 황제였다.³⁹⁾ 전통시대 중국인들에게 華夏族을 형성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감당했다고 각인된 黃帝가 근대에 들어와 중국인의 민족시조로 대두한 현상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황제를 민족시조로 인식한 것은 康有爲·梁啓超 등 청말의 개량주의적 지식인에게서 비롯되었다. 1899년 캐나다에 망명해 있던 강유위는 중국인은 모두 황제의 자손으로 향리의 모든 사람들이 동포이자 같은 집안의 친척과 다름없다고 주장하였다.⁴⁰⁾ 이듬해에는 양계초도 황제자손은 聚族而居한다고 언급하였다.⁴¹⁾ 이후에도 그는 「中國史序論」, 「新史學」, 「新民說」 등의 문장에서 여러 차례 황제자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⁴²⁾ 황제에 대한 양계초의 입장은 그의 시 「黃帝四首」에서 잘 나타난다.

빛나고 빛나는 우리들(始祖-역자) 할아버지의 성함은 軒轅, 곤륜산에서 내려오셨지.

39) 김선자, 2007, 앞의 책, 150~151쪽.

40) 康有爲, 1981, 『康有爲政論集』, 中華書局, 403쪽.

41) 梁啓超, 1989, 「少年中國說」, 『飲水室合集』 第1冊, 文集5, 中華書局, 9쪽.

42) 高強·田延峰, 2000, 「試論清末黃帝子孫稱謂的勃興」, 『寶鷄文理學院學報』(社會科學版), 20-3, 40쪽.

북으로는 을 남으로는 苗蠻을 쫓아내느라 전장을 누비셨네.
異族을 쓸어내고 주인의 권리를 차지하여 우리 자손에게 물려주셨지.
우리 자손들이여 잊지 말자 잊지 말자 할아버지의 영광을.

포근하고 포근한 우리들 할아버지의 성함은 軒轅, 세계문명의 선구자
셨지.
글과 음양오행과 曆數를 가르쳐 주셨고 또한 의약도 전해 주셨네.
과학사상도 그분에게서 근원을 찾을 수 있어 문명은 우리가 가장 앞섰지.
우리 자손들이여 계속 전하자 할아버지의 영광을.

높고 높은 우리들 할아버지의 성함은 軒轅, 아무리 먼 곳도 한결같이
덕을 밝히셨지.
손수(우리나라를) 아시아 첫째가는 나라로 여시니 땅에 금을 깔아놓은
듯하네.
산과 강은 비단을 펼친 듯 아름답고 환하니 도처에서 옛날을 기리시.
우리 자손들이여 보존하고 추락시키지 말자 할아버지의 영광을.

이어지고 이어지는 우리 할아버지의 성함은 軒轅, 후손 중에는 호걸 준
걸이 많지.
진시황, 한무제, 당태종 천하에 위엄을 떨쳤네.
지금도 백인은 黃禍論 말하니 듣는 자는 안색이 변하지.
우리 자손들이여 떨치고 계승하자 우리 할아버지의 영광을.⁴³⁾

양계초는 위의 시, 1수에서 이민족을 쫓아내고 한족을 중원의 주인으로 만
들어 준 황제의 공덕을, 2수에서는 문명의 창시자로서의 황제의 덕을, 3수에
서는 개국시조로서의 황제의 모습을, 4수에서는 황제의 명성이 면면히 이어지
며 뛰어난 후손, 즉 역대 皇帝들을 배출하고 있음을 찬양하고 있다. 양계초의
황제관은 開國始祖, 민족 형성의 주도자, 문명의 창시자라는 전통시대의 황제
인식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청말의 시대적 분위기를 새롭

43) 梁啓超, 「黃帝四首」, 『飲水室詩話』(본고에서는 『炎黃匯典·詩歌卷』, 吉林文史出版
社, 2002, 227쪽 참조).

게 반영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그것은 중국인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황제를 직접 거론하며 분발을 촉구한 점이다. 4수에서 모두 黃帝의 영광을 잊지 말고, 보존하고, 계승하고, 떨치자고 강력하게 권유하는 후렴구가 들어 있다. 양계초는 황제의 위업을 계승함으로써 중국인의 옛 영광을 회복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黃帝를 漢族의 民族始祖로 이해하는 점에서는 개혁파 양계초와 혁명파 지식인의 입장이 비슷하다. 그러나 만주족도 黃帝의 후손으로 볼 수 있는가, 만주족은 한족에 동화되었는가, 만주족과 한족은 평등한가 하는 문제에 대한 인식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대민족주의’를 견지한 양계초는 黃帝의 후손에는 만주족도 포함한다는 주장을 펼친 반면, 혈연적 민족주의를 내세운 혁명파들에게는 한족만이 黃帝의 후손에 포함될 뿐이었다.⁴⁴⁾

혁명파들은 황제를 민족 결집의 구심점으로서보다는 反滿 혁명을 위한 民族始祖로서의 측면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기 때문이었다. 鄒容은 1903년 5월 그의 저서 『革命軍』 속에서 ‘我黃帝神明之子孫’,⁴⁵⁾ ‘黃帝之子孫’⁴⁶⁾ 등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만주족은 한족과는 種族이 다르다는 점을 누차 강조하였다. 이 무렵 중국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신화 속의 黃帝를 역사 속으로 끌어내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졌다. 당시는 반청운동이 날로 격화되어 가던 시점으로 종족주의적 관점에서 만주족을 배척하는 정치적인 선전들이 사회의 저변으로 널리 퍼져나가던 때였다. 漢族 지식인의 입장에서는 반청에 대한 대안으로서 한족에 정체성을 부여할 상징적인 인물이 필요했다. 그 필요성에 조응하여 주목받기 시작한 존재가 바로 황제였던 것이다. 1903년 중국 전통학술의 精華를 보존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던 국학자 劉師培는 『黃帝紀年說』이라는 논문 속에서 황제 기원을 사용하여 청조 황제들의 연호를 대신하자고 주장하였다. 民族始祖인 黃帝야말로 한족들의 조상일 수밖에 없다

44) 高强, 2002, 「革命派與改良派關於“黃帝子孫”稱謂的歧爭」, 『烟台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15-3, 350쪽.

45) 鄒容, 『革命軍』, 華夏出版社, 2002, 29쪽.

46) 鄒容, 위의 책, 2002, 44쪽.

는 것이다. 조상의 유업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려면 황제로 기년을 삼아야 한다는 논리였다.

이런 주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 혁명과 잡지들이었다. 혁명과 잡지 『江蘇』는 「中國民族鼻祖黃帝像」을 게재하고 공공연히 황제기년을 채용하였다. 또한 反滿 혁명사상을 전파하는 데 폭발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진천화의 『猛回頭』(1903년 상반기 간행)를 비롯하여 『警世鐘』(1903년 하반기 간행) 등의 잡지에서는 황제를 한족의 시조라고 주장하며 그의 초상을 게재하였다. 『猛回頭』의 「黃帝肖像后題」에서는 “우리의 시조 公公(=黃帝)을 위해 한번 목 놓아 읊는다. …… 우리 漢種을 위해 속히 영웅을 내려주소서. 저 이민족(=만주족)은 아주 흉포하여 우리 한족을 犧牲으로 삼고 멋대로 우리더러 순종하려고 하니 4억(한족)이 모두 죽음의 城으로 빠져듭니다”⁴⁷⁾라고 황제에게 ‘참상’을 절규하였다. 『警世鐘』에서는 세계의 인종을 黃色種, 白色種, 紅色種, 黑色種, 棕色種으로 나눈 후 황색종은 黃帝를 조상으로 하는 漢種, 운남·귀주 등지에 분포한 苗種, 東胡種(만주족), 몽고족으로 구분하여 한족은 만주족과 동일한 종족이 아님을 강조하였다. 또한 한족은 4300년 전에 시조인 黃帝가 중국의 서북쪽에서 와서 蚩尤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중국에 퍼져 있던 苗族을 쫓아내고 黃河 兩岸에 국가를 건립하였다고 하여 황제가 민족의 시조이자 개국시조임을 분명히 하였다.⁴⁸⁾ 신화 속의 황제가 드디어 구체적인 형상을 띠고 인격화·실체화하면서 중국인들의 뇌리 속으로 성큼 다가와 民族始祖로서 자리매김하였던 것이다. 1905년에는 혁명파들이 자신들의 기관지인 『民報』 창간호에 세계 제일의 민족주의 위인 황제라는 설명과 더불어 황제 초상을 게재하여 한족들의 민족주의적 정서를 자극하면서 혁명의 당위성을 선전하였다. 같은 해에 창간된 『國粹學報』에서도 중국민족이 황제의 후손임을 천명하였다.⁴⁹⁾

47) 陳天華, 『猛回頭』, 華夏出版社, 2002, 45쪽.

48) 陳天華, 『警世鐘』, 華夏出版社, 2002, 85쪽.

49) 천성림, 2005, 앞의 글, 428쪽.

혁명파 이론가인 汪精衛는 열등한 만주족과 우월한 한족은 역학관계상 후자가 전자를 흡수하거나 동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단일한 종족으로 구성된 국가가 복수의 종족으로 구성된 국가보다 훨씬 우월하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근대 중국이 우월한 국가로 탄생하기 위해서는 만주족이 해체되어야 했다. 그러므로 왕정위는 문화적으로 우수한 다수의 한족이 문화적으로 열등하고 소수인 만주족을 동화하여 마침내 중국은 하나의 민족으로 구성된 국가가 되리라고 전망하였다.⁵⁰⁾

청조의 지배력이 강력하게 침투한 19세기 중반까지 한족들은 철저한 사상적 통제를 받으면서 자신들의 反滿·反淸 의식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었다. 그러나 청조의 권위가 추락하는 19세기 중반 이후 사상통제는 서서히 이완되고, 청조를 무력으로 타도하려는 혁명운동이 점화되는 20세기 초에 들어와 근대적 민족개념이 도입되면서 黃帝는 혁명사상을 전파하는 유력한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동시에 중국인의 民族始祖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3_ 忘却된 炎帝

염제는 전통적으로 중국인들에게 문화의 창조자로 인식되어 왔다. 농업의 창시자로서뿐만 아니라 질병을 치료하고 약초를 채집하며 짐승들의 해로움을 제거하는 등 중국문화의 전반에 창조자로서 각인되어 있었다. 따라서 염제는 염제신농씨라는 칭호를 가진 이래 전통시대의 중국인에서 현대 중국인에 이르기까지 文明初祖로서 문화적인 조상, 문화적인 國祖의 이미지로 각인되어 왔다.

그런데 근대에 들어와서 文明初祖로서 염제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했다. 그것은 전통시대 중국인들이 품었던 중국문화에 대한 자부심이다. 전통시대 중국인의 문화적 자부심은 中華意識으로 응집되어 나타났다.

50) 프라센지트 두아라 지음, 문명기·손승희 옮김, 2004, 『민족으로부터 역사를 구출하기-근대 중국의 새로운 해석』, 삼인, 205~206쪽.

그러나 19세기 중반기에 들어와서는 근대무기와 근대학문을 앞세운 서구 세력의 위력 앞에 중국인들의 자부심은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 중국인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는 논리라 할 수 있는 中體西用論이나 道器論도 결국 뒤집어 보면 서양의 用과 器를 불가피하게 수용해야만 한다는 고백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중국문명의 정점에 위치한 염제에 대한 무관심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또한 중국문화의 精髓를 보존하자고 표방한 國粹學派들의 궁극적인 활동 목표는 國粹의 보존이라기보다는 학술을 통한 反滿革命에 놓여 있었다. 이들은 서구문화의 무분별한 수입으로 국가의 멸망과 민족의 멸망, 학술의 멸망이 초래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하였다. 그런 맥락에서 이들은 서구문명은 전통문화 가운데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을 지칭하는 國粹를 기준으로 삼아 적절하게 취사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국수학파의 태두이자 학문 있는 혁명가로 불린 章炳麟이나 劉師培, 鄧實, 黃節, 馬敘倫 등이 대표적인 존재였다. 이들은 신해혁명이 발발하고 청조가 붕괴하자 1912년 초에 이제는 혁명이 성공하고 문자도 功을 거두었다고 선언하고 『國粹學報』를 정간해버렸다.⁵¹⁾ 중국 전통문화와 학술에 조예가 깊은 지식인들로 결성된 국수학파들조차 신해혁명기에 들어서면서 중국문화에 대한 애착과 자부심은 상당히 식었다고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들은 5·4운동 때에 윤리혁명과 문학혁명을 골자로 하는 신문화운동에 대항하여 전통적 가치의 보존과 文語의 보존을 지향하였지만 오히려 거센 신문화운동의 물결이 이들을 삼켜버렸다. 서양문화를 전폭적으로 수용하자는 주장이 날이 갈수록 지지를 얻게 되었다. 1915년에 창간된 『新青年』과 『新潮』를 활용하여 陳獨秀, 李大釗 등의 신문화운동 주창자들은 國粹를 통렬하게 공격하였다. 진독수는 「敬告青年」에서 “민주를 옹호하기 위해서는 孔敎와 예법, 정절, 구예술, 구종교를 반대해야 한다. 민주와 과학을 옹호하기 위해서는 國粹와 구문학에 반대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4년 후인 1919년에는 월간잡지 『國故』와 『新潮』 사이에 중국 고대의 학술사상과 중국민족의 과거의

51) 千聖林, 2002, 앞의 책, 73~74쪽.

역사에 대한 견해를 둘러싸고 격렬한 논쟁이 일어났다. 黃幹은 『國故』를 통해 國故가 중국 고유의 학술로서 보존할 대상이며 구사상, 구문화를 반대하는 것이야말로 나라를 어지럽히고 풍속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이에 대해 毛子水是 『新潮』에서 國故란 이미 죽은 것이며 잡다하고 쓸모없는 지식이기 때문에 國新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에게 있어서 國新이란 달리 표현하면 성장 중의 것, 계통 있는 학술이라고 받아들인 歐化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당시의 중국인들에게 중요한 일은 유럽 현대의 가치 있는 학술을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이처럼 유럽으로 대표되는 서양의 것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진독수에게서도 뚜렷이 나타난다. 그는 1918년 『新青年』에서 발표한 「오늘날 중국의 정치문제」에서 이렇게 주장하였다. “혁신을 도모하고자 한다면 서양의 새로운 방식을 광범위하게 채용할 것이며 國粹·國情 따위의 괴상한 말로서 어지럽힐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新舊의 두 방식은 물과 불, 얼음과 숯 같아서 서로 융합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진독수는 동서문화를 첨예하게 대립시켜 서방 근대문명을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가치로 보는 반면 중국의 전통문화는 극복되고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이해하였다.⁵²⁾

서구문화의 우위를 확신하는 지식인들은 1930년대 무렵에는 4억 중국인이 세계에서 생존하려면 西化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단언하기도 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를 들면 陳序經의 全般西化, 胡適의 充分西化나 全力西化, 장불천의 根本西化나 實質西化, 장희약의 大部西化, 왕청운의 從根西化 주장이 그것이다. 이들은 한결같이 서구 근대 자본주의 문명의 대폭적인 수용을 주장하였던 것이다. 서화론이 범람하는 가운데 대학생들은 전통적인 가치관에 상당한 혼란을 겪으며 서구 중심의 새로운 가치관으로 경도하여 갔고 심지어 崇洋 풍조에 몰들기도 하였다.⁵³⁾

52) 千聖林, 2002, 앞의 책, 86쪽.

53) 백영서, 1992, 「1920년대 중국 대학생의 일상생활에서의 정체성 위기 - 전통적 가족제도와와의 충돌」, 『동양사학연구』 39, 110~122쪽; 백영서, 1994, 『중국현대대학문화연구: 1920년대 대학생의 정체성 위기와 사회변혁』, 일조각.

이런 사회분위기하에서 전통시대 이민족 왕조에서조차 지속되어 오던 염제에 대한 제사는 청조의 멸망 이후 명맥이 끊어져 버렸다. 중앙정부는 물론 염제릉이 소재한 섬서성 정부에서조차 제사를 지내지 않았다. 염제릉을 관할 하던 염릉현에서 1930년대에 縣政府 주도로 겨우 한번 제사지냈을 따름이었다.⁵⁴⁾

황제와는 대조적으로 근대 시기의 염제는 중국인들에게 잊힌 존재였다. 그 이유는 두 가지였다. 첫째, 염제는 청말에 종족적 관점에서 격렬히 전개된 반만·반청운동의 상징으로서 부각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자리는 전통시대부터 한족의 조상으로 숭배된 黃帝의 차지였기 때문이다. 둘째, 근대에 노도와 같이 밀어닥친 서구의 것에 대한 관심과 숭배가 중국문명의 상징인 염제에 대한 현장을 방해하였기 때문이다. 국수학과와 같이 일부 저항하는 세력도 있었지만 서구문명에의 경도는 지속되었고 염제가 상징하는 중국문명이 근대 중국인들에게 전통시대처럼 자랑스러운 것이 되기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IV. 맺음말

이상으로 중국인들이 자신들의 시조라고 숭배하는 炎帝와 黃帝의 이미지가 전통시대에는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근대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계승·변화하였는가를 살펴보았다. 염제는 신석기시대를 배경으로 한 농경문명의 창시자로서 전통시대 내내 숭배되었다. 전통적인 지식인은 물론 역대 이민족 왕조를 포함한 역대왕조에서는 文明初祖로서 염제를 숭배해 왔다.

황제는 開國始祖로서 인식되었다. 개국시조로서 인식된 황제에게는 한족의 모체라 할 수 있는 華夏族을 형성한 주도자, 어질고 능력 있는 자를 관료로

54) 周新發 編著, 2003b, 앞의 책.

임용하고 관료조직을 통해 나라를 태평성세로 이끈 지배자로서 전통시대 중국인들에게 각인되었다. 두 가지 모습은 염제에게는 찾아보기 어려운 황제의 독특한 이미지였다. 이것이 開國始祖로서의 黃帝像을 구축한 핵심적 요소였다. 반면 황제에게는 염제와 중복되는 이미지가 있으니 중국문명의 창조자라는 점이다. 황제가 발명했다고 전해지는 衣裳, 술과 시루, 집, 배와 수레, 병기, 우물, 曆數, 棺槨 등은 문명의 구성요소라는 측면에서 볼 때 염제가 발명했다고 하는 것에 비해 진일보하였다. 그러나 문명창조자로서의 모습은 염제에게는 주된 이미지였으나 황제에게는 부차적인 이미지이다. 이 때문에 전통시대 중국인들이 염제에 대해서는 文明初祖, 황제에 대해서는 開國始祖라는 인상을 갖게 되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접어들면서 이러한 염제·황제 인식에 변화가 나타났다. 근대 중국이 내포한 시대적 흐름이 이러한 변화를 가져온 원동력이었다. 근대 중국사회에 던져진 2대 화두는 反滿革命과 새로운 강자로 떠오른 서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반만혁명세력의 결집을 촉진할 수 있는, 한족의 모체를 형성한 주역이라는 이미지를 가진 황제는 신해혁명시기에 특히 집중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전통시대의 영광을 잃어버린 중국문명은 염제도 숭배의 자리에서 끌어내렸다. 중국문명은 타도의 대상이며 서구문명이 이를 대신해야 한다는 주장이 사회에서 거세게 일어나면서 염제는 문명초조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숭배를 받지 못했다. 오히려 망각된 존재가 되어 버렸던 것이다.

신해혁명 이후 손문이 황제기년을 철폐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라든지, 국수학파들이 반만혁명을 완수하였다며 스스로 『國粹學報』의 발행을 중단한 것에서, 시대적 분위기가 변한다면 黃帝에 대한 관심도 얼마든지 식어질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반면 오늘날 중국인들은 스스로 炎黃子孫이라 칭하며 잊혀졌던 염제를 부활시켰다. 中華民族이라는, 성립하기 어려운 생소한 개념을 만들어 내어야 할 정도로 복잡한 중화인민공화국의 상황을 추스르는 데 적합한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ABSTRACT]Chinese Recognition of Fire Emperor, Yellow Emperor
and Nation in Modern Times

Lee, Jungab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is the change of the character of the Fire Emperor(炎帝) and Yellow Emperor(黃帝) who have been respected by Chinese as Founder from ancient time to modern time. Fire Emperor was respected as the inventor of chinese agricultural civilization by nomadic dynasties in proper China, needless to say, by all the Chinese people and Chinese dynasties. Yellow Emperor was respected as the founder of country. Chinese people recognized Yellow Emperor as a hero of making ancient Chinese nation and bureaucracy. These two aspects are the most important facts of Yellow Emperor as country founder which are not found in the character of Fire Emperor. Yellow Emperor and Fire Emperor held the character of the inventor of chinese agricultural civilization in common. This aspect is the most important to Fire Emperor, but secondary to Yellow Emperor. As a result, Chinese People in traditional time thought of Fire Emperor as the inventor of agricultural civilization, Yellow Emperor as the founder of country.

Such recognition was changed in modern time. European imperialism occurred to this transition. How to opposite to European imperialism, how to achieve anti-Manchu revolution, these two things are the most difficult problems which Chinese people must

solve in modern times. Chinese revolutionist made use of the character of Yellow Emperor the founder Chinese nation as the symbol of anti-Manchu revolution. Thus Yellow Emperor still respected by Chinese people in modern times. But Fire Emperor the inventor of Chinese agricultural civilization was forgotten in modern times because of his Character. In modern times, a lot of Chinese people looked down on Chinese traditional civilization. But they were eager to learn European civilization.

keywords

Yellow Emperor, Fire Emperor, the inventor of agricultural civilization, the founder of country, anti-Manchu revolution

民族主義 이데올로기 영향하에서의 중국 외교정책에 대한 고찰

- ‘炎帝·黃帝숭배’ 연구를 중심으로 -

이재광 | 인하대학교 동양어문학부 중국어 중국학 전공 교수

I. 머리말

최근 ‘용의 후계자’, ‘염제·황제 자손’이라고 스스로 칭하는 중국인은 민족 자긍심이 매우 강한 집합체이다. 역사적으로 “강대한 세력의 대국, 오직 우리 중국이로다(泱泱, 唯我華夏)”라는 개념은 오늘날까지 오래도록 쇠하지 않고 전하고 있다. “몇천 년 동안, 염제와 황제는(이하 ‘염황제’) 중화민족의 출발과 통일 상징이 되어왔고, 대내외적으로 중화건아들의 아이덴티티와 응집력에 거대한 작용을 발휘하였다.”¹⁾ 그리고 1980년대 이후부터는 ‘炎帝·黃帝숭배’의 연구도 다시금 불타오르게 되었다. 이러한 염제·황제숭배(이하 ‘염황숭배’)와 조상의 뿌리를 찾는 심리는 일맥상통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중국이 다민족 국가란 것을 익히 알고 있었고, 역사적으로 이러한 민족 사이에는 融合期도 있었고 서로 죽이는 전쟁기도 있었다. 그러면 과연 무엇이 이러한 다민족을 응집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민족공동의 공감대를 가지게 했는가? 또 무슨 이유로 중

1) 費孝通, 「弘揚炎黃文化振奮民族精神」, 『光明日報』, 2002. 4. 9.

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개혁개방정책 아래, 경제가 엄청나게 발전된 오늘 날에 와서 새삼스럽게 염황에 대한 연구와 숭배활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가? 이 외에도 건국 이래 염황에 대한 연구와 숭배활동은 중국의 민족주의 발전과 도대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본고는 이러한 사실과 의문을 토대로 기존의 단조로운 연구(염황에 대한 연구이거나 중국의 민족주의에 대한 연구방법)의 제한을 탈피해서 중국인들의 염황인식과 중국의 민족주의 발전을 한데 묶어 심층 분석함으로써 객관적으로 炎黃二帝의 인식과 염황숭배로부터 불거져 나온 중화 민족주의 思潮의 발전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기초 위에서 한발 더 나아가 염황숭배가 현대에서 다시금 주목받게 되는 역사적인 의의와 현실적인 의의를 귀납해 보고자 한다. 또한 이 연구가 현재 중국의 민족주의 발전과 민족정책을 이해하고, 우리나라가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처리함에 상응하는 대책을 세우는 데 약간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본고는 史料분석과 현지조사의 두 가지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했으며 연구하는 동안 필자는 대량의 염황 연구에 관한 문헌자료와 회의기록을 살펴보았을 뿐만 아니라 중국 湖南省의 炎帝陵, 陝西省의 黃帝陵, 그리고 陝西省 寶鷄縣의 염제릉 등에 가서 조사를 하였다. 그리고 호남성과 섬서성에서 제공한 자료와 해당지역 有關人士들과 座談을 통해서 더 많은 구체적인 1차 자료를 얻을 수 있었으며 대량의 염제릉과 황제릉의 사진을 찍어서 염황 연구에 대하여 생동감 있는 보충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본고는 이전의 연구에서 염제·황제 문제 자체로 진행된 연구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炎黃 인식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현재 중국 민족정책 배후에서 결정적인 작용을 하는 원인이 炎黃에 대한 일관된 숭배심리와 炎黃문화의 모든 곳에 스며들어 있는 정치적인 응집정책에 있다는 것을 찾아낸 것이다.

II. ‘炎帝·黃帝숭배’에 대한 연구성과

1_ 炎帝·黃帝와 염황문화

費孝通은 “중화문명이 끊임없이 풍부해지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며 발전하는 것은 바로 염제·황제(이하 炎黃) 두 황제로 대표되는 상고문화를 기원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중화문명의 많은 보고는 炎黃시대부터 시작되어 한 계통으로 이어 내려온 것이다”²⁾라고 말했다. 그래서 司馬遷이 『五帝本紀』에서 黃帝를 첫 번째 고대 황제로 삼아 기술한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다(司馬遷, 『五帝本紀』中, 把黃帝作爲五位古帝之首加以記述, 決非偶然).³⁾ 전설 가운데 黃帝는 중국 역사상 최초로 중화문명을 안정시킨 위대한 사람이다. 이로 인해 『史記』에서는 처음에 黃帝를 기술하여, 그들을 중국 역사 중 가장 이른 시기의 제왕 중 하나로 보고 있다. 炎帝는 또 다른 한 명의 위인으로서, 항상 黃帝와 동시에 사람들에게 의해 거론된다. 『國語·晉語 四』에서, 晉의 대부사공 季子晉은 말했다. “옛날 少典이 礪를 아내로 얻어 黃帝와 炎帝를 낳았다. 黃帝는 姬水로 이루었고, 炎帝는 姜水로 이루어, 덕이 같지 않았다. 그래서 黃帝는 姬씨 姓이 되고, 炎帝는 姜씨 姓이 되었다. 두 황제는 교혼으로 삼아 서로를 구했는데, 덕이 달라서 그리한 것이다(昔少典娶于有礪氏, 生黃帝, 炎帝·黃帝以姬水成, 炎帝以姜水成, 成而異德, 故黃帝爲姬, 炎帝爲姜·二帝用師以相濟也, 異德之故也).⁴⁾ 秦나라 謨輯補는 『世本·帝系』에서, “少典은 軒轅을 낳았는데, 그가 黃帝가 되었다(少典生軒轅, 是爲黃帝)”⁵⁾고 말하였는데, 이로 보아 전설 중의 黃帝는 少典 씨족에서 기원하였으며, 炎帝는 또 다른 하나의 부락이었지만, 마찬가지로 少典 씨족에서 나온 것이었다.

2) 費孝通, 「弘揚炎黃文化振奮民族精神」, 『光明日報』, 2002. 4.9.

3) 李學勤·張豈之, 2002, 『炎黃 典: 文論卷』, 長春: 吉林文史出版社, 2쪽.

4) 嚴文明, 1993, 「炎黃傳說與炎黃文化」, 『炎黃文化與民族精神』, 中國人民大學出版社.

5) 李學勤·張豈之, 2002, 앞의 책, 284쪽.



橋山の 黃帝陵 사당

비록 현재 炎帝와 소위 神農이라 하는 사람이 같은 인물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쟁 중에 있지만, 중국 내에서는 黃帝와 炎帝가 역사상에서 실



陝西省 寶溪市 炎帝祠 내의 炎帝像

제로 존재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견이 없다. 왜냐하면 “전설은 역사지식의 가장 원시적인 형식의 전달”이고, “고대의 전설은, 항상 상당히 농후한 신화적 성질을 함유하고 있으며, 또 시대의 변천에 따라 전설의 본래 모습 역시 변했을 것이지만, 전설에는 역사적으로 진실한 부분을 반영한 것도 있기 때문이다.”⁶⁾ 대대로 전해 오는 오래 전의 阪泉의 전쟁과 鹿 전쟁은 바로 炎黃의 두 부락 간의 폭발적인 양대 전쟁이었다.

炎黃을 연구하려면, 우선 반드시 炎

6) 白壽彝, 1986, 『中國史學史』 제1권,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45쪽.

黃文化라는 개념에 대해 정의를 내려야 한다. 이 문제에 관해서, 학자들은 제각기 각자의 의견을 말하고, 광의와 협의의 두 종류로 炎黃文化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협의상의 ‘炎黃文化’란, 곧 炎黃 두 황제의 시대의 문화를 가리키는 것이다. 광의상의 ‘炎黃文化’란, 당연히 炎黃 두 황제의 시대를 가리키는 것에서 시작하여, 전후를 끊임없이 계승하여, 지금에 이르는 중화 전통문화를 가리킨다.”⁷⁾

2. ‘중화민족’이라는 개념의 발전 과정

중국은 역대로 스스로를 華夏로 칭했으며, 華夏라는 단어는 炎黃文化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馬世의 관점에 근거하면, ‘華’란 바로 『國語』의 華山을 언급한 것이다. 고대의 華山은 지금의 河南省 안에 있었다. ‘夏’에 관해서는 비교적 합리적인 해설을 하였는데, ‘夏’란 본래 ‘黃帝族’의 별명이었다는 것이다. 秦과 쥘의 땅은 바로 黃帝족과 이웃이었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방언을 사용하여 黃帝족을 夏족이라 불렀다는 것인데, …… ‘夏人’의 칭호는 점차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들어갔기 때문에, 원래의 ‘黃帝族’의 칭호는 전해져 내려왔다.”⁸⁾ 그 밖에 『列子』에도 기록이 있다. “黃帝는 華胥의 나라를 떠돌았다”, “新鄭 근처에 華城이 있고, 華陽廳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古國華胥이다. 고서에서는 자주 豫州 華山이라고 이른다. 豫州는 지금의 河南省이며, 華山은 洛水의 동쪽에 위치해 있으니, 아마도 지금의 嵩山일 것이다. 지금의 登封, 禹, 密數縣 사이를 옛 사람들은 中華라고 불렀다. 여기가 또한 夏나라가 흥기한 곳이다. 우리들은 지금 스스로를 中華라 부르고 이전에는 華夏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바로 여기서 유래된 것이다.”⁹⁾ 위와 같은 전적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듯

7) 應永深·胡振宇, 2006, 「炎黃二帝與炎黃文化」, 王俊義, 『炎黃文化研究』第3輯, 鄭州: 大象出版社.

8) 楊國永, 1992, 「黃炎華夏考」, 『山西大學學報』제4기.

9) 錢穆, 1994, 「皇帝的故事」, 錢穆·姚漢原, 『皇帝: 一書』, 勝利出版社, 194쪽에서 재인용.

이, 최초의 ‘華夏’ 개념은 황제와 함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하지만 후에 역사의 발전에 따라 부락과 부락 간에 서로 혼인관계를 맺는 현상이 점점 증가하였고, 민족의 분화와 융합이 끊임없이 일어남에 따라, 지금에 이르러 누가 누구의 후예인지 정확히 나누기 어렵게 되었다. 그러니까 華夏 역사의 발전은 본래 한 민족의 끊임없는 융화의 과정이고, 이러한 융화는 변경 지역을 확장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통치를 견고히 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이었는지와는 상관없이, 역사의 한정성에 얽매어 피동적으로 받아들이면서 형성된 것이다. 현재의 華夏 개념은 명백히 한족 외의 많은 소수민족을 포함하고 있으며, 민족국가와 같은 구조의 형식을 형성하였다.

黃帝와 炎帝에서 기원한 ‘華夏觀’은 역사상 끊임없는 변화를 겪었고, 역사의 발전적 요구에 적응함으로써 통치를 견고히 하고 민족 간의 단결을 강화하였다. 중국의 고대사를 고찰해 보면 흔히 출정하여 싸우고, 분열한 역사였음을 알 수 있다. 비록 봉건통치자들은 ‘夷夏之別’의 관념과 대민족주의 사상을 많이 갖고 있었지만, ‘華夷一家’의 커다란 지배적인 사상 또한 역사상에서 중요한 작용을 했으며, 민족융화의 정신적 동력이 되었다.

커다란 융화사상의 맹아는 선진에서 발전하였고, 진한의 정치적 실천 속에서 실현되었다. 당시에는 “천하는 하나이고, 만리에 같은 바람이 분다”와 같은 문화이념이 형성되었고, 후에 커다란 지배적인 사상의 기초가 되었다. 위진 남북조의 정통성 싸움은 점점 남북문화사상의 승인을 실현했으며, 이후로도 계속해서 발전했다. 만주족이 정권을 잡은 청나라 때에 이르러, 大一統사상은 전체 중화민족의 관념이 되었다. 大一統사상 관념은 민족관계를 인식하고 처리하는 데 ‘華夷一統’, ‘華夷一家’, ‘夷夏一家’ 등의 소수민족을 단결시키는 구호였다. 문화 속에서 표현함에 있어서, ‘和’와 ‘습’ 등은 유가 전통사상의 정신을 부드럽게 한다. 大一統사상은 구체적으로 ‘회유’와 ‘羈縻’ 등의 변경지역 소수민족의 정치를 통해 구현되었다. 게다가 화친 등의 방식의 사용은, 각 민족 간의 융화를 끊임없이 심화시키고, 전체 중화민족 개념의 확대를 촉진시키며, 대 민족융합이 일어난 후에는 항상 경제발전이 따라온다. “중국의 고대사에서 춘추전국시기의 민족융합은 진한의 경제문화의 고조를 가져왔고, 위진 남북조의

민족융합은 수당의 번성을 일으켰다. 송나라·요나라·금나라·원나라의 민족융합은 명·청 시기의 경제변영을 일으켰다. 그중에서 수당은 더욱 두드러지는데, 이것이 바로 민족단결이 경제문화발전에 미치는 커다란 반작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¹⁰⁾

‘중화민족’이라는 단어는 梁啓超에 의해 창시되었다. 1899년 양계초는 「東籙月旦」이라는 문장 속에서 유럽의 세계사 작가의 평가를 통해서, 처음으로 ‘민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양계초 후에 章太炎·孫中山 등의 ‘中華民族’이라는 개념 역시 끊임없는 발전 과정을 거쳤고, 그 후에 양계초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에 의해 대민족관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대민족관은 당시에 다른 소수민족을 단결시키고, 함께 강국의 길을 찾는 목적이 되도록 하였다. 그중 특히 孫中山의 ‘민족관념’의 변화가 제일 두드러졌고, 영향력도 가장 컸다. 孫中山의 민족관의 함의가 확대되면서, ‘중화민족’은 이미 일종의 응집력을 갖춘 도구가 되어, 실제 혁명투쟁 중 많은 사람을 단결시키는 작용을 하였다.

3_ 기존의 연구성과

현재 중국의 염제·황제에 대해서 연구하는 한국 학자는 아직 소수에 불과하다. 대표적으로는 김선자, 이유진, 홍윤희 등이다. 그들은 중국신화의 시각에서 염제·황제 등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였고 그 가운데 김선자는 저서와 논문 등 형식을 통해서 황제에 대하여 심층적인 연구를 하였으며, 신화와 현실의 이중각도에서 출발하여 황제숭배에 대한 역사적·현실적 의의를 고찰하였다. 이것은 한국 내에서 비교적 체계를 갖춘 황제 연구성과라고 할 수 있다.¹¹⁾

10) 鄭興波, 2001, 「魏晉南北朝民族融合中小數民族帶來的影向」, 『歷史學習』, 제9집.

11) 김선자, 2007, 『만들어진 민족주의: 황제신화』, 서울: 책세상; 李有鎮, 2003, 「끝없는 담론-신화의 역사화, 역사의 신화화」, 『中國語文學論集』 24; 李有鎮, 2002, 「中國神話의 歷史化에 관한 試論」, 『中國語文學論集』 20; 洪允姬, 2004, 「1920년대 중국, '국가의 신화'를 찾아서-胡適, 魯迅, 茅盾의 중국신화 단편성 논의를 중심으로」, 『中國語文學論集』 28.



新鄭市內 炎黃廣場에 세워진 炎黃石雕像(1998, 신정시 인민정부 건립)

중국 내에서는 염제·황제에 대한 연구가 비교적 오래되었기 때문에 성과 또한 상당히 풍부하다. 염황문화에 대한 연구는 전국시기에 비롯되었지만, 실제로는 20세기 초에 본격화되기 시작하여 중국 改革開放 기간 동안 활성화되었는데, 대략 연구를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제1단계는 선진시대로부터 청말 이전까지이다. 이 시기는 炎黃문화 연구의 준비기와 기초를 다진 시기이다. 대표적인 저서는 『尙書·呂刑』, 『逸周書·嘗邁』 등과 같다. 서한 초기, 道로서 主로 삼는 것과 동시에 제자백가의 황로술을 취하는 것의 성행은 황제의 지위를 더욱 성장하게 하여, 司馬遷은 『史記』의 맨 앞에 바로 황제 열전을 써서, 후세의 황제에 대한 숭배에 중대한 영향력을 미쳤다.

제2단계는 20세기 초에서 1970년대 말이다. 이 시기는 炎黃문화 연구의 형성기이며 발전기이다. 이 시기에 炎黃문화와 관계되는 연구가 전면적으로 전개되어, 청말의 혁명파와 1920~1930년대의 의고파로 대표되는 두 개의 조류를 형성하였다. 대표적인 저서는 청말 劉師培의 『黃帝紀年論』·『攘書』, 黃節의 『黃史』, 陶成章의 『中國民族權力消長史』, 夏曾佑의 『最新中學中國歷史教科書』 등이다. 민국시기에는 于右任이 편집한 『黃帝功德紀』와 錢穆의 『黃帝』, 蒙文通的 『故事甄微』, 徐旭生的 『中國古史的傳說時代』 등의 많은 논저가 출현

하였다.

제3단계는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부터 현재까지이다. 이 시기에 炎黃 문화 연구는 처음에 뜨겁다가 금방 식었지만 다시 뜨거워졌고, 또 이 열기는 계속적으로 상승하여 변영에 다다른 과정을 경험하게 되었다. 1949년에서 1965년까지, 연구자들은 보편적으로 유물사관과 사회형태를 활용하였는데, 이를 지도연구라 한다. 1966년부터 1970년대 말까지 중국대륙의 炎黃연구는 ‘문화대혁명’의 영향을 받아 중단되었으나, 대만에서는 여전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다. 1980년대 초에서 현재까지는 炎黃문화 연구가 가장 활발하고 가장 번영한 시기이다. 각종 관련된 학술단체가 왕성하게 성립되었고, 각종 학술회의와 기념활동도 빈번히 거행되었으며, 연구성과도 대량 배출되었다. 이 시기에 전문학자들은 많은 문제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두드러진 연구성과를 얻었다.

Ⅲ. ‘炎帝·黃帝 숭배’가 약화되고 카리스마 지도자가 부각된 민족동화 시기

1_ 민족동화 정책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이래로, 민족주의 사상은 “사회주의 중국은 한 가정으로 생각한다(社會主義大家庭)”는 사상으로 통일화되었고, 또 이 항목은 헌법에 기록되었다. 각각의 소수민족들은 한족의 주위에서 긴밀히 단결하여, 공통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벽돌과 기왓장을 쌓아 그 역량을 다 바쳐야 했다. 또 실천과정에서는 공식적으로 소수민족과 한족의 단결을 강조해야 했고, 실제로도 한족의 소수민족에 대한 ‘同化’현상을 가일층 표현해내야 했다. 1950년대 초부터 이러한 ‘同化’는 생활의 각 방면에 깊이 파고들었다. 물

질생활 방식에서 언어문화로, 더 나아가 정치영역으로 한족이 권력을 장악하는 현상은 모두 실현되었다. 특히 1980년대 중기까지의 시기에는 민족동화가 중국공산당 사회주의의 방안이 되어 전체 사회를 개조하는 작업의 일부분이 되었다. 비록 일부 소수민족은 여전히 자기의 전통풍속과 생활습관·문자 등을 보존하고 있지만, 중국어를 모르는 소수민족은 이미 많지 않게 되었다. 특히 도시의 소수민족들은 거의 모두 한족의 생활 속으로 융화되었거나, 기본적으로 '중국어[漢化]'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중국공산당의 강한 역량과 毛澤東 개인의 매력·권위로 인해, 민족주의 방면에서는 거의 아무런 이견이 없었다. 이러한 '民族同化' 현상은 현대의 소위 '국가이익' 개념의 형성과 보급을 극도로 조장하였다. 이 공통의 국가이익은 다른 무엇보다 높게 여겨졌고, 국가 내부 민족 간의 차이는 거의 말살되었다. 새로운 명사인 '社會主義大家庭'과 모택동 개인에 대한 숭배는 실제로 또 다른 일종의 마치 종교와 같은 깃발이 되었다. 이러한 공통의 호칭 아래, 중국은 수많은 소수민족을 현대화 사회주의 중국 건설을 위해 자신의 역량을 바치도록 단결·응집시켰다. 그러므로 이 시기의 민족주의는 기본적으로 경제건설을 발전시키고, 민족융화의 심리를 심화시키는 일종의 방식이었을 뿐이었다.

2. 국제적인 협조와 항쟁

중국의 건국 초기, 대외정책 방면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후의 중국 지도부는 반드시 민족주의라는 정책 의제를 국제주의라는 의무와 조화롭게 일치시켜야만 했다. 그런데 소련은 국제주의란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이 반드시 무조건적으로 소련의 정책에 복종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여겼기 때문에 양자의 조화로운 집중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1950년대 초기, 중국이 이러한 곤란한 환경에 직면해 있을 때에도 국제주의는 명백히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중국은 1950년에 한국전쟁에 참전했다. 참전은 막대한 인명 손실을 가져와 국내 경제부흥의 발걸음을 늦추게 만들었고, 대만 통일계획을 무기한 연기

하게 만들었다. “어떻게 중국에 적합한 사회주의 제도를 건립할 것인가”와 “어떻게 자본주의 세계와의 관계를 정확히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에서 중국과 소련의 의견 불일치는 나날이 심화되었다. ‘大躍進운동’의 실패와 뒤이어 나타난 경제적 곤궁함은 모택동의 외교정책을 나날이 급진적으로 변하게 하였다. 새로운 중국판 무산계급 국제주의 노선은 소련의 노선과의 결별을 야기시켰을 뿐만 아니라, 단지 미국 제국주의에만 반대하는 이전에 비해 비교적 편협한 목표를 한층 더 급진적으로 되게 하였다.

1966년 ‘文化大革命’ 발발 이후 중국의 외교정책은 가장 급진적인 단계에 접어들었다. 1969년 중·소 긴장관계는 국경분쟁으로 발전하였다. 소련은 4000km에 달하는 중·소 국경에 100만 명의 군사를 배치하고, 중국의 미성숙한 핵 공격 능력을 분쇄하기 위해 중국에 대한 외과수술식의 핵공격을 감행하겠다고 위협하였다. 북쪽으로부터의 위협이 나날이 더해질 때, 동부에서는 대륙에 반격하려는 국민당 정부와 대면하고 있었고, 남부에서는 관계가 좋지 않은 인도와 접해 있었으며, 게다가 베트남을 지원하였기 때문에 미국과도 적이 되어 있었다. 중국은 이 시기에 외교전략과 국제형세 측면에서 실제로 건국 이래 가장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었으니, 세계혁명판 무산계급 국제주의는 중국 독립에 대한 요구를 만족시켰으나, 중국의 외교와 안전·이익에 대해서는 손실을 초래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3_ ‘炎帝·黃帝숭배’의 약화

이로써 우리는 중국의 민족주의가 대외적인 저항주의와 대내적인 동화주의에서 출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시기에 炎帝·黃帝에 대한 전문적 연구는 앞에서 이미 서술한 바와 같으며, 문화대혁명 이전에도 약간은 있었지만, 문화대혁명 시기에는 완전히 중단되었다. 이른바 炎黃숭배로 인한 영향력은 분명히 조상을 동일시하여 민심을 응집시키고, 소수민족을 단결시키는 등의 측면에까지 미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모택동 시대에는 개인적 매력과 강력한 카리스마를 겸비한 지도자로서 炎黃의 인식을 통해 국민이 응집되는 것과 같은 영향

력을 완벽하게 발휘할 수 있었으므로, 당연히 炎黃승배를 주장하는 방법을 의도적으로 이용해서 국민을 단결·응집시킬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IV. 경제 실무 시기

1_ 경제건설 제일주의

鄧小平 집권 이후, 예전의 “스스로 삶을 경영한다(自力更生)”는 주장과 세계혁명적 충동은 모두 보류되었다. 특히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바로 개혁개방정책을 실행하기 시작하면서 국내적으로 대대적인 경제발전을 통해 인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국제적으로는 대외환경의 안정을 추구하고, 아울러 국제협력을 끊임없이 확대시켜서 국내의 현대화 건설을 지지하는 것이다. 등소평의 지도하에 대내적으로는 가족단위 농업생산책임제¹²⁾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중국공산당은 대외무역을 장려하여 해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였다. 정치를 가장 상위에 두는 모택동 시대의 사상은 잠시 보류되었고, 중국인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경제발전에 힘을 쏟기 시작했다. 경제를 가장 상위에 두는 것이 이 시기의 지도구호가 되었다.

12) 家庭聯產承包責任制는 1979년 이후 중국 농촌지역에서 시행되었던 생산책임제로, 인민공사 체제하의 집체경작 체제를 가족단위 경작 체제로 전환시킨 것을 말한다. 가족농 체제로의 전환의 결과 농민의 생산 적극성이 대폭 제고되어 개혁개방 초기 5~6년 동안 농업생산이 절반가량 증대되는 획기적 성과를 거두었다. 농촌 생산책임제는 包工到組, 包干到組, 包產到戶 등 다양한 형식을 거쳐 결국 包干到戶를 기본적 형식으로 하여 실시되었다.

2_ 점차 개방된 경제외교

외교방면에서 문화대혁명이 종결되려 할 때와 등소평이 정식으로 집권하기 이전의 시기, 중국의 지도자는 경제발전을 촉진시키는 데 적합한 외교정책을 다시 고민하기 시작했으므로, 이 단계의 대외정책 변화도 등소평 시대를 시작하는 서막이라고 볼 수 있다. 1974년 제창한 ‘三個世界’ 이론은 중국 외교정책에 새로운 이론적 지도방향을 제공하였다. 이 이론에 따르면 소련과 미국은 ‘제1세계’로 귀납되고, 자본주의 선진국과 동유럽 국가는 ‘제2세계’로 귀납되며, 개발도상국은 ‘제3세계’로 귀납되었다. 중국은 ‘제3세계’ 국가의 일원으로서 ‘제3세계’의 범위에 들어가게 되기를 원했고, ‘제2세계’ 국가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 힘썼다. 반면 제국주의·식민주의적인 ‘제1세계’(특히 소련)에 저항하였다. ‘三個世界’ 이론으로 중국의 적대적 범위는 축소되었고, 아울러 광범위한 통일전선을 형성하여 집중적으로 소련에 대응하였다.

‘세계혁명’이라는 구호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중국 외교정책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중국의 새로운 정책은 국가 안전을 세계혁명을 지원하는 사명보다 우선적인 위치에 놓을 것을 요구하였다. 연이어 유명한 ‘핑퐁외교’¹³⁾를 포함하는 일련의 외교적 움직임으로 중국과 미국은 1972년 역사적인 ‘上海聯合公報’¹⁴⁾를 체결하게 되었고, 중미화해가 이루어졌다. 중미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중국과 대다수의 선진국·개발도상국가의 관계 역시 개선되거나 정상화되었다. 또한 중국은 1971년 유엔에 가입하였다.

등소평이 전면적으로 개혁개방을 추진한 후, 중국정부는 평화적이고 독립적인 외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자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평화적인 국제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였다. 등소평은 모택동의 외교사상의 정수를

13) 탁구 경기를 통해서 국제적 친선을 강화하는 외교적 방식을 가리켜 일컫는 말이다.
 14) 1972년 2월 21일에서 28일까지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방문하였는데, 이는 중미관계의 혁신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고, ‘上海聯合公報’는 이때 공표된 것이다.

계승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초 위에 시대적인 발전 요구에 근거하여 새로운 시대의 중국 외교정책을 시기적절하게 조정하여 전면적으로 중국 외교의 새로운 국면을 창조해냈다. 먼저, 등소평은 시대적 주요 문제에 대해 다시 주시하고 고민하여 현재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주요 문제는 평화와 발전이라고 제창하였고, 핵심적인 문제는 ‘발전’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현재 세계평화의 요인이 증가하고 있다고 인식하여, 대규모의 전쟁은 매우 오랜 시기 동안 발생되지 않을 것이고, 평화를 장기간 이루어내는 것은 희망적이라고 판단하였다. 발전에 관한 문제에서 등소평은 발전의 본질적인 문제는 남북문제이고, 개발도상국가와 선진국 간의 문제인데, 특히 개발도상국가의 발전에 관한 문제라고 인식하였다. 이것은 전략적 중점을 경제건설로 전이시키면서 전략적 지도방향을 중국에게 제공하였고, 아울러 개혁개방 이래 중국 외교정책의 수립에 중요한 근거를 제공하였다. 두 번째로,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외교 방침을 견지하면서, 平和共存五原則¹⁵⁾을 기본으로 하여 각국과 우호적인 합작관계를 건립하였고, 여러 대국과의 동맹 혹은 전략적인 동반관계를 건립하였으며, 사회제도와 이데올로기의 같고 다름으로 친근함과 소원함을 논하지 않고, 패권주의와 강권정치를 반대하였다. ‘一國兩制’,¹⁶⁾ ‘논쟁보류, 공동해결’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국제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였다. 중국은 국가를 크고 작음, 강하고 약함, 가난하고 부유함에 따라 구분하지 않고 모두를 국제사회의 평등한 일원으로 대하여 각국의 일은 마땅히 각국 스스로 처리하게 하고, 세계의 일은 각국이 평등하게 협상하여 해결하도록 하자고 주장하였다. “나라마다 모두가

15) 평화공존 5원칙은 일명 평화공존외교 5원칙 또는 평화 5원칙이라고 하는데, 이 원칙은 중국이 제국주의의 침략, 간접봉쇄 및 다수국가들과의 광범위한 통일전선 형성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평화공존 5원칙은 영토의 보존과 주권의 상호존중, 상호불간섭, 내정불간섭, 평등호혜, 평화공존으로 1956년 9월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평화공존 5원칙이 구체적으로 명기되었다.

16) 중국은 臺灣(타이완)·香港(홍콩)·澳門(마카오)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나라는 하나지만 체제는 둘이어도 좋다”는 구상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중국 역사상 중대한 사건이며 1980년대 중국 외교정책의 중대한 발전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한 나라 두 체제’ 구상을 ‘一國兩制’라고 한다.

자국의 국정에 따라서 자국의 사회제도에 부합하는 이데올로기, 가치관념, 경제모델과 발전노선을 선택하고 타국의 간섭을 반대하며 국가 간의 갈등에 대해서 무력에 호소하거나 무력으로 압박하는 것을 반대하였고 대화와 평화적인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¹⁷⁾

3_ ‘炎帝·黃帝숭배’ 연구의 대두

이 시기의 내정과 외교정책은 모두 이것을 중심으로 진행된 경제발전을 둘러싸고 있으며, 이는 바로 중국 경제 1950년대의 비약적 발전, 1960년대의 문화대혁명 이후 인민생활의 극도의 빈곤, 그리고 이런 궁지에 몰린 현실을 서둘러서 벗어나려한 것과 상응하였다. 그리하여 이 시기의 경제발전정책은 가장 강력한 응집력으로 작용하였다. 외교방면의 평화독립정책은 한편으로는 국내경제를 발전시켜서 기초를 닦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청말, 중국인의 민족 자존심이 지나게 억압받았기 때문에, 국가의 실력이 일정 수준으로 제고된 후에는 해방적인 심리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으로 반응하였다. 지도자의 입장에서 보면, 등소평은 비록 모택동에 대한 인민들의 신화적 숭배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등소평의 일 처리 수법이나 시기적절한 정책은 중국 국민들의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는 지도력을 심어주는 데 충분하였다. 그리하여 이 시기에 炎黃숭배에 관한 연구가 점차 진행되기 시작하였지만, 중앙정부가 이 사상·여론의 방법을 지지하여 자신의 정치를 강화할 필요는 아직 없었다. 이 시기의 炎黃연구는 주로 학자들의 조상에 관한 연구라는 측면에만 머물렀고 정치를 위한 사상의 고취로까지는 사용되지 않았다. 예를 들면 王獻唐의 『炎黃氏族文化考』¹⁸⁾는 바로 그 시대의 대표적인 연구였다.

17) 林國治·蔣洪池·楊媛, 2006. 4, 「新中國外交思想的衍沿與演化」, 『中國石油大學學學報』, 제22권 제2기, 52쪽.

18) 王獻唐, 1985, 『炎黃氏族文化考』, 齊魯書社.

V. ‘炎帝·黃帝숭배’의 부활과 민족주의가 극도로 팽창된 위험한 시기

1_ 공허하고 편협한 민족주의 정치가 극도로 팽창

1980년대부터 민족주의는 재차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1990년대에 이르러 중국의 민족주의는 상당히 번성하였고 심지어 급진적이기까지 하였다. 베스트셀러였던 『中國可以說不』는 5·4시대 이후 새롭게 부흥하기 시작한 당시 중국의 민족주의에 대하여 게재하였다. 이후 『妖魔化中國的背後』와 『全球化陰影下的中國之路』 두 권의 책 역시 민족주의의 태도로 출판되었고, 이 세 권의 출판은 중국의 민족주의를 일종의 독립적 학술 입장으로 지식계에 출현시켰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보통민중의 소박한, 그리고 강렬한 민족주의 정서에 또다시 불을 붙이는 계기가 되었다. 세차게 용솨음치는 극도의 민족주의 정서는 인터넷에서 점차 확산되어 신시대를 열었고, 강렬했던 만청시기의 민족주의보다 몇 배는 더 눈부신 빛을 발하였다. 특히 중대한 사건이 발생된 시기에는 도처에 각양각색의 민족주의 급진언론이 팽배하였다. 이런 민족주의 언론의 공통된 특징은 모두 애국주의를 내세워 출현하였다는 것이다. 이것은 언론에 정당성을 부여하였고, 동시에 사람들을 혹하게 하는 힘을 구비하고 있었다. 일단 이익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즉각 ‘매국노’로 몰아세웠고, 심지어는 공개적인 인신공격으로까지 이어졌다. 인터넷에서의 이러한 급속한 전파 방식은 1990년대 이후 이성이 결핍된 민족주의 사조의 급속한 확산을 조장하였다.

1990년대 초기, 1989년의 민주화의 풍파를 겪은 이후 국가의식의 형태를 재건하는 요구에 대해 중국정부는 일종의 국가 지상주의와 함께하는 민족주의를 크게 제창한 적이 있다. 이러한 정부 당국의 격려와 상업이 의기투합하여 결합하거나 특정한 국제적 사건과 만나면 민족주의의 격동을 일으킬 수도 있었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민간의 소박한 애국주의 정서 또한 격동하기 시작하였다. 1998년 주 유고슬라비아 중국대사관 폭격, 1999년 釣魚島 사건, 2001년

미국 9·11 테러 등의 발발 이후 인터넷에서는 곧바로 극단적인 민족주의 언론이 등장하였다.

이 시기의 민족주의는 표면적으로 매우 떠들썩하게 보였지만, 실제로는 일종의 비이성적인 사조였다. 강대한 빈껍데기 같은 정서의 지배하에서, 본능적 애국주의에서 이성적 애국주의로의 발전은 나타나지 않았고, 게다가 그 애국주의의 이론과 강령 또한 체계가 형성되지 않았다. 許紀霖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민족주의는 중국에서 하나의 거대하고 공허한 부호가 되었다. 단지 걱정이 충분한 애국주의는 항상 안정성·영구 지속성, 공동체적 인간이 기본적으로 인정한 가치체계·사회제도·행위규범이 결핍되어 있었고, 이런 절실한 요구가 구성하고 인정한 실질적 내용은 공교롭게도 또한 중국의 민족주의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이었다.”¹⁹⁾

현재 세계화의 대조류 속에서 중국은 이미 주동적 혹은 피동적으로 세계의 정세 속으로 말려들어갔다. 최근 몇 년 중국 경제가 지속적이고 빠른 성장을 함에 따라 미국 역시 중국의 분투에 경탄하기 시작했고, 소위 ‘中國威脅論’ 등을 언론에 공개적으로 발표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제부터의 세계는 앞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일극 체제가 아니라 미국, 유럽과 중국 삼국이 평형을 이루어 형성한 균등 체제가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중국 경제의 지위 상승은 필연적으로 중국 정치의 지위 상승을 동반하였다. 특히 동북아 지역에서 중국은 영토·인구는 물론이고 국제 영향력으로도 대국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일거수일투족이 전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지위를 발휘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크게 발휘할 것이다. 특히 북한을 견제하고, 6자會談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였다. 브레진스키는 일찍이 “중국은 동북아에서 우세를 점하는 지역 대국이 되고 있으며, 아시아 대륙 지역정치 방면에서 이미 주도적 위치를 점하고 있다(中國正在成爲在東亞的占有優勢的地區大國, 在亞洲大陸, 他已經在地緣政治方面占有主導地位)”고 말했다.²⁰⁾

19) 許紀霖, 1999, 「在巨大而空洞的符 背后」, 『另一 啓蒙』, 廣州: 花城出版社, 222쪽.

20) 즈비그뉴 브리진스키, 1998, 『大棋局』,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216쪽.

胡錦濤 시대가 오면서, 胡錦濤를 총서기로 하는 중국공산당의 제4대 중앙 지도그룹은, 鄧小平의 이론과 江澤民의 ‘三個代表’의 중요한 사상을 견지하고, 소강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근본임무를 중심으로 하여, 독립자주와 평화외교의 정책을 지속 시행하여, 평화 발전의 길로 갔다. 국내에서 계속적으로 경제건설을 추진하고 동·서부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西部大開發’工程을 추진하고 조화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였다.

2. 崛起하는 大國外交

외교 방면에서는 고위층 지도자의 외국방문과 외국 지도자들의 내방을 통해 각국 지도자 간의 솔직한 교류를 강화하여 서로간의 신임을 증가시키고 우정을 더욱 깊게 하여 우호적인 관계를 수립하였다. 교류하는 과정 중에서 “중국의 대외관계 중 일련의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여, 당과 국가 지도자의 실제에 힘써 진실을 추구하는 외교 태도를 보여주었고, 세계에 적극적으로 실제에 힘쓰는 외교 이미지를 보여주어, 전면적으로 중국의 국제 영향력을 향상시켰으며, 또한 대대적으로 중국과 세계 각국 관계의 순조로운 발전을 촉진시켰다(解決了我國對外關係中的一系列重大問題, 顯示了黨和國家領導人務實求真的外交作風, 向世界展示了積極, 務實的外交形象, 全面提升了中國的國際影響力, 也極大地促進了我國與世界各國關係的順利發展).”²¹⁾ 이 밖에 중국정부는 적극적인 다방면 외교정책을 채택하여, 주변국가·개발도상국·강대국과의 관계 등 3개 측면의 발전에서 모두 신기원을 이룩하였다. 중국공산당 16대는 “이웃과 친선하고, 이웃과 동반자로 생각한다(與隣爲善, 以隣爲伴)”라는 주변 외교방침으로 제기하였다. 새 지도자는 또한 睦隣, 安隣, 富隣 사상과 아울러 ‘和平, 安全, 合作, 繁榮’이라는 아시아 정책 목표를 제시하여 “與隣爲善, 以隣爲伴”의 방침을 더욱 풍부하게 하였다. 이와 동시에 중국은 개발도상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중시하여, 개발도상국에서의 상당한 위신과 지도력을 확립하였다.

21) 林國治·蔣洪池·楊媛, 2006. 4, 앞의 글, 53쪽.

3_ '炎帝·黃帝숭배' 연구에 대한 정치 강화

바로 이러한 큰 배경 아래에서 외적으로는 국제 영향력을 강화하여 다른 나라와의 외교관계를 잘 처리해야 했고, 내적으로는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동시에 민족을 단결시키는 등의 문제를 두루 고려하여, 또 한번 중국인이 炎黃숭배와 민족주의의 결합을 실현하여 상술한 목표를 실현시키게 할 필요가 있었다. 人民日報社의 최초 해설가인 馬立誠은 중·일 간의 은원관계는 한쪽으로 밀어놓고, 새로운 사고로 양국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그는 많은 네티즌에 의해 '친일파'로 호되게 비난당했다. 외교정책의 방향 문제는 개인의 애국과 도덕을 비난하는 문제로까지 비화되었다. 이후 이러한 사건은 여론의 초점이 되었고, 어느 정도 중국의 대일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분명히 여기서 부채질한 것은 바로 극도로 팽창적이고 비이성적인 민족주의이다. 이는 馬立誠이 이후 취재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것과 같다. “떨치고 일어난 하나의 대국이 확대받았다는, 중요하는, 보복하고자 하는 심리상태를 가진다면 매우 두려워할 만한 일이다.”²²⁾

같은 이치로, 현재 다시 일어난 炎黃숭배와 긴밀하게 연결되는 것은 중국 민족주의 중의 주변의 작은 나라에 대한 경멸 심리이다. 이러한 종류의 사유와 중국인이 한 가지로 모든 것을 꿰뚫는 이치인 “泱泱大國, 唯我華夏” 심리는 일맥상통한다. 역사상, 특히 대 당나라(大唐)와 대 송나라(大宋) 때 흥성시기의 휘황찬란함은 확실히 중국인에게 충분히 거만할 수 있는 밑천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인은 조상의 위대한 공적에 도취되어 있을 때, 늘 시간은 이미 다시 찬란한 시기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잊어버렸다. 바로 이러한 민족 심리에 근거하여 현재의 새로운 정세하에서, 옛 조상들을 찾아감으로써 중국의 문명이 사실은 더욱 유구한 것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야말로 비로소 매우 강력한 선전효과를 갖추게 된다. 이 깃발 아래에서 대외적으로 경제의 급

22) 孫傳燁, <http://news.tom.com/1988/20040402-801056.html>(原載: 싱가포르 『聯合早報』).

성장과 동반되는 정치와 문화의 급성장을 실현시킬 수 있고 대내적으로 국가의 안정을 공고히 하고, 소수민족을 안정시키며, 민족단결을 촉진시키는 작용을 할 수 있었다. 1997년 홍콩의 반환과 1999년 마카오의 반환은 두말 할 것 없이 炎黃의 아이덴티티가 작용한 성공적인 사례였다.

이와 동시에 더 많은 근원을 찾기 위해 역사자료와 문헌의 정리작업을 문인학자들이 시작하였다. 중국인은 지금까지의 역사에서 자신의 조상은 도대체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지, 중화문명의 불꽃은 도대체 어느 때 어느 곳에서 빛을 발하기 시작하였는지와 같은 문제에 대해 더욱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 이는 현재 중국이 당면한 내외환경의 변화와 나누어 생각할 수 없다.

사실상 강택민에서 호금도까지의 이 시기에 견지한 것은 하나로써 모든 것을 꿰뚫는 대내외정책이었다. 옛 혁명가 박일파가 일찍이 말하기를 “炎黃二帝는 시대적 영웅이라 전해져 내려왔다. …… 그 활동지역은 주로 황하 중류였다. ……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하여 시대적으로 구전되어 炎黃은 이미 중화민족의 상징이 되었다. 炎黃을 언급하는 전문학자 이외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부족·지역을 상세히 연구하지 않았고, 생각한 것은 단지 자기들의 5천 년의 문명사와 960만 km²의 고향뿐이었다.”²³⁾ 1991년 5월, ‘中華炎黃文化研究會’ 설립 때, 어떤 지도자는 더욱 직접적으로 炎黃의 열기를 다시 일으켜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또한 “중화 炎黃문화 또한 중화민족문화라 말할 수 있다. 炎黃문화를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중화민족의 우수문화를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것이다”라고 하였다.²⁴⁾ 이 시기의 지도자들은 전쟁 중에 등장한 모택동이나 특정 시기에 중국인민을 이끌고 빈곤에서 구제한 鄧小平과 같은 개인 신화의 매력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 이로 말미암아 그들은 반드시 일정한 이데올로기를 차용하여 통치를 견고히 하고 민심을 응집시킬 필요가 있었다. 소위 炎黃문화라는 것은 이런 특수한 시기가 요구하는 것에 정확히 부합하였다. 이는 마치 炎帝神 말미의 “먼저 나가서 일을 하는 봉공무사한 정신과 백성의 이익을 추

23) 霍彥儒, 2003, 『炎帝與漢民族論集』, 西安: 三秦出版社, 171쪽.

24) 霍彥儒, 2003, 위의 책, 171쪽.

구하는 친민적인 실무정신”²⁵⁾ 이 중국의 ‘三農(농민, 농촌, 농업)’문제를 해결할 때도 작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VI. 맺음말

본고는 “중국이 어떤 목적으로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경제가 엄청나게 발전된 오늘날에 와서 새삼스럽게 염제·황제에 대한 연구와 숭배 활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가?”라는 문제의식을 두고 출발하였다. 결론적으로 Ⅲ절은 모택동 시대를 일컬었고, Ⅳ절은 등소평 시기, Ⅴ절은 호금도 시기를 지적하였다. 모택동 시기에는 건국의 희망과 기쁨 속에서 국가재건을 외치며 모택동의 개인적인 카리스마가 전 중국을 휩쓸었기 때문에 굳이 염제·황제에 의탁해서 다민족을 응집시킬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또 등소평 시기에는, 물론 혁명 1세대인 개인적인 카리스마도 있지만 하나의 중심(一個中心), 경제현대화라는 지상의 과제, 즉 2000년대까지 ‘등 따습고 배고프지 않은 수준(小康水平)’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였기에 염제·황제에 대한 重視를 강조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이것은 이미 중국인들에게 모택동과 등소평이 황제라는 생각을 부지불식간에 갖도록 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모택동은 건국의 아버지요, 등소평은 국민을 배고픔에서 탈피시킨 영웅이므로 이 혁혁한 공로로 말미암아 그들의 존재 자체가 중국인에게 황제와 같은 카리스마로 부각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강택민·호금도 시대에 와서는 달라졌다. 이들은 그렇게 혁혁한 공로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영향력 또한 그리 크지 않았다. 특히 호금도 총서기 체제로 넘어가면서 모택동·등소평 시대에 갖고 있던 다민

25) 劉玉堂·易德生, 『炎帝神農文化所蘊涵的民族精神及其時代價值』, 西安: 陝西人民出版社; 霍彥儒, 2006, 『炎帝與民族復/復興』, 西安: 陝西人民出版社.

족 응집력은 약화되기 시작하였다. 더욱이 괄목한 경제성장으로 사람들의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의식이 날로 진보하면서 다양한 계층이 생겨나고 신흥 민족주의로 부르는 소리가 커져만 갔다.

종합해 보면, 중국의 민족주의 개념이 나타나기 시작한 때는 심각한 내우 외환을 겪었던 청말부터였다. 1840년 이후부터 1세기 남짓 동안 중국은 국제적으로 굴욕과 고립을 혹독하게 맛보았다. 이러한 비분강개의 심정은 자연적으로 중국의 민족주의를 정치색채로 포장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보복심리가 포함된 일종의 非理性的 思惟 집합체로 나타난다. 오늘날에 이르러 다시금 ‘염황송배’를 일으키고, 중국 上古史 등을 찾는 것은 중국인의 소박한 민족주의를 고무해 주는 계기가 되었다. ‘평화롭게 굴기(和平崛起)’의 중국 내부도 여전히 많은 불협화음 요소를 가지고 있어서 더욱더 통일적이고 다민족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정신적인 내부의 민족단결을 필요로 하였다. 그렇다면 가장 좋은 답안은 말할 필요도 없이 바로 공동의 역사요, 공동의 조상이요, 그리고 공동의 문명일 것이다. 마치 등락군이 말한 것처럼 “민족 대융합 시기에 염황문화는 백성들을 화합하게 하고 이웃을 화목하게 하는 통합작용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일단 외적의 침입과 민족위기의 백척간두에 직면하면 염황문화는 또 그 깊은 뿌리 의식과 강력한 응집력으로 各族 人民과 각과 정치역량으로 하여금 지난 허물과 오해를 없애고 공동으로 외적에 맞서 싸우게 한다.”²⁶⁾ “염황문화는 중화민족의 정신적인 동아줄로서 염황문화 연구를 강화시키고, 이에 중화민족이 재응집하는 시대적인 요구가 되었다.”²⁷⁾

그러나 주의할 것은 바로 중국 민족주의의 발전 방향이다. 지금은 세계화의 파도 속에 만약 민족주의 각도에서만 고려한다면 확실히 중국 민족주의의 발전에 새로운 시혜대가 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을 수반으로 하는 서양 패권세력의 도전하에서 이성적이고 체계적으로 결함을 지닌 중국의 민족주의는 자연히 유효적절한 반격을 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서양의 이데

26) 鄧樂群, 1994, 「當代炎黃文化熱的興起及其時代意義」, 『當代思潮』, 第6期.

27) 鄧樂群, 1994, 위의 글.

올로지 도전에 직면할 때에는 지역적 업무와 국내업무를 추진하는 가운데 서양처럼 패권형식을 답습할 수도 있다. 그리고 국제적인 상호 갈등 가운데 새로운 모순을 야기할 수도 있다. 현재 극도로 팽창된 중국의 민족주의 사상은 오히려 국가의 정상적인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다. “중국 애국주의나 국가주의자들의 목소리가 국민 대다수의 소리가 아님에도 우리가 이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그들이 일반 대중의 의식을 왜곡되게 이끌어갈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주류의 정책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²⁸⁾

예를 들면 2002년 2월 28일 중국사회과학원을 필두로 요령성, 길림성, 흑룡강성 등이 각기 분담해서 맡은 임무가 이른바 ‘東北邊疆歷史與現狀系列研究工作(약칭 동북공정)’인데, 바로 이것이야말로 중국인이 비이성적인 민족주의로 다시 한번 팽창을 시도하는 전형적인 사례인 것이다. 엄청난 투자와 장장 5년간의 ‘동북공정’은 단순히 역사적·학술적 활동만이 아니라, 그것이 추구한 목적은 대규모 학술연구 활동을 통해서 중국과 주변국 사이에 존재했던 논쟁을 중국에 유리하게 유도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역사는 일단 쓰고 나면 나중에 그것을 수정하기란 엄청 힘들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국이 극단적으로 민족주의를 팽창하려는 저의를 알 수 있다. 게다가 지금 중국 경제는 쾌속으로 발전하고 국제적인 지위도 빠르게 상승하는 상황에 있다. 중국정부로서는 더욱 박차를 가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더 큰 민족 자긍심을 만들어서라도 대외적으로는 국제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대내적으로는 각 민족의 단결을 꾀하는 것이 필요할 때이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사실 지극히 위험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중국의 민족주의는 각종 요인의 상호작용하에서 정부가 염황인식을 이데올로기 차원으로 끌어올려서 정치적인 이득을 보려는 데 불확실성이 가득한 것이다.

28) 김선자, 2007, 앞의 책.

[ABSTRACT]

Study of Chinese Diplomatic Policy Reflected by the
Ideology of Nationalism—Focused on Emperor Yan and
Emperor Huang Worship

Lee, Jaekwa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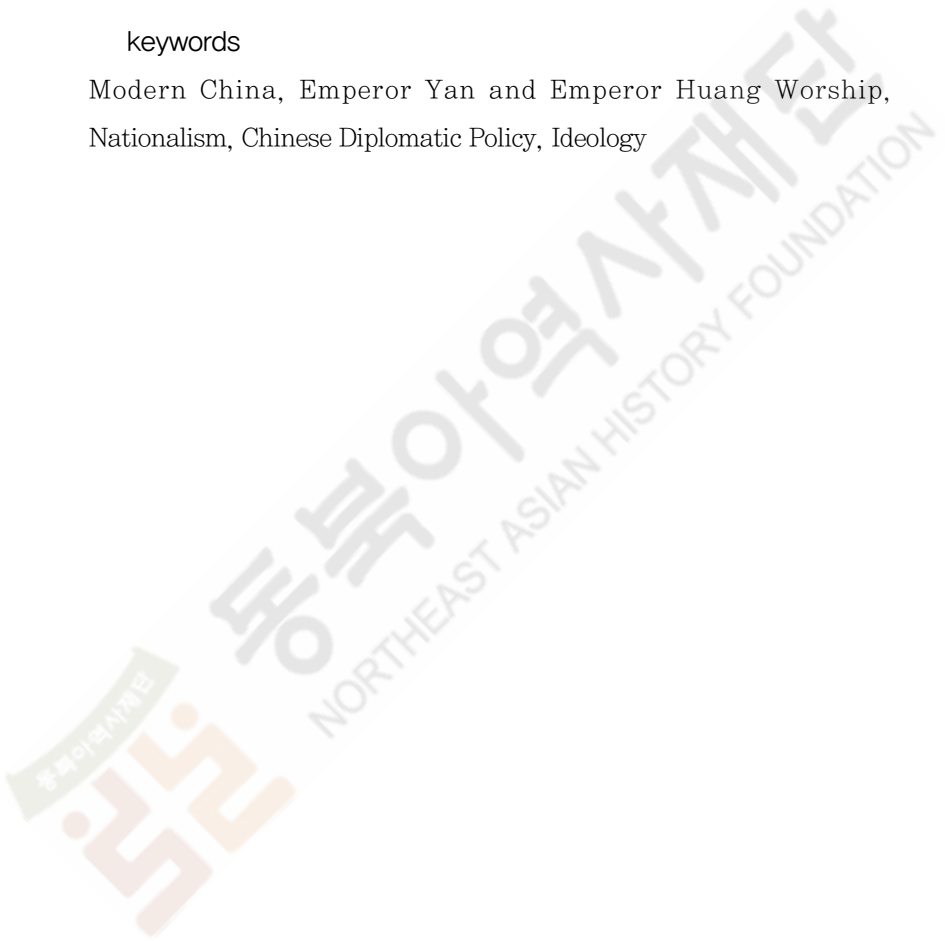
The consciousness of nationalism of Chinese who are named as “springs of emperor Yan and emperor Huang” by themselves began from early 20th century. After some years’ development, it has become into a kind of radically dilated ideological trend of nationalism. And the studies about emperor Yan and Huang have passed a process from weak to strong, too. The process of enlarging the definition of Huaxia and the studies of admiration of emperor Yan and emperor Huang took the role of strengthening the cohesion and promotion the harmony between different nations in China since ancient history. Now a new trend of thoughts, which is based on the study of emperor Yan and emperor Huang, by which the unity of nations was promoted inside and the image of strong China is setting up outside, started in China, which developed rapidly and faces the challenge of the international wave.

But the combination of the trend of admiration of the emperor Yan and emperor Huang and the radical nationalism gives a new challenge to the development of China and how to deal with the relationship with the around countries. This kind of radical nationalism without control, which is based on the study of emperor

Yan and emperor Huang, will be very dangerous, although it's significant both in history and reality.

keywords

Modern China, Emperor Yan and Emperor Huang Worship, Nationalism, Chinese Diplomatic Policy, Ideology



논문



古朝鮮의 交易과 貨幣使用에 관한 試論的 검토

박선미 | 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 강사

I. 머리말

화폐는 한 국가의 강역이나 세력범위를 劃定지을 수 있는 충분조건이 되지 못한다. 보수성과 전통성이 강한 분묘 등의 고고학 자료와는 달리 화폐는 교역이나 인구 이동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이동하는 流動性이 큰 유물이다. 특히 교환수단으로 사용되는 특성으로 말미암아 화폐를 사용하는 주인공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같은 종류의 화폐가 한 집단이나 사회, 국가를 초월하여 사용되기 때문에 오늘날 고고학자에 의해 발견되는 화폐 관련 고고학 정황에서도 마찬가지로의 현상이 노정된다. 대표적인 예로 인도와 북유럽의 게르만 지역에서 많은 양의 로마 동전이 발견되었는데, 이들 로마 동전은 로마와 게르만,¹⁾ 로마와 인도²⁾ 사이에 진행되었던 교역의 증거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어

1) L. Hedeager, 1978, "A Quantitative Analysis of Roman Imports in Europe North of the Limes (0~400A.D.), and the Question of Roman-Germanic Exchange," K. Kristiansen & C. Paluden-Müller eds., *New Directions in Scandinavian Archaeology*, National Museum of Denmark, Copenhagen,

는 특정한 화폐의 출토를 곧바로 하나의 정치체나 국가의 강역과 연결시킬 수 없음을 보여준다.

중국 동북부와 한반도에서 발견되는 명도전·포전 등의 화폐도 여기서 예외는 아니다. 따라서 이들 지역에서 발견되는 화폐 관련 諸問題를 고찰하는 데에는 화폐라는 유물의 특성을 고려한 교역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내몽고 자치구, 하북성, 요령성, 길림성, 한반도에 이르는 넓은 범위에서 발견되는 화폐유적은 유물 갖춤새와 유구 등에서 여러 집단에 의해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³⁾ 이 중 요하 이동과 한반도 서북부에 분포하는 화폐유적은 고조선의 주민이 남겼다고 보여진다. 이는 문헌기록과도 부합하고 있다. 즉, 문헌에 등장하는 고조선은 기원전 7세기경에 중국 山東의 齊나라와 교역을 하였고,⁴⁾ 연과도 일정한 교역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나온다.⁵⁾ 또한 漢나라와는 ‘外臣’의 約⁶⁾을 맺고 ‘兵威財物’을 획득하였는데,⁷⁾ 기록에는 ‘점차 上國과 商賈하면서 고조선의 풍속이 나빠진 것’으로 나와 있다.⁸⁾ 당시 중원에서는 포전·명도전·반량전 등 주조화폐의 유통이 보편화되고 있었으므로 고조선도

pp. 191~216.

- 2) 秀村欣二, 1966, 「ローマ帝國とインド - 南海貿易に關する若干の考察」, 『古代史講座-古代における交易と文化交流』 13, 學生社, 100~123쪽.
- 3) 박선미, 2005a, 「戰國~秦·漢初 화폐사용집단과 고조선의 관련성」, 『북방사논총』 7, 고구려연구재단; 박선미, 2007, 「중국 동북~한반도 서북부 출토 명도전과 그 의미」, 『고조선의 역사를 찾아서-국가·문화·교역』, 학연문화사.
- 4) 『管子』 23, 揆道篇 第78, “桓公問管子曰 吾聞海內玉幣七 …… 發朝鮮之文皮一也.”; 『管子』 23, 輕重甲篇 第80, “桓公曰 四夷不服 … 發朝鮮不朝 請文皮 服而以爲幣乎 …… 則四夷不得而朝矣.”
- 5) 『史記』 卷129, 列傳69, 貨殖, “夫燕 …… 北隣烏丸夫餘 東縮穢貉朝鮮真番之利.”
- 6) 約이란 국가 간의 약속, 즉 국제상 조약의 의미를 가지며 법에 준하는 강제적 구속력을 갖춘 제도적 장치였다. 그러나 위만조선과 한 사이에 체결된 約은 어디까지나 중국을 중심으로 한 고대 동아시아 세계의 국제질서를 규정하는 제도적이고 要式的 형태에 불과하였다. 왜냐하면 위만조선과 漢의 관계를 규정한 約의 실제 내용은 양자의 쌍무적 입장을 대등하게 반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김한규, 1980, 「衛滿朝鮮關係 中國側 史料에 대한 再檢討」, 『부산여대논문집』 8, 8~10쪽).
- 7) 『史記』 卷115, 朝鮮列傳.
- 8) 『後漢書』 卷85, 東夷列傳 後論, “其後遂通接商賈 漸交上國 而燕人衛滿擾雜其風 於是從而澆異焉.”

교역에 화폐를 사용하였을 것임은 분명하다.

이에 본고는 고조선 지역에서 발견되는 화폐의 종류와 화폐가 유입되는 과정에 대하여 살펴보고 衛滿朝鮮, 漢, 辰國(衆國) 사이에 이루어진 교역의 검토를 통해 고조선의 화폐 사용에 대한 단서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당시 중원지역, 중국 동북지역, 한반도의 화폐 출토 양상에서 나타나는 차별성이 보다 분명해질 것으로 생각되며, 고조선 시기 중국 동북지역과 한반도 서북부에서 발견되는 화폐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에도 一助하리라 믿는다.

II. 古朝鮮의 交易과 貨幣에 관한 기존의 논의

고조선이 수행한 교역을 화폐와 연결시켜 보고자 한 것은 북한학계에서 먼저 시도하였다. 1960년대 초, 북한학계는 중국학계와 요동반도 일대에서 공동발굴을 진행하였다. 이때 강상유적에서 출토한 貨貝⁹⁾와 『管子』 揆道篇 및 輕重甲篇의 기록¹⁰⁾에 주목하여 고조선이 기원전 7세기 이전에 춘추시대 齊와 文皮 교역을 하였으며, 기원전 3세기에는 명도전을 사용한 것으로 보았다.¹¹⁾ 즉, 요하구역에서 한반도 서북부 일대에 분포하는 화폐유적을 소위 세죽리-蓮花堡(유형)문화로 규정하고 이를 고조선이 전국시대에 중원지역의 여러 나라와 교

9) 貨貝는 학명으로 *Cypraea moneta*이며 일명 Money cowrie, 즉 돈개오지라고 불린다. 개오지와 중에서도 무늬가 없고, 볼록한 등 부분이 노란색이나 갈색을 띤다. 외양적인 아름다움 외에 작고 휴대하기 편리하다는 점 때문에 일찍부터 화폐로 사용되었다.

10) 『管子』 23, 揆道篇, 輕重甲篇.

11) 조중공동고고학발굴대, 1966, 『중국동북지방의 유적발굴보고』(1963~1965), 사회과학출판사, 63~89쪽; 고고학연구소, 1969, 『고고민속론문집』 1, 과학백과사전출판사, 85쪽; 최택선·리란우, 1977, 『고조선문제연구론문집』, 사회과학출판사, 49쪽; 박진욱, 1988, 『조선고고학전서(고대편)』,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75쪽.

역을 하면서 남긴 유물로 해석하였다.

세죽리-蓮花堡(유형)문화는 기원전 4세기 말~3세기 초의 전국시대 철기 문화, 기원전 3세기 말 秦·漢 교체기의 문화, 기원전 2세기 초 무렵 漢 初의 철기문화를 포괄하고 있다.¹²⁾ 화폐유적 중 한반도 서북부의 세죽리유적과 요령성 撫順 蓮花堡유적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문화유형으로서 철기와 화폐의 공반을 특징으로 한다. 1993년 단군릉 발굴 이후 평양 지역을 고조선의 중심지로 비정하면서¹³⁾ 각종의 연구물에 세죽리-연화보문화 대신 철기문화라는 용어로 대체하여 위만이 요령 방면의 통치를 원활히 하기 위해 요동 지역에 副都인 왕검성을 따로 두고 발전시킨 지방문화로 개념 규정하였다.¹⁴⁾ 최근에는 요령 지역과 한반도 서북지역에서 조사된 명도전유적 일부를 정리하고, 이들 지역에서 발견된 화폐유적을 고조선 주민이 남긴 것으로 보는 견해를 일반화하였다.¹⁵⁾

또한 중국 동북지역과 한반도 서북부 일대에서 발견되는 화폐 중 明化錢과 一化錢을 고조선 주민들 사이에서 유통된 돈의 일종이라고 하여 고조선의 고유 화폐로 파악하고 있다.¹⁶⁾ 따라서 세죽리-연화보문화라는 용어는 북한학계에서 사실상 학술용어로서는 폐지된 듯하나 여전히 고조선 주민이 철기문화와 함께 발전시킨 상업과 교역의 결과물로 해석되고 있다.

국내학계의 경우 화폐는 교역의 증거물로서가 아니라 전국시대 燕·秦 세력의 東進을 증명하는 표지적 유물로 제시되었다. 일제강점기 평양 일대의 유적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소위 낙랑무덤에서의 화폐출토가 여러 차례 보고되었

12)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편, 1977, 『조선고고학개요』, 139~143쪽.

13) 현명호, 1994, 「고조선의 성립과 수도문제」, 『단군과 고조선에 관한 연구논문집』, 사회과학출판사, 56~63쪽; 석광준, 1994, 「평양은 고대문화의 중심지」, 『단군과 고조선에 관한 연구논문집』, 사회과학출판사, 74~82쪽.

14) 허승중, 2000, 「고조선 3왕조의 영역에 대하여」, 『력사과학』 2, 과학백과사전출판사, 49~53쪽.

15) 손량구, 1990, 「료동지방과 서북조선에서 드러난 명도전에 대하여」, 『고고민속논문집』, 46쪽.

16) 사회과학출판사, 1973, 『고조선문제연구』, 60쪽; 박영초, 1988, 『조선인민경제사(원시-고대편)』, 사회과학출판사, 210~216쪽.

고,¹⁷⁾ 1940년대 말 후지다 료사쿠는 명도전유적을 전국시대 말부터 燕·趙 등의 漢族이 중원지역의 혼란을 피해 新天地를 찾아온 결과로 생긴 것이며 한 무제의 사군 설치 이전부터 植民을 한 증거물로 제시하였다.¹⁸⁾ 이후 1965년에 세키노 유가 중국 동북지역과 한반도 서북부에서 발견되는 명도전유적의 성격을 退藏遺蹟으로 보았고,¹⁹⁾ 1968년 아키야마 신고가 요동반도의 루상무덤에서 출토된 명도전을 燕 세력이 동북지방으로 확대된 시기의 것으로 파악하고 동진의 근거자료로 제시하였다.²⁰⁾

세키노와 아키야마의 논문을 1972년 윤무병이 국내학계에 소개하였다. 그는 세형동검의 편년을 검토하면서 명도전에 대하여 언급하였고, 세키노와 아키야마의 견해를 지지하며 명도전이 청천강을 경계로 하여 그 북쪽에 분포한다는 견해를 제기하였다.²¹⁾ 이후 1973년과 1980년에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편찬한 『한국사』에서 한반도 출토 명도전을 『史記』에 기록된 秦開의 고조선 침략과 연결시킴으로써 연나라의 요동 진출에 따라 중국 본토에서 이주한 유이민들이 남긴 증거물로 해석하였다.²²⁾ 이때 청천강을 사이에 두고 그 이북에는 명도전으로 대표되는 연의 문화가, 그 이남에는 세형동검을 대표로 하는 고조선의 문화가 발전하였다는 견해가 국내학계에 처음으로 제기된 셈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연나라의 세력 伸張에 의하여 비파형동검에서 세형동검으로의 발전이 계기적이지 않고 단절된 상태에서 이루어지게 되었고, 명도전과 세형동검은 모두 전국시대의 유물이면서도 서로 교차되지 않은 이질적인 문화가 된

17) 關野貞 外, 1925, 「樂浪郡時代ノ遺蹟(圖版)」上冊, 『古蹟調査特別報告』第四冊; 關野貞 外, 1927, 「樂浪郡時代ノ遺蹟(本文)」, 『古蹟調査特別報告』第四冊; 藤田亮策, 1935, 『古蹟調査報告第二-樂浪王光墓』, 朝鮮古蹟研究會.

18) 藤田亮策, 1948, 「朝鮮發見の明刀錢と其遺蹟」, 『朝鮮考古學研究』, 高棟書院.

19) 關野雄, 1965, 「刀錢考」, 『東洋文化研究所紀要』35, 東京大學 東洋文化研究所, 44쪽.

20) 秋山進午, 1969, 「中國東北地方の初期金屬器文化の様相(下)」, 『考古學雜誌』54-4, 日本考古學會, 25쪽.

21) 윤무병, 1972, 「韓國 靑銅遺物の 研究」, 『白山學報』12, 백산학회.

22) 윤무병, 1973, 『한국사』1, 국사편찬위원회, 298~336쪽; 윤무병, 1980, 『한국사』1, 국사편찬위원회, 326~330쪽.

다. 이러한 주장은 1990년대 초에 간행된 단행본에서도 반복되었고,²³⁾ 이후 치밀한 검토 없이 국내학계에 통용되어 고조선과 연의 강역을 가르는 기준으로 명도전과 청천강이 세트를 이루면서 제시되어 왔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부터 국내학계의 한편에서는 고조선의 교역과 화폐를 연결시켜 보려는 연구가 발표되었다. 최몽룡은 서구의 '중심지무역론'을 소개하고 요하 이동과 한반도 서북부에서 발견되는 명도전을 고조선이 한나라와 수행한 장거리 무역의 증거로 파악하였다.²⁴⁾ 이 견해는 고조선이 한반도 북쪽의 지리적 요충지라는 이점을 이용한 '중심지무역'으로 막대한 흑자를 보고, 이를 토대로 국가를 성립시키고 성장시켰다고 본다. 또한 김기홍은 '고구려의 성장과 대외교역'을 검토하면서 秦開의 침략으로 영토를 확장한 결과 그 점령지역 안에서 명도전이 출토하게 되었다는 기존의 주장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였다.²⁵⁾ 그는 진개 침략 이전부터 고조선과 연 사이에 평화적으로 교섭이 이루어졌고, 명도전은 양국 정부의 보장 아래 연의 상인들이 고조선의 영향력이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지역에 진출하여 교역활동을 벌인 결과물로 해석하였다.

1990년대에는 명도전유적이 準王 때 변방에 있었던 위만세력의 철기문화를 포괄한다고 보거나,²⁶⁾ 고조선 지역에서 명도전 일부가 유통되었을 가능성이²⁷⁾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들 논문은 고조선의 교역과 화폐에 관한 전문연구는 아니나 명도전을 연나라의 강역과 연결시켜 보려는 기존의 획일적인 견해를 다각화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000년 이후에는 중국 동북지역과 한반도 서북부에서 조사된 전국시대~

23) 윤무병, 1991, 『韓國靑銅器文化研究』, 예경산업사, 100~101쪽.

24) 최몽룡, 1985, 「고대국가성장과 무역 - 위만조선의 예」, 역사학회편, 『한국 고대의 국가와 사회』, 일조각, 57~76쪽.

25) 김기홍, 1987, 「고구려의 성장과 대외교역」, 『한국사론』 16,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8~12쪽.

26) 박순발, 1993, 「우리나라 初期鐵器文化의 展開過程에 대한 약간의 고찰」, 『考古美術史論』 3, 55쪽.

27) 서영수, 1994, 「고대 국가 형성기의 대외관계」, 『한국사』 2, 한길사, 254~255쪽.

秦·漢 초의 화폐유적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화폐유적을 남긴 주인공과 고조선의 관계를 검토한 연구,²⁸⁾ 『管子』의 기록을 분석하여 고조선이 춘추 제나라와 문피교역을 수행한 사실을 검토한 논저가²⁹⁾ 발표되었다. 전자에서는 1980년대 이후 화폐유적이 중국 동북지역과 한반도에서 꾸준히 조사되면서 명도전과 세형동검 관계 유적이 일부 중첩되어 분포한다는 점과 유구와 공반유물에서 서로 親緣性이 발견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그리고 요하 이동에서 천산산맥에 이르는 지역에 중국계와 북방계, 토착 예맥계의 문화요소가 混在한다는 사실을 근거로 하여 중국계 流移民과 토착집단 등 여러 문화계통의 주민이 이 지역에 雜居하였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나아가 요하 이동~한반도 서북부에 분포하는 화폐유적은 고조선이 수행한 교역의 결과물로 파악되었다.³⁰⁾ 후자에서는 일본학계에 제기된 中繼貿易論의 입장에서 고조선이 서주시대의 예와 맥으로부터 문피교역의 전통을 이어받아 춘추 제와 문피교역을 하였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서주 말에서 춘추 초기에 예와 맥이 서로 융합하여 예맥사회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이 중 가장 먼저 정치적 성장을 이룬 고조선이 대외교섭망을 흡수하여 예맥연맹체제의 대표로서 중국과 ‘고조선산 문피’ 교역을 하였던 것이 된다.

이외 세죽리-연화보유형의 문화를 연나라의 영향하에서 보급된 것으로 보면서도 요하~청천강 일대의 토착민들이 명도전을 소유하였을 가능성을 열어두는 견해가³¹⁾ 발표되었다.

최근에는 중국 동북지역의 고고학 자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교역이 한

28) 박선미, 2000, 「기원전 3~2세기 요동지역의 고조선문화와 명도전유적」, 『선사와 고대』 14 ; 박선미, 2001, 「遼河以東의 明刀錢遺蹟과 燕의 관련성 문제 검토-遼河以東의 明刀錢遺蹟과 燕下都遺蹟의 비교고찰을 중심으로」, 『典農史論』 7, 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 ; 박선미, 2005a, 앞의 글.

29) 박준형, 2004, 「古朝鮮의 대외 교역과 의미-春秋 齊와의 교역을 중심으로」, 『북방사논총』 2, 고구려연구재단.

30) 박선미, 2008a, 「貨幣遺蹟을 통해 본 古朝鮮의 交易」, 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31) 이청규, 2002, 「韓中交流에 대한 考古學的 접근-청동기시대에서 철기시대까지」, 『한국고대사연구』 32, 한국고대사학회, 105~110쪽.

사회를 발전시킨 프로세스로 작용하였다는 점이 주목되면서 고조선의 교역에 대한 보다 진전된 이해를 얻기 위한 노력이 역사학계와 고고학계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역사학계에서는 기존에 알려진 고조선 관련 사료의 재해석에 그치지 않고 문헌자료와 고고학 자료를 접목시켜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시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고고학계에는 한반도와 이웃한 중국 동북부, 러시아 연해주, 일본 등지에 대한 고고학 관련 전공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고조선 시기 교역의 산물로 보이는 貝貨,³²⁾ 북방계 청동기, 주조화폐 등 다양한 종류의 外來系 유물을 다각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중국학계는 古錢幣學과 貨幣史의 일환으로 先秦~秦·漢代의 古錢 연구를 진행하였다.³³⁾ 이 과정에서 중국 동북지역과 한반도 서북지역에서 발견되는 화폐에 주목하였고, 한때 한반도 출토 화폐를 중원지역과의 왕성한 상업관계에 의한 결과물로 파악하기도 하였다.³⁴⁾ 최근에는 ‘을형 명도전’³⁵⁾을 고조선이 연에게 요동 지역을 상실하기 전에 제작, 사용한 것으로 파악한 견해가 발표되었다.³⁶⁾

이 견해에 따르면 을형 명도전은 연이 조선을 침략하기 전까지 요동에서 사용된 것이 되며, 병형 명도전³⁷⁾은 연나라가 조선을 치고 요동 지역으로 진출

32) 자연산 패각, 주로 貨貝(Cypraea moneta, 일명 Money cowrie)를 모방하여 돌, 흙, 뼈, 옥, 청동 등으로 만든 다양한 仿製貝가 있는데, 貨貝를 포함하여 이를 貝貨로 분류한다. 貝貨는 중원지역에서 夏代 이후 화폐로 사용되었다(黃錫全, 2001, 『先秦貨幣通論』, 紫禁城出版社, 9~52쪽.)

33) 초창기의 대표적 논저는 다음과 같다. 龔信威, 1954, 『中國貨幣史』, 群聯出版社; 王毓銓, 1957, 『我國古代貨幣的起源和發展』, 科學出版社; 鄭家相, 1958, 『中國古代貨幣發展史』, 新華書店. 이 밖에 화폐 관련 다양한 연구가 1982년에 설립된 中國錢幣學會와 中國錢幣博物館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34) 王毓銓, 1957, 위의 책, 69쪽.

35) 弧背式 또는 圓折式이라고도 하며, 칼몸과 자루가 만나는 곳이 부드러운 호를 이루는 형식을 말한다.

36) 張博泉, 2004, 『明刀幣研究續說』, 『北方文物』 4期, 北方文物出版社.

37) 折背式 또는 方折式이라고도 하며, 칼몸과 자루가 만나는 곳이 각을 이루는 형식을 말한다.

한 후에 을형 명도전을 모방하여 제작, 사용한 것이 된다.³⁸⁾ 또한 산동반도에서 출토되는 소위 '齊明刀'³⁹⁾는 고조선이 제나라와 상업왕래를 하면서 남긴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 논문은 2000년에 작고한 張博泉의 遺作으로 2004년에 발표된 것인데, 중국 소수민족사로서의 고조선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으나 고조선의 화폐사용을 긍정하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러나 명도전을 교역의 결과물로 파악한 견해는 중국학계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다. 오히려 명도전에 대한 중국학계의 인식은 '명도전의 출토 = 연나라의 강역'이라는 도식이 일반적이다. 1950년대 중국 동북지역과 한반도 서북부에서 발견되는 명도전을 근거로 하여 고조선과 연나라와의 경계를 청천강으로 비정하였고,⁴⁰⁾ 이후 명도전을 고조선과 연나라의 경계를 청천강으로 비정하는 데 절대적인 근거 자료로 활용하였다. 최근에는 고조선의 화폐사용을 전면 부정하는 견해가 발표되었으며,⁴¹⁾ 燕·秦長城이 청천강까지 이르렀다는 견해와 짝하여 위의 견해를 강화하고 있다.⁴²⁾ 결국 명도전은 연나라의 강역 내에서 출토되는 중국문화의 일부라는 것이 움직일 수 없는 정설이 되었다. 이와 같은 중국학계의 견해는 화폐가 갖는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서 自國中心的인 해석이라는 한계를 보여준다.

일본학계의 경우 1960년대에 마쓰다가 중계무역론에 입각하여 『管子』 揆道篇⁴³⁾에 기록된 發朝鮮의 문피가 북만주 지역에서 요하 지방을 경유하여 제나라에 전해진 것으로 설명하였다.⁴⁴⁾ 마쓰다는 A가 C의 특산품을 B에게 전해

38) 명도전의 형식에 대해서는 박선미, 2007, 앞의 글 참조.

39) 산동반도에서 齊刀幣 외에 'ㄱ' 모양이 새겨진 刀幣가 출토되었는데, 명도전에 새겨진 '명'자와는 생김새와 서법에서 차이가 있어 齊明刀(혹은 博山刀)라고 따로 구분한다.

40) 柱臣, 1956, 「考古學上漢代及漢代以前的東北疆域」, 『考古學報』 1期.

41) 劉子敏, 1994, 「先秦時期的古朝鮮未曾使用過青銅鑄幣」, 『東疆學刊』 2期.

42) 劉子敏, 1996, 「戰國秦漢時期遼東郡東部邊界考」, 『社會科學戰線』 5期; 孫進己, 1998, 「古朝鮮의 西界, 中朝邊界研究文集」, 『吉林省社會科學院』 8期; 李健才, 1998a, 「公元前 3-公元前 2世紀 古朝鮮西部邊界的探討」, 『社會科學戰線』 5期; 李健才, 1998b, 「沛水·淇水考」, 『博物館研究』 3期.

43) 『管子』 23, 揆道篇 第78.

44) 松田壽男, 1966, 「東西絹貿易」, 『古代史講座-古代における交易と文化交流』 13,

주고 B가 D의 것을 A에게 繼送하는 식의 중계무역이 고대사회의 보편적 교역 형태로 파악하고 발조선의 문피를 대표적인 예로 꼽았다. 이후 특별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다가 화폐와 관련하여 1994년 다무라 고이치가 명도전유적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였다.⁴⁵⁾ 그는 명도전유적을 漢族의 문화로 본 후지다의 견해에 반대하면서, 요하 이동의 명도전유적을 세죽리-연화보유형과 신평구려족이 남긴 것으로 구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 지역을 華夷雜居 지역으로 결론지었다. 다무라의 견해는 명도전을 교역과 연결시켜 보지는 않았으나 명도전을 植民과 연결시켜 보려는 일본학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상과 같이 고조선의 교역과 화폐에 대한 연구는 여러 방면에서의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외국학계의 중심지무역과 중계무역론을 도입하여 고조선의 교역을 검토한 연구는 고조선의 교역활동을 이해하는 데 뿐만 아니라 古朝鮮史像을 보다 구체화하였다는 점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런데 중심지무역과 중계무역론은 너무 가치중립적으로 접근된 것이어서 고조선이 수행한 교역의 특성을 규명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없지 않다. 왜냐하면 교역의 당사국인 漢, 古朝鮮, 辰國(衆國)에는 각각 발달된 화폐경제, 外來貨幣⁴⁶⁾의 사용, 無화폐라는 독특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고조선 시기 외래화폐는 대동강 유역을 경계로 하여 그 이북에 분포하고 그 이남에는 분포하지 않는다. 그러던 것이 고조선이 멸망한 이후인 기원전 1세기가 되면 한반도 중부 이남지역에도 외래화폐가 유입된다.⁴⁷⁾ 화폐를 중심으로 한 이러한

學生社, 145~180쪽.

45) 田村晃一, 1994, 「樂浪郡設置前夜の考古學(1) - 清川江以北の明刀錢出土遺跡の再檢討」, 『東アジア世界史の展開』(青山學院大學東洋史論集), 汲古書院.

46) 外來貨幣라 함은 布錢, 刀錢, 錢, 半兩錢, 五銖錢 등 중국 동북지역과 한반도에서 발견되는 주조화폐를 말한다. 이들 화폐는 현재 魏, 燕, 秦, 漢 등이 제작한 중국 고대의 화폐로 알려졌다. 그러나 반량전과 오수전 등 몇몇 사례를 제외하고 이를 주조, 유통시킨 주인공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며, 刀幣의 경우는 燕 외에 山戎, 고조선 등이 제작, 유통시켰을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들 화폐를 통틀어 외래화폐로 부르기로 한다.

47) 박선미, 2008b, 「한반도 출토 漢代 화폐와 그 의미」, 『선사와 고대』 28, 한국고대학회.

여러 현상은 기존의 중심지무역이나 중계무역론으로는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고조선 지역의 외래화폐의 존재와 辰國의 외래화폐不在, 그리고 고조선 멸망 후 비로소 한반도 중부 이남으로 외래화폐가 확산되는 현상 등을 볼 때 고조선은 특수한 형태의 교역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본 고의 연구과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확인될 것이다.

Ⅲ. 출토 화폐의 종류와 특징

고조선 지역에서 발견되는 화폐는 비파형동검기에 유입된 것으로 보이는 貝貨와 전국시대 이후에 유입된 布錢, 明刀錢, 一化錢, 半兩錢, 五銖錢, 明化錢, 齊刀幣, 趙刀幣 등이 있다. 패화는 실물화폐의 일종으로서 요령성 일대와 한반도 북부에서 소수 발견되고 있으며, 시기가 내려오면 포전, 명도전, 일화전, 반량전, 오수전 등 다섯 가지 화폐(이들 다섯 가지를 편의상 5대 화폐라고 부름)가 주류를 이루면서 기타 화폐가 공반하고 있다. 따라서 비파형동검기의 패화와 앞의 5대 화폐를 중심으로 고조선에서 출토되는 화폐에 대하여 살펴 보자.

중국 동북~한반도 일대에서 다수의 패화가 발견된 바 있다. 대체로 敖漢旗, 凌源, 北標, 寧城, 沈陽, 大連, 황해도, 함경도 일대에 넓게 산재되어 분포한다. 그러나 고조선의 초기 위치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 지역에서 출토된 패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제한적이거나 유구와 공반 유물이 고조선과 연결되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는 예는 寧城 南山根유적, 大連 崗上墓와 于家村 頭積石墓, 함경도 웅기 송평동 등 4곳이다. 이들 유적에서는 비파형동검 관련 유물과 함께 각종 패화가 출토되었다.⁴⁸⁾ <표 1>은 이들 유

48) 이들 貝貨에 대해서는 박선미, 2005b, 「웅기 송평동 출토 패각 및 패각형 옥 검토-

〈표 1〉 고조선 지역의 貝貨 출토 현황

출 토 지		종 류	수 량	비 고
寧城縣	M3 석곽묘	貨貝	100매	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 1975.
南山根遺蹟	M10 석곽묘	貨貝	4매	
大連 于家村	頭 積石墓 M40	骨製 仿製貝	1매	許明綱·劉俊勇, 1983.
강상유적 7호묘		貨貝	2매 (1매는 깨진 것)	조중공동고고학발굴대, 1966 ;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1996.
사리원 상매리 석관묘		貨貝	1매	과학원고고학 및 민속학연구소, 1959.
웅기 송평동		貨貝	2매	박선미, 2005b.
		玉製 仿製貝	2매	

적에서 출토된 패화의 종류와 수량을 나타낸 것이다.

〈표 1〉 중 웅기 송평동유적은 인골과 함께 출토된 점으로 미루어 무덤일 것으로 추정되는 바, 고조선 지역에서 조사된 패화는 모두 무덤의 부장품이었음을 알 수 있다. 종류는 자연산 貨貝와 이를 모방한 骨製 혹은 玉製 仿製貝이다. 貨貝는 중원에서 화폐로 사용된 재화 중 하나이다. 춘추시대 이후 貨貝 출토가 증가되는데, 대체로 황하 중·하류지역과 장강 중·하류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山戎, 東胡 등이 활동한 북방지역과 일본열도에서도 출토되고 있다.⁴⁹⁾ 춘추 말 자연산 貨貝와 倣製貝가 산동반도와 하북성 등으로 더욱 확대되면서 중국 동북지역까지 퍼진 것으로 보고 있다.⁵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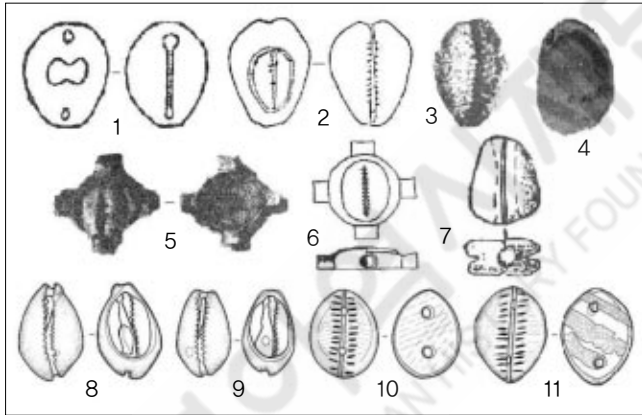
그러나 고조선 지역에서 조사된 패화는 모두 무덤에서 출토되고 있고, 수량도 많지 않은 점 등으로 미루어 중원지역과 같이 경제수단의 일부로서 유통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유적의 위치, 출토정황 등을 통해 볼 때 제한

한반도 동북지역의 화폐사용과 관련하여, 『한국고고학보』 56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

49) 張天恩, 1991, 「東周列國貝貨의 考察」, 『中國錢幣』 2期, 中國錢幣學會.

50) 彭柯·朱岩石, 1999, 「中國古代所用海貝來源新探」, 『考古學集刊』 12集.

된 계층에 의해 재화의 축적이나 부의 상징물, 혹은 위신재로서 교역을 통해 획득되었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해 수입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중원에서는 패화를 무덤에 부장하여 죽은 자가 새로운 생명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⁵¹⁾ 고조선에서도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지 않았을까 한다.



〈그림 1〉 중국 동북~한반도에서 출토된 각종 貝貨

1. 遼源 安杖子 石貝, 2. 강상 貨貝, 3. 寧城 南山根 貨貝, 4. 사리원 상매리 貨貝, 5·6. 沈陽 鄭家洼子 肇工街 貨貝 모양 청동장신구, 7. 北票 豊下 骨貝, 8·9. 웅기 송평동 貨貝, 10·11. 웅기 송평동 玉貝

다음은 고조선 지역에서 발견되는 주조화폐이다. 〈지도 1〉은 고조선 지역에서 발견된 화폐유적의 위치를, 〈표 2〉는 출토 화폐의 종류와 수량을 유적이 밀집되어 있는 권역별로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다.

〈표 2〉에서와 같이 고조선 지역에서 발견되는 화폐는 전국시대에서 후대로 갈수록 유적수와 출토량이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유적수와 출토량에서 명도전이 각각 81곳과 25,188매로 가장 많다. 포전은 25곳으로 유적수는 많으나 출토량이 7,060매로 다소 적고, 일화전은 유적수가 18곳이나 출토량은 16,304매로 포전보다 많다. 반량전과 오수전의 경우 유적수는 16곳으

51) 彭信威, 1954, 앞의 책, 8~10쪽.

로 같고 출토량은 각각 211매와 28매이다. 이들 화폐의 개별적 출토맥락을 통해 단편적이거나 당시의 유통관계에 접근해 보자.

포전은 요동반도에 가장 밀집되어 있다. 단독으로 출토되는 경우가 드물고, 명도전이나 반량전 등 후대의 화폐와 공반되고 있다. 이로 미루어 포전은 명도전과 거의 같은 시기에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화폐의 공반관계를 보면 명도전 > 일화전 > 반량전 등의 순이며 후대의 오수전과도 공반된다. 따라서 포전이 비교적 긴 기간 동안 존속되긴 하였으나 당시 교역이나 유통면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명도전은 고조선 전 지역에 고루 분포하며 압록강 유역~한반도 서북부에 가장 많다. 그러나 압록강에서 대동강 일대에 넓게 散布되어 있기 때문에 밀집도로 보면 요동반도가 가장 높다. 명도전은 다른 화폐와 조합되어 출토하는 경우보다는 단독으로 출토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이는 명도전이 당시 화폐로서의 기능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였음을 시사하고 있다.

일화전은 앞의 두 화폐에 비하여 소수이기는 하나 역시 모든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다. 단독으로 출토된 경우가 없고 앞 시대의 포전, 명도전, 혹은 후대의 반량전, 오수전 등과 공반되고 있다. 이는 일화전이 독자적인 유통력을 갖지 못하였음을 방증한다. 일부에서는 일화전을 고조선에서 주조, 유통시킨 화폐로 보기도 하나 그 가능성은 매우 낮다. 비록 중원지역에서의 발견 예가 많지 않으나 중원의 동북쪽에 해당되는 河北省 灤平⁵²⁾과 靑龍⁵³⁾ 등에 유적이 밀집해 있고, 내몽고자치구 동남부의 喀喇沁旗⁵⁴⁾에서는 거푸집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일화전의 중심 분포지역은 내몽고자치구를 중심으로 하는 일대이며, 중심 유통권도 이 일대일 것으로 추정된다. 내몽고자치구는 전국시대 중기 이후에 연나라의 판도로 들어갔던 지역이다.

반량전의 경우 출토예가 적고 출토량도 적은 편이다. 특히 압록강 하류 이

52) 王嗣洲, 1981, 「河北省灤平縣發現一批窖藏戰國貨幣」, 『文物』 9期.

53) 寧克, 1989, 「河北靑龍出土燕國錢」, 『考古』 3期.

54) 鄭瑞峰, 1987, 「喀喇沁旗發現戰國鉛母范」, 『中國錢幣』 4期.

남의 한반도 서북부에서는 평양 출토 한 곳 외에는 발견되지 않았다. 출토량은 요하 유역~천산산맥 서북부가 131매로 23매인 압록강 유역보다 월등히 많다. 역시 한반도 서북부가 중심적 유통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평양 일대에서 여러 점의 반량전 거푸집이 출토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거푸집은 평양 낙랑토성 안에서 수습된 것 6매와 평양 출토품 1매이다.⁵⁵⁾ 낙랑토성의 거푸집은 대부분이 유실되어서 일부만 남은 것이다. 일부 錢文을 통해 서한 文帝 前元 5년(기원전 175)에서 武帝 建元 5년(기원전 136) 사이에 주조된 사수반량전 거푸집임을 확인할 수 있다. 평양 출토품은 한국기독교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故 김양선이 1940년대 평양에 있었던 시절에 수집한 것이다. 앞뒷면에 각각 한 초에 주조된 유희반량전문과 기원전 136~118년 사이에 주조된 무제대의 사수반량전문이 새겨진 雙面范이다. 이들 거푸집을 낙랑군 설치 이후로 편년하고 낙랑군에서 주전이 이루어진 증거로 보기도⁵⁶⁾ 하지만 거푸집의 연대가 낙랑군 설치 이전, 즉 위만조선 시기의 것일 가능성이 높다. 서한 초에 화폐 주조가 비교적 문란하였던 점, 민간에서도 私鑄가 이루어졌다는 점, 고조선이 對漢 교역을 장악하고 있었다는 점, 평양 일대의 석제 거푸집에 불먹은 흔적이 있다는 점에서 當地에서 취득한 석제로 제작, 실제 주전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외 전국~진·한 초에 고조선에 유입된 중원계 유이민들에 의해 반입되었을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배제할 수 없다. 그렇지만 거푸집의 연대가 위만조선 시기의 것이라 하더라도 <표 2>에서와 같이 평양 주변지역에서의 반량전 출토예가 적기 때문에 반량전이 한반도 서북부에서 중심적인 유통권을 가졌다고 상정하기는 어렵다. 만약 위만조선에서 실제 주전이 이루어졌다면 고조선 내부의 유통용이라기보다는 對漢 교역용이었을 것이다.

오수전은 5대 화폐 중 가장 적은 수가 발견되고 있다. 반량전과 유사하게

55) 박선미, 2008b, 앞의 글.

56) 梅原末治·藤田亮策 編著, 1948, 『朝鮮古文化綜鑑』Ⅱ, 養徳社, 43~46쪽; 정인성, 2003, 「弁韓·加耶의 對外交涉-樂浪郡과의 교섭관계를 중심으로」, 『가야 고고학의 새로운 조명』, 부산대학교 한민족문화연구소 편, 569~570쪽.

압록강 유역에서 후대의 화폐와 공반되며, 청천강이나 대동강 유역 등 한반도 서북부에서는 출토예가 없다. 이는 왕검성으로 비정되고 있는 평양 지역에 고조선 시기의 오수전이 유입되지 않았음을 방증한다. 오수전은 고조선 멸망 후 평양 지역에 밀집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⁵⁷⁾ 이는 오수전이 고조선 멸망 후에 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유통되었음을 방증한다.

한편 국내 일부에서는 명도전과 일화전을 고조선이 주조한 화폐로 보거나 명도전의 분포 범위를 고조선의 강역과 연결시켜 보려는 견해⁵⁸⁾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다음의 <표 3>에서와 같이 명도전은 북경과 하북성 일대에서도 빈번하게 발견되고 있으며, 거푸집 수점이 출토되기도 하였고, 수량도 이 일대가 가장 많다. 출토맥락과 통계상으로 보았을 때 명도전은 북경과 하북성을 중심으로 유통되었고, 주변지역까지 영향을 준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

<표 3> 지역별 명도전 출토 현황 비교

북경		하북성 (천진 포함)		내몽고자치구 동남부		대동하 유역		요하 유역~ 천산산맥 서북부		요동반도		압록강 유역~ 한반도 서북부	
매수 (유적수)	kg (유적수)	매수 (유적수)	kg (유적수)	매수 (유적수)	kg (유적수)	매수 (유적수)	kg (유적수)	매수 (유적수)	kg (유적수)	매수 (유적수)	kg (유적수)	매수 (유적수)	kg (유적수)
4,553 (8)	624.35 (14)	59,245 (19)	361 (3)	218 (7)	25 (1)	684 (5)	50 (1)	2,601 (8)	65 (2)	857 (6)	130 (2)	21,730 (14)	0

* 북경과 하북성의 수치는 黃錫全, 2001, 『先秦貨幣通論』, 225~234쪽에 소개된 표에서 산출함.

** 각 항의 출토량은 괄호 안의 유적에서 나온 명도전 출토량을 합산한 것임.

57) 박선미, 2008b, 앞의 글.

58) 성삼제, 2006, 『고조선, 사라진 역사』, 동아일보사, 137~158쪽.

IV. 古朝鮮으로의 貨幣流入

비파형동검문화기에 간헐적으로 발견되는 다양한 형태의 실물화폐는 비교적 이른 시기에 고조선이 화폐를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고조선 지역에서 발견되는 다량의 주조화폐는 고조선의 화폐 사용을 말해 주고 있다.

그런데 이들 화폐가 언제 고조선 지역에 유입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화폐가 출토된 유적이 대부분 전국시대 이후 나타나는 문화적 복합요소를 포괄하고 있어서 치밀한 연대편년이 불가능한 형편이다. 특히 유적의 절대연대를 제공하는 자료인 포전, 명도전, 일화전 등의 화폐는 주조 연대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못하고 있다. 다만 화폐의 형식학적 분류와 서체의 변화상에서 중원과 북방지역에서 발견되는 화폐가 비교적 祖形에 속하고, 중국 동북지역과 한반도 일대에서 발견되는 화폐가 늦은 시기의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고조선으로의 화폐 유입이 중원과 북방에 비하여 다소 늦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고조선의 화폐 유입 시기에 대해서는 화폐 관련 고고학 자료와 문헌기록을 토대로 하여 유추해 볼 수밖에 없다. 화폐의 유입은 다음의 네 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겠다. 첫째는 춘추시대 이후 중원지역에 위치했던 여러 나라와의 공식적인 교역을 통해 유입된 화폐를 인식하는 1단계, 두 번째는 전국시대 연나라와의 충돌에 따른 화폐유입 2단계, 세 번째는 진·한 교체기의 혼란과 유민의 발생에 의한 화폐유입 3단계, 네 번째는 위만조선과 한 사이에 이루어진 공식적인 교류를 통한 화폐유입 4단계이다. 각 단계별로 중원지역의 齊, 燕, 秦, 漢 등과 여러 형태로 교류가 진행되는데, 어느 경우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고조선에서 출토되는 화폐의 종류나 양상도 다르게 나타난다.

먼저 1단계는 춘추시대~전국시대 초의 시기로 중원지역에 위치했던 여러 나라와의 공식적인 교역과 유민에 의해 화폐가 산발적으로 유입되고 이를 인식하는 단계이다. 고조선이 교역에 화폐를 매개로 하였을 가능성은 문헌기록과 고고학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管子』 24, 輕重甲에 나타난 ‘鎡’이나 ‘千金’ 등이 당시 교역에서 매개물의 역할을 하였다. ‘鎡’이 화폐로 기능하

였다는 사실은 『史記』平準書와 『漢書』食貨志의 “황금을 고급화폐로 삼고 半兩이라고 새겨진 銅錢을 하급화폐로 삼는다”⁵⁹⁾는 진나라 초의 화폐개혁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시기에 화폐로 이용된 것은 貝貨이다. 貝貨는 중원지역에서 夏商代부터 화폐로 사용되었으며 자연산 貨貝를 가공한 소위 背磨式貝는 춘추시대까지 유통되었다.⁶⁰⁾ 그리고 자연산 貨貝의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하여 玉, 石, 蚌, 骨, 陶, 銅, 木 등의 仿製貝를 만들게 된다.⁶¹⁾ 방제패는 전국시대 晩期の 무덤에서 반량전 등과 공반되는 등 진시황의 화폐개혁이 있기 전까지 布錢과 刀幣가 함께 유통되었다.⁶²⁾ 貝貨는 전국 중기 이후 무덤의 부장품목에서 점차 적어지면서 仿製貝의 부장도 따라서 적어지다가 진통일 이후 단행된 ‘廢貝行錢’을 기준으로 화폐로서의 역할에서 물러나게 된다.

앞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貝貨는 고조선의 초기 강역으로 알려진 중국 동북지역과 한반도 일부 지역에서도 출토되고 있다. 이 밖에 후대의 것이기는 하나 평양 정백동 8호 귀틀무덤⁶³⁾에서 자연산 貨貝 100여 매와 소라조개 2매가 담긴 청동단지가 출토되었다. 이들 패화는 원산지로부터 원거리 교역을 통해서 직접 들어왔을 가능성도 있으나 중원지역에 분포량과 유적수가 많은 점으로 미루어 중원을 거쳐 고조선으로 들어왔을 가능성이 크다. 貝貨가 중원에서 주변으로 확대된 시기가 춘추전국시대라는 점으로 보아⁶⁴⁾ 고조선 지역에서 발견되는 貝貨도 춘추시대 이후 중원 여러 나라와의 공식적인 교류에 의해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패화를 고조선의 문피와 교역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⁶⁵⁾ 이 貝貨는 현재 한반도 중부 이남에서는 발견 예가 보고되지 않고 있으나 향후

59) 『史記』平準書, “及至秦 中一國之幣爲二等 黃金以溢名 爲上幣 銅錢識 日半兩 重如其文 爲下幣, 而珠玉龜貝銀錫之屬爲器飾寶藏 不爲幣.”

60) 戴志強, 1981, 「安陽殷墟出土貝貨初探」, 『文物』3期.

61) 朱活, 1995, 『古錢小辭典』, 文物出版社, 1~4쪽.

62) 黃錫全, 2001, 『先秦貨幣通論』, 紫禁城出版社, 1~52쪽.

63) 사회과학원고고학연구소, 1983, 「락랑구역일대의 고분발굴보고」, 『고고학자료집』 6, 과학백과사전출판사.

64) 張天恩, 1991, 「東周列國貝貨의 考察」, 『中國錢幣』2期, 中國錢幣學會.

65) 박준형, 2004, 앞의 글.

출토가 기대되고 있는 유물 중 하나이다.

2단계는 기원전 4~3세기 중반으로서 고조선과 연의 충돌에 의해 화폐가 유입되는 단계이다. 고조선의 서변은 연의 동쪽 경계와 접하였으며, 이 두 나라는 여러 차례 충돌을 일으켰다. 최초로 고조선과 연이 충돌했던 시기는 연이 稱王하였던 시기이다. 『史記』 조선전과 『三國志』 동이전 韓條에 인용되어 있는 『魏略』에는 주가 쇠약해지자 연이 스스로 높여 왕이라 칭하고 동쪽으로 침략하려는 것을 보고 조선 후 역시 스스로 왕이라 칭하고 군사를 일으켜 연을 역으로 공격하여 주나라 왕실을 받들려고 하였으나 조선의 大夫 禮가 간하여 중지하였으며, 예를 서쪽으로 보내 설득하니 연도 전쟁을 멈추고 조선을 침공하지 않았다고 나와 있다.⁶⁶⁾ 연나라가 칭왕한 시기는 연의 易王(기원전 332~321) 때이므로 고조선과 연의 첫 번째 충돌은 기원전 4세기 후반이 된다. 두 번째 충돌은 연나라 장수 秦開에 의한 고조선의 서변 2천여 리의 상실이다. 기록에는 “그 뒤 자손이 교만하고 포악해지자 연나라는 장수 秦開를 보내 조선의 서쪽을 침공하고 2천여 리의 땅을 빼앗아 滿番汗에 이르는 지역을 경계로 삼았으며, 마침내 조선의 세력이 약화되었다”⁶⁷⁾라고 되어 있다. 秦開는 연 昭王(기원전 311~279) 때의 인물이므로 고조선의 서변 2천여 리의 상실은 늦어도 기원전 3세기 중반 이전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고조선과 연의 경계로 삼았다는 滿番汗에 대해서는 대개 요동의 천산산맥 서남쪽 일대,⁶⁸⁾ 요동의 淤泥河와 淸河 하류와 聖水山을 잇는 일대⁶⁹⁾로 비정되고 있다. 따라서 진개 침략 이전 고조선의 서변은 요하를 넘는 선까지 진출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고조선과의 충돌로 인한 화폐유입의 단서는 대릉하 유역의 화폐유적에서

66) 『三國志』 卷30, 烏丸鮮卑東夷傳 30, 韓 인용 『魏略』, “昔箕子之後朝鮮侯 見周衰燕自尊爲王 欲東略地, 朝鮮侯亦自稱爲王 欲興兵逆擊燕以尊周室, 其大夫禮諫之乃止, 使禮西說燕 燕止之 不攻.”

67) 『三國志』 卷30, 烏丸鮮卑東夷傳 30, 韓 인용 『魏略』, “後子孫稍驕虐 燕乃遣將秦開攻其西方 取地二千餘里 至滿番汗爲界 朝鮮遂弱.”

68) 서영수, 1988, 「고조선의 위치와 강역」, 『한국사시민강좌』 2, 40~50쪽.

69) 노태돈, 1990, 「고조선 중심지의 변천에 대한 연구」, 『國史論』 23, 서울大學校 國史學科, 31~54쪽.

찾을 수 있다. 尖首刀 등 이른 시기의 화폐가 대릉하 유역의 凌源市 小城子鄉에서 출토하였다. 첨수도는 북방 유목민족에서 기원하였으며 춘추 중기 전후에 출현하여 전국시대 중만기까지 사용되었다.⁷⁰⁾ 주로 태행산 이동에서 출토되고 있으며, 다수의 유적이 하북성 중부의 東西線上, 즉 燕, 趙, 齊, 魯, 魏 등의 중간 지대에 위치한다. 이른 시기의 첨수도가 대릉하 유역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은 이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화폐유입이 빨랐음을 시사한다. 특히 이 지역에서 전국시대 화폐 중 이른 시기에 유통된 포전이 다수 출토되고 있다는 점도 이와 부합하고 있다. 포전과 명도전의 일부도 이 시기에 유입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연 秦開의 東胡 습격 및 上谷·漁陽·右北平·遼西·遼東郡의 설치와 명도전의 출토를 연관시켜서 연이 요동군을 설치하였을 당시 요하 유역에 있던 고조선의 잔류집단이 연의 정치군사적 영향 아래서 중원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을 교역하기 위한 수단으로 명도전을 통용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⁷¹⁾ 이 견해에 따르면 토착민들이 소유한 명도전은 재지 생산품을 주는 대가로 제공받고 위세품, 철기, 토기 등을 바꾸기 위한 수단으로 보관하였던 것이 된다.

3단계는 3세기 말로 진·한 교체기의 혼란으로 발생한 유민에 의해 화폐가 유입되는 단계이다. 진이 중원을 통일하면서 고조선과 진의 관계는 연에 의해 구축된 고조선과의 경계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정치적 관계가 보다 밀접하게 전개되었다.⁷²⁾ 『史記』朝鮮列傳에 진은 연에 의해 점령되었던 고조선의 서변지역을 遼東外徼에 속하게 하였고,⁷³⁾ 진나라의 땅은 동쪽으로 바다에 이르러 조선에 미쳤다고 되어 있다.⁷⁴⁾ 『淮南子』⁷⁵⁾에서는 진이 성을 쌓았는데, 동쪽으로 조선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였다. 『鹽鐵論』⁷⁶⁾에서는 진나라가 沛水를 넘

70) 黃錫全, 2001, 앞의 책, 209~215쪽.

71) 이청규, 2002, 앞의 글, 109~110쪽.

72) 김정배, 1997, 「고조선의 국가형성」, 『한국사』 4, 국사편찬위원회, 84쪽.

73) 『史記』卷115, 朝鮮列傳 55, “秦滅燕 屬遼東外徼.”

74) 『史記』卷6, 本紀 6, 秦始皇, “地東至海暨朝鮮 西至臨兆羌中 南至北嚮戶 北據河爲塞 竝陰山至遼東.”

75) 『淮南子』卷18, 人間訓, “築脩城 西屬流沙 北擊遼水 東結朝鮮.”

76) 『鹽鐵論』卷8, 誅秦 44, “秦既并天下 東絕沛水 并滅朝鮮.”

어 고조선을 멸망시켰다고⁷⁷⁾ 하였다. 결국 진과 고조선은 遼東外徼와 秦長城을 사이에 두고 국경을 접하고 있었던 것이 된다. 그런데 고조선과 진의 교역을 알려주는 직접적인 기록은 없다. 그러나 燕, 齊, 趙의 백성들이 고조선의 準왕에게 망명하였고 準왕이 이들을 고조선의 서부지역에 거주하게 하였다는 기록⁷⁸⁾을 통해 이주민들에 의해 중원계 문물이 유입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요하 이동~요동반도 일대에서 출토한 화폐 중에는 위, 한, 조, 연 등에 속하는 포전과 도폐가 출토되고 있으며,⁷⁹⁾ 진의 반량전도 소수 출토되고 있다. 또한 조선은 徼를 넘어 연의 동쪽 땅을 빼앗기도 하고,⁸⁰⁾ 滿이 涿水를 건너 秦故空地上下 에 거하면서 진변과 조선의 蠻夷 및 옛 燕·齊 등의 망명자들을 복속시켜 거느린 시기도 있었는데,⁸¹⁾ 이러한 정황은 고조선과 연·진·한의 접경지이자 교전지였던 요하 유역~천산산맥 서북부 일대에서 출토하는 화폐의 종류가 비교적 다양하다는 사실과 어느 정도 부합하고 있다.

4단계는 위만조선 시기로서 서한 이후 공식적인 교류에 따라 화폐가 유입되고 사용된 단계이다. 이 단계는 고조선과 한 사이의 관계가 '外臣'으로 표현되고 '上國과 商賈'하는 시기이다. 즉, 孝惠高后의 시대를 맞아 천하가 처음으로 안정되자 고조선은 한과 '外臣의 약'을 맺고 兵威財物을 획득한 것으로⁸²⁾ 되어 있으며, 위만이 점차 上國과 商賈하여 고조선의 풍속을 나쁘게 하였다고

77) 고조선은 한나라에게 멸망당한 것이 확실한 만큼 여기서 진이 멸했다는 고조선은 고조선 전체가 아니라 고조선 영토의 일부로 추정된다.

78) 『三國志』卷30, 烏丸鮮卑東夷傳 30, 韓所引『魏略』, “二十餘年而陳項起天下亂 燕齊趙民愁苦 稍稍亡往 準 準乃置之於西方.”

79) 鐵嶺市博物館, 1992, 『遼寧鐵嶺邱家台發現窖藏錢幣』, 『考古』4期; 劉俊勇, 1980, 『綜述旅大近年來考古新發現』, 『遼寧文物』1期; 中國社會科學院, 1978, 『戰國貨幣』, 『旅大鄉土歷史教材資料』2·3期.

80) 『鹽鐵論』卷38, 備胡, “大夫曰 往者四夷具強 竝爲寇虐 朝鮮得徼 劫燕之東地.”

81) 『史記』卷115, 朝鮮列傳 55, “燕王盧綰反 入匈奴 滿亡命 聚黨千餘人 結蠻夷服 而東走出塞 渡涿水 居 秦故空地上下 稍役屬真番 朝鮮蠻夷及故燕 齊亡命者王之 都王險.”

82) 『史記』卷115, 朝鮮列傳 55, “會孝王高侯時天下初定 遼東太守卽約滿爲外臣 保塞外蠻夷 無使盜邊 諸蠻夷郡長欲入見天子 勿得禁止 以聞 上許之 以故滿得兵威財物.”

기록되어 있다.⁸³⁾ 고조선과 한과의 관계가 안정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병위재물의 획득은 關市를 통한 鐵器의 수입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⁸⁴⁾ 남월의 경우 조타는 위만보다 몇 년 앞서 한으로부터 책봉되어 稱臣하게 되는데, 이때 한나라와 ‘通使物’ 함으로써 ‘關市鐵器’를 확보하였다.⁸⁵⁾ 남월의 예에서 나타나 ‘通使物’과 ‘關市鐵器’는 위만조선의 兵威財物과 대응된다. 위만도 한과 ‘외신의 약’이라는 국제관계를 맺음으로써 ‘關市’를 통해 주로 철제 利器類를 교역한 것으로 생각된다. 낙랑토성 출토의 거꾸집도 이를 통해 유입되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史記』來淮書에는 “彭吳賈滅朝鮮 置蒼海之郡”이라고 쓰여 있다. 『漢書』食貨志에는 “彭吳穿穢貉朝鮮置蒼海郡”이라고 쓰여 있다. 이 기록에 대하여는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으나 주목되는 것은 창해군의 설치를 팽오가 예맥과 조선으로 가서 장사를 한 것과 관련지어 본 중국학계의 견해이다.⁸⁶⁾ 즉, 위의 ‘滅朝鮮’의 ‘滅’은 ‘滅’를 잘못 쓴 것으로 보고 ‘穿穢貉朝鮮’의 ‘穿’을 ‘통하다’, ‘개통하다’의 뜻으로 보아 팽오가 예맥·조선과 교역을 한 것으로 해석한다. 실제로 ‘穿’은 ‘賈’와 표현상 일치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 출판 『漢韓大字典』이나 『中華大字典』의 ‘穿’자에 대한 설명도 ‘개통하다’, ‘통하게 하다’라고 풀이하고 있다. 따라서 팽오가 통상을 위해 교역로를 개통하였고 개통한 후에 바로 통상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중국학계의 견해는 타당하다. 예맥·조선이 漢과 교역한 것으로의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약’으로부터 획득한 병위재물을 통해 국가적 성장을 이루게 된 위만조선은 辰國으로 대표되는 주변의 나라들이 글을 올려 ‘天子’를 알현하고자

83) 『後漢書』卷85, 東夷列傳 後論, “其後遂通接商賈 漸交上國 而燕人衛滿變雜其風 於是從而澆異焉。”

84) 김한규, 1980, 앞의 글, 8~12쪽.

85) 『史記』卷113, 南越列傳, “高后時 有司請禁南越關市鐵器. 曰 高帝立我 通使物 今高后聽讒臣 別異蠻夷 隔絕器物 此必長沙王計也 欲倚中國 擊滅南越而并王之 自爲功也.”

86) 劉子敏·房國鳳, 1999, 「蒼海郡 研究」, 『東疆學刊』2期.

하여도 막아서 통하지 못하게 함으로써⁸⁷⁾ 실질적으로 약을 파기한다. 위만조선의 일방적인 '약'의 파기에 대하여 한은 처음에 회유책으로 대응하였으나 위만조선은 이를 거부하였다.⁸⁸⁾ 이 때문에 한나라 내부에서 정복론이 대두되었고, 마침내 위만조선은 한나라에 멸망당한다. 화폐는 바로 이러한 정세 속에서 고조선 지역에 유입되었으며, 실생활에 상당히 침투해 있었다고 보여진다.

V. 衛滿朝鮮의 緩衝交易과 貨幣

주지하는 바와 같이 고조선에는 화폐가 유입되고 있었으나 이 화폐가 주변지역으로까지 확산되지는 못하였다. 화폐가 한반도 중부 이남으로 유입된 것은 고조선이 멸망한 기원전 1세기 이후부터이다. 즉, 고조선 시기 교역 당사국인 漢, 衛滿朝鮮, 辰國에는 화폐경제의 발전, 일부 외래화폐의 사용, 화폐의 不在라는 독특한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나 기원전 1세기가 되면 漢代 화폐가 한반도 중부 이남으로 파급되는데, 한대 화폐가 출토된 유적은 18곳이나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漢, 衛滿朝鮮, 辰國 삼자 사이에 이루어진 교역을 동시에 조망하는 속에서 당시의 화폐를 둘러싼 환경을 재구성해야 한다. 교역관계에 있었던 한나라는 전문 商人과 官吏에 의한 발전된 화폐경제와 시장경제를 누리고 있었다.⁸⁹⁾ 위만조선은 對漢 교역을 위해 한나라에서 유통되는 화폐를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위만조선의 주변 정치체로 등장하는 辰國에서는 외래화폐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87) 『史記』 卷115, 朝鮮列傳, “眞番旁辰(衆)國欲上書見天子 又擁闕不通.”

88) 『史記』 卷115, 朝鮮列傳, “元封二年 漢使涉何 諭右渠 終不肯奉詔.”

89) 張弘, 2003, 『戰國秦漢時期商人和商業資本研究』, 齊魯書社, 18~59쪽.

이와 관련하여 로마와 독일 사이의 교환체계를 검토한 헤데아거의 연구가 많은 점을 시사하고 있다.⁹⁰⁾ 헤데아거는 유럽에서 발견되는 로마산 수입품의 양적 분석을 통해 교역이 세 가지 경제체계, 즉 ① 화폐와 시장경제를 특징으로 하는 로마제국, ② 시장과 상인계급을 포함하면서 자체적으로 주조한 동전은 없지만 제한적인 화폐경제를 유지한 완충지대(buffer zone), ③ 화폐가 없는 시장을 가졌을 자유독일을 포괄하였다고 보았다. 고고학적 증거로는 독일이 청동기·유리·금화·은화 등 주로 로마의 사치품을 위세품으로 수입하였고, 비누·가죽·수레·옷감 같은 생필품을 로마에 수출한 것으로 보았다.

이와 같은 교역 시스템이 한과 위만조선, 진국 사이에서도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한다. 필자는 위만조선이 한과 진국 사이에서 수행한 이러한 교역형태를 緩衝交易(buffer zone trade)이라 부르고자 한다. 완충교역은 완충지대로서 B지역이 선진문물을 보유한 A지역과 상대적으로 후진적인 C지역 사이에 위치하면서 주변 정치체 C—주변 정치체는 다수가 될 수 있음—로 하여금 선진문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주는 한편 새로운 문물의 유입에 따른 충격을 완화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토착사회, 또는 토착문화의 해체나 와해를 방지해 주는 형태의 교역을 말한다. 따라서 A지역의 물질문화가 C지역에서 발견되는데, 그 강도는 B지역을 통해 유입되기 때문에 훨씬 약화된다. 즉, 문화충격이 완화된다. 반면 상대적으로 B지역에는 A지역에 나타나는 여러 문화요소가 발견되며, 한편으로는 B지역의 문화가 일부 A화되는 모습까지 나타난다. 물품의 교역은 물품뿐만 아니라 관념, 상징, 가치체계, 정치, 종교적 개념, 예술 등 중요한 사회적 정보가 수반되기 때문이다. 화폐는 그 대표적인 유물이라 할 수 있다.

기원전 2세기경 위만조선에서 발견되는 유물 중 교역품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철기, 회색도기, 銅戈, 車馬具, 前漢鏡 등이 있다. 부여 합송리, 당진 소소리, 장수 남양리 등 한반도 중부 이남에서는 철기, 거마구, 한경 등이 교역품으

90) L. Hedeager, 1978, 191~216쪽.

로 발견된다. 이들 교역품은 위만조선을 경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⁹¹⁾ 출토된 품목으로 보아 두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위세품과 관련된 물품이 교역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중원지역으로 들어간 물품은 출토된 유물이 드물어 명확하지 않다. 다만 당시 교역과 관련된 명확한 기록이 나타나고 있고, 『관자』와 후대의 조공관련 기록을 통해 특산물이 중심이 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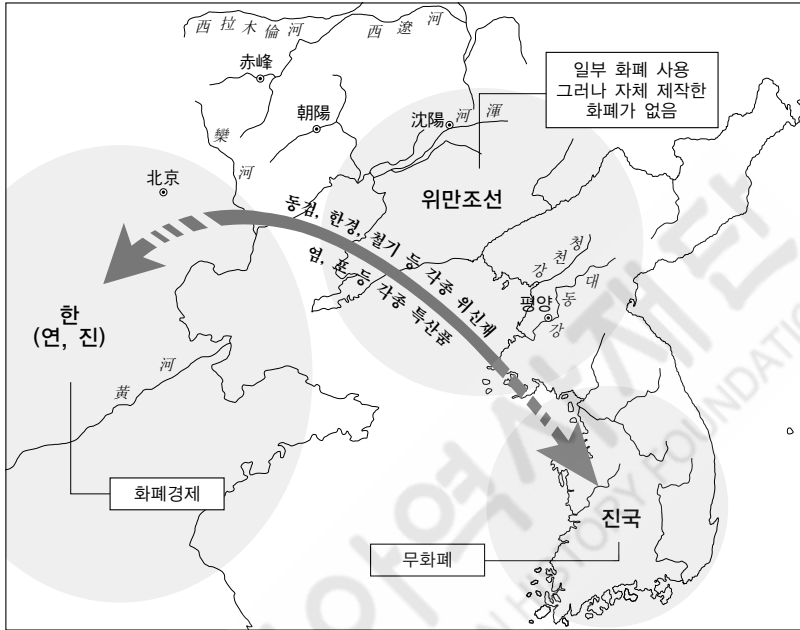
당시 辰國으로 대표되는 한반도 중부 이남의 토착세력은 군장사회(chiefdom society) 단계에 있었다. 이 때문에 진국에게는 토착사회를 운영하고 권력을 유지할 위세품으로서 중원지역의 선진문물이 필요하였으며, 한나라에게는 주변지역에 대한 중주국으로서의 욕구가 위만조선의 완충교역을 가능하게 한 것으로 짐작된다. 위만조선의 병위재물에 대한 선점은 위만조선으로 하여금 주변의 토착세력을 장악할 수 있게 하였고, 토착세력은 자신의 세력을 유지하기 위한 위신재를 위만조선에서 획득하였다. 따라서 한과 직접교역을 하지 않은 진국으로서는 화폐가 그다지 필요하지 않았을 것인데, 이 점은 한군 현과의 직접교역 이후 출토되는 한대 화폐를 통해서 방증된다.

한편 완충교역을 통한 對漢 교역은 주변 정치체들에게는 토착사회의 와해를 방지해 주는 역할을 하였으나 동시에 제한적인 교역시스템으로 작용하였다. 위만조선 시기 한반도 중부 이남에서 발견되는 교역·교류와 관계되는 고고학적 증거는 많지 않은 편이다. 한반도 서북부의 세문경 등 재지산 청동기가 그나마 많은 편에 속하고 漢系 유물은 적다. 한계 교역품으로 전북 익산 왕궁면 평장리에서 서한 초기에 제작된 蟠螭文鏡片, 경산 임당동이나 부산 동래 등에서 확인되는 철기가 위만조선 시기에 서북한 혹은 서남한 지역을 경유하여 간접적으로 수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⁹²⁾

이상과 같은 漢-衛滿朝鮮-辰國 사이에 이루어진 교역을 도식화하면 <지도 2>와 같다.

91) 이청규, 2002, 앞의 글, 115~116쪽.

92) 이청규, 2002, 앞의 글, 119~120쪽.



〈지도 2〉 위만조선의 緩衝交易 模式圖

VI. 맺음말

본고는 고조선 지역에서 발견되는 화폐의 검토를 통해 비교적 이른 시기인 비파형동검기부터 고조선 지역에 실물화폐가 산발적으로 유입되고 있었으며, 전국시대 중기 이후에는 중원에서 통용되고 있던 청동주조화폐가 유입되고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들 화폐를 이해하기 위한 일환으로 燕·秦·漢-고조선-辰(衆國) 사이에 이루어진 교역의 측면에서 접근, 해석하고자 하였다.

고조선에서 발견되는 실물화폐로는 貝貨가 대표적인데, 유적수, 출토량, 분포 양상, 출토 맥락 등을 통해 볼 때 교환의 수단으로서의 기능보다는 재부의 저장과 상징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청동주조화폐는 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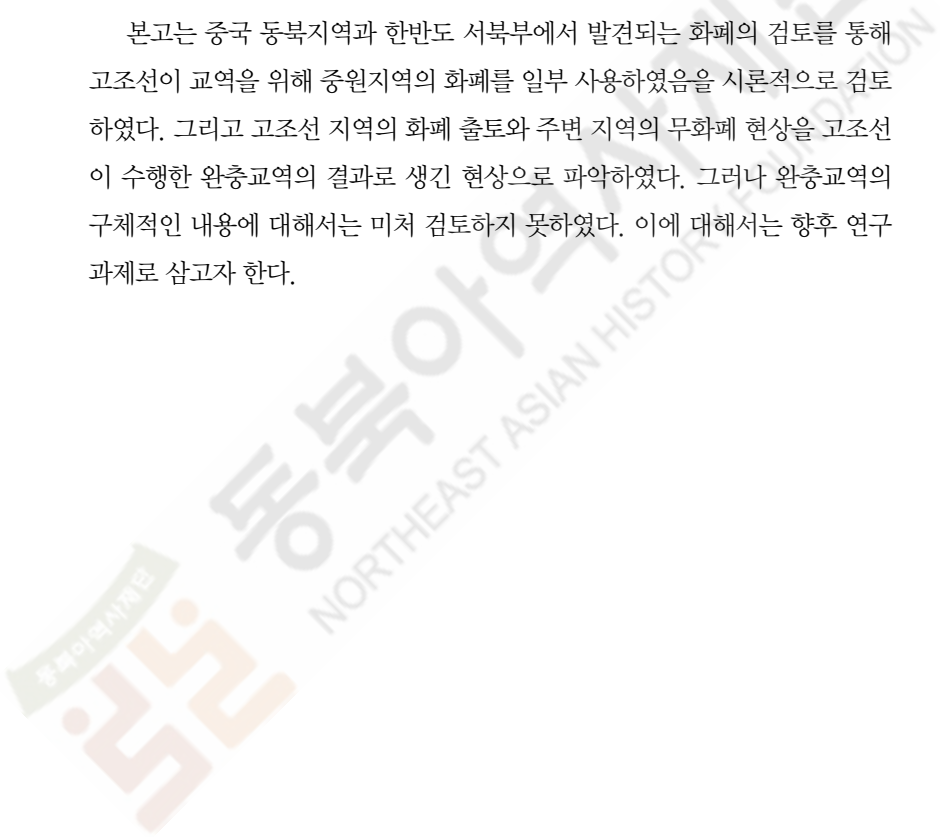
錢, 明刀錢, 一化錢, 半兩錢, 五銖錢, 明化錢, 齊刀幣, 趙刀幣 등이 있었다. 이 중 앞의 5대 화폐가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화폐의 출토 양상은 고조선 내에서도 요하 유역~천산산맥, 요동반도, 압록강~대동강 유역 등으로 구분된다. 또한 각 화폐가 각 지역에서 갖는 유통력도 달랐던 것으로 확인하였다. 주목되는 점은 시기가 내려올수록 화폐 출토가 적어지고 출토량이 급감한다는 점이다. 명도전은 고조선 전 지역에 고루 분포하고 있어서 당시 화폐로서의 유통력을 가졌다고 보이거나 반량전과 오수전은 주로 요하 유역에 분포하며, 압록강 이남에는 거의 분포하지 않는다. 물론 반량전의 경우는 평양 일대에서 거푸집이 발견되어 희박하나마 당시의 주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평양 주변지역에서의 반량전 출토가 드물어서 실제 주조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적으며, 주조가 행해졌다 하더라도 고조선 내부에서 유통력을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對漢 교역을 위해 제한적으로 유통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화폐가 고조선에 유입되는 시기에 대해서는 고고학과 문헌자료를 토대로 하여 4단계로 추정하여 보았다. 1단계는 춘추시대 이후 중원지역에 위치했던 여러 나라와의 공식적인 교역과 유민을 통해 유입된 화폐를 인식하는 시기, 2단계는 전국시대 연나라와의 충돌에 따라 유입되는 시기, 3단계는 진·한 교체기의 혼란과 유민의 발생에 따라 화폐가 유입되는 시기, 4단계는 위만조성과 한 사이에 이루어진 공식적인 교류를 통해 유입되는 시기이다.

끝으로 고조선 지역에서 발견되는 화폐를 고조선이 수행한 緩衝交易(buffer zone trade)의 결과물로 파악하였다. 고조선 시기 주조화폐는 辰國으로 대표되는 주변국, 즉 한반도 중부 이남에서는 출토하지 않는다. 그리고 교역품은 중원에서 요하 이동 → 한반도로 갈수록 적어진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원인의 하나로 고조선이 수행한 緩衝交易를 주목하였다. 완충교역이란 지리적으로 B지역은 선진문물을 보유하는 A지역과 상대적으로 후진문물을 보유하는 C지역 사이에 위치하면서 C지역으로 하여금 선진문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주는 한편 새로운 문물의 유입에 따른 충격을 완화 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토착사회, 또는 토착문화의 해체나 와해를 방지해 주는 역할을 하는 형태의 교역이다. 따라서 A지역의 물질문화가 C지역에서 발

견되는데 그 강도는 B지역을 통해 유입되기 때문에 훨씬 약화된다. 즉, 문화충격이 완화됨을 의미한다. 반면 상대적으로 B지역에는 A지역에 나타나는 여러 문화요소가 발견되며, B지역의 문화가 일부 A화되는 모습까지 나타난다. B지역으로서 고조선이 A지역인 중국 내륙의 여러 나라와 C지역인 한반도 중부 이남 사이에 일종의 완충지대를 형성하면서 완충교역을 수행한 것으로 보았다. 화폐는 바로 그 결과물로 해석될 수 있다.

본고는 중국 동북지역과 한반도 서북부에서 발견되는 화폐의 검토를 통해 고조선이 교역을 위해 중원지역의 화폐를 일부 사용하였음을 시론적으로 검토하였다. 그리고 고조선 지역의 화폐 출토와 주변 지역의 무화폐 현상을 고조선이 수행한 완충교역의 결과로 생긴 현상으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완충교역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미처 검토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 연구 과제로 삼고자 한다.



[ABSTRACT]

A Study of Old-chosun's Buffer Zone Trade and Coinage

Park, Sunmi

How can we interpret the coins having been excavated in the Northwest of Korean peninsular and the Northeast of China? Wherefore are the foreign currencies being excavated in these regions of the Old-chosun Age? This study starts with these questions and approaches and interprets the meaning of these coins excavated at these regions in terms of the trade among Yen(燕), Qin(秦), Han(漢), Old-chosun(古朝鮮), and Jin dynasties(辰國).

I have studied about the coins excavated around the territory of Old-chosun, and found a very interesting phenomenon that there were no coins in Jin Dynasty, but the inlands of China developed a very systematic monetary economy and parts of Old-chosun used coins from the foreign countries. I interpreted this phenomenon happened, for the Old-chosun acted as a Buffer Zone Trade. That is, geographically, Old-chosun was located between A territory of advanced culture and C territory of relatively underdeveloped culture, and apparently let the C territory both accept the advanced cultures and soften the shocks from new cultures to prevent the breakdown or collapse of the native society and culture. Thus, the materials of A culture are found in C territory, but the strength is weak for they came through the B territory. While, relatively, many cultural elements of A territory are found in B territory and even some parts

of B culture change into A-like ones. We can see these results plainly in the density of trade goods spread through A, B, and C territories, and the coinage is a representative example. I called this kind of trade 'Buffer Zone Trade.'

As many literatures say, there was an inflow of many people at the borders of Old-chosun and Wiman(衛滿) became a foreign subject of Han-Dynasty, and heaped up arms and goods to show off their social status, preventing many counties around from going and seeing a son of Heaven of Han Dynasty. In these political situations, it appears, the coins came into Old-chosun, and spread considerably into real life. That is, we can interpret the chinese coins being excavated in the Northeast of China and the Northwest of Korean peninsular of the Old-chosun Age as an outcome of Buffer Zone Trade Old-chosun performed in the relationship with Yen, Qin, Han, and Jin.

keywords

Old-chosun, Wiman Joseon, Buffer Zone Trade, Coinage

高句麗 柵城 遺址 三考

박진석 | 중국 연변대학 교수

I. 머리말

필자는 1985년에 『高句麗柵城遺址考』를 통해 지금의 琿春 八連城이 곧 渤海 東京龍原府(柵城府)의 유지인 동시에 高句麗 柵城 유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견해를 부정하고, 새로 延吉 부근의 城子山山城과 土城村土城을 합하여 高句麗 柵城 유지를 이룬다는 견해를 제기한 바 있다.¹⁾ 그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미 20여 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학계에서 이 문제에 대한 비교적 활발한 논의가 지속됨으로써 서로 다른 견해를 교환할 수 있었으며, 문제의 해결에도 도움을 줄 수 있게 된 것을 무한히 기쁘게 생각하는 바이다.

보건대 여전히 高句麗 柵城 유지에 대한 견해 차이가 분명히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그것은 高句麗 柵城 유지는 반드시 渤海 東京龍原府(柵城府)의 관할 범위 내에서 찾아야지 그 밖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것과 渤海 東京龍原府(柵

1) 朴眞奭, 1985, 「高句麗 柵城遺址考」, 『朝鮮問題研究叢書』 3, 延邊大學朝鮮問題研究所, 37~43, 57쪽.

城府)의 관할범위 내에서 찾을 뿐만 아니라 그 기초가 되는 北沃沮 故地를 포함한 보다 넓은 지역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琿春 溫特赫部 城説과 延吉 부근의 城子山山城, 土城村土城과 興安古城이 한데 합하여 이루어졌다고 보는 견해의 차이인 것이다. 이런 차이가 생기게 된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新唐書』 渤海傳의 관련기사 “濊貊故地爲東京 曰龍原府 亦曰柵城府”를 이해하는 것이 서로 다르며, 北沃沮 영역의 소속범위를 이해하는 것이 서로 다른 데에 있는 것 같다.

본고에서는 이 두 문제에 대해 이미 발표된 方學鳳 교수와 李宗勳 교수의 논문을 검토하고 필자의 견해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方學鳳 교수의 「高句麗 柵城의 위치에 대한 고찰」에 대한 비판 - “濊貊故地爲東京”을 중심으로 -

필자는 「高句麗柵城遺址再考」에서 『新唐書』 渤海傳에 기록되어 있는 “濊貊故地爲東京 曰龍原府 亦曰柵城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사실상 渤海의 東京龍原府와 南京南海府는 다 같이 沃沮 故地에 설치되었다고 보아야 옳을 것이다. 다만 전자는 北沃沮 故地에 설치되었고 후자는 東沃沮(南沃沮라고도 한다) 故地에 설치되었을 따름이다. 만약 이런 판단이 틀리지 않는다면 상술한 “濊貊故地爲東京”은 마땅히 “北沃沮故地爲東京”으로 시정되어야 한다.

이 기초상에서 상술한 『新唐書』 渤海傳의 전후반부를 합하면, 곧 “北沃沮故地爲東京 曰龍原府 亦曰柵城府”로 된다. 이로부터 우리는 渤海 東京龍原府(柵城府)는 곧 北沃沮 故地에 설치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또 高句麗 柵城 유지는 渤海 東京龍原府(柵城府)와 연계

될 뿐만 아니라 그의 기초로 되는 北沃沮 故地와도 연계된다는 것을 증명하여 준다. 따라서 高句麗 柵城 유지는 渤海 東京龍原府 관할 범위 내에서만 찾을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양자[渤海 東京龍原府(柵城府)와 北沃沮 故地]를 포함한 보다 넓은 지역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北沃沮 영역에는 오늘의 琿春과 延吉을 포함한 延邊과 黑龍江省의 東寧縣, 朝鮮의 咸鏡北道, 러시아 遠東 지구의 일부 지역이 포함된다. 이것은 高句麗의 柵城유지를 고증함에 있어서 오늘의 琿春 지역에서만 찾을 것이 아니라 상술한 모든 지역 …… 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을 증명해준다. 필자는 오직 이렇게 하는 것만이 상술한 『新唐書』 渤海傳의 기재내용을 전면적이며 정확하게 반영한 것으로 된다고 인정한다.²⁾

이에 대하여 方 교수는 1998년에 발표한 대작 「高句麗 柵城의 위치에 대한 고찰」에서 상술한 바와 같은 필자의 견해는 ‘오류’라고 명확히 지적하였다.³⁾ 필자는 方 교수의 이런 지적으로부터 啓發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新唐書』 渤海傳의 ‘濊貊故地’를 ‘北沃沮故地’로 바꾸어 놓아야 옳다고 보는 필자의 견해가 ‘오류’인가, 아니면 方 교수의 비판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잘못된 지적인가를 다시 고려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이다.

아래에 『新唐書』 渤海傳의 ‘濊貊故地爲東京’을 에워싸고 크게 두 가지 방면으로 나누어 주로 方 교수와 더불어 견해를 교류하려 한다.

1_ 延邊을 濊貊 故地에 해당한다고 보는 方 교수의 견해

이미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方 교수는 『新唐書』 渤海傳 중의 ‘濊貊故地’는 역사적 사실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北沃沮故地’로 바꾸어 놓아야 옳다고 보는 필자의 견해는 ‘오류’라고 지적하고 나서, 곧 “이에 대하여 두 가지

2) 朴眞奭, 1994, 「高句麗 柵城遺址再考」, 『高麗學術文化財團 “제7회 韓國민족사 국제 학술 심포지엄”』, 8~10쪽.

3) 方學鳳, 1998, 「高句麗 柵城의 위치에 대한 고찰」, 『京畿史學』 3, 19쪽.

를 지적하고 싶다”고 하였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방 교수는 『新唐書』渤海傳에 기록된 “以濊貊故地爲東京 日龍原府 亦曰柵城府”는 완전히 역사적 사실에 부합되기 때문에 “타당한 내용이다”라고 인정하였다. 주요한 이유는 “오늘의 …… 延邊 지역은 濊貊의 故地”이며 “전체 濊貊 영역 중에서 …… 한 부분”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끝으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이와 같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新唐書』의 저자 歐陽修는 沃沮 故地에 南京南海府를 설치한데 비추어 高句麗가 점령하기 이전, 北沃沮가 차지하기 이전시기 옛 濊貊의 지명을 따낸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 지역 명칭상 중복을 피하고 …… 따라서 이는 아주 자연스럽게 합리적으로 된 것이다”⁴⁾라고 하였다.

보건대 방 교수의 이런 견해는 역사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다. 먼저 관련 문헌들의 기록을 소개하고 필자의 분석을 진행하면 다음과 같다.

- ① 『後漢書』東沃沮傳, “東沃沮 在高句麗蓋馬大山之東 東濱大海 北與挹婁 夫餘 南與濊貊接 …… 武帝滅朝鮮 以沃沮地爲玄 郡 …… 其土迫小 介於大國之間 遂臣屬句驪 …… 又有北沃沮 一名置溝婁 去南沃沮八百餘里 …… 界南(北-필자)接挹婁.”⁵⁾
- ② 『三國志』東沃沮傳, “東沃沮在高句麗蓋馬大山之東 濱大海而居 …… 北與挹婁 夫餘 南與濊貊接 …… 其言語與句麗大同 時時小異 漢初 燕亡人衛滿王朝鮮 時沃沮皆屬焉 漢武帝元封二年 伐朝鮮 殺滿孫右渠 分其地爲四郡 以沃沮地爲玄 郡 …… 卍丘儉討句麗 句麗王宮(位宮, 즉 東川王-필자)奔沃沮 遂進師擊之 沃沮邑落皆破之 …… 宮(位宮-필자)奔北沃沮.”⁶⁾
- ③ 『三國志』北沃沮傳, “北沃沮一名置溝婁 去南沃沮八百餘里 其俗南北皆同 與挹婁接.”⁷⁾

4) 方學鳳, 1998, 위의 글, 14, 19~20쪽.

5) 『後漢書』 권85, 東夷 東沃沮傳.

6) 『三國志』 권30, 魏書 권30, 東夷 東沃沮傳.

7) 『三國志』 권30, 魏書 권30, 東夷 北沃沮傳; 中央民族學院研究部 주편, 1958, 『歷代

앞의 기록 ①·②·③을 통하여 대체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상황을 알 수 있다.

1) 沃沮·東沃沮·南沃沮·北沃沮 등 명칭의 관계

앞의 기록 ①·②·③은 琿春과 延吉을 포함한 오늘날 延邊 지역에서 활동한 '民族'에 관한 최초의 문헌기록(傳記)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에서 필자는 우선 沃沮·東沃沮·南沃沮·北沃沮 등 명사들의 상호관계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앞의 기록 ①, 즉 『後漢書』東沃沮傳에서는 먼저 東沃沮의 상황을 설명하고 후에 “又有北沃沮”라고 쓰고, 곧 계속하여 비록 간단하게나마 北沃沮 상황을 서술하였다. 그런데 먼저 東沃沮 상황을 설명할 때 앞에 아무런 규정어도 없이 ‘沃沮(沃沮城)’라는 명사가 한번 나오므로써 주목을 끈다. 앞의 기록 ②, 즉 『三國志』東沃沮傳에서는 그 역사를 서술할 때 ‘沃沮’라는 명사가 도합 네 차례나 나온다. 그중에는 “漢初 燕亡人衛滿王朝鮮 時沃沮皆屬焉”이란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정황에서 일부 학자들은 그 역사발전 단계를 먼저 沃沮로 호칭되던 시기가 있었고, 그 후에 東沃沮(南沃沮)와 北沃沮로 나누어지는 시기가 있었다고 인정하는데, 역사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것 같다. 왜냐하면 『三國志』東沃沮傳과 『後漢書』東沃沮傳에 따르면, ‘沃沮’라는 명칭이 초기에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후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3세기 중엽에 이르러 魏 冊丘儉이 高句麗를 공격하였을 때 宮(位宮, 즉 東川王)이 도망간 지점을 서술하는 가운데에서도 선후 두 차례에 걸쳐 ‘沃沮’라는 명칭이 나오기 때문이다.

필자는 沃沮·東沃沮·南沃沮·北沃沮 등 여러 가지 서로 다른 명칭이 나타난 것은 결코 그들의 不同한 역사발전 단계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서로 다른 거주상황에 따라 부가된 서로 다른 명칭이었을 가능성이 많다고 본다. 예를 들면, 일부 학자들은 ‘東沃沮’는 高句麗의 동쪽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부가된 명칭이라고 말하였다. 또 일부 학자들은 “沃沮란 말의 語源에 대하여, 『滿洲源流考』에서는 ‘森林’이라는 뜻의 滿洲語 ‘窩集(Weji)’에서 유래하였다”고 보았다.⁸⁾

만약 이런 판단이 틀리지 않는다면, ‘沃沮’는 주로 그들의 거주지역이 삼림 지대(東沃沮의 거주지역인 북한 咸鏡南北道와 北沃沮의 거주지역인 중국 延邊 지역은 대체로 삼림이 많은 산악지대에 해당된다)라는 데에서 유래된 語源에 해당하며, 그 가운데는 東沃沮·南沃沮·北沃沮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즉, 보다 북쪽에 위치해 있는 것을 北沃沮라 부르고, 보다 남쪽에 위치해 있는 것을 南沃沮라고 하였을 수 있다. 또 高句麗의 동쪽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東沃沮라고 불렀을 가능성도 있다. 이것은 마치 高句麗를 ‘貊’이라고도 불렀는데, 그것을 다시 부동한 거주지역, 즉 ‘大水(鴨綠江)’ 유역에 거주하는 집단을 ‘大水貊’이라고 불렀을 수 있고, ‘小水(오늘의 渾江說과 璦河說이 있다)’ 유역에 거주한 집단을 ‘小水貊’이라고 부른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된다.⁹⁾

상술한 상황은 沃沮·東沃沮·南沃沮·北沃沮 등의 명칭은 결코 다른 역사 시기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거주지역의 특징과 서로 다른 위치를 반영하여 준다고 말할 수 있다.

2) 北沃沮의 위치

北沃沮의 위치를 해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東沃沮(南沃沮)의 위치를 알아야 할 것이다. 앞의 기록 ① 『後漢書』 東沃沮傳에 따르면, “東沃沮 在高句驪蓋馬大山之東 東濱大海 北與挹婁 夫餘 南與濊貊接”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② 『三國志』 高句麗傳에서도 같은 내용이 적혀 있다.

蓋馬大山에 대하여 학자들마다 서로 다르게 말하고 있으나, 清末의 학자

8) 『滿洲源流考』 권9, 疆域2 沃沮·濊傳; 國史編纂委員會, 1987, 『中國正史朝鮮傳』 譯註一, 261쪽.

9) 『後漢書』 권85, 東夷 高句驪傳; 『三國志』 권30, 魏書 권30, 東夷 高句麗傳.

丁謙은 북한 平安道(平安南道와 平安北道를 포함)와 咸鏡道(咸鏡南道와 北道를 포함)의 분계선에 있는 산맥으로써 그 남북의 길이는 천여 리에 이른다고 보고 있는데, 일리가 있는 것 같다.¹⁰⁾ ‘濊貊’은 咸鏡南道 남부와 江原道を 중심으로 한 일대에 있는 東濊를 가리킨다. 이로부터 東沃沮는 대체로 한반도 咸鏡南道와 咸鏡北道の 동해안 일대에 자리잡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東沃沮의 위치를 알 수 있게 된 것은 곧 北沃沮의 위치를 해명하는 데에도 중요한 기초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北沃沮의 위치에 대하여 『後漢書』에서는 “北沃沮 一名置溝婁 去南沃沮八百餘裏 …… 界南(北-필자)接挹婁”라고 기록하였으며, 『三國志』에서도 대체로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먼저 “北沃沮 一名置溝婁”에 대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다. 『三國志』 高句麗傳에 따르면, ‘溝婁’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溝婁者 高句麗(高句麗-필자)名城也”라고 기록하였는데, 이것은 “溝婁란 高句麗 사람들이 城을 부르는 말”이란 뜻으로 풀이된다.¹¹⁾ 그 밖에 『後漢書』나 『三國志』 등의 문헌기록에 따르면 東沃沮의 ‘言語·飲食·居處·衣服’ 등은 高句麗와 비슷하며 또 東沃沮와 北沃沮의 풍속이 같다고 기록하였다. 이로부터 北沃沮의 사람들도 ‘溝婁’를 城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하였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부 학자들은 “北沃沮 一名置溝婁”라는 기록의 ‘置溝婁’는 “置城의 뜻을 나타낸다고 하면서, ‘置城(치성, 중국어 발음은 ZhiCheng)’은 곧 ‘柵城(책성, 중국어 발음은 ZhaCheng)’의 음이 변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北沃沮에는 확실히 柵城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고 인정하였는데 일리가 있는 것 같다.¹²⁾

다음으로 北沃沮는 “去南沃沮八百餘里”되는 곳에 있었다고 한 부분을 설명해 보자. 이미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東沃沮는 南沃沮라고도 호칭되었다.

10) 中央民族學院研究部 주편, 1958, 앞의 책 제1편(『三國志』 東沃沮傳, 注1), 765쪽; 國史編纂委員會, 1987, 앞의 책, 261~262쪽.

11) 『三國志』 권30, 魏書 권30, 東夷 高句麗傳; 國史編纂委員會, 1987, 앞의 책, 235쪽.

12) 譚其驤 외, 1989, 『東北歷史地理』 제1권, 黑龍江人民出版社, 414쪽; 朴眞奭, 1994, 앞의 글, 28쪽.

그런데 여기서 東沃沮라고 부르지 않고 南沃沮(北沃沮 …… 去南沃沮八百餘里)라고 한 것은 아마도 北沃沮와의 대칭관계를 고려한 것 외에, 또 南沃沮가 東沃沮의 통치중심이었을 수 있으며, 그 위치가 東沃沮 중에서 남쪽에 치우쳐 있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제 “沃沮 …… 去南沃沮八百餘里”를 분석하면, 東沃沮의 통치중심으로부터 북쪽으로 800여 리 떨어진 곳에 北沃沮의 통치중심(柵城)이었을 수 있다)이 있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三國志』 東沃沮傳에 따르면, 기원전 108~107년 사이에 漢武帝가 古朝鮮을 멸망시키고 4郡을 설치할 때의 상황을 “以沃沮城爲玄 郡”(『後漢書』에는 ‘沃沮地’)이라 기록하였다. 이것은 실제상 東沃沮의 통치중심이 되는 沃沮城(상술한 南沃沮에 해당할 수 있다)과 玄 郡의 治所(제1玄 郡 치소)는 같은 지점이었다는 것을 증명하여 준다.

오늘날 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그 당시의 제1玄 郡 치소는 곧 지금의 북한 咸鏡南道の 咸興 부근에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만약 이런 판단이 틀리지 않는다면, 오늘날 咸興 부근은 玄 郡의 제1치소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또 東沃沮의 통치중심인 ‘南沃沮’(?)에 해당했을 수 있는 것이다. 지도를 펴놓고 보면, 東沃沮의 통치중심인 ‘南沃沮’, 즉 북한 咸鏡南道の 咸興 부근에서 북쪽으로 800여 리를 더 가면, 대체로 豆滿江의 중하류에 도달하게 되는데, 바로 이 北岸에 琿春과 延吉을 포함한 延邊 지역이 존재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다. 이로부터 우리는 北沃沮의 통치중심(柵城일 가능성이 많다)이 곧 지금의 琿春과 延吉을 포함한 延邊 지역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北沃沮의 북부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앞의 기록 ①·②·③에 따르면, 北沃沮는 북으로 挹婁, 夫餘와 더불어 경계를 접하고 있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¹³⁾

한편 『三國志』 毋丘儉傳에는 “正始六年(245년-필자) 復征之 宮(位宮, 즉

13) 앞의 기록 ①·②, 즉 『後漢書』 東沃沮傳의 東沃沮 서술 부분과 『三國志』 東沃沮傳의 “北與挹婁, 夫餘 …… 接”은 실제상 北沃沮가 북쪽으로 挹婁 및 夫餘와 더불어 경계를 접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高句麗 東川王(필자) 遂奔買溝(『後漢書』와 『三國志』 東夷傳에서는 모두 ‘置溝婁’라고 썼는데 北沃沮를 지칭한다) 儉遣玄 太守王頌追之 …… 過沃沮千有餘里 至肅慎氏南界”¹⁴⁾라고 기록되어 있다. 주목을 끄는 것은 “過沃沮千有餘里 至肅慎氏南界”라는 부분이다. 여기서 ‘沃沮’는 東沃沮(南沃沮)와 北沃沮가 다 포함되며 ‘肅慎氏’는 挹婁를 지칭한다. 이제 앞의 기록을 해석해 보면, 高句麗 東川王을 추격하는 王頌軍은 東沃沮(南沃沮)와 北沃沮를 지나 1,000여 리를 가서야 비로소 北沃沮가 북쪽으로 挹婁와 경계를 접하고 있는 곳에 이르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것은 北沃沮의 통치중심(柵城일 수 있다)의 위치(去南沃沮八百餘里)보다 200여 리 더 먼 곳에 北沃沮와 挹婁 사이의 邊界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여 준다. 이것은 또 지금의 綏芬河 유역을 중심으로 하여 北沃沮와 挹婁가 경계를 접하고 있었다고 인정하는 일부 학자들의 견해와도 부합된다.

北沃沮는 또 挹婁보다 서쪽에 위치한 夫餘와도 경계를 접하고 있었는데, 北沃沮의 통치중심(柵城일 수 있다)으로부터 그곳까지의 거리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알 방법이 없다.

상술한 사실은 오늘날 琿春과 延吉을 포함한 延邊 지역과 이보다도 더 넓은 지역이 곧 고대 北沃沮인들의 활동영역에 속하여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여 준다. 특히 지적해야 할 것은 北沃沮인들은 延邊 지역에서 활동한 가장 이른 시기의 민족이었다는 점이다. 필자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延邊 지역에서 北沃沮보다 더 이른 시기에 다른 ‘민족(濊貊族을 포함)’이 활동하고 있었다는 기록은 국내외의 어느 문헌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¹⁵⁾ 만약 이런 판단이 틀리지 않

14) 『三國志』 권28, 魏書 권28, 卞丘儉傳.

15) 北沃沮의 족속에 대하여 학계에서는 대체로 두 가지 서로 다른 견해가 있다. 첫째는 肅慎~挹婁계에 속한다고 인정하는 것이며, 둘째는 濊貊계에 속한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필자는 후자에 동의한다. 왜냐하면 高句麗는 濊貊계 중의 貊 分支에 속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와 비슷한 언어와 풍속을 갖고 있는 北沃沮도 역시 같은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오늘날 중국 延邊 지역에 ‘北沃沮가 차지하기 이전 시기’에 이미 濊貊族의 거주지역이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또 濊貊族은 결코 단일민족에 대한 명칭인 것이 아니라 濊와 貊, 심지어 그

는다면, “琿春과 延吉을 중심으로 한 부근 지역은 高句麗의 故地인 동시에 北沃沮의 故地이며 濊貊의 故地이다”라고 인정하고, 또 “『新唐書』의 저자 歐陽修가 ‘濊貊故地爲東京’이라고 한 것은 高句麗가 점령하기 이전, 北沃沮가 차지하기 이전 시기의 옛 濊貊의 지명을 따온 것”이기 때문에 “이는 아주 자연스럽게 합리적으로 된 것”이라고 주장한 方 교수의 견해는 역사의 실제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한다.

3) 北沃沮와 濊貊의 등장 연대 비교

北沃沮와 濊貊의 등장 연대를 비교해 보는 것은 延邊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활동한 민족이 北沃沮인가, 아니면 그보다도 더 이전에 濊貊이 활동하고 있었는가를 해명하는 중요한 방법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필자는 먼저 北沃沮의 등장 연대를 알아보고 계속해서 濊貊의 등장 연대를 고찰함으로써 양자를 비교하기로 한다.

(1) 北沃沮의 등장 연대

필자는 北沃沮는 고문헌에 나타난 延邊 지역에서의 가장 이른 시기의 민족이며, 그의 등장 연대는 대체로 기원전 3세기 말~기원전 2세기 이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

첫째, 앞의 기록 ② 『三國志』 東沃沮傳에 따르면, “漢初 燕亡人衛滿王朝鮮時 沃沮皆屬焉”이라고 되어 있다. 여기서 ‘漢初’는 西漢(기원전 206년~기원후 25년)의 건국 초기를 가리키며, ‘燕亡人’인 衛滿이 古朝鮮王이 된 것은 기원전 194년의 일이다. 이로부터 기원전 3세기 말~기원전 2세기 초 이전에 이미 ‘沃沮’로 호칭되는 여러 ‘읍락’들이 古朝鮮에 소속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미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沃沮·東沃沮·南沃沮·北沃沮 등 명

보다도 더 많은 민족을 한데 합한 데 대한 ‘통칭’이라는 사실도 주목을 끌 만한 것이다.

칭은 결코 서로 다른 역사시기의 산물이 아니라, 같은 역사시기의 서로 다른 명칭일 수 있다. 이런 경우에 기원전 3세기 말~기원전 2세기 초에 이르러 이미 등장한 ‘沃沮’ 중에는 東沃沮와 北沃沮가 다 같이 포함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많다.

다음으로 『後漢書』 東沃沮傳에 따르면, 먼저 東沃沮 상황을 서술하면서 “武帝滅朝鮮 以沃沮地爲玄 郡”이라고 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주목된다. 西漢 武帝가 古朝鮮을 멸망시키고 4郡(玄 郡을 포함)을 설치한 것은 기원전 108~기원전 107년 사이로 기원전 2세기 말의 일이다. 이것은 물론 ‘漢初’(기원전 3세기 말~기원전 2세기 초)에 ‘沃沮’가 등장했다고 보는 『三國志』 東夷傳의 기사에 따르면, 그 출현 시기가 좀 늦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은 『三國志』 東夷傳의 기사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또 『後漢書』에서는 먼저 東沃沮 상황을 기록한 후 계속하여 “又有北沃沮”라고 기록함으로써, 상술한 ‘沃沮’ 중에는 東沃沮가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北沃沮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 주목을 끌게 된다.

이 외에 『三國史記』 高句麗本紀에 따르면, 東明王 “十年(기원전 28년) …… 王 …… 伐北沃沮 滅之 以其地爲城邑”, 太祖王 “四年(56년) …… 伐東沃沮爲城邑”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역시 상술한 견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여 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¹⁶⁾

둘째, 이미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北沃沮는 북쪽으로 夫餘와 挹婁 등과 경계를 접하고 있었다.

이 외에 『後漢書』 挹婁傳에 따르면, “挹婁 古肅慎之國也 …… 南與北沃沮接 …… 自漢興已後 臣屬夫餘”라고 했으며, 『三國志』 挹婁傳에서도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自漢興以後” 혹은 “自漢以來”라는 기록이 주목된다.¹⁷⁾

16) 『三國史記』 권13, 高句麗本紀1, 東明王 10년조; 『三國史記』 권15, 本紀3, 太祖王 4년조.

17) 『後漢書』 권85, 東夷 挹婁傳; 『三國志』 권30, 魏書 권30, 東夷 挹婁傳.

보건대 앞에 기록되어 있는 “自漢興以後”와 “自漢以來” 중의 ‘漢’은 틀림 없이 西漢을 지칭한다.

그것은 『後漢書』나 『三國志』 등에서 西漢과 東漢을 구별하여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漢’으로 통칭하여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하여 증명된다. 예를 들면, 『後漢書』 滌傳에 “漢初大亂 燕 齊 趙人往避地者數萬口 而燕人衛滿自王朝鮮”¹⁸⁾이라는 기록 중 ‘漢初’는 그 내용으로 보아 틀림없이 ‘西漢初’를 가리킨다. 또 『三國志』 夫餘傳에 따르면, “漢末 公孫度雄張海東”¹⁹⁾이라고 쓴 기록 중의 ‘漢末’은 역시 그 내용으로 보아 東漢 말기를 지칭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런데도 전자에서는 ‘西漢初’라고 하지 않고 ‘漢初’라고 기록하였으며, 후자에서는 ‘東漢末’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漢末’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으로 보아 『後漢書』 挹婁傳의 “自漢興以後”는 “自西漢興以後”를 가리키며, 『三國志』 挹婁傳의 “自漢以來”도 역시 “自西漢以來”를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이것은 西漢(기원전 206~기원후 25년)의 건국 초기, 즉 기원전 3세기 말~기원전 2세기 초에 이르러 오늘날 중국의 東北 지방에서 가장 일찍 나타난 민족으로 알려진 肅慎族 중에는 이미 挹婁로 개칭되는 상황이 존재하였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

北沃沮는 바로 이러한 挹婁와 경계를 접하고 있었으며, 또 그들과 내왕한 일도 있었던 것이다(挹婁人喜乘船寇 北沃沮畏之). 이것은 西漢 初, 즉 기원전 3세기 말~기원전 2세기 초에 이르러 延邊 지역에는 이미 北沃沮 사람들이 등장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또 하나의 증거이다.

셋째, 다년간 延邊 지역에서 이룩한 고고학의 성과는 이 지역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활동한 민족이 곧 北沃沮였다는 것을 증명하여 준다. 『연변문화유물략편(延邊文物簡編)』에는 “고고학계에서는 기원 전후의 延邊지구의 고고학 문화를 ‘早期鐵器時代’라고 부른다. …… 이 고고문화는 시간적이거나 분포된 지역적으로 보아서 모두 고대의 史冊에 기록된 北沃沮人들의 활동구역과 맞아

18) 『後漢書』 권85, 東夷 滌傳.

19) 『三國志』 권30, 魏書 권30, 東夷 夫餘傳.

떨어진다. 그러므로 延邊지구에 분포된 戰國~兩漢 시기의 고고문화는 北沃沮인들의 문화유물과 유적으로 인정된다”고 하였다. 또 “延邊지구의 靑銅器시대의 문화유적은 고대 東北의 北沃沮 사람들의 유적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²⁰⁾

상술한 사실은 오늘날 중국 延邊 지역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활동한 고대 민족은 곧 北沃沮라는 것, 그들의 출현 연대는 늦어도 西漢 初, 즉 기원전 3세기 말~기원전 2세기 초 이전에 해당된다는 것을 말해 준다.

(2) 獒貉의 등장 연대

先秦시기의 古書, 예를 들면 『逸周書』·『管子』·『孟子』·『墨子』·『詩經』 등에는 주로 獒 과 관련된 기사는 비교적 많이 나오나, 獒 관련 기사는 매우 적게 나온다. 따라서先秦시기의 문헌들에 등장하는 獒와 獒는 결코 하나의 단일민족을 지칭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²¹⁾

秦漢시기 이래, 구체적으로 『史記』와 『漢書』에 이르러 비로소 獒獒 으로 읽을 수도 있는 부분이 나온다. 예를 들면 『史記』 匈奴列傳에 (冒頓時) “諸左方王將居東方 直上谷以往者 東接獒獒朝鮮”²²⁾이라고 하였고, 같은 사실에 대하여 『漢書』 匈奴傳에는 “諸左王將居東方 直上谷以東 接獒獒朝鮮”(師古曰 “直當也 其下亦同也”)이라고 하였다.²³⁾

여기서 우선 주목을 끄는 것은 獒獒朝鮮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에 대하여 학계에는 대체로 세 가지 서로 다른 解讀 방법이 있다. 첫째 獒獒朝鮮 으로 읽는 방법, 둘째 獒獒·朝鮮 으로 읽는 방법, 셋째 獒·獒·朝鮮 으로 읽는 방법이 곧 그것이다. 필자는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20) 연변박물관 『연변문화유물략편』 집필소조, 1989, 『연변문화유물략편』, 연변인민출판사, 33~34, 56~57쪽.

21) 『管子』 小匡編에 따르면 齊桓公(기원전 685~기원전 642년)이 말한 중에 “北至孤竹 山戎 獒獒 拘秦夏.”라는 구절이 나오나 당시 상황으로 보아 獒獒 으로 보기 어렵다.

22) 『史記』 권110, 匈奴列傳.

23) 『漢書』 권94, 匈奴傳.

세 번째가 보다 더 사실에 부합될 가능성이 많다고 본다. 이럴 경우에 역사상 처음으로 ‘穢貉’이란 명칭(단일민족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穢와 貉, 혹은 그보다도 더 많은 민족을 함께 합한 데에 대한 통칭이다)이 출현했다는 데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

다음으로 주목을 끄는 것으로 상술한 『史記』 匈奴列傳의 기록은 곧 ‘冒頓時’의 사실을 기록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冒頓時’가 구체적으로 어느 시기에 해당하는가를 해명해야 한다. 『史記』 匈奴列傳에는 “冒頓既立”이라고 기록하고 나서 곧 주해를 달아 “徐廣曰 秦二世元年壬辰歲立”이라고 하였다.²⁴⁾ 『中國歷史年代簡表』에 따르면, 秦2世 원년은 胡亥 즉위 원년(壬辰年)을 가리키는데, 그것은 곧 기원전 209년에 해당한다.²⁵⁾ 이를 바탕으로 상술한 『史記』나 『漢書』의 관련기사를 함께 고려해 보면, 곧 기원전 209년에 즉위한 匈奴의 冒頓王(單于) 시기에 이르러 처음으로 ‘穢貉’이란 민족 명칭이 등장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이러한 판단이 틀리지 않는다면, 고서들에 기록되어 있는 ‘穢貉’의 출현 연대(秦二世元年壬辰歲, 즉 기원전 209년 이후)와 北沃沮의 등장 연대(漢初, 즉 기원전 206~기원전 194년 이후) 사이에는 짧아서 수년, 길어도 수십 년도 안 되는 시간적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고문헌에 나타나는 兩者의 등장 연대는 실제상 다 같은 시기(秦末漢初)에 해당한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新唐書』 渤海傳에 “穢貉故地爲東京”이라고 한 것은 “高句麗가 점령하기 이전, 北沃沮가 차지하기 이전시기의 옛 穢貉의 지명을 따낸 것”이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합리적으로 된 것”이라고 보는 방 교수의 견해가 역사적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또 하나의 증거이다.

24) 『史記』 권110, 匈奴列傳.

25) 文物出版社 편, 1975, 『中國歷史年代簡表』, 文物出版社, 47쪽.

4) ‘濊貊故地’에 대한 일부 원로학자들의 견해를 잘못 소개한 상황

방 교수는 자신의 논문에서 『新唐書』 渤海傳 중의 ‘濊貊故地’는 마땅히 ‘北沃沮故地’로 바뀌어야 옳다고 보는 필자의 견해를 ‘오류’라고 지적하기 전에 ‘濊貊故地’에 대한 일부 원로학자들의 견해를 소개하였다. 그는 먼저 金毓黻 선생의 견해를 소개하였는데, 그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金毓黻 선생은 『唐書』에 濊貊故地라고 한 것은 그 처음이며 …… 沃沮故地라고 한 것도 또한 그 처음이다.”²⁶⁾

보건대 방 교수의 인용문은 지나치게 간단하기 때문에 독자들이 그의 뜻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정황에서 필자가 김육불의 원문에 따라 그 내용을 보충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渤海國이 건립되기 이전에 瑯春 지역은 高句麗의 慶州에 속해 있었으므로 賈耽도 그것을 高句麗의 ‘舊地’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濊人’들도 여기에 있었는데, 사실상 高句麗보다 더 먼저 있었던 것이다. 『唐書』에 ‘濊貊故地’라고 기록한 것은 바로 그런 상황을 소급하여 말한 것이다. 『唐書』에 ‘沃沮故地’라고 말한 것도 역시 그런 상황(沃沮가 高句麗보다 더 먼저 있었음을 가리킨다)을 소급하여 말한 것이다.²⁷⁾ 이로부터 김육불은 오늘날 延邊 지역에 高句麗 이전에 沃沮가 있었고, 또 沃沮 이전에 ‘濊人’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新唐書』 渤海傳에 “濊貊故地爲東京”이라고 한 것은 바로 이런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정당화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新唐書』 渤海傳에 기록되어 있는 ‘濊貊故地’에 대한 김육불 견해의 전부가 아니다. 필자가 延邊大學 渤海史研究所의 李東輝 교수로부터 이해한 바에 따르면, 김육불은 1934년에 『渤海國志長編』을 편찬하였고, 그가 『新唐書』 渤海傳 중의 “濊貊故地爲東京”을 정당화한 것은 바로 이 『渤海國志長編』에서 한 말이었다는 것이다.

26) 方學鳳, 1998, 앞의 글, 19쪽.

27) 金毓黻, 1934, 『渤海國志長編』 下編, 吉林省社會科學戰線雜誌社翻印(1982), 202쪽.

그 후 7년이 지난 '民國 30年', 즉 1941년에 출판한 『東北通史』 上編에서 김육불은 상술한 '濊貊故地'에 대하여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견해를 제기하였다. “『新唐書』에서 '濊貊故地爲東京龍原府, 沃沮故地爲南京南海府'라고 쓴 것은 아마도 필자의 잘못일 것이다. 南京의 영역은 남쪽, 즉 오늘의 咸鏡道에 있었는데, …… 그것은 바로 옛날의 濊貊의 영역에 해당한다. 東京의 영역은 북쪽, 즉 오늘의 琿春 경내에 있었는데 …… 바로 옛날의 沃沮의 영역에 해당한다. 이런 기준에 따라 말한다면, 『新唐書』의 기록은 남쪽과 북쪽의 위치가 顛倒되었다는 것이 명확해졌다”고 인정하였다.²⁸⁾

보건대 『新唐書』 渤海傳의 '濊貊故地'에 관한 김육불의 견해는 선후(1934년과 1941년)가 완전히 다르다. 즉, 이전에는 그것을 정당화하였으나, 이후 그것을 부정하면서 『新唐書』 渤海傳의 필자가 잘못 쓴 것일 수 있다고 인정하였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마땅히 후자에 중점을 두어 소개하거나 혹은 선후의 서로 다른 견해와 그 변화과정을 다 같이 소개하여야 옳다. 이렇게 하여야만 '濊貊故地'에 관한 김육불의 견해를 전면적이며 정확하게 소개하는 것이다. 그런데 방 교수는 오히려 김육불이 이미 '포기'한 바 있는 예전의 잘못된 견해를 소개하는 데에 그쳤으니, 김육불 본인에 대해서나 독지들에 대하여 모두 아쉬움을 남겼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으로 방 교수는 자신의 논문에서 두 차례에 걸쳐 다음 朴時亨 선생의 견해를 인용하였다.

- ① …… 八連城은(渤海-필자) 龍原府와 東京의 遺址인 동시에 또한 北沃沮의 지역이며 濊貊의 고지(故地)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朴時亨, 『발해사』, 157~158쪽, 원 주 10)²⁹⁾
- ② 朴時亨 선생은 “濊貊의 故地라고 한 것은 高句麗가 이 지방 정복 이전, 즉 옛날 肅慎族의 영역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

28) 金毓黻, 『東北通史』 上編, 吉林省社會科學戰線雜誌社翻印, 281쪽. 출판연대에 대하여서는 同上書 卷首(編印東北通史緣起)를 참조.

29) 方學鳳, 1998, 앞의 글, 18쪽.

다”(朴時亨, 『발해사』, 158쪽, 원 주 12)라고 하였고 오늘날의 八連城을 東京의 유적으로 생각하게 된다(朴時亨, 『발해사』, 158쪽, 원 주 13)라고 하였다.³⁰⁾

위의 인용문 ①에 따르면 박시형은 오늘날 琿春 八連城은 渤海의 “龍原府와 東京의 遺址인 동시에 또한 北沃沮의 지역이며 濊貊의 故地였다”고 인정한 것으로 된다. 이럴 경우에 濊貊故地에 관한 박시형의 견해는 방 교수가 지적한 바와 같이 “『新唐書』 渤海傳에 기록된 ‘以濊貊故地爲東京 日龍原府 亦曰柵城府’와 부합”되며 역시 濊貊故地에 관한 방 교수의 견해와도 일치한 것으로 된다.

그러나 필자는 박시형의 『발해사』 원문 중에서 이와 같은 기록을 찾아내지 못하였다. 방 교수가 주를 달아 밝힌 바에 따르면, 그가 인용한 박시형의 인용문 ①과 ②는 분명히 『발해사』의 같은 章節 중에서 매우 가까운 거리를 두고 씌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필자는 이 부분(기타 부분을 포함)에서 종래 琿春 八連城은 渤海 東京龍原府의 遺址인 동시에 “北沃沮의 지역이며 濊貊의 故地였다”고 쓴 내용을 발견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긴 채 박시형에 대한 방 교수의 인용문 ②를 고찰하기로 하였다. 이 인용문 ②도 역시 지나치게 간단하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발해사』 원문에 따라 좀 더 구체적으로 적으면 다음과 같다.

『新唐書』 渤海傳의 이른바 濊貊의 故地라는 것은 古今郡國志에서 말하는 高句麗의 故地(舊地-필자)라고 명기한 渤海의 몇 개 府들과는 달리 이른바 濊貊의 故地, 그리고 沃沮의 故地라고 적은 府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실제로는 후에 高句麗의 영토로 편입된 것들이다. 여기 濊貊의 故地라고 한 것은 高句麗가 이 지방을 정복하기 이전, 즉 옛날 肅慎族의 원 고향이었다는 것을 의미한 것으로 볼 수 있다.³¹⁾

30) 方學鳳, 1998, 앞의 글, 19쪽.

31) 朴時亨 지음·宋基豪 해제, 1989, 『발해사』, 이론과 실천, 181쪽.

앞에서 보면, 박시형은 결코 『新唐書』 渤海傳에 기록되어 있는 “濊貊故地爲東京” 중의 “濊貊故地”를 정당화하거나, 또 그것이 오늘날 琿春 지역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일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째, 박시형은 우선 『新唐書』 渤海傳에 기록되어 있는 “濊貊의 고지”를 분석하면서 다음과 같이 보았다. 『新唐書』 渤海傳에는 “이른바 濊貊의 故地 그리고 沃沮의 故地라고 찍은 府들이 있는데” 이것은 “『古今郡國志』에서 말하는 高句麗의 고지(舊地-필자)라고 명기한 渤海의 몇 개 府(渤海國南海 鴨綠 夫餘 柵城四府 并是 高句麗舊地也)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이것은 결코 『新唐書』 渤海傳의 “濊貊故地爲東京”을 정당화한 것이 아니다.

둘째, 『新唐書』 渤海傳에 기록되어 있는 이른바 “濊貊의 故地와 沃沮의 故地”라고 한 몇 개의 府들은 “실제로는 후에 高句麗의 영토에 편입된 것들”이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박시형은 결코 琿春을 포함한 延邊 지역이 “北沃沮가 차지하기 이전시기”에 이미 “濊貊故地”로 되어 있었다고 인정한 일이 없다.

셋째, 박시형은 『新唐書』 渤海傳에서 “濊貊의 故地라고 한 것은 高句麗의 이 지방 정복 이전, 즉 옛날 肅慎族의 원 고향이었다는 것을 의미한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보건대 이것은 그가 “大荒之中 有山 名曰不咸 有肅慎之國”이라고 기록한 『山海經』 중의 不咸山이 오늘날의 白頭山에 해당한다는 견지에서 말한 것으로 추정된다.³²⁾ 혹 이것은 박시형이 北沃沮의 민족 성격을 肅慎系와 연계시키고 있는 것과 관련될지도 모른다.

만약 방 교수의 인용문 ②에 관한 필자의 분석이 틀리지 않는다면, 박시형이 琿春 八連城은 渤海의 東京龍原府의 유지인 동시에 “또한 北沃沮의 지역이며 濊貊의 故地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는 방 교수의 인용문 ①은 사실과 부합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혹 이것은 방 교수가 박시형의 견해를 인용하는 과정에서 생긴 ‘착각’이었을지도 모르겠다.

상술한 사실은 방 교수가 소개한 박시형의 두 가지 인용문은 결코 『新唐書』 渤海傳의 “濊貊故地爲東京”을 정당화하거나, 또 그것(濊貊故地)이 오늘의

32) 『山海經』 제17, 大荒北經.

琿春 일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일이 없다는 것을 말하여 주며, 또 이 문제에 대한 방 교수의 견해와 완전히 상치된다는 것을 증명하여 준다.

2_ 高句麗 柵城 유지를 渤海 東京龍原府(柵城府)의 관할 지역 안에서만 찾으려고 한 方 교수의 견해

방 교수는 「高句麗 柵城의 위치에 대한 고찰」에서 대체로 네 가지 이유에 의거하여 高句麗 柵城 유지는 延吉 부근의 城子山山城·土城村土城·興安古城이 함께 합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하는 필자의 견해를 부정하였다.

보건대 방 교수의 이 네 가지 ‘이유’의 중심 사상은 곧 “高句麗 柵城의 유지는 반드시 (渤海-필자) 東京龍原府 자리, 즉 八連城을 중심으로 한 그 주변에서 찾아야 하지 東京龍原府의 관할 밖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는 데에 있는 것 같다.³³⁾

高句麗 柵城 유지를 우선 渤海 東京龍原府의 관할범위 내에서 찾으려는 것은 방 교수뿐만 아니라 학계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견해인 바, 그중에는 필자도 포함되어 있다. 그 가장 중요한 원인은 『新唐書』 渤海傳에 渤海의 東京龍原府는 柵城府라고도 불려졌다(濊貊故地爲東京 日龍原府 亦曰柵城府)는 점에 있다. 이에 대하여 필자는 이미 다른 곳에서 “高句麗 柵城의 위치와 관련되는 사료가 극히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선 渤海의 柵城府 유지를 고증하고 그 다음에 高句麗 柵城 유지를 고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³⁴⁾고 한 바 있다.

그러나 필자는 高句麗 柵城 유지는 渤海의 東京龍原府(柵城府)의 관할범위 안에서만 찾아야지, 그 “관할 지역 밖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는 방 교수의 견해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아래에 4개 방면으로 나누어 필자의 견해를 말하고자 한다.

33) 方學鳳, 1998, 앞의 글, 7~9쪽.

34) 朴眞奭, 1985, 앞의 글, 37쪽.

1) 『遼史』地理志의 관련기사에 대한 方 교수의 견해

방 교수는 우선 『遼史』地理志의 “開遠縣 本柵城地 高麗爲龍原縣 渤海因之”라고 한 기사를 분석하면서 “이 기록에 의하면 高句麗 시기의 龍原縣과 渤海 시기의 龍原縣은 같은 지역이었고 柵城이 龍原縣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³⁵⁾고 하였다.

필자는 방 교수의 이와 같은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 상술한 『遼史』地理志의 기록은 遼나라 開州의 屬縣으로 되어 있는 開元縣의 내원지를 설명한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926년에 遼는 渤海를 멸망한 후에 그 故地에 東丹國을 건립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東丹國은 오늘 遼寧省의 太子河 유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 遷移하게 되었는데, 이때 當地의 渤海 유민들도 함께 강제적으로 이동시켰던 것이다. 일부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당시 上京龍泉府와 中京顯德府의 渤海 유민들은 주로 遼陽 지방에 옮겨졌고, 東京龍原府의 유민들은 開州(오늘의 遼寧省 鳳城)에 옮겨졌다. 이런 상황에서 『遼史』地理志의 편자들은 開州를 서술하면서 먼저 그의 내원지였던 渤海 東京龍原府에 대하여 기록하였으며, 開遠縣(開州 管轄하의 속현)에 대해서도 역시 그 내원지인 龍原縣(龍原府 산하의 首州로서 慶州가 있었고 또 그 산하에 首縣으로서 龍原縣이 있었다)과 연계시켰던 것이다. 그런데 그 上限을 高句麗까지 소급함으로써 마치 高句麗 시기에 지금의 琿春 지역에 龍原縣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한 것은 사실에 부합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高句麗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방에서 주로 五部와 城邑制度를 실시하였는데, 高句麗에 소속된 바 있는 北沃沮도 역시 예외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三國史記』東明王 “10년(기원전 28년) …… 王 …… 伐北沃沮 滅之 以其地爲城邑”³⁶⁾이라고 한 것은 이런 견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 물론 高句麗에서도 次要의 郡縣을 설치한 일이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

35) 方學鳳, 1998, 앞의 글, 8쪽.

36) 『三國史記』 권13, 高句麗本紀1, 東明王 10년조.

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치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매우 적으며, 특히 초기에 이룰수록 이에 대한 상황을 거의 완전히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런 판단이 틀리지 않는다면, 渤海 東京龍原府의 관할지역에 해당하는 지금의 琿春 지역에 高句麗에서 龍原縣을 설치하였다고 보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遼史』地理志에서 開遠縣의 내원지에 대하여 “本柵城地 高麗爲龍原縣”이라고 한 것은 사실상 발해의 柵城地와 龍原縣을 가리킬 수 있을 뿐, 그것을 高句麗 시기까지 소급하여 올라간 것은 잘못된 것으로서 믿을 바가 못 된다.³⁷⁾ 그런데도 방 교수는 상술한 『遼史』地理志의 기록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新唐書』渤海傳의 관련기사와 연계시킴으로써 있지도 않는 高句麗 龍原縣에 柵城 유지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리기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는 高句麗 柵城 유지를 반드시 渤海 東京龍原府(柵城府)의 관할지역 안에서만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방 교수의 견해 중에는 그 기초부터 ‘史實無根’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말해 준다.

2) 『新唐書』渤海傳의 관련기사에 대한 方 교수의 견해

방 교수는 『新唐書』渤海傳의 “濊貊故地爲東京 曰龍原府 亦曰柵城府 領慶 鹽 穆 賀四州”를 분석하고, 우선 渤海의 東京은 지금의 琿春 八連城에 해당한다는 것을 긍정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柵城府, 龍原府는 서로 연계되고 같은 지역 내에 있는 것이었으므로 柵城(高句麗 柵城-필자)의 유지는 반드시 東京龍原府 자리, 즉 八連城을 중심으로 한 그 주변에서 찾아야 되지 東京龍原府의 관할지역 밖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³⁸⁾고 주장하였으며, 그렇게 하지 않은 필자의 견해는 ‘오류’라고 지적하였다.

37) 朴眞奭, 1994, 앞의 글, 11~19쪽.

38) 方學鳳, 1998, 앞의 글, 8, 19쪽.

보건대 방 교수의 이런 견해(柵城府와 龍原府는 서로 연계되고 같은 지역 내에 있는 것이었다는 점)는 우선 상술한 『新唐書』 渤海傳 기록의 후반부, 즉 “東京日龍原府 亦曰柵城府”만 중시하고 그 기초가 되는 앞부분, 즉 “濊貊故地(실제상 北沃沮故地-필자)爲東京”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내려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만약 이런 판단이 틀리지 않는다면, 방 교수의 견해는 『新唐書』 渤海傳의 “濊貊故地爲東京 日龍原府 亦曰柵城府”를 단편적으로 분석한 데에 기초하여 얻어진 잘못된 견해라고 말할 수 있다.

필자는 高句麗 柵城 유지는 마땅히 渤海 東京龍原府(柵城府)의 관할지역으로 인정되는 琿春 지역에서 찾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 기초가 되는 北沃沮故地(『新唐書』 渤海傳에서는 濊貊故地라고 썼다)에 해당하는 琿春과 延吉을 포함한 延邊과 북한의 咸鏡道 등지를 포함한 보다 넓은 지역에서 찾아야 옳다고 본다. 이렇게 하는 것만이 상술한 『新唐書』 渤海傳의 관련기사(濊貊故地爲東京 日龍原府 亦曰柵城府)를 전면적이며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방 교수 등이 高句麗 柵城 유지는 渤海 東京龍原府(柵城府)의 “관할지역 밖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다른 한 가지 이유는 高句麗 柵城과 渤海 柵城府(東京龍原府)의 명칭이 동일하다는 점에 있다. 물론 이것은 일정하게 타당한 면이 있다. 왜냐하면 한 지방의 명칭이 高句麗에서 渤海 시기에 이르기까지 계속 변하지 않고 원명 그대로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高句麗 柵城 유지를 고증하기 전에 먼저 渤海 柵城府(東京龍原府)의 유지를 해명하는 이유인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高句麗 柵城 유지와 渤海柵城府 유지 간의 일치성을 지나치게 강조할 것이 아니라, 마땅히 양자 사이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옳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三國史記』 高句麗本紀에 따르면 太祖王 “四十六年(98년-필자)春三月 王東巡柵城 ……”³⁹⁾이라는 기록이 나오는데, 이것은 高句麗 柵城이 역사무대에

39) 『三國史記』 권15, 高句麗本紀3, 太祖王 46년조, 50년조.

등장한 첫 시작이다. 그로부터 渤海 東京龍原府, 즉 柵城府가 등장하기까지는 적어도 60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으며 나라도 교체되는 큰 변혁(高句麗~渤海)이 일어났다. 또 우리가 말하는 高句麗 柵城 유지는 高句麗 동(북)부 변계에 해당하는 柵城의 행정관리구역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통치의 중심을 말하며, 渤海의 柵城府(東京龍原府) 유지도 역시 柵城府의 전체 행정관리구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통치중심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토록 오랜 역사의 흐름 속에서, 나라도 서로 교체되는 대변혁 속에서, 유독 柵城의 통치 중심만은 변하지 않고 줄곧 한곳에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일부 고서들의 기록에 따르면 양자 사이에는 이미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魏書』高句麗傳에 高句麗는 “東至柵城 南至小海 北至舊夫餘”⁴⁰⁾라고 기록하였다. 여기서 주목을 끄는 것은 高句麗의 남쪽은 바다(小海)에 이르렀다고 기록하면서도 동쪽은 바다와 연계시키지 않고 오히려 柵城에 이르렀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柵城은 비록 高句麗의 동(북)부 변계이긴 하지만 적어도 그 통치중심은 바다와 비교적 멀리 떨어진 곳에 자리잡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新唐書』渤海傳의 기록에 따르면, “龍原東南瀕海 日本道也”⁴¹⁾라고 하여 渤海 柵城府(東京龍原府)의 동남쪽 멀지 않은 곳에 곧 바다가 있으며, 또 바로 그곳에 日本으로 통하는 항구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한다.

상술한 사실은 高句麗 柵城 유지(통치중심)와 渤海柵城府 유지(통치중심) 사이에는 그 위치가 이미 변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증거가 될 가능성이 많다. 그 밖에 일부 고서 중에는 ‘南柵城’이란 명칭이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 柵城 유지의 변화과정을 반영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다. 이미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방 교수는 渤海의 東京龍原府(柵城府)의 유지는 오늘의 琿春 八連城

40) 『魏書』 권100, 列傳88, 高句麗傳.

41) 『新唐書』 권219, 北狄, 渤海傳.

에 해당한다는 종래의 전통적인 견해에 동의하면서, 高句麗 柵城 유지는 반드시 琿春 “八連城을 중심으로 한 그 주변에서 찾아야 되지” 그 밖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 교수의 견해대로라면 이런 것들은 움직일 수 없는 定論인 것처럼 되어 있다.

그러나 객관적인 현실은 결코 그런 것만은 아니다. 오늘날 일부 학자들은 渤海 東京龍原府(柵城府) 유지에 대한 琿春 八連城說을 부정하고, 새로이 북한 咸鏡北道 淸津 부근에 있는 富居里城說을 제기하고 있다.⁴²⁾

그들의 견해 중에서 특별히 주목을 끄는 것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渤海는 존재하는 전 기간에 30여 차례에 걸쳐 東京龍原府를 떠나 바다를 건너 日本과 내왕하였다. 그 가운데서 10여 차례는 11월부터 다음 해 1월 사이에 日本의 항구에 도착(渤海에서 日本에 가는 항해 기간은 당시의 여건에서 보통 1~2주일 정도였다)하였는바, 그의 출항 시기도 모두 겨울철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해양기상 자료에 의하면 오늘의 咸鏡北道 先鋒郡(雄基-필자)과 그 이북 연해는 겨울철에 바닷물이 얼기 때문에 배가 다닐 수 없고 바닷물이 얼지 않는 羅津港과 그 이남지역에서만 겨울철에 배가 떠날 수 있다”⁴³⁾고 한다.

만약 이런 판단이 지금으로부터 1200여 년 전의 渤海 시기에도 부합된다면, 우리의 보다 큰 관심을 끌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왜냐하면 渤海 東京龍原府(柵城府)가 오늘의 琿春 八連城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학자들은 모두 渤海 사람들은 그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동남쪽 70華里 지점)에 놓여 있는 지금의 러시아 포시에트만(波謝特灣)에서 배를 타고 日本에 내왕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지도를 펼쳐 놓고 보면 비교적 쉽게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러시아의 포시에트만은 북한의 先鋒郡(雄基)보다 훨씬 북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 바닷물이 얼게 되어 배가 떠날 수 없다는 것은 매우 분명한 일이다. 그러

42) 채태형, 1990, 「발해 동경룡원부-훈춘 팔련성설에 대한 재검토」, 『력사과학』 제3호, 사회과학출판사, 49~50, 54쪽; 사회과학원, 2002, 『동해안 일대의 발해유적에 대한 연구』, 도서출판 중심, 211~215쪽.

43) 채태형, 1990, 위의 글, 50쪽.

나 淸津 부근의 부거리는 부동항인 羅津보다도 70華里 가량 더 남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겨울에 바닷물이 얼 이유가 없으며, 따라서 배도 마음대로 출항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밖에 부거리는 渤海 上京龍泉府(오늘의 寧安)의 동남쪽에 위치해 있으며, 또 그 동남쪽은 곧 바다이기 때문에 日本 내왕에도 매우 편리하다. 이것은 渤海 東京龍原府에 관한 『新唐書』 渤海傳의 관련기사(天寶末, 欽茂徙上京, …… 貞元時, 東南徙東京, …… 龍原東南瀕海, 日本道也)⁴⁴와도 매우 잘 부합된다는 것을 알게 한다.

상술한 상황으로 보아 일부 학자들이 주장하는 “渤海 東京龍原府-琿春 八連城說”에 대한 재검토 작업은 물론 앞으로 계속 깊은 조사와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런 ‘재검토’ 작업은 高句麗 柵城 유지는 반드시 渤海 東京龍原府(柵城府) 유지, 즉 琿春 “八連城을 중심으로 한 그 주변에서 찾아야 한다”고 하는 방 교수의 견해에 대하여 엄중한 도전이 된다. 또 만약 이런 ‘재검토’가 옳다고 본다면, 상술한 바와 같은 방 교수의 견해는 사실상 존재할 수 있는 기초를 완전히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지금 학계에 엄연히 존재하는 객관적 현실이다. 그런데 방 교수는 자신의 논문(「高句麗 柵城의 위치에 대한 고찰」)에서 이런 상황에 대하여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사람들에게 아쉬움을 남겨주고 있다.

Ⅲ. 李宗勳 교수의 「高句麗 柵城유적에 관한 辨釋」에 대한 비판 -北沃沮 영역을 중심으로-

1999년에 李宗勳 교수는 高句麗 柵城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여 高句麗 柵城 유지는 延吉 부근의 城子山山城·土城村土城·興安古城이 합쳐서 이루어졌다

44) 『新唐書』 권219, 北狄 渤海傳.

는 필자의 견해를 부정하고, 琿春 溫特赫陪城이 곧 그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제기한 바 있다. 이 교수는 최근(2005. 10)에 이르러 이전의 논문을 약간 수정하면서 역시 필자와 더불어 의견을 교류하기를 제안하였다.⁴⁵⁾

보건대 高句麗 柵城 유지에 관한 이 교수의 견해는 큰 틀에서 볼 때 방 교수의 견해와 비슷한 점이 많다. 이에 필자는 서술의 중복을 피하고 또 지면의 한계를 고려하여, 여기서는 양 씨의 견해가 서로 다르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해 언급하는 데 그치려고 한다.

1. 北沃沮의 영역에 대한 이 교수의 견해

두 차례에 걸친 이 교수의 논문에서 우선 필자의 주목을 끄는 것은 곧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필자는 ‘濊貊故地爲東京’ 기사를 ‘北沃沮故地爲東京’으로 해석하는 견해에 대해서는 동감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해석을 柵城 유적이 延吉 일대에 위치하였다는 주장의 논거로 간주하는 점에 대해서는 수긍하기 어렵다.”⁴⁶⁾

보건대 이 교수가 이와 같이 인정하는 데에는 주요하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다. 첫째는 高句麗 柵城 유지는 반드시 渤海 東京龍原府(柵城府)의 관할범위 내에서 찾아야 하는데, 延吉 지역은 渤海 中京顯德府의 관할지역에 속하기 때문에 여기서 高句麗 柵城 유지를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둘째는 延吉 지역은 北沃沮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이유 중에서 첫 번째 이유는 실제상 방 교수의 견해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비교적 상세하게 논술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중복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두 번째 이유는 이 교수의 단독 견해로서 방 교수의 그것과 다르다. 그러나 필자는 이미 위에서 北沃沮의 위치

45) 李宗勳, 1999, 「也談高句麗 柵城遺址」, 『延邊大學歷史系建立50周年紀念史學論叢』, 延邊大學出版社, 81~90쪽; 李宗勳, 2005, 「高句麗 柵城 유적에 관한 辨釋」, 『고구려 문화의 역사적 의의』, 高句麗研究財團, 377~398쪽.

46) 李宗勳, 2005, 위의 글, 392쪽.

에 대해 논술한 바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양자가 서로 중복되지 않는 데에 주의하면서 적당히 서술하기로 한다.

延吉 지역은 北沃沮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문제와 관련하여 이 교수는 “琿春은 豆滿江 하류일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北沃沮의 영역범위에 속하겠으나 延吉 지역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적어도 延吉 일대는 北沃沮의 주요 활동지역은 아니었다고 말할 수 있다”⁴⁷⁾고 하였다.

보건대 이 교수의 이런 견해는 역사적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다.

첫째, 『後漢書』 등에 따르면 “東沃沮, …… 北與挹婁 夫餘 …… 接”⁴⁸⁾이라는 기록이 있다. 이미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여기서 ‘東沃沮’ 중에는 ‘北沃沮’까지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의 문장은 실제상 北沃沮 “北與挹婁 夫餘 …… 接”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오늘날 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夫餘는 지금의 吉林과 長春을 포함한 松花江 중류 일대와 그 이북의 넓은 지대에서 발전한 것으로 인정하며, 挹婁는 그 동쪽인 지금의 黑龍江省 寧安 일대를 포함하여 동쪽으로 바다에 이르기까지의 넓은 지역에 존재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제 지도를 펴놓고 보면, 곧 다음과 같은 상황을 알 수 있다. 北沃沮가 북쪽으로 挹婁 및 夫餘와 경계를 접하였다는 것은 그 영역이 豆滿江 하류지역인 琿春 일대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豆滿江 중류지역에 해당하는 延吉 일대는 물론이고 그보다도 훨씬 서쪽에 이르는 넓은 지역까지도 모두 北沃沮 영역에 포함되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한다.

이미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北沃沮 영역은 실제상 지금의 延邊 전체 지역이거나 심지어 그보다도 더 넓은 지역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만약 이 교수가 말한 바와 같이 北沃沮가 豆滿江(圖們江) 하류지역인 琿春 일대에만 국한되어 있었다면, 그것은 다만 挹婁와 접경할 수 있을 뿐 결코 夫餘와는 경계를 접할 수 없었을 것이다.

47) 李宗勳, 2005, 앞의 글, 392쪽.

48) 『後漢書』 권85, 東夷 東沃沮傳; 『三國志』 권30, 魏書 권30, 東夷 東沃沮傳.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다. 『吉林通志』에는 “北沃沮則爲今琿春全境”이라는 기록이 있다.⁴⁹⁾ 이 기록 중의 ‘今琿春全境’은 결코 오늘(2006. 1)의 琿春市 ‘全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淸王朝 시기 『吉林通志』를 편찬할 당시(光緒 21년, 1886년)의 상황을 가리킨다는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일부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당시 延邊은 琿春協領의 관할하에 놓여 있었는데, “북쪽은 老爺嶺, 남쪽은 豆滿江(圖們江), 동쪽은 동해, 서쪽은 哈爾巴嶺에 이르는” 범위 내에 놓여 있음으로써 오늘 “延邊 지역의 安圖와 圖們, 그리고 琿春과 러시아의 沿海州 일대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한다.⁵⁰⁾ 만약 이런 판단이 틀리지 않는다면, 『吉林通志』의 편자가 쓴 北沃沮 영역(“北沃沮則爲今琿春全境”)은 결코 오늘의 圖們江 하류지역에 해당하는 琿春市 境內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琿春과 延吉을 포함한 延邊의 대부분 지역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한다.

둘째, 北沃沮의 영역이 圖們江 하류지역인 琿春 지역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보다 넓은 지역이 포함된다는 것은 고고학적으로도 훌륭히 증명된다. 『연변문화유물략편(延邊文物簡編)』에는 “北沃沮인들의 활동구역은 延邊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비교적 넓었다. 다량의 고고학적 자료가 입증하는 바, 北沃沮인들은 북쪽의 興凱湖에서 남쪽의 도문강(豆滿江을 가리킨다-필자) 유역, 동쪽의 東海(필자) 서쪽 기슭에서 서쪽의 張廣才嶺에 이르는 광활한 지역에 발자취를 남겼다. 그 가운데서도 도문강(豆滿江) 유역과 綏芬河 유역에 남긴 문화유적이 상대적으로 집중되고 풍부한바 이곳이 北沃沮인들의 활동중심 지였음이 분명하다”⁵¹⁾고 하였다. 이 책에는 또 ‘北沃沮인들의 문화유적’ 분포 상황에 대하여 지역별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는데, 거기에는 “1. 琿春江 유역, 2. 伽椰河 유역, 3. 도문강(豆滿江) 유역, 4. 布爾哈通河 유역, 5. 海蘭江 유역, 6. 綏芬河 유역, 7. 二道松花江 유역”⁵²⁾과 같은 지역들이 포함되어

49) 『吉林通志』 권10, 沿革志1, 沃沮조.

50) 鄭永振·嚴長錄, 2000, 『延邊古代簡史』, 延邊大學出版社, 43쪽.

51) 연변박물관 『연변문화유물략편』 집필소조, 1989, 앞의 책, 57쪽.

52) 연변박물관 『연변문화유물략편』 집필소조, 1989, 앞의 책, 60~66쪽.

있다.

이러한 서술은 연변에서 수십 년 동안 주로 고고문화사업에 종사하여 온 延邊博物館의 전문가들에 의하여 편찬되었다는 데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 이에 따르면 北沃沮인이 남겨 놓은 문화유적은 琿春 지역을 흐르는 琿春江 유역에만 분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延吉市를 관통하는 布爾哈通河 유역과 그보다 더 서쪽에 위치해 있는 海蘭江 상류 및 圖們江 중류 유역에 속하는 和龍市 南坪 지역에도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그 밖에 또 이 책에는 北沃沮인들의 문화유적은 老爺嶺과 哈爾巴嶺, 심지어 黑龍江省的 張廣才嶺에 이르기까지의 넓은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우리의 보다 큰 주목을 끌지 않을 수 없다.

상술한 상황은 “琿春은 豆滿江 하류 일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北沃沮의 영역범위에 속하겠으나 延吉 지역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이 교수의 견해는 역사적 사실과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

이미 앞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이 교수는 『新唐書』 渤海傳의 “濊貊故地爲東京”을 “北沃沮故地爲東京”으로 바꾸어 놓아야 옳다고 보는 필자의 견해에 ‘동감’을 표하면서도, 그것은 결코 高句麗 “柵城 유적이 延吉 일대에 위치하였다는 주장의 논거”로는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는 바, 그의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곧 延吉 지역은 北沃沮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상술한 바와 같은 필자의 판단이 틀리지 않는다면, 北沃沮 영역 중에는 확실히 延吉 지역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필자는 이런 정황에 대하여 이 교수도 한번쯤은 더 고려해 볼 것을 희망한다.

2. 『魏書』 高句麗傳의 ‘東至柵城’에 관한 李 교수의 견해

필자는 「高句麗柵城遺址再考」에서 『魏書』 高句麗傳의 ‘東至柵城’을 분석하면서 “이것은 우선 柵城이 高句麗 동(북)부 지역에서 정치·군사적으로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하나의 名城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또 …… 高句麗 柵城은 비록 변경지역이긴 하지만 바닷가에 있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바다와 적지 않게 떨어져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한다”⁵³⁾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 교수는 “朴眞奭의 이해와 서로 다르다”고 하면서 李敖의 말 중에 나오는 “東至柵城”을 이해함에 있어 자신의 견해를 몇 가지 제기하였다. 그중에서 우선 주목을 끄는 것은 “만약 柵城이 延吉 일대에 있었다고 인정한다면 그 당시 柵城은 高句麗의 동쪽 변계가 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것은 延吉 동남쪽에 아직 상당히 넓은 高句麗의 영역이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 따라서 柵城으로 高句麗의 東界를 표시한다면 延吉 동남쪽의 상당히 넓은 면적의 영역은 그냥 지나치게 되는데 이는 불가능한 것이다”⁵⁴⁾고 말한 것이다.

보건대 이 교수의 이런 견해는 여러 고서들의 기록 중 한 나라와 그 수도, 혹은 한 민족이나 지방과 그 통치중심이 왕왕 같은 명칭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에 대하여 제대로 중시하지 못한 결과인 것 같다.

예를 들면, 『後漢書』에는 “夫餘國 在玄 北千里”라고 기록하였으며 『三國志』에는 “夫餘 …… 去玄 千里”라고 기록하고 있다.⁵⁵⁾

위의 기록 중에 나오는 ‘夫餘國’ 혹은 ‘夫餘’는 물론 한 나라의 명칭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오히려 국가 명칭보다는 그 수도를 가리키며, ‘玄’도 역시 주요하게 그 치소를 가리키는 것이다. 따라서 위의 기록은 당시 玄 郡의 제3 치소로 보이는 지금의 瀋陽이나 撫順 부근에서 북쪽으로 1천 리 가량 떨어진 곳에 夫餘國의 수도가 있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만약 우리가 당시 夫餘의 수도를 지금의 吉林市 부근에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수도에서 다시 북쪽으로 수백 리, 심지어 수천 리나 더 가서야 비로소 夫餘의 북쪽 변계인 弱水(嫩江설, 松花江설, 黑龍江설 등이 있다)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로부터 우리는 고서에 나타나는 ‘夫餘國’, 혹은 ‘夫餘’는 정황에 따라서는 그 수도를 지칭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3) 朴眞奭, 1994, 앞의 글, 40~41쪽.

54) 李宗勳, 2005, 앞의 글, 393쪽.

55) 『後漢書』 권85, 東夷 夫餘國傳; 『三國志』 권30, 魏書 권30, 東夷 夫餘傳.

이런 상황은 高句麗 柵城에 관한 고서들의 기록에서도 표현되고 있다. 먼저 몇 가지 관련 내용을 적으면 다음과 같다.

- ① 『魏書』 高句麗傳, 高句麗, “東至柵城 南至小海 北至舊夫餘.”⁵⁶⁾
- ② 『三國史記』 高句麗本紀, 東明王, “十年(기원전 28년-필자) …… 王命扶尉狷 伐北沃沮 滅之 以其地爲城邑.”⁵⁷⁾
- ③ 『三國史記』 高句麗本紀, 太祖王, “四十六年(기원 98년-필자)春三月 王東巡柵城 與群臣宴飲 賜柵城守吏物段有差 遂記功於岩 乃還.”⁵⁸⁾

위의 기록 ② 『三國史記』 東明王 10년조에 따르면 기원전 28년에 이르러 高句麗는 北沃沮를 멸망시키고 그 영역으로서 ‘城邑’을 삼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이 기사에 대하여 오늘날 학계에는 서로 다른 견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을 끄는 것은 전체 北沃沮의 영역으로서 高句麗의 城邑을 삼았는데, 바로 이 城邑이 곧 高句麗의 柵城에 해당될 가능성이 많다는 점이다.

『三國志』에는 “北沃沮 一名置溝婁”라고 했으며, 같은 책 高句麗傳에는 “溝婁者 句麗(高句麗-필자)名城也”라 하고 있다. 바로 이를 근거로 일부 학자들은 “置溝婁”를 “置城”으로 해석하고, 또 “置城”과 “柵城”의 발음과 내용이 거의 완전히 같다는 데서 양자를 밀접히 연계시키고 있는 바, 이런 사실은 상술한 견해(北沃沮 영역=高句麗 城邑=柵城)가 옳다는 것을 증명해 줄 가능성이 많다. 만약 이런 판단이 틀리지 않는다면, 위의 기록 ①과 ②에 나오는 ‘柵城’은 그 문장구조로 보나 내용으로 보아 高句麗의 동(북)부 변경지대에 해당하는 행정관리 구역을 가리킨다는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위의 기록 ③에 나오는 ‘柵城’은 비록 그 명칭은 같지만 구체적인 서술 내용으로 보아, 결코 北沃沮 전체에 해당하는 행정관리 구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중의 한 지점, 즉 통치

56) 『魏書』 권100, 列傳 58, 高句麗傳.

57) 『三國史記』 권13, 高句麗本紀1, 東明王 10년조.

58) 『三國史』 권15, 高句麗本紀3, 太祖王 46년조.

중심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역시 행정관리 구역으로서의 ‘柵城’과 그 통치중심으로서의 ‘柵城’이 같은 명칭(柵城)으로 혼용되고 있는 실례가 되기에 손색이 없다.

필자가 高句麗 柵城 유지는 延吉 부근의 城子山山城·土城村土城·興安古城이 합쳐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은 그 내용에서 밝혀지는 바와 같이 高句麗 柵城의 통치중심이 延吉 부근에 있는 3개 古城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결코 오늘의 琿春을 포함한 北沃沮의 전체 영역이 高句麗 柵城의 행정관리 구역에 포함된다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따라서 양자 사이에는 아무런 모순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만약 이런 판단이 틀리지 않는다면, 李敖가 말한 高句麗 ‘東至柵城’에 대한 이 교수의 견해(만약 柵城이 延吉 일대에 있었다고 인정한다면 그 당시 柵城은 高句麗의 동쪽 변계가 될 수 없다. 그것은 延吉 동남쪽에 아직 상당히 넓은 高句麗의 영역이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는 과학적 근거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역사적 사실에도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이 교수는 또 같은 곳에서 “柵城이 東海와 가까운 琿春 일대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東至柵城’의 의미는 동쪽으로 東海에 이른다는 뜻과 같으며 ‘龍原瀕海’와도 같다”라고 썼는데 역시 납득되지 않는다. 보전대 이런 견해는 사람들에게 객관적 사실과 결론의 관계를 전도시킬 가능성도 없지 않다.

3_ 이른바 柵城 명칭의 유래에 관한 李 교수의 견해

이 교수는 자신의 논문 세 번째 부분에서 “이 ‘柵城’의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柵城은 돌과 흙으로 쌓은 성은 아니고 대량의 木柵을 세워 방어와 건설을 주요 목적으로 한 성이다. …… 高句麗 역사에서 보면 목책을 세운 성은 아주 적다. 유독 책성만 이와 같은 독특성이 있다. …… 목책을 세워 방어기능에 사용하였다는 자체는 柵城과 같은 城邑이 산성이 아니고 평지성이었음을 말하여 준다. …… 濇特赫部城에서 목책을 세웠던 것과 같은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성의 남쪽 성벽 중앙부분에 우묵하게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목책을 세운 부분으

로 보인다”⁵⁹⁾고 하였다.

보건대 이 교수의 이런 견해는 모순이 많아 사람들을 설득시키기 어렵다.

이미 앞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이 교수는 高句麗 柵城은 ‘목책을 세워’ 만든 성인데, 高句麗에서는 ‘유독 柵城만 이와 같은 독특성’을 갖고 있는 “平地城이었음을 말하여 준다”고 인정하였다. 그런데 이 교수는 이와 같은 柵城의 ‘독특성’이 형성된 원인을 高句麗 자체 내에서 찾지 못하였는 바, 이것은 확실히 큰 모순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三國史記』에 실려 있는 新羅 逸聖王 7년조에 “立柵長嶺 以防鞞鞞”이라는 기록과 百濟 仇首王 4년조에 실려 있는 “設二柵於沙道城側 …… 分赤峴城卒 戍之”⁶⁰⁾라는 기록에 의거하여, 高句麗 柵城의 ‘독특성’이 형성된 원인을 설명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상술한 두 기록은 사실상 ‘立柵’, 혹은 ‘設二柵’에 그침으로써 거기에는 城으로 삼았다(爲城)는 내용이 없는 것이다. 또 위의 기록 중 ‘設二柵’과 沙道城 및 赤峴城 등 ‘二城’이 구별되게 서술된 것도 주목할 만한 일이다.

그 밖에 『後漢書』 段穎傳에는 “乃遣千人於西縣結木爲柵 廣二十步 長四十里 遮之”⁶¹⁾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와 같은 큰 규모의 木柵 시설에서도 그것을 城으로 삼았다(爲城)는 내용이 없다는 사실이 주목을 끈다. 여기서 또 ‘遮之’는 비록 ‘가리우다·막다·차단하다’ 등의 뜻으로 풀이되지만 그것이 꼭 ‘城’과 관련된다고 인정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⁶²⁾

물론 『後漢書』 夫餘國傳에는 “以員柵爲城 有宮室 倉庫 牢獄”⁶³⁾이란 구절이 있는데, 이것은 목책을 세워 성을 삼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後漢書』

59) 李宗勳, 2005, 앞의 글, 394~395쪽.

60) 『三國史記』 권1, 新羅本紀1, 逸聖王 7년조; 『三國史記』 권24, 百濟本紀2, 仇首王 4년조.

61) 『後漢書』 권65, 段穎傳(中華書局, 1965년판, 2152~2153쪽).

62)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詞典編輯室, 1980, 『現代漢語詞典』, 商務印書館, 1448쪽; 『漢鮮文新玉篇』 下卷, 漢城 寶文館編輯部 著, 167쪽; 昭和 54년, 『新解明國語辭典』(第二版), 東京:三省堂, 416쪽.

63) 『後漢書』 권85, 東夷 夫餘國傳.

보다 먼저 출판한 『三國志』 夫餘傳에서는 같은 사실에 대하여 “作城柵皆員，有似牢獄”⁶⁴⁾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일부 학자들은 “『三國志』에서는 ‘作城柵皆員’이라 하여 城과 柵을 구별하고 있으며, 단지 그 모양이 등글다. 따라서 『後漢書』의 柵을 등글게 쌓아 성을 만들었다는 것(以員柵爲城-필자)은 『三國志』의 축약 과정에서 잘못 표기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는데 일리가 있는 것 같다.⁶⁵⁾

보건대 고대 사회에서 목책을 세워서 적의 침입을 방어하는 데 사용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시설이 꼭 城(平地城 혹은 山城)의 개념으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하여서는 앞으로 계속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특히 高句麗 柵城이 곧 이런 목책을 세워서 만든 城이었다는 데 대해서는 그 명칭(柵城)의 뜻을 고려하였을 수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아무런 근거도 찾을 수 없는 것이다. 이 교수가 濛特赫部城의 “남쪽 성벽 중앙 부분에 우묵하게 들어간 부분”을 근 2000년 이전의 高句麗 사람들이 “목책을 세웠던 것과 같은 흔적”이라고 본 것은 더구나 사람들을 설득시키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IV.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본 견해 차이는 구체적으로 高句麗 柵城 유지가 琿春 濛特赫部城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가, 아니면 延吉 부근의 城子山山城·土城村土城·興安古城이 한데 합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하는가에 따라 표현된다. 이런 상황에서 필자는 高句麗 柵城 유지에 있을 수 있는 특징에 비추어 두 성을 비교·고찰하는 방법으로 맺음말을 대신하려 한다.

64) 『三國志』 권30, 魏書 권30, 東夷 夫餘傳.

65) 國史編纂委員會, 1987, 앞의 책, 132쪽.

첫째, 한곳에 평지성과 산성을 함께 구축하는 것은 高句麗 축성법의 현저한 특징이다. 그런데 濛特赫部城은 瑠春 평원에 있는 평지성(土城)으로서 부근에 산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城子山山城·土城村土城·興安古城은 한곳에 평지성과 산성이 함께 구축되어 있음으로써 상술한 바와 같은 高句麗 축성법의 특징에 매우 잘 부합된다.

둘째, 柵城은 高句麗의 동(북)부 변경지대에서 정치적·군사적 중심을 이루는 ‘大城’임에 틀림없다. 98년에 高句麗 太祖王이 친히 이곳을 방문하였다는 사실은 이런 견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 그런데 濛特赫部城은 성벽의 둘레가 2,200여 m밖에 되지 않는 비교적 작은 토성이다. 따라서 이 성은 高句麗 동(북)부 변경지대에서의 정치적·군사적 중심으로 되기에는 미흡한 점이 없지 않다. 그러나 城子山山城·土城村土城·興安古城을 한데 합한 성벽의 총 길이는 7,200여 m에 이른다. 그중에서도 산성은 수백 m나 되는 높은 산 위에 크고 작은 돌로 쌓은 ‘石城’으로 되어 있으며 둘레의 길이는 4,400여 m에 이르는 큰 城인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성들은 그 규모가 크고 또 한곳에서 평지성과 산성이 함께 구축되어 있는 高句麗 축성법의 특징에도 잘 부합되는 것으로서, 瑠春과 延吉을 포함한 延邊 지역과 심지어 북한의 咸鏡道 등지까지 포함한 보다 넓은 지역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는 데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

셋째, 『新唐書』 渤海傳의 “濊貊故地(北沃沮故地-필자)爲東京 日龍原府 亦曰柵城府”에 따르면, 高句麗 柵城 유지는 마땅히 渤海 東京龍原府(柵城府)의 관할지역 내에서 찾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北沃沮故地를 포함한 보다 넓은 지역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한다.

그런데 高句麗 柵城 유지는 瑠春 濛特赫部城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학자들은 실제상 『新唐書』 渤海傳의 후반부(…… 東京 日龍原府 亦曰柵城府)에만 의거하고, 그 전반부[濊貊故地(北沃沮故地-필자)爲東京]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그들은 高句麗 柵城 유지는 반드시 渤海 東京龍原府(柵城府)의 관할구역 안에서 찾아야지 그것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런 견해는 역사의 실제 사실과 부합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高句麗 柵城 유지는 延吉 부근의 城子山山城·土城村土城·興安古城이 합하여 이루어졌다고 보는 견해는 『新唐書』 渤海傳의 후반부에만 의거한 것이 아니라, 그 전반부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高句麗 柵城 유지는 渤海의 東京龍原府(柵城府)의 관할범위 안에서 찾아야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北沃沮 故地를 포함한 보다 넓은 지역에서 찾아야 한다고 본다. 이런 견해는 역사적 사실에 부합될 가능성이 보다 더 많은 것이다.

넷째, 일부 문헌기록에 따르면 高句麗 柵城 부근에는 산과 바위들이 있으며 바다와는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었으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高句麗 太祖王이 柵城에 이르러 ‘遂記功於岩’하고 돌아왔다는 사실이나, 李敖가 高句麗의 邊界에 대하여 말할 때 “東至柵城 南至小海 ……”라고 한 구절이 있는 것 등은 이런 견해가 옳다는 것을 말해 준다.

溫特赫部城은 琿春 평원에 위치해 있음으로써 가까운 주변에 산이나 암석 같은 것이 없으며, 또 그로부터 가장 가까운 바다(러시아의 포시에트만)까지의 거리는 70華里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城子山山城·土城村土城·興安古城은 대체로 延吉 평원의 동쪽 끝에 위치해 있음으로써, 산 위에 있거나 혹은 가까운 부근에 산이 있으며 바다와의 거리는 거의 200華里에 이를 정도로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다.

상술한 상황은 城子山山城 등 후자는 전자(溫特赫部城)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高句麗 柵城에 관한 관련문헌들의 기록과 잘 부합된다는 것을 말한다.

다섯째, 柵城 유지에서 마땅히 高句麗 유물이나 渤海 시기의 유물들이 발견될 수 있는 것이다. 보건대 이 점에서 琿春의 溫特赫部城이나 延吉 부근의 城子山山城·土城村土城·興安古城 등이 다 같이 조건에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種類와 數量 등에서는 후자가 전자에 비하여 훨씬 더 많다는 점에 대하여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광복 후 수 년 동안 城子山山城 내에서 수집한 수백 닢의 古錢 중에는 秦漢 시기의 半兩錢(한 닢)도 섞여 있다. 또 유명한 고고학자인 李文信 선생의 감정에 따르면 여기서 보존상태가 완전한

漢式陶罐 1개가 출토되었는데, 이와 같은 점은 柵城에 “漢人一千餘家”를 안치하였다고 쓴 『三國史記·高句麗本紀』의 기록과 부합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상술한 일련의 사실은 高句麗 柵城의 유지는 결코 瑠春의 溫特赫部城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延吉 부근의 城子山山城·土城村土城·興安古城이 함께 합하여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ABSTRACT]

The Reconsideration on Koguryo Zhancheng Relics

Piao, Zhenshi

In 1985, the author published “the Reconsideration on Koguryo Zhacheng Relics”(高句麗柵城遺址). He denied the relics of Hunchun Baliancheng(琿春八連城) of today’s our country, that is, Balhaedongjinglongyuanfu(渤海東京龍原府) [it is called Zhachengfu(柵城府)]. At the same time he negated the traditional opinion of the academe that was affirmed to correspond to Koguryo Zhacheng Relics. And he newly put forward the view that the relics of Koguryo Zhacheng would be built, Chengzishanshancheng(城子山山城) was combined with Tuchengcuntucheng(土城村土城) (Later Xingangucheng(興安古城) was attached).

After that Fang Xuefeng(方學鳳) and Li Zongxun(李宗勛), and so on, professors denied that the author’s view and protested that Koguryo Zhacheng Relics belonged to the Wentehbucheng(溫特赫部城) near Hunchun Baliancheng.

It appears that this kind of different view that we produced, of course, would be able to have all kinds of reasons. However, among them the most important reason that we believed is that if we have different understanding about the related to the record of events of Xintangshu Balhae biography(新唐書·渤海傳), it seems as if we had different understanding of being affiliated with the region of Beiwoju(北沃沮). Setting out from the view, the article will bring

forward the author's preliminary opinion related to two problems, focusing on the latest article of Prof. Fang Xuefeng and Prof. Li Zongxun, and I'm going to discuss it with many readers myself.

一. Fang Xuefeng(方學鳳) : After Reading the Investigation about the Location of "Koguryo Zhacheng" (高句麗柵城)

The author has ever pointed out in the reconsideration on Koguryo Zhacheng relics that it is necessary for him to analyse that in Xintangshu Balhae biography there is such a sentence that the place where Huimo(濊貊) lived once was Dongjing, and said it was Longyuanfu, and said that it was also called Zhanchengfu("濊貊故地爲東京, 曰龍原府, 亦曰柵城府"). In fact, it was why the place where Huimo lived once didn't conform it, and so, of course, it would be replaced with the old site of Beiwoju. Therefore, the sentence mentioned above should be written "the place where Beiwoju lived once was Dongjing, and said it was Longyuanfu, and said that it was also called Zhachengfu. The author recognizes that it was right that the old Site of Koguryo Zhacheng should be found not only inside the jurisdiction of Balhaedongjinglongyuanfu but also in the wider region (including the place where Beiwoju lived once), which was its groundwork.

However, Prof. Fang claims that it was naturally and rationally formed because the region of today's Yanbian(延邊) was the place where Huimo lived once, the statements mentioned above in Xintangshu Balhae biography completely conformed the historical fact. And it was appropriate contents. The former name of Huimo had been formed before Beiwoju occupied it. According to his advice, Prof. Fang claims that the first half of Xintangshu Balhae biography(the

place where Huimo<Beiwoju> lived once was Dongjing) was neglected and while only be based on the last part (Dongjing, and said it was Longyuanfu, and said that it was also called Zhachengfu, the relics of Koguryo Zhacheng must be discovered inside the jurisdiction of Balhaedongjinglongyuanfu(Now it is the jurisdiction of Hunchun(琿春), without discovering outside the jurisdiction of Balhaedongjing-longyuanfu).

Prof. Fang's opinion does not conform with the matter of history. As a result, the jurisdiction of Balhaedongjinglongyuanfu(Now it is Hunchun is not the place where Huimo lived once. Obviously, that is why it is the place where Beiwoju lived once. The fact is that the historical materials of ancient books, which the old name of Huimo can be proved before Beiwoju occupied it, don't exist anywhere.

Prof. Fang recognizes that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record of events of the related to the history of Liao(遼史) · the records of geography(地理誌) (Kaiyuanxian(開遠縣) was the place of Zhacheng, Koguryo was the town of Longyuan(龍原), and Balhae was the same as Koguryo), we can know that the town of Longyuanxian(龍原縣) of the age of Koguryo is the same region as that of the age of Balhae and that it is in existence in the town of Longyuan of Zhacheng(柵城龍原縣). In a word, the Fang's advice doesn't also conform with the matter of history. It is why that was described as the inner region of the town of Kaiyuanxian and it is why the related to the affairs of the history of Liao · the records of geography, which upper limit was traced back to the age of Koguryo, are not completely right. Obviously, Prof. Fang set up the town of Koguryo Longyuan which doesn't exist in the area of today's Hunchun according to the wrong history of Liao · the records of geography, and it is regarded as the

reason that the relics of Koguryo Zhacheng existed.

In addition, Prof. Fang recognizes that the reason, which the relics of Koguryo Zhacheng must be discovered inside the jurisdiction of Balhaedongjinglongyuanfu, is that Koguryo Zhacheng is the same name as Balhae Zhachengfu(Dongjinglongyuanfu). But this kind of advice doesn't also persuade people. There is 800-year-old time difference between them, and the kingdom has been converted, and therefore, it is hard to recognize that the center of the rule of Zhacheng(柵城)has never been changed.

二. Li Zhongxun(李宗勛): After Reading the Discrimination about the Relics of Koguryo Zhacheng

As for Prof. Li's advice about the relics of Koguryo, when we see it from the largest range, there is much more similar points to the one of Prof. Fang. Under this circumstance, he'll enclose the problems, which are distinguished and recognized each other by the two people, to explain them. Prof. Li expresses his agreement with the author's advice that it was right for him to recognize that the place where Huimo lived once would be replaced by the place where Beiwoju lived once. However, he recognized that it was not enough that the relics of Koguryo Zhacheng(高句麗柵城) was discovered near today's Yanji(延吉). It is obvious that he has two important reasons.

Firstly, the relics of Koguryo Zhacheng must be discovered inside the jurisdiction of Balhaedongjinglongyuanfu(渤海東京龍原府). Because the region of Yanji(延吉) belongs to Balhaexiandefu(渤海顯德府), it is wrong that the relics of Koguryo Zhacheng were discovered here.

Secondly, the region of Yanji doesn't include in the region of

Beiwoju(北沃沮). I don't repeat the first reason here, because I have specified it above during the analysis of Prof. Fang's advice. The second reason, that is, what the region of Yanji doesn't include in the region of Beiwoju doesn't also conform with the real fact of history. As a result, Beiwoju doesn't belong to the region of Hunchun of the lower reacher of Doumanjiang(豆滿江) and while it belongs to the whole district of today's Yanbian(延邊), including Hunchun(琿春) and Yanji(延吉), and even it includes the wider region than it. It will be proved not only in the recordation of many ancient books but also according to the archaeological remains, and today it is fact that many scholars in our country admit it.

Prof. Li also points out that if the relics of Koguryo Zhacheng exist near Yanji, it doesn't conform with the recordations of ancient books which are written Koguryo "Dongzhi Zhacheng(高句麗 "東至柵城") (It is why there were a lot of jurisdictions of the Koguryo in the southeast of Yanji). And also he protested that Zhachng(柵城) was a city which was built with MuZha(木柵), and that the concave part of the central part of the southern rampart in the Hunchun Baliancheng(琿春溫特赫部城) was the trace that the people of Koguryo built MuZha. It is obvious that it is hard for these suggestions to persuade people.

All the facts that are discoursed above can be proved that the relics of Koguryo Zhacheng(高句麗柵城) denied the traditional opinions of the academe, which was confirmed to belong to Hunchun Baliancheng. As a result, the author's advice that is recognized that Chenzishanshancheng(城子山山城), Tuchengcuntucheng(土城村土城), Xingangucheng(興安古城) near Yanji(延吉) are recombined together is not fault. On the contrary, it is the sound one that is combined with

the matter of history.

keywords

Koguryo, Zhacheng, Koguryo Zhacheng, Balhae, Baliancheng, Wentehebucheng, Chengzishanshancheng, Tuchengcuntucheng, Xingangucheng



광개토왕대 永樂 연호와 佛敎

조경철 | 연세대학교 사학과 강사

I. 머리말

백제 불교에 관한 글을 쓰면서 사료가 부족하여 고구려나 신라의 불교를 많이 참조하고 비교하게 된다. 그 가운데 특히 백제 불교를 수용한 침류왕의 아들인 아신왕이 ‘불법을 믿어 복을 구하라’란 교서를 내리고 있는데, 바로 그 즈음 똑 같이 고구려에서도 ‘불법을 믿어 복을 구하라’는 교서를 내리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아신왕이 교서를 내린 해는 392년 12월이었고¹⁾ 고구려는 392년 3월이었다.²⁾

백제의 불교수용은 침류왕 원년 마라난타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이듬해에 절을 세우지만 침류왕은 재위 2년도 채우지 못하고 죽는다. 다음 왕위는 아들 아신왕에 넘어가지 않고 동생인 진사왕에게 뺏기다시피 넘어간다. 그러나 진

1) 阿莘王即位 太元十七年二月下教崇信佛法求福(『三國遺事』興法 難陀闢濟). 원문의 2월은 12월의 오키로 보인다.

2) 崇信佛法求福(『三國史記』卷18, 高句麗本紀, 故國壤王 9年).

사왕은 사냥 도중 죽음을 맞이하고 왕위는 침류왕의 아들 아신왕으로 이어진다. 아신왕은 즉위한 다음 달 ‘불법을 믿어 복을 구하라’란 교서를 내리고 그 다음 달인 정월에 동명묘를 배알하고 남단에서 천지에 제사를 지낸다. 전지를 태자로 책봉하고 기존의 진씨 왕비족에 대신하여 해씨 태자비를 간택하는 등 일련의 정치개혁을 단행하면서 고구려 광개토왕에 맞서 나갔다.³⁾ 아신왕의 이러한 조치의 출발점은 즉위하자마자 내린 ‘불법을 믿어 복을 구하라’란 불교적 메시지였다.

고구려와 백제는 불교를 수용한 이후 경쟁적으로 불교 통치이념을 확산시켜 나갔고 불교를 통한 정신적 무장은 당시 낙랑·대방 지역을 두고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두 나라의 군사적 충돌과도 맞물려 있었다.

광개토왕비문에 따르면 영락 원년은 391년이다. 그래서 고구려의 ‘불법을 믿어 복을 구하라’는 기사가 『삼국사기』의 고국양왕 9년(392)의 기년이 아닌, 광개토왕릉비문의 기년에 따라 고국양왕대(391) 혹은 광개토왕대(392)로 비정될 소지가 남아 있다. 따라서 『삼국사기』 ‘불법을 믿어 복을 구하라’란 고국양왕 9년(392)의 기사는 고국양왕을 중시하면 391년 고국양왕이 내린 교서로 파악되고, 반면 392년 연대를 중시하면 광개토왕이 영락 2년(392)에 내린 교서로 파악되어 왔다. 그런데 지금까지 광개토왕릉비문의 영락 연호를 즉위년칭원법으로 계산하여 광개토왕의 즉위년을 391년으로 보았지만, 만약 영락 연호가 유년칭원법이라면 광개토왕의 즉위년은 1년 앞당겨진 390년이 될 수 있다. 광개토왕의 즉위년이 390년이라면 『삼국사기』 고국양왕 9년(392)의 기사는 광개토왕대의 기사일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⁴⁾

3) 조경철, 1999, 「백제의 지배세력과 법화사상」, 『한국사상사학』 12.

4) 삼국의 연호와 칭원에 관한 논문은 다음과 같다.

小田省吾, 1920, 「三國史記の稱元法並に高麗以前稱元法の研究(上·下)」, 『東洋學報』 10; 손영중, 1966, 「금석문에 보이는 삼국시기의 몇 개 연호에 대하여」, 『북한의 우리 고대사인식』; 이종항, 1978, 「신라 법흥왕대 건원의 배경에 대하여」, 『한국학논총』 1; 정효운, 1986, 「신라 중고시대의 왕권과 개원에 관한 연구」, 『고고역사학지』 2, 동아대박물관; 공석구, 1988, 「평안, 황해도지방출토 기년명전에 대한 연구」, 『진단학보』 65; 정운용, 1998, 「금석문에 보이는 고구려의 연호」, 『한국사학보』 5.

칭원법에 따른 1~2년의 차이는 사소하게 보일지 몰라도, 앞서 살펴본 392년조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그 기사를 어느 왕에 귀속시켜 설명하는 문제에서부터 뒤에 살펴볼 3년상의 문제 등에 대해서 여러 각도에서 접근할 계기를 마련해 주기 때문에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본고는 광개토왕이 영락이란 연호를 사용하게 된 배경과 그에 따른 칭원법의 실시여부를 중국의 5호 16국의 칭원법에서 유추해 보았다. 그리고 고구려의 3년상의 기간을 칭원법에 따른 연대계산법과 연관을 맺어 보았다. 또한 연호의 의미를 불교적 측면에서 접근해 보았다.

II. 동아시아 연호의 유년칭원법

1. 칭원법

칭원법에는 즉위년칭원법과 유년칭원법이 있다. 즉위년칭원법은 전왕이 죽은 해를 새 왕의 원년으로 삼는 기년법이고, 유년칭원법은 전왕이 죽은 다음 해를 새 왕의 원년으로 삼는 기년법이다.

중국은 한대 이전에는 『춘추』 이래 유년칭원법을 사용하였고 후한대 처음 연호를 사용한 이후에도 유년칭원법을 사용하였다. 한국은 『삼국사기』가 즉위년칭원법⁵⁾을 사용했고 『고려사』와 『조선왕조실록』이 유년칭원법을 사용하였다. 이들 역사서들은 후대에 편찬되었으므로 당대에는 어떤 칭원법을 썼는가는 금석문 등의 당시 자료를 검토해서 대조해 보아야 한다. 즉위년칭원법을 사용한 『삼국사기』와 달리 백제의 창왕명사리감에 유년칭원법을 사용한 사례가 있고, 이와 반대로 유년칭원법을 사용한 『고려사』와 달리 즉위년칭원법을 사

5) 小田省吾, 1920, 위의 글.

용한 금석문 사례가 보이기 때문이다.⁶⁾

발해의 경우 정효공주묘에서 발견된 지식에는 즉위년칭원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일본에 소장되어 있는 牒文의 함화 11년 윤9월 25일의 연대에 따르면 유년칭원법을 사용하고 있어 일률적으로 말하기 힘들다.⁷⁾

고구려의 경우 실제로 즉위년칭원을 했는지 유년칭원을 했는지, 연호를 사용했을 경우 즉위년칭원을 했는지 유년칭원을 했는지 확실할 자료가 아직 없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고구려는 즉위년칭원을 사용했으므로 당연히 연호를 썼다 해도 즉위년칭원을 했을 것이라 생각하고 지금까지 광개토왕의 즉위년과 영락 원년을 같은 연대로 보아 왔다.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와 연표에 따르면 광개토왕의 즉위연대는 392년이다. 그리고 『삼국유사』 왕력의 광개토왕 즉위연대도 392년으로 『삼국사기』와 일치한다.

그런데 광개토왕릉비문에 따르면 광개토왕의 즉위연대가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와 일치하지 않는다. 비문에 따르면 ‘永樂五年歲在乙未’라는 연대표시가 나오는데,⁸⁾ 영락 5년 을미는 395년이다. 영락은 광개토왕의 연호로 즉위년칭원법에 따르면 영락 원년은 391년이 된다. 곧 광개토왕의 즉위연대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392년보다 1년 앞선 391년이 되는 셈이다.

광개토왕 즉위년이 391년으로 조정됨에 따라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고국양왕 9년(392)조가 고국양왕에 대한 기록이나 아니면 광개토왕에 대한 기록이냐라는 문제가 발생되었다. 더구나 고국양왕 9년조는 신라와의 우호, 佛法, 國

6) 光德二年 歲次庚戌 十月十五日立(「大安寺光慈大師碑」, 『역주나말여초금석문(상)』, 혜안, 201쪽). 『高麗史』 卷2, 光宗조에는 光德 연호가 경술년(950)에 공포된 것으로 되어 있다. 곧 비문에 따르면 광덕 2년이 경술년(950)이므로 광덕 원년은 949년이 되고, 『고려사』에 따르면 광덕 원년이 950년이 된다. 둘 사이에 1년의 차이가 난다. 비문은 즉위년칭원법으로 계산한 연대이고 『고려사』는 유년칭원법으로 계산한 연대이다.

7) 송기호, 1995, 『발해정치사연구』, 일조각, 178~186쪽.

8) 永樂五年歲在乙未 王以稊麗不□□人 躬率往討(노태돈, 1995(재판), 「광개토왕릉비문」, 『역주한국고대금석문』,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社, 宗廟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 어느 왕에 귀속되느냐가 그 왕의 업적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였다. 다음 사료는 고국양왕 9년조의 기록이다.

A. 9년(392) 봄에 사신을 신라에 보내 우호를 약속하니, 신라왕이 조카 실성을 인질로 보내었다. 3월에 교서를 내려 불교를 믿어 복을 구하게 하였다. 담당 관청에 명하여 나라의 사직(國社)을 세우고 종묘를 수리하게 하였다. 여름 5월에 왕이 죽었다. 고국양에 장사지내고 왕호를 고국양왕이라고 하였다. (『삼국사기』 권18, 고구려본기, 고국양왕 9년)

광개토왕 즉위년이 391년이므로 고국양왕이 죽은 해도 391년이 된다. 따라서 고국양왕이 죽은 기사가 포함되어 있는 위 기사를 모두 고국양왕대의 기사로 보고 고국양왕 9년(392) 기사를 고국양왕 8년(391)으로 보기도 한다.⁹⁾ 아니면 고국양왕이 5월에 죽은 기사는 고국양왕 8년(391)의 기사로 보고 나머지 기사는 광개토왕 영락 2년(392)의 기사로 보는 경우이다.¹⁰⁾

현재는 고국양왕대를 강조하는 논자는 전자의 견해를 따르고, 광개토왕대를 강조하는 논자는 후자의 견해를 따르고 있다. 새로운 근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어느 쪽이 옳다고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다.

2. 중국 연호의 검토

중국의 연호는 후한대 처음 제정되었는데¹¹⁾ 『춘추』의 예에 따라 유년칭원이 대 원칙이었고¹²⁾ 이후 연호를 사용한 이후도 유년칭원을 하였다. 광개토왕대 중

9) 정구복 외, 1997, 『역주삼국사기(2번역편)』, 한국학중앙연구원, 341~342쪽. 이병도는 고국양왕 9년의 '九'를 '八'의 착오로 보기도 한다[이병도 역주, 1989(초판 1983), 『삼국사기(상)』, 을유문화사, 334쪽].

10) 이병도 역주, 1989, 위의 책, 334쪽.

11) 建元元年(師古曰 自古帝王未有年號 始起於此) (『漢書』 卷6, 武帝紀 6).

12) 연호의 일반적인 설명에 대해서는 정운용, 1998, 앞의 글을 참조.

국은 동진과 남조, 5호 16국과 북조로 대치하고 있었다. 광개토왕이 연호를 제정했다면 이들 중국 여러 나라의 연호 사용법을 참조했을 것이다.¹³⁾

동진(317~420)은 모두 유년칭원을 따르고 있다.¹⁴⁾ 다만 폐제가 371년 11월에 황제위에서 폐해졌기 때문에 다음 황제인 간문제가 같은 해 11월에 咸安으로 칭원한 예외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는 폐제가 정치적으로 물러났기 때문에 일어난 일로 유년칭원의 범주 안의 즉위칭원인 것이다.

동진의 뒤를 이은 宋(420~479)도 대부분 유년칭원을 하였다.¹⁵⁾ 즉위년칭원을 한 경우는 문제, 명제, 순제이다. 문제는 전황제인 소제가 424년 폐위당하자 황제위에 올라 그 해 8월 元嘉로 칭원하였고, 명제는 465년 전황제인 전 폐제를 살해하고 그 해 12월 泰始로 칭원하였고, 순제는 전황제인 후폐제를 살해한 소도성에 의해 옹립되었는데 그 해(477) 7월 升明으로 칭원하였다. 모두 전황제의 죽음이라는 정치적 변동과 관련되어 있어서 다음 황제가 즉위년칭원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밖에 남조의 齊, 梁, 陳도 모두 유년칭원을 하고 있다.

다음은 5호 16국과 북조의 연호 사용례를 검토해 보겠다.

前秦(351~394)은 동진 못지않게 고구려가 문화적 영향을 받은 나라이다. 전진으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인 것이 그 대표적 예이다. 남조와 달리 5호 16국은 정치적 변동이 많았고 나라의 흥망성쇠도 자주 일어나 유년칭원의 원칙하에서 정치적 변동을 의미하는 즉위칭원도 많을 것으로 예상은 되었지만 전진의 경우는 모두가 즉위칭원하고 있다.¹⁶⁾ 따라서 전진은 연호의 사용이 즉위칭원에 따라서 행해졌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 부견을 제외하고는 부생은 부견에게 살해되었고, 부견은 姚 에게 붙잡혀

13) 고구려 내 중국 연호의 사용 예에 대해서는 공석구, 1988, 앞의 글 참조.

14) 동진의 제왕의 계보는 다음과 같다. 元帝-明帝-成帝-康帝-穆帝-哀帝-廢帝-簡文帝-孝武帝-安帝-恭帝.

15) 송의 제왕의 계보는 다음과 같다. 武帝-少帝-文帝-孝武帝-前廢帝-明帝-後廢帝-順帝.

16) 전진의 왕의 계보는 다음과 같다. 苻健-苻生-苻堅-苻丕-苻登-苻崇.

살해당했고, 부비는 살해당하였고, 부등도 살해당하였다. 모두 정치적으로 희생된 사례이다. 따라서 이들의 즉위칭원은 정치적 변동과 관련이 있었다.

그런데 부건의 경우는 사정이 좀 다르다. 부건이 355년 6월에 죽었는데, 부생이 같은 6월에 壽光으로 즉위칭원하였다. 즉위칭원한 이유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치적 이유가 누락되었는지 모르겠다.¹⁷⁾ 다만 특별한 이유 없이 즉위칭원했다고 생각했는지 여러 군신들이 즉위칭원은 예법에 맞지 않으므로 유년칭원을 해야 한다고 비판을 하고 있다.¹⁸⁾

前趙(304~329)도 전진과 마찬가지로 모두 즉위칭원이다.¹⁹⁾ 유연이 죽자 그의 아들 劉和가 왕위를 이었는데, 동생 유충이 그를 죽이고 왕위에 올랐다. 유충의 뒤를 이은 유찬은 ‘多行無禮’라 하여 비난을 받고 즉위한 다음 달 살해당하였다.²⁰⁾ 유요는 그해 즉위칭원하였다.

後趙(319~351)의 경우 유년칭원과 즉위년칭원이 모두 보이는데, 즉위년칭원의 경우 정변과 관련이 있다. 後燕(384~407)의 경우 모두 즉위칭원이지만 모두 전왕이 살해된 경우다. 北魏(386~534)의 경우 유년칭원과 즉위년칭원이 혼재하지만 즉위칭원의 경우 전황제가 모두 살해된 경우이다. 남북조를 통일한 隋나라, 唐나라의 경우 대체적으로 유년칭원이다.

5호 16국의 경우 빈도수로는 유년칭원보다 즉위년칭원이 월등히 많았다. 즉위년칭원과 유년칭원의 관계에서 즉위년칭원이 원칙일 경우 유년칭원의 사례를 설명하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즉위년칭원을 하다가 갑자기 유년칭원으로

17) 六月 苻健死 其子生嗣僞位(『晉書』卷8, 穆帝 永和 11年); 健卒僭即皇帝位 大赦境內 改年壽光 時永和十二年也(『晉書』卷112, 苻生傳).

『진서』 목제 영화 11년(355)조에 따르면 부건은 355년에 죽고 부생이位를 이었다고 했고, 『진서』 부생전에 따르면 영화 12년(356)에 부건이 죽고 부생이 즉위하였고 수광으로 개원했다고 했다. 이 두 기사를 조합하면 부생이 355년 즉위했고, 이듬해 356년 수광으로 유년칭원했다고 역측할 수는 있다.

18) 乙酉健卒 諡曰景明皇帝 廟號高祖 丙戌 太子生即位 大赦 開元壽光 群臣奏曰 未踰年而開元非禮也(古禮君薨世子即位既踰年而後稱元年)(『資治通鑑』卷100, 晉紀 22, 孝宗穆皇帝中之下 永和 11年 6月).

19) 전조의 왕의 계보는 다음과 같다. 劉淵-劉聰-劉檠-劉曜.

20) 『資治通鑑』卷90, 晉紀 12, 中宗元皇帝上 大興 元年 7월과 8월.

바꾸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반대로 유년칭원이 원칙일 경우에는 언제라도 정치적 이유 등에 따라 즉위년칭원을 할 수가 있으므로 즉위년칭원의 사례를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즉위년칭원이 많다고 해서, 아니면 어떤 경우 모두 즉위년칭원이라 해서 즉위년칭원이 원칙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만약 고구려의 광개토왕이 영락이란 연호를 사용할 때 이들 나라와 달리 유독 즉위년칭원을 했다면 그 이유를 설명했어야만 했다. 『삼국사기』의 칭원법이 즉위년칭원이라 광개토왕의 영락 연호도 즉위칭원이라 본 것은 선부른 감이 있다. 따라서 광개토왕의 왕위계승에 특별한 이유가 있어 즉위칭원을 하지 않은 이상 고구려도 이들 나라의 예에 따라 유년칭원을 했을 가능성을 열어 두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다음은 삼국의 사례를 검토해 보겠다.

3. 삼국 연호의 검토

고구려가 연호를 사용했다는 것은 광개토왕릉비와 덕흥리고분 묵서명의 영락이란 연호에서 확인할 수 있고 여타 다른 금석문에서도 유추할 수 있다. 백제의 경우는 아직 확인해줄 자료가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등 문헌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고대 삼국의 연호사용 예는 신라가 유일하므로 신라의 예를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1) 신라

신라는 총 7번 연호를 사용했는데, 『삼국사기』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 B-1. (법흥왕 23년, 536) 처음으로 연호를 칭하여 建元 원년이라 하였다.
2. (진흥왕 12년, 551) 봄 정월에 연호를 開國으로 바꾸었다.
3. (진흥왕 29년, 568) 연호를 太昌으로 바꾸었다.
4. (진흥왕 33년, 572) 봄 정월에 연호를 鴻濟로 바꾸었다.
5. (진평왕 6년, 584) 봄 2월에 연호를 建福으로 바꾸었다.
6. (선덕왕 3년, 634) 봄 정월에 연호를 仁平으로 바꾸었다.

7. (진덕왕 원년, 647) 가을 7월에 연호를 太和로 바꾸었다.

신라가 사용한 7번의 연호는 법흥왕의 건원, 진흥왕의 개국·태창·흥제, 진평왕의 건복, 선덕(여)왕의 인평, 진덕(여)왕의 태화이다. 그런데 진덕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왕위가 바뀔 때가 아니고 왕의 재위 연간에 연호가 사용되었다. 따라서 즉위년칭원인지 유년칭원인지 알기가 어렵다.

다행히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경우는 B-7 진덕왕 원년의 태화 연호이다. 그런데 태화란 연호가 진덕왕이 즉위한 해에 사용되었다는 기록은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따른 것이고 『삼국사기』의 연표나 열전, 『삼국유사』 왕력에서는 다른 내용을 전하고 있다.

C-1. (진덕왕 원년, 647) 가을 7월에 연호를 태화로 바꾸었다.²¹⁾

2. 무신년(648) 진덕왕 2년 연호를 태화로 바꾸었다.²²⁾

3. 정미(647)에 왕위에 올랐고 7년을 다스렸다. 태화는 무신년(648)부터 6년간 사용했다.²³⁾

4. 2년 가을 8월 백제 장군 殷相이 석토성 등 일곱 성을 공격하여 왔다.²⁴⁾

C-1의 『삼국사기』 신라본기에는 태화란 연호를 진덕왕이 즉위한 해에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C-2의 『삼국사기』 연표나 C-3의 『삼국유사』 왕력에는 즉위한 이듬해인 무신년(648)에 태화란 연호를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다.

진덕왕이 즉위한 해에 태화란 연호를 썼는지, 아니면 즉위한 다음 해에 태화란 연호를 썼는지 『삼국사기』 내에서도 달리 표기하고 있어서 어느 쪽이 사실과 맞는지 확증하기 어렵다. 하지만 현재 유통되고 있는 대부분의 연표에서도 나타나듯이 『삼국사기』 신라본기의 기술을 중시하여 태화 원년은 진덕왕이

21) 『三國史記』 卷5, 新羅本紀, 眞德王 元年.

22) 『三國史記』 卷31, 年表 新羅 眞德王.

23) 『三國遺事』 王曆, 新羅 眞德女王.

24) 『三國史記』 卷42, 金庾信傳(中).

즉위한 해인 647년이라는 설을 따르고 있다.

그런데 C-4의 기록은 진덕왕의 태화 연호가 유년칭원일 가능성을 높여 주고 있다. C-4 기록 모두의 2년은 진덕왕 2년 또는 진덕왕 태화 2년으로 추정되는데, 위 기사와 같은 내용이 『삼국사기』 신라본기 진덕왕 3년조에 보이고 있다.²⁵⁾ 따라서 C-4의 2년은 태화 2년으로 진덕여왕 3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²⁶⁾

덧붙여 『삼국사기』 신라본기 진덕왕 즉위년의 태화 연호 사용설이 잘못일 수 있다는 단서가 신라본기 진덕왕 2년조에 보이고 있다.

D-1. (진덕왕 원년, 647) 가을 7월에 연호를 태화로 바꾸었다.

2. (진덕왕 2년, 648) 봄 정월에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조공하였다.

3. (진덕왕 2년, 648) 겨울에 한질허로 하여금 당에 조공케 하였다. 당태종이 어사를 시켜 물었다. “신라는 신하로서 대국조정을 섬기면서 어찌하여 따로 연호를 칭하는가?” 한질허가 대답하였다. “일찍이 천자의 조정에서 正朔을 반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조 법흥왕 이래로 사사roi 기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대국 조정에서 명이 있었다면 작은 나라가 어찌 감히 그렇게 하겠습니까?” 당태종이 그렇겠다고 여겼다.

위 사료에 따르면 진덕왕은 647년 7월 연호를 바꾼 이듬해 648년 정월에 당나라에 사신을 보냈다. 신라는 같은 해인 648년 겨울에도 당나라에 사신을 보냈는데, 이때 신라가 태화란 연호를 사용하고 있음을 안 당나라가 신하의 나라로서 사사roi 연호를 사용했다고 하여 문책했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문책한 시기가 들어맞지 않는다. 태화 연호는 647년 7월부터 사용했고 이듬해인

25) 秋八月 百濟將軍殷相 率衆來 攻陷石吐等七城(『三國史記』卷5, 新羅本紀, 眞德王 3年).

26) 정구복 외, 1997, 앞의 책, 714쪽과 同 『역주삼국사기(4주석판)』, 654쪽. 단 번역편에서는 (태화) 2년을 648년이라 했는데, 648년은 649년의 착오이다. C-4의 2년을 3년의 誤記로 보고 진덕왕 3년의 잘못으로 보기도 한다.

648년 두 차례 당나라에 사신을 보냈는데, 처음 정월에 갔을 때는 아무 말이 없다가 겨울에 갔을 때 연호 사용을 문제삼고 있는 것이다. 647년 7월에 태화 연호를 제정했다면 당연히 이듬해 1월 사신을 보냈을 때 알았을 것이고 이때 당나라에서 연호 사용을 문제삼았을 것인데, 그렇지 않은 것은 아직 태화란 연호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곧 647년 7월에 태화란 연호를 즉위칭원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라, 648년 7월 태화란 연호를 유년칭원하여 사용하였고, 이해 겨울 당나라에 사신을 보낼 때 이 사실이 알려져 문책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곧 『삼국사기』 신라본기 진덕왕 원년 647년 7월의 기사는 진덕왕 2년 648년 7월의 기사로 보이며 이는 태화란 연호가 유년칭원일 수 있다는 말이 된다.

2) 백제

백제의 연호 사용례는 아직까지 확인된 바가 없다. 칠지도에 보이는 泰□라는 연호가 백제 연호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를 통해서 칭원법을 알 수는 없다. 다만 연호의 사용례는 아니지만 즉위한 다음 해를 왕의 기년으로 삼아 유년칭원한 사례를 보이는 자료가 남아 있다.

㉔. 백제 창왕 13년인 정해년(567)에 매형공주가 사리를 공양했다.²⁷⁾

위 기록은 부여 능산리고분 능사에서 발견된 사리감에 쓰여진 명문이다. 위 사리감은 관산성에서 죽은 성왕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세운 능사의 목탑에 봉안한 것이었고, 성왕의 딸이면서 창왕의 누이인 공주가 조성한 것이었다. 사리감 명문의 창왕은 백제의 위덕왕이다. 위 명문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창왕 13년 정해년’으로 창왕대의 정해년은 567년이다. 그런데 『삼국사기』에 따르면 위덕왕의 즉위 원년은 554년으로, 위덕왕 14년이 567년이다. 『삼국사기』의

27) 百濟昌王十三季太歲在丁亥妹兄公主供養舍利(「百濟昌王銘舍利龕」).

기년대로 하면 위덕왕대의 정해년은 창왕 14년이 된다. 같은 567년(정해년)이 사리감에는 창왕 13년이고, 『삼국사기』에는 위덕왕 14년이 되어 1년의 차이가 난다. 1년의 차이는 칭원법의 차이로 여겨지는데, 사리감의 연대에 따르면 창왕은 유년칭원하였고, 『삼국사기』에 따르면 위덕왕은 즉위년칭원했음을 알 수 있다.

『삼국사기』의 기년은 즉위칭원에 의거했다고 하지만, 실제 당시 백제의 금석문에서 유년칭원을 한 사례가 발견된 것이다. 따라서 고구려의 영락이란 연호가 유년칭원일 가능성이 있음을 백제의 예에서 유추할 수 있다.

3) 고구려

고구려의 연호로 추정되는 연수, 연가, 영강, 건흥 등도 종래 즉위칭원의 예에 따라 고구려의 왕과 연대를 비정했다. 하지만 이들 연호를 유년칭원으로 보고 왕과 연대를 비정한 논고도 있었다.²⁸⁾ 광개토왕이 연호를 사용했다면 아들인 장수왕과 장수왕의 손자인 문자명왕도 연호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고 아마도 칭원법은 유년칭원을 했을 것이다.²⁹⁾ 문자명왕의 유년칭원의 사실이 『삼국사기』 연표에 문자명왕의 유년칭원으로 표기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³⁰⁾

28) 정운용, 1998, 앞의 글.

29) 정운용, 1998, 앞의 글. 영락 연호에 대해서도 유년칭원의 가능성을 열어두었지만 결론은 즉위칭원으로 보았다.

30) 辛未 長壽王薨 壬申 文咨明王羅雲 卽位元年(『三國史記』 卷30, 年表). 다만 장수왕이 죽은 날이 12월이고 문자명왕이 이듬해 즉위했으므로 유년칭원에 의한 즉위년칭원으로 볼 여지는 남아 있다. 한편 『삼국사기』 위 연표의 기록을 小田省품의 앞의 글 154쪽에서는 『삼국사기』의 오류로 보았다.

III. 영락 연호의 유년칭원과 3년상

영락 원년이 즉위한 해가 아니고 즉위한 다음 해라면 광개토왕이 즉위한 해는 390년이며 영락 원년은 391년이 된다. 광개토왕의 즉위연대가 다시 조정되었으므로 광개토왕의 전 왕인 고국양왕의 말년 기사의 귀속문제도 재조정될 수밖에 없다. 다음은 『삼국사기』 고국양왕 9년조 기사이다.

- F-1. 9년(392) 봄에 사신을 신라에 보내 우호를 약속하니, 신라왕이 조카 실성을 인질로 보내었다. 3월에 교서를 내려 불법을 믿어 복을 구하게 하였다. 담당 관청에 명하여 나라의 사직(國社)을 세우고 종묘를 수리하게 하였다.
2. 여름 5월에 왕이 죽었다. 고국양에 장사지내고 왕호를 고국양왕이라고 하였다.³¹⁾

광개토왕 즉위년이 390년이므로 전왕인 고국양왕의 몰년도 390년이 된다. F-2의 고국양왕의 죽음과 장례에 관한 기사는 당연히 390년 기사로 재조정되어야 하지만³²⁾ 그렇다면 고국양왕의 장례와 관련되지 않은 F-1의 기사는 몇 년 기사로 편년되어야 할까.

첫 번째, 『삼국사기』의 기년을 존중하여 F-2의 기사만 390년의 기사로 보고 F-1의 기사는 392년의 기사로 보는 경우이다. 그렇다면 F의 사료는 다음과 같이 조정된다.

- G-1. 고국양왕 7년(390) 여름 5월에 왕이 죽었다. 고국양에 장사지내고 왕호를 고국양왕이라고 하였다.
2. 광개토왕 3년(영락 2년, 392) 봄에 사신을 신라에 보내 우호를

31) 『三國史記』 卷18, 高句麗本紀, 故國壤王 9年.

32) 다만 5월에 죽은 기사와 고국왕에 장사지낸 기사는 시간차가 있을 수 있다. 같은 연대의 기록이 아닐 수도 있다.

약속하니, 신라왕이 조카 실성을 인질로 보내었다. 3월에 교서를 내려 불교를 믿어 복을 구하게 하였다. 담당 관청에 명하여 나라의 사직(國社)을 세우고 종묘를 수리하게 하였다.

두 번째, 고국양왕 9년조의 기사를 모두 고국양왕이 죽은 해인 390년의 기사로 보는 경우이다. 그렇다는 F의 사료는 다음과 같이 조정된다.

H. 고국양왕 7년 390년 봄에 사신을 신라에 보내 우호를 약속하니, 신라왕이 조카 실성을 인질로 보내었다. 3월에 교서를 내려 불교를 믿어 복을 구하게 하였다. 담당 관청에 명하여 나라의 사직(國社)을 세우고 종묘를 수리하게 하였다. 여름 5월에 왕이 죽었다. 고국양왕이 장사지내고 왕호를 고국양왕이라고 하였다.

G-1·2나 H의 경우 모두 가능성은 있지만 G-1·2의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 G-2 신라왕의 조카 실성을 인질로 보낸 사실은 『삼국사기』 신라 내물왕 본기에도 실려 있는데, 거기에도 이 일이 내물왕 37년 392년의 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³³⁾ 그리고 불법을 믿으라는 교서나 國社나 宗廟에 관한 내용도 아무래도 왕의 말년보다는 왕의 초년에 실렸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³⁴⁾

33) 三十七年春正月 高句麗遣使 王以高句麗強盛 送伊 大西知子實聖爲質(『三國史記』卷3, 新羅本紀, 奈勿尼師今 37년).

34) 고구려·백제·신라 삼국의 경우 사직과 종묘에 관한 기사가 실려 있는 경우 대부분 왕의 초년에 집중되어 있다. 고구려의 경우 『삼국사기』 제사지와 본기에 따르면 대무신왕 3년 정월, 신대왕 3년(혹은 4년) 7월, 고국천왕 2년(또는 원년), 동천왕 2년 2월, 중천왕 13년 9월, 고국원왕 2년 2월, 안장왕 3년 4월, 평원왕 2년 2월, 영류왕 2년 4월에 시조묘에 제사를 드리고 있다. 총 9번의 사례 가운데 중천왕 13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왕의 1~3년에 몰려 있다. 백제의 경우 천지나 동명묘에 제사 드린 사례는 온조왕 20년과 38년, 다루왕 2년, 고이왕 5년과 10년과 14년, 책계왕 2년, 분서왕 2년, 비류왕 10년, 근초고왕 2년, 아신왕 2년, 전지왕 2년, 동성왕 11년 등 총 13번 가운데 7번이 왕의 초년에 -특히 모두 2년- 행해지고 있다. 신라의 경우도 왕의 1~3년 사이인 초년에 제사가 치러지고 있다(최광식, 1983, 「신라의 신궁 설치에 대한 신고찰」, 『한국사연구』 43, 66~68쪽 표 참조).

영락이 유년칭원일 가능성은 광개토왕의 상장례인 3년상을 통하여도 유추할 수 있다. 고구려는 372년 건립된 태학을 기반으로 하여 유교경전에 대한 이해를 넓혀 나갔다. 태학에서 유교적 소양의 인물들을 배출했고 이들의 활동은 특히 유교 예제의 측면에서도 두각을 나타낸 것으로 생각된다. 광개토왕은 '永樂' 연호를 제정하고 불법을 믿으라는 교서를 내려 불교국가임을 공표하기도 했지만, 年號를 사용하고 종묘와 사직을 수리하여 왕실의 권위를 높이는 등 유교의 예치에도 관심을 두었다. 장수왕이 세운 광개토왕릉비문에 사용된 용례를 살펴보면 유교경전에 대한 이해가 깊었음을 알 수 있다.³⁵⁾ 이 밖에 유교의 상장례에서도 중국과도 다른 나름대로의 이해가 있었다. 보통 광개토왕의 즉위년을 391년으로 보고, 이를 근거로 광개토왕이 죽은 해를 412년 10월,³⁶⁾ 문헌 해를 414년 9월 29일³⁷⁾로 보고 있다. 죽은 날에서 문헌 날을 계산하면, 개월 수로는 24개월이고 만으로는 23개월 며칠이다. 고구려의 3년상의 개월 수는 알려진 바가 없지만, 중국의 경우 25개월과 27개월 설이 있었고, 백제 무령왕과 왕비의 경우는 27개월이었다. 광개토왕의 경우 개월 수로는 24개월이지만 해수로는 3년이므로, 이에 따라 광개토왕도 백제의 무령왕과 마찬가지로 3년상을 치렀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광개토왕의 장례기간은 만 2년이 되지 않은 만 23개월이므로 3년상을 치렀다고 볼 수 없다. 3년상은 부모를 기리는 극진한 마음은 끝이 없지만, 기간을 마냥 끌 수가 없기 때문에 차마 3년으로 기한을 정한 것이다. 따라서 만 2년이 되지 않은 날이 아무리 길일이라고 하더라도 부모를 더 기리려는 마음보다 더 위에 두는 길일은 없는 것이다. 『수서』에 고구려의 상장례를 언급한 글에서도 3년을 지나 길일을 택한다고 하였다.³⁸⁾ 여기서의 3년은 大祥을 지낸 만 24개월 이상을 말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5) 유교의 仁義와 王道政治 측면에서 광개토왕릉비문을 분석한 글로는 이도학, 2006, 「광개토왕릉비문의 사상적 배경」, 『고구려광개토왕릉비문연구』, 서경, 211~232쪽.

36) 冬十月 王薨 號爲廣開土王(『三國史記』 卷18, 高句麗本紀, 廣開土王 22年).

37) 以甲寅年九月廿九日乙酉遷就山陵 於是立碑(『광개토왕릉비문』).

38) 死者殯於屋內 經三年 擇吉日而葬(『隋書』 卷81, 列傳 46, 東夷 高麗).

그러나 광개토왕의 영락 연호 사용을 즉위년칭원법이 아닌 유년칭원법으로 본다면 광개토왕의 즉위년은 390년이 되고, 이를 근거로 한다면 광개토왕이 죽은 해는 411년 10월이 되고 묻힌 해는 414년 9월 29일이 된다. 개월 수로는 36개월이 된다. 장수왕은 아버지 광개토왕의 장례를 만 3년이 모자란 마지막 길일을 택해서 3년상을 마친 것이다. 정확히 만 36개월에서 며칠이 모자란 만 35개월의 3년상으로 볼 수 있다. 즉 차마 더 늘일 수 없는 심정으로 만 3년을 채운 것으로 생각된다.³⁹⁾

IV. 永樂 연호와 佛敎

광개토왕의 영락이란 연호는 중국 역사상 몇 번 사용된 예가 있다. 5호 16국의 前涼의 張重華가 346~353년까지 사용했고, 明의 成祖가 1403~1424년까지 사용한 적이 있다. 전량은 실크로드의 요지인 涼州에 거점을 둔 나라로 서역과의 교류가 활발했다. 『魏書』 釋老志에 따르면 전량을 세운 張軌 이후 대대로 불교를 신봉하였다고 한다. 4세기 말 양주의 불교에 대해서는 자료가 부족하여 확실한 것은 밝힐 수 없지만, 5세기 초 양주 불교는 北涼의 沮渠蒙遜이 승 불천자였기 때문에 그 융성함을 유추할 수 있다.⁴⁰⁾ 明이 사용한 연호인 영락은 당연히 불교적 의미는 아니겠지만, 불교 국가인 전량이 사용한 영락은 달리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3세기에 활약한 역경승 康僧會는 “악을 행하면 지옥의 오랜 고통[地獄長苦]이 있고, 선을 닦으면 천궁의 영원한 즐거움[天宮永樂]이

39) 광개토왕의 3년상을 표로 만들면 다음과 같다.

영락칭원법	즉위년	영락원년	죽은 해	묻힌 해	빈장기간
즉위년칭원	391	391	412년 10월	414년 9월 29일	24개월(만 23개월) 2년상
유년칭원	390	391	411년 10월	414년 9월 29일	36개월(만 35개월) 3년상

40) 鎌田茂雄 著, 章輝玉 譯, 1993, 『중국불교사 2』, 266쪽.

있다”고 하였다.⁴¹⁾ 『賢愚經』에는 중생의 고통을 없이하는 보시행을 涅槃永樂이라고 했다.⁴²⁾ 광개토왕의 영락 연호에는 ‘영락’의 자의인 ‘길 永, 즐거움 樂’의 일반적인 의미가 깔려 있고, 여기에 불교적 의미의 천궁의 영원한 즐거움, 열반의 영원한 즐거움의 의미가 덧붙여진 것으로 생각된다.⁴³⁾

실제로 연호는 다른 문화권에서 보이지 않는 중국 질서에 입각한 유교 예제의 전형이다. 연호는 중국의 정통왕조만이 쓸 수 있으며 이웃나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쓰지 못하고 중국의 연호를 쓰는 것이 상례였다. 물론 정통이란 힘의 우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중국이 통일되지 않고 여러 나라로 분립된 상황에서는 여러 나라가 연호를 쓸 수 있었다. 그러나 다른 나라가 연호를 사용했을 경우 중국에서는 이를 ‘私改元’이라 하여 非禮로 비판하고 있다.

유교적 정통왕조가 아닌 나라들도 연호를 쓸 수 있다는 이념적인 틀을 제공해 준 것은 불교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중국은 황제⁴⁴⁾ 칭호나 연호를 사용하면서 일원적인 중국 중심의 천하관을 공고히 해 나갔다. 따라서 중국에 독립하여 독자적인 천하관을 형성하면서 다른 한편 연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중국 고유의 유교질서에 입각해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불교는 여러 天觀(도솔천, 사천왕천, 도리천 등)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를

41) 故行惡則有地獄長苦 修善則有天宮永樂(『梁高僧傳』大正藏, 50-325하).

42) 지금 나는 내 가족을 이 사람에게 주어 저 여러 사람들의 소중한 목숨을 구제한다. 그 공덕을 일체 중생에게 베풀으로써 비할데 없는 바르고 참된 불도를 이루고 일체 중생을 생사의 고통에서 두루 건져 열반의 영원한 안락이 있는 곳에 편히 살게 하 여지이다(『賢愚經』 한글장 18권, 91쪽). 普度一切生死之苦 安着涅槃永樂之處(大正藏 4-366하). 한편 김영태도 영락이란 자의를 불교적 의미에서 ‘영원한 낙토’로 설명한 바 있다(김영태, 1990, 『삼국시대 불교신앙연구』, 불광출판부, 28쪽).

43) 유교의 지배이데올로기가 관통한 동아시아 국가에서 왕호나 연호에 유교 이외의 특정한 종교(혹은 사상)적 색채의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불교나 도교, 오행적 의미의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유교적 의미도 아울러 포괄하는 것을 선택한다. ‘聖王’이나 ‘永樂’ 등이 그렇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한때 나라 사람들의 호응을 받기는 했지만 오래 가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武周의 如意 연호나, 궁예의 水德萬歲가 대표적 예이다. 영락 연호의 불교적 해석은 조경철, 2006, 『동아시아 불교식 왕호 비교』, 『한국고대사연구』 43을 참조.

44) 道合乾坤者稱皇 德協人神者帝(『晉書』卷106, 載記 6, 石季龍上).

인정하는 상대적 관점에서 있다. 불교의 천관에서는 중국도 불교의 제석천 아래 남쪽의 남염부제의 세계에 속하는 나라 이상은 아니었다. 5호 16국의 여러 나라가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면서 중국 황제에 대항할 만한 왕의 칭호로 불교적 의미의 (帝釋)天王⁴⁵⁾이란 용어를 사용한 것도 그러한 맥락이었다.⁴⁶⁾

광개토왕이 영락이란 연호를 사용할 수 있었던 것도 5호 16국 등이 연호를 사용할 수 있었던 국제적 배경과 더불어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이념적 배경으로 불교적 천하관을 들 수 있겠다.⁴⁷⁾ 5호 16국에서는 불교적 의미가 天王이란 왕호로 구체화되었다.⁴⁸⁾ 천왕이란 칭호는 殷周의 제도에서 의거했다고 하지만⁴⁹⁾ 갑자기 5호 16국 시대에 천왕이란 이름으로 부활한 사상적 배경은 당시 풍미한 불교의 天(王)觀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광개토왕은 즉위 이듬해인 391년 영락이란 연호를 공표하고, 이듬해인 392년 ‘불법을 믿어 복을 구하라’는 교서와 함께 국사를 세우고 종묘를 정비하라는 명을 내렸다.⁵⁰⁾ 국사와 종묘는 유교 예제 질서의 기본이란 측면에서, ‘불법’뿐만 아니라 유교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영락이란 ‘年號’를 사용한 것은 중국적·유교적이지만, 영락이란 자의를 불교에서 따왔다면

45) 天王은 deva-rāja, lokēndra, mahā-rāja, devēndra 등의 범어 한역이다(『佛敎漢梵大辭典』 天王條). 사전적인 의미로 deva-rāja는 天(神)의 王, lokēndra는 世界의 帝釋, mahā-rāja는 大王, devēndra, 天(神)帝釋의 뜻이다.

46) 한국의 경우 천왕과의 관련은 선덕여왕과 도리천(제석천)의 사례가 있다(『三國遺事』, 紀異, 善德王知幾三事). 『三國遺事』, 紀異, 古朝鮮조에는 환인을 帝釋(帝釋天王-필자주)이라 했고 환인의 아들 환웅을 桓雄天王이라 했다(조경철, 2005, 「단군 신화의 불교적 세계관」, 『삼국유사 기이편의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47) 신라의 경우 연호를 사용한 시기는 중고시기이다. 이 시기의 왕은 법흥왕, 진흥왕, 진평왕, 선덕왕, 진덕왕으로 불교를 수용한 법흥왕, 전륜성왕을 자처한 진흥왕, 석가족을 자처한 진평왕·선덕왕·진덕왕의 치세기간이었다.

48) 천왕의 여러 의미에 대해서는 시노하라(原啓方, 2004, 「고구려의 천왕호와 태왕가인식의 확립」, 『한국사연구』 125)의 논문을 참조.

49) 於是依殷周之制 以咸康三年僭稱大趙天王 卽位于南郊 大赦收死已下(『晉書』 卷106, 載記 6, 石季龍上).

50) 광개토왕이 영락이란 연호를 사용하였다는 사실은 당시 고구려의 고양된 자존의식을 보여주고 있는데, ‘立國社修宗廟’ 또한 이런 분위기와 짝하는 것이다(신종원, 1992, 『신라초기 불교사연구』, 민족사, 69~70쪽).

‘永樂’이란 자의는 불교적이다. 영락이란 연호에 유교와 불교가 융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광개토왕은 초반 불교적 이념을 앞세워 기반을 확고히 했으며 나아가 직접 지배에 들어간 지역이나 새로 정복한 지역에는 사찰을 건립하거나 탑을 세워 불법에 의지해 민심을 수습하고자 하였다. 남쪽 방향의 평양에는 9사를 창건하고 북쪽 방향의 요동 지방에는 7층탑을 세우고 외국의 승려를 맞이하기도 하였다.

고구려는 372년 불교를 받아들인 이후 성문사와 이불란사를 세우고 순도와 아도를 두기도 했지만 20여 년이 지난 393년 국내성이 아닌 평양에 9개의 절을 세운 것은 의미가 깊다. 9개의 절을 세울 때는 무원칙하게 세우진 않았을 테고 중앙과 8방을 염두해 두었을 것이다. 이러한 중앙과 8방의 관념은 「광개토왕릉비문」에는 黃龍과 四海 등으로 표현되기도 하였다. 천하의 중심에 있는 고구려가 사방·팔방으로 뻗어가는 것을 상징한 것으로 표현된다. 평양에 9개의 절을 세운 3년 뒤 광개토왕은 백제를 쳐서 58개의 성을 획득하고 아신왕의 항복을 받아내었다.

한편 『삼국유사』 탑상 요동성 육왕탑조에는 고려[고구려] 성왕이 요동성을 순행하다가 육왕이 세웠던 불탑을 보고 불심이 생겨 7층목탑을 세웠다고 기록되어 있다. 요동성육왕탑조의 育王은 인도를 통일한 아쇼카왕을 말하며, 그는 불교에서 이상 군주로 여기는 전륜성왕의 전형이었다. 따라서 요동성 육왕탑조에 나오는 고려성왕의 聖王도 자연스럽게 불교적 의미의 전륜성왕의 성왕의 이미지를 떠오르게 한다.

고려의 성왕에 대해서는 동명성왕,⁵¹⁾ 고국양왕,⁵²⁾ 광개토왕일 것이라는 견해가 있었지만 성왕이 동명성왕일 것이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일연은 부정하고 있다. 왜냐하면 성왕은 전륜성왕을 의미하는데, 동명성왕대에는 불교가 수용되기 이전이기 때문이다.

51) 이상호 옮김, 『북역삼국유사』.

52) 김선숙, 2004, 「『삼국유사』 요동성육왕탑조의 성왕에 대한 일고」, 『신라사학보』 1.

고국양왕이라는 견해는 ‘불법을 믿어 복을 구하라’는 기사와 고국양왕 2년(385) 요동을 차지한 것을 근거로 든 것이다. 그러나 고국양왕이 요동을 차지한 기간은 385년 6월부터 11월까지의 만 5개월로 7층목탑을 세우기에는 짧은 기간이며, 또한 고국양왕대의 유일한 불교기사인 ‘불법을 믿어 복을 구하라’는 내용이 고국양왕대가 아니라 광개토왕대라면 성왕이 고국양왕일 가능성은 더욱 줄어든다.

‘永樂’이란 字意가 불교의 ‘永遠한 樂土’, ‘열반의 영원한 즐거움’이란 의미에서 따왔고, ‘불법을 믿어 복을 구하라’란 교서를 광개토왕이 내렸다면, 요동의 7층목탑 건립은 인도의 아쇼카왕이 인도를 통일하고 영원한 樂土인 불국토를 만들기 위해 각지에 탑과 석주를 세우고 불법을 믿을 것을 내외에 선포한 것과 비교될 수 있다. 광개토왕은 요동을 점령한 이후 이곳을 순행하고 7층목탑을 세웠고⁵³⁾ 7층목탑을 세우게 된 인연설화를 인도의 아쇼카왕의 육왕탑과 결부시킨 것이다.

광개토왕은 요동 지역을 점령한 뒤 이곳에 7층목탑을 세우는 데 만족하지 않고 국외의 승려들을 적극 유치하기도 하였다. 중국의 『고승전』과 최치원의 「봉암사지증대사비」에 보이는 동진 시대의 승려인曇始가 대표적인 인물이다.

K-1. 답시는 관중 사람이다. 그는 출가한 이래로 많은 이적을 남겼다.

진의 효무제 태원연간 말기에 경과 울장 수십 부를 가지고 요동으로 가서 교화를 베풀면서 뚜렷하게 三乘을 전수하여 계에 귀의하는 길을 세웠으니, 무릇 이것이 고구려에서 불도가 일어나게 된 시초이다. 그 후 의희연간 초에 다시 관중으로 돌아와서 三輔를 깨우치고 이끌었다.⁵⁴⁾

2. 옛날 우리나라가 셋으로 나뉘어 솔밭과 같이 서로 대치하였을 때에 백제에 소도의 의식이 있었는데, 이는 감천궁에서 금인에

53) 특히 7층 목탑의 7이란 숫자는 전륜성왕이 세계를 통치할 때 사용하는 7가지 보물이기도 하다[金輪寶, 白象寶, 紺馬寶, 神珠寶, 玉女寶, 居士寶, 主兵寶(『한글장아함경』, 86쪽)].

54) 『한글고승전외』, 352쪽 ; 『고려대장경』, 32~864쪽.

게 제시지내는 것과 같았다. 그 뒤 섬서의 담시가 맥 땅에 들어온 것은 섬마등이 동으로 후한에 들어온 것과 같았으며, 고구려의 아도가 우리 신라에 건너온 것은 강승희가 남으로 오나라에 간 것과 같았다.⁵⁵⁾

담시가 활약한 연대는 태원 연간(376~396) 말기[太元之末]부터 의희 연간(405~418) 초[義熙初]이므로 390년대부터 400년대까지 길게는 20년 짧게는 10년 정도이다. 고구려에는 372년 이미 전진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했는데, 담시의 활약상을 고구려에 불도가 일어나게 된 시초라거나 담시를 후한에 불교를 전한 섬마등과 비교한 것은 그만큼 담시의 요동에서의 활약이 컸기 때문일 것이다.

담시의 요동에서의 활약상이 강조된 이면에는 고구려의 불교에 대한 필요성이 적극적이었던 데도 한 요인이 있었다. 372년 불교를 수용하고 성문사와 미불란사를 창건한 이래 잠잠했던 불교는 광개토왕 영락 2년(392) ‘불법을 믿어 복을 구하라’는 교서를 내리고 393년 평양에 9사를 창건하면서⁵⁶⁾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되었다.

9개의 절을 창건하면 국내성에 있던 성문사와 이불란사를 합하여 11개의 사찰이 되며 거기에 머무르는 승려들의 수도 증가했을 것이다. 절과 승려가 늘어나면서 승단을 정비할 계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을 것이다. 승려의 자격을 주기 위해서는 10명의 승가가, 계율을 어긴 승려를 용서하는 출죄를 위해서는 20인의 승가가 필요하므로 이에 따른 율의 정비가 급선무였을 것이다.⁵⁷⁾ 『고승전』 담시전에 언급된 바와 같이 담시가 율장 수십 부를 가지고 요동에서 교화하고 계에 귀의하는 길을 세웠다는 것은 바로 고구려가 계율에 관심이 많았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55) 남동신, 1995(재판), 『봉암사지증대사탑비』, 『역주한국고대금석문』,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199쪽.

56) 평양의 9사 창건에 대해서는 신동하, 1988, 『고구려의 사원조성과 그 의미』, 『한국사론』 19를 참조.

57) 조정철, 2003, 『한성백제시대의 불교문화』, 『향토서울』 63, 187~188쪽.

또한 광개토왕은 요동을 점령한 이후 이 지역에 7층의 목탑을 세웠다고 했는데, 이 목탑을 중심으로 사찰이 조성되었을 것이다. 요동 지역에서의 불교흥포에도 당시의 일익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광개토왕이 요동을 점령한 시기를 「광개토왕릉비문」의 영락 5년조를 근거로 395년 이전으로 본다면⁵⁸⁾ 정확히 당시의 활동시기와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⁵⁹⁾ 요동 지역은 중국의 접경지역으로 명망 있는 중국 승려는 이곳의 민심을 수습하는 데 적합하였을 것이다.⁶⁰⁾

광개토왕은 인도의 아쇼카왕처럼 영토의 통일은 이루지 못했지만 고구려의 독자적인 천하관을 형성하였다. 광개토왕대에 독자적인 천하관을 형성하게 된 이면에는 고구려의 전통적인 신화적 천하관과 유교적 천하관,⁶¹⁾ 불교적 천하관 등이 융해된 다원적 천하관이 존재하고 있었다.⁶²⁾ 신화적 천하관은 「광개토왕릉비문」의 天帝之子나 母河伯女郎, 유교적 천하관은 「광개토왕릉비문」의 昊天不弔,⁶³⁾ 百殘과 倭賊,⁶⁴⁾ 四海, 臣民, 屬民, 老客 등에 나타나며 國社를 세

58) 김영하, 1985, 「고구려의 순수제」, 『역사학보』 106, 45쪽; 손영중, 1986, 「광개토왕릉비를 통하여 본 고구려의 영역」, 『역사과학』 1986-2, 23쪽; 손영중, 2001, 「『광개토왕릉비』 연구」, 사회과학원(중심 북각판), 282~283쪽; 서영수, 1988, 「광개토대왕릉비문의 정복기사 재검토(중)」, 『역사학보』 119, 101~104쪽; 武田幸男, 1989, 『高句麗史と東アジヤ史』, 岩波書店, 213쪽.

59) 광개토왕의 요동 진출 시기를 402년 이후로 보는 견해도 있다(여호규, 2005, 『광개토왕릉비에 나타난 고구려의 대중인식과 대외정책』, 『역사와현실』 55).

60) 평양 덕흥리고분의 피장자인 유주자사 鎭은 석가문불제자로 자처할 만큼 독실한 불교신자였으므로 그의 주위에 중국 승려들이 전법활동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구려는 새로 편입된 요동이나 평양의 점령지역에 중국 승려를 초치함으로써 이들을 통해 민심을 수습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61) 고구려의 천하관은 바로 신화적 천하관과 유교적 천하관의 융합이란 측면에서 파악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여기에 불교적 천하관을 더해야 할 것이다. 고구려의 천하관에 대해서는 양기석, 1983, 「4-6세기 고구려 왕자의 천하관에 대하여」, 『호서사학』 11과 노태돈, 1988, 「5세기 금석문에 보이는 고구려인의 천하관」, 『한국사론』의 논문을 참조.

62) 다원적 천하관은 천하관의 중심이 지역적으로 다수 존재한다는 의미에(노명호, 1999, 「고려시대의 다원적 천하관과 해동천자」, 『한국사연구』 105) 더하여 다원적 천하관 내부에 신화적·유교적·불교적 천하관의 여러 천하관이 융해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융합적(복합적) 천하관이라 명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63) 不弔昊天 不宜空我師(『詩經』小雅 節南山).

우거나 종묘를 수리하거나 연호를 사용한데서도 드러난다. 불교적 천하관은 「광개토왕릉비문」에 보이는 永樂이란 연호의 字意와 ‘불법을 믿어 복을 구하라’는 교서와 평양 9사 창건, 요동의 7층목탑 건립 등에 나타난다.

장수왕은 부왕인 아버지의 뜻을 계승하여 평양으로 도읍을 옮기면서 실질적인 영토의 통일까지도 염두에 두었는지 모른다. 아버지 광개토왕의 업적을 기리면서 국내성에 6.39m에 달하는 광개토왕릉비를 세우고 그것을 모방하여 중원에 고구려비를 세우면서 통일의지를 다져 나갔다. 아마도 중국이 남조와 북위의 양극체제로 전환되지 않고 계속 5호 16국 시대로 분열되었다면 아쇼카 왕의 인도 통일에 버금가는 장수왕의 삼국통일도 실현을 보았을 것이다.

V. 맺음말

칭원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즉위년칭원법이고, 다른 하나는 유년칭원법이다. 즉위년칭원법은 전왕이 죽은 해를 새 왕의 원년으로 삼는 방식이고, 유년칭원법은 전왕이 죽은 이듬해를 새 왕의 원년으로 삼는 방식이다.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즉위년칭원법을 사용하고 있다.

고구려 광개토왕은 「광개토왕릉비문」에 따르면 이름이 ‘국강상광개토경평안호태왕’으로 나와 있고 ‘영락태왕’이라고도 불렸다. ‘영락’은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알려진 연호 가운데 최초의 연호이다. 비문에 따르면 영락 원년은 391년인데 『삼국사기』에는 광개토왕이 왕위에 오른 해를 392년이라 기록하고 있어 서로 간에 1년간의 연대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64) 『孟子』 梁惠王 下에 따르면 仁을 해치는 자를 賊이라 하고, 義를 해치는 자를 殘이라 하는데, 倭賊의 賊과 百殘의 殘은 왜와 백제를 仁義를 해치는 賊殘으로 본 것이다(이도학, 2006, 앞의 글, 221쪽).

그런데 영락 원년이 391년이란 견해는 수긍할 수 있지만 광개토왕이 즉위한 해가 391년이란 견해는 선뜻 동의할 수가 없다. 영락 원년이 391년이라고 선불리 단정한 것은 광개토왕대 칭원법이 『삼국사기』의 즉위년칭원을 따랐을 것이라고 안이하게 생각한 데 있다.

당시 동아시아에서는 동진을 비롯하여 5호 16국의 여러 나라들이 난립하였는데, 각 나라들이 독자적으로 연호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들 나라의 칭원법은 모두 한결같이 유년칭원을 사용하고 있었다. 고구려, 백제, 신라의 경우 유년칭원을 한 사례가 있으므로 고구려도 유년칭원의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광개토왕의 아버지인 고국양왕이 392년에 ‘불법을 믿어 복을 구하라’라는 교서를 내리고 있다. 그런데 392년은 이미 광개토왕이 왕위에 오른 이후라 이 기사 연대를 392년이 아니고 391년으로 조정하거나, 고국양왕이 죽은 기사만 391년으로 보고 나머지 기사는 392년으로 보아 ‘불법을 믿어 복을 구하라’는 교서를 고국양왕대로 해석하거나 광개토왕대로 해석해 왔다.

물론 광개토왕의 즉위년이 390년이라도 고국양왕 9년(392) 기사는 390년으로 2년 앞당기거나 그대로 392년 기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문제는 남는다. 하지만 즉위년이 390년이 될 경우, 종래 즉위년이 391년일 경우보다 고국양왕 9년(392) 기사를 광개토왕대의 기사로 볼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광개토왕의 즉위년이 390년이라면 광개토왕의 장례기간도 새롭게 볼 여지가 있다. 종래 만 2년이 안 되는 장례기간을 가지고 3년상이라 주장했지만, 즉위년을 390년으로 본다면 광개토왕의 장례를 만 35개월의 3년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광개토왕대의 불교관계 기사는 『삼국사기』에 따르면 평양에 9개의 절을 창건한 기록이 유일하지만 평안남도 남포시의 덕흥리고분의 무덤 주인공인 유수자사 진이 석가문불제자라 칭한 것에서 일반귀족들이 불교를 믿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중국 『고승전』에 따르면 중국 승려 담시가 당시 고구려 영토였던 요

동 지방에서 전법활동을 펼친 사실을 가지고 고구려에 불교가 일어나게 된 시초가 되었다고 할 만큼 요동 지방에서의 불교활동이 활발했음을 알 수 있다. 덧붙여 『삼국유사』 요동성 육왕탑조에는 고구려의 성왕이 요동에서 아육왕이 세운 불탑을 보고서 감화되어 7층목탑을 세웠다고 기록하고 있다.

고구려의 성왕에 대해서는 동명성왕, 고국양왕, 광개토왕이라는 설이 분분하지만 광개토왕이 아래로는 평양 이남, 위로는 요동까지 영역을 확장하고 새로 확장한 지역의 민심수습과 정신적 통일을 취하기 위하여 평양에 9사를 창건하고 요동에서는 당시 등 중국 승려들의 교화활동을 보장해 준 것이나 ‘불법을 믿어 복을 구하라’는 교서를 내린 것을 볼 때 광개토왕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광개토왕은 영락이란 연호를 관칭하여 당시 사람들이 영락태왕이라 불렀다. 영락이란 연호는 광개토왕이 왕위에 오른 이듬해인 391년 제정했는데, 바로 이 영락이란 연호를 사용하면서 ‘불법을 믿어 복을 구하라’라는 교서를 내린 것이 의미심장하다. 붓다의 정법을 믿어 국리민복을 추구하고자 했던 광개토왕의 국가통치 이념이 바로 영락이란 연호에 응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영락은 ‘영원한 낙토’, ‘영원한 법의 즐거움’, ‘영원한 열반의 즐거움’으로 풀 수 있겠다.

당시 동진을 비롯한 여러 나라가 독자적으로 연호를 쓸 수 있었던 사상적 배경은 유교이념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하다. 여러 天觀을 갖고 있던 불교사상적 배경을 무시할 수 없다. 북조의 여러 나라들이 사용한 왕의 칭호인 天王도 불교의 세계관을 반영한 天王觀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광개토왕의 아들 장수왕은 국내성에 광개토왕릉비를 세워 광개토왕의 업적을 기리는 한편 아버지가 못 다한 통일천하의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그 구체적인 발현이 장수왕의 평양 천도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ABSTRACT]

Yeongrak era and Buddhism of King Gwanggaeto

Jo, Kyungcheoul

According to *Samguksagi*(三國史記), King Gwanggaeto(廣開土王) succeed the throne in 392. However abiding by the inscription of Gwanggaetowangbi(廣開土王碑), the first year of Yeongrak, which is his own era name was declared in 391. Therefore, there still is a debate that *Samguksagi*'s recorded year of Yeongrak could be false. It is more widely known up to date the year 391 was when King Gwanggaeto came to the throne. This is based on Jeugweneunchingweon(卽位年稱元) method. But considering the example of China, Yeongrak may have followed Yuneunchingweon(踰年稱元) method. As a matter of fact, King Gwanggaeto came to the throne in 390. According to Yuneunchingweon(踰年稱元) method, King Gwanggaeto's funeral was held for three years. The meaning of Yeongrak(永樂) is rejoicing of eternal nirvana(涅槃).

keywords

Samguksagi, King Gwanggaeto, Gangaetowangbi, Yeongrak, Jeugweneunchingweon, Yuneunchingweon

‘東北工程’ 前史

- 傅斯年的『東北史綱』 비판 -

이병호 | 미국 미시간대학교 사회학과 박사 수료

I. 머리말

지난 몇 년간 중국정부의 변강사 연구 프로젝트인 ‘東北邊疆歷史與現狀系列研究工程(이하 ‘東北工程’)은 韓·中 양국 간 첨예한 외교문제로 부각되어 왔다. 그 ‘동북공정’의 초기 主役 중 한사람이었던 馬大正은 변강(역사)연구를 중국의 변강안정전략의 일부로 인식하면서, 변경지방이 불안정해질 세 가지 정황으로 분리독립운동, 국경분쟁, 인접국의 정세변화를 지적한 바 있다. 특히 그는 현재 변경지역 안보를 위협하는 외생적 변수 중 가장 두드러진 문제로 한반도 정세변화가 중국 동북지구에 미칠 영향이라고 보면서, 이에 대해 5가지 문제, 즉 탈북자문제, 한국의 종교침투문제, 중국 동북지방에서 펼쳐지는 남북 간 첩보전 문제, 한반도 통일문제, 북핵문제를 언급하고 있다.¹⁾ ‘동북공정’의 또 다른 주역인 李國強²⁾ 역시 1980년대 이래 중국 동북지역을 둘러싼 국제환

1) 馬大正, 2004a, 「關於當代中國邊疆研究中的幾個問題」, 『當代中國史研究』 第11卷 4期, 88~89쪽.

2) 李國強, 2004, 「“東北工程”與中國東北史研究」, 『中國邊疆史地研究』 第14卷4期,

경의 대변화에 주목하면서, 이에 대한 사회과학계의 대응이 바로 ‘동북공정’의 유래이자 그 의의라고 주장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는 ‘동북공정’이 본질적으로 인접국가 특히 한반도 정세변화에 기인하는 중국 동북지방의 불안정 가능성을 해소하려는 국가전략 사업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마대정의 이러한 지정학적 사고는 중국에서의 변경지역 역사·문화 연구가 순수한 학술적 동기라기보다는 정치적 고려, 즉 邊政을 도모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는 차원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는 변경 안정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대만문제이며, 그 다음으로 서북(新疆위구르)지역과 동북지역을 꼽고 있다. 여기서 티베트문제가 빠진 것은 다소 의외이지만, 어쨌거나 현재 중국 관변학자들은 중국 서북과 동북지방이 변경문제의 핵심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邊政을 위한 역사·문화 연구’라는 그들의 연구원칙을 통해 볼 때, 본디 신강위구르 지역사 전문가인 마대정이 ‘동북공정’에 투입되는 것은 하등 이상할 것이 없다.

주지하듯이 변경지역에 대한 중국 관변학계의 대응논리와 핵심명제는 거의 일치한다. 즉, 표면적으로는 “역사와 현실은 분리되어야 하고, 학술과 정치도 분리되어야 한다(歷史與現實分開, 學術與政治分開)”는 연구방침을 천명하고 있지만, 실상 변강사 연구는 현실정치의 한 방편일 따름이다.³⁾ 그런데 최근 중국의 이런 역사연구 방식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는 역사가 현실의 정치를 정당화하도록 국가권력으로부터 요구받아온 사회주의 역사의 특징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구소련, 동구 사회주의 국가나 북한에서 나타나듯, 현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역사는 현실의 정당화를 위한 요인이며, 일체의 역사연구는 국가가 당면한 정책적 목표를 정당화하는 구실에 충실해 왔다.⁴⁾ 때문에 邊政을 도모함이 학술연구의 궁극적 목적이 되는 현실에서 ‘학술과 정치의 분리’를 운운하는 것은 자가당착에 지나지 않는다.⁵⁾

1~3쪽.

3) 馬大正, 2005, 「東北邊疆歷史研究的回顧與思考」, 『北華大學學報』第6卷 1期, 41쪽.

4) 이기동, 1999, 「북한 역사학의 전개과정」, 『전환기의 韓國史學』, 일조각.

5) 이기동, 2007, 「岐路에 선 中國 역사학 : ‘東北工程’문제와 관련하여」, 동북아역사재

그렇다면 근자의 '동북공정'에서 표출되는 지정학적 인식과 역사에 대한 목적론적 해석은 중국 사회주의 역사학의 특징으로만 귀속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념과 무관하게) 그동안의 중국 역사가들의 변경지역에 대한 역사관을 충실히 계승한 것인가? 이 논문에서 필자는 후자의 가능성에 주목한다. 그렇다면 '동북공정'에서 표출된 현대 중국 역사가들의 만주사 인식의 뿌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흔히 '동북공정'의 원조로 金毓黻(1887~1962)의 1941년 저작『東北通史』를 꼽는다. 그간 우리 학계에서는 이 책의 사학사적 의의를 다음과 같이 부여해 왔다. 즉, 이 책은 만주지역을 중국사에 편입시키려 한 최초의 저술이며, “東北史는 중국 일부의 지방사이고 또한 지방지의 일종”이란 김육불의 시각을 통해 '동북공정'의 前史를 밝히는 귀중한 단초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중국 학자들 역시 김육불을 동북변강 역사연구의 '개척자'로 높이 평가하고 있다.⁶⁾

이 논문에서 필자는 동북공정의 前史를 기존의 해석보다 다소 앞당긴 1931년 滿洲事變(중국에서는 '9·18사변') 직후로 소급한다. 본문에서 자세히 논의하겠지만, 이 시기 중국 역사학자들의 만주사 연구의 동기와 목적은 '동북공정'과 비교했을 때 맥락의 차이는 다소 있을지언정 놀라울 정도로 흡사하다. 특히 만주지역 失地라는 지정학적 위기상황 속에서, 당시 학계를 주도하던 많은 사학자들은 시대의 요구에 부응키 위해 만주사 연구에 다급히 뛰어들었다. 여기서는 특히 중국 실증사학의 泰斗로 평가받는 傅斯年의 1932년 저작『東北史綱』과 같은 해 李濟(Li Chi)에 의해 축약된 형태로 영역된 *Manchuria in History*를 증점적으로 논의하겠다.⁷⁾

사실 『동북사강』은 근대 중국 역사학자들의 만주지역에 대한 최초의 전문

단 수요포럼 강연문.

6) 馬大正, 2005, 앞의 글; 王夏剛, 2005, 「論抗戰時期的中國東北史研究」, 『大連大學學報』 第26卷 5期.

7) 이 논문에서는 1932년(民國 21) 10월 출간된 『東北史綱 初稿(第1卷 古代之東北)』 초판(시카고대학 도서관 소장본)을 인용하였다. 같은 저작은 2003년 北京大學 歐陽哲生 교수가 편집한 『傅斯年全集』 제2권에 수록되어 있다. *Manchuria in History* 역시 1932년 출간된 원본(미시간대학 소장본)을 인용하였다.

연구서라는 의미에도 불구하고, 그간 한국 학계에선 이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는 중국 학계도 별반 다르지 않다. 『동북사강』이 역사학자들의 주목을 그다지 받지 못한 것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부사년이 이 책을 출판한 다음부터 더 이상 만주지역 역사연구에 대한 성과를 내놓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오래전에 이미 잊혀진 고전을 필자가 다시 끄집어낸 이유는 이 책의 학술적 업적을 재조명하기 위함이 아니다. 대신 ‘學術救國’이란 동기에 따라 집필된 이 저작을 통해 필자는 소위 ‘실증적 역사연구’가 현실적·정치적 목적에 종속될 경우 갖는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동북사강』이란 텍스트를 통해 정치적 동기에 종속된 목적론적 역사연구가 가지는 한계를 비판하고, 나아가 근자의 ‘동북공정’ 역시 70여 년 전 중국 역사학자들이 빠졌던 오류를 답습해 가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II. 『동북사강』의 저술배경

지식체계의 ‘사회적 구성’을 강조하는 지식사회학의 입장에서 볼 때, 역사가들이 가지는 ‘관점’이나 연구주제 역시 그들 자신이 처해 있는 사회적 배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필자는 『동북사강』이야말로 그 당시 시대상과 중국 역사가들의 입장을 잘 반영하는 작품이라고 본다. 중국인의 시각에서 당시 위기에 처한 만주지역을 구하겠다는 의지가 투영된 이 책이야말로 객관적이어야 할 역사적 사실들이 어떤 식으로 연구자의 주관에 따라 조작되고 曲解되는지를 극명히 보여주기 때문이다. 물론 만주지역 역사에 대한 각국 역사학자들의 인식(특히 중국, 일본, 한국)은 각자 처한 시대적·정치적 환경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했으며 이는 지금까지도 극복되지 못한 숙제이다.

부사년은 『동북사강』 머리말에서 이 책의 집필동기를 크게 두 가지로 꼽는다. 먼저 소위 ‘대륙정책’과 ‘滿蒙生命線’이란 명분으로 만주사변(영어로는

Mukden Incident)을 일으킨 일제의 침략행위에 대한 분노와 이에 대한 중국인들의 자각을 촉구하기 위함이고, 둘째로 일본 학자들의 “만주와 몽고는 역사적으로 중국의 영토가 아니다(滿蒙在歷史上非支那領土)”라는 주장을 실증적 역사연구를 통해 반박하기 위함이다.⁸⁾ 다음으로 그는 왜 ‘만주’가 아닌 중국 ‘동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지에 대한 뜻을 밝힌다.⁹⁾ 왜냐하면 ‘만주사’인가 중국의 ‘동북사’인가라는 논쟁은 당시 중일 간 역사인식의 차이를 상징하는 記標(signifier)이기 때문이다. 이를 토대로 볼 때, 『동북사강』 집필목적은 만주지역의 역사적 성격과 지역명칭 등에 관해 그동안 일본 측이 꾸준히 제기 해온 주장들을 중국인의 시각에서 바로잡는 것이었다.

이 장에서는 우선 만주사변 이전의 중국과 일본의 만주지역에 대한 인식과 역사연구 경향을 검토한다. 먼저 1절에서는 중국의 만주지역과 그 역사에 대한 인식 그리고 ‘동북’에 대한 개념적 고찰을 시도한다. 2절에서는 메이지유신 이래 일본 동양사학계의 만주지역 인식을 다룬다. 3절에서는 부사년 史學의 특징과 『동북사강』 편찬 프로젝트를 개관하겠다.

1_ 만주사변 이전 중국의 만주지역에 대한 인식 - ‘만주’에서 ‘동북삼성’으로

만주지역은 이미 만주사변 이전부터 오랫동안 국제적 영토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었다. 특히 清末 이래 중국정부는 이 지역을 두고 러시아·일본과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중국정부와 중국인들은 만주지역에 대한 전통적 관념들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소위 ‘동북’이란 개념과 근대국가의 영토의 일부라는 ‘변장(borderland)’ 개념의 등장이다.

8) 傅斯年, 1932, 『東北史綱 初稿 (第1卷 古代之東北)』, 北平: 國立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 1~2쪽.

9) 傅斯年, 1932, 위의 글, 3~6쪽.

사실 이 지역을 주권국가의 영토개념으로 인식하고 또한 方位적 개념인 ‘동북지방’으로 부른 것은 100여 년 정도에 불과하다. 19세기 중반까지 清朝의 만주족 지배집단은 만주지역을 현재와 같은 ‘영토적 주권(territorial sovereignty)’ 개념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종족적 주권(ethnic sovereignty)’ 즉 만주왕조의 성스러운 발상지(terre natale)이자 고향이란 개념으로 인식해왔다.¹⁰⁾ 이런 개념은 만주를 중국과 격리시키는 정책 특히 漢族의 이민을 막는 封禁政策 등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물론 이는 만주 고유의 전통과 문화는 중국 내지와의 접촉을 최대한 배제할 때만이 온전히 유지될 수 있다고 믿었던 청조 지배층의 현실인식을 반영한다.¹¹⁾ 그리고 행정·사법적으로도 만주지역은 중국 內地와는 다른 방식으로 통치되었는데, 특히 18세기 중엽부터 만주지방의 모든 관리들은 만주족으로 채워지게 되었다. 하지만 만주라는 ‘聖地’를 중국으로부터 분리하려는 이런 시도들은 이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진출이 본격화되자 변화하기 시작한다.

만주족 지배집단은 점차 만주를 중국의 영향으로부터 지켜내려는 종래의 시도가 역설적으로 이 지역을 외세의 수중에 떨어지게 할 것이라고 인식하기 시작했다. 특히 1900년 제정러시아가 만주의 주요 지역 특히 盛京(현재의 瀋陽)의 황궁을 2년 반이나 점령하고, 러일전쟁 이후 일본이 旅順과 大連의 조차

10) Mark Elliott, 2000, “The Limits of Tartary : Manchuria in Imperial and National Geographies,” *Journal of Asian Studies* 59(3) ; Dan Shao, 2005, “Borderlanders between Empire and Nation : Banner People in Early Twentieth-century Manchuria,” *East Asian History* 30. 한편 청조 통치자들은 만주지역을 죄인들의 유배지로 이용하였다. 현재 일리노이대학(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교수인 邵丹에 따르면, 清朝는 이미 17세기 중반 順治帝 시절부터 범죄인 특히 정치범들을 만주지역으로 유배시켰다고 한다(Dan Shao, 2005, p. 26). 이는 만주에 대한 만주족 지배집단의 상반된 인식 즉 ‘성스러운 발상지’이자 동시에 ‘궁벽하고 척박한 지역’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그리고 1736년에는 오로지 만주족 죄인만이 이 지역으로 유배된다는 칙령이 반포되었는데, 이는 중국과 만주지역을 격리시키려는 청조 통치자의 의지가 얼마나 강렬했는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이다.

11) Robert H. G. Lee, 1971, *The Manchurian Frontier in Ch'ing History*, Cambridge : Harvard University Press.

권과 남만주철도를 획득하자 이런 위기의식은 심화되었다.

이런 이유에서 청조 말기인 1907년 만주지역은 ‘東三省’ 즉 奉天省, 吉林省, 黑龍江省이란 형태로 국가행정 체계의 일부로 편입되었다. 이에 따라, 청조의 최초의 수도이자 중국 정복 이후에도 줄곧 제2의 수도 역할을 한 盛京은 단순히 봉천성의 省都로 격하되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만주지역은 현재와 같은 ‘東北’三省이 아닌 ‘東’三省으로 인식되었다는 점이다. 하버드대학 만주사 전공 교수인 마크 엘리엇(Mark Elliott)은 이를 만주 지배층의 전통적인 방위개념이 반영된 것으로 본다. 즉, 1644년 山海關을 넘어 중원을 점령할 당시 만주족들은 자신들이 서쪽으로 이동한다고 보았지 남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北京은 盛京과 같은 위도라고 굳게 믿던 康熙帝는 제수이트 선교사로부터 盛京이 북경의 북쪽에 있다는 말을 듣자 큰 충격을 받았으며, 1698년 자신이 몸소 盛京을 방문해 이 사실을 시험하기에 이른다. 결국 지리적 사실관계를 확인한 강희제는 공개적으로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였고, 나아가 제수이트 선교사들이 제안한 청조 강역에 대한 지도제작 계획을 허락하였다.¹²⁾ 어쨌든 청말 민국초 만주지역은 ‘동삼성’ 혹은 ‘동북삼성’이란 방위적 개념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이런 행정적 재편과 더불어, 만주지역은 (중국 내지와 구별되는) ‘만주족의 땅’이란 전통적 관념으로부터 주권국가 영토의 일부, 즉 ‘변강’이란 개념으로 새롭게 인식되기 시작한다. 특히 ‘間島問題’와 같이 영토를 둘러싼 국제적 분쟁이 일어나면서, 만주를 중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로 보는 인식이 급속히 자리하게 된다. 주지하듯이 反淸 혁명가 宋教仁(1881~1913)의 『간도문제』(1908)는 이 지역에 대한 중국의 영토주권을 주장한 대표적 저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주 땅이 중국 본부와 구별된다는 생각은 중화민국의 성립 직전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가령 극단적 反滿 민족주의자 章炳麟(1869~1936)은 만주 지역을 ‘만주인의 땅’으로 생각했으며, ‘反滿主義’란 만주인을 원래 살던 고향으로 몰아내고 다시는 한족의 땅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했

12) Mark Elliott, 2000, pp. 621~622.

다. 심지어 또 다른 혁명가 劉師培(1884~1920)는 「辨滿人非中國之臣民」(1907)이란 글에서 만주정권의 발상지였던 建州衛는 결코 明帝國의 영토가 아니었으며, 이 지역은 역사적으로 결코 중국에 속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¹³⁾ 역설적으로 이런 주장들은 (비록 정반대의 이유지만) 자신들이 그토록 증오했던 만주족 지배층이 가졌던 생각과 같은 결론, 즉 '만주와 중국은 격리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다만 이들의 주장은 근대적 사회이론 특히 서구 인종주의와 사회진화론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으며, 한족과 만주족 간의 인종적 배타성을 영토적 배타성으로 확장시킨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즉, 만주지역은 인종적으로 열등한 만주족의 뿌리이며 이들보다 우월한 漢族들의 터전인 중국과 다르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우리는 만주지역에 대한 反滿 혁명가들의 인식이 적어도 民國혁명 이전까지는 통일되지 않았으며, 상호 모순된 관점들 특히 인종주의와 영토주권 개념이 상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¹⁴⁾ 잘 알려진 바대로, 중화민국 건립으로 혁명의 목적이 달성된 이후 기존의 反滿 민족주의는 孫文이 제창한 五族共和 이론으로 바뀌었다.¹⁵⁾

한편 만주사변이 발발하기 전까지 중국 학자의 만주사에 대한 연구성과는 다른 변강지역 특히 신강위구르를 중심으로 한 서북지역에 비해 상당히 부진한 편이었다. 다시 말해, 청말·민국 초기 만주지역에 대해 중국 역사학자들이 내놓은 주목할 만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다. 필자는 이런 이유에 대한 해답을 앞서 논의한 청말 혁명가들의 인식에서 부분적으로 구할 수 있다고 본

13) Yoshihiro Ishikawa(石川禎浩), 2003, "Anti-Manchu Racism and the Rise of Anthropology in Early 20th Century China," *Sino-Japanese Studies* 15, p. 18.

14) 중국 혁명가들의 反滿主義에 대한 중국 사학계의 평가는 Joshua A. Fogel, 1977, "Race and Class in Chinese Historiography: Divergent Interpretations of Zhang Bing-lin and Anti-Manchuism in the 1911 Revolution," *Modern China* 3(3)을 참고. 아울러 근대 중국의 인종주의와 이에 결부된 민족주의에 관한 개괄적 논의는 Frank Dikötter, 1992, *The Discourse of Race in Modern China*,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를 참고.

15) 王柯, 金貞姬 역, 2004, 『민족과 국가』, 고구려연구재단, 282~322쪽(王柯, 2001, 『民族與國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다. 즉, 만주지역을 인종적으로 한족과 다른 종족집단 특히 만주족의 터전으로 보았기에 이 지역의 역사를 漢族 중심인 중국 역사의 일부로 편입시키려는 시도는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다. 다소 역설적이지만, 이민족 왕조인 청조가 중국을 지배하는 한 만주지역 역사를 무리하게 중국사에 편입시킬 필요는 없었다. 송교인의 경우 중국(당시 淸帝國)이 간도지역 영유권을 가지는 역사적 이유로 이 지역이 청조의 발상지이자 그 시조인 말갈, 여진족이 오랜 기간 점유하였다는 사실을 꼽고 있을 따름이다. 나아가 漢族 중심의 민족주의, 즉 '大漢族主義'가 팽배했던民国 초기에 만주지역이 중국 역사가들의 연구주제에서 벗어나 있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일지 모른다. 이는 『동북사강』을 집필하기 이전의 부사년과 다른 역사학자들의 경우에도 해당된다.

2. 일본 학자들의 만주사 인식 - 소위 '滿蒙非支那論'의 계보

중국과는 대조적으로, 일본에서는 메이지유신 이래 많은 저명한 동양사학자들이 만주와 몽고 지역에 대한 연구에 힘을 기울여 왔다. 여기서 우선 주목할 것은 漢族과 만주족 간의 인종관계이다. 일본 동양학의 창시자 중 하나인 구와바라 지쓰조(桑原 藏, 1871~1931)는 1898년 출판된 『中等東洋史』란 교과서에서 황인종을 두 분류로 나누는데, 하나는 漢人和 티베트인이 속하는 중국계 인종이고, 다른 하나는 몽고인, 퉁구스인, 터키인이 속하는 시베리아계 인종이다.¹⁶⁾ 구와바라의 분류를 따른다면, 한족의 중국과 퉁구스계의 일파인 만주족은 인종적으로 완전히 다른 집단으로 간주된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인종분류 이론은 성격이 전혀 다른 두 집단에 영향을 미쳤다. 첫째로, 앞서 논의한 反滿 혁명가들로서 이들은 滿族同化論을 주장하는 康有爲 등에 대항할 이론적 무기로 당시 일본에서 유행하던 인종이론을 적극 수용하였다. 둘째로, 일본 동양사학자들로서 이들은 만주와 몽골지역에선 중국인과 인종적으로 계통이 전혀 다른 종족들이 거주해 왔으며, 따라서 이들 지역의 역사는 당연히 중국사에 속하

16) Yoshihiro Ishikawa(石川禎浩), 2003, p. 17.

지 않는다는 논리를 전개하였다. 대신에 이 지역과 일본의 관련성을 적극 부각시키는데, 가령 강경한 팽창주의자이자 蒙古通으로 알려진 사사키 야스고로(佐々木安五郎, 1872~1934)가 주장한 日蒙同祖論이 이에 속한다.

일본 학계의 이 지역 역사연구는 러일전쟁 후 본격적으로 진행되었고, 1932년 '만주국' 성립 이후 가속화되었다. 이 당시 일본 학자들의 연구는 대개 만주지역 역사가 중국역사에서 분리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종 강조하였으며, 이러한 견해는 당시 일제의 제국주의적 팽창논리를 학문의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학설이었다. 여기서는 만주사변 이전 시기의 연구를 중점적으로 개관하고자 한다.

우선 일본 동양사학의 개척자 중 한명인 東京大學 교수인 시라토리 구라키치(白鳥庫吉, 1865~1942)는 예전부터 만주지역은 중국의 일부가 결코 아니었으며, 滿·漢·蒙 3개 민족이 서로 패권을 다투던 지방으로 보았다. 나아가 그는 만주, 조선에 관한 지역연구는 몹시 실용적 이유, 즉 제국주의적 지배를 정당화시키는 목적을 가진다고 보았다. 그는 『滿鐵』 총재 고토 신페이(後藤新平)에 보낸 서한에서 만주와 조선지역에 대한 철저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그 이유로 “현재 각종 사업은 모두 튼튼한 학술적 기초 위에 세워져야만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¹⁷⁾ 시라토리와 더불어 동양사학계를 양분했던 京都大學 교수 나이토 고난(內藤湖南, 1866~1934) 역시 1914년 발표한 『支那論』에서 “중국은 응당 중국 주변의 영토를 放棄해야 하며, 중국 본부를 보유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¹⁸⁾ 여기서 중국 본부란 중국의 18개 쑤을 지칭하며 만주의 동(북)삼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이토의 제자인 이나바 이와키치(稻葉岩吉, 1876~1940) 역시 『滿洲發達史』에서 만주와 중원 분리론을 주장하였다.¹⁹⁾ 간단히 말해, 그의 주장은 秦代

17) 王夏剛, 2005, 앞의 글, 91~92쪽.

18) 鄒海英, 2006, 『傅斯年與《東北史綱》研究』, 遼寧大學 석사학위논문, 9쪽.

19) 이 저작은 1915년 출판 이래 1935년 增訂版이 나왔다. 이 책은 일제와 滿洲國이 고취하고자 했던 '만주와 중원 분리론'의 경전으로 간주되었다.

이래로 만주지역은 몽고계 민족집단들(숙신, 부여, 선비, 흑수말갈, 고구려, 거란, 여진, 몽고 등을 총칭)이 경영해온 땅이며, 그 민족들의 활동사가 만주사라는 점이다. 특히 엄밀한 사실적 '고증'을 통해 이들 민족과 중원은 '침략과 피침략'의 관계였으며 때때로 서로를 이용하는 관계에 불과하다고 본다. 이를 통해서 현재 만주에 거주하는 수천만의 중국인 '교민'들은 이 지역 주인공인 만주인들에게 초대받지 않은 침략자들에 불과하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이런 이나바의 견해는 1940년 저작 『滿洲國史通論』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²⁰⁾ 한편 외교사 전공자이자 京都大學 교수였던 야노 진이치(矢野仁一, 1872~1970) 역시 비슷한 주장을 펼쳤다. 그는 1920~1930년대 여러 언론매체를 통해 중국(支那로 표기)은 원래 국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주장(支那無國境論)을 펼치면서, 만주·몽고·티베트는 결코 중국의 영토가 아니며 일본은 만주지역에 대해 '특수한 권익'을 가진다는 입장을 개진했다.²¹⁾ 야노 역시 이나바와 마찬가지로 만주지역을 滿蒙人の 거주지로, 漢族을 침략자로 인식하면서, 만주 역사를 만몽인이 한족을 驅逐해가는 과정으로 묘사하였다.

요컨대 일본 관변학자들의 이러한 '滿蒙非支那論'의 계보는 만주지방을 철저하게 非漢族의 역사로 기술함으로써 이 지역을 중국 역사에서 분리하려는 시도였다. 또한 재일동포 사학자 이성시²²⁾가 정확히 지적하듯, 이런 학설들은 근대 일본의 프런티어인 만주지역에 대한 일본 국민의 의식을 환기하고 일본의 역할을 자각시켜, "이 지역의 장래에 대한 방책을 그려치지 않게 한다"는 정치적으로 몹시 불순한 동기가 깔려 있었다. 바로 만주사변의 실질적 기획자였던

20) 이성시, 2004, 「동북아시아 경계영역의 역사인식: '배타적 점유'로부터의 해방」, 한양대학교 비교역사문화연구소 심포지엄 발표문, 53쪽.

21) 대표적으로 1922년(大正 11) 『外交時報』에 실린 논문 「滿蒙藏は支那の領土に非る論」을 꼽을 수 있다. 王泛森(Wang Fan-shen, 2000, *Fu Ssu-nien: A Life in Chinese History and Politics*,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p. 252)은 이 글이 1931년 『外交時報』에 나온 것으로 인용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필자는 이 글이 1923년 출판된 矢野仁一の 『近代支那論』 92~112쪽에 수록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 책에는 1921년 오사카 『아사히신문』에 게재된 「支那無國境論」도 실려 있다.

22) 이성시, 2004, 앞의 글, 52쪽.

이시하라 간지(石原莞爾)는 사변이 일어나기 4년 전인 1927년에 이미 육군대학 강의에서 “만주와 몽고는 한족의 영토가 아니며 오히려 우리 일본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고 설파하였다.²³⁾ 여기서 우리는 현실정치의 목적에 영합하기 위해 만들어진 관변 역사가들의 담론이 가지는 위험성을 목도하게 된다.

3. 滿洲地域史에 대한 중일 간의 ‘학술전쟁’ - 부사년과 『동북사강』

이러한 일본의 움직임과 달리, 1931년 이전 중국 역사학계는 (1절에서 언급했듯이) 만주지역 역사에 대해 이상하리만큼 무관심하였다. 중국 역사학자들의 만주사에 대한 관심은 내재적이라기보다는 外因의 동기가 강했다. 정치적 동기로는 물론 만주사변이라는 대격변이 결정적인 도화선이었다. 학술적 동기 역시 당시 일본학자들의 滿鮮史, 滿蒙史 연구에 자극받은 측면이 강했다. 일본의 도발에 대한, 중국 역사학자들의 대응논리가 최초로 집약된 것이 바로 『동북사강』과 영문 요약본 *Manchuria in History*이다. 먼저 이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총괄했던 傅斯年(1896~1950)에 대해 간략히 소개한다.²⁴⁾

흔히 ‘중국의 랑케’라고 불리는 부사년은 근대적 실증사학의 기틀을 닦은 인물로 평가받는다.²⁵⁾ 그는 젊은 시절 7년간 영국과 독일에서 근대적 학문을

23) 鄒海英, 2006, 앞의 글, 10쪽.

24) 부사년에 대한 권위 있는 학술적 전기로는 대만학자 王泛森的 연구를 꼽을 수 있다 (Wang Fan-shen, 2000). 그는 2003년부터 歷史語言研究所 소장직을 맡고 있다. 그리고 저명한 역사가 傅樂成 역시 자신의 삼촌인 부사년에 대한 많은 저작을 남겼다(傅樂成, 1979, 『傅孟真先生年譜』, 臺灣傳記文學出版社). 한편 정치적 이유 때문에 본토 중국에서 부사년의 연구는 오랫동안 거의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하지만 근자에는 대륙에서도 연구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25) 부사년의 실증사학과 랑케사학의 연관성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는 Thomas Fröhlich, 2000, “Book Reviews of Axel Schneider’s *Wahrheit und Geschichte*,” *China Review International* 7(1); Axel Schneider, 2004, “Reconciling History with the Nation? Historicity, National Particularity, and the Question of Universals,” *Leidschrift* 18(3) 참고. 부사년의 독일 유학 시절을 꼼꼼하게 추적한 王泛森 역시 랑케사학이 부사년의 역사연구에 미친 영향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두 사람의 차이점에 주목하였다(Wang Fan-shen, 2000, pp.

을 두루 섭렵했으며, 귀국한 후에는 顧 剛(1893~1980) 등과 함께 중앙연구원(Academia Sinica) 산하 歷史語言研究所(Institute of History and Philology) 설립을 주도하였다.²⁶⁾ 그리고 1928년에 초대 소장으로 부임한 이래 1950년 사망할 때까지 연구소를 이끌었다. 특히 그는 1928년 10월 이 연구소가 장차 진행할 연구의 방향과 그 취지를 밝힌 「歷史語言研究所工作之旨趣」란 글에서 “근대적 역사학은 史料에 대한 연구와 다를 바 없다(近代的史學只是史料學)”라는 유명한 선언을 하였다.²⁷⁾ 이 말은 역사에 대한 주관적 편견이나 규범적인 해석을 완전히 배제한 채, 자연과학과 같은 수준의 객관성과 과학성을 가지고 역사연구를 수행해야만 한다는 것으로서 당시로서는 상당히 급진적인 제안이었다. 그리고 역사연구의 과학성을 높이기 위해 고고학과 같은 인접학문의 성과를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고 설파하였다. 한마디로 부사년에게 있어 역사학은 과학이지 예술이 아니었다. 이런 의미에서 과학자로서의 역사학자가 가지는 ‘유일한 소명은 사료를 최대한 수집, 분류한 후 이들을 과학적으로 비교함으로써 그 안에 담겨진 역사적 사실들이 ‘스스로 말하게끔 만드는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그는 중국의 전통적 역사서술에서 강하게 표출되는 道德史觀과 이에 수반하는 정치적 편견을 극도로 혐오했으며, 역사학자는 어떤 경우에도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²⁸⁾ 이 점에서 부사년은 가치중립적 학문연구를 강조하고 정치와 학문의 엄격한 분리를 주장한 독일 사회학자 베버(Max Weber)의 생각과 상당히 흡사하다. 추측컨대 부사년의 이런 생각들

62~63).

26) Wang Fan-shen, 2000, pp. 55~73.

27) 傅斯年, 2003[1928], 「歷史語言研究所工作之旨趣」, 歐陽哲生 主編, 『傅斯年全集』(第3卷), 湖南教育出版社, 3쪽. 이 논문은 슈나이더(Axel Schneider, 2004, p. 96)가 평가하듯 부사년의 많은 역사연구 저작 중에서 “방법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논문”이다. 이 논문과 부사년의 과학적 실증사학에 대한 대륙 학자들의 평가는 江心力, 1996, 「傅斯年“史學只是史料學”思想辨析」, 『史學史研究』第3期, 43~46쪽; 徐曉旭·朱丹, 2003, 「論傅斯年的“史學便是史料學”」, 『人文雜誌』第2期 등을 참고.

28) Wang Fan-shen, 2000, p. 78.

은 베버 식의 사회과학 방법론이 지배하던 1920년대 독일 유학이란 경험을 통해 형성되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부사년의 극단적 실증사학 방법론은 그 자신의 민족주의적 성향과 적극적인 정치활동에 따라 그 의미가 퇴색하게 된다. 이미 1919년 당시 북경 대학생으로 '5·4운동'의 주역이었던 그는 평생 현실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던 '행동하는 지성인'이었다. 게다가 당시 중국의 암울한 현실은 그를 현실정치와 완전히 절연한 채 과학적 역사연구에만 매달리게 하지 못했다. 특히 연구소를 맡고 불과 3년 뒤에 일어난 만주사변은 그의 민족주의적 열정을 폭발시켰으며, 이후 다양한 구국운동을 전개하면서 그 자신이 제안했던 현실정치와 거리를 둔 가치중립적 역사연구와는 상충하게 되었다. 그의 애국주의적 열정과 현실정치에 대한 견해는 여러 편의 잡지 기고문에도 나타나 있지만, 학술연구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²⁹⁾ 특히 여기서 논할 『동북사강』은 학술연구와 현실참여 간의 첨예한 긴장과 자기모순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1931년 9월 18일 만주사변 발발 직후 북경에 있던 부사년은 비분강개한 어조로 "(우리) 서생들은 어떻게 조국에 헌신해야 할 것인가(書生何以報國)"라는 질문을 동료 지식인들에게 던졌다.³⁰⁾ 이에 대한 해답으로, 그를 위시한 연구소의 젊은 역사가들은 처음에는 중국통사를 저술해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들은 곧 만주지역에 대한 '역사 바로 세우기'가 보다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인식했고 바로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했다. 이는 만주지역이 본디 중국의 영토였음을 증명함으로써 구국을 위해 역사가들이 응당 가져야 할 책임을 다한다는 의미이다. 물론 여기서 '역사가로서의 책임'이란 근 반세기 동안 '滿蒙非支那論'을 줄기차게 주장해온 일본 측 주장에 대해 어떤 위기감을 느끼거나 이를 반박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은 그간의 경향을 철저히 반성한다는 의미도 포함한다.

이에 덧붙여, 만주지역 역사연구는 당시 만주사변의 진상확인을 위해 국제

29) Thomas Fröhlich, 2000, p. 219 ; Axel Schneider, 2004, pp. 97~98.

30) 傅樂成, 1979, 앞의 책, 33쪽 ; Wang Fan-shen, 2000, p. 149.

연맹에서 파견된 리튼 조사단(Lytton Commission)에게 중국 측 입장을 호소한다는 실용적 목적도 가지고 있었다. 이 작업은 당시 歷史語言研究所에 몸담고 있던 李濟(1896~1979)가 맡았다.³¹⁾ 그는 리튼 조사단의 일정을 감안해서 『동북사강』이 정식으로 출판되기도 전에, 그 요점을 간추린 *Manchuria in History* 라는 영문 팜플렛을 서둘러 출간하였다.³²⁾

『동북사강』 편찬은 부사년의 주도하에 당시 30대 초중반 소장파 역사학자들인 徐中舒(1898~1991), 方壯猷(1902~1970), 蕭一山(1902~1978), 蔣廷黻(1895~1965) 등과 함께하는 공동연구 프로젝트였다. 부사년이 『동북사강』 제1권에서 언급하듯, 원래 이들은 각자 자신의 맡은 분야를 연구, 집필한 후 이를 다섯 권의 책으로 출간할 계획이었다. 이 『동북사강』 시리즈의 전체 계획은, 부사년은 제1권 『古代之東北』, 방장유는 제2권 『隋至元末之東北』, 서중서는 제3권 『明清之東北』, 소일산은 제4권 『清代東北之官制及移民』, 장정불은 제5권 『東北之外交』 순이었다. 하지만 뒤에서 詳論하겠지만, 이 중 부사년의 제1권만 출간되고, 나머지는 끝내 발간되지 못하였다.³³⁾ 하지만 李濟의 영역본을 통해 우리는 제2권과 제3권의 주요 내용과 입장을 대략적이거나 확인할

31) 중국 고고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李濟는 하버드대학에서 고고인류학 박사를 받았으며, 歷史語言研究所의 고고학 담당 主任을 역임했다. 훗날 부사년과 같이 대만으로 건너가 이 연구소의 소장을 17년(1955~1972) 동안 맡았다.

32) 이는 영문판(Chi Li, 1932, *Manchuria in History: A Summary*, Peiping: Peking Union Bookstore) 뒷표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동북사강』의 중국어판은 약 10만 자 분량이며 “장차 民國 21년 5월에 출판될 예정(將於廿一年五月中出版)”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더 늦은 10월에야 비로소 부사년이 지은 제1권만이 발간되었다. 또한 여기서는 『동북사강』의 저자들로 부사년, 徐中舒, 方壯猷 3인만 언급되어 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1932년 봄에 이미 부사년, 서중서, 방장유가 맡았던 부분의 원고는 거의 완성단계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33) 다만 장정불이 1932년 12월 『清華學報』에 발표한 「最近三百年東北外患史 — 從順治到咸豐」은 『동북사강』 제5권으로 예정되었던 『東北之外交』의 上篇이었다(歐陽哲生, 2003, 「序言」, 歐陽哲生 主編, 『傅斯年全集』(第1卷), 湖南教育出版社, 49쪽). 그리고 최근에야 서중서가 맡았던 제3권의 원고 일부인 「東三省之封禁」이 歷史語言研究所가 발행하는 잡지에 실렸다(徐中舒, 2005, 「東三省之封禁(東北史綱選)」, 『古今論衡』 第12期).

수 있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 필자는 부사년의 『동북사강』 제1권과 이제의 영문 요약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겠다.

Ⅲ. 『동북사강』의 주요 내용 분석

1_ 부사년의 『동북사강』 제1권 분석

『동북사강』 시리즈를 관통하는 주제는 한마디로 “동북지방은 자고로 중국의 영토에 속했다(東北自古既屬中國)”는 것이다. 각종 역사자료들은 하나같이 이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목적에 이용되었다. 물론 이러한 역사인식은 근자의 ‘동북공정’과 크게 다를 바 없다.

부사년은 『동북사강』 책머리에서 “발해를 둘러싼 3면은 모두 중국문화 발상지이며, 요동 일대는 영원토록 중국의 군현이었으며, 白山과 黑水 일대는 오랫동안 중국의 藩封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二三千年的 역사를 볼 때, 동북이 중국이라는 사실은 강소성이나 복건성이 중국이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단언한다.³⁴⁾ 그리고 이 지역이 행정구역상 중국의 일부임을 강조하기 위해 ‘만주’라는 용어 대신 ‘동북’이라는 말을 사용할 것을 주장했다. 왜냐하면 ‘만주’라는 말은 역사적으로 정치구역을 지칭하는 명칭으로 사용된 적도 없을 뿐더러, 중국을 갈라놓으려는 침략자들의 불순한 의도가 깔려 있기 때문이다.³⁵⁾ 하지만 부사년의 이런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미 필자가 앞 장 1절

34) 傅斯年, 1932, 앞의 글, 2쪽.

35) 傅斯年, 1932, 앞의 글, 3쪽. 이와 유사하게, 馮家升은 소위 ‘滿鮮學’ → ‘滿蒙學’ → ‘東亞學’으로 변화하는 일본 학자들의 용어 사용에 담긴 정치적 의도를 비판한다. 즉, 일본 학자들은 청일전쟁 전에는 ‘만선학’, 만주사변 전에는 ‘만몽학’ 그리고 중일전쟁 전에는 ‘동아학’으로 교묘히 말을 바꿔 갔는데, 이런 변천의 동기는 순수한 학문적 이유가 결코 아니며 미래의 정치적 의도를 암시한다는 것이다(王夏剛,

에서 논의했듯, 청조 만주족 지배자들은 자신들을 漢族들과 구별하였을 뿐만 아니라 만주지역 또한 청제국의 다른 영토로부터 정치·행정적으로 구별하려는 의식이 강했다.³⁶⁾ 나아가 ‘만주’가 지역명칭이 결코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부사년과 달리, 청대 지도제작의 역사를 치밀하게 고증한 마크 엘리엇은 19세기 초반부터 만주, 즉 Manchuria란 지명이 세계지도에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심지어 중국에서 제작된 지도나 문헌에서도 ‘만주’가 지역 명칭으로 사용되었음을 밝힌바 있다.³⁷⁾ 이러한 사실은 적어도 淸朝 시기에는 이 지역이 복건성이나 강소성과는 다른 지역적 특수성을 가지고 있음을 상기시켜 준다.

이어지는 본문에서 부사년은 자신의 정치적 의견개진이나 褒貶은 가급적 배제한 가운데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역사연구를 수행하려고 애쓴 흔적이 보인다. 그는 ‘중국의 랑케’라는 별명답게 본문의 상당 부분을 각종 사서에 나타난 기록들을 장황하게 열거하고 이를 비교, 고증하는 데 할애했다. 비록 만족스런 수준은 아니지만, 기존 사서 이외에도 고고학, 민족학, 언어학, 지리학 등의 인접학문의 연구성과를 적극 활용하고자 했다. 우선 본문의 목차는 아래와 같다.

제1장 渤海岸及其聯屬內地上文化之黎明

제1절 東北與中國北部在遠古爲同種

제2절 肅慎-挹婁-女眞

제3절 朱蒙天女玄鳥諸神話

제4절 殷商與東北

제2장 燕秦漢與東北

제3장 兩漢魏晉之東北郡縣

제4장 西漢魏晉之東北屬部

上. 史料 (부여, 읍루(숙신), 고구려, 동옥저·북옥저, 濊, 삼한)

2005, 앞의 글, 94쪽).

36) 이런 견해는 미국의 淸史 연구자들에서 두드러진다. 여기에 대한 최근 중국 학계의 입장과 반응은 노기식, 2005, 「중국의 滿·韓 민족관계에 대한 연구 동향」, 『중국의 민족·변강문제 연구 동향』, 고구려연구재단 참고. 중국 학계는 이런 외국 학자들의 연구동향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그러나 역시 ‘漢化’론을 지지한다는 것을 감추지 않고 있다.

37) Mark Elliott, 2000.

下. 分解(地望, 族類, 문화, 諸部之推遷, 民族之認識)

제5장 漢晉間東北之大事

제1절 曹操征烏桓

제2절 公孫氏據遼東

제3절 卞丘儉平高句驪

제4절 慕容廆創業遼西

제1장은 선사시대에서殷왕조까지를 다루고 있다. 우선 제1절은 그 제목이 말해주듯 중국 북부와 만주지방 간의 종족적 동일성을 다루고 있다. 부사년은 이에 대한 근거로 안데르손(Johan Gunnar Andersson), 블랙(Davidson Black), 그리고 하마다 고사쿠(濱田耕作, 1881~1938), 기요노 겐지(清野謙次, 1885~1955)와 같은 외국 학자들의 고고인류학적 성과를 인용한다. 이들 연구는 모두 만주지역 선사유적들이 북중국의 仰韶文化나 沙鍋屯과 형질인류학적으로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며, (통구스족보다는) 중국문명의 영향을 많이 받았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부사년은 만주지역이 인종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북중국과 공동의 기원과 기반을 가진다는 점을 부각시켰다.³⁸⁾ 물론 이런 주장의 이면에는 선사시대부터 만주지역에 ‘중국인’이 거주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려는 저자의 의도가 깔려 있다.³⁹⁾

제3절은 각 민족의 神話 분석을 통해 만주, 한반도, 북중국 지역의 문화적 동일성을 주장한다. 여기서는 민족학과 신화학적 연구기법을 활용하고 있다.

38) 傅斯年, 1932, 앞의 글, 7~9쪽.

39) 선사고고학과 형질인류학을 다룬 제1절은 고고학자인 李濟의 도움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인다. 흥미롭게도 그는 1928년 내놓은 *The Formation of the Chinese People*이란 책에서 만주와 티베트지역을 중국의 강역(China proper)에서 제외했다. 이어 그는 중국인을 “중국 영토로 불리는 지역에서 발견되거나, 혹은 그곳에서 기원하며, 태초부터 중국 역사 형성과 관련되었다는 점을 인식하는 사람”으로 정의하였다(Chi Li, 2003[1928], p. 7). 여기서 나타난 그의 중국 영토와 중국인에 대한 인종학적 정의는 당시 일본 동양사학자들의 논리와 일정부분 연결될 소지가 있었다. 물론 이는 선사시대부터 만주지역은 중국의 중요한 구성부분이었다는 『동북사강』의 논리와 전혀 다르다. 어쨌든 李濟가 불과 4년 사이 자신의 기존 입장을 완전히 바꾼 이유가 순수하게 학술적 동기였는지는 의문스럽다.

부사년은 특히 만주지역과 한반도에 편재하는 여러 종류의 始祖神話들(가령 부여, 고구려, 만주족)은 그 구체적인 이야기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人降論'(즉 천손강림)이라는 동일한 요소를 가진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런데 그는 이러한 공통점의 원류를 商왕조의 시조신화에서 찾는다. 즉 『詩經』에 나오는 商왕조의 신화는 “하늘이 검은 새(제비)에게 명하여, 내려가 상민족을 낳게끔 하였다(天命玄鳥 降而生商)”로 시작해 그 새가 떨어뜨린 알을 삼킨 여인이 상민족의 시조인 契를 잉태했다는 줄거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卵生 건국 설화란 서사구조는 부여의 동명신화나 고구려 주몽의 탄생신화 등과 거의 일치하는데, 부사년은 바로 이를 근거로 商왕조 신화와 朱蒙·天女 등의 전설이 “의심할 여지가 없이 하나의 신화(一個神話 更無可疑)”라고 단정짓는다.⁴⁰⁾ 결국 만주지역의 여러 민족들과 중국 역대 왕조는 문화 특히 신화의 영역에서도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제4절은 殷왕조와 만주지방의 관련성을 간략히 밝힌다. 앞 절에서 말한 신화를 통한 연관성에 덧붙여, 기타 여러 사료들을 종합해 볼 때 “상왕조와 동북 지방은 본디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는 것이다. 특히 箕子朝鮮이란 고사는 상왕조가 망한 후 자기 민족을 거느리고 옛 땅으로 돌아간 데 지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 이런 견해는 “상이 흥하매 동북에서부터 (중원으로) 왔으며, 상이 망하매 (그들은 다시) 동북으로 돌아갔다(商之興也 自東北來 商之亡也 向東北去)”는 표현으로 압축된다.⁴¹⁾ 이는 다음 해 발표되는 그의 기념비적 논문 「夷夏東西說」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논의된다. ‘夷夏東西說’은 중국 고대문명의 기원을 기존의 단일기원설[가령 黃帝집단 기원설이나 프랑스인 라쿠페리(Terrien de Lacouperie)가 제기한 중국문명의 바빌로니아 기원설]이 아닌 동서 두 구역 간의 대치(東西對峙) 관계로 파악한 대담한 가설이다. 중국 고대사에서 나타난 이런 이원론적 대립은 멀게는 동쪽의 夷집단과 서쪽의 夏집단의 대립부터 가까이는 후한 말기 서쪽의 조조와 동쪽의 원소의 대립까지 계속

40) 傅斯年, 1932, 앞의 글, 23쪽.

41) 傅斯年, 1932, 앞의 글, 24쪽.

이어졌다.⁴²⁾ 여기서 부사년은 東夷와 殷을 동쪽 구역에 속한다고 하면서도 이들은 서로 다르다고 본다. 둘의 관계에 대해, 그는 王國維의 가설을 발전시켜 殷집단은 본디 만주에서 발원해 산둥지방에 있던 동이 諸族을 정복했다고 주장한다. 이런 입장은 한국의 일부 민족주의자들이 제시하는 ‘은=동이족 건국설’과는 다르다. 어쨌거나 『동북사강』에 나타난 부사년의 인식은 ‘夷夏東西說’이란 자신의 기본 입장과 완전히 일치한다.

제1장을 통해 부사년은 만주지역을 어떻게든 중국 역사에서 독립시키려는 일본 학자들에 맞서 중국사의 제일 첫 장부터 이미 이 지역은 중국사의 일부에 포함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만주지역이 선사시대부터 인종적·역사적·지리적으로 중국의 일부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과학적 연구성과들을 몹시 강조한다.⁴³⁾ 하지만 과학적 역사연구란 미명하에 여러 종족들의 始祖神話 사이의 유사성에 대한 가설은 확정적인 단정으로 이어졌고, ‘箕子가 朝鮮에서 왕노릇했다’는 전설은 자신의 입장을 증명하기 위한 역사적 ‘사실’로 둔갑하게 된다.

제2장은 언어적 계통 연구를 통해 燕·秦·漢 시기 만주지역과 중원의 상호 관련성을 주장한다. 먼저 부사년은 언어가 민족을 구분하는 중요한 객관적 지표라는 입장에서 ‘중국인’을 漢語를 사용하는 漢族으로 이해한다.⁴⁴⁾ 그리고 고대 만주지역에서 이들 ‘중국인’의 존재를 입증하는 사료로 前漢 때 기록된 것으로 알려진 『方言』을 들고 있다. 그는 『방언』에 나오는 ‘北燕朝鮮’이란 말

42) 傅斯年, 2003[1933], 『夷夏東西說』, 『傅斯年全集』(第3卷), 226~232쪽. ‘夷夏東西說’의 주된 내용과 이 학설이 역사학자들에게 미친 영향은 Wang Fan-shen (2000, pp. 98~125)을 참고. 물론 이 가설의 상당부분은 학자들의 후속 연구에 의해 도전받는다. 가령 부사년은 남북 간 대치는 六朝시대에 비로소 시작되었으며 그 전에는 황하 유역을 중심으로 한 동서의 이원적 대립만이 있다고 보았는데, 이러한 북중국 중심의 관점은 중국 남부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성과들이 보고되면서 낡고 단순한 논리라는 비판을 받는다. 중국 고대문명 형성에 대한 기존의 지나친 단선론적 시각을 비판하면서 보다 다원적이고, 탈중심적인 관점으로 전환하는 과정은 Friedman, Edward, 1994, “Reconstructing China’s National Identity: A Southern Alternative to Mao-Era Anti-Imperialist Nationalism,” *Journal of Asian Studies* 53(1), pp. 70~71 참고.

43) 傅斯年, 1932, 앞의 글, 25쪽.

44) 傅斯年, 1932, 앞의 글, 110쪽.

의 용례를 하나하나 제시하면서, 이 지역의 '방언'은 漢語 발음의 변화를 반영할 뿐 결코 다른 이민족의 언어(外夷語)가 개입되지 않았다고 본다.⁴⁵⁾ 이를 통해 당시 “北燕朝鮮은 하나의 방언 구역”이었으며, 이러한 “한 구역의 방언을 다른 구역과 비교하는 것은, 漢語의 音變을 알아보려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마침내 그는 “요동, 요서와 조선의 각 군현들은 오랫동안 燕·秦·漢 시기 중국인의 거주지였으며, 따라서 하나의 공통된 중국어 방언 구역을 형성했다고 단정할 수 있다”고 적기에 이른다.⁴⁶⁾ 여기서도 부사년은 ‘과학’(여기서는 언어과학)을 근거로 하여 자신의 설익은 가설을 역사적 사실로 확정한다.

나아가 이런 주장은 몇 가지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먼저 부사년은 漢四郡 설치 이전에 이미 ‘중국어’를 사용하는 ‘중국인’ 집단이 폭넓게 거주하고 있었다는 점을 내세운다. 그는 이 점에서 漢武帝의 군사 활동을 오랫동안 ‘중국인의 터전’이었던 만주와 한반도 북부에 대한 중국 왕조의 중앙통제권 강화를 위한 시도로 간주한다. 다시 말해, 한무제의 衛滿朝鮮 정벌은 韓民族과 같은 동방 이민족과의 전쟁이라기보다 당시 이 지역을 다스리던 중국인 통치 집단과의 싸움이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오랫동안 유지되어온 中原과의 밀접한 관련성 덕분에, 한무제의 고조선 원정은 大宛과 같은 애초부터 ‘비중국’이었던 지역과는 달리 단기간에 성공할 수 있었다. 부사년은 심지어 옛 고조선 지역의 군현제가 몇백 년간 지속될 수 있는 이유를 이 땅에 오래전부터 살아온 漢人들 덕분이라고 보았다.⁴⁷⁾ 마지막으로 주목할 것은, 만주와 한반도 일부지역에 중국인들이 오랫동안 거주했다는 제2장의 주장은 제4장에 가면 한층 노골적인 漢族 중심의 역사 해석으로 발전한다는 점이다. 즉, 漢族은 非漢族 집단에 비해 월등한 문화수준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우월성이 이들을 주체로 한 거대한 정치조직을 만들 수 있게 했다고 본다. 한마디로 만주지역의 주체민족은 일본 학자들이 주장하는 퉁구스 계열이 아니라 중국인, 즉 漢族이라는 말이다.

45) 傅斯年, 1932, 앞의 글, 32~33쪽.

46) 傅斯年, 1932, 앞의 글, 31쪽.

47) 傅斯年, 1932, 앞의 글, 29~30쪽.

제3장은 군현제도에 대한 고증을 통해 중국인이 어떻게 정치적·행정적으로 만주와 한반도 일부 지역을 지배했는지 보여준다. 특히 眞番郡에 대한 고증을 통해, 황해에 연한 한반도 서부지방의 대부분은 한무제 시기 이전에 이미 위만과 같은 ‘중국인’의 통치하에 있음을 역설한다. 때문에 부사년은 한무제에 의한 한사군 설치를 “중국인에 의한 최후의 성공”이자 “창조적 사실이 아닌, 기존의 것을 이어받아 재편한 것”으로 간주한다.⁴⁸⁾ 그렇다면 이들의 지배하에서 비한족 집단들은 어떤 역사적 발전을 경험하였는가?

제4장은 비한족 집단, 즉 東夷의 세계를 고찰한다. 부사년은 이들 집단에 대한 대부분의 자료를 『後漢書』, 『魏志』, 『晉書』와 같은 중국 正史의 기록에서 찾고 있다. 그는 여기서 이들 토착집단이 스스로 문화발전을 이룰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한 채, 문화의 일방적 전파 즉 漢化(혹은 華化, 영어로는 sinicization)를 통한 문화발전만을 주장한다.⁴⁹⁾ 다시 말해, 중국인 세력이 만주와 한반도 지방에 계속 뺏어나간 덕분에 이 지역의 토착 집단들은 ‘비로소’ 선진문물을 접하게 되었다는 논리다. 중국의 영향이 강할수록 문화수준은 높았다. 그는 『후한서』와 『위지』를 근거로 중국과 접촉할 기회가 낮았던 읍루의 문화수준은 가장 낮았고, 낙랑 동부의 濊民은 가장 높은 문화수준, 즉 華風을 가지고 있었다고 기술한다.⁵⁰⁾ 물론 이런 중화주의 역사인식은 필연적으로 중국 왕조들의 침략과 이에 대한 항전에는 애써 눈감고, 중국의 ‘진출’을 오로지 ‘선진 문화 전파’로 미화하려는 움직임으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그는 고대의 만주지역의 민족형성과 이동의 문제를 논의한다. 앞

48) 傅斯年, 1932, 앞의 글, 37·110쪽.

49) 華化의 개념과 의미에 대해서는 중국 역사인구학의 선구자인 Ho, Ping-Ti(何炳), 1976, “The Chinese Civilization: A Search of the Roots of Its Longevity,” *Journal of Asian Studies* 35(4); Ho, Ping-Ti(何炳), 1998, “In Defense of Sinicization: A Rebuttal of Evelyn Rawski’s “Reenvisioning the Qing,”” *Journal of Asian Studies* 57(1) 참고. 하병제의 漢族 중심의 중화민족주의에 대한 비판은 만주사 전공자인 Evelyn S. Rawski, 1996, “Reenvisioning the Qing: The Significance of the Qing Period in Chinese History,” *Journal of Asian Studies* 55(4) 참고.

50) 傅斯年, 1932, 앞의 글, 37·117쪽.

서 말했듯이 그는 각 민족의 형성과 이를 인식하는 문제에 있어 언어가 민족 식별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했으며, 언어집단이 문화단위에 상응한다고 보았다. 이런 관점에서, 그는 일본·조선·통구스족이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는 당시 일본 滿鮮史 학계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⁵¹⁾ ‘통구스’란 말은 원래 어족을 지칭하는 말이므로 통구스 어족에 속하지 않는 민족은 이들과 같은 뿌리로 볼 수 없다. 이를 바탕으로 민족을 구분할 때, 우선 통구스족은 읍루와 그 후예들인 말갈, 여진, 만주족을 포함한다. 하지만 현재 韓民族의 원류 중 하나로 인식되는 濊貊 집단은 부여, 고구려, 옥저 등이 속하는데, 이들의 언어는 읍루와 달랐고, 이 점에서 이들은 통구스족과는 구별되는 민족 집단이다.⁵²⁾ 이는 통구스 어족에 속한다고 볼 수 없는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결국 고대의 만주 땅에는 뿌리가 다른 민족들, 즉 漢族, 통구스족, 그리고 고대 韓民族이 혼재되어 있었다.⁵³⁾

이런 3분법을 통해 부사년은 고대의 만주지역의 민족 이동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힌다. 우선 漢化가 가장 느렸던 읍루의 각 부족들은 서서히 만주지역 영토를 확장해 나갔고, 결정적으로 예맥계인 고구려가 망하고 문화적으로 낙후된 통구스계 말갈이 융성하게 되자 만주 땅은 그들의 세상이 되었다. 부사년은 이를 애석해 하면서 “고구려와 예맥 시대의 예악과 인문은 다시 회복되지 못했다(非復句驪濊貊時代之禮樂人文矣)”고 탄식하였다.⁵⁴⁾ 한편으로 한반도와 중국 사이에 통구스족이 득세하게 되자 朝鮮은 하나의 민족으로 독립, 발전하게 된다. 물론 漢族 혹은 ‘중국적인 것(華風)’은 언제나 만주 땅을 지배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예맥에서 통구스로의 변화는 어디까지나 “동북지방의 漢族 이외의 거주구역에서 일어난 가장 중대한 변화”였을 따름이며, 이는 “중국의

51) 傅斯年, 1932, 앞의 글, 125쪽.

52) 傅斯年, 1932, 앞의 글, 122~123쪽.

53) 한편 부사년은 우랄·알타이 어족이라는 말로 만주·한반도·일본을 이르려는 주장에 대해서도 맹공을 퍼붓는다. ‘우랄·알타이’란 개념은 너무도 광범위하고 불분명한 개념인데다가, 여기에 속하는 언어들 간의 차이도 너무 커서 이를 통해 민족의 뿌리를 논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보았다.

54) 傅斯年, 1932, 앞의 글, 122쪽.

예맥인 세계에서 중국의 통구스족 세계로의 변화”에 불과하다.⁵⁵⁾ 여기서 우리는 집요할 정도로 중국과 만주지역을 결부시키려는 부사년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예맥계가 강성했던 시기 만주지역의 非漢族 집단과 중국 사이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가?

제5장은 중원이 극도로 혼란스러웠던 후한 말부터 五胡十六國 시기까지 만주지역에서 일어난 4가지 중대사건들을 기술하고 있다. 먼저 조조의 烏桓 정벌을 다루면서 이 원정 때문에 중국왕조의 위엄이 다시금 만주 땅에 서게 되었고, 나아가 五胡十六國의 혼란을 약 50년간량 늦출 수 있었다고 높이 평가한다.⁵⁶⁾ 둘째로 3대에 걸쳐 요동지역에 웅거한 공손씨 정권의 역사를 기술하면서, 중원이 분열된 난세의 시기 동안 이 중국인 지방정권이 요동을 통제해 준 덕분에 예맥족인 고구려의 손에 동북지방이 완전히 넘어가지는 않았다는 의미를 부여한다.⁵⁷⁾ 셋째로 관구검의 고구려 원정이 있다. 마지막으로 선비족 慕容氏 정권을 언급하는데, 특히 前燕을 건국하는 기반을 마련한 慕容廆(269~333)부터 그 자손들은 하나같이 지극히 중국화된 지배자였음을 강조한다. 부사년은 慕華적인 사고를 가졌던 모용씨 정권의 사례를 통해 만주지역은 중원문화와 오래전부터 융합되었으며 따라서 중국의 불가분한 일부분임을 드러낸다.⁵⁸⁾ 결국 정치적으로 중국인이 만주지방을 지배하지 못한 경우에는, 문화적으로라도 중국적인 것이 이 지역을 지배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런 華夷論에 입각한 중화주의 시각에서, 中華화된 이민족 정권과 영토는 마땅히 중화정권과 중화강역의 일부에 속한다. 그러므로 부사년이 조조, 공손씨, 관구검이라는 중국인 영웅들과 함께 선비족 모용씨 지배자들을 열거하는 것은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다.

이상으로 부사년이 지은 『동북사강』 제1권의 내용을 간략히 개관해 보았다. 이 책이 가지는 의미나 문제점들은 다음 장에서 다루기로 하고, 다음 절에

55) 傅斯年, 1932, 앞의 글, 122쪽.

56) 傅斯年, 1932, 앞의 글, 129쪽.

57) 傅斯年, 1932, 앞의 글, 131쪽.

58) 傅斯年, 1932, 앞의 글, 133~137쪽.

서는 『동북사강』 시리즈의 영문판인 *Manchuria in History*의 내용을 살펴보겠다.

2_ 李濟의 *Manchuria in History* : A Summary 분석

*Manchuria in History*는 40쪽 가량의 본문과 도판으로 구성된 영문 팜플렛이다. 이 책은 중국사에 문외한인 영어권 독자들 특히 '리튼 조사단'에게 호소하기 위한 것이라 학술적 측면에 치중하려고 애쓴 부사년의 『동북사강』보다는 더 직설적으로 의견이 표출되고 있다. 이미 앞 장에서 이 책이 출판된 계기를 설명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를 생략하고 바로 본문의 내용을 분석하겠다.

李濟는 첫 문장부터 “만주지방은 역사상 단지 중국 역사의 일부분일 뿐”이라고 주장한다.⁵⁹⁾ 그 이유로 다음의 8가지 근거를 들고 있다.⁶⁰⁾

- ① 고고학적 증거를 통해 볼 때, 남만주 지방은 인종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북중국과 동일한 지역에 속해 있었다.
- ② 기원전 12세기부터 한반도와 남만주의 일부는 중국에서 건너온 지배자들에 의해 통치되고 있었다.
- ③ 기원전 4세기부터 본격적인 중국식 행정체계가 이 지역에 수립되었고, 기원전 109년 한무제의 원정에 의해 한층 더 강화되었다. 이 시기 많은 중국 내지인들은 요동지역으로 이주하였고, 중국문화는 점차 비중국계 민족들에게 전파되었다.
- ④ 4세기 중반부터 비중국계 민족들은 점차 중국에 대한 자립을 선언하기 시작했지만, 이 과정은 중국문화의 요소를 체득하고, 독립을 선언하고, 광범위한 華化과정을 거친 뒤, 중국에 의해 완전히 흡수된다는 4가지 단계로 모두 설명될 수 있다.
- ⑤ 명제국의 시작부터 만주지역은 다시금 중화제국의 행정체제 속으

59) Chi Li, 1932, p. 1.

60) Chi Li, 1932, pp. 1~3.

로 편입되었다. 이는 17세기의 왕조교체 기간을 잠시 제외하고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 ⑥ 원래 요동지역에 거주하던 소위 ‘만주족’이나 ‘旗人’들은 여진족, 몽고족뿐만 아니라 명대에 급속히 팽창한 중국인 정착민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따라서 만주족은 종족적 의미에서의 ‘인종’을 뜻하지 않는다.
- ⑦ 청나라의 조상은 대대로 명제국에 복속하였고 이미 상당히 중국화되었다. 따라서 이들이 명을 무너뜨리고 청을 세운 것은 단순한 왕조교체일 뿐이다. 이들은 명이 만주와 기타 지역에 세웠던 행정 시스템을 그대로 따랐다.
- ⑧ 19세기 말까지 만주는 평화변영을 유지했고 이는 점진적인 인구증가를 가져왔다. 단지 최근 들어서야 이 지역은 국제적 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우선 ①은 『동북사강』 제1장 제1절과 동일한 내용이다. ②에 대해서, 李濟는 기자조선의 전설을 근거로 “商族이 한반도를 식민화했다(Korea was colonized by the people of Shang)”고 주장한다.⁶¹⁾ 또한 통구스계 속신족은 周代부터 이미 중국에 조공을 바쳤다. 다시 말해, 만주지역은 중국 고대문명권 안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한반도는 실질적으로 중국 식민지였다. 이런 결과로 이 지역의 토착인들(즉, 조선과 속신)은 중국문명에 인종적·문화적으로 융화되어갔다. 『후한서』의 기록은 동이족의 주된 문화적 특징이 고대 중국문명의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준다. 특히 신화적 유사성(『동북사강』 제1장 제3절)은 한반도, 만주, 북중국이 동일한 문화지구였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이다. ③의 역사적 근거로는 燕나라 소왕(昭王, 기원전 311~279)의 명장 秦開의 요동정벌을 꼽을 수 있으며, 이는 4세기까지 중국의 중요한 일부였던 遼東郡의 기원이다. 진개의 활약으로 인해 고조선은 사실상 연에 복속되었으며, 이는 이웃했던 眞番도 마찬가지였다. ①에서 ③까지는 부사년의 『동북사강』 제1권이 다루는 범위이다.

61) Chi Li, 1932, p. 8.

④의 예로는 선비족 모용왕조, 고구려, 말갈, 거란, 여진을 꼽을 수 있다. 이 시기 소위 토착민의 지배라는 것은 중국의 영향을 크게 받았으며, 또한 상당부분 중국인들에 도움에 의해 실현되었다. 다시 말해 非漢族 정권들은 중국인들의 도움에 의존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선진문물을 적극 이용했다. 여기서는 특히 李濟가 말하는 고구려, 발해 역사에 대해 살펴보겠다.

그는 고구려에 미친 중국의 영향을 긍정적인 것으로 단정하였다. 가령 관구검의 고구려 원정을 통해 “중국인들은 고구려인에게 관개농법을 가르쳐 주었고, 이 새로운 농업기술은 고구려에 변영의 시대를 열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의 성공의 기반이 되었다”고 적고 있다.⁶²⁾ 특히 644년 당태종의 고구려 원정에 대해서, 李濟는 이 원정이 완전한 실패로 끝났음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가 고구려 영토의 거의 절반을 정복했다”고 강변한다. 게다가 당고종에 의한 安東都護府 설치에 대해 “고구려가 멸망하고 신라, 백제를 합병(annexation)함으로써 한반도 전체와 만주는 완전히 중국의 통제에 놓이게 되었다”는 억지주장을 펼친다. 한편 李濟는 이 안동도호부의 성격에 대해 “토착민들은 상당한 자치권을 부여받았으며, 그 행정은 매우 호의적(benevolent)인 것이었다”고 평가한다.⁶³⁾ 그 근거로 안동도호부가 노인들과 고아들을 세심히 보살폈고, 유능한 인재들을 등용하였으며, 도덕의식을 고취시키고, 모든 식자층들이 대당제국의 문물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는 『구당서』의 기록을 인용하고 있다. 안동도호부의 몰락은 만주지역에 미치던 중화제국의 영향이 정치행정에서 문화적 차원으로 변하게 만든 결정적 계기였다.

李濟는 발해를 말갈인이 세운 왕국으로 규정하고,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점을 철저히 부정한다. 그는 대조영을 본디 중국군 하급군관이자 말갈인이라고 단정하면서, 고구려와의 관련성을 철저히 배제했다. 오히려 말갈 부족과 고구려는 4세기 말부터 지속적인 갈등관계에 놓여 있었으며, 말갈인들은 중국왕조에 계속 조공을 바치고 도움을 요청했다고 한다. 말갈 부족들의 문화

62) Chi Li, 1932, pp. 22~23.

63) Chi Li, 1932, p.24.

수준은 중국왕조의 교류를 통해 높아졌는데, 가령 중국은 이들에게 비단을 보내 주었으며 중국식 풍습(manners)도 가르쳐 주었다.⁶⁴⁾ 한편 발해의 국가기구는 완전히 중국식 모델을 받아들였는데, 바로 이러한 점이 발해를 동북아의 강대국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이어 거란, 여진, 몽고를 논하는데, 이들의 성공 역시 하나같이 중국의 행정기구와 통치체제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만주지역에 대한 元의 통치방식은 그 이전의 요나라와 금나라와 전혀 다르지 않았으며, 결론적으로 “몽고인 스스로 변한 것을 제외하고, 몽고의 정복은 만주지역에 그 어떤 물질적·정신적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다”고 규정한다.⁶⁵⁾

결론적으로 ④에서 다루는, 근 1000년 동안 만주지역에서 나타났던 非漢族 집단의 정치세력화는 모두 華化(sinicization) 덕분에 가능하였고, 이들 집단은 중원의 왕조들이 이 지역에 설치했던 중국식 정치행정 질서를 그대로 답습해 나갔다. 한마디로 이들 집단들의 고유한 종족적 정체성(ethnic identity)이나, 이들이 漢族에 대해 가졌던 항쟁의식 따위는 아예 고려되지 않는다.

참고로 공산중국 성립 후에도 민국시대 역사가들이 가졌던 이런 중화주의 시각은 완전하게 극복되지는 못했다. 그 단적인 예로 신중국 성립 초기 중국과 학원 근대사연구소 소장 겸 중국사학회 부회장을 지낸 范文瀾(1893~1969)을 들 수 있다. 범문란은 중국 역사에서 나타난 일체의 민족적 투쟁을 “민족융합으로 나아가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으로 보았다.⁶⁶⁾ 물론 여기서 말하는 민족융합은 다름 아닌 이민족의 華化 과정이다. 그리고 중국 봉건시대 민족 간 충돌에서 대체로 漢族이 큰 손실을 입었지만, 이런 손실은 일시적인 것이었고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언제나 쌍방 모두에게 유리했음을 피력하고 있다. 또한 사적유물론의 관점에서, 전근대시기에 일어난 漢族과 이민족 간의 전쟁은 일반적으로 (漢族에 비해 문명수준이 낮은) 이민족들을 씨족사회, 노예제사회 혹은 낮은 봉건사회로부터 높은 단계의 봉건사회로 도약하게 되는 계기였다고 주장

64) Chi Li, 1932, pp. 24~25.

65) Chi Li, 1932, p. 30.

66) 范文瀾, 1980[1962], 「中國歷史上的民族鬭爭與融合」, 『歷史研究』第1期, 9쪽.

한다. 즉, 전쟁은 인류의 진보에 유익한 것이었다.⁶⁷⁾ 이 점에서 한무제, 당태종의 군사원정은 결코 침략이 아닌 역사발전의 관점에서 매우 이로운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⁶⁸⁾ 결국 범문란의 마르크스주의적 역사해석도 漢族 중심의 중화주의(혹은 '大漢族主義')라는 기본전제를 벗어나지 못했으며, 바로 이 지점에서 부사년, 李濟와 같은 실증사학자들의 생각과 맞닿아 있다.

⑤에서 ⑦은 명청시대의 만주지역 역사를 다룬다. ⑤에서 주장하듯, 명이 들어서면서 만주지역은 다시 중국(즉 漢族) 왕조의 행정지배 체계에 확고히 편입되었고, 이는 청나라가 그대로 계승하였다. 즉 ⑦이 보여주듯, 청제국의 중국 통치는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명나라의 연장일 뿐이다. 따라서 그 어떤 '만주식 방식(Manchu Way)'도 인정되지 않는다. 李濟의 이런 시각은 청대 만주지역 封禁에 대한 해석에서 잘 드러난다. 그는 우선 봉금의 원인을 세 가지를 꼽는데, 먼저 황실은 만주지역에 외지인 출입을 엄금함으로써 지역 특산품인 가죽, 인삼, 진주에 대한 무역독점권을 확보하고자 했고, 둘째로 만주족이 중국식 風水 관념을 받아들이면서 자신들의 발상지를 변치 않은 채로 보존하고자 했고, 마지막으로 지배집단의 종족적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라고 보았다.⁶⁹⁾

그런데 ⑥에서 나타나듯, 漢族과 만주족 간의 오랜 상호교류 때문에, 실제 이 당시에 인종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순수한 만주족은 존재하지 않았다. 누르하치 자신이 중국문화에 심취했으며 중국어를 구사할 줄 알았다. 한편 소위 '만주 旗人'도 실제로 상당수는 漢人 출신이었다. 바로 이런 중국과의 접촉이 만주족의 고유한 종족적 정체성을 무너뜨렸고, 漢族에 동화되게 만들었다. 따라서 李濟는 봉금정책과 같은 만주족 지배층의 정책들이 만주와 중국 內地를 분리하려는 의지를 반영한다는 관점에 반대한다. 왜냐하면 행정적·종족적·문화적으로 볼 때, 당시 만주지역은 중원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비중국적인 특

67) 范文瀾, 2001[1963], 「關於中國歷史上的一些問題」, 『范文瀾集』, 中國社會科學出版社, 60~62쪽.

68) 이기동, 2007, 앞의 강연문.

69) Chi Li, 1932, pp. 37~38.

징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⑥에서 보이듯, 만주지역에는 애초부터 중국인이 많이 살고 있었고, 특히 원대부터 요동지방은 거의 전부 중국인들로 채워졌다. 이는 봉급정책이 盛京 위쪽 지역에만 적용되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⁷⁰⁾ 다른 한편 비중국계 특히 만주족들은 중국계 정착민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동화되었다. 물론 李濟의 이런 주장들은 非漢族을 단지 중국에 동화되어야 할 수동적 객체로 보는 중화중심주의에 빠져 있다. 하지만 필자가 앞 장제1절에서 논했듯, 만주 지배층들은 그들의 고유한 정체성을 유지하고자 부단히 노력했고, 자신들의 발상지를 중국 본토와는 ‘분리’시켜서 생각해 왔다.

결국 *Manchuria in History*를 통해 우리는 『동북사강』 프로젝트의 취지와 의도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다. 3000년간의 만주 역사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주제는 중국이 이 지역에 행정적으로나 혹은 문화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 왔고, 따라서 이 지역을 중국과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만주지역 역사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만주지역의 모든 사건들은 중국 영토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반영할 뿐이다 (Events in Manchuria are but reflections of the happenings in China Proper).”⁷¹⁾ 이런 시각에서 만주지역 발달사는 곧 중국인의 만주 진출사가 된다. 즉, 남만주지방은 중국사의 여명기부터 중국의 일부였지만, 흑룡강 지역은 명제국 시기에야 비로소 제국의 영토에 편입되었다. 오랫동안 그 땅에서 명멸을 거듭했던 토착인은 영원히 역사의 객체로 남을 뿐이다.

마지막으로 이 영문 팜플렛이 세상에 나오게 된 계기였던 리튼 조사단에 대해 간략히 논하겠다. 조사단은 1932년 2월 29일 요코하마에 도착해서 9월 4일까지 중국과 일본을 오가며 활동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10월 1일 국제연맹에서 조사단 보고서를 간행하였다.⁷²⁾ 조사단이 처음 북경(당시 北平)에

70) Chi Li, 1932, p. 39.

71) Chi Li, 1932, p. 40.

72) League of Nations, 1932, *Appeal by the Chinese Government. Report of the Commission of Enquiry*, Geneva : Publications Department of the League of Nations.

도착한 것은 4월 9일(동월 19일까지 체류)이었으며, *Manchuria in History* 는 그 직전에 출간되었다. 조사단은 4월 15일 북경의 대학교수들과 각종 학술 기관의 대표들과 인터뷰를 했는데, 이 자리에 부사년·李濟 등이 참석했는지는 확실치 않다. 비록 *Manchuria in History*가 조사단의 의견에 얼마만큼 영향을 주었는지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조사단 보고서를 통해 볼 때 중국 학자들의 견해가 어느 정도는 반영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보고서는 먼저 “만주지역은 수많은 통구스계 부족들이 거주해 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지만, “2000년 동안 영속적인 정착기지가 유지되었고, 중국문화는 만주지역 남단에서 항상 활기 넘쳤었다”는 점에서 중국계 이민자들이 이 지역에 끼친 영향을 동시에 인정하고 있다.⁷³⁾

전반적으로 조사단 보고서는 만주지역을 사실상 중국의 일부분으로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⁷⁴⁾ 이에 반발한 일본은 1933년 3월 국제연맹에서 탈퇴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보고서는 일본의 만주지역에 대한 각종 이권을 인정하고 일본인에 대한 광범위한 정착권과 치외법권을 제안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중국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것도 아니었다. 이 때문에 중국 측의 반발도 받았는데, 부사년 역시 보고서 발간 직후인 1932년 10월 『獨立評論』에 기고한 「國聯調查團報告書一瞥」라는 글을 통해 유감을 표시했다.⁷⁵⁾ 어쨌거나 조사단의 뒤늦은 ‘권고’는 일제에 의한 만주국 설립과 같이 시시각각 급변하던 당시의 상황을 전혀 개선시키지 못했다. 결국 중국과 일본의 양쪽 입장을 애매하게 절충해 보려는 리튼 조사단의 노력은 중일분쟁을 조정한다는 본래의 임

73) League of Nations, 1932, p. 26.

74) 조사단이 국제연맹에 보고한 종합적인 견해는 보고서 10장 “Considerations and Suggestions to the Council”에 요약되어 있다(League of Nations, 1932, pp. 132~139).

75) 傅斯年, 2003[1932b], 「國聯調查團報告書一瞥」, 『傅斯年全集』(第4卷). 『獨立評論』은 1932년 5월 창간되어 노구교(蘆溝橋) 사건 직후인 1937년 7월까지 중국 지식인 사회에서 영향력을 가진 잡지였다. 이 잡지는 중국인의 민족의식을 고취시킬 목적으로 만들었으며, 주도적인 편집진으로는 부사년과 그의 북경대학 시절 은사였던 胡適 등이 꼽힌다. 아울러 부사년은 여기에 여러 편의 時論들을 기고했다(가령 傅斯年, 2003[1932a], 「九一八一年了」, 『傅斯年全集』(第4卷)을 예로 들 수 있다).

무를 달성치 못했으며, 국제분쟁에 적극적 개입을 하지 못했던 국제연맹의 무기력함을 드러낸 사례로 평가받는다. 국제사회의 여론에 일말의 기대를 가졌던 부사년이 어떤 심정이었는지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IV. 『동북사강』에 대한 의미와 비판

『동북사강』은 史學史적으로 근대 중국 학자가 본격적으로 만주지역을 다룬 ‘최초’의 역사연구란 평가와 함께, 研究史적으로 당시 중국 학자들에게 만주 지역 역사연구의 필요성을 환기시키는 계기였다는 의미를 가진다.⁷⁶⁾ 이 저작의 출간 이후, 중국 역사학계는 만주지역 역사에 대한 성과물을 체계적으로 축적하기 시작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김육불의 『동북통사』, 卞宗孟의 『東北史研究綱要』, 고힐강 등이 주도해 만든 ‘禹貢學會’의 기관지 『禹貢』 등이 있다.⁷⁷⁾ 특히 훗날 미국으로 건너가 비트포겔(Karl A. Wittfogel)과 함께 遼代史 연구를 개척했던 馮家升(1904~1970)은 『禹貢』에 「東北史地研究之已有成績」(1935. 1), 「漢魏時代東北之文化」(1935. 4), 「原始時代之東北」(1936. 10) 등의 글을 기고했다.⁷⁸⁾

76) 鄭鶴聲, 1933, 「傅斯年等編著東北史綱草稿」, 『圖書評論』, 第1卷 11期, 18쪽; 歐陽哲生, 2003, 앞의 글, 51쪽; Wang Fan-shen, 2000, p. 149.

77) 田亮, 1999, 「禹貢學會和《禹貢》半月刊」, 『史學史研究』, 第3期; 馬大正·劉, 曹世鉉 역, 2004, 『중국의 국경·영토인식: 20세기 중국의 변강사 연구』, 고구려연구재단, 133~134쪽(1998, 『二十世紀的中國邊疆研究(修訂版)』, 黑龍江教育出版社); 王夏剛, 2005, 앞의 글.

78) 『禹貢』은 1934년 3월에 창간된 반월간 잡지이며 “중국 역사상 첫 번째로 영향력이 있었던 역사 지리학 전문 간행물”이다(馬大正·劉, 曹世鉉 역, 2004, 위의 책, 127쪽). 특히 1936년 10월에는 『동북 연구 특집호(東北研究專號)』를 펴냈다. 이 잡지 역시 『獨立評論』처럼 일본군의 손에 복경이 함락되는 1937년 7월 정간되었는데, 그때까지 만주 관련 논문은 대략 40여 편 게재되었으며 이 중 풍가승의 글이 가장 많다.

한편 『동북사강』의 출간은 일본 학자들의 반응도 불러일으켰는데, 가령 야노 진이치는 『滿洲國史』란 책을 통해 부사년의 의견을 반박하고 자신의 종래 입장을 계속 고수했다.

하지만 학술적인 관점에서 이 책은 부사년의 명백한 실패작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견해는 심지어 『동북사강』에 대해 '구국을 위한 학술연구의 사례'라고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해온 중국 학계에서도 나타난다. 가령 『동북사강』은 1980년 대만에서 발간된 『부사년전집』에서 빠졌는데, 이는 텍스트에 나타나는 수많은 오류와 왜곡이 '중국의 랑케'에 의해 저질러졌음을 의심한 편찬자들의 판단 때문이었다. 한편 대륙 역사학계는 『동북사강』에 대해 학술적 평가보다는 學術報國이라는 정치성을 부각시켜 왔는데, 부사년이 공산정권에 합류치 않고 대만으로 건넌간 정치적 이력 때문에 『동북사강』 저자를 의도적으로 부사년이 아닌 대륙에 남았던 서증서나 방장유의 것으로 간주해 왔다. 하지만 이런 잘못된 해석들은 胡厚宣(1991)과 歷史語言研究所에 보관된 '傅斯年 案'을 면밀히 분석한 王泛森 등에 의해 반박되었고, 현재는 이 책이 부사년의 단독 저작임을 인정하는 분위기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동북사강』은 2003년 대륙에서 출판된 『부사년전집』에 수록되었다.

사실 『동북사강』의 출간 당시부터 이에 대한 정치적인 평가와 학술적인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렸다. 중국 학자들은 그 정치적 의도에는 대체로 공감하고 동정을 보냈지만, 학술적 성과라는 면에서는 몹시 비판적이었다. 대표적으로 邵循正, 鄭鶴聲, 繆風林이 그러했다.⁷⁹⁾ 소순정은 1933년 5월 大公報에 게재한 논평에서 사료의 불충분한 사용과 중요 결론이 매우 편파적임을 지적했다. 정확성과 무편립의 비판 역시 자료의 불충분한 사용, 특히 중국 正史에 편재된 기록들은 간과한 채 거의 대부분 '동이전'의 기록에만 의지한 사실을 비판했다. 정확성은 부사년의 작품이 다급한 정치적 필요성에 따라 작성된 사실을 이해하면서도, 주장에 대한 근거가 보다 엄밀한 객관성을 지녔어야 했다는 지적

79) 繆風林(1934, 「評傅斯年君東北史綱卷首」, 『文藝叢刊』第2卷 2期)이 1933년 大公報에 수 차례 기고한 글을 엮은 것이다.

을 한다.⁸⁰⁾ 특히 무풍림은 “부사년의 책은 불과 수십 쪽에 불과하지만, 그 누락과 오류는 지금까지 역사서적에서 발견된 어떠한 기록을 거의 돌파할 것(傅君所著, 雖僅寥寥數十頁, 其缺漏紕繆, 殆突破任何出版史籍之紀錄也)”이라고 혹평했다.⁸¹⁾ 그는 기자조선의 이야기나 秦開의 요동정벌 등의 사례를 들면서 부사년이 자료를 폭넓게 섭렵하지 않은 채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는 자료만 선별적으로 이용했으며, 이에 따라 몹시 왜곡된 해석과 불충분한 논증을 내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고대 만주지역에 미친 흉노의 영향에 대해서는 대체로 간과되고 있으며, 특히 중국 사서에 나타난 흉노에 대한 기록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 또한 부사년은 만주지역 금석문 자료에 대한 인용을 전혀 하지 않는데, 이는 그가 이러한 자료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것처럼 보인다고 꼬집는다.⁸²⁾ 이상의 문제점을 고찰한 뒤, 무풍림은 1910년대에 나온 『滿洲歷史地理』 같은 비슷한 주제의 일본 학자 저작들에 비해 『동북사강』은 오류도 많고 학술적인 업적도 떨어진다고 평가하면서, 일본은 오래전부터 두드러진 학문적 성취를 이룬 데 반해 중국은 아직 그에 미치지 못했다는 실망감을 드러냈다. 아 이러니하게도, 무풍림의 민족주의적 감정은 다른 애국자의 민족주의적 저작을 비판하게끔 만들었다.⁸³⁾

부사년은 이런 날카로운 비판에 대해 끝내 답변치 못했으며, 급기야 『동북사강』 제1권 출간 이후 예정되었던 나머지 4권의 출간계획을 단념하기에 이른다. 나아가 『동북사강』 본문에서 여러 차례 출간을 예고했던 『民族與古代中國史』 역시 보다 철저하게 자신의 논의가 입증될 때까지 발행을 미루다 끝내 생전에 출판되지 못했다.⁸⁴⁾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부사년이 『동북사강』

80) 鄭鶴聲, 1933, 앞의 글, 17쪽.

81) 鄒海英, 2006, 앞의 글, 28쪽에서 재인용.

82) 繆風林, 1934, 앞의 글.

83) Wang Fan-shen, 2000, p. 152.

84) 다만 부사년은 『民族與古代中國史』에 수록하기로 계획된 글들을 논문의 형태로 발표했다. 그의 대표작 「夷夏東西說」도 원래 이 책에 수록될 계획이었다(傅斯年, 2003[1933], 앞의 글, 181쪽). 중국에서는 최근 부사년이 당초 이 책에 수록하려고 계획했던 논문들을 엮어 같은 제목으로 출판하였다.

에 대한 세간의 혹평에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결국 『동북사강』이란 부사년의 학술적 실패작은 너무도 강렬했던 學術報國의 의지에서 비롯하였다. 원래 만주사에 밝지도 않은 상태에서, 불과 수개월 만에 급히 집필되다보니 수많은 오류와 왜곡이 발생하는 것은 거의 필연적이었다. 하지만 문제의 근본적 이유는 역사적 객관성과 당면한 정치적 요구 사이의 긴장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 역사적 사실을 자신의 정치적 견해에 무의식적으로 종속시키다보니, 자신이 그토록 강조했던 과학적 엄밀성과 객관적 연구라는 원칙은 사라지고 현재의 시각을 역사적 사건과 사료를 해석하는데 투영한다는 '역사적 현재주의(historical presentism)'만 남게 되었다. 『동북사강』을 통해 우리는 애국주의와 실증사학의 '잘못된 동거'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한 타산지석의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다음으로 우리의 역사적 '상식'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는 *Manchuria in History*에 대해서는 구태여 자세하게 반박할 필요도 없을 듯하다. 대신 당시 이 팸플렛을 읽은 한 서양인이 받은 느낌으로 평가를 대신하겠다. "이 팸플렛을 읽고 (중국사에 밝지 않은) 사람들은 아마도 고대 중국의 중앙 권력이 만주와 같이 멀리 떨어진 지역을 조직적으로 통제했다고 믿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이것이 사실이 아님을 알고 있다."⁸⁵⁾

당시 영어권 독자들에게는 아마도 비슷한 시기 출간된 래티모어(Lattimore, 1935)의 저작 *Manchuria : Cradle of Conflict*이 훨씬 더 잘 알려졌을 법하다. 이 지역 전문가이자 정치적 편견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던 래티모어는 만주지역을 일본 혹은 중국과 역지로 결부시키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다. 그는 대신 인종이나 민족을 뛰어넘는 어떤 만주지역만의 고유한 정서가 있었음을 지적한다.⁸⁶⁾ 그는 이 책에서 만주지역의 지역적 특수성을 '後背地

85) Wang Fan-shen, 2000, p. 151. 이는 *Manchuria in History* 발간 직후인 1932년 3월 28일 퍼거슨(J. Ferguson)이 袁同禮(1895~1965)에게 쓴 편지에 나온다. 흥미롭게도 이 편지는 부사년이 보관하고 있었다고 한다.

86) Owen Lattimore, 1935, *Manchuria : Cradle of Conflict* (Revised Edition), N.Y. : The Macmillan Company, p. 8.

(reservoir)'로 표현하는데, 이는 종족적·문화적 다원성이 한데 어울려 융합되었다는 의미이자, 이 지역이 중국 역사의 향방을 배후에서 조종했다는 사실을 은유하고 있다. 다시 말해, 만주지역은 非漢族 부족들이 중원을 침공하는데 '저수지' 혹은 '배후지' 역할을 하였으며, 심지어 만주지역으로 이주한 漢族들도 자신들의 종족적 정체성이나 華夷 관념보다는 만주가 중원지역에 미치는 영향력, 즉 지역적 중요성을 명확히 인식하였다. 가령 명대 요동지역 漢人들은 만주지방의 지역정서에 깊이 빠져들었고, 급기야 만주족과 합세하여 중원을 평정하는 데 동참하였다.⁸⁷⁾ 따라서 래티모어는 만주지역의 역사적 '주체'를 특정 종족집단으로 귀속시키려는 주장들(가령 부사년 등이 강변하는 漢族 주체설이나, 일본 학자가 제시하는 非漢族 주체설)을 배격하고, 대신 만주라는 '후배지'에 살면서 '지역 특유의 정서(psychology of regional feeling)를 공유했던 사람'들로 본다. 그는 나아가 중원 왕조에서 끼친 만주지역의 영향력을 강조함으로써 중원 왕조의 만주에 대한 일방적 '구심력'만을 강조한 부사년 등의 인식을 완전히 전도시킨다. 여기서 우리는 '만주에서 바라본 중국사'라는 래티모어의 시각과 '중원에서 바라본 만주사'라는 부사년 등의 역사관이 얼마나 다른지 확인할 수 있다. 물론 동일한 지역에 대한 이러한 시각차(parallax vision)는 '동북공정'에 기인한 한중 역사분쟁에서 나타나듯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V. 맺음말 - 반복되는 역사전쟁

필자는 지금까지 『동북사강』의 저술배경, 주요 내용, 그리고 이에 대한 의의와 비판을 논의하였다. 앞에서 언급했듯, 『동북사강』이란 텍스트는 단순한 역사

87) Owen Lattimore, 1935, p. 41.

서적이 아닌 당시 만주를 둘러싼 중일 간의 대립에서 유래한 '사회적 구성물'이다. 당시 일본 학계와 중국 학계 간에 벌어진 '역사전쟁'은 만주를 '동북'으로 규정하면서 중국 역사의 일부로 보는 중화적 시각과 이 지역을 '만주'로 명명하면서 중국에서 떼어 놓으려는 일본 동양사학자들의 '특수사'적 시각의 대립이었다. 물론 일본 학자들은 만주의 특수성을 부각시킨 뒤 이를 다시 자국사 체계에 편입시키고자 하였다. 한편 이러한 중국과 일본의 '국사 만들기'와 달리 만주지역을 독립된 역사단위로 파악한 것은 미국인 래티모어였다. 어쨌든 당시 중일 간의 역사논쟁을 통해 우리는 이런 시각들이 가진 문제점, 즉 정치적 동기에 따라 침윤된 역사연구라는 한계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다. 이 점은 현재 중국의 '변강사 연구'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일제의 패망과 '만주국'의 몰락 이후, '만주'나 '동북'이냐의 논쟁은 더 이상 국제적인 학술문제로 크게 부각되지 않는다.⁸⁸⁾ 그렇다고 이 문제가 해결된 것은 결코 아니었다. 최근 중국 관변학계의 '동북사강'은 그동안 잠잠하던 논쟁에 도화선이 되었다. 다만 현재의 한중 간 역사전쟁은 그 이전과는 몇 가지 다른 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1930년대 『동북사강』은 일본의 역사왜곡과 만주 침탈에 대항한다는 '방어적 애국주의'의 산물이라면, 중국이 먼저 역사왜곡을 주도하는 지금의 '동북공정'은 '공세적 중화주의'의 사례이다. 물론 이는 변화된 중국의 위상과 관련이 있다. 둘째로 『동북사강』 프로젝트에 참여한 역사가들은 하나같이 당대 최고의 거물급이었던 데 반해, '동북공정'은 상대적으로 중앙의 주류에서 벗어난 지방 현지의 연구자들이 주도하고 있다.⁸⁹⁾ 셋째로 『동북사강』은 부사년·이제와 같이 공산정권에 반대한 학자들이 참여한 반면, '동북공정'은 현재 중국정권의 이념에 충실히 따르는 학자들이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북사강』과 '동북공정'은 상당히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이 둘은 만주를 '동북'으로 단정하고 이 지역을 중국사의 일부로 편입시키려는 시도이다. 이는 중국 학계에 뿌리 깊은

88) Dan Shao, 2005, p. 23.

89) 이기동, 2007, 앞의 강연문.

‘邊疆史學’의 전통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마대정 등은 이를 “애국과 진리를 구하는 것은 중국 변강 연구 전통의 핵심이자 지주인데, 이것은 국가의 내외와 환이 나날이 엄중하던 20세기 전기에 의심할 바 없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었다”고 평가한다.⁹⁰⁾ 즉, 邊政을 도모한다는 정치적 동기가 깊숙이 내재된 변강사 연구는 시대를 불문하고 상당수 중국 학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특히 부사년과 마대정은, 비록 각자가 처한 사회적 현실이나 정권의 이념적 성격은 크게 달랐지만, 애국활동과 진리탐구를 병행한다는 ‘변강사학’의 시각을 공유하고 있다. 이에 덧붙여, 부사년과 마대정은 공통적으로 ‘과학적’ 역사연구를 강조하고 이를 위해 고고학, 민족학, 인류학 등 인접학문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가고 호소하고 있는데, 그 결과는 바로 교조적 애국주의와 과학적 역사학이 교묘히 결합된 변강사학이다. 어쨌든 만일 부사년이 “고조선(기자조선, 위만조선, 한사군 시기를 포함), 고구려, 발해 정권은 모두 중국 고대역사의 일부분이며, 한국 고대민족 국가 역사의 내용에 속하지 않는다”는 마대정⁹¹⁾의 글을 읽었다면 필시 전적으로 동감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역사는 다시 한번 반복되었고, 마대정의 주도로 탄생했던 ‘동북공정’은 부사년이 이끌었던 『동북사강』 프로젝트의 실패를 그대로 밟아가고 있다. 『동북사강』을 읽고 나서 “역사적 사실들과 인물들은 두 번 반복된다. 처음에는 비극적으로 두 번째는 희극적으로”라는 마르크스(Karl Marx)의 풍자가 문득 떠올랐던 것은 필자만이 가진 생각은 아닐 것이다.⁹²⁾ 마지막으로 이 논문을 통해 앞으로 ‘동북공정’의 역사적 기원 특히 1930년대 중국 학자들의 만주지역 역사연구의 내막이 보다 소상히 연구되었으면 하는 것이 필자의 작은 바람이다.

※ 부기 : 이 논문의 구상 단계에서 필자에게 『동북사강』 등 텍스트 검토의 중요성을 일깨워주신 이기동 교수께 감사드린다.

90) 馬大正·劉 , 曹世鉉 역, 2004, 앞의 책, 116쪽.

91) 馬大正, 2004b, 「中國疆域的形形成與發展」, 『中國邊疆史地研究』第14卷 3期, 13쪽.

92) Karl Marx, 1978, “The Eighteenth Brumaire of Louis Bonaparte,” *Marx-Engles Reader* (Second Edition), N.Y. : W. W. Norton & Company, p. 594.

[ABSTRACT]

When Patriotism Meets Positivist Historiography :
 The Critique of Fu Sinian(1896~1950)'s
Dong-bei shi-gang

Lee, Byungho

This paper critically examines the first volume of *Dong-bei shi-gang* (The Outline of History of Northeast China) written by Fu Sinian, often depicted as ‘Chinese Ranke’ for his lifelong emphasis on rigorous, scientific historical research, and Li Chi’s *Manchuria in History* which briefly summarized the works of Fu and his associates. Published in 1932, Fu’s work has been considered as the first modern historical work done by a Chinese scholar in this area. Immediately after the Japanese Kwantung Army invaded Manchuria in September 1931 (generally known as the Mukden Incident), Fu’s nationalist feeling led him to initiate a research project on the history of Manchuria and subsequently intended to publish its findings under the title of *Dong-bei shi-gang*. The main purpose of his project was to refute a popular claim by Japanese scholars that Manchuria was not a part of China proper.

In defense of China’s territorial integrity, Fu and his colleagues wanted to prove the fact that Manchuria had been an integral part of Chinese history for three millennia without any discontinuity. In brief, their main arguments have three points. First, judging fr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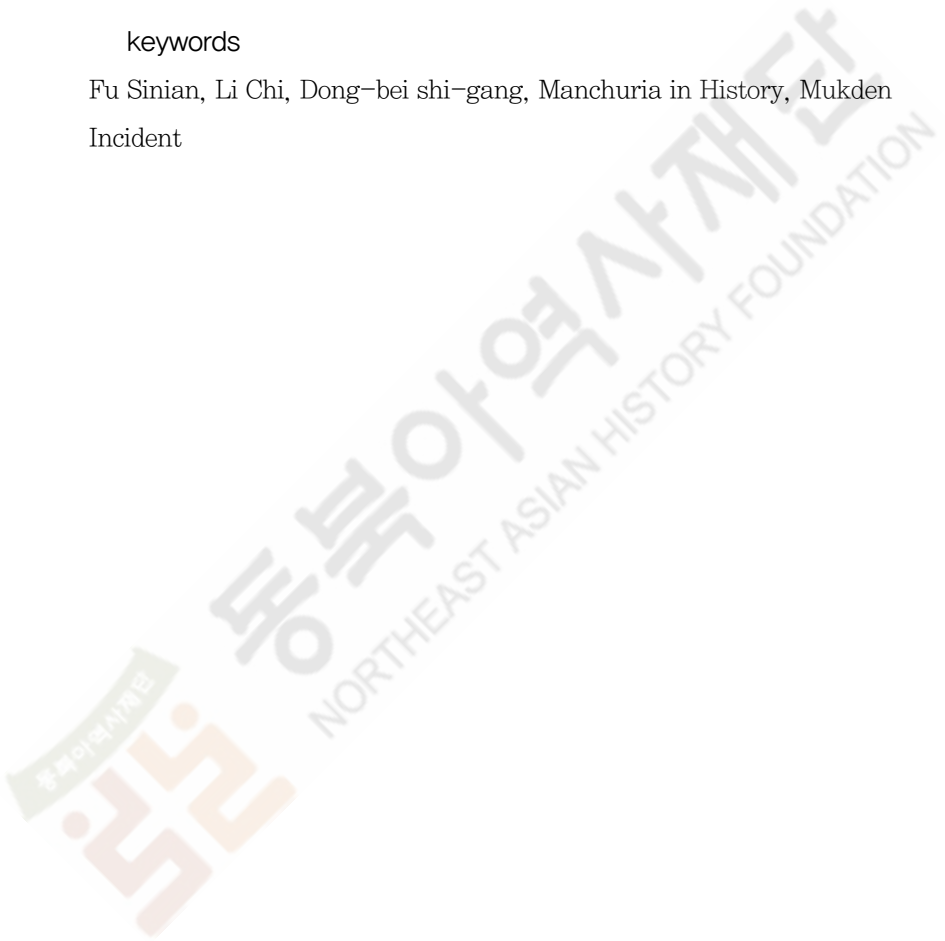
mythological, archaeological, and linguistic findings, the ancient inhabitants of Manchuria were identical to those in North China and shared in the early Chinese civilization. Thus Fu asserted that Manchuria was one of the original cradles of Chinese civilization. Second, seen from recorded history, Manchuria had been governed by a Chinese bureaucratic system. Third, in prehistoric and much of historic times, Manchuria and Korea maintained only minimal communication with Japan.

After the publication, however, Fu's treatise drew much criticism not only from Japanese scholars but also from other Chinese historians for having intentionally neglected accepted historical facts to bolster his assertions. Indeed, the mistakes and distortions he made are partly attributable to his lack of knowledge in this area. Fu was not an expert in this field and had insufficient preparation for taking on such a time-consuming task. In addition, the tension between historical objectivity and urgent political needs also played a crucial role. Due to his patriotic motivation, Fu decided to downplay the evidence favorable to the claims made in Japanese propaganda. Likewise, Li's *Manchuria in History* revealed the same prejudice since he also treated the history of Manchuria as a mere reflection of Chinese history. It was, therefore, such a hopeless project from the beginning that their desperate efforts to rescue the history of Manchuria from Japanese invaders resulted in simply replacing Japanese vision with the perspective of Chinese nationalism. About 70 years later, the so-called Northeast Project, initiated by the government-affiliated research institut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as shown problems similar to Fu and his associates when it

began to distort ancient Korean history for the purpose of consolidating China's sovereignty and territoriality on Manchuria.

keywords

Fu Sinian, Li Chi, Dong-bei shi-gang, Manchuria in History, Mukden Incident



고대 일본의 高麗樂에 대한 기초 연구

전덕재 | 경주대학교 교양과정부 교수

I. 머리말

고대 일본의 雅樂은 列島 古來의 歌舞와 외국계통의 가무를 源流로 하여 성립되었다. 아악을 크게 舞樂, 管絃, 歌物, 國風歌舞로 분류하는데,¹⁾ 이 가운데 무악은 左舞(左方樂)와 右舞(右方樂)로 구성되었으며, 전자는 중국계통의 무악으로서 흔히 唐樂이라고 부르고, 후자는 한국계통의 무악으로서 흔히 高麗樂으로 부른다. 高麗樂은 삼국시대부터 일본에 전래된 백제악, 신라악, 고구려악, 그리고 발해악을 기초로 하여 성립된 것이다. 나라시대까지 삼국과 발해의 무악을 국가별로 각기 敎習, 傳授하다가 헤이안시대인 10세기 전반에 신라

1) 관현은 唐樂의 악기 합주곡이며, 고려악의 악기 합주곡은 없었다. 歌物은 외국에서 전래한 음악의 영향을 받아 일본에서 제작한 歌謠로서 催馬樂과 朗永이 대표적이다. 催馬樂은 일본열도 諸國마다의 민요가 궁정사회에서 모아진 뒤에 외국 전래의 음악 양식에 기초하여 다시 편곡된 가요를 말하고, 朗永은 漢詩에 節을 붙여 詠唱하는 가요를 말한다. 국풍가무는 일본열도 고래의 노래나 춤의 계보를 잇는 가무로서 朝儀나 祭祀에서 주로 연주되면서 발전하였다. 國栖舞, 久米舞, 吉志舞, 人舞, 倭舞, 田舞, 五節舞 등이 여기에 속한다.

악과 백제악 및 발해의 음악이 高麗樂에 흡수·통합되면서 唐樂과 左右 對稱의 新制, 즉 左右 二部制의 토대가 마련되고, 궁극적으로 10세기 후반에 완전한 의미의 新制가 완성되었다고 알려졌다. 헤이안시대에 정비된 당악과 고려악의 일부가 오늘날까지 일본에 그대로 전해져서 공연되고 있다. 중국이나 삼국 및 발해에서 전래된 歌舞의 본래 모습은 일본화 과정을 거치면서, 중세와 근세를 거치면서 상당히 많이 변질되었을 터이지만, 그러나 이를 통하여 唐代 중국의 가무와 한국 고대 가무의 종류 및 그 성격, 본래의 모습을 추적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을 듯싶다. 본고는 바로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현재 일본에서 雅樂, 특히 舞樂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지만, 대체로 左方樂인 唐樂에 초점을 맞추었을 뿐이고, 고려악 관련 연구는 활발하였다고 말하기 어렵다. 게다가 일본 음악사학계의 미흡한 연구성과마저도 거의 소개가 되지 않아 국내에서 그에 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없었다. 본 연구자가 고려악에 대한 기초 조사와 연구의 필요성을 절감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다. 국내에서 고려악에 대한 이해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일본 음악사학계의 연구동향을 조사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그것을 기반으로 여러 辭書와 樂書類에 전하는 고려악곡을 개별적으로 분석하여 그 계통과 아울러 성격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규명하는 것이 요구될 것이다. 본고 방향후 국내외 고려악 연구의 礎石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부족한 점은 추후에 보완할 것을 약속하는 바이다. 많은 질정을 바란다.

II. 高麗樂 관계 史料와 內容

高麗樂과 唐樂을 포함한 고대 일본의 舞樂에 관한 내용은 고대 및 중세에 편찬된 辭書類(또는 百科事典)와 중세에 편찬된 樂書類에 전하고 있다. 고려악

에 관하여 전하는 辭書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에 편찬된 것이 『倭名類聚抄』이다. 이것은 『和名類聚抄』라고도 부르는데, 漢語를 분류하여 倭名(和名)을 注記한 사서로서 10권본과 20권본이 있다. 편찬자인 源順이 序文에서 延長, 즉 醍醐天皇 第四公主(皇女: 勤子內親王)의 뜻을 받들어 편찬하였다고 전한다. 이에 근거하여 10권본은 承平 2년(931)에서 동 5년(934) 사이에 원순이 찬술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20권본에 대하여 원순 자신이 增補하였다는 설과 후인이 증보하였다는 설이 나뉘어져 있는데, 전자였을 경우에 그것은 天祿 원년(970) 이후 數年 사이에 증보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 20권본은 10권의 내용을 약간 세분화하여 통합한 것이지만, 다만 音樂과 職官, 國郡, 鄉藥의 각 부는 완전히 증보한 것에 해당한다.²⁾ 당악과 고려악의 곡명은 20권본 가운데 완전히 증보한 부분인 4권 音樂部 曲調類에 전하고 있다.

고려악의 악곡을 전하는 사서 가운데 두 번째로 오래된 것이 橘忠謙이 편찬한 『色葉字類抄』이다. 현재 2권과 3권본이 전하며, 漢文 표기된 사물에 자음 및 釋讀을 入口ハ순으로 배열한 辭書다. 2권본은 天養 연간에서 長寬 연간 사이(1144~1165)에 편찬하였다고 추측되고, 3권본은 2권본을 증보하여 治承 연간(1177~1181)에 완성하였다고 한다.³⁾ 3권을 다시 증보한 것이 『伊呂波字類抄』(10권)이다. 간행시기는 분명하지 않으나 대체로 가마쿠라막부(1192~1333) 초기에 성립된 것으로 보고 있다.⁴⁾ 두 책에 전하는 고려악의 곡명은 대체로 일치하는 편이다.

일종의 백과사전인 『拾芥抄』에도 고려악의 곡명이 전한다. 이것은 『略要抄』라고도 부르며, 편찬자와 편찬연대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다만 그 내용의 분석을 통하여 대략 가마쿠라막부(1192~1333) 중기에 그 原形이 성립되고, 그 후에 몇 번의 追記가 이루어져 유포되었다고 이해하고 있다.⁵⁾ 이 책 上末卷 音

2) (財)古代學協會·古代學研究所 編, 1994b, 『平安時代史事典(下卷)』, 角川書店, 2771쪽.

3) (財)古代學協會·古代學研究所 編, 1994a, 『平安時代史事典(上卷)』, 角川書店, 190쪽.

4) 水野俊平, 1997, 「教訓抄에 나타난 高麗樂 曲名 表記에 대한 考察」, 『한국언어문학』, 38, 32쪽.

5) 永仁 2년(1294)에 간행된 『本朝書籍目錄』에 『습게초』가 보이므로 그것은 그 이전에

樂에서 新鳥蘇를 비롯한 29곡을 高麗壹越調, 林綺는 高麗平調, 蘇志摩利를 비롯한 4곡을 高麗雙調로 구분하여 소개하였다. 『왜명유취초』 등의 辭書類에 보이지 않는 高麗龍, 新河浦, 進曾利古, 桔槔, 常雄樂, 作物, 仁和樂, 白濱 등을 추가로 소개한 반면, 葦波와 切, 啄木이 보이지 않는 것이 특징적이다. 그리고 保曾路久勢利와 賀利夜須 대신 그것들을 합쳐 제작한 長保樂만이 소개되어 있다. 1133년에 편찬된 『龍鳴抄』에 高麗禮龍(高麗龍) 등이 최초로 보이는 반면에 啄木 등은 보이지 않는다. 이후에 편찬된 樂書들도 비슷한 경향이였다. 10세기 후반에 편찬된 『왜명유취초』 20권본과 『용명초』에 전하는 고려악곡을 상호 비교할 때, 11세기 초에 고려릉 등이 고려악곡에 새로 추가되고, 탁목 등은 악곡이 단절되어 더 이상 전승되지 않았다고 유추해볼 수 있다. 다만 『용명초』보다 더 늦게 편찬된 『색엽자유초』와 『이여파자유초』에 고려릉 등이 빠지고, 탁목 등을 거기에 소개한 이유를 명확하게 알기 어렵다. 현재로서 『색엽자유초』 등의 편찬자가 『왜명유취초』의 고려악곡을 참조하였다는 추측만이 가능할 뿐이다.

辭書類에는 고려악의 곡명만이 전할 뿐이고, 그것들의 유래와 연주법, 그것을 둘러싼 여러 가지 故事에 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다. 반면에 중세시대에 편찬된 樂書에 그것들에 관하여 상세하게 전하고 있어 고려악 연구에 크게 도움이 된다. 여러 악서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에 편찬된 것이 『龍鳴抄』이다.⁶⁾ 太神基政(1075~1138)이 長承 2년(1133)에 편찬한 橫笛書로서 『龍吟抄』라고 부르기도 한다.⁷⁾ 고려악곡은 唐樂 壹越調曲 다음에 狍樂目錄이라고 제목을 붙여 소개하였다. 사서류에 보이지 않는 高麗禮龍, 新河浦, 進蘇利古(進曾利古), 常武樂(常雄樂), 仁和樂, 白濱을 처음으로 여기에서 소개한 반면에 狍犬, 葦波, 切, 啄木 등에 관해서는 언급이 없고, 다른 악서에 소개된 桔槔, 作物도 빠져 있다.

편찬되었다고 볼 수 있다(財)古代學協會·古代學研究所 編, 1994a, 앞의 책, 1162쪽].

6) 『龍鳴抄』는 『新校 群書類從』 卷第342, 管絃部2에 전한다.

7) 東儀信太郎 등, 1998, 『雅樂事典』, 音樂之友社, 286쪽.

〈표 1〉 辭書와 百科事典類에 보이는 高麗樂曲

	辭書 樂曲	『倭名類聚抄』 (20권)	『色葉字類抄』	『伊呂波字類抄』	『拾芥抄』
1	新鳥蘇	新鳥蘇	新鳥蘇	新鳥蘇	新鳥蘇 (大曲, シントリソ)
2	古鳥蘇	古鳥蘇	古鳥蘇	古鳥蘇	古鳥蘇 (大曲, コトリソ)
3	退宿德	退宿德 (宿音如鼠)	退宿德 (宿音如鼠)	退宿德 (宿音如鼠)	退宿德 (タイシヨウトク)
4	進宿德	進宿德	進宿德	進宿德	進宿德 (シンシヨウトク)
5	狛鉾	狛鉾(古萬保古)	狛鉾 (コマボコ)	狛鉾	狛鉾 (コマボコ)
6	俱論甲序	俱論甲序	俱論甲序	俱論甲序	俱論甲序 (クロガンシエ)
7	志岐傳	志岐傳	志岐傳 (シキテ)	志岐傳 (シキテン)	志岐傳 (シキテ)
8	埴破	埴破 (波爾和利)	埴破 (ハエウリ)	埴破 (ハエウリ)	埴破 (ハンサワイ)
9	歸德侯	歸德侯	歸德侯 (クキトフ)		歸德 (キトク)
10	都鬱	都鬱 (志與路岐)	都鬱志 與路岐	都鬱志 (盤涉調) 與路岐	都鬱 (志與召岐, ツウ)
11	阿夜岐理	阿夜岐理	阿夜岐理	阿夜岐理	阿夜岐理 (アヤキリ)
12	頑徐	頑徐	顏徐(徐?) 王仁庭	顏經王仁庭	顏徐 (カンシヨ)
13	王仁庭	王仁庭	顏徐(徐?) 王仁庭	顏經王仁庭	皇仁庭 (ワウニンテイ)
14	崑崙八仙	崑崙八仙 (久呂波世)	崑崙八仙 (久路也)	崑崙八仙 (久路也)	崑崙八仙 (コンロンハツセン)
15	酣醉樂	酣醉樂	酣醉樂 (カンスイ)	酣醉樂 (カンスイラク)	酣醉樂 (カンスイ)
16	保曾路久勢利	保曾路久勢利	保曾路	保曾路久	長保樂
	賀利夜酒		賀利夜須		
17	延喜樂	延喜樂	延喜樂		延喜樂

18	新靺鞨	新靺鞨 (靺鞨異音末曷蕃 人出土見唐韻)	新靺鞨 (シンマカ)	新靺鞨	新靺鞨 (シンマツカ)
19	胡德樂	胡德樂	胡德樂	胡德樂	遍鼻胡德
20	狛犬	狛犬	狛犬	狛犬	犬
21	石川樂	石川樂		石川樂 (고려악이라고 표시 안함)	石川 (イシカハ)
22	胡蝶樂	胡蝶樂	胡蝶樂 (コテラク)	胡蝶樂	胡蝶 (コテフ)
23	納蘇利	納蘇利	納蘇利 (ナツソリ)	納蘇利 (ナツソリ)	納蘇利 (ナウソリ)
24	高麗龍				高麗龍 (コマ레ウ)
25	新河浦				新河浦 (シカホ)
26	進曾利古				進曾利古 (シンソリコ)
27	桔槔				桔槔 (キフカン)
28	常雄樂				常雄樂
29	作物				作物
30	仁和樂				仁和樂 (ニンワ)
31	葦波	葦波	葦波 切	葦波 切	
32	切	切	葦波 切	葦波 切	
33	啄木	啄木	啄木 (タクボ)	啄木	
34	고려평조 林歌	臨河(或云 林歌)	臨河 (リンカ)	臨河 (リン카)	林謠
35	고려쌍조 蘇志摩利	蘇志摩利	蘇志摩利 (ソシマ)	蘇志摩利 (ソシマリ)	蘇志摩利 (ソシマリ)
36	地久樂	地久樂 (卽歌有櫻人內曲 是也)	地久樂 (チキウ)	地久樂	地久 (准大曲, チキウ)
37	登天樂	登天樂	登天樂		登天樂 (トウテン)
38	白濱				白濱
		※ 反鼻胡德은 당 악으로 나옴.	※ 反鼻胡德은 당악으로 나옴.	※ 登貞樂(고려 악 반접조)	

『용명초』에서 고려악곡과 관련된 口傳, 別稱, 拍子 및 演奏法, 曲의 규모(大曲, 中曲, 小曲 등), 악곡의 音調, 番舞에 대하여 매우 간결하게 소개하였다. 특히 顏徐, 常雄樂, 新河浦는 편찬 당시에 이미 그 실태가 불분명해졌고, 춤도 전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점과 진소리고의 경우 同名의 曲은 없고, 退出音聲으로서 사용되었다고 언급한 사실이 유의된다.⁸⁾ 『용명초』에 소개되지 않은 위파와 초절, 탁목의 경우도 이러한 곡들과 사정이 비슷하였다고 추정해볼 수 있다.

平安時代の 箏譜인 『仁智要錄』과 琵琶譜인 『三五要錄』에도 고려악에 관한 정보가 전한다. 두 악서는 비파와 쟁의 名手인 藤原師長(1138~1192)이 찬한 것으로서 정확한 편찬연대는 알려지지 않았다. 두 악서는 平安時代 당악·고려악의 비파와 쟁 악보, 그때까지 전해진 由來 및 연주법을 간략하게 기술한 것으로서 당시 樂譜의 모습을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⁹⁾ 두 악서는 모두 12권으로 구성되었고, 고려악은 『삼오요록』 권제12, 『인지요록』 권제11에 수록되어 있다. <표 2>에서는 후자에 전하는 고려악곡만을 정리하였다.¹⁰⁾

藤原孝道가 嘉祿 3년(1227)에 舞樂 39곡의 作法를 간략하게 소개한 『雜秘別錄』을 편찬하였는데, 여기에서 고려곡은 겨우 新鳥蘇, 古鳥蘇, 狛鋒, 胡蝶만을 소개하였다.¹¹⁾ 唐樂과 高麗樂을 비롯한 雅樂과 樂器, 그 밖의 음악과 관련된 내용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한 최초의 樂書가 바로 『教訓抄』이다. 이것은 狛近眞(1177~1242)이 天福 원년(1233)에 완성한 악서로서 당악과 고려악의 유래, 口傳, 연주법, 故事, 例話 및 舞樂, 管絃, 打物 등의 구전을 기록하였다. 특히 狛近眞이 左方舞(唐樂)의 家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하여 비교적 상

8) (財)古代學協會·古代學研究所 編, 1994a, 앞의 책, 1296쪽에서 악곡은 垣破(埵破)를 사용한다고 하였다.

9) 東儀信太郎 등, 1998, 앞의 책, 283~284쪽.

10) 『삼오요록』과 『인지요록』에 전하는 고려악곡의 악보나 그 유래 등에 대해서는 이지선, 2005, 『삼오요록』과 『인지요록』의 고려악 연구-고려일월조를 중심으로, 『한국음악사학보』 38; 金建民 著·全仁平 譯, 1993, 『인지요록 중 고려곡의 해석과 고증』, 『중앙음악연구』 4가 참조된다.

11) 『雜秘別錄』은 『新校 群書類從』 卷第346, 管絃部6에 전한다.

세하게 기술한 편이라고 한다.¹²⁾ 『교훈초』는 이후에 편찬된 『體源抄』와 『樂歌錄』 등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받고 있다.

고려악은 卷第5에 소개하였다. 앞에 신조소를 비롯한 高麗壹越調曲 19곡, 高麗平調曲 1곡(林歌), 地久를 비롯한 高麗雙調曲 4곡의 명칭을 기재한 다음, 이어서 당시에 이미 춤이 전하지 않은 無舞曲을 적기하였다. 그리고 그 뒤에 고려악 각 곡명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해설하였다. 참고로 여기에서 언급한 無舞曲은 都志, 甘(紺)醉樂, 狛龍, 吉簡, 進蘇利古, 顏徐, 新河浦, 黑甲序, 常雄樂, 狛犬, 造物(作物) 등 모두 11곡이다. 『용명초』에서 이미 12세기 초반에 顏徐, 常雄樂, 新河浦의 춤이 전하지 않는다고 전하였으므로 그때부터 『교훈초』가 편찬된 13세기 전반 사이에 都志를 비롯한 8곡 정도의 춤이 廢絶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고려악의 각 악곡을 소개할 때에 裝束, 곡의 규모, 由來, 곡의 別稱, 박자와 연주법, 故事와 공연 用例 등의 순으로 정리하였다. 한편 卷第7에서 舞譜名目, 舞姿法, 舞出入作法, 舞番, 舞奏進樣을 소개하였다. 이를 통하여 연주방법을 비롯한 고려악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추가적으로 획득할 수 있다. 狛近眞의 손자 狛朝葛(1249~1333)이 『교훈초』의 내용을 보완하여 元亨 2년(1322) 경에 완성한 『속교훈초』도 고려악 연구에 참조된다.

일본 3대 악서의 하나인 『體源抄』는 豊原統秋(1450~1524)가 永正 9년(1512)에 완성한 것이다. 13권 20책으로 구성되었고, 古書を 광범하게 인용하면서 家業인 笙 및 雅樂에 관한 것 이외에 神道, 佛法, 軍事, 文藝 등에 대해서 까지 두루 수록하였다.¹³⁾ 당악과 고려악을 비롯한 舞樂에 관해서는 卷第9에서 다루었는데, 여기에서 소개한 고려곡의 명칭은 『교훈초』에서 소개한 것과 대동소이하다. 각 악곡에 대해서 裝束, 곡의 규모, 곡의 別稱, 박자, 유래, 연주법, 故事, 악곡과 관련된 口傳, 공연 用例 등의 순으로 설명하였다. 그 내용은 대체로 『교훈초』의 것을 그대로 인용하였다고 볼 수 있고, 『교훈초』 편찬 이후

12) 東儀信太郎 등, 1998, 앞의 책, 282쪽.

13) 東儀信太郎 등, 1998, 앞의 책, 285쪽; 遠藤徹·笹本武志·宮丸直子, 2006, 『圖說雅樂入門事典』, 柏書房, 110쪽.

에 추가로 전래된 전승이나 구전, 공연 用例 등을 수록하였으며, 이때 기존의 악서나 古書 등을 주로 인용하는 방법을 활용한 것이 특징적이다. 고려악곡을 개별적으로 소개한 다음에 이어서 『絲管要抄』에 전하는 ‘右舞作法’을 수록하였다.¹⁴⁾ 그 내용은 각 악곡을 연주할 때 춤을 추는 순서 및 방법, 그 박자에 관하여 정리한 것이다.

豊原統秋가 永正 6년(1509)에 撰進한 또 하나의 악서가 『舞曲口傳』이다.¹⁵⁾ 여기에는 당악과 고려악의 裝束, 규모, 구전의 내용 등이 간략하게 수록되어 있다. 여기에 전하는 고려악의 곡명은 『체원초』의 그것과 대략 일치한다. 다만 『무악구전』에 造物만이 전하지 않을 뿐이다. 이 밖에 찬자와 편찬연대가 알려지지 않은 『夜鶴庭訓抄』와 『舞樂要錄』에도 고려악에 관한 정보가 전한다.¹⁶⁾ 『夜鶴庭訓抄』는 五音調, 樂名 등에 관한 사항과 아울러 新樂, 催馬樂, 기타 管絃과 관련된 秘事 등을 수록한 악서다.¹⁷⁾ 여기에 다른 악서에 전하지 않는 악곡명이 여럿 언급되어 있다. 納序, 古彈, 保蘇呂(長保樂 破), 古蘇呂(長保樂 急), 歌良古蘇呂, 阿支波 등이 바로 그것이다.¹⁸⁾ 『무악요록』은 상·하 2권으로 구성된 악서로서 상권에는 무악을 행할 때 좌우 番舞의 組合을 열거한 다음, 延長 6년(928)부터 保元 연간(1156~1158)에 이르기까지 塔供養, 堂供養, 舞樂 曼陀羅供, 御八講, 朝觀行幸, 御賀, 相搏節會 등에 실제로 공연된 무악의 용례

14) 管絃에 관한 樂書로서 『絲管抄』 또는 『絲管要錄抄』라고도 부른다. 1294년에 간행된 『本朝書籍目錄』에 10권 北院御室卿少라는 記載가 보여 守覺法親王이 편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지금 완본은 전하지 않고 『梁塵秘抄口傳集』, 『神樂血脈』에 약간의 逸文이 남아 전한다[(財)古代學協會·古代學研究所 編, 1994a, 앞의 책, 1069쪽].

15) 『무악구전』은 『新校 群書類從』 卷第346, 管絃部6에 전한다.

16) 『夜鶴庭訓抄』는 『新校 群書類從』 卷第347, 管絃部7에, 『舞樂要錄』은 같은 책, 卷第345 管絃部5에 전한다.

17) 『新校 群書類從』 卷第15 解題, 23쪽.

18) 납서와 고탄은 新鳥蘇 앞에 연주하는 曲으로서 전자는 高麗笛과 篳의 合奏取이고, 후자는 고려적 독주곡을 가리킨다. 보소려와 고소려는 保曾路久勢利와 관련이 깊고, 歌良古蘇呂는 加利夜須(賀利夜須)를 가리킨다고 보인다. 『舞樂圖說』에서 『大日本史』 所引 『인지요록』에 阿支波世歸德侯가 전한다고 언급하였다. 이를 참조할 때, 阿支波는 歸德叟(侯)와 관계가 깊다고 볼 수 있다.

를 기록하였고, 하권에는 應和 연간(961~963)부터 康治 연간(1142~1143)에 이르기까지 御八講, 塔供養, 堂供養, 一切經供養, 舍利會 등의 대법회에 공연된 調子音樂의 용례를 수록한 것이다.¹⁹⁾

3대 악서 가운데 고려악에 관하여 가장 풍부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이 바로 『樂歌錄』이다. 安倍季尙(1612~1708)이 元祿 3년(1690)에 편찬한 악서로서 安倍가 神樂 策의 家系이기 때문에 神樂, 人長(神樂의 진행자)에 대하여 상세하게 수록하였다.²⁰⁾ 본서는 신악에서 雜篇에 이르기까지 50卷, 1803章으로 구성되었다. 악곡의 기원, 故事, 악기의 製法, 奏法, 舞樂, 系圖, 律呂, 式典, 逸話 등에 이르는 모든 雅樂에 관계된 사항을 총망라하여 정리하였다. 羽塚啓明은 『악가록』의 解題에서 『교훈초』가 源泉이라면, 『체원초』는 河川과 같고, 『악가록』은 大海와 같다고 비유하였을 정도로 현재 당악과 고려악에 관하여 가장 심층적이고 폭넓은 내용을 담지하고 있는 악서로서 평가되고 있다.²¹⁾

고려악은 권28 樂曲訓法, 권29 奏樂故實, 권30 奏樂分類, 권31 本邦樂說, 권36 番舞, 권37 舞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권28 樂曲訓法에서는 本朝曲(일본 고유의 악곡) 39곡, 皇華曲(唐樂) 108곡, 高麗樂 35곡, 雜聲 17곡의 명칭과 그것의 訓, 別稱에 관하여 기술하였고, 권29 奏樂故實에서는 각 악곡의 연주법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권28에 전하는 고려악의 악곡의 수 및 그 명칭은 『교훈초』에 전하는 것과 대동소이하다. 권30 奏樂分類는 音調別로 악곡을 분류한 부분에 해당하고, 권31 本邦樂說은 당악 및 고려악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구전이나 異說을 모아서 정리한 부분에 해당한다. 권36 番舞와 권37 舞에서는 각 악곡의 番舞 및 여러 가지 故事와 服飾, 樂具와 舞臺 등에 관하여 여러 서책이나 악서 등을 인용하여 설명하였다. 특히 권37에서 江戸時代까지 曲과 舞가 온전히 전하는 악곡은 新鳥蘇를 비롯한 27곡이고, 曲과 舞 모두 폐절된 악곡은 都志와 酣醉樂, 狛龍, 進蘇利古이며, 舞가 폐절된 악곡은 黑甲序, 顔序, 新

19) 『新校 群書類從』 卷第15 解題, 22쪽.

20) 東儀信太郎 등, 1998, 앞의 책, 182쪽.

21) 羽塚啓明, 1936, 『樂歌錄 解題』, 『樂歌錄』, 日本古典全集刊行會, 4쪽.

〈丑 2〉 樂書에 보이는 高麗樂曲

樂書 樂曲	『龍鳴抄』	『仁智 要錄』	『雜秘 別錄』	『教訓抄』	『舞曲 口傳』	『體源抄』	『樂歌錄』	『夜鶴庭 訓抄』
1 新鳥蘇	新鳥蘇 (新とりそ)	新鳥蘇	新鳥蘇	新鳥蘇 (納序曲)	新鳥蘇	新鳥蘇 (納序曲)	新鳥蘇 (志牟止利會)	納序, 古彈, 新鳥蘇
2 古鳥蘇	古鳥蘇 (ことりそ)	古鳥蘇	古鳥蘇	古鳥蘇 (高麗調子曲)	古鳥蘇	古鳥蘇 (高麗調子曲)	古鳥蘇 (古止利會)	古鳥蘇
3 退宿德	退走德 (だいそとく)	退宿德 (走禿)		退宿德 (走禿)	退宿德	退宿德 (走禿)	退走德 (太以志也字 止具, 退走禿, 退宿德, 老舞)	退宿德
4 進宿德	進走德 (しんそとく)	進宿德 (走禿)		進宿德 (走禿)	進宿德	進宿德 (走禿)	進走德 (志牟志也字 止具, 退走禿, 退宿德, 若舞)	進宿德
5 狛鉾	狛鉾 (こまぼこ)	狛鉾 (狛鉾)	狛鉾	狛鉾 (執鉾舞)	狛鉾	狛鉾 (執鉾舞)	狛鉾 (古眞保古, 狛鉾, 花鈞樂 掉持舞)	狛鉾
6 俱論 甲序	俱論甲序 (くろかふそ)			黑甲序 (俱論甲序)	黑甲序	黑甲序 (俱論甲序)	黑甲序 (具呂加 不志與, 具呂加 牟志與, 俱論甲序)	俱論甲序
7 志岐傳	敷手 (しきて)	志岐傳		敷手 (重來舞, 志岐傳)	敷手 (重來舞)	敷手 (重來舞, 志岐傳)	敷手 (志氣傳, 志岐傳, 志岐手, 重來舞)	志岐傳, 敷手
8 壇破	壇破 (はんわり)	壇破		壇破 (登玉舞)	壇破	壇破 (登玉舞)	壇破 (波牟奈利, 金玉舞, 登玉舞)	壇破

9	歸德侯	貴德隻(侯) (きとくといふべし)	歸德侯 (貴德)		貴德 (歸德侯)	貴德	貴德 (歸德侯)	貴德 (氣止具, 歸德隻)	歸德隻
10	都鬱	都志 (つし)	都鬱志 與呂岐 (都志)		都志 (鶴舞, 都鬱志與呂岐)	都志	都志 (鶴舞, 都鬱志與呂岐)	都志 (津志, 鶴舞, 都鬱志與呂岐 〈津字志與呂氣〉)	
11	阿夜岐理	綾切 (あやきり)	阿夜岐理		綾切 (愛嗜女, 大鞞鞞, 阿夜岐理)	綾切	綾切 (愛嗜女, 大鞞鞞, 阿夜岐理)	綾切 (阿也氣利, 阿夜岐理, 愛嗜女, 高麗女, 大鞞鞞, 綾箱舞)	阿也岐理 (童作德), 阿夜岐理
12	頑徐	顔徐 (かんぞといふ)			顔序 (顔徐)	顔序	顔序 (顔徐)	顔徐 (加牟志與, 顔序)	顔徐
13	王仁庭	皇仁庭	皇仁庭 (王仁庭, 皇仁)		皇仁 (皇仁庭)	皇仁	皇仁 (皇仁庭)	皇仁庭 (和字仁牟, 皇仁)	皇仁
14	崑崙八仙	崑崙八仙 (こんろんといふて)	崑崙八仙		八仙 (鶴舞, 崑崙八仙)	八仙 (鶴舞, 崑崙八仙)	八仙 (鶴舞, 崑崙八仙)	崑崙八仙 (古牟呂渡勢牟, 古呂渡勢牟, 鶴舞, 八仙)	崑崙八仙
15	酣醉樂	酣醉樂 (かすいらく)	酣醉樂		酣醉樂	酣醉樂	酣醉樂	酣醉樂 (加牟須以羅具)	酣醉樂
16	保曾路久勢利		長保樂 (長寶樂, 長浦樂, 保曾呂久世利, 加利夜須 〈加利野須〉)		長保樂 (長寶樂, 長浦樂, 泛野樂 保曾呂久世利, 加利夜須 〈加利野須〉)		長保樂 (長寶樂, 長浦樂, 泛野樂 保曾呂久世利, 加利夜須 〈加利野須〉)	長保樂 (千也宇保羅具, 長寶樂, 長浦樂, 泛野樂)	長保樂 保蘇呂 (長保樂叻), 古蘇呂 (長保樂急), 歌良古蘇呂
	賀利夜酒	長保樂 (ちやうぼうらく)							
17	延喜樂	延喜樂 (えんぎらく)	延喜樂		延喜樂	延喜樂	延喜樂	延喜樂 (江牟氣羅具, 花榮樂)	

18	新鞞鞞	新鞞鞞 (しんまか)	新鞞鞞		新末鞞	新末鞞	新末鞞	新鞞鞞 (志牟真加)	新鞞鞞
19	胡德樂	胡德樂(反鼻 胡德) (ことくらく)	偏鼻 胡德		胡德樂 (偏鼻胡德)	胡德樂 (遍鼻胡 德)	胡德樂 (偏鼻胡德)	胡德樂 (古止具羅具, 遍鼻胡德樂, 胡童樂)	遍鼻胡童 (德)樂
		傾勸杯 ²²⁾							
20	狛犬		犬 (狛犬)		狛犬	狛犬	狛犬	狛犬 (古真以奴, 古真以牟)	
21	石川樂	石川 (ぜいきとい ふ)	石川樂		石川	石川	石川	石川 (勢津勢牟)	石河
22	胡蝶樂	胡蝶 (こてふ)	胡蝶樂	胡蝶	胡蝶	胡蝶	胡蝶	胡蝶 (古傳字, 下加樂)	胡蝶
23	納蘇利	納蘇利 (らくそん といふべし)	納蘇利		納曾利 (落)	納蘇利	納蘇利 (落)	納蘇利 (奈津曾利, 落, 雙龍舞)	納蘇利
24	高麗龍	高麗禮龍 (こまろう といふ)			狛龍 (高禮龍)	狛龍	狛龍 (高禮龍)	狛龍 (古真禮字, 高禮龍)	高麗龍
25	新河浦	新河浦 (しんかふ)	新河浦		新河浦	新河浦	新河浦	新河浦 (志牟加不)	新河浦
26	進曾利古	進蘇利古 (しんそりこ)	進曾利古		進蘇利古 (祭舞)	進蘇利古	進蘇利古 (祭舞)	進蘇利古 (志牟曾利古, 祭舞)	進曾利古
27	桔槔		桔槔		吉簡	吉簡	吉簡	吉槔 (氣加牟, 桔簡)	吉簡
28	常雄樂	常武樂 (さうむらく)			常武樂 (常雄樂)	常武樂	常武樂 (常雄樂)	常武樂 (志也宇不羅 具, 常雄樂)	
29	作物		作物		造物		造物	造物 (津具利毛乃)	
30	仁和樂	仁和樂 (にんわらく)	仁和樂		仁和樂	仁和樂	仁和樂	仁和樂 (仁牟奈羅具)	

22) 傾勸杯는 한 사람이 춤을 추는 호덕악을 가리킨다.

31	葦波							
32	切							
33	啄木							
34	고려 평조 林歌	林歌 (りんか)	林歌	林歌	林歌	林歌	林歌 (利牟加. 臨河)	林歌
35	고려 쌍조 蘇志 摩利	蘇志摩 (そしま)	蘇志 摩利	蘇志摩 (廻庭樂, 蘇志摩利)	蘇志摩	蘇志摩 (廻庭樂, 蘇志摩利)	蘇志摩利 (曾志眞理, 蘇志茂利, 長久樂, 廻庭樂<一本 敷手異名也 云云), 蘇志摩利)	蘇志摩利
36	地久樂	地久	地久	地久	地久	地久	地久 (千氣宇, 圓地樂)	地久
37	登天樂	登天樂 (とうてん樂)	登天樂	登天樂 (登殿樂)	登天樂	登天樂 (登殿樂)	登殿樂 (止字傳牟羅 具, 登天樂)	登天樂
38	白濱	白濱 (ぼうひん)	白濱	白濱	白濱	白濱	白濱 (波宇非牟, 梨園樂)	白濱

河浦, 常武樂이었다고 언급하여 주목을 끈다.²³⁾ 이 밖에 권39 舞面에서는 당악과 고려악을 연주할 때에 사용한 가면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 전하고 있다. 여기에 退宿德, 進宿德, 新鳥蘇, 皇仁, 八仙, 胡德樂, 綾切, 貴德, 納曾利, 地久的의 가면을 소개하여서 각 악곡의 유래 및 성격을 이해할 때에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권38 舞樂裝束과 권40 甲圖는 당악과 고려악곡의服飾에 관계된 사항을 그림과 함께 소개한 내용에 해당한다.

악서 가운데 비교적 늦은 시기에 편찬된 것이 『歌舞品目』이다. 본서는 小

23) 『교훈초』에서는 이것들 이외에 吉簡, 狛犬, 造物(作物)도 無舞曲이었다고 하였다. 13세기 전반 이후부터 17세기 후반 사이에 길간은 舞와 曲 모두를, 조물과 박견은 舞를 복원하였음을 추정해볼 수 있다.

川守中(生年未詳~1823)이 文政 5년(1822)에 편찬한 것이다. 일종의 雅樂辭典으로서 10권으로 구성되었다. 古歌舞名, 樂名, 音律, 樂器, 奏樂, 舞에 대한 名目を 제시하고, 그 아래에 史書, 악서 등에서 요점을 인용하여 附記하였다.²⁴⁾ 고려악은 卷5下, 卷6, 卷9, 卷10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었으며, 그 내용은 기존 樂書의 것과 크게 차이가 없다. 본서 권10 말미에 小川이 지은 『歌舞雜識』을 발췌하여 제시하였다. 이 밖에 고려악을 연구할 때에 『明治撰定譜』, 『大日本史』 禮樂志, 『古事類苑』 樂舞部가 널리 활용되고 있다. 『明治撰定譜』는 太政官 雅樂局에서 明治 3년(1870)에 편찬한 악곡보로서 당악과 고려악 각 악곡에 대한 악기마다의 악보를 총망라하여 편집한 것이다. 『大日本史』 예악지(권 343~349)는 明治 39년(1906)에 완성되었으며, 일본의 고전음악에 관한 백과사전적인 성격의 자료집이다. 『古事類苑』 樂舞部는 2冊으로 구성되었는데, 1책은 明治 42년(1909) 6월, 다른 것은 그 다음 해 10월에 완성되었다. 현재 이것은 일본 음악의 핸드북으로서 평가되고 있다.²⁵⁾ 辭書類와 樂書에 전하는 당악과 고려악 악곡의 관계 기록을 모두 발췌하여 편집하였기 때문에 일본 고대 舞樂 연구의 가장 기초적인 자료라고 말할 수 있다.

Ⅲ. 高麗樂의 成立過程

고려악은 삼국시대부터 일본에 전래된 백제악, 신라악, 고구려악, 그리고 발해악을 기초로 하여 정비된 舞樂이다. 『일본서기』에서 삼국의 음악이 일본에 전래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백제가 일본의 음악 전래에 가장 적극

24) 安倍季尚 著 · 正宗敦夫 編, 1930, 『歌舞品目』(上·下), 日本古典全集刊行會.

25) 『대일본사』 예악지와 『고사유원』 악무부에 관해서는 平野健次 著 · 李知宣 譯, 1997, 『日本音樂史序說』, 『韓國音樂史學報』 19, 149~150쪽이 참조된다.

적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자세하게 살핀 바 있기 때문에²⁶⁾ 여기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

일본조정은 律箏을 정비함과 동시에 삼국의 음악을 治部省 管轄下의 雅樂寮에서 체계적으로 敎習, 傳授하도록 조치하였다. 『續日本紀』 卷2 文武天皇 大寶 원년(701) 7월조에 아악료에 관한 기사가 처음 보인다.²⁷⁾ 대보 원년은 大寶箏이 반포되기 1년 전에 해당한다. 종래에 이에 근거하여 7세기 후반 天武紀 淨御原令에 아악료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이해하였다.²⁸⁾ 현재 정어원령에 규정된 아악료 樂官의 구성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반면에 대보령에 규정된 그것이 전하고 있는데, 여기에 규정된 외국계 음악과 관련된 악관의 구성을 보면, 唐樂의 樂師는 12명, 樂生은 60명이고, 고려악과 백제악, 신라악의 경우 악사가 각기 4명씩이고, 악생은 각기 20명씩이다. 악사와 악생의 숫자는 시기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는데, 대체적인 경향은 후대로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를 보인다.²⁹⁾

아악료에 고려악, 백제악, 신라악에 관계된 樂師나 樂生이 존속되는 기간 동안에 삼국의 음악이 독립적으로 각기 교습되고 전수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율령제 하에서 삼국의 악곡을 각기 공연한 실례가 여럿 발견된다. 특징적인 면은 백제악과 백제풍속무를 백제계 유민들이 주로 공연하였다는 사실이다.³⁰⁾ 대보령에는 雅樂寮에서 삼국음악을 蕃國人(本國人)에게 敎習하도록 규

26) 이혜구, 1971, 「일본에 전하여진 백제악」, 『백제연구』 2 ; 장사훈, 1982, 「신라음악이 일본에 끼친 영향」, 『신라문화제학술발표회논문집』 3, 신라문화선양회 ; 장사훈, 1980, 「삼국시대의 음악과 인접국가 음악과의 관계」, 『한국고대문화와 인접문화와의 관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송방송, 1988, 「한국 고대음악의 일본 전파」, 『한국음악사학보』 1 ; 김상현, 2003, 「일본에 전해진 고구려악과 그 의복-正倉院의 狛樂用具와 西大寺資材帳을 중심으로」, 『고구려연구』 15 ; 荻美津夫, 1977, 『日本古代音樂史論』, 吉川弘文館, 48~61쪽.

27) 『續日本紀』 卷2, 文武天皇 大寶 元年 7월, “又畫工及主計 主稅算師 雅樂寮諸師如此之類 准官判任.”

28) 荻美津夫, 1977, 앞의 책, 206~209쪽.

29) 외국계 음악에 관계된 아악료 관원 구성과 그 변화에 대해서는 荻美津夫, 앞의 책, 212~213쪽, “第8表-(2) 雅樂寮官員の變遷-外來の樂舞の場合”가 참조된다.

30) 예를 들어 『續日本紀』에 天平 12년(740)에 百濟王慈敬 등이 백제 풍속악을, 천평

정한 것과³¹⁾ 관련이 있을 듯싶다. 이를 통하여 신라계와 고구려계 유민들도 각기 본국의 음악을 연주하는 것이 관행이었음을 유추해볼 수 있을 것이다.³²⁾

그런데 아악료에서 교습된 외국계 음악은 궁극적으로 左方 唐樂, 右方 高麗樂으로 완전히 2분화되는 左右 二部制로 정리되기에 이르렀다. 즉 나라별로 각기 樂師를 두어 그 음악을 敎習, 傳授하다가 궁극적으로 林邑樂과 일부 散樂을 唐樂에 통합시키고, 신라와 백제, 발해악을 高麗樂에 흡수 통합시켜 唐樂은 左方樂, 高麗樂은 右方樂으로 삼아 좌우 對稱의 新制를 정비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는 좌우 2부제가 성립된 시기에 관해서이다. 이에 대하여 일본 음악사학계에서 논란이 분분하였다. 처음 좌우 2부제의 성립을 平安朝 樂制改革과 결부시켰던 田邊尙雄은 그 시기를 仁明天王 때(833~849) 또는 嵯峨天皇代(809~822)에서 仁明天皇代 前後라고 주장하였다가³³⁾ 후에 仁明天

16년(744)에 백제왕자경 등이 백제악을, 延曆 6년(787)과 10년(791), 天長 10년(833)에 百濟王玄鏡, 百濟王玄風과 百濟王勝義 등이 백제악과 백제풍속무를 각기 연주하였다고 전한다.

31) 『續日本紀』 卷11, 聖武天皇 天平 3年 가을 7月, “乙亥 定雅樂寮雜樂生員, 大唐樂卅九人, 百濟樂廿六人, 高麗樂八人, 新羅樂四人, 度羅樂六十二人, 諸縣舞八人, 筑紫舞廿人. 其大唐樂生不言夏蕃, 取堪敎習者, 百濟高麗新羅等樂生, 並取當蕃堪學者. 但度羅樂, 諸縣, 筑紫舞生, 並取樂戶.”

32) 『續日本紀』 卷36, 光仁天皇 寶龜 11년 5월, “甲戌 …… 武藏國新羅郡人沙良眞熊等二人, 賜姓廣岡造. 攝津國豐島郡人韓人稻村等一十八人, 賜姓豐津造.”; 『日本文德天皇實錄』 卷2, 文德天皇 嘉祥 3년 11월 초하루 己卯, “(弘仁) 七年(816)二月 轉爲左衛門大尉兼行檢非違使事, 有傾遷爲右近衛將監, 書主雖長儒門, 身稍輕捷, 超躍高岸, 浮渡深水, 猶同武藝之士, 能彈和琴, 仍爲大歌所別當, 常供奉節會, 新羅人沙良眞熊, 善彈新羅琴, 書主相隨傳習, 遂得秘道.”

위의 두 기록을 통하여 武藏 新羅郡人 沙良眞熊이 816년 무렵에 新羅琴을 잘 타서 명성이 자자했고, 일본인 書主가 그것 타는 법을 배워서 전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신라계 유민들이 신라악을 연주하였음을 추측해볼 수 있을 것이다.

33) 田邊尙雄, 1932, 『日本音樂史』, 雄山閣, 125~177쪽. 여기서 田邊尙雄이 주장한 악제개혁의 요지는 외국계 음악을 당악과 고려악으로 통합·정리하고, 악기편성도 그에 맞추어 개편하며, 音階를 가까운 것끼리 모아서 새로 정리하고, 新曲을 제작하며, 폐절된 악곡을 復原하였을 뿐만 아니라 傳來曲 가운데 일부를 改作하는 것으로 정리될 수 있다. 특히 좌우 2부제의 성립과 관련하여 악제개혁을 추진하면서 음악을 당악에, 삼국과 발해악을 고려악에 편입시키고, 전자를 左方樂, 후자는 右

皇 承和 연간(834~848)에서 50~60년에 걸쳐 악제개혁을 단행하였을 것이라고 견해를 수정하였다.³⁴⁾

한동안 일본 음악사학계에서 田邊尙雄의 견해가 널리 수용되었다.³⁵⁾ 그러나 점차 田邊尙雄의 견해가 사료상으로 實證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그것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졌다. 일찍이 林屋辰三郎은 田邊尙雄의 주장을 뒷받침해줄 결정적인 논거가 없다고 비판하면서 左右 二部制, 즉 당악과 고려악 2부제의 성립시기를 衛府官人의 奏樂 관련 사료에서 上限을 弘仁 10년(819), 下限을 天長 10년(833)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를 제출하였다.³⁶⁾ 한편 林謙三은 嘉祥 원년(848) 九月二十二日付太政官符(『類聚三代格』 권4)에 雅樂寮의 당악생, 고려악생, 백제악생, 신라악생에 관한 내용이 전하는 것을 근거로 林屋說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한 다음, 좌우 2부제는 一舉에 성립되지 않고 성립까지 상당한 과정이 필요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貞觀 3년(861) 3월 14일에 東大寺에서 행해진 大佛開眼供養會에서 左方に 고려악과 林邑樂의 樂屋을 설치하고, 右方に 당악의 악옥을 설치한 사실에서 당시까지 좌방은 당악, 우방은 고려악이라는 분류가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살필 수 있고, 결과적으로 그 성립시기는 정관 3년 이후임이 분명하다는 것이다.³⁷⁾

井浦芳信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좌우 2부제는 단계적으로 정비되었으며, 최종적으로 그것은 村上天皇代(946~947)에서 一條天皇代(986~1011) 사이에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좌우 2부제의 문제를 단계적으로 접근하여 매우 세밀하게 분석하고, 좌방과 우방의 舞樂 2분법 성립의 문제를 고찰

方樂으로 서로 對峙시켜 교대로 각기 좌우 1곡씩 연주하는, 즉 番舞制를 시행하였으며, 그 악기도 당악에는 龍笛(橫笛)·필률·笙·비파·箏·大鼓·鉦鼓·羯鼓를 사용하고, 고려악에는 狍笛(高麗笛)·필률·大鼓·鉦鼓·三鼓를 사용하도록 조정하였다고 이해하였다.

34) 田邊尙雄, 1963, 『日本音樂史』, 東京電機大學出版局, 88쪽; 荻美津夫, 2007, 『古代中世音樂史の研究』, 吉川弘文館, 28쪽.

35) 吉川英史, 1965, 『日本音樂の歴史』, 創元史, 66~67쪽; 植木行宣, 1961, 「東洋的舞樂の傳來」, 『日本藝能史』(第1卷 原始·古代), 法政大學出版局, 257~265쪽.

36) 林屋辰三郎, 1960, 『中世藝能史の研究』, 岩波書店, 224~225쪽.

37) 林謙三, 1968, 「信西古樂圖と平安初期の樂制について」, 『雅樂界』 48.

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2분법이란 그 완성형태를 말하며, 당악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左舞, 고려악을 중심으로 하는 무악을 右舞라고 규정하여 각각 전문의 左方과 右方の 舞人·樂人を 세우고, 나아가 兩舞의 각 一曲을 짝지워서 춤을 추게 하는 독특한 형식을 말한다고 한다. 8세기까지는 그것이 미분화되었고, 9세기 초에서 醍醐·朱雀天皇代까지 당악과 고려악의 2대 계통으로 분류되기 시작하였으며, 村上天皇代에서 완전 분화가 이루어져서 그때부터 一條天皇代 사이에 좌우 2부제가 완성되었다는 것이다.³⁸⁾ 근래에 고대 일본음악사를 정력적으로 연구한 荻美津夫가 井浦芳信의 견해에 공감을 표시하면서³⁹⁾ 좌우 2부제의 단계적 성립설이 점차 일본 음악사학계의 지배적인 견해로 자리잡는 듯하다.

필자 역시 대체로 이와 같은 일본 음악사학계의 연구경향에 공감하는 입장이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구체적인 논거를 제시하면서 左右二部制의 성립과정을 검토한 논고가 없다는 점인데, 특히 백제와 신라악 및 발해악이 고려악에 흡수 통합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하였다. 이 문제는 본고의 논지와 관련하여 관건적인 사항에 해당하므로 이제부터 그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일단 이와 관련하여 먼저 언제까지 신라와 백제악을 독립적으로 연주하였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백제악이나 백제풍속무를 공연했다는 기록은 『續日本後紀』 卷1 淳和天皇 天長 10년(833) 4月 戊午朔條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續日本紀』 卷12 聖武天皇 天平 7년(735) 5월조의 기록에서⁴⁰⁾ 신라악을 공연했다고 전한 이후에 그에 관한 기록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반면에 고려악의 경우 天長 10년(833) 이후에도 계속 공연하였다는 기록이 전하고 있어 대비된다. 그 이후 어느 시기에 독립적으로 삼국 음악을 공연하던 전통이 사라지고, 백제악과 신라악이 고려악에 통합

38) 井浦芳信, 1962, 「舞樂二分法の形成」, 『東京大學校教養學部人文科學紀要 國文學·漢文學』 26.

39) 荻美津夫, 2007, 앞의 책, 31~34쪽.

40) 『續日本紀』 卷12, 聖武天皇 天平 7년 5월, “庚申 天皇御北松林覽騎射. 入唐廻使及唐人奏唐國新羅樂弄槍, 五位已上賜祿有差.”

되었음을 이를 통하여 유추해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언제 백제와 신라 두 나라의 음악이 고려악에 통합되었는가를 살필 차례인데, 이를 위하여 먼저 아악료에 소속된 백제악·신라악의 樂師나 樂生에 관한 기록이 언제까지 보이는가를 규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嘉祥元年(848) 9월 22일의 ‘太政官符’에 大寶令에서 규정한 인원을 크게 삭감하여 왜악생은 35인, 당악생은 36인, 고려악생은 18인, 백제악생은 7인, 신라악생은 4인으로 조정한 내용이 전한다.⁴¹⁾ 비록 악생의 수는 크게 줄어들었지만, 이것은 848년까지 아악료에 고려악과 백제악, 신라악에 관계된 樂官(樂生)이 존속하였음을 알려주는 증거이다. 이후 시기에 아악료 樂官을 대폭 조정하였다는 자료는 전하지 않는다. 다만 『類聚三代格』卷4 加減諸司官員并廢置事條에 齊衡 2년(855) 8월 21일에 五節舞師를 폐지하고, 高麗鼓師를 둔다는 내용의 太政官符와 같은 해 12월 21일에 新羅舞師를 폐지하고 五節舞師를 둔다는 내용의 太政官符가 전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 가운데 후자는 제형 2년(855)까지 신라악에 관계되는 악생이 아악료에 존속하였음을 알려주고 있어 유의된다.

더구나 『西宮記』臨時8 臨時樂, 「醍 天皇御記」延喜 21년(921) 10월 18일 조의 기록에 ‘新羅琴師 船良實’이란 인물이 보이는데,⁴²⁾ 그는 雅樂寮 新羅樂의 琴師였을 것이다. 이것은 延喜 21년(921)에도 아악료에 신라악 관계 악관이 존재했음을 알려주는 증거이다. 결과적으로 신라악과 백제악이 고려악에 완전 편입된 것은 921년 이후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물론 이렇다고 하더라도 8세기 후반 이후부터 삼국음악 가운데 고려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졌음은 嘉祥 원년(848) 삼국악의 樂生 수 비교를 통하여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 당시

41) 嘉祥 元年(848) 9월 22일의 ‘太政官符’는 『類聚三代格』卷4 加減諸司官員并廢置事に 전한다.

42) 『西宮記』臨時8 臨時樂, 「醍 天皇御記」延喜 21년 10월 18일, “雅樂屬船木氏有著鷹飼裝束 臂鶴獨舞放鷹樂 新羅琴師船良實 著犬飼裝束不隨犬.” 동일한 내용으로 추정되는 사료는 『古事類苑』樂舞部 第2冊 樂舞25 琴 新羅琴, 636쪽에도 보인다. 다만 여기서 방음악 등을 공연한 연대를 延喜 28년이라고 하였으나 荻美津夫, 2007, 앞의 책, 39~40쪽 주 40번에서 연희 21년이 맞다고 고증하였다.

고려악의 악생은 18명이었음에 반하여 백제악과 신라악의 악생은 합쳐서 겨우 11명에 불과하였던 것이다. 9세기 후반 이후에 신라악과 백제악 공연 기록이 보이지 않는 대신에 당악과 함께 고려악을 자주 연주한 실례들을 통하여 이러한 추정을 보완할 수 있다.

貞觀 3년(861) 3월 14일 東大寺에서 개최된 大佛開眼供養會에서 東方, 즉 左方に 고려악과 임읍악의 樂屋을 설치하고, 西方, 즉 右方に 당악에 해당하는 新樂과 胡樂의 樂屋을 설치하여, 각각의 음악을 연주하였다고 전한다.⁴³⁾ 左方 唐樂, 右方 高麗樂이라는 일반적인 관행과 약간 차이가 있지만, 정관 3년 무렵에 당악과 고려악이 짝을 이루어 교대로 연주하던 관행이 있었음을 이를 통하여 충분히 상정해볼 수 있다. 실제로 貞觀 연간(859~876)의 법회에서 左 唐樂, 右 高麗樂을 각기 1곡씩 연주하였음을 알려주는 자료가 전하고 있다.⁴⁴⁾ 또한 『日本三代實錄』 卷5 清和天皇 貞觀 5년(863) 5월 20일 壬午條에도 대당과 고려악을 연이어서 연주하게 하였다고 전하고, 이후 시기의 자료에서 “당악과 고려악을 함께 연주하거나 번갈아 연주하였다(遞奏)”라는 기록을 여럿 산견할 수 있다.⁴⁵⁾

이처럼 10세기 전반에 여러 행사나 법회에서 당악과 고려악을 교대로 연주

43) 『東大寺要錄』, 「御願供養日記」, “十四日戊子 天晴 此日東大寺大佛開眼會也。……去佛臺東西四許丈 各立五丈幄三字也。東西各二字者(子午爲妻) 各一字(卯酉爲妻) 東方一幄設高麗樂座 第二幄設林邑樂座 第三幄設諸大夫座。西方第一幄設新樂座 第二幄設胡樂座 第三幄設親王并大夫等座。”; 荻美津夫, 1977, 앞의 책, 276~278쪽.

44) 『(貞觀)儀式』 卷5, 正月八日講最勝王經儀, “誦師三拜 左右相分 就于高座 于時雅樂寮就座 各奏樂一曲(左唐樂 右高麗 諒闇之時 撤樂).” 이 기록은 정관 연간에 儀式으로서 正月 8일마다 개최된 講最勝王經儀에서 당악과 고려악을 연주하였음을 알려주는 자료이다. 여기서 諒闇은 임금이 先帝의 居喪 중에 있다는 의미이므로 그때에는 음악을 연주하지 않았음을 알릴 수 있다.

45) 『日本三代實錄』 卷25, 清和天皇 貞觀 16년(874) 3월, “廿三日壬午 是日, 詔於貞觀寺, 設大齋會, 以賀道場新成也。以律師道昌爲導師, 大僧都慧達爲 願, 延諸宗宿德僧百人以備威儀, 雅樂寮唐高麗樂, 大安寺林邑, 興福寺天人等樂更奏.” 이 밖에 『新儀式』 제4 召雅樂寮物師等令奏音樂舞等事條에 921년(延喜 21)에 당악과 고려악을 교대로 연주하였다(遞奏)는 내용이 보이고, 『河海抄』 若菜상에 인용된 『醍 天皇御記』에도 延長 2년(924) 정월 25일 甲子에 당악과 고려악 각각 2곡을 교대로 연주하였다는 내용이 보인다.

한 사실과 신라악·백제악의 고려악으로의 흡수 통합은 결코 무관하지 않았을 것이다. 일본에서 자체적으로 고려악곡을 제작한 사실과 아울러 당악의 악곡에 대하여 고려악을 番舞로서 자주 연주하던 관행을 통해서도 9세기 후반~10세기 전반에 고려악을 중심으로 삼국의 음악을 재편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仁和 연간(885~889)에 百濟貞雄이 光孝天皇의 勅令으로 고려악인 仁和樂을 만들었다.⁴⁶⁾ 또 延喜 8년(908)에 胡蝶樂과 延喜樂을 제작하였다.⁴⁷⁾ 일본 자체에서 고려악곡을 창작하는 관행은 삼국의 舞樂을 고려악을 중심으로 하여 악기의 구성이나 音調 및 音階를 일정한 형식에 맞추어 재편하였음을 전제하는 것이다. 한편 『教訓抄』 卷5 高麗曲壹越調 歸德侯條에 延喜 2년(902) 正月 25일에 唐樂 太平樂의 番舞로 고려악인 貴德을 공연하였다고 전하고, 『扶桑略記』 권23 醍 天皇條에 延喜 4년(904) 3월 26일에 당악(임음악) 陵王(羅陵王)의 번무로 고려악 納蘇利를 공연하였다고 전한다. 『무악요록』에는 相搏節 때에 연주한 당악과 고려악에 관한 정보가 많이 전한다.⁴⁸⁾ 延長 6년(928)에 당

- 46) 『樂歌錄』 卷31, 本邦樂說, “光武天皇御宇 眞(一本眞作貞)雄奉勅 仁和年中作 此曲以年號爲曲名.”
- 47) 『體源抄』 卷12上, 延喜樂, “延喜八年 亭子院前裁合 左近中將藤原忠房朝臣作 式部卿親王作舞.”; 『倭名類聚抄』 卷4 音樂部 曲調 胡蝶樂, “延喜八年 亭子院(宇多)童相撲之時 山城守藤原忠房朝臣所作也.”
- 48) 『무악요록』에서 10세기 전반에 相搏節 때에 연주한 당악과 고려악을 발췌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年代	區分	左樂(唐樂)-右樂(高麗樂)
延長 6년 (928)	召合	蘇合-古鳥蘇, 散手-貴德
	拔出	皇帝-新鳥蘇, 萬歲樂-綾切, 秦王-拍棹, 三臺-皇仁, 太平樂-渤海樂, 陵王-納蘇利, 見蛇樂-拍犬
承平 3년 (933)	召合	抹兜-納蘇利
	拔出	蘇合-古鳥蘇, 萬歲樂-皇仁, 不祥樂-新靺鞨, 見蛇樂-崑崙, 拍犬
承平 4년 (934)	召合	抹兜
	拔出	蘇合-古鳥蘇, 萬歲樂-阿那(即樂)支利, 散手-貴德, 陵王-納蘇利, 禪脫-桔槔
承平 5년 (935)	召合	拔頭-納蘇利
	拔出	皇帝-古鳥蘇, 秦王-弄槍, 太平樂-酣醉樂, 見蛇樂-貴德
承平 6년 (936)	召合	抹兜
	拔出	蘇合-古鳥蘇, 萬歲樂-綾切, 萬歲樂-敷手, 散手-貴德, 太平樂-新靺鞨, 陵王-納蘇利, 猿樂-桔槔

악, 즉 좌악의 번무로 고려악, 즉 우악을 공연한 내역이 전하는데, 이를 통하여 928년 무렵에 여러 행사나 법회에서 좌악의 번무로 우악을 공연하는 관행이 정착되었음을 엿볼 수 있다. 이를 근거로 920년대 후반에 백제악과 신라악이 고려악에 흡수 통합되어 그것이 당악과 뚜렷하게 대치되는 성격의 舞樂으로 定立되었다고 말하여도 크게 잘못은 아닐 듯싶다.⁴⁹⁾

한편 발해악도 궁극적으로 고려악에 흡수 통합되었다. 여기서 문제는 언제 그렇게 되었는가에 관해서이다. 현재 발해악을 아악로에서 敎習하였다라는 증거는 찾을 수 없지만, 그러나 수차례에 걸쳐 발해악을 공연하였음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續日本紀』 卷13 聖武天皇 天平 12년(740) 봄 正月 戊子朔 甲午條에 발해 사신이 본국악을 연주하였다는 내용이, 『續日本紀』 卷17 天平勝寶 元年(749) 12월 丁亥條에 大唐과 吳樂, 발해악을 연주한 사실이 전한다. 또 『續日本紀』 卷34 光仁天皇 寶龜 8년(777) 5월 丁巳條에도 발해 사신이 본국의 음악을 연주하였다는 내용이 보인다. 고려악 가운데 新靺鞨은 발해 사신이 일본에 와서 拜禮하며 춤을 추었던 것에서 유래하였다.⁵⁰⁾ 이와 관련된 기록 가운데 가장 늦은 것이 元慶 7년(883)의 기록이다.⁵¹⁾ 따라서 고려악에 신말갈이 포

天慶 6년 (943)	召合	拔出 蘇合-古鳥蘇, 萬歲樂-綾切, 散手-貴德, 太平樂-酣醉樂, 陵王-狍犬, 雜藝-乞寒
天慶 7년 (944)	召合	拔頭-古鳥蘇, 蘇合
	拔出	皇帝-新鳥蘇, 萬歲樂-敷手, 散手-貴德, 皇 -弄槍, 還城樂-納蘇利, 猿樂-乞寒

49) 본고에서는 일본에서 백제악과 신라악을 고려악에 흡수, 통합시켜 삼국의 음악을 재편하였다고 이해하였다. 그런데 종래에 삼국과 발해악을 포괄한 한국계 음악을 고려악이라고 通稱한 이유와 관련하여 일찍이 大槻如電이 高麗笛師 下春이라는 자가 고려악을 전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通稱하였다고 주장한 바 있고(大槻如電, 1927, 『新訂舞樂圖說』, 六合館, 79쪽), 田邊常雄은 平安朝에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하여 한국을 대표하는 王朝였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을 것이라고 추정하였다(田邊常雄, 1932, 앞의 책, 135쪽). 한편 吉川英史와 荻美津夫는 당나라 十部伎가 일본에 전래되면서 一方의 음악을 당악으로, 他方, 즉 한국음악을 대표하는 것을 고려악이라고 불렀다고 보았다(荻美津夫, 1977, 앞의 책, 282쪽). 즉, 한국음악 가운데 고려악으로 대표된 것은 당의 십부기 가운데 하나로서 東夷의 음악을 대표하는 고려악에서 유래되었다고 이해한 것이다.

50)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더 자세하게 논증할 예정이다.

51) 『日本三代實錄』 卷43, 陽成天皇 元慶 7년(883) 5月, “三日戊辰 天皇御樂殿 賜宴

합된 것은 적어도 883년 이후인 셈이 된다.

그런데 『舞樂要錄』에 延長 6년(928) 7월 8일의 相搏節 拔出時에 太平樂의 番舞로서 渤海樂을 연주하였다는 내용이 전하여 흥미롭다.⁵²⁾ 承平 3년(933) 7월 25일 相搏節 拔出時에 不祥樂의 番舞로서 신말갈을 연주하였다는 사실이 『무악요록』에 전한 이래, 이후에도 신말갈을 연주하였음이 발견되는 것에 반하여⁵³⁾ 발해악을 연주하였음을 알려주는 자료는 더 이상 찾을 수 없다. 延長 6년(928) 相搏節 때에 연주한 발해악을 신말갈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承平 3년(933) 이전에 신말갈이 고려악에 편입되었음은 분명한 듯하다. 여기서 延長 6년 상박절 때에 태평악의 번무로 연주된 무악을 ‘渤海樂’이라고 표현하였음이 눈길을 끄는데, 이후의 자료에서 발해악을 연주했다는 기록이 더 이상 보이지 않으므로 이를 통하여 延長 6년(928)까지 고려악과 별도로 발해악을 연주하다가 거기에서 멀지 않은 시기에 발해악마저 고려악에 흡수 통합되었다는 추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발해악이 궁극적으로 고려악에 흡수 통합됨에 따라 비로소 외국계의 舞樂이 左方 唐樂, 右方 高麗樂으로 완전히 2분화되기에 이르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 음악사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당악과 고려악을 기초로 하는 좌우 2부제의 성립을 雅樂寮 機構의 축소, 衛部官人の 奏樂에의 진출과 수반하여 단계적으로 성립되었다고 이해한다. 특히 天曆 2년(948) 大內裏 桂芳坊에 樂所를 常設한 후에 樂人이 거기에 補任되어 左右로 고정되고, 좌악과 우악의 一者가 두어지면서⁵⁴⁾ 비로소 좌우 2부제가 완전히 성립되기에 이르렀다고 강조하

渤海客徒 …… 授大使文籍院少監正四品賜紫金魚袋斐 從三位 副使正五品賜緋銀魚袋高周封正四位下 判官錄事授五位 其次叙六位 已下各有等級 隨其位階賜朝衣 客徒拜舞退出 更衣而入 拜舞昇堂就食 雅樂寮陳鼓鍾 內教坊奏女樂 妓女百卅八人遞出 舞 酒及數杯 別賜御餘枇杷子一銀錠 大使已下起座拜受 日暮 賜客徒祿各有差.”

52) 『新校 群書類從』 卷345, 『舞樂要錄』 上, 相搏節, 403쪽.

53) 예를 들면 承平 6년(936) 相搏節 때에 태평악의 番舞로 新靺鞨을 연주하였다고 한다.

54) 一者는 樂所의 舞 또는 樂器의 首席演奏者를 가리킨다. 특히 舞 一者는 左樂은 伯氏, 右樂은 多氏로부터 배출되어 대규모 舞樂會의 경우 좌우 奉行(총감독)을 담당하였다(東儀信太郎 등, 1998, 앞의 책, 31쪽).

고 있다.⁵⁵⁾ 이와 같은 일본 음악사학계의 연구동향을 염두에 둔다면, 일단 920년대 후반에서 930년대 전반에 걸쳐 雅樂寮에서 외국계의 음악을 左方 唐樂과 右方 高麗樂으로 재편하는 작업이 완료되었지만, 그러나 좌방악과 우방악을 전문적으로 연주하는 樂人들이 衛部官人에 補任되어 大內裏에 常設된 樂所에서 각각의 舞樂을 敎習·傳授하고, 여러 행사나 법회에서 번갈아 좌악과 우악을 연주하며 對稱되는 성격을 지닌 그러한 의미에서의 左右 二部制는 그 뒤 예나 비로소 성립되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물론 이러한 성격을 지닌 좌우 2부제의 성립과정은 외국계 아악의 日本化(和風化) 과정과 궤를 같이 하여 진행되었다는 측면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사료된다.

IV. 高麗樂의 種類와 系統

1. 高句麗 系統의 高麗樂

辭書類나 樂書에 전하는 高麗樂의 악곡은 모두 38개이다. 이것을 音調에 따라 구분하면, 高麗壹越調는 新鳥蘇를 비롯한 33곡, 高麗平調는 林歌 1곡, 高麗雙調는 蘇志摩利와 地久樂, 登天樂, 白濱 등 4곡이 된다. 38곡 가운데 삼국과 발해에서 전래된 것이 新鳥蘇를 비롯한 32곡이고, 일본인이 제작한 것이 仁和樂과 延喜樂, 常雄樂, 胡蝶樂 등 4곡이며, 醕醉樂과 胡德樂은 본래 橫笛(唐樂)이었으나 高麗笛으로 연주하도록 고친 渡物의 高麗樂에 해당한다. 삼국 및 발해에서 전래된 32곡은 그 계통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구분된다.

55) 井浦芳信이 이러한 논지를 전개한 이래 荻美津夫가 이를 지지하면서 지금은 통설적인 견해로 자리잡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먼저 악곡의 명칭에 고구려를 가리키는 ‘狛’자가 포함된 狛鉦, 狛犬은 고구려에서 전래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일명 狛龍이라고 불린 高麗龍도 역시 그러하였을 것이다. 먼저 박모는 狛棒, 棹持舞, 花鈞樂, 執鉦舞라고 부르기도 한다. 『教訓抄』(1928, 日本古典全集刊行會) 卷第5 高麗曲 狛棒條에 따르면, 박모는 고구려에서 일본으로 배를 타고 건너올 때에 五色으로 칠한 샷대로 배를 저었는데, 후에 점차 4명이 샷대를 어깨에 메고 춤을 추기 시작한 것에서 유래하였다고 한다. 또한 龍頭 首(천황이 타는 배)를 운행할 때에 童部가 蠻繪裝束에 샷대를 조작하며 춤을 추었으므로 棹持舞라고도 불렀다고 전한다. 고구려에서 험난한 항해를 안전하게 마치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연회를 베풀었을 것인데, 박모는 본래 그때에 공연한 가무의 일종이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그것이 일본에 전래된 후에 다시 棹持舞로 개작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탈춤의 일종인 狛犬의 유래는 정확하게 전해지지 않는다. 다만 『續教訓抄』에 탈의 모습은 당악의 하나인 蘇芳菲와 비슷하였다고 전하고 있다.⁵⁶⁾ 그런데 소방비의 몸은 사자, 머리는 개의 머리와 유사하였다고 전하므로⁵⁷⁾ 박견 역시 그러한 모습이었을 것이다. 12세기 전반에 생존한 일본인 藤原通憲(1106~1159)의 그림책으로 알려진 『信西古樂圖』에 전하는 新羅狛의 그림은 그 모습을 추적하는 데에 크게 도움을 준다. 여기서 ‘狛’은 이리와 비슷하며 머리에 뿔이 난 동물을 가리킨다. 신라박은 신라에서 전래된 동물 탈춤의 일종이었던 것이다.

『신서고악도』는 平安時代 樂器와 唐樂, 散樂의 모습을 묘사한 그림책이다. 여기에서 맨 앞부분에 樂器를 연주하는 모습을 그리고, 이어서 다양한 당악의 악곡, 나릉왕과 임읍악, 그리고 산악의 공연 모습을 연이어서 묘사하였다. 신라박은 唐樂인 蘇芳菲와 師子 사이에 그렸다. 이에서 新羅狛이 平安時代에 일본에서 공연된 소방비와 유사한 내용의 舞樂이었음을 추론해볼 수 있다. 그러

56) 『樂歌錄』 卷37, 舞 蘇芳菲之舞形, “續教訓抄曰 蘇芳菲之舞 似狛犬之貌 競馬行幸奏之云云.”

57) 『教訓抄』 권4, 蘇芳菲, “此曲五月節會 舞御輿之御前 是從弘仁初 競馬行幸奏之 對右狛龍(小馬形乘) 蘇芳菲之身 師子之姿 頭如犬頭也.”

나 唐樂이나 高麗樂 目錄에 신라박은 보이지 않는다. 『신서고악도』에 전하는 소방비의 모습은 어떤 사람이 몸은 사자, 머리는 개의 그것에 가까운 탈을 쓰고 있는 것이다. 바로 그 옆에 약간 작게 그려진 이마에 뿔이 달린 狛(또는 犬) 한 마리가 앉아 있고, 그 옆에 사자의 탈을 쓴 사람을 묘사한 그림이 보이는데, 그것을 신라박이라고 명기한 것이다. 특이한 점은 탈의 양 손과 양 발 끝에도 짐승의 머리를 표현한 것이다. 그 모습은 마치 소방비의 머리 모습과 흡사하다. 신라박 다음에 사자 무를 추는 장면을 묘사하였다.



〈그림 1〉 『신서고악도』에 전하는 소방비

신라박의 성격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자료가 하나 전한다. 바로 그것은 앞에서 언급한 延喜 21년(921) 雅樂寮 樂官인 船木氏が 鷹飼의 裝束을 하고 放鷹樂을 공연한 것에 대하여 新羅琴師 船良實이 犬飼裝束을 하고 춤을 추었음을 알려주는 자료이다. 선양실이 공연한 악곡명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船木氏が 鷹飼의 裝束을 하고 放鷹樂을 공연하였으므로 犬飼의 裝束을 한 船良實은 그와 관련된 악곡, 즉 狛犬(犬) 또는 新羅狛을 공연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船良實이 新羅琴師였으므로 그가 공연한 舞樂은 신라박일 가능성이 높다. 狛은 개와 크게 차이가 없었다고 보이는데, 구체적인 모습과 관련하여 『신서고악도』에 신라박의 탈을 쓴 사람 앞에 이마에 뿔이 있는 동물 그림이 전하는 점이 주목된다. 이처럼 평안시대에 신라박이 무악의 일종으로 연주된 것에서 박견은 일찍이 고구려에서 유래하여 일본에 전래되었고,⁵⁸⁾ 후에 통일신라에서 그것과 비슷한 성격의 신라박을 전래하였다고 추정

58) 801년(延曆 20)에 작성된 『多島神宮寺資材帳』의 樂具項에 ‘高麗犬壹頭란 표현이 보인다. 종래에 이것을 舞樂 박견에 사용된 박견의 머리로 추정하였다. 또한 나라 시대인 780년(寶龜 11)에 작성된 『西大寺資材帳』에 高麗樂器 一具로 大師子 一頭(頂在白木角形)가 전하는데(김상현, 2003, 앞의 글, 224쪽), 머리에 뿔이 있는 것으



〈그림 2〉 『신서고악도』에 전하는 신라박

실과 『신서고악도』에서 신라박을 소방비와 사자의 사이에 배치한 사실과의 상호 비교를 통해서도 쉬이 수긍할 수 있을 것이다.

고려용은 狛龍, 高麗禮龍이라고도 부르며, 구체적인 유래나 그 모습은 전해지지 않는다. 다만 舞人이 小馬形을 타고 공연하였으며, 주로 五月節 때 천황의 어가가 출입할 적에 소방비의 番舞로 그 앞에서 공연하였다고 알려졌다.⁵⁹⁾ 이 밖에 고구려에서 유래되었다고 추정되는 악곡이 바로 阿夜岐理와 退·進宿德, 長保樂, 桔槔 등이다. 먼저 이야기리는 綾切, 愛嗜女, 高麗女, 大靺鞨, 綾箱舞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여자가 춤을 추는 것이 특징적이다. 종래에 이야기리를 一名 大靺鞨이라고도 부른 사실을 주목하여 발해에서 전래된 악곡으로 추정하였다.⁶⁰⁾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재고가 필요할 듯싶다. 이야기리를 一名 高麗女라고 불렀다는 점, 『教訓少』 卷第5 高麗曲物語 壹越調曲 綾

로 보아 박견의 머리일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고 있다(小野正敏等 編, 2007, 『歷史考古學大辭典』, 吉川弘文館, 492쪽). 이와 같은 자료들을 참조할 때, 나라시대에 박견이 널리 공연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이를 통하여 그 이전에 박견이 전래되었음을 유추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59) 『教訓少』 권5, 高麗樂曲物語 狛龍, “伴舞五月節 輿出入之間 於御前奏之 乘小馬形二人舞之(冠蠻繪著 右舞人中靺鞨舞之).”

60) 大槻如電, 1927, 앞의 책, 90~91쪽에서 이야기리가 발해에서 유래되었다고 추정한 이래, 대다수의 학자들이 이를 수용하였다.

切條에서 우리말의 아기에 해당하는 愛嗜女가 高麗女子의 이름이라고 한 점 등을 이와 관련하여 유의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일본에서 발해를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라는 의미에서 高麗라고 부르기도 하였기 때문에 애기를 발해(고려)여자로 볼 수 있는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애기는 우리말의 아기와 통하고, 그 여자의 국적이 발해나 말갈이 아니라 고려라고 분명히 밝힌 점을 염두에 둔다면, 이야기리는 발해보다는 고구려에서 전래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한다.

앞에서 언급한 筒井英俊의 『東大寺要錄』을 통하여 이야기리가 고구려에서 전래되었음을 보완할 수 있다. 여기에 752년 東大寺 大佛開眼會에서 연주한 음악에 관한 내용이 전하는데, 이에 따르면 唐古樂과 唐散樂, 林邑樂과 高麗樂, 唐女儻, 高麗女樂을 연주하였다고 한다. 여기서 고려악과 더불어 고려여악을 함께 연주하였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바로 고려 여자가 춤을 추는 이야기리를 가리킨다고 추정되기 때문이다.

退·進宿德을 退·進走德, 宿禿, 走禿으로 표기하기도 한다. 종래에 宿德 등은 최치원의 『鄉樂雜編』에 보이는 束毒의 轉寫로 이해하였다.⁶¹⁾ 여기서 束毒은 지금의 타슈켄트와 사마르칸트에 위치한 粟特(Soghd)지역을 가리키므로 신라의 속독이나 일본 禿·진숙덕은 중앙아시아 粟特지역에서 유래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樂歌錄』 卷39 舞面에 禿·진숙덕을 연주할 때에 사용한 假面을 묘사한 그림이 전하는데, 그 모습이 코가 비교적 큰 서역인의 그것에 가까웠다는 사실을 통하여 이러한 추정을 보완할 수 있다.

高句麗歌曲에 芝栖가 있었고, 舞曲에 歌芝栖가 있었다. 동일한 명칭이 서역의 부하라지방에 위치한 安國의 음악에도 보인다.⁶²⁾ 또한 당나라 십부기의 하나인 高麗伎에 胡旋舞가 있었다고 전하는데,⁶³⁾ 이것은 속특지역에 위치한

61) 印南高一, 1944, 『朝鮮の演劇』에서 走禿, 走德, 宿德, 宿禿을 ‘束毒의 轉寫라고 이해한 이래,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에 동의하였다.

62) 『隋書』 권15, 志10, 音樂下, “高麗歌曲有芝栖 舞曲有歌芝栖.”; 『文獻通考』 권148, 樂考21, 西戎, “安國 其樂器…… 歌曲有附莖單時歌芝栖 舞曲有末奚舞芝栖 解曲有居.”

63) 『新唐書』 卷21, 志第11, 禮樂, “高麗伎 有彈箏…… 胡旋舞 舞者立球上旋轉如風.”



〈그림 3〉 『악가록』에 전하는
퇴숙덕 가면



〈그림 4〉 『악가록』에 전하는
진숙덕 가면

康國에서 유래된 춤이다.⁶⁴⁾ 이처럼 고구려에서 서역의 안국 및 강국에서 유래된 歌曲과 舞曲, 胡旋舞를 적극 수용하였으므로 속특지역의 악곡도 거의 동시기에 고구려에 전래되었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이것이 일본에 전해져서 진·퇴숙덕, 신라에 전해져서 東毒으로 명명되었을 것이다.

長保樂은 長保年間(999~1003)에 保曾呂久世利와 加利夜須 2곡을 합성하여 만든 악곡에 해당한다. 一名 泛野樂으로 부르기도 한다.⁶⁵⁾ 두 곡의 원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일본에서 曾呂久를 서역의 疏勒國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여 장보악을 그 나라의 음악과 연관시켜 해석하고 있다.⁶⁶⁾ 소록국은 현재 중국 新疆省 서쪽의 카슈가르에 위치한 국가였다. 고구려에서 서역의 가무를 적극 수용하였음을 감안하건대, 保曾呂久世利와 加利夜須曲 역시 그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64) 趙世騫, 1997, 『絲路之路樂舞大觀』, 新疆美術攝影出版社, 5쪽.

65) 『樂歌錄』卷28, 樂曲訓法 長保樂, “長保樂<千也宇保羅具> 一本作浦 一名長寶樂 又號泛野舞 舊記曰 當曲破與急本別曲也 破謂保曾呂久世利 急謂加利夜須也 然長保年中 以二曲爲之一曲 以年號爲曲名云云.”

66) 『大日本史』, 禮樂十五, “按曾路久與疎勒國 讀相通 本曲疑疎勒樂也.”; 大槻如電, 1927, 앞의 책, 84쪽.

마지막으로 고구려에서 전래되었다고 추정되는 고려악곡이 바로 桔槔이다. 이를 桔槔, 桔簡, 吉干, 吉簡이라고 표기하기도 한다. 『舞樂要錄』에 9세기 전반 相搏節에서 桔槔를 연주하였음을 전하고 있다. 承平 4년(934)에 길고는 禪脫의 番舞로, 동 6년(936)에는 猿樂의 番舞로 연주되었다. 그런데 承平 6년(936) 雜藝의 번무로 연주된 것이 乞寒이었고, 동 7년에는 猿樂의 번무로 乞寒을 연주하였다고 전한다. 여기서 猿樂은 散樂과 동일한 용어이다. 본래 散樂은 散雜한 音樂이라는 뜻으로 拏拏, 模擬才, 幻術, 기예 등을 음악 반주로서 연출하는 輕戲雜劇을 말한다. 일본에서는 이를 猿樂이라고도 불렀던 것이다.⁶⁷⁾ 한편 雜藝는 잡다한 예능이라고 풀이되므로 원악과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桔槔나 乞寒은 모두 散樂의 番舞로 연주하는 것이므로 그 성격이 산악에 가까웠다고 볼 수 있다.

乞寒이란 고려악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길고와 함께 원악(잡예)의 번무로 연주된 것으로 보아서 걸한과 길고는 밀접한 관계였으리라는 짐작이 가능할 뿐이다. 이러한 사실에 주목하여 일찍이 小川守中은 그의 저서 『歌舞雜識』에서 吉簡은 곧 乞寒戲를 가리킨다고 주장하였다.⁶⁸⁾ 즉 吉簡은 乞寒의 轉寫로 본 것이다. 여기서 乞寒 또는 乞寒戲는 龜茲와 康國 등 서역 각지에서 매년 7월 또는 11월에 거행된 대규모 군중이 참가하는 가무희인 蘇莫遮를 이르는 말이다. 서역지방은 기온이 높고,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지역이다. 그 지역에서는 천산산맥이나 곤륜산맥에 쌓인 만년설이 녹아 내린 물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끌어들여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할 수밖에 없다.⁶⁹⁾ 농사와 목축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는 매년 눈이 많이 내려 물을 풍부하게 공급해야 하는데, 이 때문에 눈이 많이 내리도록 하기 위하여 추위를 구하는, 즉 天氣가 寒冷해지기를 기원하는 대규모 군중 가무희를 매년 7월이나 11월에 개최하였던 것이다.⁷⁰⁾ 소막

67) 河竹繁俊 著 · 이응수 역, 2001, 『일본연극사』 상, 도서출판 청우, 157~159쪽.

68) 『歌舞品目』 下卷, 「歌舞雜識拔萃」, “吉簡即乞寒戲”; 神宮司廳, 1910, 『古事類苑』 樂舞部第一冊 樂舞部9 高麗樂樂曲 桔槔(1979, 吉川弘文館), 594쪽.

69) 참고로 투루판지역에서는 옛날부터 지하에 카레즈를 건설하여 물을 공급하고 있다.

70) 소막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덕재, 2006, 『한국 고대 서역문화의

차를 중국에서 潑寒胡戲, 또는 潑胡王乞寒戲라고 부른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였다.⁷¹⁾ 『무악요록』에 길고와 짝하여 연주된 당악곡으로 禪脫이 전하는데, 이는 唐代에 乞寒戲와 칼춤이 결합되어 이루어진 劍氣渾脫을 가리키는 것이다.⁷²⁾ 검기혼탈은 당에서 일본으로 직접 전래되었고, 반면에 乞寒戲, 즉 길간은 중국에서 한국을 거쳐 일본에 전래되었던 것이다. 두 가무의 성격이 유사하였기 때문에 일본에서 검기혼탈의 答舞로 길간을 채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문제는 삼국 가운데 어느 나라에서 그것을 전래하였는가에 관해서다. 다음 절에서 고려악의 蘇志摩利가 바로 소막차와 관련이 깊었음을 언급할 예정인데, 이것은 신라에서 일본에 전래되었다고 알려졌다.⁷³⁾ 신라에서 수용한 소막차를 소지마리라고 불렀으므로 그와 성격이 비슷한 길간은 중국에서 고구려나 백제가 수용하여 일본에 전해 주었다고 보는 편이 합리적일 듯싶다. 특히 두 나라 가운데 서역 음악을 적극 수용한 고구려일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한다.

2. 百濟와 新羅, 渤海 系統의 高麗樂

백제계 유민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백제 풍속무를 공연하였음을 앞에서 살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고려악의 일부로 흡수되었을 것인데, 현재 고려악 가운데 백제계통으로 인정되는 악곡은 王仁庭과 進曾利古뿐이다. 왕인정은 皇仁庭, 皇仁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大日本史』 예악지에 따르면, 왕인정은 仁德天

수용에 대한 고찰 - 百戲 · 歌舞의 수용을 중심으로, 『역사와 경계』 58, 22~25쪽이 참조된다.

71) 『舊唐書』 卷第7, 本紀第7, 中宗 神龍 元年 11월, “己丑御洛城南門樓 觀潑寒胡戲”; 『舊唐書』 卷第7, 本紀第7, 中宗 3년 12월, “是月幸驪山 乙巳至自溫湯 乙酉令諸司長官向醴泉坊 看潑胡王乞寒戲.”; 『舊唐書』 卷第8, 本紀第8, 玄宗 開元 元年 12월, “己亥 禁斷潑寒胡 .”; 『資治通鑑』 卷第289, 唐紀24, 中宗大和大聖大昭孝皇帝中, “己丑上御洛城南門樓 觀潑寒胡戲(即乞寒胡戲 本出於胡中西域康國) 十一月鼓舞乞寒以水交潑爲樂 武后末年 始以季冬爲之.”

72) 김학주, 2001, 『중국 고대의 가무희』, 명문당, 244~245쪽.

73) 이에 대하여 뒤에서 자세하게 논증할 예정이다.

황이 즉위할 때에 백제인 王仁이 難波津歌를 지어 (즉위를) 축하하였던 것에서 유래하였다고 전한다.⁷⁴⁾ 주지하듯이 왕인은 阿直伎와 더불어 백제문화를 일본에 전해줌으로써 일본 고대문화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인물이다. 악곡의 명칭에서 그것이 왕인과 관련되었음을 쉬이 짐작해볼 수 있다. 물론 이렇다고 왕인이 인덕천황의 즉위를 축하하기 위하여 왕인정을 제작하였다는 기록을 그대로 신뢰하기는 곤란할 듯싶다. 아마도 왕인이 일본에 갔을 때에 백제의 풍속무를 일본인에게 전해준 것에서 그 명칭이 유래하였다고 봄이 사실에 더 가까울 듯싶다.

진증리고는 進蘇利古, 또는 神舞라고 부르는데, 부엌신, 즉 王을 제사지내는 백제의 풍속무로 알려졌다. 『대일본사』 예악지에서 “古事記를 보건대, 應神朝에 백제인 須須許利가 來朝하여 술을 빚어서 바쳤다”라고 전하는데, 수수허리와 進蘇利古가 음이 서로 비슷하므로 악곡의 명칭은 이것에서 기원한 듯하다. 무릇 옛날에 술을 빚을 때에 반드시 먼저 우물(신)과 부엌(신)에 제사를 올린다. 造酒司에 제사를 올리는 神의 자리가 아홉 개 있는데, 그 가운데 四座가 바로 神의 것이다. 제사를 올리는 자는 간혹다가 춤을 추기도 하였는데, 옛날에 (그것을) 祭舞라고 불렀다”라고 하여서⁷⁵⁾ 백제인 수수허리가 진증리고를 일본에 전했고, 그 이름에서 악곡의 명칭이 기원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진증리고도 新鳥蘇 등과 마찬가지로 춤을 추다가 중간에 북채(桴)를 잡고 다시 춤을 추는 後參舞의 일종이다. 일반적으로 춤을 추다가 중간에 사용하는 북채는 직경 6~7푼 정도, 길이 2척 정도의 圓木으로 만들며, 拂子와 비슷한 모양이었다. 북채에 白糸 1束을 연결하는데, 대개 자루 부분은 白楚를, 백사는 물을 상징한다고 알려졌다. 춤을 출 때에 북채를 사용하는 것은 조왕신에게 제

74) 『大日本史』, 禮樂十五, “仁德帝即位 百濟人王仁作難波津歌賀之(古今和歌集序, 奧義) 此曲蓋是也.”

75) 『大日本史』, 禮樂十五, “按古事記 應神朝 百濟人 須須許利來朝 造酒獻之 須須許利與進蘇利古 音相近 樂名恐起于此. 凡古者釀酒 必先祭井及 造酒司所祀神九座 其四座爲 神 祭之者或又奏舞 古稱 祭舞乎.”

사를 지낼 때에 砂水하는 법을 묘사한 것이라고 하는데,⁷⁶⁾ 종래에 사수를 瀉水의 誤記로 추정하여 井水 등을 祭祀하는 것을 이룬다고 이해하기도 하였다.⁷⁷⁾

『삼국지』 위서 동이전 변진조에 “변한은 진한과 더불어 뒤섞여 살았다. …… 神을 모시는데, 모두 부엌문의 서쪽에 두었다”라는 기록이 전한다. 마한의 경우에 조신을 모신다는 기록이 전하지 않으나 변진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삼한사회에서 조신을 모시고 제사지내는 풍속이 백제에도 그대로 이어졌을 것이고, 백제인이 그것을 다시 일본에 전해주어 진중리교가 성립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고려악 가운데 그 계통을 알 수 없는 것들이 여럿 전하는데, 그 가운데 일부가 백제에서 유래된 것일 가능성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악곡명을 거명하기는 힘들다.

고려악 가운데 신라에서 전래된 것이 蘇志摩利와 納蘇利, 啄木이다. 蘇志摩利는 4人舞로서 舞人은 常裝束을 입고 唐冠을 쓰고 춤을 추다가 중간에 허리에 차고 있는 도롱이를 꺼내 입고 다시 춤을 계속 춘다고 한다.⁷⁸⁾ 또한 大旱魃에 비가 내리기를 기원하기 위하여 蘇志摩利를 공연하면 반드시 비가 내렸다고 전한다.⁷⁹⁾ 서역지방 소막차는 軍中가무회이고, 소지마리는 4人舞로서 악

76) 『樂歌錄』 권37, 舞 第十七 後參桴之名付取蘇利古之說, “本名蘇利古之桴也. 舊記取蘇利古舞之記者 次桴之謂也. 凡桴制圓木徑六七分許 長二尺許 而先少曲如拂子也. 所謂曲口之徑長四寸許 廣二寸許 而其口附下長八寸許白糸一束也. 舊記曰 此桴摸砂水之法 蓋以柄象于白楚 以白糸象水 而呼曲名號蘇利古也. 其後於蘇利古之曲 直指白楚舞者 顯砂水之法者也云云.”

77) 大槻如電, 1927, 앞의 책, 86쪽.

78) 王嶸, 1999, 『西域文化的回聲』, 新疆青少年出版社, 222쪽; 張龍群, 1992, 「乞寒舞戲〈蘇莫遮〉」, 『新疆藝術』 1992년 第三期. 한편 『古事類苑』 樂舞部第二冊 樂舞部9 高麗樂樂曲에서 인용한 『樂家錄』 卷37 舞條에서는 “右舞 蘇志摩利〈舞人六人〉, 面帽子, 常裝束(掛裙), 篋笠(持于手)”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소지마리를 공연할 때에 가면과 모자를 쓰고 掛裙을 입으며, 도롱이를 손에 쥔다는 의미다.

79) 『教訓少』 上, 卷第5, 高麗曲物語 壹越調曲 蘇志摩, “此舞天下一同ノ大旱魃之時, 爲雨請舞之, カナラズシルシアリテ雨下〈樂舞俱秘事ニテ侍ナリ〉.”; 『樂歌錄』 卷31, 本邦樂說 蘇志摩利, “一說 蘇志摩利 未之祥. 天下旱魃時 舞此曲祈雨云云.” 한편 『古事類苑』, 樂舞部第二冊, 樂舞部1, 樂舞總裁上에 인용된 『教訓少』에서 胡飲酒와 蘇莫者是 天下 大旱魃時에 春日御社에서 祈雨祭를 지낼 때에 공연되었고, 青海破와 蘇志摩利 역시 마찬가지로 있었다고 언급하였다.

간 차이가 있지만, 둘 다 공연할 때에 天氣가 寒冷해져서 눈이나 비가 내리기를 기원했다는 점,⁸⁰⁾ 또 공통적으로 배우나 舞인들이 도롱이를 입고 공연했다는 점 등을 참고할 때, 소지마리와 소막차는 관계가 깊다고 봄이 옳을 듯싶다.⁸¹⁾

종래에 소지마리는 高天原에서 내쫓긴 素戔明尊이 신라에 건너가서 曾尸茂利(そしまり)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큰 비를 만나자 靑草로 도롱이를 만들어 입고 비를 피하였다는 故事에 기초하여 만든 춤이라고 전한다.⁸²⁾ 본래 신라에서 전래된 춤인 소지마리를 후대에 그 기원을 이와 같이 부회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고사를 그대로 믿을 수 없지만, 그것이 신라와 밀접한 관계를 지녔다는 사실만은 충분히 유추가 가능하다고 하겠다. 실제로 『악가록』 권31 本邦樂說에서 “蘇志摩利는 一名 曾尸茂利라고 부르며, 이것은 신라국의 악곡으로서 변방의 지명을 악곡의 명칭으로 삼은 것이다”라고 하였다.⁸³⁾ 이상의 검토를 종합하건대, 소지마리는 신라에서 소막차를 改作하여 일본에 전해준 것이었다고 정리하여도 커다란 잘못은 아닐 듯싶다.⁸⁴⁾

신라에서 전래된 또 하나가 바로 納蘇利(納曾利 : なぞり)이다. 이것은 雙龍舞이며, 雌雄의 용이 서로 즐겁게 노는 상태를 형상화한 것으로서 가면을 쓰고 공연하는 가무희의 일종이다.⁸⁵⁾ 납소리는 신라의 지명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⁸⁶⁾ 그것은 신라에서 일본에 전해진 가무희라고 볼 수 있다. 일반

80) 蘇莫遮에서는 눈이 많이 내리기를 기원하였고, 舞인들이 도롱이를 입고 공연하였다(전덕재, 2006, 앞의 글, 23쪽).

81) 전덕재, 앞의 글, 22~26쪽에서 소지마리가 서역의 소막차와 관계가 깊은 歌舞였음을 자세하게 살폈다.

82) 大槻如電, 1927, 앞의 책, 106쪽.

83) 『樂歌錄』 卷31, 本邦樂說, “蘇志摩利 一名曾尸茂利 是新羅國之曲也 以邊地名之云云.”

84) 종래에 김상현, 2003, 앞의 글, 212쪽에서 780년에 조사·기록된 西大寺資材帳에 보이는 蘇志麻理를 신라의 악무로 언급하여 주목된다.

85) 한편 1인의 무인이 춤을 추는 것을 落 이라고 부른다(大槻如電, 1927, 앞의 책, 83쪽). 『枕草子』에서 “落 은 2인이 膝踏의 모양으로 춤을 추는 것이다”라고 하여 옛날에 2인이 춤을 추는 경우에도 낙준이라고 불렀음을 알 수 있다(遠藤徹·笹本武志·宮丸直子, 2006, 앞의 책, 222쪽).

86) 河竹繁俊 著·이우승 역, 2001, 앞의 책, 137쪽. 한편 納曾利 또는 納蘇利(なぞり)



〈그림 5〉 『악기록』에 전하는
納蘇利(納曾利) 가면

곡의 유래와 그 내용에 대한 정보는 전혀 전하지 않는다. 그리고 1133년에 편찬된 『龍鳴抄』에서부터 탁목이 전하지 않으므로 고려악 탁목은 일찍 폐절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啄木은 唐과 日本에서 琵琶의 曲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거문고의 曲으로 널리 연주되었다. 啄木은 딱따구리를 가리킨다. 어떤 음악에 맞추어 딱따구리 흉내를 내며 춤을 추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때 악기 연주에 필요한 啄木의 曲이 반드시 존재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비파의 곡이나 거문고의 곡 탁목, 고려악 탁목이 서로 연관성이 깊었다고 봄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고대 일본에서 고려악의 탁목과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비파의 곡으로서 탁목과 관련된 기록이 여럿 전한다. 먼저 『樂歌錄』에 제54대 仁明天皇代에 遣唐使의 일원으로 당에 갔던 藤原貞敏이 당나라 사람 廉承武로부터 流泉, 啄木, 揚眞操 등 비파의 秘曲을 전수받았다고 전한다.⁸⁷⁾ 여기서 유천과 탁목을 返風

적으로 최치원이 지은 「鄉樂雜詠」 5수 가운데 하나인 大面이 일본에 전해져 納蘇利가 되었다고 이해한다.⁸⁷⁾ 平安時代に 競馬, 相搏, 賭弓 등의 경기를 할 때에 좌우로 나누어서 경쟁하였는데, 좌방이 승리하면 陵王을, 우방이 승리하면 납소리를 공연하여 축하하였다고 한다. 현재 일본에서 납소리는 고려악의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서 공연되고 있다고 알려졌다.

신라에서 전래된 악곡으로 추정되는 것이 하나 더 있으니, 바로 啄木이 그것이다. 탁목

를 한국어 나(難의 뜻), 소리(歌의 뜻)의 音讀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이혜구, 1967, 『納曾利考』, 『韓國音樂序說』, 서울대학교출판부, 35쪽).

87) 大面과 納蘇利의 관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전덕재, 2006, 앞의 글, 19~22 쪽이 참조된다.

88) 『古事類苑』, 樂舞部第二冊, 樂舞部28, 琵琶, 789쪽. 藤原貞敏(807~867)은 承和

香調, 楊貴妃가 지었다고 알려진 양진조를 풍향조로 연주하였다고 하였다. 『夜鶴庭訓抄』에 비파의 음조 가운데 탁목조가 존재한다고 전하여 약간의 혼동을 주는데, 아마도 반풍향조로 연주한 탁목곡을 아예 그 자체로서 하나의 음조로 독립시킨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이해된다. 『源平盛衰記』 권31에 “탁목의 곡은 天人의 음악이다. 본래의 명칭은 解脫曲이라고도 한다. …… 震旦의 商山에 仙人들이 많이 모여서 몰래 이 곡을 연주하다가 山神蟲으로 변화였는데, 흡사 나무를 쪼는 모양이었다. 이것을 듣고 (악곡의 명칭을) 啄木이라고 하였다”고 전한다.⁸⁹⁾ 탁목곡이 불교 및 도교와 관련이 깊음을 시사해 주는 자료이다.

『세종실록』 세종 12년 2월 19일조에 박연이 “거문고 타는 법은 전하지만, 歌詞는 알지 못하는 것이 있으니, 子·啄木·憂息·多手喜·清平(清平樂)·居士戀 등이 이것이다”라고 전한다. 또 『악학궤범』에 거문고의 음조 가운데 탁목조가 전하며, 그것은 속칭 궁조라고 한다고 하였다.⁹⁰⁾ 박연의 말을 뒤집어 생각하면, 고려시대에 탁목곡을 거문고로 연주할 때에 그에 맞추어 노래를 불렀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唐에서는 탁목곡을 비파로 연주하였다. 반면에 고려에서는 그것을 거문고로 연주한 것이다. 이 점과 비파곡 탁목의 일본 전래 시점을 염두에 둘 때, 당에서 전래된 비파의 탁목곡을 통일신라나 고려에서 거문고의 樂調로 改作하여 연주하였다고 추정해볼 수 있다. 나아가 고려악에 啄木이 존재하였음을 감안하건대, 통일신라에서 비파나 거문고의 연주에 맞추어 춤을 추는 舞樂 탁목을 일본에 전해 주었다는 추론도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 만약에 이러한 필자의 추정에 커다란 잘못이 없다면, 탁목은 한동안 일본에서 악기의 반주에 맞추어 춤을 추는 舞樂으로 공연되었다가 11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그것이 폐절되었고, 그 후에는 단지 藤原貞敏이 당에서 배웠다는 비파로 연

2년(835)에 遣唐使 判官으로 渡唐하여 유천 등의 비곡을 배우고, 名器인 玄象, 靑山(모두 인명천황의 물건) 및 비파악보를 가지고 귀국하였으며, 賀殿이란 곡을 비파로 연습하여 전수하였다고 한다(東儀信太郎 등, 1998, 앞의 책, 274쪽).

89) 이상에서 언급한 『악가록』과 『원평성쇠기』의 내용은 神宮司廳, 1910, 『古事類苑』 樂舞部第二冊 樂舞部28 琵琶(1979, 吉川弘文館), 789~790쪽을 참조한 것이다.

90) 『악학궤범』 권7, 현금, “啄木調(黃鐘宮平調也 調絃法文絃武絃大絃爲黃鐘 兩清爲仲呂 遊絃爲林鐘 卽俗稱宮調也).”

주하는 일종의 管絃樂으로서만 전수되었다고 정리할 수 있을 듯하다.

백제와 신라음악뿐만 아니라 발해악도 고려악에 흡수 편입되었다. 발해악으로 확실하게 인정되는 것이 바로 新靺鞨이다. 『교훈초』에 “이 곡은 어떤 책에서 靺鞨은 芋田人을 일컫는 것이다. 北土 말갈국에서 出自하여 이렇게 불렀다”라고 말하였다. 이 춤은 그 나라로부터 出自한 것이어서 신말갈이라고 부른 것이다. 고려에서 건너와서 일본으로 들어온 것이 아닐까?”라고 하였다.⁹¹⁾ 여기서 말갈은 발해를 가리키는데, 이것을 입증해 주는 자료가 다음의 기록이다.

新靺鞨은 靺鞨國(渤海)의 樂曲인데, 춤은 그 나라로부터 中華(일본)에 와서 拜禮하며 춤을 추는 모습이라고 이른다.⁹²⁾

이 자료는 신말갈이 말갈인들이 일본에 와서 拜禮하며 춤을 추었던 것에서 유래하였음을 알려 주는 것이다. 신말갈을 공연한 舞人은 당나라 복식을 하고 배례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고대 일본의 史書에 발해 사신이 일본에 와서 拜禮하며 춤을 추었다는 기사가 여럿 보인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그림 6〉 신말갈을 공연하는 舞人의 모습

『續日本後紀』 卷19 仁明天皇 嘉祥 2년 (849) 5月 甲寅朔조에 渤海使臣 및 首領 등이 함께 拜禮하며 춤을 추었다고 전하고, 또 『日本三代實錄』 卷21 清和天皇 貞觀 14年(872) 5月 19일 戊子條에도 발해의 사신이 함께 拜禮하며 춤을 추었다고 전한다. 『日本三代實錄』 卷43 陽成天皇 元慶 7年(883) 5月조에도 발해 사신이

91) 『교훈초』 권제5, 高麗曲物語 壹越調曲 新靺鞨, “此曲或書云 靺鞨芋田人名也 出北土靺鞨國名也, 而伴舞出彼國タリト申タリ, サレバ高麗ヨリ渡タル内ニアラザルカ.”

92) 『樂歌錄』 卷31, 本邦樂說, “新靺鞨者 靺鞨國之曲也 舞者自彼國來于中華爲拜禮蹈之體也云云.”

그러하였다고 전하고 있다. 앞의 인용문에서 신말갈은 말갈인이 일본에 와서 拜禮하며 춤을 춘 것에서 기원하였다고 전하는데, 이처럼 실제로 여러 사서에서 발해 사신이 일본에 와서 拜禮하면서 춤을 춘 것이 확인되므로 여기서 말하는 말갈인은 바로 발해인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신말갈은 발해 사신을 통하여 일본에 전래된 악곡이었던 것이다.

『教訓抄』上, 卷第5 高麗曲物語 壹越調曲 新靺鞨條에 法勝寺 供養會에서 白河帝(白川帝)의 칙령을 받아 俊綱朝臣이 신말갈을 지었다고 전한다. 『무악도설』의 저자는 永保 2년(1082) 법승사 大乘會에서 白河帝의 칙령을 받은 藤原俊綱이 폐절된 신말갈을 다시 복원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⁹³⁾ 신말갈은 본래 大史 2인(赤衣), 小史 2인(紺袍), 즉 4인이 허리를 구부려 배례하며 춤을 추는 舞曲이었는데, 永保 2년(1082) 宮賀茂行啓 때에 여기에 왕의 역할을 대행하는 1인(紫袍)을 추가하여 5인무로 만들었다고 한다.

3_ 系統 不明과 日本人 製作 高麗樂

고려악에는 어디에서 전래하였는가를 알 수 없는 곡들이 여럿 전하고 있다. 먼저 大曲인 新鳥蘇와 古鳥蘇의 경우, 종래에 鳥蘇를 烏蘇로 이해하고, 이것을 연해주의 烏蘇利(우수리)지역과 연관시켜 양 곡을 발해에서 유래된 것으로 이해하였다. 이 밖에 아야기리, 진·퇴숙덕, 貴德, 敷手, 八仙 등도 발해에서 전래된 것으로 추정하였다.⁹⁴⁾ 그러나 모두 다 뚜렷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아야기리나 퇴·진숙덕은 도리어 고구려에서 전래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며, 나머지는 傳來 국가가 어디인지 확실치 않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할 듯싶다. 다만 앞에서 언급한 退·進宿德, 長保樂, 桔槔, 納蘇利, 蘇志摩利 등과 더불어 歸德侯, 崑崙八仙, 地久 등도 서역에서 기원하거나 그곳을 거쳐서 한국에 전래된 악곡이라는 점이 흥미를 끈다.

93) 大槻如電, 1927, 앞의 책, 90쪽.

94) 大槻如電, 1927, 앞의 책, 79~92쪽.

귀덕후는 貴德, 貴德侯라고 표기하기도 하는데, 『敎訓抄』 등의 樂書에서는 흥노 日逐王이 한나라에 항복하여 歸德侯라는 封號를 수여받은 것에서 기원을 찾기도 하고,⁹⁵⁾ 또 大槻如電은 『舞樂圖說』에서 肅愼과 관련시켜 그 기원을 발해에서 찾기도 하였으나⁹⁶⁾ 설득력이 약하다. 귀덕은 당악인 散手의 番舞로서 널리 연주되었고, 춤추는 모습이 대략 후자와 거의 비슷하였다고 전한다.⁹⁷⁾ 산수는 率川明神이 신라군을 평정할 때에 군사를 지휘하던 모습을 모방하여 만든 것이라는 전설이 있지만,⁹⁸⁾ 신뢰하기 힘들다. 일설에 석가 탄생시에 師子嚕王이 제작한 춤이라고 전하고, 또 다른 일설에는 中天竺 阿羅國의 음악이라고 하였다.⁹⁹⁾ 귀덕과 산수는 모두 무인이 가면을 쓰고 춤을 추는 것이 공통적인데, 가면의 형상이 炬眼隆鼻 또는 鼻梁甚大하였다고 전한다.¹⁰⁰⁾ 얼굴의 형상은 서역인의 그것이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가면의 형상을 참조하건대, 귀덕과 산수는 인도에서 유래하여 서역을 거쳐 중국과 삼국에 전래된 것으로 봄이 합리

95) 『敎訓抄』上, 卷第5, 高麗曲物語 壹越調曲 歸德侯, “漢書曰 神霄中 匈奴日逐王先賢憚欲降漢 使人相聞遂詣京師 漢封日逐王為歸德侯(用鯉口).”

96) 大槻如電, 1927, 앞의 책, 93~94쪽에서 “仁智要錄(日本史 所引)에 阿志波世歸德侯라고 전하는데, 阿志波世란 속신을 가리키고, (『일본서기』) 흥명기에 속신인이 佐波島에 표착하였다는 기록이 보인 것을 시초로 하여 제명기에는 阿夫比羅夫가 熊皮 등을 토벌하여 사로잡은 일이 있다고 전한다. 속신은 흑룡강 연안에서 일본해안에 이르는 지방의 범칭이고 중족명이다”라고 언급하여 귀덕후의 기원을 속신(말갈), 즉 발해와 관련시켜 이해하였다.

97) 『敎訓抄』上, 卷第5, 高麗曲物語 壹越調曲 歸德侯, “先欲舞出時 吹亂聲 執梓立 梓之間 作法大方如散手也 梓立之後 在鎮詞 其詞曰 鯉口吐氣 天下太平 嘯萬歲政 世和世理.”

98) 『敎訓抄』上, 卷第3, 散手破陣樂, “古老傳曰 率川明神平新羅軍 持悅之餘向新羅國指麾而舞 時人見此姿摸之(見船) 今寶冠散手是也.”; 『樂歌錄』卷31, 本邦樂說 散手, “率川明神平新羅之軍 歡喜之餘 向新羅之方 持麾而舞 其形見船 時人見此姿摸之 今寶冠散手是也云.”

99) 『樂歌錄』卷31, 本邦樂說 散手, “一說 釋迦誕生之時 師子嚕王作舞云云(聲樂未考) 笛說曰 陽班子破敵陣形也 興陽作聲樂 中天竺阿羅國樂也云云.”

100) 『大日本史』禮樂十五, “又按釋日本紀 王舞面象 猿田彥神也. 凡舞樂稱王者 持散手 歸德 其假面並鼻梁甚大 且散手以歸德爲答舞 蓋擬猿田彥神奉迎皇孫 而下土歸德之狀也 而後人或傳以爲率川神乎 附以備考.”; 大槻如電, 1927, 앞의 책, 95쪽에서 가면 2개가 모두 ‘炬眼隆鼻’하다고 표현하였다.

적일 듯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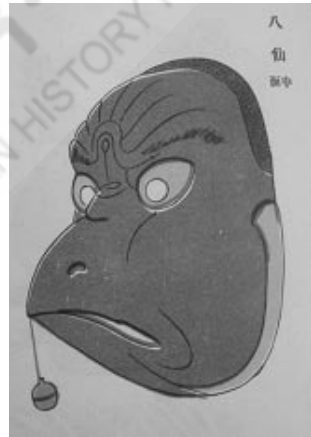
崑崙八仙은 八仙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한 鶴舞라고 부르기도 한다. 『教訓抄』上, 卷第5 高麗曲物語 壹越 調曲 八仙條에 “이 춤은 神仙傳에 淮南王 劉安이 仙人을 좋아하였다. 八公이 이에 이르러 鬚眉가 허영게 세었다”라고 이른다”고 전하며,¹⁰¹⁾ 『樂歌

錄』卷31 本邦樂說條에는 “崑崙山の 仙人이 帝德에 教化되어 八人이 來朝하여 新曲의 춤을 연주하였는데, 이를 기뻐하여 이로 인하여 崑崙八仙이라고 지었다”라고 전한다. 곤륜산의 仙人이 帝德에 教化되어 來朝하였다는 표현은 그대로 믿기 어렵지만, 그러나 곤륜산은 서역에 위치한 것이 분명하므로 곤륜팔선은 서역에서 전래된 가무를 기초로 하여 삼국에서 개작한 것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한다. 한편 地久의 경우, 그것을 연주할 때에 사용한 가면, 즉 『악가록』 권39 舞面에 전하는 가면 역시 코가 큰 서역인의 형상이므로 그것 역시 서역에서 전래된 가무와 관련되었다고 추정된다.

이 밖에 삼국과 발해에서 전래되었지만, 그 유래를 알 수 없는 것이 埴破, 俱倫甲序, 志岐傳, 都鬱, 頑徐, 石川樂, 新河浦, 作物, 葦波, 切, 林歌, 登天樂, 白濱 등이다. 이 가운데 埴破는 一名 金玉舞, 또는 登玉舞, 弄玉, 五持舞라고 부르는 것인데, 음악의 반주에 맞추어 泥丸으로 만든 玉을 가지고 재주를 부리는 곡예와 관



〈그림 7〉 『악가록』에 전하는 歸德侯 假面



〈그림 8〉 『악가록』에 전하는 八仙의 假面

101) 『악가록』 권32, 본방악설에는 “一說 此舞神仙傳曰 淮南王劉安好仙 八公乃至 鬚眉皓白云云”이라고 전한다.



〈그림 9〉 『악가록』에 전하는
地久 假面

련이 있다. 최치원의 「향악잡영」에 전하는 金丸과 통하는 것으로서 최치원이 금환을 鄉樂의 하나로 소개한 것을 보건대, 이것 역시 음악 반주에 맞추어 배우가 금색의 공(또는 옥)을 가지고 재주를 부렸던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식파는 삼국 가운데 어느 나라에서 전래되었는가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

한편 延喜樂은一名 花榮樂이라고 부르는데, 『악가록』에서는 延喜 8년(908)에 樂은 藤原朝臣忠房 또는 和尿部逆鷹가, 춤은 式部卿親王이 지었고, 연호를 악곡의 이름으로 삼았다고 전한다.¹⁰²⁾ 仁和樂도 일본에서 자체

제작한 고려악의 하나로서 仁和 연간(885~889)에 百濟眞雄이 지은 것이다.¹⁰³⁾ 인화악 역시 연호를 곡명으로 삼은 것이며, 일본에서 당악과 고려악 가운데 가장 먼저 자체 제작한 곡으로 유명하다. 常武樂과 胡蝶樂도 일본에서 자체 제작한 곡에 해당한다. 먼저 상무악은 戶部常雄이 지은 것으로서 그 이름을 따서 곡명을 삼았다고 하며, 일명 常雄樂이라고 부르다고 한다.¹⁰⁴⁾ 그리고 호접악은 『古今著聞集』에 따르면, “延長 6년(928) 윤7월 중에 六條院에서 童相搏의 일이 있었는데, 이때 二十番이 서로 연이어 춤을 연주하였고, 左는 蘇合, 右는 新鳥蘇를, 다음에 새로 지은 호접악을 연주하였다. 그 곡의 笛은 (藤原)忠房朝臣이, 춤은 式部卿親王이 지어 바쳤다”고 한다.¹⁰⁵⁾

102) 『樂歌錄』 卷31, 本邦樂說, “延喜八年 樂者左近衛權少將藤原忠房朝臣作之〈一本笛師和尿部逆鷹〉舞者式部卿親王製作 而以年號爲曲名云云.”

103) 『樂歌錄』 卷31, 本邦樂說, “光武天皇御宇 眞〈本眞作眞〉雄奉勅 仁和年中作 此曲以年號爲曲名.”

104) 『教訓冊少』 上, 卷第5, 高麗曲物語 壹越調曲 常武樂, “此曲調(戶의 誤記)部常雄作之 仍ヤガテ作者ヲ名付タリ 謂之常雄樂.” 한편 『樂歌錄』 卷31 本方樂說에는 “午部常雄作之 以己名號常武樂 亦名常雄樂云云”이라고 전한다.

105) 『古事類苑』 樂舞部第二冊, 樂舞9, 高麗樂樂曲 胡蝶樂, 587쪽.

胡德樂과 酣醉樂은 본래 당악이었으나 고려악으로 개작한 것에 해당한다. 이렇게 당악에서 고려악으로, 또는 고려악에서 당악으로 개작한 것을 渡物樂이라고 부른다. 호덕악은 『敎訓抄』上, 卷第5 高麗曲物語 壹越調曲 胡德樂條에 “본곡은 橫笛의 음악인데, 承和 연간(834~847)에 勅命에 따라서 高麗笛으로 常世가 改作하였다”고 전한다. 호덕악은 一名 偏鼻胡德 또는 反鼻胡德이라고도 부른다. 호덕악은 鼻長, 朱面에 襲裝束을 착용한 4인의 舞人과 唐冠에 藏面을 하고 홀을 가진 勸盃 이외에 腫面을 한 瓶子와 杓을 가진 瓶子取가 무대에 올라 主客으로 술을 권하는 사이에 병차취가 몰래 술을 먹어서 취한다는 내용의 滑稽 소작이라고 한다.¹⁰⁶⁾ 이와 비슷한 내용이 최치원의 「향악잡영」에 전하는 月顛이다. 이것은 대체로 가면을 쓴 경술한 胡인이 酒席에서 술에 취하여 우스운 소리와 몸짓을 하는 輕戲劇이라고 이해되고 있다.¹⁰⁷⁾



〈그림 10〉 『악가록』에 전하는 胡德樂 假面

호덕악을 공연할 때에 가면을 사용하는데, 그 가면의 모습이 『악가록』 권 39 舞面に 전한다. 그 모습은 코가 길쭉한 서역인의 모습이다. 월전과 호덕악을 공연할 때에 모두 胡人, 즉 서역인이 무인으로 등장한다는 점, 술을 매개로 한 輕戲劇이라는 점에서 둘은 공통적이다. 다만 내용상에서 약간의 차이가 인정되지만, 위와 같은 공통점을 감안하건대, 두 악곡은 월전, 즉 서역의 一國이었던 于 (Khotan)에서 유래하여 중국과 한국에 전래되고, 다시 그것이 중국에서 일본에 전래된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당악 가운데 이와 비슷한 舞曲이 바로 胡國의 사람이 술에 취하여 공연하는 胡飲酒이다.¹⁰⁸⁾ 만약에 호덕악이 월전과 관계가 없다고 한다면, 호음주와 관련지을 수도 있을 것이

106) (財)古代學協會·古代學研究所 編, 1994b, 앞의 책, 914쪽.

107) 이두현, 1959, 「新羅五伎考」, 『서울대학교 논문집』 9.

108) 東儀信太郎 등, 1998, 앞의 책, 162쪽.

다. 마지막으로 감취악도 橫笛의 악곡을 高麗笛으로 개작한 것에 해당하며,¹⁰⁹⁾ 이와는 반대로 본래 고려악인 林歌를 당악의 管絃曲으로 改作한 사례도 발견된다.¹¹⁰⁾

V. 맺음말

이상 본문에서 高麗樂에 관계된 史料와 그 내용, 高麗樂의 성립과정과 종류, 계통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본문에서 검토한 내용을 요약·정리하는 것으로서 맺음말에 대신하고자 한다.

高麗樂과 唐樂을 포함한 고대 일본의 舞樂에 관한 내용은 고대·중세에 편찬된 辭書類와 중세에 편찬된 樂書에 전한다. 고려악 관계 기록이 전하는 最古의 辭書가 『倭名類聚抄』이고, 악서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이 1133년에 太神基政이 편찬한 『龍鳴抄』이다. 이 밖에 고려악에 관하여 전하는 辭書로서 『色葉字類抄』와 그것을 증보한 『伊呂波字類抄』가 있고, 일종의 百科事典인 『拾芥抄』에도 高麗樂 曲名이 전하고 있다. 중세시대에 편찬된 3대 樂書인 『教訓抄』(伯近眞, 1233)와 『體源抄』(豊原統秋, 1512), 『樂歌錄』(安倍季尙, 1690)에 고려악에 관한 풍부한 내용이 전하고, 『仁智要錄』과 『三五要錄』, 『雜秘別錄』, 『夜鶴庭訓抄』, 『舞樂要錄』 등에도 그에 관한 언급이 보인다.

고려악은 삼국시대부터 일본에 전래된 백제악과 신라악, 고려악(고구려악), 발해악을 기초로 하여 정비된 것으로서 궁극적으로 고려악에 다른 나라의 음악이 흡수 통합되는 형식을 띠었다. 대체로 8세기 후반까지 삼국의 음악을 각기 공연하다가 그 이후부터 고려악만을 당악과 함께 또는 교대로 연주하는

109) 『樂歌錄』 권31, 本邦樂說, “酣醉樂樂曲未之詳 度于橫笛之曲 長者殿下春日詣之次日 鹿園院而進飭食 之時 渡于笙笛而小損益之 擊鞀敲爲之新樂云云.”

110) 東儀信太郎 등, 1998, 앞의 책, 198~199쪽.

사례가 두드러지게 증가하였다. 『舞樂要錄』에 延長 6년(928) 相搏節 때 太平樂의 番舞로서 발해악을 연주하였다는 내용이 전하고, 그 이후의 자료에서는 백제악과 신라악, 발해악을 공연한 기록을 더 이상 발견할 수 없다. 928년에서 930년대 전반 사이에 백제와 신라, 발해의 음악이 고려악에 흡수 통합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 따라 左方 唐樂, 右樂 高麗樂, 즉 左右 二部制가 성립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고, 완전한 의미의 左右 2부제는 村上天皇代(946~947)에서 一條天皇代(986~1011)에 이르는 사이에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

사서류나 악서에 전하는 38개의 고려악곡 가운데 고구려계통은 狛鉦와 狛犬, 高麗龍, 退·進宿德, 阿夜岐理, 長保樂, 桔槌 등이고, 백제계통은 王仁庭과 進曾利古이다. 蘇志摩利와 納蘇利, 啄木은 신라에서, 新靺鞨은 발해에서 전래된 악곡이었다. 仁和樂과 延喜樂, 常雄樂, 胡蝶樂은 일본에서 자체 제작한 것이고, 酣醉樂과 胡德樂은 본래 橫笛(唐樂)이었으나 高麗笛으로 연주하도록 고친 渡物의 高麗樂이었다. 新鳥蘇를 비롯한 나머지 고려악곡은 한국에서 전래되었으나 그 계통을 알 수 없는 것들이다. 고려악 가운데 진·퇴주덕, 소지마리와 납소리, 길간, 장보악, 그리고 歸德侯와 崑崙八仙, 地久 등은 서역에서 전래된 것이었는데, 이처럼 삼국의 음악에 서역계통의 음악이 적지 않았음은 고대문화의 성격을 연구할 때에 크게 참조가 될 것이다.

고려악과 관련된 사료에는 音調나 拍子, 服裝, 伴奏樂器 등과 관련된 조항이 적지 않게 전한다. 이러한 측면이 고대사 연구자들에게 고려악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접근을 방해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본 연구에서도 그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가 그리 수월하지 않았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본 연구의 이러한 한계는 국악을 전공하는 연구자와 服飾史를 전공하는 연구자의 공동연구를 통하여 극복되리라 여겨진다. 고려악의 종류와 계통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적한 본고의 연구결과는 향후 삼국의 일본에의 문화 전파 양상뿐만 아니라 삼국 통일 이후 고구려·백제음악의 신라음악으로의 흡수 통합과정을 살필 때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며, 아울러 본고를 토대로 음악사학자나 고대사 연구자들 사이의 공동연구가 활성화되어 고대 음악에 대한 이해를 크게 진전시키기를 기대해 마지않는다.

[ABSTRACT]

A Basic Research on the Komagaku Music of Ancient Japan

Jeon, Deogjae

Komagaku music which was formed on the base of transmitted music from the Three Kingdoms and the Balhae is one of the ancient Japanese dance music which is called 'right direction music'. On the other hand, the left direction music which is paired with the Komagaku music is called 'Tougaku music'. Tougaku music was formed on the base of transmitted music from the China, Imeup(林邑), and India. The 38 melodies of the Komagaku music such as 'Sintoriso(新鳥蘇)' has handed down in various music book such as 'Kyoukunshyou(教訓抄)' and dictionary books such as 'Oeamyeong-ruchooecho(倭名類聚抄)'. Komagaku music had been formed step by step. In the first period of the 10th century, the Komagaku music synthesised Kudaragaku(百濟樂), Shiragigaku(新羅樂), and Botsukaigaku(渤海樂). During the period from the middle of the 10th century which was the Murakami Tennou(村上天皇) term to the end of the 10th century which was the Itsuzhyou Tennou(一條天皇) term, the double system of the left and right direction music was established. Among the Komagaku music, Komaboku(狛鉢), Komainu(狛犬), Komaryou(高麗龍), Kikan(吉簡), Zhyoubouraku(長保樂), Ayagiri(阿夜岐理), Dai-Sinsotoku(退·進走德) were conjectured as transmitted music from Koguryeo. Ounintei(王仁庭) and Sinsoriko(進蘇利古) were conjectured as they came from Baekje. Nasori(納蘇利), Sosimari(蘇志摩

利), and Takuboku(啄木) were conjectured as they came from Shilla. Sinmaka(新靺鞨) was conjectured as it transmitted from Balhae. Four musics such as 'Engiraku(延喜樂)' were self-made music at Japan. And the origin of the rest music was not known. In special consideration, musics from the Three Kingdoms such as Dai-Sinsotoku, Zhoubouraku, Kikan, Nasori, Sosimari, Kitoku(歸德侯), Gonronhatsusen(崑崙八仙), and Chikiu(地久) were originally transmitted from the Western regions.

keywords

Komagaku music(高麗樂), Tougaku music(唐樂), left direction music(左方樂), right direction music(右方樂), the double system of the left and right direction music(左右 2音階), Kudaragaku(百濟樂), Shiragigaku(新羅樂), Botsukaigaku(渤海樂), Kyoukunshyou(教訓附少), Gatsukaroku(樂歌錄), Bugaku(舞樂), the Western regions(西域)

조선 초기 울릉도·독도 관리정책

김호동 |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연구교수

I. 머리말

15세기의 조선왕조는 지방제도 개혁이란 면에서 볼 때 획기적인 시기이다. 고려의 5도·양계체제가 8도체제로 확정되고, 신분적이고 다원적이던 군현제가 일원적인 행정구획으로 바뀌고 동시에 종래의 속읍과 향·소·부곡이 소멸, 직촌화하면서 새로운 면리제로 점차 개편되는 등 중앙집권화가 강화되었다.

그에 반해 유독 섬은 공도정책이 실시되어 원칙적으로 국왕의 지배와 보호가 미치는 통치의 대상이 아니었고, 행정편제의 대상에서도 배제되었으며, 해양은 이미 피폐화되어 있었고, 해양을 근거로 하여 삶을 영위하던 해양인들도 크게 쇠락했다고 한다.¹⁾ 과연 그럴까?

조선 초기 실록 등의 자료에 따르면 섬과 바다에서 어염을 비롯하여 해산물을 채취하는 것이 농사에 종사하는 것보다 훨씬 이익이 많아서 바닷가 연안민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섬으로 대거 유입하였다고 한다. 이 때문에 백성

1) 강봉룡, 2005, 『바다에 새겨진 한국사』, 한얼미디어.

들이 생업의 기반을 농업에서 어업으로 전환하지 않을까 염려할 정도였다.

또 15세기 이후 만들어진 지리지에는 이전에 기록되지 않은 섬들이 기재되고, 해당 섬의 크기(둘레·넓이), 인구, 특산물, 유적·유물, 본 읍과의 거리와 인접 섬과의 거리 등을 비롯한 다양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²⁾ 섬을 텅 비워두는 공도정책이 국가의 정책이었다면 과연 그러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조선시대에 섬이 원칙적으로 국왕의 지배와 보호가 미치는 통치의 대상이 아니었고, 행정편제의 대상에서도 배제되었다면 이러한 기록들이 어떻게 역사의 전면에 떠오르는가? 울릉도와 독도에 국한하여 보더라도 고려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우산국, 울릉도, 무릉도 등의 명칭만 보일 뿐 두 개의 섬을 구분하여 기록한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조선 태종조 이후 우산·무릉 두 개의 섬이 존재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세종실록지리지』에 두 섬에서 ‘서로 바라다볼 수 있다’고 하였다. 그것은 두 섬이 하나의 생활공간으로 존재하였음을 중앙정부에서 인식하였음을 뜻한다. 그런 인식 위에 울릉도에 대한 置邑 논의가 있었고, ‘按撫使’, ‘巡審敬差官’이 파견되었다는 것은 중앙정부가 울릉도와 독도를 군현행정편제의 대상으로 간주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할 경우 울릉도·독도에 대한 공도정책이 시행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 이러한 시각을 갖고 조선 초기 울릉도와 독도가 군현행정체계 속에 어떻게 편제되어 관리·운영되었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³⁾

2) 김경옥, 2004, 『조선후기 도서연구』, 혜안, 61~62쪽 참조.

3) 필자는 1998년에 「군현제의 시각에서 바라다본 울릉도·독도」(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편, 1998, 『울릉도·독도에 대한 종합적 연구』)에서 ‘공도정책’이란 용어와 그 논리를 그대로 수용하여 글을 쓴 바가 있다. 그 후 이에 대한 반성을 담은 「조선 초기 울릉도·독도에 대한 ‘공도정책’의 재검토」(『민족문화논총』 3, 2005)를 발표한 바가 있다. 이 글은 그 연장선상에서 울릉도에 대한 ‘置邑’ 논의와, 울릉도·독도에 대한 쇄출조치와 순심정책하에서의 안무사, 혹은 순심경차관 파견의 인원과 경비 염출 등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부각시키기 위해 ‘조선 초기 울릉도·독도 관리정책’이란 제목을 잡고 논지를 전개하였다.

II. 울릉도·독도에 대한 置邑 논의와 순심정책의 확립과정

고려시대의 경우 『고려사』 지리지 동계 울진현조에 ‘울릉도’가 실려 있다. 그것을 통해 고려는 울릉도를 자국의 영토로서 편제하여 동계 울진현에 소속시켰음을 알 수 있다.⁴⁾ 고려시대 동계에 속하였던 울릉도·독도가 조선시대에 어떤 행정체계에 속하게 되었는가를 조선시대 최초의 울릉도에 관한 다음의 기록을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A. 강원도 武陵島居民들에게 육지에 나오도록 명령하였는데, 이것은 감사의 품계에 따른 것이다. (『태종실록』, 태종 3년 8월 병진)

A 자료를 통해 조선조에서는 무릉도, 즉 울릉도는 군현체제상 강원도에 속하였음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의 5도·양계체제가 조선조에 들어와 8도체제로 바뀌면서 울릉도에 대한 관할권이 東界에서 강원도로 이관되었기 때문이다.

위에서 주목되는 것은 태종 3년(1403)에 울릉도를 관할하게 된 강원 감사의 품계에 따라 울릉도 거주민들이 육지로 나오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아마도 고려 말부터 울릉도에 삶의 터전을 일구어왔던 사람들일 것이다.⁵⁾ 이들을 육지로 나오게 한 까닭은 무엇일까? 다음의 자료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4) 김호동, 2007, 『독도·울릉도의 역사』, 경인문화사, 53~61쪽.

5) 태종 12년에 유산국도 사람 백가물 등 12명이 高城 於羅津에 정박하여 말하기를 “우리들은 武陵島에서 성장하였는데, 그 섬 안의 戶가 11호이고, 남녀가 모두 60여 명인데, 지금은 본도로 옮겨 와 살고 있습니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 백가물 등이 여말·선초부터 울릉도에서 삶의 터전을 갖고 있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이들이 유산국 사람을 자처하고 있지만 강원도 관찰사가 通州·高城·杆城에 억류해둔 것은(『태종실록』, 태종 12년 4월 15일) 태종 3년에 소개조치가 내린 울릉도에 사는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인식 때문이었을 것이다.

B. 金麟雨를 武陵等處安撫使로 삼았다. ① 호조참판 차첩이 아뢰기를, “신이 일찍이 江原道都觀察使로 있을 때에 들었는데, 武陵島의 周圍가 7息이고, 곁에 작은 섬(小島)이 있고, ⑥ 전지가 50여 결이 되는데, 들어가는 길이 겨우 한 사람이 통행하고 나란히 가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옛날에 方之用이란 자가 있어 15家を 거느리고 入居하여 혹은 때로는 假倭로서 도둑질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 섬을 이는 자가 三陟에 있으니, 청컨대, 그 사람을 시켜서 가서 보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옳다고 여기어 삼척 사람 前 萬戶 김인우를 불러 무릉도의 일을 물었다. 김인우가 말하기를, “삼척 사람 李萬이 일찍이 무릉에 갔다가 돌아와서 그 섬의 일을 자세히 압니다” 하니, 곧 이만을 불렀다. ② 김인우가 또 아뢰기를, “무릉도가 멀리 바다 가운데에 있어 사람이 서로 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軍役을 피하는 자가 흑도망하여 들어옵니다. 만일 이 섬에 住接하는 사람이 많으면 왜적이 끝내는 반드시 들어와 도둑질하여, 이로 인하여 강원도를 침노할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옳게 여기어 김인우를 무릉등처안무사로 삼고 이만을 伴人으로 삼아, 兵船 2척, 抄工 2명, 引海 2명, 火通·火藥과 양식을 주어 그 섬에 가서 그 頭目에게 일러서 오게 하였다. 김인우와 이만에게 옷과 갓·신발을 주었다. (『太宗實錄』 태종 16년 9월 경인)

사료 B-①에 따르면 박습이 강원도 감사로 있을 때, 옛날에 方之用이 15家口를 이끌고 울릉도에 살면서 때로는 왜구에 편승해 假倭로 활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들었다고 한다. 박습이 강원도 관찰사로 파견된 시기가 태종 11년(1411) 2월이었음을 감안할 때⁷⁾ ‘옛날’은 앞의 사료 A, 즉 태종 3년(1403)에 올

6) 강원 감사를 역임한 박습이 말한 무릉도는 울릉도를 지칭하는 것이고, 무릉도 곁의 작은 섬(小島)은 구체적 언급이 없으나 독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한다. 태종 16년 김인우를 ‘무릉등처안무사’로 파견하였고, 그가 돌아온 후 조정회의에서 ‘于山·武陵’ 주민에 대한 쇄출의 문제를 논의하여 김인우를 다시 ‘우산무릉등처안무사’로 삼아 그곳 주민을 쇄환토록 하고, 또 세종 7년에도 김인우를 ‘우산무릉등처안무사’로 파견한 것에서 태종 16년 김인우가 돌아온 후에는 분명히 울릉도·독도 두 개의 섬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7) 『太宗實錄』 권21, 태종 11년 2월 23일(갑인).

릉도 거주민들에 대한 소개조치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태종 3년의 강원감사의 품계는 왜구의 침구와 이에 편승한 울릉도민의 假(假)활동에서 비롯된 조치로 볼 수 있다. 실제 태종 3년 7월 26일에 왜선 8척이 강릉의 임내 우계현에 침입하였고, 8월 1일에 왜선 8척이 장기의 변경을 침범하는 등 왜구가 강원도 등의 동해안을 침범한 사실이 있었고,⁸⁾ 태종 7년에 대마도의 宗貞茂가 무릉도 이주를 요청하기까지 한 것으로 보아⁹⁾ 울릉도민의 소개조치는 왜구에 대한 방어책의 일환이었음이 분명하다. 태종 7년 영의정부사 성석린이 국방대책을 비롯한 시무 20조를 올린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倭奴가 근심이 된 지 오래인데, 지금까지 그치지 않습니다”라고 하고, 兵船과 軍器 등의 제조를 건의한 적이 있고,¹⁰⁾ 경상도 병마절제사 강사덕이 건의한 각 포구의 방어대책을 채택한 것으로 보아¹¹⁾ 태종 때는 왜구에 대한 방어책의 수립에 골몰하고 있었던 시기였음을 알 수 있다.

태종 16년(1416) 9월에 무릉등처안무사를 파견한 것도 그해 8월에 병조판서 박신이 “왜구가 전함을 수리하여 중국에 入寇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만약 양식이 부족하면 지나가는 연해에 몰래 침략할 것이 두려우니, 청컨대 여러 섬에다 병선을 모아서 변란에 대비하소서”라고 한 건의에 따라 兵船을 要衝地 섬에다 나누어 정박시키도록 명한 조치¹²⁾와 관련지어 봄직하다. 왜적의 침입

8) 『太宗實錄』, 태종 3년 7월 신축, 8월 병오조.

9) 태종 7년에 對馬島守護 宗貞茂가 사람을 보내 武陵島에 여러 部落을 거느리고 가서 읍거 살기를 청하였는데, 이것은 아마도 당시 조선정부가 울릉도거민을 육지로 나오게 한 것을 듣고 이곳에 들어가고자 하는 의도를 갖게 되었을 것이다. 이때 태종은 “만일 이를 허락한다면, 일본 국왕이 나더러 叛人을 불러들였다 하여 틈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들의 越境을 허락하지 않았다. 『太宗實錄』 권13, 태종 7년 3월 16일.

10) 『太宗實錄』 권13, 태종 7년 1월 19일(갑술).

11) 『太宗實錄』 권14, 태종 7년 7월 27일(무인).

12) 『태종실록』 권31, 태종16년 3월 24일(병진), “兵船을 要衝地 섬에다 나누어 정박시키라고 명하였다. 병조판서 朴信이 아뢰었다. ‘듣건대 왜놈들이 戰艦을 크게 수리하여 중국에 入寇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만약 양식이 부족하면 지나가는 沿海에 몰래 침략할 것이 두려우니, 청컨대 여러 섬에다 병선을 모아서 변란에 대비하소서.’ 임금이, ‘한 방면으로 떼지어 모여서 여러 섬이 비게 될 것 같으면 누가 이를 막겠

에 대한 방어책 구축 방안의 하나로 강원 감사를 역임하였던 박습이 울릉도에 대한 왜구의 침구와, 이에 편승한 울릉도민의 假(倭)활동을 언급하였을 것이다.

강원도 관찰사를 역임한 박습에 의해 울릉도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추천된 김인우는 '삼척인'으로서 수군 '萬戶'를 역임한 인물이다. 수군 만호로 봉직하였던 김인우는 삼척도호부의 관할 울진현의 속도인 울릉도에 관해 직무수행상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다. 특히 그가 태종 16년에 무릉등처안무사로 울릉도에 들어갔을 때 伴(반)인으로 따라간 李萬(이만)은 삼척인으로서 태종 16년(병신년) 이전에 울릉도로 도망갔다 나온 적이 있었던 자이다.¹³⁾ “무릉도가 멀리 바다 가운데에 있어 사람이 서로 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군역을 피하는 자가 혹 도망하여 들어갑니다”(B-②)라고 한 이야기는 이만에게서 익히 들었던 이야기일 것이다.

김인우에 의해 무릉도에 들어간 사람들이 군역 도피자임이 부각되자 이후 울릉도 문제는 왜구 문제보다도 이들을 본토로 다시 쇄환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로 그 중심이 옮겨가게 되었다. 그 판단을 위해 김인우를 안무사로 삼아 울릉도로 파견하여 실태조사를 하고자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태종 16년 9월의 논의에서 왜구 문제와 군역도피자 문제가 거론되었지만 김인우로 하여금 울릉도거민을 적극적으로 쇄출하라는 명은 없었다. 태종이 김인우를 파견하면서 “그 섬에 가서 그 頭目(두목)에게 일러서 오게 하였다”고 한 것이나 김인우가 울릉도에 살고 있는 15口, 86명 가운데 겨우 3명만을 데리고 나왔다는 것을 통해 그것을 짐작할 수 있다.¹⁴⁾ 그런 점에서 이때의 김인우의 울릉도 파견을

는가? 하니, 육조에서 아뢰기를, ‘한 방면으로 모으지 말고 혹은 10척, 혹은 8, 9척씩 나누어 요충지 섬에 정박시키소서’하므로, 임금이 그 계책을 따랐다.”

13) 『세종실록』, 세종 7년 8월 갑술조에, “당초에 강원도 平海 고을 사람 金乙之·李萬·金巧乙金 등이 무릉도에 도망가 살던 것을, 병신년에 국가에서 인우를 보내어 다 데리고 나왔다”고 하였지만 병신년, 즉 태종 16년에 이만은 무릉등처안무사 김인우의 반인으로 울릉도에 따라 들어간 것이다. 그가 울릉도에 도망해 살다가 삼척에 나온 것은 사료 B에서 보다시피 병신년 이전의 일이다.

14) 『태종실록』, 태종 17년 2월 5일(임술), “按撫使 金麟雨가 于山島에서 돌아와 토산물인 大竹·水牛皮·生苧·綿子·檢樸木 등을 바쳤다. 또 그곳의 거주민 3명을 거느리고 왔는데, 그 섬의 戶는 15口요, 남녀를 합치면 86명이었다. 김인우가 갔다가 돌

쇄출정책을 위해 파견되었다고 보는 기존의 시각은 문제가 있다. 김인우가 돌아온 사흘 후에 다음의 사료 C에서 보다시피 ‘于山·武陵島의 居民을 刷出하는 것의 편의 여부’를 논의케 한 것도 그것을 뒷받침해 준다.

- C. 우의정 韓尙敬, 六曹·臺諫에 명하여, 于山·武陵島의 居民을 쇄출하는 것의 편의 여부를 의논케 하니, 모두가 말하기를, “무릉의 주민은 쇄출하지 말고, 五穀과 農器를 주어 그 생업을 안정케 하소서. 인하여 主帥를 보내어 그들을 위무하고 또 土貢을 정함이 좋을 것입니다” 하였다. 공조판서 黃禧만이 유독 불가하다 하며, “安置시키지 말고 빨리 쇄출하게 하소서”하니, 임금이, “쇄출하는 계책이 옳다. 저 사람들은 일찍이 徭役을 피하여 편안히 살아왔다. 만약 土貢을 정하고 주수를 둔다면 저들은 반드시 싫어할 것이니, 그들을 오래 머물러 있게 할 수 없다. 김인우를 그대로 안무사로 삼아 도로 우산·무릉 등지에 들어가 그곳 주민을 거느리고 육지로 나오게 함이 마땅하다” 하고, 인하여 옷[衣]·갓[笠]과 木靴를 내려 주고, 또 우산 사람 3명에게도 각기 옷 1襲씩 내려 주었다. 강원도 도관찰사에게 명하여 兵船 2척을 주게 하고, 도내의 水軍 萬戶와 千戶 중 유능한 자를 선발 간택하여 김인우와 같이 가도록 하였다. (『태종실록』, 태종 17년 2월 8일)

태종은 김인우가 태풍을 두 번이나 만나 어려움을 겪고 울릉도거민 15구 84명 가운데 겨우 3명만이 따라왔기 때문에 쇄출 조치가 과연 합당한 것인가라는 생각을 가진 듯하다. ‘우산·무릉도의 居民을 쇄출하는 것의 편의 여부’를 논하게 한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개최된 논의이기 때문에 당시의 중론은 첫째, 주민을 쇄출하지 말고, 오곡과 농기를 주어 그 생업을 안정케 하고, 둘째, 主帥를 보내어 그들을 위무하고 또 土貢을 정하자는 것이었다. 오직 공조판서 黃禧가 반대하고 빨리 쇄출하자는 주장을 펼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종이 “쇄출하는 계책이 옳다. 저 사람들은 일찍이 徭役을

아을 때에, 두 번이나 태풍을 만나서 겨우 살아날 수 있었다고 했다.”

피하여 편안히 살아왔다. 만약 土貢을 정하고 주수를 둔다면 저들은 반드시 싫어할 것이니, 그들을 오래 머물러 있게 할 수 없다”고 함으로써 울릉도에 대한 치유는 무산되고 말았고, 쇄출조치가 단행되었다.

태종의 쇄출 판단은 황희의 주장에 근거하였을 것이다. 그렇지만 황희의 주장과 태종의 쇄출 판단은 당초 김인우가 “무릉도가 멀리 바다 가운데에 있어 사람이 서로 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군역을 피하는 자가 혹 도망하여 들어갑니다. 만일 이 섬에 주점하는 사람이 많으면 왜적이 끝내는 반드시 들어와 도둑질하여, 이로 인하여 강원도를 침노할 것입니다(B-②)”라고 한 앞의 시각이 크게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태종 16년(1416) 9월에 김인우를 무릉등처안무사로 파견하는 것을 결정하는 논의에서, 또 하나 주목되는 사실은 울릉도에 직접 도망해 살았던 이만을 통해 중앙정부는 박습이 지적한 울릉도 옆의 ‘작은 섬(小島)’(B-①), 즉 독도의 존재에 대해 분명히 알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김인우를 ‘무릉도안무사’가 아닌 ‘무릉등처안무사’로 파견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김인우가 태종 17년 2월 울릉도에서 돌아온 6개월 후인 8월에 “왜적이 우산·무릉을 구략하였다”¹⁵⁾고 적시한 기록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¹⁶⁾

태종 17년에 울릉도에 대한 치유 논의가 있었지만 김인우로 하여금 쇄출시키도록 하는 조치가 단행되었다. 그러나 울릉도에 대한 쇄출조치는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음을 다음의 자료는 보여준다.

D. 前 判長鬐縣事 김인우를 于山武陵等處按撫使로 삼았다. 당초에 강

15) 『태종실록』 권34, 태종 17년 8월 6일(을축), “倭寇于山武陵.”

16) 태종 17년 2월 5일에 안무사 김인우가 우산도에서 돌아왔다는 기록(주 14 참조)과 사료 C에 우산 사람 3명이 나온 것, 그리고 『신증동국여지승람』의 ‘동람도’에서 ‘우산도’ 동쪽에 ‘무릉도’를 그린 것에 대해 “무릉도를 도연명의 무릉도원에서 따온 이상향을 일컫는 이름으로 육지에서 울릉도를 부르던 이름이었지만 정작 울릉도에 사는 사람들은 다시 울릉도에서 아스라이 보이는 독도를 무릉도라고 불렀던 것이다”(동북아의 평화화를 위한 바른역사정립기회단, 2005, 『독도자료집 I』, 201쪽)라고 한 견해가 있다.

원도 平海 고을 사람 金乙之·李萬·金弔乙金 등이 무릉도에 도망가 살던 것을, 병신년에 국가에서 인우를 보내어 다 데리고 나왔다. 계묘년에 을지 등 남녀 28명이 다시 본디 섬에 도망가서 살면서 금년 5월에 을지 등 7인이 아내와 자식은 섬에 두고 작은 배를 타고 몰래 평해군 仇彌浦에 왔다가 발각되었다. 감사가 잡아 가두고 本郡에서 急報하여 곧 도로 데려 나오기로 하고서, 인우가 군인 50명을 거느리고 군기와 3개월 양식을 갖춘 다음 배를 타고 나셨다. 섬은 동해 가운데 있고, 인우는 三陟 사람이었다. (『세종실록』, 세종 7년 8월 갑술)

위 사료 D에서 “당초에 강원도 平海 고을 사람 金乙之·李萬·金弔乙金 등이 무릉도에 도망가 살던 것을, 병신년에 국가에서 인우를 보내어 다 데리고 나왔다”¹⁷⁾ 고 하였지만 ‘계묘년’, 즉 세종 5년(1423)에 다시 을지 등 남녀 28명이 가족을 이끌고 울릉도에 들어가 살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들의 존재가 알려진 것은 안무사의 파견 등에 의해서가 아니라 을지 등이 평해의 구미포에 왔다가 적발되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간 쇄출조처가 지속적으로 시행되지 못하였음을 말해 준다.

울릉도로 도망간 피역인들의 쇄출을 위해 김인우가 于山武陵等處按撫使가 되어 남녀 20인을 수색해 잡아왔다. 이때 세종은 “섬에는 별로 다른 산물도 없으니, 도망해 들어간 이유는 단순히 賦役을 모면하려 한 것이로구나” 하였다. 이때 배 한 척이 표류하여 일본에 떠내려갔다가 간신히 돌아왔는데, 이들이 의사한줄 알고 초혼제를 지내기까지 하였다.¹⁸⁾ 그런데도 태종 때와는 달리 이때

17) 사료 D에서 울릉도민을 ‘다 데리고 나온’ 것은 ‘병신년’이라고 하였는데, ‘병신년’은 태종 16년(1416)이다. 그해의 경우 김인우와 이만을 따라 나온 사람은 단 세 사람에게 불과하다(주 14 사료 참조). 따라서 이때의 병신년은 잘못된 것이고 그 이듬해인 ‘정유년(1417)’, 즉 태종 17년이라고 할 수 있다.

18) 이때의 울릉거민의 쇄출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① 于山武陵等處按撫使 김인우가 本島의 避役한 남녀 20인을 수색해 잡아와 복명하였다. 처음 인우가 병선 두 척을 거느리고 무릉도에 들어갔다가 船軍 46명이 탄 배 한 척이 바람을 만나 간 곳을 몰랐다. 임금이 여러 대신들에게 이르기를, “인우가 20여 인을 잡아왔으나 40여 인을 잃었으니 무엇이 유익하나. 이 섬에는 별로 다

에는 왜구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점이 주목된다. 세종 1년(1419) 李從茂 등의 대마도 정벌 이후 왜구에 대한 위협이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왜구에 대한 위협이 감소한 상황에서 울릉도에 별다른 산물이 나지 않고, 피역해 울릉도에 들어간 사람들을 쇄출하기 위해 안무사 등을 파견하기에는 풍랑 등에 따른 피해가 크다고 생각하였는지 모르지만 한동안 울릉도에 대한 조치는 사료에 보이지 않는다.

사료 A~D에서 보다시피 ‘空島政策’이란 용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사료에는 ‘본토에서 피역을 위해 울릉도로 들어간 사람들을 ‘刷出’, ‘刷還’하는 조치가 있었을 뿐이다. 그 조치 또한 일시적이고 단발적인 조치에 불과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의 정책으로서 일관성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도 ‘피역인’을 육지로 ‘쇄환’, ‘쇄출’하는 조치를 비판 없이 공도정책이라고 불러 울릉도가 빈 땅, 버려진 땅이란 그릇된 인식을 낳아 우리의 영토가 아니라는 주장을 가져오게끔 하는 빌미를 제공하였다.

태종 16~17년, 그리고 세종 7년의 울릉거민의 쇄환의 주창자이면서 담당자인 안무사 김인우가 역사의 무대에 사라진 후 세종 18년에 울릉도에 대한 치

른 산물도 없으니, 도망해 들어간 이유는 단순히 賦役을 모면하려 한 것이로구나” 하였다. 예조참판 金自知가 계하기를, “지금 잡아온 도망한 백성을 법대로 논죄하기를 청합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사람들은 몰래 타국을 따른 것이 아니요, 또 赦免令 이전에 범한 것이니 새로 죄주는 것은 불가하다”하고, 곧 병조에 명하여 충청도의 깊고 먼 산중 고을로 보내어 다시 도망하지 못하게 하고, 3년 동안 復戶하게 하였다. (『세종실록』, 세종 7년 10월 을유)

② 于山茂陵等處按撫使 김인우에게 겨울 옷 두 벌과 갓·신을 하사하고, 伴人 金加勿에게는 겹옷 한 벌과 갓·신을 하사하였다. (『세종실록』, 세종 7년 10월 신묘)

③ 예조와 호조에 傳旨하여, 茂陵島에 들어갈 때 배가 깨어져서 사망한 강원도 水軍의 招魂祭를 지내게 하고, 致祭하고 致贖하게 하였다. 金麟雨가 일본으로 漂流하였다고 말하였는데, 임금이 배가 깨어진 것이라 생각하였기 때문에 이 명령이 있는 것이다. (『세종실록』, 세종 7년 11월 을묘)

④ 茂陵島에 들어갈 때 바람에 표류하였던 水軍인 平海 사람 張乙夫 등이 일본국으로부터 돌아와서 말하기를, “처음에 수군 46인이 한 배에 타고 安撫使 김인우를 수행하여 무릉도를 향해 갔다가, 갑자기 태풍이 일어나 배가 부서지면서 같은 배에 탔던 36인은 다 익사하고, 우리들 10인은 작은 배에 옮겨 타서 표류하여 일본국 石見洲의 長濱에 이르렀습니다.” (『世宗實錄』, 세종 7년 12월 계사)

읍 주장이 강원 감사 柳季聞에 의해 다시 제기되었다.

E-1. 강원도 감사 柳季聞이 아뢰기를, “武陵島 牛山은 토지가 비옥하고 산물도 많사오며, 동·서·남·북으로 각각 50여 리 沿海의 사면에 石壁이 둘러 있고, 또 선척이 정박할 만한 곳도 있사오니, 청컨대 인민을 모집하여 이를 채우고, 인하여 萬戶와 守畝를 두게 되면 실로 장구지책이 될 것입니다.” 하였으나, 윤희하지 아니 하였다. (『세종실록』, 세종 18년 윤6월 19일)

2. 강원도 감사 柳季聞에게 전지하기를, “지난 병진년 가을에 경이 아뢰기를, 茂陵島는 토지가 기름져서 곡식의 소출이 육지보다 10배나 되고, 또 산물이 많으니 마땅히 縣을 설치하여 수령을 두어서 영동의 울타리를 삼아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곧 대신으로 하여금 여러 사람과 의논하게 하였더니, 모두 말하기를, ‘이 섬은 육지에서 멀고 바람과 파도가 매우 심하여 헤아릴 수 없는 환난을 겪을 것이니, 군현을 설치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그러므로 아직 그 일을 정지하였더니 경이 이제 또 아뢰기를, ‘古老들에게 들으니 옛날에 왜노들이 와서 거주하면서 여러 해를 두고 침략하여, 嶺東이 빈 것 같았다’고 하였다. 내가 또한 생각하건대, 옛날에 왜노들이 날뛰어 대마도에 살면서도 오히려 영동을 침략하여 함길도에까지 이르렀었는데, 무릉도에 사람이 없는 지가 오래니, 이제 만일 왜노들이 먼저 점거한다면 장래의 근심을 또한 알 수 없다. 현을 신설하고 수령을 두어 백성을 옮겨 채우는 것은 사세로 보아 어려우니, 매년 사람을 보내어 섬 안을 탐색하거나, 혹은 토산물을 채취하고, 혹은 말의 목장을 만들면, 왜노들도 대국의 땅이라고 생각하여 반드시 몰래 점거할 생각을 내지 않을 것이다. 옛날에 왜노들이 와서 산 때는 어느 시대이며, 소위 고로라고 하는 사람은 몇 사람이나 되며, 만일 사람을 보내려고 하면 바람과 파도가 순조로운 때가 어느 달이며, 들어갈 때에 장비할 물건과 배의 수효를 자세히 조사하여 아뢰라” 하였다. (『세종실록』, 세종19년 2월 무진)

강원도 감사 유계문이 울릉도는 토지가 비옥하고 산출이 많음을 들어 백성

을 모집해서 울릉도에 거주시키고 置邑하여 만호와 수령을 두어 영동의 울타리로 삼자는 주장을 세종 18년(1436) 윤6월에 올렸으나 “육지에서 멀고 바람과 파도가 매우 심하여 헤아릴 수 없는 환난을 겪을 것이니, 군현을 설치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는 조정대신의 주장에 따라 세종이 이를 윤허하지 않았다. 아마도 태종 16~17년, 세종 7년에 있었던 김인우의 울릉도거민의 쇄출이 바람과 파도로 말미암아 환난을 겪었던 전철에 근거하여 반대가 심했기 때문 일 것이다.

이듬해 2월 유계문은 “古老들에게 들으니 옛날에 왜노들이 와서 거주하면서 여러 해를 두고 침략하여, 영동이 빈 것 같았다”는 이유를 들어 재차 치음을 주장하였다. 세종은 이에 대해 “현을 신설하고 수령을 두어 백성을 옮겨 채우는 것은 사세로 보아 어려우니, 매년 사람을 보내어 섬 안을 탐색하거나, 혹은 토산물을 채취하고, 혹은 말의 목장을 만들면, 왜노들도 대국의 땅이라고 생각하여 반드시 몰래 점거할 생각을 내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만일 사람을 보내려고 하면 바람과 파도가 순조로운 때가 어느 달이며, 들어갈 때에 장비할 물건과 배의 수효를 자세히 조사하여 아뢰라”고 하였다. 비록 세종이 치음을 허용하지 않았지만 “매년 사람을 보내어 섬 안을 탐색하거나, 혹은 토산물을 채취하고, 혹은 말의 목장을 만들어” 일본으로 하여금 우리의 땅임을 인식시키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듬해인 세종 20년(1438) 4월에 茂陵島巡審敬差官을 파견한 것은 그에 따른 후속조처였다.¹⁹⁾

19) 순심경차관의 파견에 관해서는 다음의 사료에 확인된다.

“前 護軍 南 와 前 副司直 曹敏이 茂陵島巡審敬差官으로 삼았다. 두 사람은 강원도 해변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이때 국가에서는 무릉도가 海中에 있는데, 이상한 물건이 많이 나고 토지도 비옥하여 살기에 좋다고 하므로, 사람을 보내 찾아보려 해도 사람을 얻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이에 해변에서 이를 모집하니, 이 두 사람이 응모하므로 멀리서 경차관의 임명을 주어 보내고, 이에 도망해 숨은 인구도 탐문하여 조사하도록 한 것이었다.” (『세종실록』, 세종 20년 4월 갑술)

“護軍 南 와 司直 曹敏이 茂陵島에서 돌아와 복명하고, 포획한 남녀 모두 66명과 거기서 산출되는 沙鐵·石鍾乳·生鮑·大竹 등의 산물을 바치고, 인하여 아뢰기를, 「發船한 지 하루 낮과 하루 밤 만에 비로소 도착하여 날이 밝기 전에 인가를 掩襲하온즉, 항거하는 자가 없었고, 모두가 본군 사람이었으며, 스스로 말하기를, ‘이

세종조 4군 6진의 개척과 더불어 함길도에 강원, 충청, 경상도의 민호를 대거 사민시키는 정책이 전개되었는데, 세종 18년에 흉년이 들어서 충청, 경상도민의 사민에 대한 조치는 반감된 데 반해 강원도의 경우는 당초 예정액에 따라 사민토록 하였고,²⁰⁾ 호구조사 역시 철저하게 시행되었다.²¹⁾ 이에 따른 강원도민의 피역인이 다른 지역보다 많았을 것이다. 그에 따라 울릉도로의 피역인이 늘어났고, 강원도 관찰사 유계문은 울릉도에 대한 치읍과 왜구에 대한 우려를 내세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을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태종 16~17년, 그리고 세종 7년의 쇄환·쇄출조치는 왜구 문제와 결부된 단발적인 조치에 불과하였다. 그렇지만 세종 18~20년의 논의 끝에 확정된 순심정책은 피역의 무리의 쇄환의 목적을 넘어서서 일본에게 ‘울릉도·독도가 우리 땅’임을 인식하게 하는 의도를 갖고 시행된 정책이었다는 점이다. 세종이 매년 사람을 보낼 뜻을 천명했지만 항례적이고 규칙적인 울릉도 巡審政策이 시행된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강원 감사에 의

곳 토지가 비옥 풍요하다는 말을 듣고 몇 년 전 봄에 몰래 도망해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섬은 사면이 모두 돌로 되어 있고, 잡목과 대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었으며, 서쪽 한 곳에 선박이 정박할 만하였고, 동서는 하루의 路程이고 남북은 하루 반의 노정이었습니다. 하였다.”(『세종실록』, 20년 7월 무술)

20) 『세종실록』 권75, 세종 18년 10월 16일(무인) ; 『세종실록』 권76, 세종 19년 1월 11일(신축)조 참조.

21) 『세종실록』 권74, 세종 18년 7월 9일(임인), “강원도 감사가 아뢰기를, 「이제 여러 道의 戶籍을 정하되, 50結 이상은 大戶로, 20결 이상은 中戶로, 10결 이상은 小戶로, 5결 이상은 殘戶로, 5결 이하는 殘戶로 삼아, 이를 定式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이 도는 26고을의 民戶의 합계가 1만 1천 5백 38호인데, 그중에서 대호가 10호, 중호가 76호, 소호가 1천 6백 41호, 잔호가 2천 43호, 잔잔호가 7천 7백 73호로, 땅은 좁고 田地는 적사운데, 嶺西 지방은 山田에서 생산물이 正田보다 배나 되고, 嶺外에는 또 어업과 소금의 이익이 있사온즉, 만약 다른 도의 만든 호적의 기준에 의거하여 戶役을 나누어 배정한다면 다만 구실을 배정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노고와 安逸도 균등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부터 뒤로는 道内の 호적을 정하되, 20결 이하와 10결 이상으로써 中戶로 삼고, 6결 이상으로써 小戶로 삼고, 4결 이상으로써 殘戶로 삼고, 3결 이하로써 殘戶로 삼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이 얼마 후 호구조정리가 제대로 되지 못한 폐단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보아(『세종실록』 권75, 세종 18년 11월 13일) 울릉도에 대한 ‘피역인’ 문제를 거론하며 置邑보다는 그들을 쇄출하게 한 것은 어찌면 당연한 귀결이었을 것이다.

한 울릉도·독도에 대한 巡審은 나름대로 행해졌을 것이다. 그것이 『세종실록 지리지』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반영되어 나타난다.

『세종실록지리지』 강원도 삼척도호부 울진현에는 울릉도와 독도에 관한 사료가 처음으로 나온다. 이것을 살펴보기로 한다.

F. ①于山과 武陵 2섬이 (울진)현의 正東 海中에 있다. 「2섬이 서로 거리가 멀지 아니하여, 날씨가 맑으면 가히 바라볼 수 있다. 신라 때에 于山國, 또는 鬱陵島라 하였는데, 地方이 1백 리이며, 사람들이 지세가 험함을 믿고 복종하지 아니하므로, 智證王 12년에 異斯夫가 何瑟羅州 軍主가 되어 이르기를, “우산국 사람들은 어리석고 사나워서 위엄으로는 복종시키기 어려우니, 가히 계교로써 하리라”하고는, 나무로써 사나운 짐승을 많이 만들어서 여러 戰船에 나누어 싣고 그 나라에 가서 속여 말하기를, “너희들이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사나운 짐승을 놓아서 너희들을 잡아먹게 하리라” 하니, 그 나라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와서 항복하였다. 고려 太祖 13년에, 그 섬 사람들이 白吉土로 하여금 方物을 헌납하게 하였다. 毅宗 13년에 審察使 金柔立 등이 돌아와서 고하기를, “섬 가운데 큰 산이 있는데, 산꼭대기로부터 동쪽으로 바다에 이르기 1만여 보이며, 서쪽으로 가기 1만 3천여 보이며, 남쪽으로 가기 1만 5천여 보이며, 북쪽으로 가기 8천여 보이며, 촌락의 터가 7곳이 있고, 간혹 돌부처·쇠북·돌탑이 있으며, 멧미나리[柴胡]·蒿本·石南草 등이 많이 난다” 하였다. ②우리 太祖 때, 유리하는 백성들이 그 섬으로 도망하여 들어가는 자가 심히 많다 함을 듣고, 다시 三陟 사람 金麟雨를 명하여 安撫使를 삼아서 사람들을 刷出하여 그 땅을 비우게 하였는데, 인우가 말하기를, “땅이 비옥하고 대나무의 크기가 기둥 같으며, 쥐는 크기가 고양이 같고, 복숭아씨가 되[升]처럼 큰데, 모두 물건이 이와 같다” 하였다.」(『世宗實錄地理志』, 강원도 삼척 도호부 울진현)

여기에서 주목되는 사실은 고려시대의 경우 우산국 혹은 울릉도로서만 통칭되어 파악되던 것이 조선시대에 오면 독도, 즉 우산도가 하나의 독립 섬으로 간주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태종 16년, 김인우를 처음 울릉도에 파견할 당시

에는 ‘무릉등처안무사’라고만 하던 것이 그가 돌아온 후 ‘우산’, ‘무릉’ 두 개의 섬이 적시되어 『세종실록지리지』에 반영되어 나타난다. 태종~세종조의 울릉도에 대한 치읍논의와 쇄환조치, 그리고 순심정책이 진행되면서 두 섬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이루어질 수 있었을 것이다. 그것은 곧 조선왕조의 영토의식의 확산의 결과이며, 조선왕조에서 두 섬에 대해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있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울릉도에 비해 독도에 관한 기록은 왜 그렇게 적은가? 그것을 『세종실록지리지』 편찬의 저본인 『경상도지리지』 서문을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이에 따르면 “섬은 수륙의 원근과 입도농업인물의 유무를 기록(海中諸島水陸之遠近 入島農業人物之有無)”하였고, 또 총론에 나타난 서술구식에 의하면 “섬은 전에 살던 인민의 접거와 농작의 유무를 기록하도록 하였다(島中在前人民接居農作有無 開寫事)”고 하였다. 『세종실록지리지』의 울릉도·독도에 관한 언급을 살펴보면 이것에 입각하여 기록되었음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울릉도와 독도는 그것을 관장하고 있는 강원도 삼척도호부 울진현의 ‘海中諸島’의 하나, 즉 울진현의 속도로 명기하였다. 울진현으로부터 수륙의 원근에 관해 “우산과 무릉 두 섬이 (울진)현의 정동 쪽 바다 가운데에 있다”고 하고, “두 섬이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청명하면 가히 바라볼 수 있다”고 기록하였다. 이어서 연혁을 기록하면서 입도농업인물의 유무와 전에 살던 인민의 접거와 농작의 유무를 기록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편찬사목을 따라 기록해나가다 보면 울릉도에 관한 언급을 할 수밖에 없고 무인도였던 독도는 ‘수륙의 원근’만을 언급할 뿐 ‘입도농업인물의 유무’, ‘섬 가운데 전에 살던 인민의 접거와 농작유무’에 관한 기록이 있을 리 없기 때문에 이것을 언급하지 않았을 뿐이다.²²⁾

『세종실록지리지』에 비해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훨씬 많은 섬이 실리게 된다. 전라도 연안지역의 소속 도서의 경우 『세종실록지리지』(1432)에 27개의

22) 김호동, 2005, 「조선 초기 울릉도·독도에 대한 ‘공도정책’ 재검토」, 『민족문화논총』 32,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섬이 수록된 데 반해 『고려사』 지리지(1454)에는 60개로 늘어나고, 『동국여지승람』(1481)에 오면 무려 234개의 섬이 실리게 된다.²³⁾ 단순한 숫자상의 증가만이 아니라 섬에 대한 언급 또한 훨씬 구체적이고 상세하다. 이것을 울릉도·독도에 관한 내용을 통해 확인해 보기로 한다.

우산도·울릉도 「武陵이라고도 하고, 羽陵이라고도 한다. 두 섬이 고을 바로 동쪽 바다 가운데 있다. 세 봉우리가 곧게 솟아 하늘에 닿았는데 남쪽 봉우리가 약간 낮다. 바람과 날씨가 청명하면 봉 머리의 수목과 산 밑의 모래톱을 역력히 볼 수 있다. 순풍이면 이틀에 갈 수 있다. 일설에는 우산·울릉이 원래 한 섬으로서 지방이 백 리라고 한다.」(『신증동국여지승람』 권45, 울진현 산천)²⁴⁾

독도와 울릉도는 “울진현으로부터 정동쪽 바다 가운데 있다”는 본 읍에서의 방향이 우선 기재되었다. 그리고 “세 봉우리가 곧게 솟아 하늘에 닿았는데 남쪽 봉우리가 약간 낮다. 바람과 날씨가 청명하면 봉 머리의 수목과 산 밑의 모래톱을 역력히 볼 수 있다”는 내용은 『세종실록지리지』, 『고려사』 지리지의 “두 섬이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청명하면 가히 바라볼 수 있다”는 내용보다도 훨씬 구체적으로 울릉도에서 독도를 바라본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일각에서 이 자료가 독도를 그려낸 것 같지만, 뒤이어 나오는 기록, “순풍이면 이틀에 갈 수 있다”는 내용 때문에 이 기록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울진에서 울릉도를 묘사한 내용으로 치부해버리곤 한다. 그러나 『신증동국여지승람』의 토대가 되는 『속찬팔도지리지』의 편찬 과정에서 만들어진 『경상도속찬지리지』의 편찬사목의 경우, “해도의 경우 본 읍으로부터의 방향과 거리를 기록한다”고 하였으므로 이 기록은 “울진현으로부터 이틀이면 독도에 도착할 수 있다”

23) 김경옥, 2004, 앞의 책, 61~62쪽 참조.

24) 이 기록은 울진현 산천조에 실려 있다. 산천의 항목에 실린 것은 산천과 津, 串, 島, 嶼 등이다. 따라서 각 읍의 산천조에 실린 섬들은 해당 읍의 산천으로 간주되어 그 관할권이 해당 읍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울릉도는 물론 독도도 조선시대의 군현조직체계 속에 위치하는 우리나라의 영토임을 알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일설에는 우산 울릉이 원래 한 섬으로서 지방이 백 리라고 한다”는 기록은 『세종실록지리지』에서 “신라 때에 우산국, 또는 울릉도라 하였는데, 지방이 1백 리이다”라고 하여 우산국의 영역을 울릉도와 독도로 한 것을 달리 표현한 것이다. 이처럼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이전에 만들어진 지리지에 비해 독도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본 읍, 즉 울진과의 거리 등이 언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자국의 영토로서 간주하여 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음을 말하는 것이다.²⁵⁾ 세종 20년(1438) 무릉도순심경차관 파견 이후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순심이 지속적으로 행해지지 않았다면 이러한 결과는 없었을 것이다.

섬에 대한 조사가 이처럼 철저히 이루어지자 섬을 조선 강역의 경계로 삼고자 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록에 대마도를 동래현 산천조에 넣어서 “옛날에 계림(신라)에 예속되었는데, 어느 때부터 일본 사람들이 살게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하고, “이 섬이 해동 여러 섬들의 요충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고자 하는 자는 이곳 대마도주의 문서를 받아야만 올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을 보면²⁶⁾ 대마도를 일본의 경계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곧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확정하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세종실록지리지』에 처음으로 울릉도·독도가 실리게 되고, 또 『신증동국여지승람』에 훨씬 구체적이고도 상세하게 독도에 대한 언급이 이루어지고, 전자의 지리지에 비해 후자에 도서가 훨씬 많이 등재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은 물론 영토의식의 성장에 따른 결과이기도 하지만 보다 구체적인 요인은 어디에 있는가?

흔히들 조선시대는 ‘공도정책’에 따라 섬을 텅 비워둔 것으로 말한다. 공도정책에 따라 섬은 王化가 미치지 않는 버려진 땅으로 전락하였다고 한다. 그러한 인식과는 달리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5세기 지리지에는 지금까지 기록되지 않은 섬들이 기재되고, 해당 섬의 크기(둘레·넓이), 인구, 특산물, 유

25) 김호동, 2005, 앞의 글, 265~266쪽 참조.

26) 『신증동국여지승람』 권23, 동래현 산천조.

적·유물, 본 읍과의 거리 및 인접 섬과의 거리 등 다양한 내용이 언급되고 있다. 그것은 공도정책과는 달리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인 섬에 대한 조사가 시행되었음을 의미한다. 실제 세종조에 오면 중앙정부에서 섬에 대한 대대적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 목적은 군사의 비용 및 흉년을 대비하기 위한 등의 國用의 마련에 있다. 당시 중앙정부는 常賦 외에 자산으로 이용할 만한 것은 魚鹽만한 것이 없다고 여겨 敬差官을 각도에 보내어 소금 만들기에 적당하고 고기 잡기에 적당한 곳을 살피게 하였고,²⁷⁾ 전라도 관찰사에게 명하여 어떤 섬

27) 『세종실록』 권77, 세종19년 5월 경인, “호조에서 의정부에 보고하기를 「우리나라는 기름진 땅이 적고 메마른 땅이 많으며, 조세는 박하고 경비는 많은데, 또한 남쪽 오랑캐와 북쪽 오랑캐가 있어 가장 큰 근심이 되니, 그 교제하고 접대하는 비용과 변경 장수와 군사들에게 상주고 공급하는 비용이 적지 아니하며, 또 근년에 흉년으로 인하여 경중과 외방의 저축이 백성 구제하는 데에 다 말랐으니, 옛사람이 이르기를, 나라에 3년 저축이 없으면 나라는 자기의 나라가 아니라고 하였는데, 지금 창고의 저축이 경비에도 오히려 넉넉하지 못하니, 만약 군사의 일이 있든지 또는 흉년을 만나든지 하면 가히 한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옥이 생각하건대, 常賦 외에 자산으로 이용할 만한 것은 어염과 같은 것이 없으니, 어염은 농사일의 다음이라고 하나 농사일은 1년을 마치도록 수고로움이 있고, 거듭 부역에 괴로워하나 어염은 많은 시일과 재력을 허비하지 아니하여, 공력은 적고 이익은 많은데, 적은 세가 있는 외에는 다른 부역이 없기 때문에, 놓고 게으른 못된 무리들이 다투어 그 이익을 취합니다. 지금 바닷가에 있는 여러 도에 모두 어염의 이익이 있으나, 오직 원래 정한 監漢과 노는 무리들뿐이기 때문에, 바다가 둘러 있는 소금 만들기에 적당한 땅을 비우고 폐해 버린 것이 심히 많아서, 땅에 이익을 취하지 아니한 것이 있습니다. 漁梁·水梁에는 함길도와 강원도의 大口魚·연어·방어, 경상도의 대구어·청어, 전라도의 조기[石首魚]·청어, 충청도의 청어·잡어, 경기의 잡어·벤댕이[蘇魚], 황해도의 잡어·청어, 평안도의 조기·잡어 등은, 이것이 그 지방에서 생산하는 가장 많은 것이고, 또 다른 해산물로 이익을 취하는 것이 또한 많으니, 지금 보면 백성들이 농사를 버리고 바다에 이익을 취하는 자가 날마다 많으니, 만약 금하고 억제하지 않으면 장차 末利를 좇는 자가 많고 근본을 힘쓰는 자가 적을 것이니, 원컨대 청렴하고 삼가고 일에 근신한 수령을 골라서 경차관으로 삼아, 여러 도에 나누어 보내어서 소금 만들기에 적당하고 고기 잡기에 적당한 곳을 살피고 실행하게 하여, 예전에 만든 鹽所가 몇 곳, 새로 얻은 염소가 몇 곳, 예전에 만든 어수량이 몇 곳, 새로 얻은 어량·수량이 몇 곳인지 그 경계와 지역을 구획하고, 또 한 염소에 몇 사람을 쓰는 것과 쓰는 기구가 무엇 무엇이며, 한 어량과 한 수량에 각각 쓰는 사람이 몇 명이고, 소용되는 기구가 무슨 물건인지를 갖추어 아뢰게 하며, 인하여 원래 정한 염한·挾丁 및 각사의 貢奴婢와 근방 각 고을의 노자, 바닷가에 사는 백성으로 각 색 군호에 숨고 빠진 남은 장정과, 범죄한 徒役 등의 각항 사람을 추쇄하여 적당하

이 어디에 얼마나 분포하고 있는지, 이들 섬에 公私의 船隻이 왕래할 수 있는지, 섬과 섬의 거리는 얼마나 떨어져 있고, 이들 섬에서 생산되는 물산은 무엇이 있는지 상세히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하였다.²⁸⁾

섬이 국용의 한 몫을 담당할 수 있는 곳이라고 여기고 있는 마당에 섬을 텅 비워두는 공도정책이 국가의 정책이었다고 보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흔히 왜구 때문에 공도정책이 시행되었다고 말하는 남해현에는 태조 4년(1396)에,²⁹⁾ 진도에는 태종 14년(1414)에,³⁰⁾ 거제현에는 세종 4년(1422)에³¹⁾ 주민들

게 어량과 염소에 붙이되, 번을 나누어 사역시키고, 그 소출의 많고 적음에 따라 그 課額을 정하며, 진상할 魚物 및 司宰監에 바치는 물건 외에는 수를 갖추어 계문하여 國用에 資賴하게 하되, 만약 인력이 부족하면 어량·수량에는 관가의 힘으로 받드시 다할 것이 아니고, 관가에서 합해 쓰는 어량을 제외하고는, 원래 영업하던 사람에게 제 힘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을 허락하여 그 세만 거두고, 경차관을 그 어염에서 나오는 물건을 공정한 수량을 골라 맡겨서 백성에게 나누어 팔게 하되, 그 값은 미곡·布貨를 불구하고 時價에 비해 넉넉하게 주며, 뱃길이 통하는 곳은 운반하여 전매하되 거둔 미곡은 의창에 돌리고 포화는 국용으로 들이면, 흉년의 준비와 군국 비용을 거의 넉넉하게 할 것이고, 말리를 따르는 자도 그칠 것입니다”고 하니, 의정부에서 이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윗 항의 조건이 행하기 어려움이 많으나, 그러나 추수하기를 기다려서 경차관을 여러 도에 보내어, 소금 굵기에 적당하고 고기 잡기에 적당한 곳이 예전 곳이 몇 곳이고 새로이 정한 곳이 몇 곳이며, 소용되는 물건과 드는 사람의 수와, 일하기의 어렵고 쉬움과, 1년에 한 곳의 어염의 소출이 많고 적은 것 등을, 갖추 자세히 찾아 묻고 마련하여 아뢰게 한 뒤에 다시 논의하여 시행토록 하소서」 하므로, 그대로 따랐다.”

28) 『세종실록』 권104, 세종 26년 4월 병술.

29)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1, 경상도 남해현 성곽조, “정ियो의 기문에, 「남해현은 바다 북편에 있는 섬으로서, 진도·거제와 함께 솔밭처럼 우뚝하다. 토지가 비옥하고 물산이 번성하여 국가에 도움되는 것이 적지 아니하다. 그러나 그 지역이 왜국과 아주 가까워서, 경인년부터 왜적에게 침략을 당하기 시작하여, 붙들려 가기도 하고, 이사하기도 하여 군의 속현인 평산·난포가 쓸쓸하게 사람이 없었다. 8년이 지난 정유년에는 바다에서 육지로 나와, 진양 鎭川의 들판에 거처하였다. 그리하여 토지도 지키지 못하고, 공물과 부세도 바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우리 版圖에 기재된 재물과 부세가 나오는 곳이, 모두 풀이 무성한 사슴의 놀이터로 되어버렸고, 왜구들의 소굴이 된 지가 46년이였다. 그러나 계모가 있는 신화와 지략이 있는 장수의 빈틈없는 책략으로 선함을 수리하여 수전에 대비하고, 성과 해자를 설치하여서 수비를 엄하게 하니, 왜적의 기세가 떨치지 못하고 나날이 쇠하여졌다. 지금 임금의 즉위한 지 4년만에, 雨岫 任德秀를 등용하여 仇羅梁萬戶로 삼고, 겸하여 이 고을의 현령이 되게 하였다. 후가 와서는 계획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어서, 이로온 사

을 살게 하고 읍을 복구시켰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태종 17년, 그리고 세종 18~19년에 울릉도에 대한 置邑 논의가 전개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치읍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점, 그리고 울릉도의 경우 육지로부터 ‘피역인’들이 몰래 도망하여 들어갔다는 점 등이 고려되었던 것이다.

업을 일으키고 민폐를 없애니, 軍務가 정비되고 민사 또한 거행되었다. 그러나 지역이 좁고 험하여서 백성들이 옛날에 살던 곳을 생각하였다. 후가 이 말을 듣고 민중과 협의한 다음, 都觀察 陟使 崔有慶 공에게 사유를 갖추어서 조정에 알리도록 청하였다. 그리고 이웃 고을, 하동·사천·명주·고성·진해 등 다섯 고을 사람을 동원하여, 고현 외딴 섬 복판에 성을 쌓았는데, 돌로 포개어 견고하게 하고 해자를 파서 못을 만들었다. 2월에 일을 시작해서 3월에 준공하였다. 남해 백성들이 죄다 돌아와서 그 밭을 갈고 그 집을 꾸며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쉬며 즐기고 화락하였다. 물고기·소금·벼 따위 이익이 장차 지난날의 부유함을 회복하리니, 이에 기문이 없을 수 없다. 후가 나에게 편지를 보내어 기문을 청하였다. …… 하물며 이 고을은 남방의 훌륭한 지역으로서, 해산물의 풍족함과 토산물의 풍부함이 나라 쓰임에 꼭 필요한 것에 있어서이겠는가. 그리고 진도와 거제를 부흥하는 것도 기대할 수 있다. 지금 바다에는 쓸 만한 수군이 있고, 성곽에는 지킬 수 있는 樓와 櫓이 있으며, 주야로 조심하는 烽燧가 있으니, 흉악한 적을 방어하여 백성을 보호하는 것이 구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외딴 섬, 외로운 성에 외방의 구원이 없다 하여, 배개를 높이 베고 편하게 눕지 못한다고 누가 말할 것인가. 나는 장차 돛대를 두드리며 남해 터를 죄다 찾아다니고, 성루의 난간 위에서 술을 들며 국가에서 인재를 얻었음을 경하하리라.” 하였다.”

- 30) 『태종실록』 권27, 태종 14년 2월 경오, “知海珍郡事에게 명하여 軍民을 거느리고 다시 珍島 舊治에 들어가게 하였다. 珍島郡은 본래 南海 가운데 있었는데, 일찍이 왜구로 인하여 內地로 옮겼다가, 이제 (해변이) 평안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명령이 있었다.”
- 31)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2, 경상도 거제현 건치연혁조, “본래 바다 가운데 섬이다. 신라 文武王이 처음으로 囊郡을 설치하였고 景德王이 지금 명칭으로 고쳤다. 고려 顯宗이 縣을 두었고, 元宗 12년에는 왜구 때문에 땅을 버리고 居昌縣의 속현이었던 加祚縣에 寓居하였으며, 忠烈王 때에 管城과 병합하였다가 곧 혁파하였다. 본조 太宗 14년에는 거창과 병합하여 濟昌縣이라 부르다가 얼마 뒤에 또 파했고, 世宗 14년에 옛 섬으로 환원하여 知縣事로 만들었는데 그 뒤에 縣으로 고쳤다.”

Ⅲ. 조선 초기 군현 행정체계상의 울릉도·독도 관리정책

『세종실록지리지』나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우산·무릉 두 섬, 즉 독도와 울릉도에 관한 기록이 삼척도호부 울진현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양 지역이 삼척도호부 울진현 관할이었음을 말해 준다. 이것은 숙종조에 일본에 보낸 외교문서에서 “우리나라 강원도 울진현에 屬島가 있어 울릉이라 이름하는데 울진현의 동해 가운데 있다”³²⁾고 한 것에서 확인된다. 이처럼 조선왕조에서 울릉도·독도는 강원도의 삼척도호부 울진현의 속도로서 군현제의 틀 속에 엄연히 자리 잡고 있었다.

울릉도와 독도가 강원도 울진현의 속도로서, 강원 감사의 지휘·통제권에 있었지만 끝내 치음이 되지 못하고 쇠환조치 내지 순심정책의 틀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의 군현단위는 결코 아니다. 호적에 등재된 군현민도 없고 土貢도 없으므로 이를 관장할 主帥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피역을 위해 이곳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항상 있었다. 육지에서 울릉도로 도망해 들어간 避役人은 범법자들이기 때문에 쇠환의 대상이었다. 이들을 현지에 부적하고 주수를 파견하여 하나의 군현단위로 획정하거나 쇠출, 즉 쇠환하는 것은 울진 현령이나 강원도 감사의 소관업무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중앙정부의 일이다. 따라서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정책 결정권은 중앙정부의 소관업무에 속한다.

중앙정부는 울릉도의 파악, 쇠환정책의 실시 여부, 울릉거민의 쇠환을 위해서 별도의 관리를 파견하였는데, 그것이 안무사, 혹은 순심정차관이다. 안무사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걸쳐 존재하였다. 고려 현종 3년(1012)에 절도사제를 폐지하고 75도에 안무사를 파견한 기록이 안무사에 관한 최초의 기록이다. 75도 안무사는 1018년에 폐지되었으며, 예종 2년(1107)에 백성의 질고와 수령의 殿最를 살피는 것을 임무로 하는 안무사를 여러 도에 보냈다. 이때부터

32) 『숙종실록』 권27, 숙종 20년 8월 기유, “九萬改前日回書曰 弊邦江原道蔚珍縣 有屬島曰 在本縣東海中.”

안무사는 일이 생기면 파견하고 그 일이 끝나면 파하는 임시관직으로 되었다. 후기의 안무사는 지방에 민요와 같은 변란이 일어났을 때에 흔히 파견되었으며 지방군현의 유리하는 백성을 안집하는 것을 임무로 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전쟁이나 반란 직후 민심수습을 위하여 안무사가 많이 파견되었으며, 당하관 일 경우 안무어사로 불렸다. 울릉도·독도에 파견된 '우산무릉등처안무사' 역시 울릉도·독도와 관련된 사안이 있을 때 중앙정부에서 파견된 임시관직으로서, 주로 피역인 쇄환의 임무를 맡아보았음을 우산무릉등처안무사인 김인우의 태종~세종 연간의 활동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태종 16년 '무릉등처안무사'에 임명되었던 김인우는 울릉도 관할권을 가진 삼척도호부의 사람으로서, 전 만호였다. 만호는 고려와 조선시대 무관직의 하나이다. 고려 후기에 원나라의 영향을 받아 설치된 군사조직인 만호부의 무관직의 하나이다. 조선이 건국되면서 만호부는 모두 폐지된 듯하나 만호만이 그대로 남아 서반의 외관직으로 사용되었다. 만호는 본래 그가 통솔하여 다스리는 민호의 수에 따라 만호·천호·백호 등으로 불렸으나 차차 민호의 수와 관계없이 鎭將의 품계와 직책 등으로 변하였다. 지방의 경우 고려 고종 때 왜구의 침범이 잦아지고 또한 원나라와 함께 일본 정벌을 목적으로, 合浦·전라도 지역에 만호부를 두어 만호·천호 등으로 통솔하게 한 것이 처음이다. 일본 정벌이 실패한 이후에도 탐라·서경 등을 비롯한 외적의 침입이 예상되는 연해와 해도지역에 만호부를 설치하여 만호로 하여금 지휘, 감독하게 하였다. 조선 초기에는 각 도별로 수군절제사에 의해 騎船軍이 통할되고, 營鎭體制가 갖추어지면서 각 도의 要塞守禦處별로 군사조직이 편성됨에 따라 고려 이래로 두어온 만호에게 외침방어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조선 초기에는 북방족 등을 무마하기 위하여 야인들에게 명예직으로서의 만호직을 수여하기도 하였다. 초기의 만호는 3품관이었으며 부만호는 4품관이었다. 그러나 세조 4년(1458)에 영·진체제가 鎭管體制로 바뀌면서 각 도 연해안의 요해처나 북방내륙의 諸鎭에 同僉節制使·만호·節制都尉 등을 두어 그 진을 다스리게 하였다. 동점절제사와 절제도위 등은 대개 獨鎭이 아닌 경우에는 지방 수령이 겸했으나 만호만은 武將이 별도로 파견되어 사실상 일선 요해처의 전담 무장이

되었다. 『經國大典』에 법제화된 만호를 보면 경기도에 수군만호 5인을 비롯하여 충청도 3인, 경상도 19인, 전라도 15인, 황해도 6인, 강원도 4인, 영안도(함경도) 3인과 평안도에 兵馬萬戶 4인이 있었다. 따라서 삼척인 김인우는 만호로서 왜적의 방비를 위한 임무를 맡아보았기 때문에 울릉도에 관한 사정을 자세히 알 수 있었다.

경차관은 조선시대 중앙정부의 필요에 따라 특수임무를 띠고 지방에 파견된 관직이다. 경차관이 파견된 것은 태조 8년(1396) 8월 辛有定을 전라·경상·충청 지방의 왜구 소탕을 목적으로 파견한 것이 처음이다. 그 뒤 吳有權을 下三道에, 洪有龍·具成亮을 강원도와 충청도에 파견했는데, 이들의 임무는 왜구와의 전투 상황을 점검하고 병선의 허실을 조사하는 것이었다. 경차관은 태종 때부터 그 임무가 대폭 늘어나 국방·외교상의 업무, 재정·산업상의 업무, 賑濟·구황의 업무, 옥사·推刷의 업무 등이었다.³³⁾ 세종 20년의 무릉도 순심경차관에 전 호군 남희와 전 부사직 조민이 임명될 수 있었던 것은 강원도 해변에 거주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조선 전기에 울릉도에 파견된 안무사나 순심경차관, 그리고 그 일행은 울릉도 사정을 익히 아는 동해바닷가 사람이 자격요건이었다. 사료 B에서 보다시피 울릉도·독도에 김인우를 안무사를 파견할 때 '(강원)도 내의 수군 만호와 천호 중 유능한 자를 선간하여 같이 가도록 한 조처'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다. 김인우의 경우는 특히 무릉, 즉 울릉도에 들어간 적이 있었던 삼척인 이만을 통해 울릉도에 관한 사정을 소상하게 파악하였다고 볼 수 있다.

김인우가 우산·무릉등처를 안무하러 갈 때인 태종 16년에는 반인 이만과 더불어 병선 2척, 抄工 2명, 引海 2명, 화통과 화약, 양식이 지급되었고, 그 이듬해 입도시에도 강원도 관찰사에게 명하여 병선 2척을 주고 도내의 수군 만호와 천호 중 유능한 자를 가려 뽑아 같이 가도록 하였다. 또 세종 7년의 입도시에는 반인 김가물, 수군 50명, 군기와 3개월 양식을 배 2척에 싣고 떠났다. 그런데 이때에 징발된 군인과 군기, 양식 등의 소요경비는 울릉도·독도가 강

33) 한국학중앙연구원, 『민족문화대백과사전』, 안무사·만호·경차관조.

원도에 예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강원도의 부담이었다. 그 구체적 부담을 성종 조 ‘三峰島 搜討’에 관한 병조의 절목을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G. 병조에서 아뢰기를, 전에 傳敎를 받으니, “강원도의 海中에 三峯島가 있는데, ‘오는 임진년 봄에 사람을 보내어 찾겠으니, 그 節目을 상의하여 아뢰라’ 하였으므로, 이제 행해야 할 사건을 조목으로 기록하여 아뢰니다.

1. 哨馬船 4척에 각각 군인 40명을 정하되, 본도 군사외 武才가 있는 자와 자원하여 응모한 사람 17명을 가려서 충당하게 하소서.

1. 蒿工은 본도 수군에서 行船에 익숙한 자를 가려 수효를 헤아려서 나누어 정하게 하소서.

1. 조경 신하 가운데서 문무의 재질을 겸한 자 한 사람을 뽑아서 敬差官으로 삼게 하소서.

1. 形名과 軍기·화포는 본도의 삼척·울진·평해 등의 官所에 소장한 것으로써 가려 주게 하소서.

1. 船上의 軍糧은 본도 관찰사로 하여금 인원수와 갔다 돌아오는 날 짜를 계산하여 울진 창고의 곡식으로써 주게 하소서.

1. 군사 중에 「삼봉도」를 찾아내는 데 공로가 있는 자는 경차관으로 하여금 등급을 매겨서 아뢰게 하소서.

1. 바람이 잔잔한 4월 그믐 때를 기다려서 출발하게 하소서.

1. 富寧 사람 金漢京이 「삼봉도」가 있는 곳을 알고 있으니, 함께 들 여보내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성종 3년 2월 경오)

앞의 사료 C와 G를 결부시켜 볼 때 울릉 주민의 쇄환을 위한 안무사의 파견의 경우에도 軍기·화포는 강원도의 삼척·울진·평해 등의 관소에 소장한 것에서 충당하였고, 軍糧은 강원도 관찰사로 하여금 인원수와 갔다 돌아오는 날 짜를 계산하여 울진 창고의 곡식으로 주게 하였을 것이다.

강원도민들이 부역을 피해 울릉도로 들어가게 되자 부역인구의 감소, 그리고 이들에 대한 쇄환비용의 부담이 강원도에 부가되었다. 결국 강원도 감사인 유계문은 치읍하여 수령을 두어 이들에 대해 공부를 부과함으로써 세수의 증

대를 도모함은 물론 자도민의 피역현상과 그 쇄환비용을 동시에 해소시키고자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주장의 표면적 이유는 어디까지나 왜구에 대한 방비로 돌려졌던 것이다.

IV. 맺음말

본고는 울릉도·독도에 대한 공도정책이 시행되었다는 그간 학계의 주장을 비판하고, 조선 태종 16~17년, 그리고 세종 18~19년 사이에 거론된 치읍 논의를 주목하고, 그러한 논의의 과정에서 울릉도에 들어간 사람들이 ‘피역의 무리’라는 인식하에서 본토로의 쇄환, 혹은 쇄출조치를 위한 안무사, 혹은 순심경차관의 파견에 의미를 부여하였다. 특히 세종 19년에 치읍 논의 때, “현을 신설하고 수령을 두어 백성을 옮겨 채우는 것은 사세로 보아 어려우니, 매년 사람을 보내어 섬 안을 탐색하거나, 혹은 토산물을 채취하고, 혹은 말의 목장을 만들면, 왜노들도 대국의 땅이라고 생각하여 반드시 몰래 점거할 생각을 내지 않을 것이다”라고 한 세종의 견해를 부각시키고, 이에 의거해 이듬해 ‘巡審敬差官’을 파견하였다고 한 것에 주목하여 ‘空島政策’이란 용어 대신에 조선 왕조의 통치력의 구현이 잘 드러나는 ‘巡審政策’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나아가 ‘우산무릉등치안무사’ 등에 주목하여 안무와 순심정책의 대상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포함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조선 초 『세종실록지리지』 등의 문헌에 울릉도와 독도가 명기되어 있음을 주목하였다. 따라서 조선 초기 군현 행정체계상의 울릉도·독도 관리정책이라는 제목하에 안무사와 순심경차관의 파견 때 울릉도와 독도를 소관하고 있는 강원도, 그리고 삼척도호부의 소관 군현, 삼척·울진·평해 등의 군현이 그 인적·물적 부담을 지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상과 같은 필자의 주장에 대해 본 논문을 심사한 심사위원들이 다음과

같은 지적을 하였다. 첫째, 우산도가 독도임을 입증치 않고 우산도는 독도라는 선입견에 따라 무비판적으로 작성하였고, 둘째, 지리지 기술 규칙에 따라 우산도(독도)에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기술 내용이 없다면 왜 우산도를 무릉도보다 우선하여 앞에 썼는지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고, 마찬가지로 『신증동국여지승람』의 ‘三峰炭業撐空’을 독도에 대한 설명이라고 기술한 것에 대해서도 같은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우선 첫째, 우산도가 독도임을 입증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필자는 그간 독도에 관한 몇 편의 글을 통해 『세종실록지리지』에서 ‘두 섬이 날씨가 청명하면 서로 보인다고 한 기록’이 오랜 세월 동안 독도와 울릉도 양쪽에서 부단히 서로 보면서 그것을 알게 된 체험의 축적으로서, 독도가 울릉도민, 나아가 우리나라 동·남해 어민들의 삶의 터전으로 계속적으로 이용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 글의 경우 한정된 지면상 이에 대한 내용은 생략하였던 것이다. 그렇지만 심사평의 견해를 받아들여 본문에서 “태종 16년(1416) 9월에 김인우를 무릉등처안무사로 파견하는 것을 결정하는 논의에서, 또 하나 주목되는 사실은 울릉도에 직접 도망해 살았던 이만을 통해 중앙정부는 박습이 지적한 울릉도 옆의 ‘작은 섬(小島)’, 즉 독도의 존재에 대해 분명히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 김인우를 ‘무릉도안무사’가 아닌 ‘무릉등처안무사’로 파견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김인우가 태종 17년 2월 울릉도에서 돌아온 6개월 후인 8월에 왜적이 우산·무릉을 구락하였다고 적시한 기록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점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이때 우산도, 즉 독도에 대한 내용이 새로 알려지면서 생소하고, 또 동쪽 국경의 최동단부에 해당하는 독도의 명칭, 즉 우산도란 명칭이 먼저 나오지 않았을까 한다. 그렇다고 할 경우, 지리지 기술 규칙에 따라 우산도(독도)에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기술 내용이 없다면 왜 우산도를 무릉도보다 우선하여 앞에 썼는지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 또한 어느 정도 해명이 된 듯하다. 동쪽 국경의 최동단부인 우산도를 먼저 거론하고, 양 섬에서 서로 보인다는 점만을 거론하고, 무릉도, 즉 울릉도에 대한 지리지 기술 규칙에 의거해 그 자세한 기록을 남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심사평 가운데, 순심정책시 순심관이 독도에 갔는지? 가고자 하는 노력을 한 적이 있는지? 못 갔다면 왜 못 갔는지에 대한 고찰 없이 막연히 ‘울릉도·독도 관리정책’이라고 제목을 붙이고 있다고 하였는데, 『세종실록지리지』에서 “우산과 무릉 두 섬이 현의 정동쪽 바다 가운데에 있다”, “두 섬이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청명하면 가히 바라볼 수 있다”고 한 것을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경우,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산도·울릉도 「무릉(武陵)이라고도 하고, 우릉(羽陵)이라고도 한다. 두 섬이 고을 바로 동쪽 바다 가운데 있다. 세 봉우리가 곧게 솟아 하늘에 닿았는데 남쪽 봉우리가 약간 낮다. 바람과 날씨가 청명하면 봉 머리의 수목과 산 밑의 모래톱을 역력히 볼 수 있다. 순풍이면 이들에 갈 수 있다. 일설에는 우산·울릉이 원래 한 섬으로서 지방이 백 리라고 한다.」(『신증동국여지승람』 권45, 울진현 산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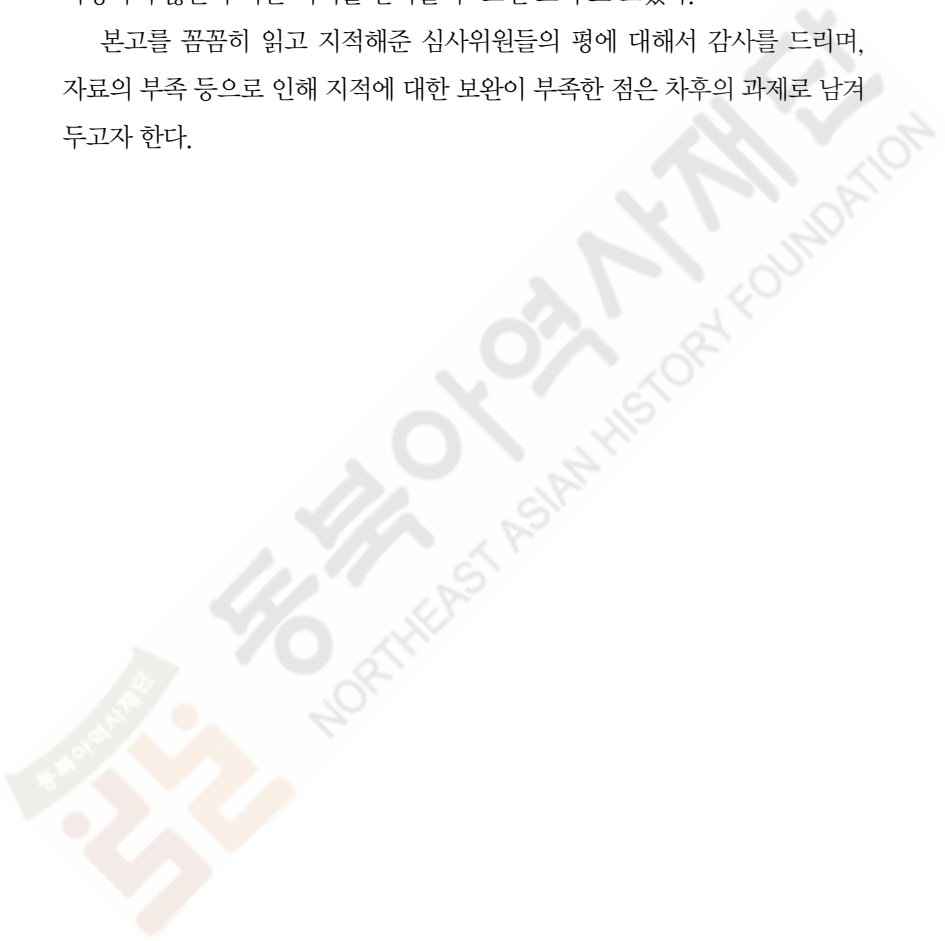
『세종실록지리지』의 ‘서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내용이 ‘일설에는 우산·울릉이 원래 한 섬으로서’라고 한 구절 앞에 있는 것으로 보아 울릉도에서 독도를 바라보고 설명한 것이나 독도에서 울릉도를 바라보고 설명한 기록 둘 중에 하나인 것만은 분명하다. 비록 순심관이 독도에 갔는지, 가고자 하는 노력을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직접적 자료는 아니지만 순심의 대상에는 우산도, 즉 독도가 포함되었음을 말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로 말미암아 『세종실록지리지』에 비해 『동국여지승람』에 보다 구체적인 독도에 대한 언급이 있고, 지리지에서 영토의 동쪽 경계에 해당하는 ‘독도’, 즉 ‘우산도’를 먼저 언급하여 자국의 영토로서 분명히 기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 심사평 가운데, “울릉도·독도 연구에서 이른바 ‘공도정책’은 출발점이나 다름없다. 『세종실록지리지』(또는 『동국여지승람』)의 ‘刷出空其地’와 『증보문헌비고』의 ‘其地遂空’이 그 빌미였다. 공도정책이란 용어가 마땅치는 않으나 ‘遂空其島’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로 남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필자의 경우 피역인에 대한 쇄출, 쇄환조치, 혹은 순심정책의 결과에 따라 ‘그 땅

이 비었다'고 보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빈 섬으로 두고자 하는 지향성을 가진 하나의 '정책'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당초 이 글의 제목을 '조선 전기'라고 하였는데, '조선 초기'라고 한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 하는 지적을 받아들여 '조선 초기'로 고쳤다.

본고를 꼼꼼히 읽고 지적해준 심사위원들의 평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자료의 부족 등으로 인해 지적에 대한 보완이 부족한 점은 차후의 과제로 남겨 두고자 한다.



[ABSTRACT]

Ulleungdo and Dokdo's management policies in the early Joseon period

Kim, Hodong

Ulleungdo and Dokdo belonged to the islets of Ulljinhyeon, Samsheokdohobu, Gangwondo in Joseon period. But there were no Gun and Hyeon people recorded in a census registration, no tribute, and no governor to manage. This is how people fled into Ulleungdo to avoid labor from the land were constantly happened. Under no defensive position, or defensive measures about Japanese invaders of circumstances, if the labor evaders fled into Ulleungdo were expanded, Japanese invaders were brought into the island. If the Japanese took the laborers to power resources, they would invade Gangwondo. To establish a counter plan about the labor evaders treatment of Ulleungdo and defensive measure to Japanese invaders, discussions of establishing Eup were in the 16th~17th year of King Taejong and in the 18th~19th year of King Sejong.

In the case of the 16th~17th year of King Taejong, the general situation was that Mureung residents weren't brought out(Swaechul), given the five grains and farming tools to settle down their livelihood. It would be good to send the governor and set the tribute. But if the government did that, the residents would escape to the other place because they fled into the island to avoid the labor. Because of this

contention, it was taken action of 'Swaechul' measure through the detachment of Anchalsa(a provincial governor). In the case of the 18th~19th year of King Sejong, Yugueman, who was a Kangwon inspector, insisted the town relocation two times. Chieup(the town relocation) wouldn't happen because of the public opinion. It was far from the land and there were severe wind and wave, Joseon would get through the numerous troubles. But King Sejong told that it would be difficult to establish Hyeon, place the local governor, and move and fill the people with the unavoidable circumstances. So if people were sent to search the inside of the island, or picked the local products, or made the horse ranches every year, Japanese invaders considered as the land of the great nation and they wouldn't think to check secretly. According to this, 'Sunsimgyeongchagwan' was dispatched next year.

Anmusa and Sunsimgyeongchagwan were sent to Ulleungdo, but there weren't permanently stationed local officials. There were two discussions to establish Eup, but it fell through at last. So the expenses of sending Anmusa and Sunsimgyeongchagwan were paid by Kangwondo which was under the jurisdiction of Ulleungdo and Uljinhyeon, Samcheokdohobu. When Kiminu as Usanmureng-dengecheon Anmusa was sent to Ullengdo, he ordered Kangwondo governor to give two warships and go with the selected man of ability between the Manho and Cheonho of naval forces within the province. The expenses of foragers, arms, and food were paid by Kangwondo because Ullengdo and Dokdo were subordinated to Kangwondo. Especially, weapons of war and fire arms supplied with the possession at the public office around Samcheok, Uljin, Pyeonghae in Kangwondo, provisions were filled up with grains of Uljin's

warehouse by Kangwondo governor figured out the total number of people and how many days it takes to come back.

Swaechul measure and Sunsim policy in the early of Joseon were the actions to confirm that 'Ulleungdo and Dokdo are our land'. To this, the government sent Anmusa and Sunsimyeongchagwan. And, establishing Eup didn't work in Ulleungdo, so there were no people recorded in a census registration, no tribute. Because lawbreakers fled into the island to avoid the labor from the land, 'Swaechul' measure carried out to impose the labor on them taking out to the mainland. As a result of this, Ullengdo just became the empty island. There are people who have wrong points of view that Ullengdo is the representative example, which the islands in Joseon period enforced 'Gongdo' policy, so, in principle, they were not the ruling objects which King management and protection reached, and also, they were eliminated the administrative formation.

keywords

Ulleungdo, Dokdo, the early Joseon period, Gangwondo, Samsheok-dohobu, Ulljinhyeon, Swaechul, Sunsim, Anmusa, Sunsimyeongchagwan

[연구윤리위원회 구성·운영 규칙]

제정 2007. 9. 21. 규칙 제19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를 제안, 수행하거나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등 연구의 진실성을 침해하는 다음의 행위를 말한다.
 - 1) '위조'라 함은 자료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 2) '변조'라 함은 연구와 관련된 자료, 과정 및 연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진실에 부합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및 연구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하거나 자신이 이미 발표한 연구결과를 적절한 인용 표시 없이 부당하게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연구부적절행위'(이하 '부적절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기타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당해 주장이나 증언에 반하는 사실을 간과한 자는 제보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4.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위원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5. '예비조사'라 함은 본 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보된 사실에 대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예비적인 사실 확인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6.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재단 소속의 연구자와 재단을 통하여 연구비를 지원 받은 자 및 재단 학술지에 원고를 게재한 자 등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3. 예비·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예비조사위원회, 조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5.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6. 조사결과의 처리, 후속조치 및 재심의의 처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1. 위원회는 사무총장, 제 1·2·3 연구실장, 법률자문관(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논총편집위원장이 수행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당연직 이외의 위원은 재단 부연구위원 이상의 연구직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연구직 직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 자를 간사로 한다.
5.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5조(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6조(제보 및 증거보전)

1. 제보자는 위원장에게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위원회는 제보에 대한 증거보전을 위하여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검증시효)

1.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2. 5년 이전의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라 하더라도 재단의 운영상의 장애를 초래하거나, 재단의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이를 조사할 수 있다.

제8조(예비조사위원회)

1. 위원회는 제6조 제1항에 의한 제보를 접수한 경우 예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3인 이내의 위원으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2. 예비조사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3.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 1) 제보내용이 부정행위와 부적절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 3) 제보일이 시효 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4.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9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1. 본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2.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착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3.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위원회의 구성)

1. 조사위원회는 5인 내지 7인의 조사위원으로 구성하며 당해 연구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3인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2. 조사위원으로 전문성과 객관성을 가진 외부 인사를 2인 이상 위촉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조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제11조(기피·제척·회피)

1.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 또는 조사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2. 당해 안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안전의 심의·의결 및 조사에 관여할 수 없다.
3.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위원 및 조사위원은 위원회에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4. 기피 또는 회피 신청에 대한 결정에 기피신청된 위원이나 회피신청한 위원은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조사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1.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피조사자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조사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조사위원회는 조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대상 연구와 연구자에게 부당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13조(진술 기회의 보장) 조사위원회는 혐의 사실에 대해 피조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4조(결과보고서의 제출)

1. 조사위원회는 조사 완료 후 10일 이내에 조사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 4) 관련 증거 및 증인
 -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주장 내용과 그에 대한 판단 및 처리결과
 - 6) 조사위원 명단

제15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1. 위원회는 재단 소속 연구자의 행위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는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승인한 때에는 이사장에게 징계 및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재단을 통하여 연구비를 지원 받은 자의 행위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는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승인한 때에는 이사장에게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하고 소속 기관장에게 조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연구윤리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 이사장에게 징계 또는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16조(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피조사자 및 제보자에게 통지한다.

제17조(재심의)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비밀유지의 의무 등)

1. 위원회와 조사위원회는 제보자를 보호하고 피조사자의 명예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 등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되 상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3. 위원, 조사위원,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이사장 및 관계 임직원은 심의·의결·조사 기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직을 그만둔 후에도 같다.

제19조(경비)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지침)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편집위원회 규정]

1. 편집위원회는 동북아역사 관련 고대·중세·근현대 연구 영역의 전문연구자로 구성하고,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2.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이중 위원장은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의 제1연구실장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타 연구실장이 수행한다. 편집위원장은 재단소속 편집위원 중 실무총괄 담당자를 임명한다.
 3. 편집위원의 유고 시 편집위원회는 차기 호 논문 심사가 있기 전에 새로운 편집위원을 선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1) 『동북아역사논총』(이하 논총)의 편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 2) 논총에 게재하기 위한 일체의 논문류에 대한 심사
 - 3) 논총 게재 기획논문, 자료소개, 서평, 설립 등에 대한 기획과 심사
 - 4) 기타 논총 관련 사업에 대한 기획과 심의
 5.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논총의 편집과 간행을 총괄한다.
 6. 재단 소속 편집위원은 논총의 편집과 간행에 따른 실무를 담당한다.
 7. 편집위원회는 논총 발간 전에 개최하고, 편집위원회의 진행절차는 편집 및 토의사항을 중심으로 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실무총괄 담당자는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참고자료 및 보고사항을 사전에 준비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 ※이 편집위원회 규정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편집위원회 규정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개최된 동북아역사논총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되었음.

[논총 간행 및 논문 심사 규정]

1. 논총에는 다음과 관련된 특집, 논문, 설림, 자료소개, 서평 등의 글을 게재한다.
 - 1) 한국사(문화) 및 동아시아사(문화)와 관련된 문제
 - 2) 독도 및 영토 관련 문제
 - 3) 본 재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논문
2. 논총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매년 4회 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원고를 다음과 같은 과정과 내용으로 심사한다.
 - 1)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모든 원고를 논문 제목, 형식요건, 원고분량의 적절성, 재단 목적에 대한 부합성 등을 기준으로 1차 심사하고, 참석 편집위원 과반수 통과 판정을 얻어 2차 심사에 회부한다.
 - 2) 편집위원회는 투고원고 중 논문류의 경우 편당 학계 전문가 3인의 심사자를 선정하여 2차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2차 심사 때에는 공정성을 위해 필자명을 반드시 지운 뒤 심사한다.
 - 3)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된 논문을 편집위원회의 정해진 양식에 따라 '수정 없이 게재(A)',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사(C)', '게재 불가(D)'의 네 등급으로 판정한 후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중 B·C등급의 경우 수정사항이, D등급의 경우에는 게재 불가 이유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 4) 편집위원회는 심사 통과 논문 편수가 논총의 일반적인 분량을 초과할 경우 편집위원회의 기획과 심사 성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 게재 순위를 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과 심사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일체를 대외비로 한다. 이외 투고자는 게재가 결정된 논문이라 할지라도 심사위원의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5.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투고자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보한다. 논문은 아래와 같은 항목에 의하여 심사한다.

- 1) 논문 제목의 적절성
- 2) 형식요건 및 체제의 정연성
- 3) 논리성 및 독창성
- 4) 학술적 가치
- 5) 인용자료의 적절성
- 6) 분량의 적절성
- 7) 요약문의 적절성

6. 편집위원회는 논총에 투고된 일체의 원고에 대해 심사 종료 후 돌려주지 않는다.

※이 심사규정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심사규정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음.

(논문 심사 내규)

1.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다음의 네 가지로 처리한다.

1) 게재 가 : 3인 모두 A로 판정한 경우 예 : (A, A, A)

2) 수정 후 게재 : 3인 모두 B 이상으로 판정한 경우 / 2인이 A로, 나머지 1인이 C로 판정한 경우

예 : (A, A, B) (A, B, B) (B, B, B) (A, A, C)

3) 수정 후 재심사 : 2인이 A와 B 이하로 판정하고 나머지 1인이 C로 판정한 경우 / 2인이 B 이상으로 판정하고 나머지 1인이 D로 판정한 경우 / 1인이 A나 B로 판정하고 2인이 C로 판정한 경우

예 : (A, B, C) (A, B, D) (B, B, C) (B, C, C) (A, C, C)

4) 게재 불가 : 2인 이상이 C나 D로 판정한 경우(A, C, C와 B, C, C는 제외) / 1인이 D로 판정하였는데 A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예 : (A, C, D) (A, D, D) (C, C, C) (B, B, D) (B, C, D) (C, C, D) (D, D, D)

5) 재심사 : 2인이 B 이상으로 판정하였는데 1인이 D로 판정한 경우, D 판정 1건에 대해서만 심사위원을 교체하여 재심사함.

2. 편집위원회는 논문 편수가 논총의 수록 분량을 초과하거나 또는 편집위원회의 기획상의 우선 순위 등의 사정에 따라 심사 통과 원고 가운데 일부를 필자의 양해하에 차기 호 또는 차차기 호에 실을 수 있다. 이 가운데 단순히 논총 수록 분량 초과만이 원인일 때에는 심사 성적 순위로 해당 호 게재를 결정한다.

3. 심사 결과 통보는 심사위원이나 과정을 대외비로 한 상태에서 심사 결과와 수정 제의 및 게재 불가 사유를 통보한다.

※이 심사 내규는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심사 내규를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음.

[투고 요령]

1. 동북아역사논총(이하 논총으로 약함)은 전문적인 학술지로서 논문, 설립, 서평, 자료소개 등이 게재된다. 투고하고자 하는 원고는 논총 발간 전 투고 신청서와 함께 동북아역사논총 편집위원회 앞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원고는 반드시 컴퓨터 파일로 작성하여야 한다. 원고 제출방식은 본문의 경우 동북아역사논총 대표메일(nonchong@historyfoundation.or.kr)로, 그림과 사진의 경우 심사용 각 3부를 동북아역사논총 편집위원회 앞으로 보내야 한다. 또한 최종 원고 제출 시 사진은 해상도 300dpi 이상으로 하여 별도 제출한다.
3. 원고분량은 200자 원고지 150장 내외를 기준으로 하되 충분한 논지 전개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70장가량 초과할 수 있다. 그림과 사진의 수량은 논지 전개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한다.
4. 원고는 제목, 필자(소속기관, 직위), 머리말, 본문, 맺음말, 영문초록, 영문주제어, 참고문헌(필요시)의 순서로 구성한다.
5. 논문의 목차와 소제목은 머리말로부터 순서에 따라 I>1>1)>(1)로 번호 매김을 한다.
6. 인용문헌은 가급적 각주로 표기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참고문헌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7. 각주에서 현대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필자”, “연도”, “논문”, “서책(출판사)”, “쪽수”의 순서로 한다. 앞서 인용한 문헌을 재인용할 때에는 바로 위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위의 글(책)”, “쪽수”의 순서로, 바로 위 이전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앞의 글(책)”, “쪽수”의 순서로 인용한다.

예) 동북인, 2006, 「동북아사와 동북문화에 대하여」, 『동북아역사논총』 1호, 1~10쪽.

동북인, 2006, 위(앞)의 글(책), 1~10쪽.

8. 각주에서 고중세 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작자(필요 시)”, “서책”, “편목”, “인용대문”의 순서로 한다. 이중 고중세문헌은 필요할 경우 판본명이나 영인본명을 밝힐 수 있고, 인용대문 중 전략 중략 후략 등은 “……”로 표기한다. 이외 본문 중의 인용문은 문장 가운데에 삽입되는 경우 “ ” 표시로 묶고, 인용문이 길어 문단을 나눌 경우에는 “ ” 표기 없이 서술한다.

예) 東北人, 『東北集』(東北文化社影印本). “東北有高士, 東北公賢齋鶴雍, 是人也”

9. 서양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책명은 이탤릭체, 논문은 큰따옴표로 표기하고 다음과 같은 순서와 방식으로 인용한다.

예) V. G. Childe, 1932, “Chronology of prehistoric Europe : a review,” *Antiquity* 6, pp. 206~212.

10. 참고문헌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본문의 인용처를 밝히고자 하는 곳에 괄호를 치고 그 안에 필자와 인용문헌의 간행연도 및 필요 시 인용쪽수를 표기한다.

예) (동북인, 2006 : 24)

※ 이 투고 요령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투고 요령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음.

前 北方史論叢

동북아역사논총 20호(2008. 6)

초판 1쇄 인쇄 2008년 6월 25일

초판 1쇄 발행 2008년 6월 30일

펴낸이 김용덕

펴낸곳 동북아역사재단

등록 제312-2004-050호(2004년 10월 18일)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77 인광빌딩

전화 02-2012-6065

팩스 02-2012-6175

ISSN 1975-7840

비매품

이 책의 출판권 및 저작권은 동북아역사재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어떤 형태나 어떤 방법으로도 무단전제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